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의 위원의 제척·기피 등에 관련된 내용과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의 회의록 공개 및 관리에 관련된 내용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법인의 상근·비상근 임직원 포함)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 위원께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
-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2조 제5호에 따라 해촉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4.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도 문화재위원회

동상물화재분과위원회 제3차 회의자료

- ▣ 회의일시 : 2021.6.10.(목) 14:0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참석위원 : 박정혜(위원장), 곽노봉, 권오영, 김문식.
김순희, 김태영(덕문), 박가영, 박은경,
이종민, 이해은, 임영애, 한경순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4건		비 고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1	보물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공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2	완주 송광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소조십육나한상 일괄	공개
3	울진 불영사 불연	공개
4	송시열 초상	공개
【검토사항】 10건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5	보물 고령 장기리 암각화	공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6	음식디미방	공개
7	수운잡방	공개
8	식료찬요	공개
9	예념미타도량참법 권1~5	공개
10	서울 영국사지 출토 의식공양구 일괄	공개
11	국새 대군주보	공개
12	국새 제고지보	공개
13	국새 칙명지보	공개
14	국새 대원수보	공개
【보고사항】 1건		
15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추진 분야별 소위원회 운영계획 보고	공개

심 의 사 항

I.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안건번호 동산 2021-03-001

1. 보물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求禮 華嚴寺 木造毘盧遮那三身佛坐像)

가. 심의사항

‘보물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의 국보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7년도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조사 대상으로 추천한(’17.7.5.)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조사(’21.2.19/3.10./3.25.)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 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2021년도 본 위원회 제2차 회의(’21.4.8.)에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21.4.28~’21.5.28.)하고, 국보 지정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보물 제1548호(2008.3.12. 지정)
- 명 칭 :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求禮 華嚴寺 木造毘盧遮那三身佛坐像)
- 소유자(관리자) : ①삼신불 : 대한불교조계종 화엄사
②복장유물 : 대한불교조계종 화엄사(화엄사성보박물관)
- 소재지 : ①삼신불: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2번지, 화엄사 대웅전
②복장유물 :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2번지, 화엄사성보박물관
- 수 량 : 불상 3구, 후령통 2건 일괄, 시주질 2건
- 규 격 : ① 비로자나불(본존): 전체높이 378.4cm, 불상높이 277.7cm, 무릎폭181.9cm,

- 무릎높이 47.5cm, 대좌 전체 높이 102.3cm 최대 폭 235.8x201.1cm
- ② 노사나불(좌) : 전체높이 367.9cm 불상높이 268.2cm, 무릎폭 175.2cm
무릎높이 40.9cm, 대좌 전체높이 99.7cm, 최대폭 221.7x196.2cm
- ③ 석가여래(우) : 전체높이 349.7cm, 불상높이 248.6cm, 무릎폭 172.8cm,
무릎높이 39.8cm, 대좌 전체높이 101.1cm, 최대폭 226.3cmx197.3cm
- ④ 복장유물 : 노사나불 시주질 25.4x246(19장), 석가여래 시주질 25.5x25.0(11장)
- ⑤ 후령통1(석가) 후신높이 11.0cm, 폭 6.4cm, 후개높이 3.5cm 폭 6.5 두께 0.1cm
- ⑥ 후령통2(노사나) 전체높이 15.0cm 폭 6.5cm ※사방경 등 수습유물은 본문참조

- 재 질 : 목조, 금속
- 조성연대 : 1635년(인조 13)
- 제작자 : 淸軒(淸憲), 應元, 印均, 法玄, 省根, 英蹟(英頤), 員澤, 善允, 天曉,
印熙, 尙義, 尙一, 智學, 雲密, 法密, 學浩, 懶欽, 善堅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화엄사 대웅전의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은 2008년에 보물 제1548호로 지정되었다. 당시에는 1697년에 간행된 『화엄사사적기』에 의거하여 ‘1636년 조각승 청헌, 영이, 인균, 응원 등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17세기의 대표적인 승려장인들이 공동으로 제작한 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17세기 전반의 중요한 기준작으로 평가받아 보물로 지정되었다. 보물 지정 이후 2015년과 2020년 노사나불과 석가불의 시주질을 비롯해 후령통, 각종 전적이 풍부하게 발견되었다. 특히 석

가불좌상에서는 11매, 노사나불좌상은 20매의 종으로 엮은 책 형태의 시주질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의 조성을 위해 모인 시주자 1320명의 명단이 빼곡이 적혀있어, 당시 이 삼신불을 조성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함께 마음을 모았는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화엄사 대웅전의 삼신불상은 제작 시기, 조각승, 후원자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상이나 양식적으로도 17세기의 기준이 되는 불상으로 그 의미는 매우 크다.

■ 17세기 대표화승인 청헌파와 응원·인균파의 합동작품

시주질을 통해 청헌파 6명, 응원·인균파 5명 등 총 18명이 참여한 작품이며, 수조각승인 청헌의 양식특징이 두드러져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청헌의 대표작이다. 2미터가 훨씬 넘는 큰 크기의 상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손상된 곳 없이 온전하게 잘 남아있다.

■ '보관을 쓴 노사나불좌상'이라는 특이한 사례

화엄사 불상은 조선 후기 삼신불 조각 가운데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석가불의 확실한 삼신불 형식이며, 유일한 보관형 노사나불좌상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 풍부한 문자 자료와 왕실의 후원

석가불좌상과 노사나불좌상에서 발견된 시주질은 내용은 거의 동일하며 불상복장 연구의 귀중한 자료이다. 특히 시주질에는 시주자들의 명단과 조성에 참여한 승려들의 명단과 직책이 기록되어있어 중요한 연구 자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대좌묵서명과 시주질을 통해 『화엄사사적기』와 현판의 제작시기로 추측한 1636년이라는 제작시기와 달리 노사나불좌상은 1634년, 비로자나불좌상과 석가불좌상은 1635년에 순차적으로 제작했음이 분명히 밝혀졌다. 의창군 이광과 동양위 신익성 및 상궁들이 참여한 불사로 특히 의창군 이광이 불상대시주자로 나오는 것을 보아 화엄사의 중건이 왕실 후원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밝혀져 조선 후기 불교와 왕실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화엄사 대웅전의 삼신불상은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청헌파와 응원·인균파가 동시에 참여하여 제작한 불상으로 조선 후기 불상 연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불상이다. 또한 정확한 편년과 참여 조각승들의 명단이 밝혀져 조선 후기 조각승 연구에 귀중한 시각 자료가 될 것이다.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은 『화엄사사적기』의 기록 및 복장 시주질 등 문자 자료가 잘 구비되어 있고, 작품의 완성도도 뛰어나며, 조각승 유파와 작품 양식 연구에 매우 중요한 학술 자료이므로, 국보로 승격하여 보존·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 (지정 가치 있음)

화엄사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은 올림과 내림연꽃을 갖춘 연화좌와 팔각의 목조대좌에 결가부좌의 자세로 앉아 있다. 삼신불은 법신 비로사나, 보신 노사나, 화신 석가불을 말하며 화엄사상에 근원을 둔 매우 귀중한 예로서 변상도나 사경, 불화에서는 많이 보이나 조각으로는 유일한 사례이다. 특히 보관을 쓴 노사나불이 조각으로 제작된 예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상에 대해서는 <화엄사사적>, 복장물에서 발견된 2건의 <시주질>, 목조대좌 내부에 쓰여진 <묵서기>를 통해 정확한 제작시기와 상을 만든 조각승 그리고 시주자 명단이 알려졌다. 이에 의하면 불사를 주도한 승려는 벽암각성이며 시주자에는 당시 왕실의 인물인 의창군 이광과 신익성이 참여하였음이 밝혀졌다. 이외에 승려 580여명을 포함한 1320명이 시주하였음이 밝혀졌다. 또한, 조각승은 청헌, 응원, 인균 등을 비롯한 18명이며 1634년에 시작하여 같은 해 8월 법당에 봉안되었음이 밝혀졌다. 이는 그동안 <화엄사사적>(1636년과 1697년 간행)을 토대로 1636년 조각승 청헌, 영이, 인균, 응원 등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승려장인들이 공동으로 제작하였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더욱 구체적이고 정확한 제작시기와 조각승, 시주자들이 밝혀진 점에서 중요성과 의미를 가진다.

화엄사 대웅전의 삼신불좌상은 거대한 상의 크기와 더불어 단순하면서도 굵게 표현된 옷주름 표현 등의 조각솜씨가 상의 중후한 느낌을 더해 준다. 삼신불상은 조각표현에서 특징적인 차이를 보인다. 이를 쓰여진 조각승들의 표현기법과 대조해 보면 비로자나불과 석가모니상의 근엄하고 경직된 표현은 하동 쌍계사의 목조삼세불상과(1639) 비슷한 점에서 청헌이 제작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노사나불상의 부드러운 얼굴에 작은 눈과 눈두덩의 밑이 좀 두터운 점 등은 인균과 응원의 작품으로 보인다.

당시 불사를 주관한 벽암각성은 임진왜란 이후 완주 송광사, 법주사, 화엄사, 쌍계사 등 전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사찰의 중창 불사를 주도한 승려로 유명하다. 또한, 중창불사시 당대 최고의 조각승을 협업으로 대형불상을 제작하였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화엄사 대웅전의 목조비로자나삼신불상으로 청헌과 응원, 인균을 중심으로 특색있는 불상을 완성하였다. 이후 벽암각성은 1639년 하동 쌍계사의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과 사보살입상을 청헌, 승일, 법현, 희장 등 역시 당대 최고의 조각승들과 협업하여 제작하는 등 17세기 대불사를 이끈 당대의 최고 승려라고 할 수 있다.

화엄사 대웅전 불상 제작에 참여한 당대의 최고 수조각승인 청헌과 응원, 인균은 서로의 최고적 기량을 발휘하여 완성하였고 이로 인해 이 시대 최고의 작품을 남겼다. 뿐만 아니라 삼신불이라는 새로운 도상과 280cm에 이르는 장대한 크기에서 17세기 목조불상 중 거대한 기념비적인 대작을 남긴 것이다. 이는 우수한 기술을 가

진 조각승들의 협업, 이를 주관한 벽암각성, 의창군 등 왕실의 후원이 합쳐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화엄사 대웅전의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은 내부에서 발견된 시주질 2건, 후령통 2건과 함께 국보로 승격하여 보존할 필요가 높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 화엄사 대웅전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은 상당량의 복장 유물이 이미 산실되어 불복장의 원래 상태를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삼신불상은 모두 1634년과 1635년에 걸쳐 조성된 후 중수된 적이 거의 없어서 17세기 전반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은 노사나불상의 대좌 밑면에 적힌 묵서명, 노사나불상과 석가모니불상에서 수습된 시주질을 통하여 조선시대 1634년부터 1635년 사이에 조각승 청현, 응원, 인균, 법현 등에 의해 조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불상들은 임진왜란 때 소실된 화엄사를 재건(1630-1636)하면서 대웅전에 봉안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서, 17세기 전반에 화엄사에서 이루어진 재건 불사의 분위기를 잘 보여 주고 있다.
-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은 조선 후기 불상을 주도했던 당시 최고의 조각승들이 협업과 분업에 의해 만든 것으로, 목조불상으로는 압도적인 크기와 수준 높은 조형을 갖추고 있어서 우리나라 불상 연구의 기준작으로서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다.
- 조선시대에 조성된 삼신불상 중에서 가장 분명한 “삼신불”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예이자 노사나불상이 보살형으로 표현된 유일한 예라는 점에서 매우 희소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 노사나불상의 대좌 묵서명에 기록된 “상주불(常住佛)”로서의 비로자나불상, 노사나불상, 석가모니불상을 화엄사 주불전인 대웅전에 봉안한 것은 조선 전기의 폐불 정책과 임진왜란 등 국난을 겪으면서 당시 불교계가 직면했던 위기 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위축된 조선의 불교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붓다가 항상 인간 세상에 머무르고 계신다는 것을 화엄 사상의 관점에서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다고 하겠다.
-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은 현존하는 17세기 목조 불상 중에서 가장 큰 예로서, 조성 배경을 알려 주는 다양한 기록과 수준높은 조형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불교계가 직면한 시대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승격하는데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은 한국불교미술사상 조각상으로 구현된 삼신불의 가장 완전한 사례로서 특히 삼신개념과 연관이 있는 화엄사에서 이러한 삼신불상이 조성되었다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근래에 노사나불상 및 석가모니불상에서 복장물이 발견되었고, 대좌 안쪽에서 묵서명이 발견되어 그간 사적기의 기록에 의해 확인된 조각승 및 조성연대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화엄사 비로자나삼신불좌상은 청헌을 필두로 영이, 인균, 응원 외에 여러 조각승이 참여한 사실과 이렇게 많은 조각승들이 참여한 덕분에 삼신불상의 조성이 승정7년 즉 1634년 3월~8월의 5개월 동안 비교적 빠른 시간에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대좌 안쪽 묵서명에는 청헌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응원(應圓)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공동작업에 참여한 청헌과 응원·인균은 서로 다른 조각유파에 속하는 조각승으로서 이처럼 서로 다른 유파가 한 작업에 참여한 독특한 이력을 지닌 불상이 조성된 것인데, 사적기에는 청헌이 먼저 기록되고, 묵서명에는 사적기의 응원(應元)과 한자는 다르지만 같은 인물로 추정되는 응원(應圓)이 먼저 기록된 것이 흥미롭다.

이러한 유파를 초월한 공동작업으로 인하여 화엄사 비로자나삼신불은 양식적으로도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존 비로자나불상 및 석가모니불상은 청헌의 스승인 현진의 작품이 엿보이며, 노사나불상은 응원의 작품이 배어있다. 특히 대좌 묵서명은 노사불상의 아래에 쓰여진 것이어서 전체 작업은 청헌이 주도했지만, 노사나불상은 응원이 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그 아래에는 응원이 맨 앞에 등장하는 묵서가 남겨진 것이 아닌가도 추정해볼 수 있겠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은 조각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것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조각상으로는 유일하게 완전한 삼신불의 도상을 갖추고 있고, 이러한 점이 화엄사의 사상적 성격을 더욱 부각시켜줄 뿐 아니라, 새롭게 조성 관련 묵서 및 시주질이 발견되어 조각승 및 제작연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된 점 등은 이 삼신불상의 의미를 더욱 증대시켜주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서로 다른 유파가 동원될 정도로 신속한 작업이 요구되었음에도 각각의 조각유파의 성격이 개성을 지니면서도 조화롭게 조각상에 반영된 점, 그리고 삼신불상의 위엄과 엄숙함이 효과적으로 드러난 뛰어난 예술성 등을 고려하여 국보로 승격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복장에서 수습된 시주질과 대좌의 묵서명은 <화엄사사적기> 내용을 한층 보완해 줄 뿐만 아니라 화엄사 삼신불상 조성에 참여한 수많은 인원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중요하다. 이는 조선후기 가장 중요한 사찰 불사 중 하나였던 화

업사 불상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자료가 확보된 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세세히 기록된 시주물목을 통해 당시 불상 제작에 사용되었던 재료, 개금, 안료, 복장 관련 용어 등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조선 후기 불상 제작 연구에 중요한 학술적 정보를 제공한다.

화엄사 삼신불상은 불교조각 작품으로 남아 있는 삼신불상 중 현재까지 신앙되고 있는 유일한 사례이다. 특히 시주질과 대좌의 목서를 통해, 비로, 노사나, 석가라는 존상명칭이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삼신불 도상연구에 절대적인 자료이다.

화엄사 삼신불상은 청현과 응원이라는 두 유파가 협력하여 제작한 불상이다. 청현유파는 역시 벽암각성이 주관한 보은 법주사 대웅보전 비로자나삼불상을 현진유파와 함께 조성하였고, 응원유파는 순천 송광사를 근거로 전라도 지역에서 크게 활동했던 조각유파이다. 특히 응원의 동료였던 인균은 벽암각성의 문도로서 벽암각성의 승군체계 속에 몸담고 있던 인물로 파악된다.

시주질 등장하는 주요인물로는 선조와 인빈김씨 사이의 소생인 의창군 이광 부부와 정숙옹주와 동양위 신익성 부부, 다수의 왕실 상궁들이다. 이들이 시주질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은 소소하게는 벽암각성과의 두터운 친분관계에서 비롯된 것이겠지만, 이 화엄사 불상 조성을 통해 국태민안과 왕실의 안녕, 선왕선후의 극락왕생, 모든 백성의 평온한 삶과 성불도를 왕실과 불교계가 합심하여 발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불상의 역사적 의의가 크다.

화엄사 삼신불상은 17세기 제작된 목불상 중에는 가장 규모가 크고, 삼신불의 도상도 대형조각으로는 드물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교조각사상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크고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불상이 보여주는 예술적, 조형적 감성도 조선 후기 불상 중에서 단연 돋보인다. 또한 조선후기 가장 중요한 불사 중 하나였던 자수사인수사의 도상복원에도 근거를 제공한다.

화엄사 삼신불상은 일습으로 조성된 불상 중에서는 조각유파의 개성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는 점도 조선후기 조각사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다. 간혹 중간에 결실되어 후대에 보강하는 경우는 있지만 조성당시부터 불교조각계의 두 거장을 집단을 초청하여 일관되고 통일된 양상을 보여줘야 할 주불전의 존상을 유파의 조각색깔을 마음껏 발휘하여 조성한 예로서는 유례가 없다. 이는 벽암각성이 추구했던 화엄사상이 삼신불상을 통해 발현된 것이 아닌가 생각 들기 때문에 불교미술사 해석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왜냐하면 청현파의 강직함과 응원파의 부드러움의 조화 통해 圓融無礙한 화엄사상을 구현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는 불상이라는 조형을 통해 모든 중생을 불교가 추구하는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이 상이 갖는 의미는 불교사상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사유로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시주질 2점, 후령통 2점 포

함)은 예술적인 측면, 역사적인 측면, 학술적인 측면 모든 방면에서 탁월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국보로 승격할만한 충분한 가치를 지녔다고 판단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국보로 지정

조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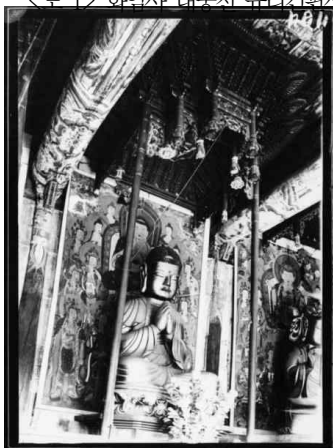
○ 현 상



<도 1> 화엄사 대웅전 유리건판사진(20세기 초)



<도 2> 화엄사 대웅전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도 3> 화엄사 대웅전 (1910년 촬영)

구례 화엄사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 3구의 목조불좌상이다(도1,2). 중앙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왼쪽(향우)에 노사나불, 오른쪽(향좌)에 석가불을 봉안한 삼신불좌상이다. 불좌상 3구의 크기는 대체로 비슷하지만, 중앙 비로자나불좌상이 가장 커 280cm이며, 석가불좌상은 245cm, 노사나불좌상 264.5cm이다. 좌우 협시불의 크기는 유사하나 노사나불좌상이 보관을 쓰고 있어 20cm 가량 더 크다. 2015년과 2020년 비로자나불상과 노사나불상에서 책자 형식의 시주질이 발견되었고, 불단 내의 묵서명이 발견되면서 화엄사 대웅전 삼신불좌상의 의미가 더욱 커졌다. 불상을 조각한 조각승

은 시주질과 『호남도구례현지리산대화엄사사적(湖南道求禮縣智異山大華嚴寺事蹟)』(이하 『화엄사사적기』)를 통해 청헌, 영이, 응원, 인균으로 알려졌으며 불상의 양

식에도 이들의 조각 특징이 나타난다. 『화엄사사적기』는 중관 해안(中觀海眼, 1567-?)이 1636년에 작성한 것이지만(표1의 ①), 현재는 ②와 ③만 남아있다(표1 참조).

분류	시 기	저자·간행자	제 목	비 고
① 원본	1636년	中觀海眼	『湖南道求禮縣智異山大華嚴寺事蹟』	1636년 집필, 판본의 저본
② 목판본	1697년	栢庵性聰	『湖南道求禮縣智異山大華嚴寺事蹟』	목판, 開刊 참가자 항목 추가
③ 필사본	1740년 이후	미상	『湖南道求禮縣智異山大華嚴寺事蹟』	최치원 찬 발원문 일부 추가

<표 1> 『화엄사사적기』 간행 내역

불좌상 3구는 손 모양과 가사 형식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유사하다(도4). 노사나불을 제외한 두 구의 공통 특징은 다음과 같다. 육계와 정상계주를 조성하고, 그 아래에 반달 모양의 중심계주를 두었다. 육계는 평퍼짐하여 육계의 모양이 드러나지 않는다. 노사나불 역시 장방형 얼굴에 뺨에 살이 통통하여 비로자나불과 석가불과 얼굴의 기본형은 같다(도5). 이목구비는 뚜렷하며, 눈은 가늘고 길며 눈 두덩이의 양감이 두드러진다. 특히 노사나불좌상은 양감이 더 뚜렷하다. 삼도는 목이 아닌 가슴 쪽으로 내려 음각선으로 표현하였는데, 이는 조선 후기 불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다.



<도 4>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도 5> 화엄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 상호

이처럼 3구의 상호는 기본적으로 같지만, 노사나불은 화려한 보관을 쓰고, 보관 안에 보살의 머리카락을 틀어 올린 보계(寶髻)가 있는 보살형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도4,5).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조선 후기의 삼신불상 가운데 노사나불을 이처럼 ‘보살형’의 조각상으로 표현한 사례는 화엄사 대웅전이 유일하다. 어깨는 불두에 비해 넓지는 않으며, 상체는 긴 편이다. 가부좌를 튼 다리가 상체보다 넓고 길어 전체적인 비례는 매우 안정적이다. 좌대와 불단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불단 내부로 들어가면 좌대의 밑면을 확인할 수 있다(도8).

1622년 현진조성	1626년 현진조성	1635년 청원조성
서울 지장암	보은 범주사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	소조비로자나불좌상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비로자나, 노사나, 석가로 구성된 3구의 불좌상은 손 모양이 모두 다르다. 중앙



〈도 7〉 화엄사 노사나불과 안성 칠장사 노사나불(1628년)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1626년 보은 법주사 소조비로자나불좌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도6). 비로자나불좌상 왼쪽의 노사나불좌상은 양손을 어깨높이까지 올린 설법인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설법인은 1628년 안성 칠장사 오불회괘불탱, 1664년 신원사 노사나불괘불탱 등 조선 후기 불화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조각상의 경우는 화엄사 노사나불좌상이 유일하다(도7). 석가불좌상은 왼손의 중지와 엄지를 살짝 맞대고, 오른손은 무릎 위에 얹은 축지인을 취하고 있다(도4).

대의는 3구 모두 차이가 있다. 중앙의 비로자나불좌상은 2장의 가사를 걸친 이중착의 형식인데, 가슴까지 들어 올린 양팔 안쪽으로 僧祇支(또는 僧脚崎)의 윗단이 보인다. 승기지 위에는 양어깨를 덮은 부견의(覆肩衣)를 착용했으며, 부견의 위에는 대의를 걸쳤다. 대의는 왼쪽 상반신과 팔을 감싸고, 어깨를 돌아 오른쪽 어깨를 살짝 휘감고 오른팔 아래를 지나 다시 왼쪽 어깨 너머로 넘겨졌다. 이러한 대의 형식은 기본적으로 편단우견(偏袒右肩) 형식에 해당하지만, 오른쪽 어깨의 일부를 덮고 있으므로, ‘변형 편단우견’이라고도 한다. 비로자나불좌상의 오른쪽에 앉은 석가모니불좌상은 부견의 없이 변형 편단우견의 대의만 걸쳤다. 노사나불의 대의는 통견 형식으로 대의를 걸치고 있어 앞의 두 불좌상과 차이가 있다.

노사나불좌상의 보관은 화려하게 장식되었는데, 연꽃, 불꽃, 구름 등으로 장식하고 정중앙에는 아래를 향한 봉황을 매달아 두었다. 동일한 봉황은 응원·인균이 조성한 1628년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의 보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봉황 아래에는 연꽃무늬와 구름무늬를, 보관 뒷면에는 넝쿨무늬와 국화꽃으로 화려하게 장식했다. 보관은 장식으로 가려져있는 부분까지 넝쿨무늬, 꽃무늬 등을 음각으로 새기고 빈 곳에는 어자문(魚子文)으로 채웠다.

3구는 유사해 보이지만 착의 형식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제작 집단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비로자나불좌상과 석가불좌상은 청헌과 영이가, 노사나불좌상은 응원, 인균이 주도적으로 조성했는데, 이는 화엄사 대응전의 목조비로자나삼신불

비로자나불좌상은 양 손을 모두 가슴까지 올려 오른손으로 왼손을 감싸 권지권인을 취했다. 왼손 검지를 오른손이 감싸 권일반적인 지권인이 아니라 손 전체를 감싼 이와 같

은 지권인은 현진·청헌파의 특징이다(도6). 현진·청헌파가 제작한 동일한 모양의 지권인은 1622년 서

좌상을 조성하기 위해 조선 후기 최고의 두 화파가 협업하여 제작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흥미로운 사실이다. 대좌는 양련과 복련이 맞붙어 있는 연화좌인데, 그 아래의 불단과 일체형으로 조성한 것도 매우 특이한 사례이다(도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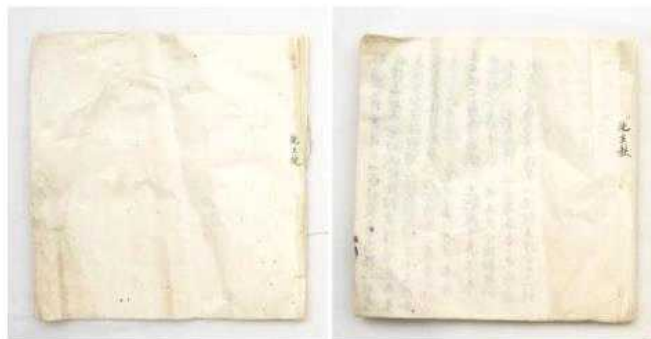
■ 복장물 구성



<도 8> 노사나불 불단 내부의 묵서명



<도 9> 노사나불 봉합목



<도 10> 석가모니불(왼쪽), 노사나불(오른쪽) 시주질

2015년과 2020년 5월 불상의 내부 복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석가불좌상과 노사나불좌상에서 복장 유물이 세상에 드러났다. 노사나불상 바닥의 복장공을 막았던 봉합목에는 불상명이 적혀있으며, 대좌 밑에도 묵서명이 발견되었다(도8과 9). 복장물은 무도 118건 185점이며, 구성은 후령통과 향 조각,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주질을 비롯한 경전과 다라니 등이 납입되어 있었다. 특히 시주질은 석가불좌상과 노사나불좌상에서 발견되었으며, 석가불좌상에서는 11매, 노사나불좌상은 20매의 종이를 엮은 책 형태이다(도10). 두 시주질 간의 내용 차이는 크지 않으나, 노사나불의 시주질에는 서문이 있으며 인물들의 기재 순서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화엄사사적기』에서 밝힌 조각승 청현·영이·응원·인균을 포함하여 법현(法玄), 성근(省根), 원택(員澤), 선원(善元), 천효(天曉), 인희(印熙), 상의(尙義), 상일(尙一), 지학(智學), 운밀(雲密), 법밀(法密), 학고(學沽), 나흠(懶欽), 선견(善見) 총 18명의 조각승이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시주자 명단에는 약 1320명의 시주자가 기록되어있으며, 책자 형태로 된 것도 매우 특별한 사례이다. 이 가운데 선조의

아들인 의창군 이광(義昌君 李珖, 1589-1645)과 사위인 동양위 신익성(申翊聖, 1588-1644), 상궁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화엄사 불상은 왕실 후원을 기반으로 했음을 알 수 있다. 의창군 이광의 글씨는 화엄사 대웅전과 일주문 편액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도11).



<도 11> 화엄사 일주문 편액
의창군 이광 필, 1636년

○ 내용 및 특징

화엄사 대웅전처럼 삼신불좌상으로 구성되어있는 조선 후기의 불상의 예는 1626년 보은 범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보물 제1360호), 1633년 고창 선운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보물 제1752호)을 비롯해 정확한 제작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조선 후기로 추정되는 경주 기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보물 제958호), 김제 귀신사 소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보물 제1516호), 삼척 영은사 석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이 있다. 모두 비로자나불이 주존인 삼신불이며, 재질은 화엄사 대웅전 불상을 제외하고는 모두 흙으로 만든 소조이다.

조선 후기에 하나의 공간에 3구의 불상을 봉안하는 삼불상의 형식이 크게 유행하는데, 가장 보편적인 구성은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하고 약사불과 아미타불을 협시로 두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화엄사 대웅전의 불상은 비로자나삼신불상이며 특히 협시불로 ‘보관형 노사나불’을 둔 경우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화엄사 대웅전의 불상이 유일하다.

<p>上來各各願隨喜施主與緣化丘等願以此功德普 及於一切我等與衆生皆共成佛道 時維 崇禎七年甲戌三月日始役於次明年乙亥秋訖工常住三宝 毘盧佛 盧舍那佛 釋迦文佛智異山華嚴寺大雄殿</p>			
安于者	證明熙彦	元澤	智学
	文悅	善元	尙日 尙儀
	持殿熙天	天曉	
畫員秩	清憲	印希	
	應元	善見	
	印均	懶欽	
	法現	学沽	
	省根	法密	
	英頤	雲密	緣化秩

化主希宝	金玉
化主懶黙	應立
別坐敬浩	
別坐思憲	
戒珠	法堂化主
信行	徳日
來往學海	雙照
三印	丹青化主
信和	印海
贊珪	智英
道閑	蓋瓦化主
雙彦	敬悟
學根	斗熙
勝善	彦信
應哲	

<표 2> 구례 화엄사 목조석가불좌상 복장시주질 발원문

복장시주질은 1320여명의 시주자 이름이 가득 적힌 여러 종이를 묶은 책자 형태이다(도10). 시주질 끝부분에는 제작 시기와 조성에 참여한 승려들의 이름 및 직책이 적혀있다. 시주질에 있는 ‘崇禎甲戌三月訖工於次明年秋安于大雄殿者’라는 내용을 통해 1634년 3월에 시작하여 1635년 가을에 완성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대좌 묵서명에는 석가불좌상은 ‘崇禎八年乙亥六月’, 노사나불좌상은 ‘大明崇禎七年甲戌三月日訖工於同年八月日安于大雄殿者’로 기록하고있어, 노사나불좌상은 1634년, 석가불좌상은 1635년에 완성했음을 알 수 있다(표 2~4 참조).

조각승은 청헌(淸憲), 영이(英頤), 응원(應圓), 인균(印均), 법현(法玄), 성근(省根), 원택(員澤), 선원(善元), 천효(天曉), 인희(印熙), 상의(尙義), 상일(尙一), 지학(智學), 운밀(雲密), 범밀(法密), 학고(學沽), 나흠(懶欽), 선견(善見) 총 18명의 조각승이 제작한 것이 밝혀졌다. 이들은 대부분이 청헌과, 응원·인균과의 조각승들로 화엄사 대웅전 불상 제작에 두 계파의 조각승 집단이 합동작업을 통해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당시 화엄사 불사의 규모가 두 계파가 같이 작업할 정도로 컸으며, 사찰의 위상이 높았음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화엄사 대웅전 불상은 조각승 청헌이 수조각승으로서 처음 조성한 불상이자, 조각승 응원의 마지막 작품이기도하다. 『화엄사사적기』와 시주질에는 청헌이 수조각승으로 기록되어있지만, 노사나불좌상의 묵서명에는 응원이 청헌보다 먼저 기록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노사나불좌상은 응원·인균파가 주도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양식에서 공통된 특징이 보이지만 세부적인 차이 또한 존재하는데, 기록이 이를 뒷받침한다.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두 계파가 조성했음을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매우 드문 사례이다.

<p>敬造智異山華嚴寺法堂常主 佛 毘盧佛 盧舍那佛 釋迦文佛始役於大明 崇禎甲戌三月訖工於次明年秋安于大雄 殿者 緣化秩</p> <table border="0"> <tr> <td>證明希彦</td> <td>化主懶默</td> <td>勝善</td> </tr> <tr> <td>文悅</td> <td>化主希宝</td> <td>應哲</td> </tr> <tr> <td>持殿希天</td> <td>別坐敬浩</td> <td>金玉伊</td> </tr> <tr> <td>畫元秩</td> <td>別坐思憲</td> <td>應立</td> </tr> <tr> <td>清軒 尙義</td> <td>戒珠</td> <td>法堂化主</td> </tr> <tr> <td>應元 尙一</td> <td>信行</td> <td>德日</td> </tr> <tr> <td>印均 智學</td> <td>來往學海</td> <td>雙照</td> </tr> <tr> <td>法玄 雲密</td> <td>三印</td> <td>丹青化主</td> </tr> <tr> <td>省根 法密</td> <td>信和</td> <td>印海</td> </tr> <tr> <td>英頤 學沾</td> <td>贊珪</td> <td>智英</td> </tr> <tr> <td>員澤 懶欽</td> <td>道閑</td> <td>蓋瓦化主</td> </tr> <tr> <td>善元 善堅</td> <td>雙彦</td> <td>敬悟</td> </tr> <tr> <td>天曉</td> <td>學根</td> <td>斗熙</td> </tr> <tr> <td>印熙</td> <td></td> <td>彦信</td> </tr> </table>	證明希彦	化主懶默	勝善	文悅	化主希宝	應哲	持殿希天	別坐敬浩	金玉伊	畫元秩	別坐思憲	應立	清軒 尙義	戒珠	法堂化主	應元 尙一	信行	德日	印均 智學	來往學海	雙照	法玄 雲密	三印	丹青化主	省根 法密	信和	印海	英頤 學沾	贊珪	智英	員澤 懶欽	道閑	蓋瓦化主	善元 善堅	雙彦	敬悟	天曉	學根	斗熙	印熙		彦信	<p>敬造智異山 華嚴寺法堂 毘盧佛 舍那佛 釋迦文佛始役 於 <u>大明崇禎七年</u> <u>甲戌三月日訖</u> <u>工於同年八月</u> <u>日安于大雄</u> 殿者 證明 熙彦 文悅 辦舉要覺性 持殿 熙天 畫員秩 應圓 清憲 印均 法玄 省根 英頤 圓澤 善元 天曉 印熙 尙日 尙儀 智學 雲密 法密 學沾 懶欽 善堅 緣化秩 化主熙宝 三印 化主懶默 贊珪 別坐敬浩 道閑 金玉 園頭戒珠 雙彦 信行 學根 學海 信和 侍立 應哲</p>
證明希彦	化主懶默	勝善																																									
文悅	化主希宝	應哲																																									
持殿希天	別坐敬浩	金玉伊																																									
畫元秩	別坐思憲	應立																																									
清軒 尙義	戒珠	法堂化主																																									
應元 尙一	信行	德日																																									
印均 智學	來往學海	雙照																																									
法玄 雲密	三印	丹青化主																																									
省根 法密	信和	印海																																									
英頤 學沾	贊珪	智英																																									
員澤 懶欽	道閑	蓋瓦化主																																									
善元 善堅	雙彦	敬悟																																									
天曉	學根	斗熙																																									
印熙		彦信																																									

<표 3> 화엄사 목조노사나불좌상 복장시주질 발원문 <표 4> 화엄사 목조노사나불좌상 대좌 묵서명

한편 시주질에서는 의창군 이광과 동양위 신익성이라는 왕실 친족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의창군 이광은 불상대시주자로 기록되어있고 동양위 신익성은 상

궁들과 함께 기록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화엄사 불상 및 화엄사의 중건에는 왕실 후원이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후원은 벽암각성과 인조 왕실의 친분 일 수 있으나, 의창군 이광과 동양위 신익성이 인빈김씨의 후손이므로 인빈김씨의 추선을 위한 후원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화엄사 대웅전의 불상은 2미터가 넘는 커다란 크기의 대형불상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손상된 곳 없이 온전하게 남아있다. 3구의 불좌상은 전체적으로 청헌의 양식이 두드러지나 노사나불좌상은 세부적으로 응원·인균의 양식이 나타나 두 조각승 계파간의 차이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상체가 장대하고 무릎 넓이가 넓어 신체 비례가 안정적이며 상호 역시 기본적으로 동일한 양식을 지니고 있어 조각승들은 3구의 상이 유사하게 보이도록 세심하게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불상들은 커다란 코와 입, 크고 두툼한 손 등 조선 후기 불상의 특징을 잘 갖추고 있다.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은 수조각승인 청헌의 수조각승으로의 첫 작품이자 응원의 마지막 작품이다. 두 계파간의 합동작업이 분명하나 전체적인 상이 큰 차이 없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수조각승 청헌의 영향력과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화엄사의 이 삼존상은 문자 자료와 시각 자료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 17세기 전반 한국조각사를 대표하는 귀중한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고문헌

송은석, 「조선 후기 彫刻僧 流派의 불상 제작 방식과 “代作”의 문제」, 『미술사학연구』 300, 한국미술사학회, 2018.

장찬, 「구례 화엄사 대웅전 木造毘盧遮那三身佛坐像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21.



구례 화엄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본사로서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은 대웅전에 주존불로 봉안되어 있다. 대웅전은 화엄사의 주불전으로 보물 299호이며 내부에 봉안된 삼신불상은 보물 1548호로 지정되어 있다. 대웅전의 원 명칭은 <大雄常寂光殿>이었으며 현판은 義昌君 李珖(1588-1645)이 쓴 것이다. 대웅전 및 불상과 관련된 문헌기록은 <화엄사사적기>(栢庵性聰, 1697년)와 필사본, 삼신불상에서 나온 <시주질>과 목조대좌 내부에 쓰여 있는 <묵서명> 등이 있다.

1. 문헌자료: 화엄사 사적과 시주질, 대좌 묵서

대웅전의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과 관련된 기록물은 『湖南道求禮縣智異山大華嚴寺事蹟』, 복장물로 발견된 <施主秩> 그리고 대좌 안쪽에 쓰여진 <묵서명> 등이다 (표1, 도1).

1) 화엄사사적

<화엄사사적>은 화엄사에 여러권이 전한다. 즉, 1636년 中觀海眼의 저본을 토대로 1697년에 栢庵性聰이 저술한 <화엄사사적기>와 필사본 『湖南道求禮縣智異山大華嚴寺事蹟』으로 대웅전 불상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오년 벽암대사가 화엄사에 오신 뒤로 6,7년 사이에 법당은 대화사 인해, 덕일, 지영, 사인이...불상은 대화사 나묵과 희보가 청헌,영이,인균,응원을 청하니 전해받은 불상은 전단상을 뛰어난 재능으로 되살려 칠하여 삼십이상호에서 빠진 것이 없더라...(“庚午大師之來六七年之間法堂大化士印海與德日智英思印等邀諸方木客普元善美杜岑靈惠天元等月斧風斤山鳴谷應像佛大化士懶默與希寶邀請清憲英頤印均應元等傳得栢檀像手才蘇之塗之圓滿三十二相燔瓦大化士靈照與杜熙敬悟彥信邀請毘吾氏之後裔以爲蓋覆鑄鍾大化士應照與太玄邀請智安太嚴以成鳧鍾吼沅寥龍鉢飫香積畫佛大化士印和與寶元邀請守安天機戒祐性惠等丹青化士思順勝安雪寒妙嚴等傳得虎頭將軍妙手或緝懿縑緗或勦聖丹青…”)

2) 복장물에서 발견된 시주질

복장물은 2015년 수습되었으며 책으로 묶인 원문 2건이 발견되었다. 원문의 앞에는 시주질이라 적혀있으며 불상 제작에 관여하여 시주한 재가신도 및 승려들의 이름약 1320명이 적혀있다(승려 580명) 시주질은 책 형식으로 묶여 있으며, 석가불은 11장이며(크기: 25.5cmx25.0cm), 노사나불은 총19장(25.4cmx24.6cm)으로 구성되어 있다. 2건의 시주질은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시주자의 이름과 마지막 장에는 불상을 제작한 시기와 화원질과 연화질 즉 소임질 명단이 적혀있다. 특히 대덕질의 가장 앞에 覺性和 太能이 쓰여 있다. 벽암각성과 소요태능(逍遙太能, 1562-1649)은 서산 휴정의 전범제자로서 화엄사 대웅전 불상의 불사를 담당하였다. 시주질의 마지막에 쓰여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敬造智異山華嚴寺法堂常住 佛 毘盧佛 盧舍那佛釋迦文佛始役 於 大明崇禎甲戌三月訖 工於0明年秋八安于大雄殿者... 畫員秩 清憲 應圓 印均 法玄 省根 英蹟 圓澤 善元 天曉 印熙 尙一 尙儀 智學 雲密 法密 學浩 喇欽 善堅...”

3) 대좌 묵서명: 석가불과 노사나불

<노사나불좌상>에 쓰여진 묵서명은 시주질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며 조각승의 경우 17명으로 善元이 빠져 있다. 그리고 제작시기에서 묵서명 부분은 다음과 같다.

“敬造智異山華嚴寺法堂常住佛 毘盧佛 舍那佛釋迦文佛始役 於 大明崇禎七年甲戌三月日訖 工於同年八月日安于大雄殿者... 畫員秩 應圓 淸憲 印均 法玄 省根 英頤 圓澤 天曉 印熙 尙日 尙儀 智學 雲密 法密 學浩 喇欽 善堅...”

이상 대웅전의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과 관련된 기록물인 『湖南道求禮縣智異山大華嚴寺事蹟』, <施主秩>, <묵서명>의 기록은 거의 비슷하다. 즉 화엄사 법당의 상주불로 비로자나, 석가불, 노사나불을 봉안하였으며 1634년 3월에 시작하여 가을 또는 8월에 완성하였음을 밝혔지만 석가불 시주질에는 1634년에 시작하여 다음해인 1635년(乙亥)에 마쳤다고 하였다. 또한 조각승들의 이름도 정확하게 기입하였는데 응원과 청현, 인균을 비롯한 총 18명이 참여하여 협업하였음도 알 수 있다. 불사를 주관한 대공덕주는 벽암각성이며 함께 한 소요 태능(逍遙太能, 1562-1649)은 서산 휴정의 전법제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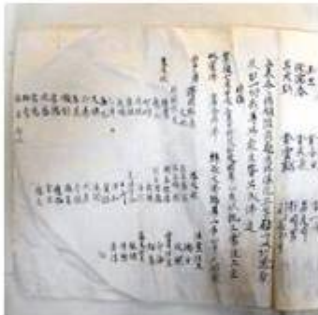

또한, 시주자 가운데 화엄사의 재건에 義昌君 李珖(1589-1645)과 東陽尉 申翊聖(1588-1644) 등 왕실종친이 참여하였음을 밝혔다. 의창군과 신익성은 처남 매부 사이로서, 의창군은 선조의 4남이며 신익성은 선조와 인빈 김씨 3녀인 貞淑翁主(1587-1627)의 남편으로 선조의 부마이다. 의창군 이광은 화엄사 일주문 편액과 대웅전 현판을 썼는데 특히 글씨에 능하였으며 편액을 쓴 사실이 기록에 전한다. 즉, 『국조보감』 제36권에는 1642년(인조20) 일본에 ‘日光淨界’라는 편액을 써주었으며, 『문곡집』 제18권 義昌君神道碑銘 并序 에는

‘어려서부터 서적을 탐독했는데, 평소 도위(都尉 부마도위(駙馬都尉)) 윤공 신지(尹公新之)·신공 익성(申公翊聖)과 함께 문자를 주고받으며 서로 연마하여 지기(知己)로 인정하였다. 팔법(八法 서법(書法))에 더욱 정밀하였는데, 필력(筆力)이 웅장하고 강건하여 글자가 클수록 더욱 뛰어나, 그 당시 편액과 금석(金石)을 새길 적에 모두 공의 글씨를 얻는 것을 보배로 여겼다.’

라고 하였다. 특히 매부인 신익성과 깊은 친분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이로 인해 화엄사 대웅전 비로자나삼신불상의 불사에도 주요 시주자로 함께 참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의창군과 신익성은 완주 송광사의 대웅전 현판과 송광사 개창비에도 참여하는 등 당대 많은 불사의 주요 후원자였다.

<표1> 화엄사 대웅전 관련 기록

구분	화엄사사적	시주질(복장물)	대좌목서
존명	毘盧佛 盧舍那佛 釋迦文佛	毘盧佛 盧舍那佛 釋迦文佛	華嚴寺法堂常住佛 毘盧佛 舍那佛 釋迦文佛
제작시기	庚午大師之來六七年之間	始於大明崇禎甲戌三月訖 工於次明年秋安于大雄殿者(노사나) 崇禎甲戌三月日始 次明年乙亥訖工常註三寶(석가불)	大明崇禎七年甲戌三月日訖工於同年八月日安于大雄殿者”
조각승	淸憲 英頤 印均 應元等	석가불: 18명 淸憲 應圓 印均 法玄 省根 英頤 圓澤 善元 天曉 印熙 善堅 喇欽 學浩 法密 雲密 智學 尙日 尙儀 노사나불: 18 淸憲 應圓 印均 法玄 省根 英曠 圓澤 善元 天曉 印熙 尙儀 尙一 智學 雲密 法密 學浩 喇欽 善堅	17명 應圓 淸憲 印均 法玄 省根 英頤 圓澤 天曉 印熙 尙日 尙儀 智學 雲密 法密 學浩 喇欽 善堅

구분	화엄사사적기(2권)	시주질(노사나와 석가불)	대좌묵서
표지			
내용과 문양			
내용			

도1) 화엄사사적, 시주질 및 묵서명

3.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의 현상 및 특징

화엄사 대웅전에는 세구의 불상이 중앙에 봉안되어 있다(도2). 중앙에는 지권인을 결한 비로자나불상이, 그 왼쪽에는 노사나불, 오른쪽에는 석가불로 구성된 삼신불로 구성되어 있다. 삼신불 모두 난간이 있는 팔각대좌와 올림과 내림연꽃으로 구성된 연화좌에 앉아 있다.

또한, 시주질과 대좌묵서명등에 비로불 노사나불 석가문불로 기록하고 三寶라 명칭하였다. 삼신불상은 크기와 조형성, 얼굴 표현에서 약간의 차별성을 보인다. 즉 노사나불은 보관을 쓴 보살형에 통견의 대의를 입었으며, 비로자나불과 석가불은 여래형으로 수인 등을 제외하면 거의 비슷한 모습이다.



도2) 화엄사 대웅전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먼저 비로자나불은 방형의 얼굴에 둥근 육계와 촘촘하게 조각된 나발에 머리 앞면에는 반원형의 중앙계주를 조각하였다. 통통한 얼굴 형태를 보이며 작고 가는 눈에 폭이 같은 오펝한 콧날, 짝 다문 입술로 사선으로 신체에는 편삼에 변형식 편단우건을 걸쳤으며 배 밑으로 두 개의 옷자락이 겹치면서 흘러내렸다. 오른쪽 어깨에서 흘러내린 자연스러운 옷자락이라든지 같은 간격으로 접혀지면서 걸쳐진 무릎 위의 수평의 옷자락과 대의에서 흘러내린 종선의 옷주름은 같은 간격을 유지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처리하여 조화를 이룬다. 단순하고 직선적인 대의 주름은 한번씩 반전되는 옷주름의 변화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편안한 안정감을 이루고 있어 돋보인다. 수인은 두 손을 맞잡고 오른손으로 왼손을 감싼 지권인이다.

석가불은 변형편단우건식 대의를 입었으며 오른손은 항마촉지인을 왼손은 무릎에 놓고 엄지와 중지를 결하였다. 머리에는 반원형의 중앙계주와 둥글고 높은 정상계주로 장식하였다. 이를 제외하면 비로자나불과 근엄하면서도 생기있는 얼굴 표정에서 매우 비슷한 모습이다.

두 불상에 비해 노사나불상은 머리에 화려한 보관을 썼으며 턱이 넓은 방형의 넓적한 얼굴에 가느다랗게 뜬 눈, 부어오른듯한 눈두덩과 볼에 살이 많은 얼굴이 특징이다. 여기에 통견식 대의와 유려하고 부드러운 옷주름은 간결하면서도 묵직한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 옷주름은 적게 처리하여 간결하면서도 묵직한 조형미를 드러낸다. 머리에는 위로 솟구치는 관대가 달린 화려한 보관을 썼으며 머리카

락은 귀 중간에서 어깨위로 세 가닥으로 갈라져 흘러내렸다. 깃털에는 꽃모양의 작은 귀걸이를, 팔목에는 굵고 장식적인 팔찌를 걸쳤다. 머리에 쓴 보관도 특징적이다. 보관의 재료는 나무로 추정되며 바탕에는 모란당초문을 음각한 다음 배경은 어자문으로 채웠으며 각종 장식을 별도로 만들어 고정하여 정교하고 아름답다. 장식들은 중앙에 꼬리를 접고 밑으로 솟구치는 듯한 자세의 봉황을 두고 그 좌우에 연화문, 운문, 화염문 등을 배치하였는데 전체적으로 정교한 표현이 돋보인다.

무엇보다도 노사나불의 가장 큰 특징은 손을 양쪽으로 벌린 다음 엄지와 중지를 맞댄 수인을 결한 독특한 모습이다. 이와 같은 자세와 수인 형식은 중국의 경우 북송 1022년 항주 청림동에 있는 <노사나불회부조상>에 처음 등장하며 이후 1180년 장승온이 그린 <장승온범상도권>, 남송대의 대족 보정산의 노사나보살좌상을 비롯하여 11세기이후 유행하는 형식이다. 우리나라에서의 보살형노사나불은 고려대장경 화엄경 변상도를 비롯하여 사경 및 불화 등에 그려지는 형식이다. 그러나 조각으로는 화엄사 대웅전의 삼신불의 노사나불좌상이 유일하다.

이와 같이 화엄사 대웅전의 삼신불좌상은 3구가 약간 다른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조각승들이 담당한 불상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으로 인식된다. 즉, 청현은 비로자나불과 석가불을, 응원과 인균은 노사나불을 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응원과 인균은 사제지간으로 불에 살이 많은 얼굴에 작고 가는 눈의 표현에서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4. 복장물

현재 불상의 밑면에서 방형의 복장공과 이를 막은 봉함목이 남아 있으며 복장목 안쪽에 노사나불 등 존명을 정확하게 명기하였다(도3). 불상의 내부에서는 앞서 언급한 시주질 2건을 비롯하여 후령통 2건, 다라니와 전적류 등 100건이 넘는 다수의 복장물이 발견되었다. 이 가운데 불상과 관련하여 중요한 복장유물은 앞서 언급한 시주질2건과 후령통이다.



도3) 복장공과 봉함목(노사나불상)

후령통은 금속제로서 석가불에서 발견된 것은 개봉된 상태이며 노사나불에서 나온 후령통은 미개봉 상태이다(도4). 개봉된 후령통에서는 오방경과 오보병의 일부가 확인되었다. 후령통은 길쭉한 원통형으로 조선시대에 많이 나오는 일반적인 형태이지만 윗면에는 잎까지 섬세하게 선각한 팔엽을 두고 후혈에는 흰색과 검정색 등의 천으로 싼 다음 오색사로 묶은 상태이다. 석가불에는 방위에 따라 색을 달리 한 사방주가 적혀있으며 황초폭자와 후령통의 외부에 있는 오방경 그리고 내부에 있었던 오보병과 각종 물목들이 별도로 보관되어 있다. 후령통은 원통형의 일반적인 형태이지만 윗면에는 잎까지 선각한 팔엽을 두고 후혈에는 붉은색 천으로 싼 다음 오색사로 묶은 다음 한지로 근봉하였다.

미개봉된 노사나불 후령통 역시 같은 형식이지만 후혈의 장엄된 비단은 붉은색만 남아 있다. 2건의 후령통은 17세기에 발견된 뚜껑에 팔엽과 후혈 장엄을 한 드문 사례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불상에서 발견된 복장물 가운데 후령통 2건과 시주질 2건 그리고 후령통의 내부에서 나온 오방경과 오보병 등은 불상과 함께 지정하여 보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노사나불 후령통>

<석가여래 후령통>



○ 참고문헌

장찬, 『구례 화엄사 대웅전 목조비로자나삼산불좌상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논문, 2021.

김은정, 「동양위 신익성의 부마로서의 삶과 문화활동」, 『冽上古典研究』 제26집.

김은정, 『樂全堂 申翊聖의 文學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05.



○ 현 상

화엄사 대웅전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木造毘盧遮那三身佛坐像, 이하 삼신불상)은 현재 불단(佛壇) 위에 마련된 대좌 위에 봉안되어 있다. 대좌는 따로 만든 팔각대좌와 그 위에 놓인 양련과 복련이 맞붙은 연화대좌로 이루어져 있다. 팔각대좌는 상판, 동체, 호족형(虎足形) 다리로 구성되었다. 사찰 측의 전언에 의하면, 불상은 1975년에 지금의 모습으로 개금되었다고 한다.

2015년 문화재청 불상기록화 사업-[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불상 및 불단 안전진단] 때 노사나불상의 대좌 밑면 나무판의 묵서명(墨書銘)과 석가모니불상에서 수습된 시주질(施主秩, 25.5×25.0cm, 11장)이 확인되었으며, 2019년에는 노사나불상에서 시주질(25.4×24.6cm, 19장) 1책이 수습되었다. 묵서명에서는 1634년에, 2책의 시주질에서는 1634년 3월에 시작하여 다음 해인 1635년에 불상들이 완성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석가모니불상과 노사나불상에서는 후령통과 많은 경책이 함께 수습되어 현재 화엄사정보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비로자나불상의 복장 유물은 전혀 남아 있지 않으며, 노사나불상과 석가모니불상의 복장 유물도 상당량이 이미 산실된 것으로 추정되어 원래의 복장 상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삼신불상의 밑면에는 방형의 복장공(腹藏孔, 22×15.8×7cm)이 뚫려 있으며, 내부는 현재 비어 있는 상태이다.

『호남도구례현지리산대화엄사사적(湖南道求禮縣智異山大華嚴寺事蹟), 이하 화엄사사적』(1636년 필사본, 1697년 목판본, 화엄사정보박물관 소장)에는 1630년부터 6, 7년간 불상 대화사(佛像大化士)인 나묵(懶默)과 희보(希寶)가 조각승 청헌(淸憲), 영이(英頤), 인균(印均), 응원(應元) 등을 청하여 전단상(梅檀像)을 조성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 책에서는 청헌의 이름이 제일 앞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 그가 불상 조성을 주도했던 수조각승으로 추정된다. 다만 노사나불상 대좌의 묵서명, 석가모니불상과 노사나불상의 시주질에서 응원 다음에 인균의 이름을 기록한 것과 달리 여기서는 인균 다음에 응원의 이름이 적혀 있어서 『화엄사사적』의 작성 과정에서 그 순서가 바뀌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책은 벽암각성(碧巖覺

性, 1575-1660)에 의해 화엄사 중창 불사가 시작되던 1630년에 화엄사에서 중관해안(中觀海眼, 1567-?)에게 집필을 의뢰하였으며, 불사가 마무리된 1636년에 완성되었다. 중관해안이 집필한 필사본 『화엄사사적』은 1697년(숙종 23)에 성충(性聰)이 발문(跋文)을 붙여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노사나불상 대좌 목서명]

敬造智異山華嚴寺法堂常住佛毘盧佛舍那佛釋迦文佛 始役於大明崇禎七年甲戌三月日
訖工於同年八月日安于大雄殿者 證明 希彦 文悅 辦舉事 覺性 持殿 熙天 畫員 秩 應
圓 清憲 仁均 法玄 省根 英頤 圓澤 天曉 仁熙 尙日 尙儀 智學 雲密 法密 學浩 懶
鐵 善堅 緣化秩 化主 熙寶 三印 化主 懶默 贊圭

○ 내용 및 특징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은 중앙의 목조비로자나불좌상과 그 좌우의 목조노사나불좌상, 목조석가모니불좌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삼신불상은 몸에 비해 머리가 큰 편이며, 무릎 너비에 비해 어깨가 좁은 편으로, 안정된 자세를 갖추고 있다. 불상들은 어깨가 둥글지만, 가슴과 복부는 밋밋한 편이다. 머리카락의 발제선(髮際線)은 수평에 가까우며, 하관이 넓은 장방형의 얼굴을 하고 있다. 얼굴과 몸은 입체적이지 않고 밋밋한데, 이는 모두 나무로만 조성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1.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불상은 통견(通肩) 방식으로 법의(法衣)를 입고 가부좌하고 있다. 양손을 모두 가슴 중앙에 올린 다음, 오른손으로 왼손 손가락을 감싸 권 무상보리인(無上菩提印)을 결하고 있다. 이 수인은 청헌이 참여한 충청북도 보은 법주사 소조삼신불좌상(1626년)의 비로자나불상, 응원과 인균이 조성에 참여한 목조비로자나불좌상(1622년, 현 국립중앙박물관, 전 서울 지장암 소장)에서도 확인된다.

불상은 머리가 몸에 비해 큰 편이며, 장방형의 얼굴과 둥근 어깨를 갖추고 있다. 머리는 촘촘한 나발(螺髮)로 이루어져 있으며, 반원형의 중앙 계주(髻珠), 원통형의 정상 계주를 가지고 있다.

눈, 코, 입이 아래로 치우쳐 있어서 이마는 넓은 편이다. 살짝 내려 뜬 가늘고 긴 눈, 짙 다문 입, 귓불이 두툼한 귀를 가지고 있다. 얼굴 형태와 표정은 석가모니불상과 같다.

법의 주름은 몸의 굴곡을 따라 유기적으로 표현되었지만, 그다지 입체적이지 않고 밋밋한 편이다. 오른쪽 어깨를 덮고 있는 법의 자락은 어깨선을 따라서 비스듬히

흘러내리고 있으며, 다리 중앙에서 퍼져 나간 주름들은 거의 수평을 이루며 양 무릎에까지 표현되어 있다. 법의 주름의 표현 방식도 석가모니불상과 같다.

2. 목조노사나불좌상

불상은 여래형(如來形)인 아닌 보살형(菩薩形)으로 조성되었는데, 정수리에는 보계(寶髻)가 있으며, 보관, 귀걸이, 팔찌를 착용하고 있다. 가지런히 정돈된 머리카락은 귓불 위를 가로질러 귀 뒤쪽에서 흘러내린 머리카락과 어깨 위에서 꼬인 다음 아래로 드리워졌다.

불상은 통견 방식으로 법의를 입고 가부좌하고 있다. 양손은 어깨까지 올린 다음 엄지와 중지, 약지를 살짝 구부리고 있다. 손바닥에는 키모양의 손금이 있는데, 석가모니불상에서도 같은 손금이 확인된다. 양손은 따로 만들어 끼운 상태이다. 나무로 만든 보관(寶冠)에는 당초문양(唐草文樣)이 화려하게 조각되어 있고, 따로 만든 화염보주(火焰寶珠) 장식, 연꽃 장식, 구름 장식, 봉황(鳳凰) 장식을 철사로 보관에 고정하였다.

불상도 비로자나불상과 석가모니불상과 같이 장방형의 얼굴과 둥근 어깨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눈, 코, 입이 아래쪽에 치우쳐 있지 않으며, 양감 있는 양 볼과 눈두덩을 가지고 있다.

법의 주름은 간략하면서도 밋밋하게 처리되었다. 법의는 목 아래쪽에 U자형으로 깊게 파인 모습이다. 다리 중앙의 법의 자락은 넓게 펼쳐져 흘러내리고 있다. 비로자나불상과 석가모니불상의 무릎까지 펼쳐진 수평적인 주름은 보이지 않는다. 대좌 윗면에 닿아 있는 법의 끝단은 물결치는 듯한 모습이다.

불상은 얼굴 오관(五官)의 위치와 양감이 표현된 눈두덩과 양 볼, 다리를 덮고 있는 법의 주름 표현에서 비로자나불상과 석가모니불상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청현이 주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로자나불상과 석가모니불상과 달리, 이 불상은 응원과 인균의 주도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3. 목조석가모니불좌상

불상은 통견 방식으로 법의를 입고 축지인(觸地印)을 결한 채 가부좌하고 있다. 오른손은 축지인을, 왼손은 왼쪽 무릎 위에 둔 채 엄지와 중지가 닿을 듯 오므리고 있다. 왼손은 따로 만들어 끼워서 고정하였다.

불상은 신체 비례, 얼굴 표정, 법의 표현 등이 비로자나불상과 유사하다. 즉 장방형의 얼굴, 둥근 어깨를 가진 신체 조형, 촘촘한 나발, 반원형의 중앙 계주, 원통형의 정상 계주, 넓은 이마, 살짝 내려 뜬 가늘고 긴 눈, 짝 다문 입, 다리 중앙에서 양 무릎까지 거의 수평을 이루며 표현된 법의 주름 등이 그것이다.

4.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과 조각승

삼신불상은 장방형의 얼굴, 둥근 어깨, 몸에 비해 큰 듯한 머리, 밋밋하게 처리된 법의 주름, 오른발 발바닥 끝부분을 살짝 덮고 흘러내린 법의 자락 등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얼굴 표정, 오관의 위치, 하체의 법의 자락 등 세부적인 표현에서 노사나불상은 다른 두 불상과 차이를 보인다. 노사나불상의 대좌 목서명에는 응원(應圓), 청헌(淸憲), 인균(印均), 법현(法玄), 성근(省根), 영이(英頤) 순으로 조각승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전체 불사를 주도했던 청헌이 아니라 응원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은 삼존 중에서 노사나불상을 응원과 인균이 주도하였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실제 불상에서도 응원과 인균의 조각풍이 확인된다. 결국 비로자나불상과 석가모니불상은 청헌의 주도 하에, 노사나불상은 응원과 인균의 주도 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노사나불상의 대좌 밑면에 있는 목서명에서는 1634년에 불상이 완성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 노사나불상과 석가모니불상의 시주질 2책에서는 불상 조성이 1634년에 시작되어 1635년에 완성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서 불상 완성 시기에 대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 기록은 불상들의 조성 시점이 1634년으로 같지만, 응원과 인균이 주도한 노사나불상은 그 해에 이미 완성되었고, 청헌이 주도한 비로자나불상과 석가모니불상은 다음 해인 1635년에 이르러 완성되었음을 추측하게 한다. 아니면 1634년에 불상들을 모두 조각하고, 1635년에 개금과 점안식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삼신불상 조성을 주도한 조각승 중 청헌은 화엄사 대웅전 삼신불상 외에 경상남도 하동 쌍계사 대웅전 목조석가모니불삼존상 및 사보살입상(1639년), 전라남도 고흥 능가사 목조석가모니불삼존상(1639년), 전라북도 완주 송광사 대웅전 소조석가모니불삼존상(1641년), 경상남도 진주 응석사 목조석가모니불삼존상(1643년) 등을 수조각승으로서 조성에 참여하였다. 응원은 전라남도 순천 송광사 광원암 목조아미타불좌상(1624년), 순천 송광사 응진당 목조불삼존상 및 16나한상(1624년), 순천 송광사 천왕문 소조사천왕상(1628년) 등을 수조각승으로서 조성에 참여하였고, 그의 제자 격인 인균은 전라북도 익산 심곡사 아미타불삼존좌상(1630년대), 전라북도 김제 귀신사 소조불삼존좌상 및 16나한상(1633년), 전라남도 해남 미황사 대웅전 목조석가모니불삼존상(1630년대), 전라남도 광양 백운사 대웅전 목조아미타불좌상(1643년), 전라남도 여수 흥국사 무사전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권속(1648년) 등을 수조각승으로서 주도하였다.

[사진]



화엄사 대웅전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목조노사나불좌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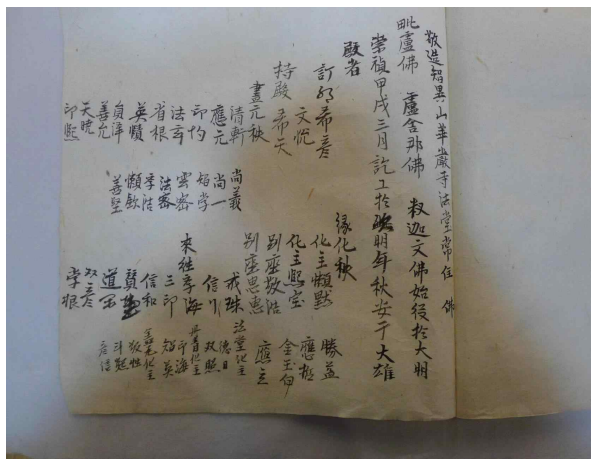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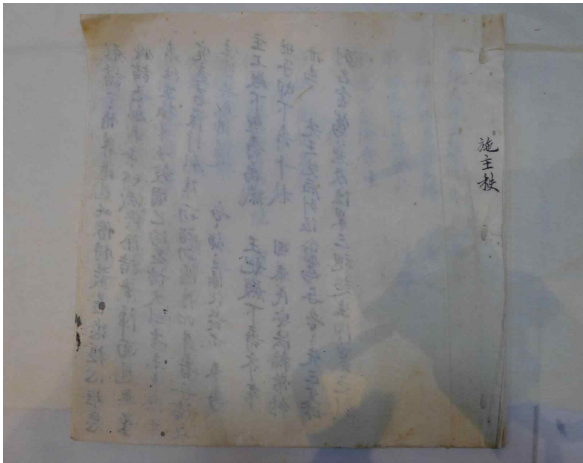
목조석가여래좌상



목조노사나불좌상 대좌 밑면 목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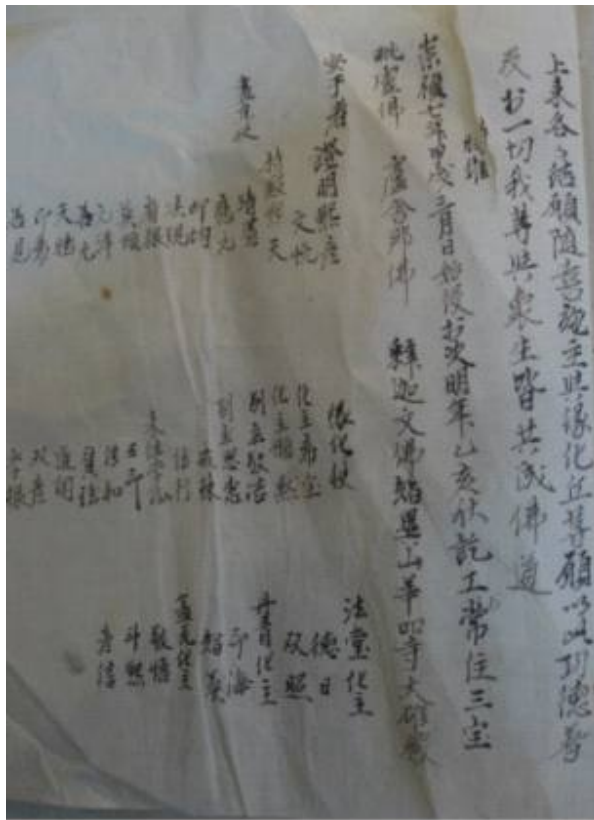
노사나불상과 석가모니불상에서 수습된 전적들



목조노사나불좌상에서 수습된 시주질과 조각승 명단



목조노사나불좌상의 후령통



목조석가모니불좌상의 시주질과 조각승 명단



『호남도구례현지리산대화엄사사적』의 부분(불상 조성 관련 기록)



목조석가모니불좌상의 복장유물 일괄

□

○ 현 상

화엄사 대웅전의 3단 불탁 위에 봉안된 비로자나불을 본존으로 하는 삼신불 구성의 목조불좌상이다. 본존불은 지권인을 결한 비로자나불이며, 우측(향좌측)의 불상은 석가모니불, 좌측(향우측) 불상은 노사나불이다. 본존 비로자나불은 지권인을 결하고, 석가모니불은 향마촉지인, 노사나불은 장엄불로서 두 손을 어깨높이로 들어올린 전법륜인을 결하고 있어 전형적인 삼신불 도상 조합을 보이고 있다.

본존 비로자나불은 좌우 불상보다 다소 크게 조성하여 삼신불의 주불로서 강조하고 있다. 육계는 따로 정수리와 구분하지 않고 둥글게 솟았으며 작고 촘촘한 나발 사이로 중간계주와 정상계주를 표현했다. 안면은 각진 턱으로 네모난 윤곽을 보이며, 계슴처럼 뜨개 뜨 눈이지만 정면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시선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이는 대웅전 불상조각을 주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청헌의 이후 조각, 예를 들어 하동 쌍계사 대웅전 불상 등에서는 그다지 강조되지 않는 화엄사 대웅전 불상의 독특한 특징이며, 오히려 그에게 영향을 준 현진의 불상에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하다. 또한 아랫입술과 턱 끝의 간격이 좁아 이복구비가 더 촘촘하게 모아진 듯한 인상을 준다. 반면 유독 귀가 크고 귓볼 살이 풍만하게 묘사된 것도 이 불상의 특징 중 하나이다.

목에는 삼도가 목의 아래쪽으로 몰려서 표현되었으며, 그 아래의 가슴에는 별다른 인체의 묘사 없이 평면적으로 처리되었다. 지권인을 결한 두 손은 왼손 손가락을 접은 위에 오른손은 엮어 감싼 변형된 지권인이다. 이 경우 청도 운문사 대웅전 소조비로자나불좌상이나 나주 불회사 건칠비로자나불처럼 검지손가락을 다른 손가락들보다 위로 높이 솟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그런 차이가 크지 않고 미세하게 오른손 검지손가락이 들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은 법주사 대웅보전 본존 비로자나불좌상이나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의 지권인과 같은 계통의 형식으로 볼 수 있다.

통견의 착의형식이며 양쪽 목깃과 소매단의 반전, 오른쪽 어깨에 걸쳐진 대의가 표현되었으며, 가슴을 지나는 옷자락은 주름이 없이 평행하고 복부에서는 비스듬하게 휘감기며 흘러나오는 옷자락을 표현했다. 전반적으로 옷자락은 간략하면서 선이 굵고 평행선을 그리며 잘 정돈된 방식인데, 이러한 옷주름은 자칫 지루하게 보일 수 있지만, 여기서는 간격을 바깥이 좁고 안으로 들어오면서 조금씩 넓어지게 배열하여 율동감이 느껴지게 처리했다.

화신 석가여래좌상은 전반적으로 본존 비로자나불좌상과 유사하나 비로자나불의 정수리가 원형인 반면, 석가모니불은 타원형으로 높이 솟은 형식인 것이 차이점이다. 또한 석가모니불의 특성상 편단우견의 촉지인상이라는 차별화된 도상으로

존명을 구분하고 있다. 이때 오른쪽 어깨를 덮는 대의자락의 끝단을 물결모양으로 강조하여 변화를 주었다. 손은 살집이 풍만하고 손톱도 정교하게 묘사되어 섬세함이 느껴진다.

보신 노사나불은 앞의 두 존상과 양식적으로 유사하나 눈두덩과 볼살이 더 강조되고 턱도 각이 지기는 했으나 앞의 두 불상에 비해서는 부드러워져 다소 다른 인상을 주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청현과 불상보다는 인균과 불상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양손을 어깨 높이로 들어 올려 결한 설법인은 불화에서는 수직으로 팔뚝을 들어올려 손목도 90°에 가깝게 꺾고 있지만, 조각에서는 오히려 양손 모두 시무외인을 결한 것처럼 앞으로 내민 경향이 강하며, 따라서 손바닥도 불화에서처럼 하늘 방향을 향하지는 않는다. 장엄불로서 보관 이외에는 특별히 다른 장엄을 걸치지 않았으나 다만 손목에는 여의두문 형식의 팔찌, 귀 끝에는 국화문의 귀걸이를 착용하고 있으며, 귀 앞으로 한 가닥 보발이 흘러내려 귀를 타고 목 뒤쪽으로 이동한 뒤 다시 아래로 내려오다가 어깨 위에서 두 가닥으로 나뉘어 구불거리며 흘러내리고 있다.

무엇보다 노사나불로서 화려한 보관이 주목된다. 위로 벌어지는 관대에 모란과 구름 문양을 타출하고 그 위에 화염보주, 구름문양의 장식이 삽입되어 있으며, 특히 보관의 우측에는 연봉, 좌측에는 모란 장식으로 장엄한 것이 주목된다. 또한 보관의 정면에 마치 꿩이 꼬리깃털처럼 긴 깃털장식이 앞으로 돌출되어 있는 것이 독특하다. 관대 좌우에서는 2줄의 띠가 흘러내려 S자형을 그리며 휘날리고 있다. 관대의 뒷면에는 모란당초문이 타출되어 있지만, 그밖에 입식은 삽입하지 않았다.

○ 내용 및 특징

화엄사 대웅전의 삼신불 구성은 삼신불의 도상으로서 가장 전형적인 형식이지만, 이처럼 전형적인 구성을 보이는 사례는 조각상에서는 화엄사대웅전 삼신불상을 거의 유일한 예로 들 수 있다. 대부분 장엄불로서의 노사나불은 단순한 여래형의 노사나불로 조성되었거나 혹은 노사나불 대신 아미타 혹은 약사불로 대체되어 봉안되었기 때문에 화엄사 대웅전처럼 보관불 형식의 노사나불이 원칙에 따라 봉안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사례이다. 특히 새로이 대좌 안에서 발견된 묵서에서 이들 존상이 실제로 법신, 화신, 보신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그 의미는 더욱 증대되었다 하겠다. 묵서에 의하면 이들 삼신불을 ‘상주불(常住佛)’로 지칭하면서 각각은 비로불(법신), 사나불(보신), 석가문불(화신)로 기술한 것이 주목된다.

더불어 묵서명 및 복장에서 발견된 시주질 및 조성기를 통해 사적기에서 확인된 불상의 조각승인 청현, 응원, 인균과 함께 더 많은 조각승 명단이 확인되어 불상의 조성연대 및 조각승을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은 진전된 성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조성연대를 기존의 대웅전 완공시기인 1636년으로 추정하던 것에서 이보다 이른 승정7년, 즉 1634년으로 확정하게 된 것도 중요한 성과이다. 이는 대웅전이 완공된 후에 불상이 조성된 것이 아니라, 거의 함께 작업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만큼 대웅전의 완공을 서두르기 위해 서로 다른 유파의 협동작업이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당시의 정황을 추정해볼 수 있다. 결국 묵서명의 기록에 의하면 대웅전 불단 상주불인 삼신불 조성사업을 3월에 시작하여 같은해 8월에 불단에 안치했다고 되어 있으므로, 공사기간은 5개월 가량이었다. 이와 같은 대규모 불상 3구를 조성하는 기간으로는 비교적 빠른 시간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은 그만큼 많은 조각승들이 협업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불화로는 비교적 많이 발견되는 이러한 전형적인 삼신불의 사례가 조각으로 구현된 것이 드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마침 그 사례가 화엄사에서 조성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삼신의 개념을 통해 화엄사의 화엄종파적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처럼 이론적으로 충실한 도상을 재현한 것으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화엄사 대웅전은 1634년 벽암각성 스님에 의해 중창된 건물이다. 단층건물이지만 높은 월대 위에 정면 5칸 측면 3칸으로 자리 잡아 웅장한 위용을 자랑한다. 대웅전 현판은 선조와 인빈김씨 사이에 태어난 義昌君 李玠(1589-1645)이 썼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 화엄사와 왕실과의 관계를 짐작케 한다. 이후로도 효종의 차녀 淑安公主(1636-1673)와 남편 洪得箕(1635-1673)가 화엄사 영산회 괘불탱(1653년)의 시주로 참여하였고, 각황전 중창 시 계파당 성능대사와 숙종과의 관계 등에서 화엄사와 왕실과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구례 화엄사 대웅전에 봉안된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은 비로나자나불, 노사나불, 석가여래로 구성된 이른바 삼신불상이다. 불상은 높은 수미단 위 팔각연화대좌 위에 안치되어 있다. 팔각연화대좌는 불단에서 분리되지만, 불단 아래에서 보면 뚫려 있는 형태이다. 대좌는 부정팔각의 삼단대좌 형식으로, 족대와 마대를 모두 갖추고 있다. 중대와 하대받침대는 각각 3단으로 처리하고 중대 머름판에는 구름모양의 안상을 새겨넣었다. 천판 위에는 양복련이 맞붙은 연화대좌를 올리고, 그 위에 결가부좌한 불상을 안치하였다.

불상의 배치는 중앙에 지권인을 결한 비로자나불상을, 좌측에 두 팔을 만세를 부르듯 어깨위로 들어 설법인을 결한 노사나불을, 우측에 항마촉지인을 결한 석가모니불을 봉안하였다. 비로자나불은 이중착의법으로 법의를 걸쳤다. 반주먹 권 왼손을 오른손으로 덮은 지권인은 이보다 앞서 제작된 자수사·인수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1622년, 현 국립중앙박물관)과 보은 법주사 소조비로자나불좌상(1626년),

수중사 탑 봉안 금동비로자나불좌상(1628년)등과 도상적으로 상통한다. 특히 자수사·인수사 목조비로자나불상과 보은 법주사 소조비로자나불상 조성시 화엄사 삼신불상을 만들었던 조각승들이 참여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도상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우협시 석가여래는 변형 편단우견으로 법의를 걸쳤다. 노사나불은 보관을 착용하였다. 머리카락은 땅아 올려 보계를 만들고, 어깨 위에는 보발을 늘어뜨려 멧을 내었다. 팔에는 문양이 없는 굵은 띠모양의 팔찌를 착용하였다. 법의는 통견착의로 걸쳐 입었으나 전반적인 모습은 보살형을 띤다.

이와 같은 삼신불 도상이 정확히 언제부터 확립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홍천 물걸리사지에서 삼불을 봉안했던 흔적이 확인되었고, 사지 내에는 삼신불상으로 추정되는 불상이 확인되지만 그 구성이 화엄사 대웅전 삼신불상과 같은 구성인지는 확실치 않다. 화엄사 삼신불상과 같이 화엄불신관에 의한 도상인데, 이와 같은 삼신도상이 등장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은 982년으로 추정되는 금강사 장안사 삼신불상으로 알려져 있다. 장안사 삼신불상은 화엄사 대웅전 삼신불상과 마찬가지로 비로자나불과 노사나불, 석가여래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해인사 원당암 아미타여래삼존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수진본 <제다리니경 변상도>에서는 비로자나불과 석가, 아미타여래로 구성된 삼신불 도상이 확인되어 고려시대 이전에는 이와 같은 삼신불상도 함께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7세기 이후 비로자나불·노사나불·석가여래로 구성된 삼신불상 중 가장 이른 예로는 1622년 광해군비 장열왕후가 발원하고, 벽암각성이 증명하고 팔도 유명 조각승들이 총출동하여 조성한 자수사·인수사 불상에서 찾을 수 있다. 이때 조성한 불상은 모두 11존인데, 이 중 비로자나·석가·노사나로 구성된 삼신불상이 2셋트가 조성되어 자수사와 인수사에 각각 봉안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 조성된 삼신불상 중 비로자나불상 1구(서울지장암에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석가여래좌상 1구가 전하고 이외 아미타여래좌상 1구가 안동 선찰사에서 전하고 있다. 자수사인수사 불상을 조성한 조각승 중 청헌, 응원, 인균, 등은 화엄사 불상 조성에도 매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결실된 자수사인수사 노사나불상도 화엄사 대웅전과 같은 모습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 자수사인수사와 화엄사 대웅전 삼신불상의 조각승 비교

사찰명	증명	조각승
자수사인수사(1622년)	熙彦 覺性	*玄眞 應元 守衍 玉明 法玲 明崑 清虛 性仁 普熙 印均 敬玄 志修 太鑑 * 治匠 : 性玉 勝一 密衍 義仁
화엄사 대웅전(1634-1636)	希彦 文悅 覺性	* 清軒, 應元, 印均, 法玄, 省根, 英蹟, 員澤, 善允, 天曉, 印熙, 尙義, 尙一, 智學, 雲密, 法密, 學浩, 懶欽, 善堅

이후 1628년 인목대비가 발원하여 수종사 팔각오층석탑에 납입한 여러 구의 소형 금동불상 중에서도 삼신불상의 실물 존재가 확인되고, 이어서 확인되는 작품이 바로 1636년의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이다. 수종사 불상은 크기가 매우 작은 소형 금동불상으로 화엄사 불상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그 형태와 양식은 자수사인수사 불상을 따르고 있다. 같은 왕실불사였기 때문에 수종사 금동불상을 제작한 성인 역시 자수사·인수사 불상의 양식과 도상을 참조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화엄사 이전 궁중사찰인 향후 자수사인수사의 삼신불상 도상 복원에도 중요한 기준자료로 삼을 수 있다.

화엄사 삼신불상 제작 이후로는 조각에서는 이와 같은 삼신불상이 확인되지 않지만, 불화에서는 지속적으로 제작되어 나타난다. 불화로 가장 앞선 작품은 1628년에 제작된 칠장사 오불회괘불탱이 있다. 칠장사 오불회괘불탱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비로자나삼신불을 중심으로 약사여래와 아미타여래, 그리고 관음과 지장이 추가된 복합적인 신앙양상을 그림화한 것이어서 엄밀히 말하면 정확한 삼신불도상을 그린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이 그림 이후에 그려진 1650년의 갑사 비로자나삼신불괘불도(좌상)이라든지, 1690년의 홍천 수타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입상), 1735년의 남양주 봉선사 비로자나삼신불괘불도(입상), 1739년의 서울 학림사 비로자나삼신불괘불도(입상), 1806년 서울 청룡사 비로자나삼신불괘불도(입상) 등은 삼신불마을 대상으로 그린 것으로, 불화에서는 19세기 이후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한편 화엄사 대웅전 삼신불상과 마찬가지로 벽암각성이 재건한 보은 법주사 대웅보전에도 선행하는 도상이 나타나지만, 법주사 대웅보전 삼신불상은 화엄사 대웅전 삼신불상과 달리 좌측 보신불의 도상이 여래형이고 아미타나여래와 같은 설법인을 짓고 있어 정확히 노사나불을 의도한 것인지 분명치 않다. 보은 법주사 삼신불상은 오히려 해인사 원당암 아미타여래삼존상의 복장에 납입된 제다라니경 변상도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화엄불신관에 의거하여 제작된 비로자나삼신불상은 불전에 봉안된 사례로는 화엄사 대웅전 삼신불상이 현재까지는 유일하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화엄사 대웅전 삼신불상은 본존불상의 본존불의 높이가 277.7cm이며, 대좌의 높이까지 합치면 378.4cm에 달한다. 대형의 불상은 통일신라시대부터 석불이나 마애불로 등장하지만, 목불로 제작되어 전하는 대형의 불상은 거의 없다. 이 화엄사 삼신불상은 규모면에서 단연 돋보인다고 할 수 있는데, 규모면에서 우리나라 3대 목조불상이라고 일컬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목불상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화엄사 각황전 삼불상(본존불 높이 359.5cm, 전체높이 481.3cm)이며, 그 다음이 이 화엄사 대웅전 삼신불상이고, 그 다음이 칠곡 송림사 석가여래삼존좌상

(본존 270.7cm, 전체 359.5cm)을 꼽을 수 있다. 규모면에서는 두 번째이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이 화엄사 불상은 이들 대형목불 중에서 가장 시기가 앞서고, 도상적인 측면이나 조형적인 측면에서 단연 우수하여 독보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같은 사찰에 봉안중인 화엄사 각황전 삼불사보살상의 크기가 화엄사 대웅전 불상보다 조금 더 큰 규모지만, 임진·정유재란 이후 재건불사가 숨돌릴 틈 없이 진행될 시기에 제작된 목조불상 중 가장 규모가 크다. 특히 17세기 전반기 대작불사의 중심에는 반드시 벽암 각성이 있는데, 당시 벽암각성의 주도아래 제작되는 상징적인 불상은 대체로 소조불이 선택되었기에 화엄사 대웅전 불상이 같은 상징성은 큰 것이라 하겠다.

당시 불상의 조성은 수조각승의 지도아래 여러 보조조각승들이 협력하여 자신의 소질과 솜씨를 발휘하였고, 때로는 여러 유파의 조각승들이 상호 교류하며 조각을 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조각 집단 간의 교류와 협력은 아마도 양대 전란을 전후한 시기 승단의 조직을 팔도도총섭 체제로 정비된 것과 관련이 깊다. 도총섭의 진두지휘 아래 승려장인들은 자수사인수사와 같은 왕실 주도의 원당을 짓거나 산성을 수축하는데 참여하였고, 중요 사찰 불사에도 도총섭의 부름을 받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화엄사 대웅전 삼신불상은 그동안 <화엄사사적기>와 불상의 양식을 근거로 1636년 청헌, 영이, 인균, 응원이 조각승으로 참여하여 제작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특히 삼신불 중 비로자나불과 석가여래, 노사나불에서 보이는 양식적 상이함에 주목하여 비로자나불과 석가여래는 청헌·영이파에 의해, 노사나불은 응원·인균파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파악하였다.¹⁾

그러다 2014년 문화재청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실시된 불상정밀기록화 및 진단사업에서 이를 한층 더 보강해 주는 발견이 추가되었다. 즉 석가여래의 주변에서 조성 당시에 작성된 복장시주질이 수습되었고, 노사나불과 석가여래의 팔각대좌의 안쪽 면에서는 조성과 관련된 묵서명도 함께 확인하였다.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진행된 2020년 7월 10일 노사나불에 대한 복장수습조사에서도 잔존하는 복장유물과 함께 불상 제작과 관련된 기록인 시주질이 수습되었다. 노사불상의 시주질 말미에는 불상조성과 관련된 승려들이 빠짐없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곳에는 崇禎 甲戌(1634) 공사를 시작하여 次明年(1635년)²⁾ 가을에 대웅전에 안치했다고 기록되어 되어 있는데, 주요 소임으로는 希彦이 증명법사로 등장하고, 淸軒, 應

1) 손영문, 「조각승 인균과 불상연구」, 『강좌미술사』 26-1((사)한국미술사연구소, 2006)

2) 노사나불 시주질에는 ‘次明年秋’라고 적었고, 석가여래시주질에는 ‘次明年乙亥秋’라고 적었다. 그러나 대좌 묵서에는 ‘大明崇禎七年甲戌三月日詔工於同年八月’이라 하여 1년의 시차가 난다. 기록순으로 보면 불상이 완성된 시점에서 묵서명이 쓰여졌고, 그 다음 개금과 개채가 끝나고 복장물이 완성된 시점에서 시주질이 쓰여지고, 마지막으로 불사를 총정리한 사적기가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개금과 개채, 복장물이 안치되어 의식까지 마쳤을 때 진정한 완성의 의미가 있으므로 시주질의 기록에 따라 제작시기를 판단하기로 한다.

元, 印均, 法玄, 省根, 英蹟, 員澤, 善允, 天曉, 印熙, 尙義, 尙一, 智學, 雲密, 法密, 學浩, 懶欽, 善堅 순으로 화원질에 등장한다. 사적기에서 大化土로 등장하는 나뭇과 희보는 화주로 표기되어 대화사와 화주와 같은 용례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주질의 기록은 노사나불에 기록된 대좌묵서와 거의 비슷하지만, 증명질의 등장인물과 화원의 순서와 한자의 음이 약간 다르게 나열되어 있다. 묵서명에는 증명에 희언 외 文悅과 覺性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고, 시주질에 수조각승으로 등재된 淸軒은 응원 다음 순서에 기재 되어 있다. 그리고 사적기와 석가여래 시주질에 등장하는 英頤는 노사나불 시주질과 노사나불 대좌묵서에는 英蹟으로 등장하고 있다. 아마도 영이와 영색의 한자음은 다르지만, 한자 표기는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동일 인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청헌이 제작한 불상 중에 보조조각승 중 어떤 곳은 영이, 어떤 곳은 영색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화엄사 대웅전 불상을 통해서 영색과 영이가 다른 인물이 아닌 동일 인물임이 더욱 분명해 졌다. 한편 시주질과 묵서명의 발견으로 그동안 中觀 海眼이 작성한 <화엄사사적기, 1636년>를 근거로 1636년으로 판단해 왔지만, 묵서명과 시주질을 발견으로 불상의 제작시기를 분명히 할 수 있게 되었다.

삼신불상의 증명으로는 부휴계의 대표 고승 고한 희언과 벽암각성이 참여하였다. 고한 희언은 벽암각성과 함께 1622년 광해군이 친히 개최한 청계사 齋會와 광해군비 장열왕후가 발원한 자수사인수사 불사에도 벽암각성과 함께 증명으로 참여한 바 있는 당대의 고승으로, 17세기 전반기 주요 불사를 벽암각성과 함께 선두에 서서 이끈 인물이다. 특히 조선 왕실종친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이들이 불사를 이끌자 이에 의창군 이광, 동양위 신익성 부부, 다수의 상궁, 수많은 승속의 사부대중들이 응해 불사가 완성되었다. 의창군은 이 불사 참여 외에도 대웅전 현판과 일주문 현판을 친히 썼다. 따라서 이 화엄사 삼신불상을 통해 당시 왕실과 불교계와의 관계를 조명해 볼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 후령통

후령통은 두점이 수습되었다. 석가여래 후령통은 뚜껑과 분리되어 있으며, 노사나불후령통은 해포하지 않은 상태로 있다. 두 후령통 모두 몸통 방위색으로 사방주를 적었고, 두경 윗면에 팔엽을 별도로 붙인 모습이다. 석가여래 후령통의 몸통에 부착되었던 사방경과 안립 되있는 팔엽원경은 현재 별도로 수습하여 봉안되어 있다. 석가여래후령통에서 수습된 원경① 지름 3.5cm, 원경② 지름 3.5cm, 반월경 2.8x5.2cm, 삼각경 3.7x3.4cm, 사방경 4.0x3.9cm, 팔엽원경 지름 4.6cm 두께 0.3cm이다. 노사나불 후령통에서 수습된 방경은 3.7x3.5cm이다.



석가여래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노사나불 대좌 묵서



석가여래 시주질 권말



노사나불 시주질 권두



노사나불 시주질 권말



후령통(석가)



사방경 등(석가)



후령통(노사나)

○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을 만든 조각승들의 활동

조각승	주요활동 (화엄사 삼신불상의 화원순위는 노사나불 시주질 기준)	비고
청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 보은 범주사 소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1626년, 2위(현진) - 전남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1635년, 1위, 화엄사 사적기 - 경남 하동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39년, 1위 - 전북 완주 송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41년, 1위 - 경남 진주 응석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43년, 1위 	청현과
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은 범주사 팔상전 재건공사, 1605년, 緣化秩 - 무안 목우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1614년, 2위(자심) - 김제 금산사 칠성각 독성상, 1615년, 2위(태진) -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1622, 2위(현진), 현 국립중앙박물관 - 순천 송광사 광원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24년, 1위 - 순천 송광사 응진당 소조석가여래삼존 및 16나한상, 1624년, 1위 - 순천 송광사 소조사천왕상, 1628년, 1위, 비과명문 -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1635년, 목서(1위), 시주질(2위) 화엄사사적기(4위) -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1650년, 응매, 시주질 	응원과
인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안 목우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1614년, - 김제 금산사 칠성각 독성상, 1615년, 5위(태진) -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1622년, 10위(현진), 국립중앙박물관 - 순천 송광사 광원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24년, 5위(응원) - 김제 귀신사 영산전 소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16나한상, 1633년, 1위 - 구례 화엄사 대웅전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1636년, 사적기·목서·시주질 3위 - 광양 백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43년, 1위, 발원문 - 여수 흥국사 무사전 지장시왕상, 1648년, 1위 - 여수 흥국사 응진당 목조석가삼존좌상 및 16나한상, 1655년, 1위 - 전주 학소암 자음전 목조약사여래좌상, 1662년, 1위 - 구례 화엄사 벽암국일도대선사비, 1663년, 비음 總攝 	응원과
법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광 불갑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35년, 持殿(무염) - 하동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39년, 3위(청현) - 거창 심우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40년, 2위(청허), - 진주 응석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43년, 2위(청현) 	청현, 청허과
성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4위 - 칠곡 송림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1657년, 7위(도우) 	

조각승	주요활동 (화엄사 삼신불상의 화원순위는 노사나불 시주질 기준)	비고
영색 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은 법주사 소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1626년, 7위(현진), 영이 - 파주 보광사 목조보살입상, 1633년, 1위, 영색 -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1636년, 2위(청헌), 영이/영색 - 하동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39년, 4위(청헌), 영이 - 경산 경흥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1644년, 2위(청허), 영색 - 상주 남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1645년, 2위(청허), 영이 - 울산 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 1649년, 1위, 영색 - 함양 법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57년, 영규, 시주질, 영색 	청헌과
원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1636년, 7위(청헌) - 원주 송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41년, 6위(청헌) - 진주 응석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43년, 3위(청헌) - 김천 직지사 강원 목조석가여래좌상, 1648년, 2위(현윤) -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1650년, 시주질(응매) 	청헌과
선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1636년, 8위 	
천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천 송광사 광원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24년, 9위(응원) 	응원과
인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1636년, 9위 	
상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제 귀신사 영산전 소조석가여래삼존 및 16나한상, 1633년, 11위(인균) -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1636년, 10위 - 광양 백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43년, 2위(인균) - 여수 흥국사 무사전 목지장시왕상, 1648년, 2위(인균) 	인균과
상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1636년, 11위 	
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1636년, 12위 	
운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1636년, 13위 	
법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1636년 14위(청헌) - 원주 송광사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41년, 10위(청헌) - 함양 법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57년, 영규, 시주질 	청헌과
학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1636년, 15위 	
나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1636년, 16위(청헌) - 하동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39년, 10위(청헌) - 진주 응석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43년, 6위(청헌) - 경산 경흥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1644년, 6위(청허) - 상주 남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1645년, 5위(청허) - 대구 보성선원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1647년, 2위(현욱) - 경남 양산 원효암 석조약사여래좌상, 1648년, 1위 	청헌과
선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1636년, 17위 	

○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주요 소임 등재 양상

출전	증명	화원	대화사/화주
사적기(1695)		淸憲, 英頤, 印均, 應元 등	대화사 나묵, 회보
노사나불 시주질	文悅	淸軒, 應元, 印均, 法玄, 省根, 英蹟, 員澤, 善允, 天曉, 印熙, 尙義, 尙一, 智學, 雲密, 法密, 學浩, 懶欽, 善堅	懶默, 熙宝
노사나불대좌 목서	希彦 文悅 辦舉事 覺性	應圓, 淸憲, 印均, 法玄, 省根, 英頤, 圓澤, 天曉, 「印熙/尙日」, 「尙儀/智學」, 雲密, 法密, 學淸, 懶欽, 善堅	熙宝, 懶默
석가여래 시주질	熙彦 文悅	淸憲, 應元, 印均, 法現, 省根, 英頤, 元澤, 善允, 天曉, 印希, 善見, 懶欽, 學浩, 法密, 雲密, 智學, 尙日, 尙儀	希宝, 懶默

○ 노사나불 대좌목서

敬造智異山
華嚴寺法堂
常住佛
昆盧佛
舍那佛
釋迦文佛始役
於
大明崇禎七年
甲戌三月日訖
工於同年八月
日安于大雄殿者
證明 希彦
文悅
辦舉事覺性
持殿 熙天
畫員秩
應圓
淸憲

印均
法玄
省根
英頤
圓澤
天曉
印熙 尙日
尙儀 智學
雲密
法密
學清
懶欽
善堅

緣化秩

化主 熙宝
化主 懶默
別座 敬浩
園頭 戒珠
信行
學敏

三印
贊圭
道閑

金玉

双彦
學根
信華
侍者 應哲

○ 석가여래 대좌목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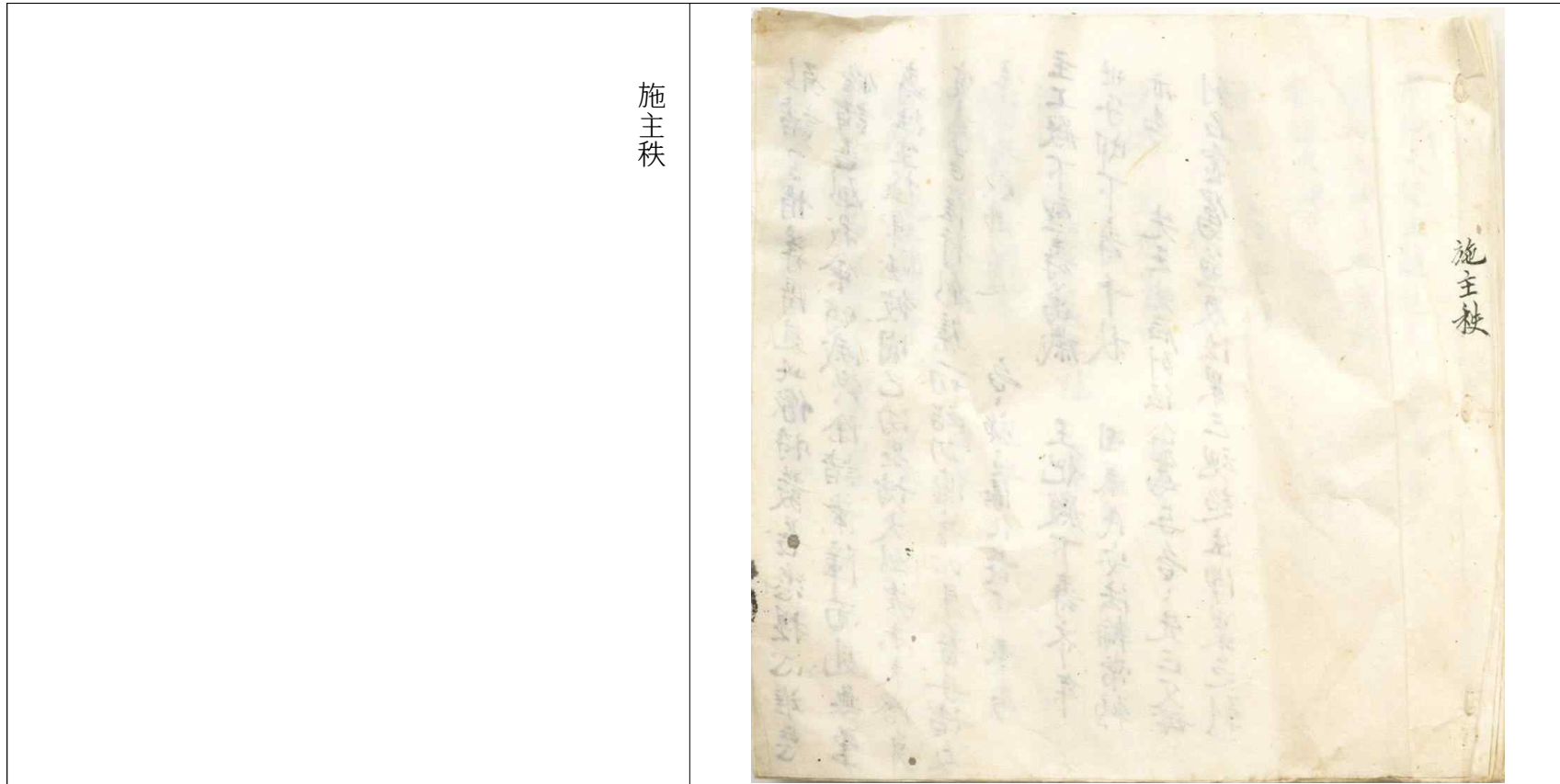
崇禎八年乙亥六月

日畫員

緣化比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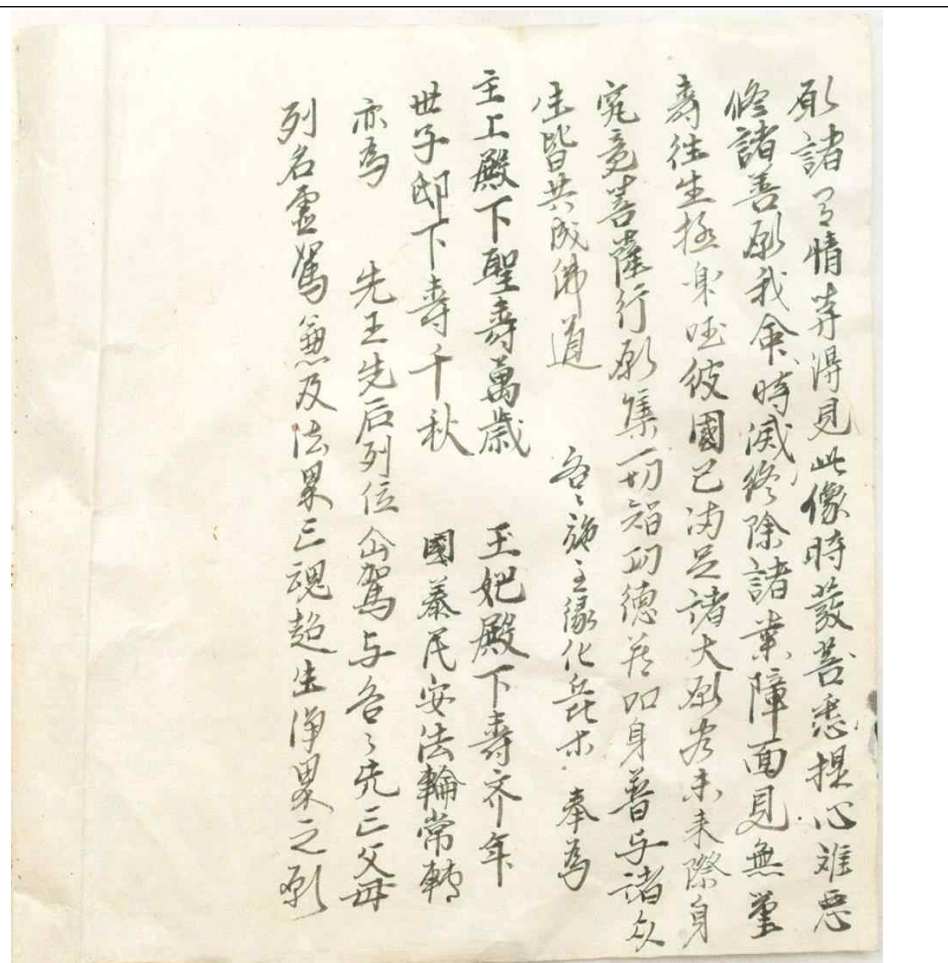
<석문제공 : 사단법인 사찰문화재보존연구소>

1. 화엄사 대응전 노사나불 시주질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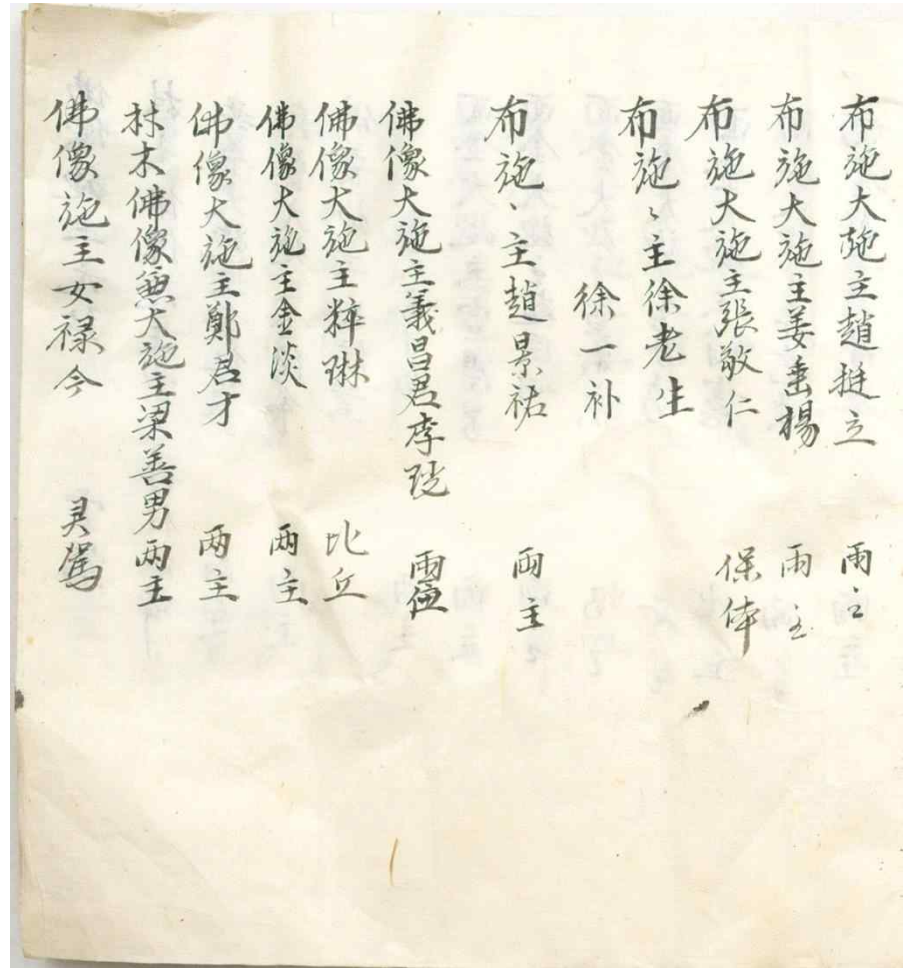
2. 화엄사 대응전 노사나불 시주질 1면

願諸有情等得見此像時發菩提心難惡
 修諸善願我命時滅修除諸業障面見無量
 壽往生極樂國彼國已滿是諸大願爲未來際身
 究竟菩薩行願集一切智功德莊嚴(嚴)身普與諸眾
 生皆共成佛道 各々施主緣化丘比木(等)奉爲
 主上殿下聖壽萬歲 王妃殿下壽齊年
 世子低下壽千秋 國泰民安法輪常轉
 亦爲 先王先后列位仝駕與各々先亡父母
 列名靈駕兼及法界亡魂超生淨界之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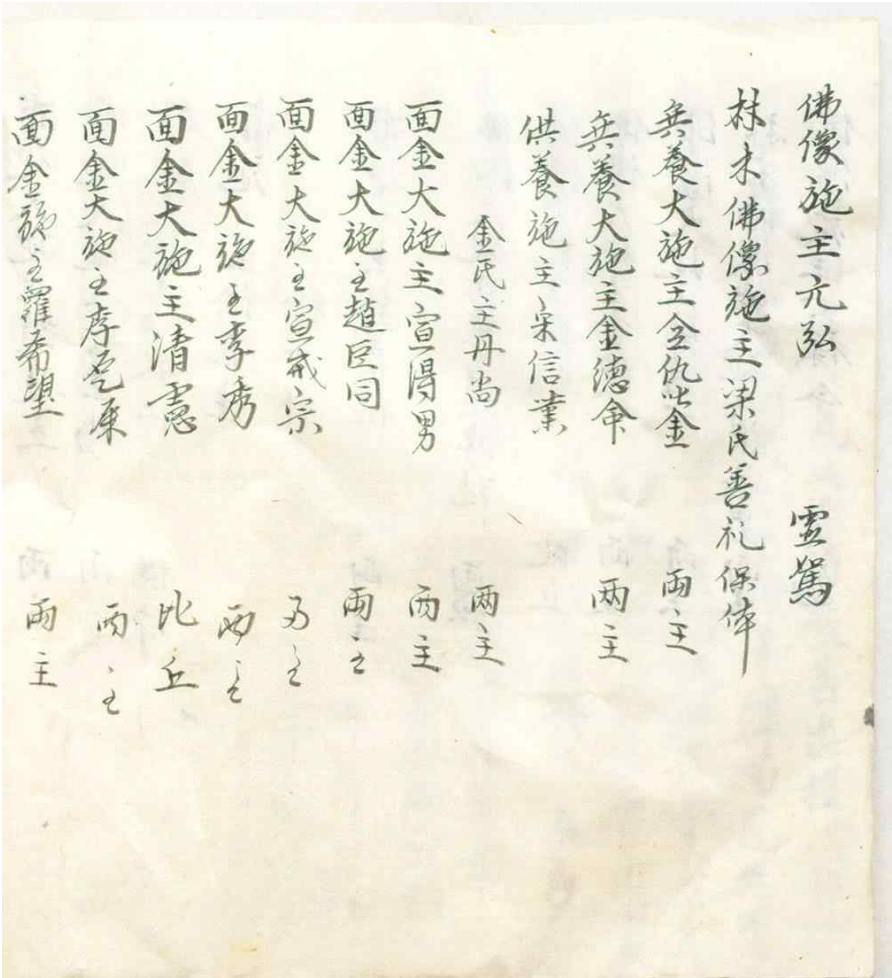


3. 화엄사 대응전 노사나불 시주질 2면

佛像施主 女祿今	灵駕		
材木佛像兼大施主 梁善男	兩主		
佛像大施主 鄭君才	兩主		
佛像大施主 金淡	兩主		
佛像大施主 粹琳	比丘		
佛像大施主 義昌君李玼	兩位		
徐一补			
布施主 趙景祐	兩主		
布施大施主 姜乘楊	兩主		
布施大施主 張敬仁	保体		
布施主 徐老生			
佛像大施主 趙挺立	兩主		
佛像大施主 義昌君李玼	兩主		
佛像大施主 粹琳	比丘		
佛像大施主 金淡	兩主		
佛像大施主 鄭君才	兩主		
材木佛像兼大施主 梁善男	兩主		
佛像施主 女祿今	灵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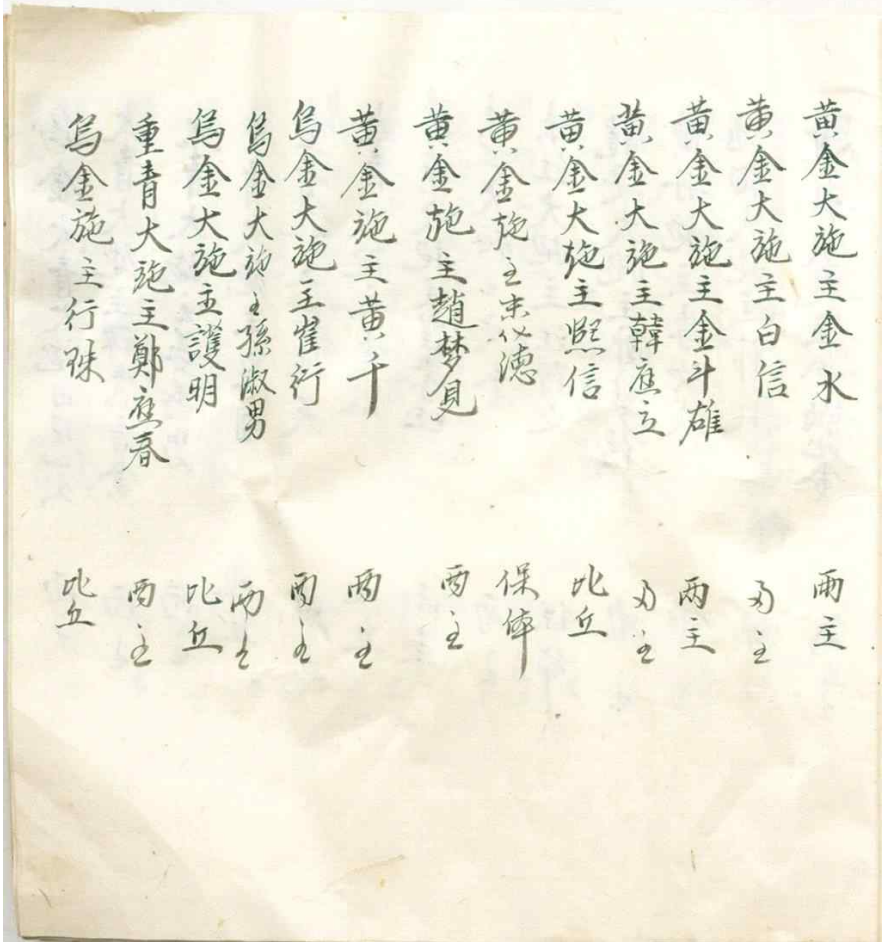


4. 화엄사 대응전 노사나불 시주질 3면

<p>佛像施主 元弘 靈駕</p> <p>材木佛像施主 梁氏善礼 保体</p> <p>共養大施主 金岱金 兩主</p> <p>共養大施主 金德命 兩主</p> <p>供養施主 宋信業</p> <p>金氏主丹尙 兩主</p> <p>面金大施主 宣得男 兩主</p> <p>面金大施主 趙臣同 兩主</p> <p>面金大施主 宣戒宗 兩主</p> <p>面金大施主 李秀 兩主</p> <p>面金大施主 清憲 比丘</p> <p>面金大施主 李芻屎 兩主</p> <p>面金施主 羅希望 兩主</p>	 <p>佛像施主 元弘 靈駕</p> <p>材木佛像施主 梁氏善礼 保体</p> <p>共養大施主 金岱金 兩主</p> <p>共養大施主 金德命 兩主</p> <p>供養施主 宋信業</p> <p>金氏主丹尙 兩主</p> <p>面金大施主 宣得男 兩主</p> <p>面金大施主 趙臣同 兩主</p> <p>面金大施主 宣戒宗 兩主</p> <p>面金大施主 李秀 兩主</p> <p>面金大施主 清憲 比丘</p> <p>面金大施主 李芻屎 兩主</p> <p>面金施主 羅希望 兩主</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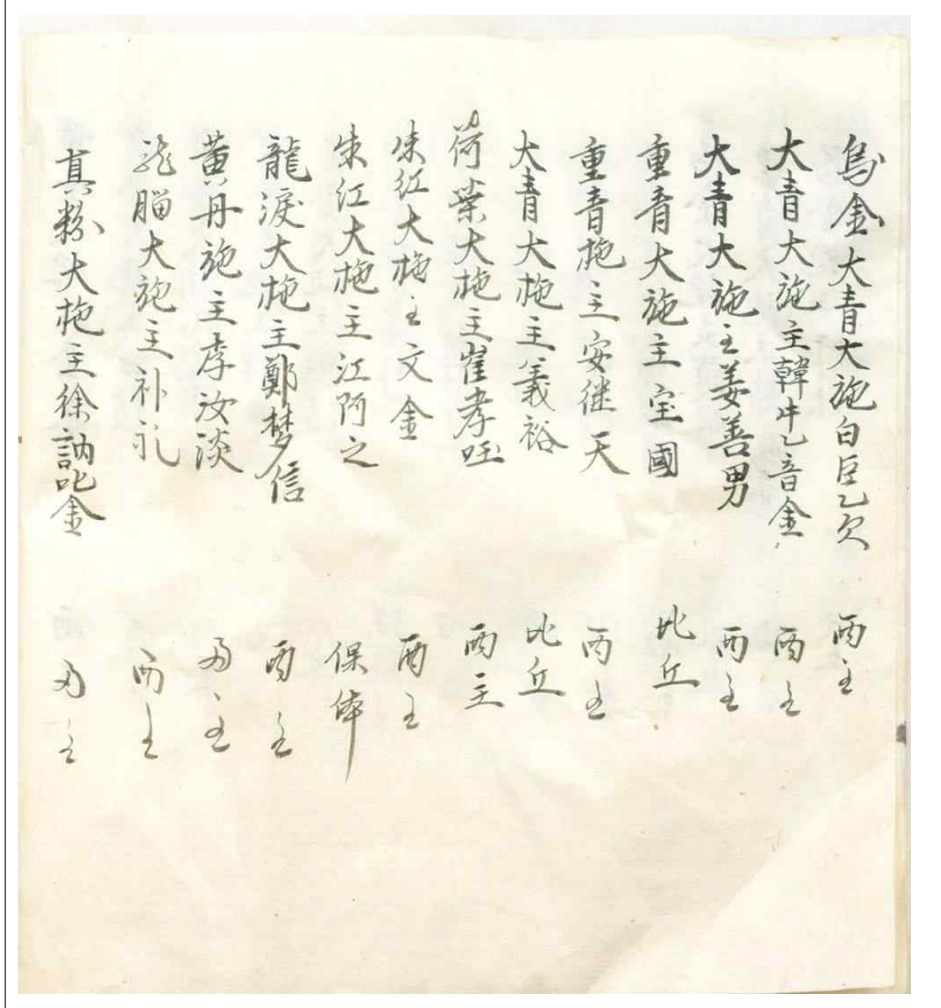
5. 화엄사 대응전 노사나불 시주질 4면

黃金大施主 金水	兩主	黃金大施主 金水	兩主
黃金大施主 白信	力主	黃金大施主 白信	力主
黃金大施主 金斗雄	兩主	黃金大施主 金斗雄	兩主
黃金大施主 韓應立	力主	黃金大施主 韓應立	力主
黃金大施主 熙信	比丘	黃金大施主 熙信	比丘
黃金施主 忞德	保体	黃金施主 忞德	保体
黃金施主 趙夢見	兩主	黃金施主 趙夢見	兩主
黃金施主 黃千	兩主	黃金施主 黃千	兩主
烏金大施主 崔衍	兩主	烏金大施主 崔衍	兩主
烏金大施主 孫淑男	兩主	烏金大施主 孫淑男	兩主
烏金大施主 護明	比丘	烏金大施主 護明	比丘
重青大施主 鄭應春	兩主	重青大施主 鄭應春	兩主
烏金施主 行珠	比丘	烏金施主 行珠	比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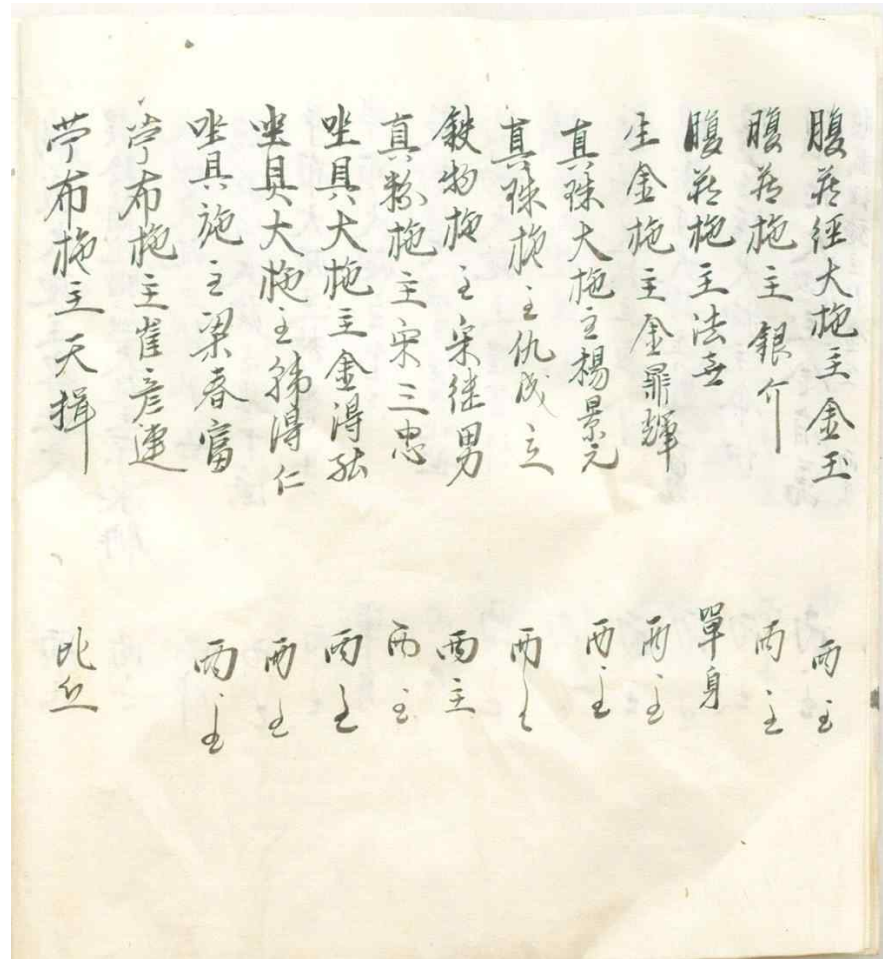
6. 화엄사 대응전 노사나불 시주질 5면

眞粉大施主 徐訥叱金	兩主
龍腦大施主 朴礼	兩主
黃丹施主 李汝淡	兩主
龍淚大施主 鄭夢信	兩主
朱紅大施主 姜阿只	保体
朱紅大施主 文金	兩主
荷葉大施主 崔孝國	兩主
大靑大施主 義裕	比丘
重靑施主 安繼天	兩主
重靑大施主 宝國	比丘
大靑大施主 姜善男	兩主
大靑大施主 韓牛乙音金	兩主
烏金大靑大施 白曇欠	兩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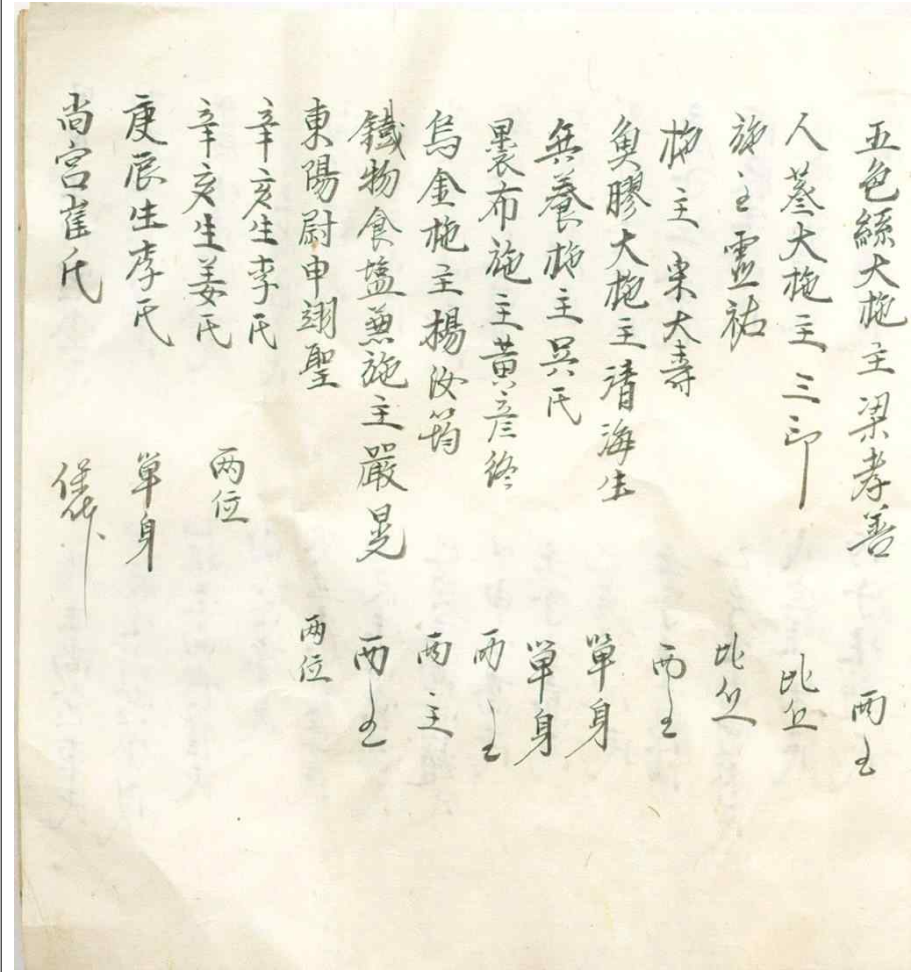


8. 화엄사 대응전 노사나불 시주질 7면

腹藏經大施主 金玉 兩主
 腹藏施主 銀介 兩主
 腹藏施主 法世 單身
 生金施主 金鼎輝 兩主
 眞珠大施主 楊景元 兩主
 眞珠施主 仇成立 兩主
 鉄物施主 宋繼男 兩主
 眞粉施主 宋三忠 兩主
 坐具大施主 金得弘 兩主
 坐具大施主 韓得仁 兩主
 坐具施主 梁春富 兩主
 苧布施主 崔彦連
 苧布施主 天揖 比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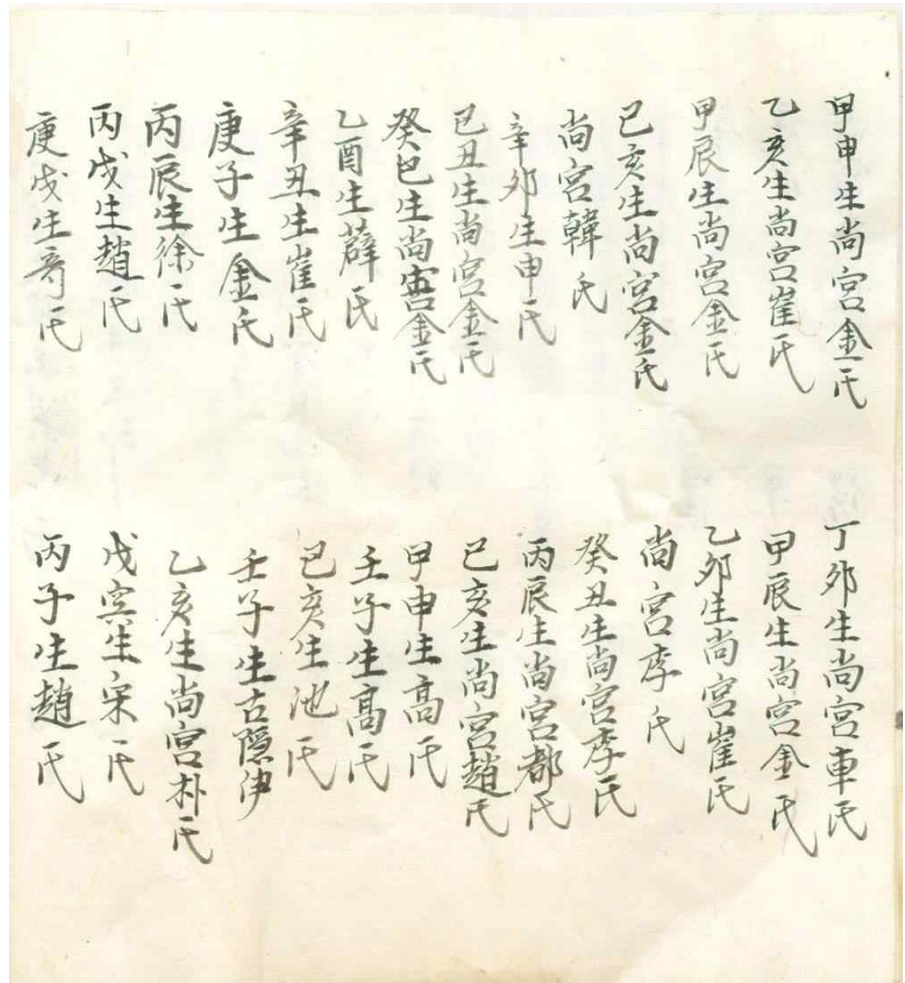
9. 화엄사 대응전 노사나불 시주질 8면



五色絲大施主 梁孝善 兩主
 人蔘大施主 三印 比丘
 施主 靈祐 比丘
 施主 宋大壽 兩主
 魚膠大施主 清海生 單身
 供養施主 吳氏 單身
 裹布施主 黃彥終 兩主
 烏金施主 楊汝筠 兩主
 鐵物食塩兼施主 嚴晃 兩主
 東陽尉 申翊聖 兩位
 辛亥生 李氏
 辛亥生 姜氏 兩位
 庚辰生 李氏 單身
 尙宮崔氏 保体

10. 화엄사 대응전 노사나불 시주질 9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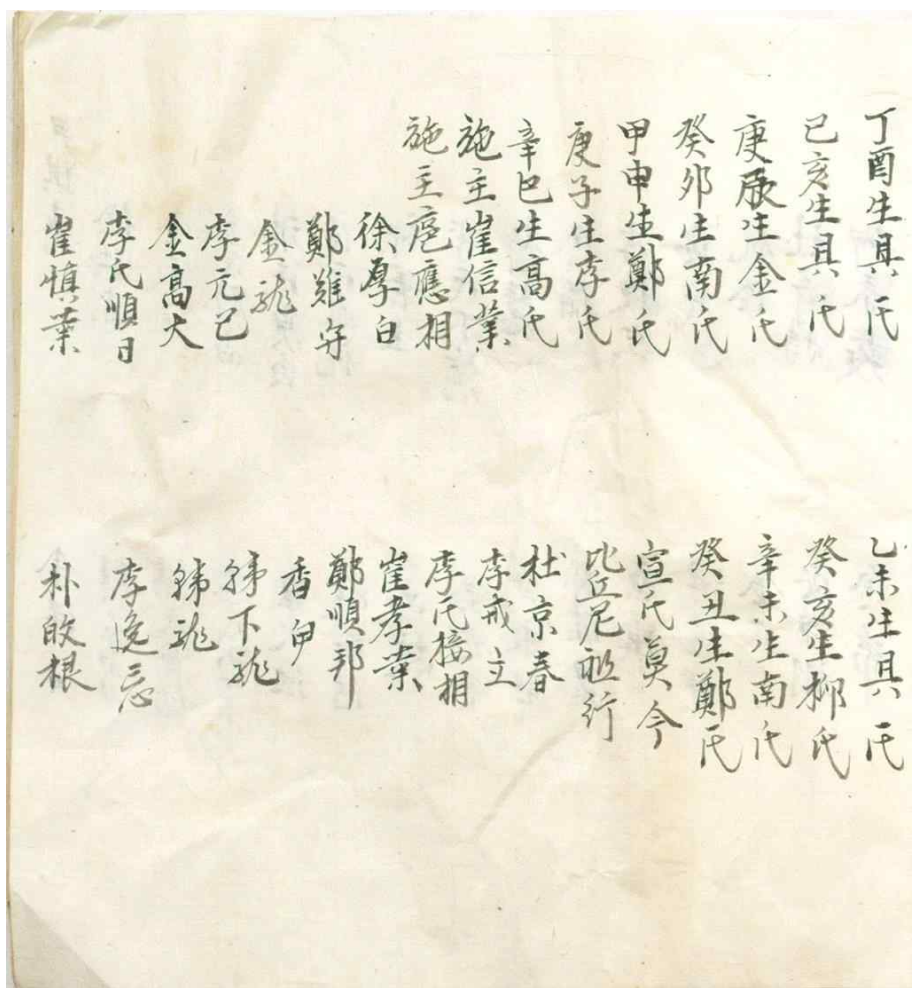
甲申生尙宮金氏	甲申生尙宮金氏
乙亥生尙宮崔氏	乙亥生尙宮崔氏
甲辰生尙宮金氏	甲辰生尙宮金氏
己亥生尙宮金氏	己亥生尙宮金氏
尙宮韓氏	尙宮李氏
辛卯生申氏	癸丑生尙宮李氏
己丑生尙宮金氏	丙辰生尙宮都氏
癸巳生尙宮金氏	己亥生尙宮趙氏
乙酉生薛氏	甲申生高氏
辛丑生崔氏	壬子生高氏
庚子生金氏	己亥生池氏
丙辰生徐氏	壬子生古隱伊
丙戌生趙氏	乙亥生尙宮朴氏
庚戌生奇氏	戊辰生宋氏
	丙子生趙氏



11. 화엄사 대응전 노사나불 시주질 10면

丁酉生具氏
己亥生具氏
庚辰生金氏
癸卯生南氏
甲申生鄭氏
庚子生李氏
辛巳生高氏
施主崔信業
施主扈應相
徐厚白
鄭難守
金龍
李元己
金高大
李氏順日
崔愼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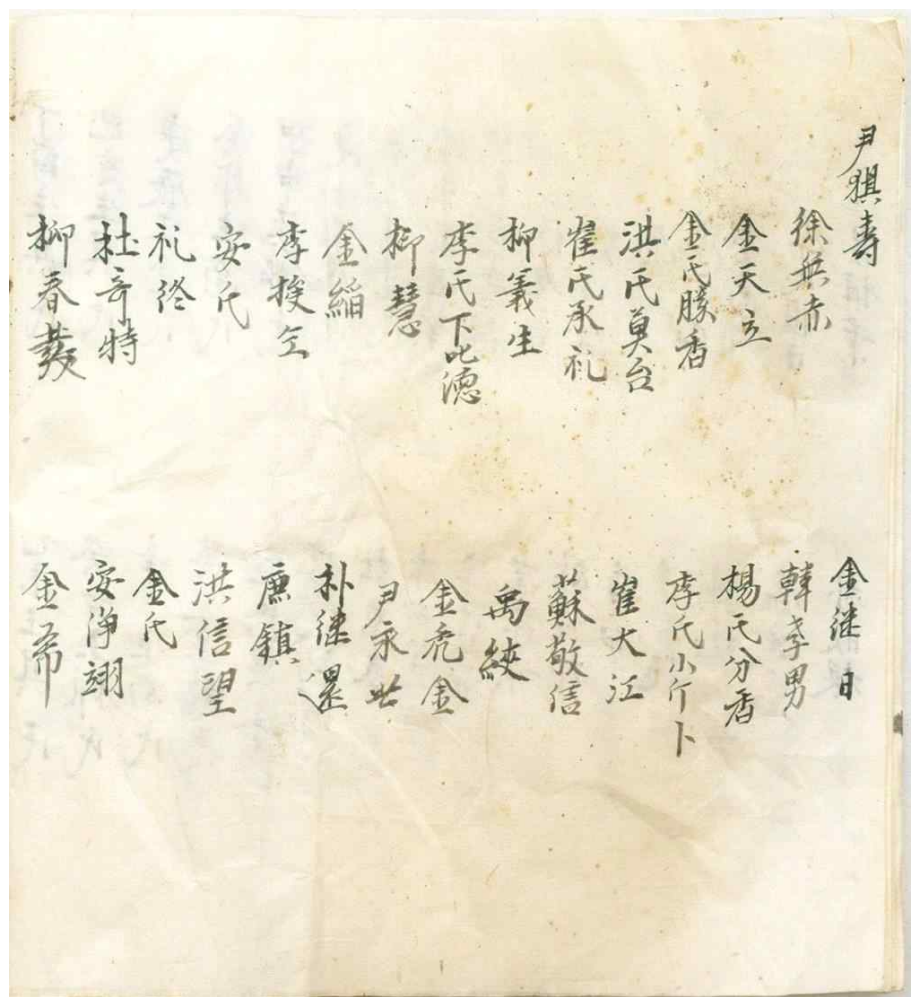
乙未生具氏
癸亥生柳氏
辛未生南氏
癸丑生鄭氏
宣氏莫今
比丘尼祖行
杜京春
李戒立
李氏接相
崔孝業
鄭順邦
香伊
韓下龍
韓龍
李逸恩
朴敏根



12. 화엄사 대응전 노사나불 시주질 11면

尹旗壽
徐無赤
金天立
金氏勝香
洪氏莫台
崔氏承礼
柳義生
李氏下叱德
柳慧
金緇
李挨全
安氏
礼終
杜奇特
柳春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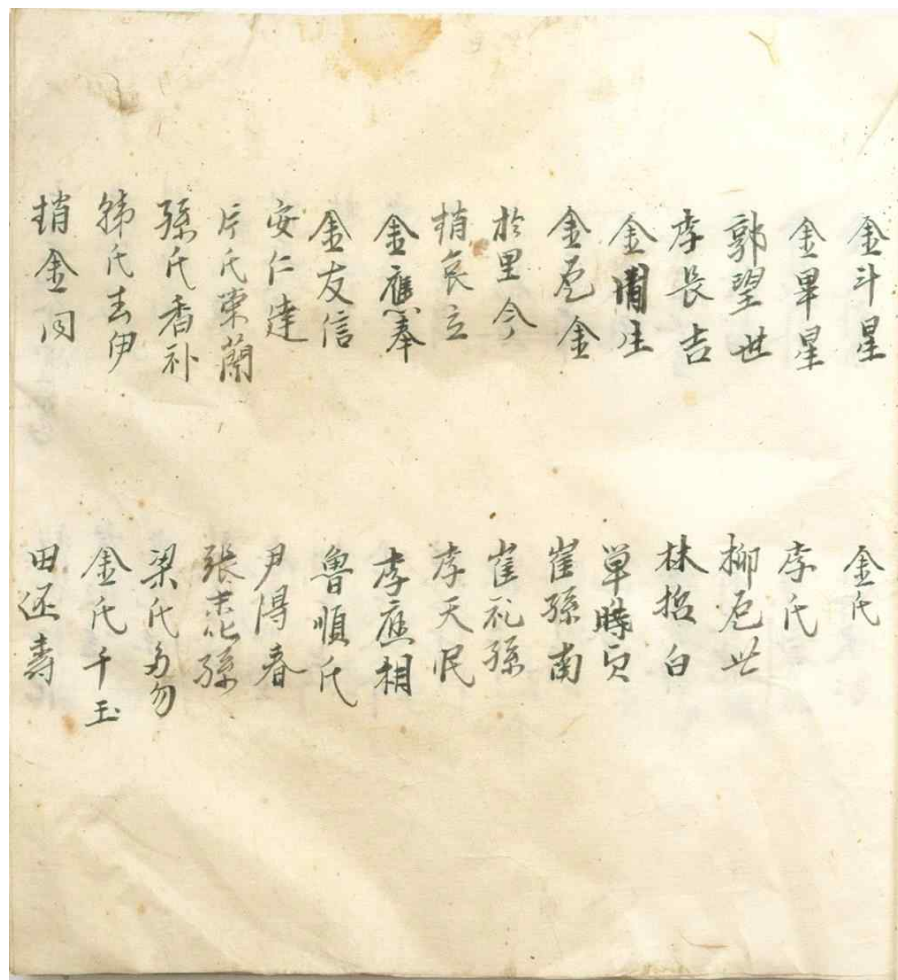
金繼日
韓孝男
楊氏分香
李氏小斤卜
崔大江
蘇敬信
禹紱
金禿金
尹永芸
朴繼還
廉鎮
洪信望
金氏
安淨翊
金希



13. 화엄사 대응전 노사나불 시주질 12면

金斗星
金畢星
郭望世
李長吉
金閒生
金芻金
於里今
趙哀立
金應奉
金友信
安仁達
片氏榮蘭
孫氏香朴
孫氏去伊
趙金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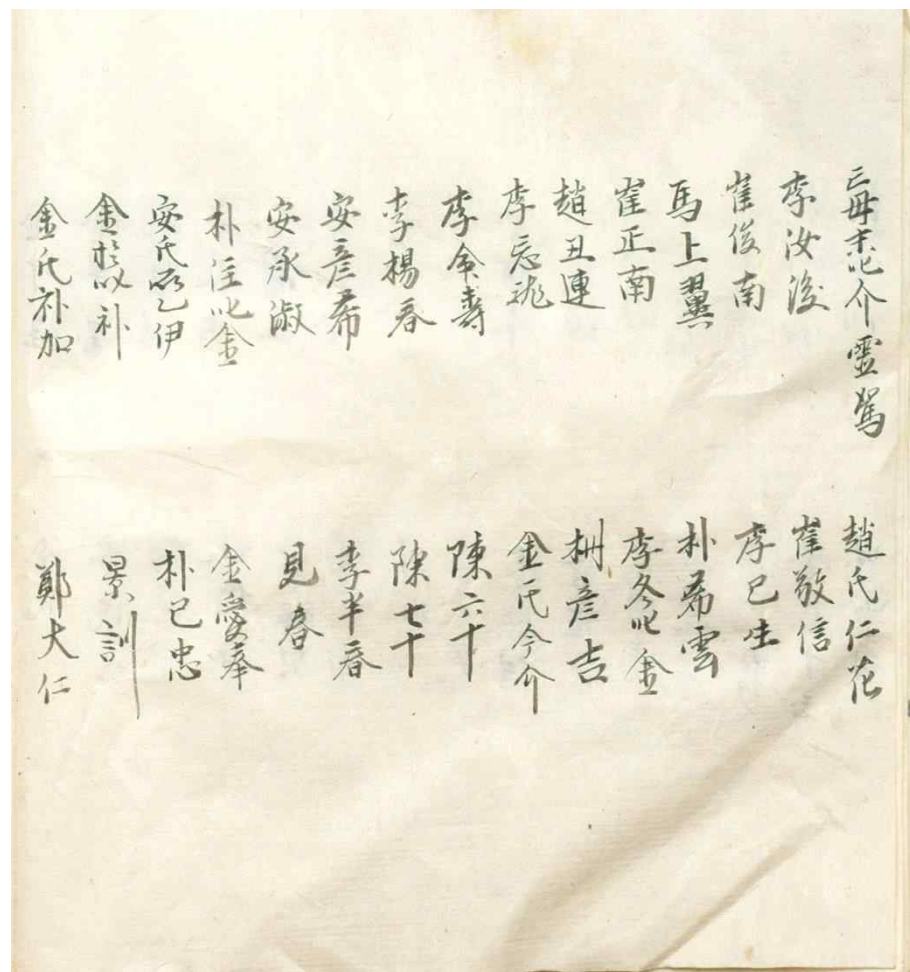
金氏
李氏
柳芻興
林哲白
單時賢
崔孫南
崔礼孫
李天民
李應相
魯順代
尹得春
張恣孫
梁氏多勿
金氏千玉
田还壽



14. 화엄사 대응전 노사나불 시주질 1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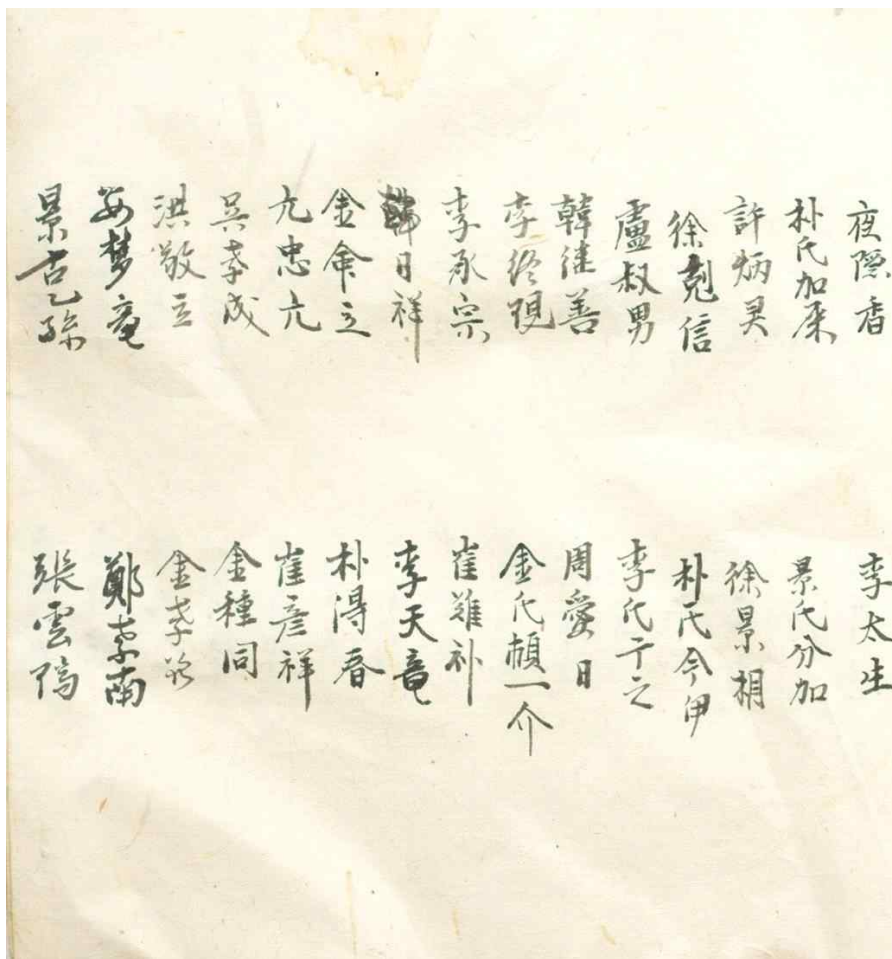
亡母 孟介靈駕
 李汝浚
 崔俊南
 馬上翼
 崔正南
 趙丑連
 李忘龍
 李命壽
 李楊春
 安彦希
 安承淑
 朴誌金
 安氏 亨伊
 金齡 補
 金氏 補加

趙氏 仁花
 崔敬信
 李己生
 朴希雲
 李冬叱金
 權彦吉
 金氏 今介
 陳六十
 陳七十
 李半春
 見春
 金愛奉
 朴己忠
 景訓
 鄭大仁



15. 화엄사 대응전 노사나불 시주질 14면

夜隱香
 朴氏加屎
 許炳灵
 徐剋信
 盧叔男
 韓繼善
 李終現
 李承宗
 韓日祥
 金命立
 元忠元
 吳孝成
 洪敬立
 安夢竜
 景壹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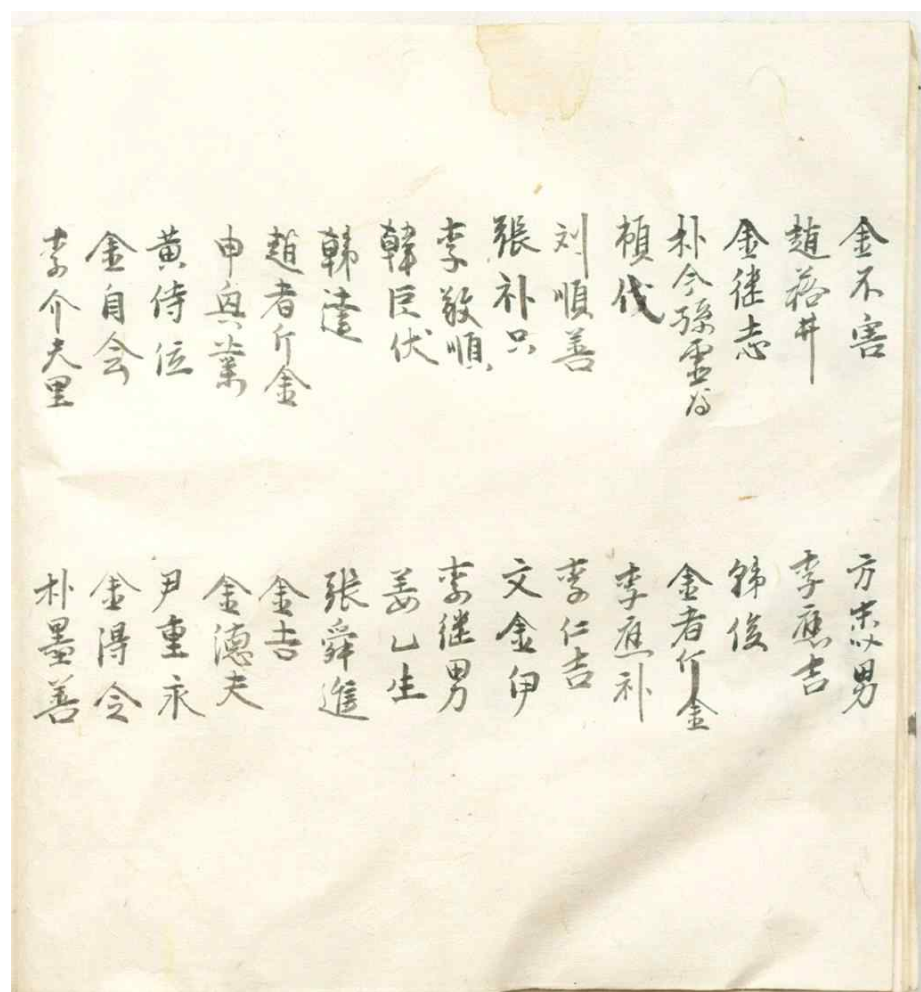


李太生
 景氏分加
 徐景相
 朴氏今伊
 李氏丁之
 周愛日
 金氏賴一介
 崔難朴
 李天竜
 朴得春
 崔彦祥
 金種同
 金孝花
 鄭孝南
 張雲陽

16. 화엄사 대응전 노사나불 시주질 15면

金不害
趙落井
金繼志
朴今孫 靈爲
賴代
刘順善
張朴只
李敬順
韓巨伏
韓達
趙者斤金
申興業
黃侍位
金自会
李介夫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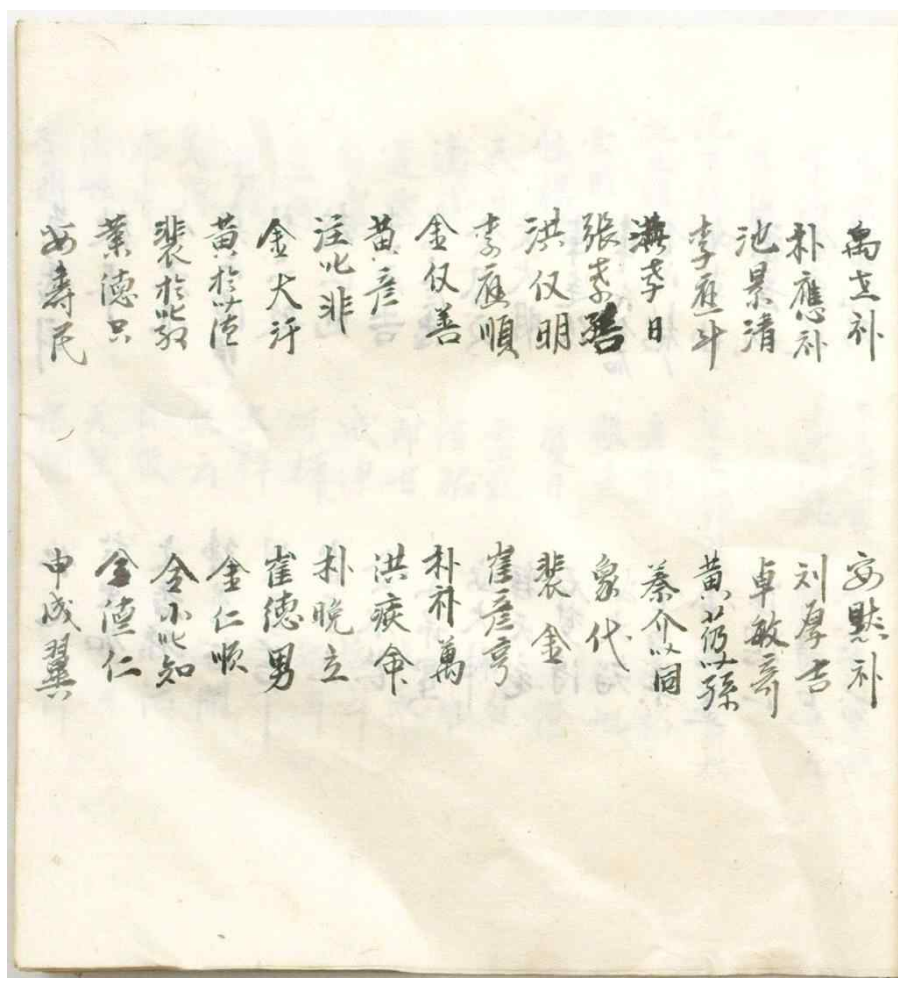
方恠男
李應吉
韓俊
金者斤金
李應祢
李仁吉
文金伊
李繼男
姜乙生
張舜進
金吉
金德夫
尹重永
金得令
朴墨善



17. 화엄사 대응전 노사나불 시주질 16면

禹安社 朴應社 池景清 李應斗 洪孝日 張孝吉 洪儀明 李應順 金儀善 黃彥 誌非 金大汗 黃齡德 裴齡孫 業德只 安壽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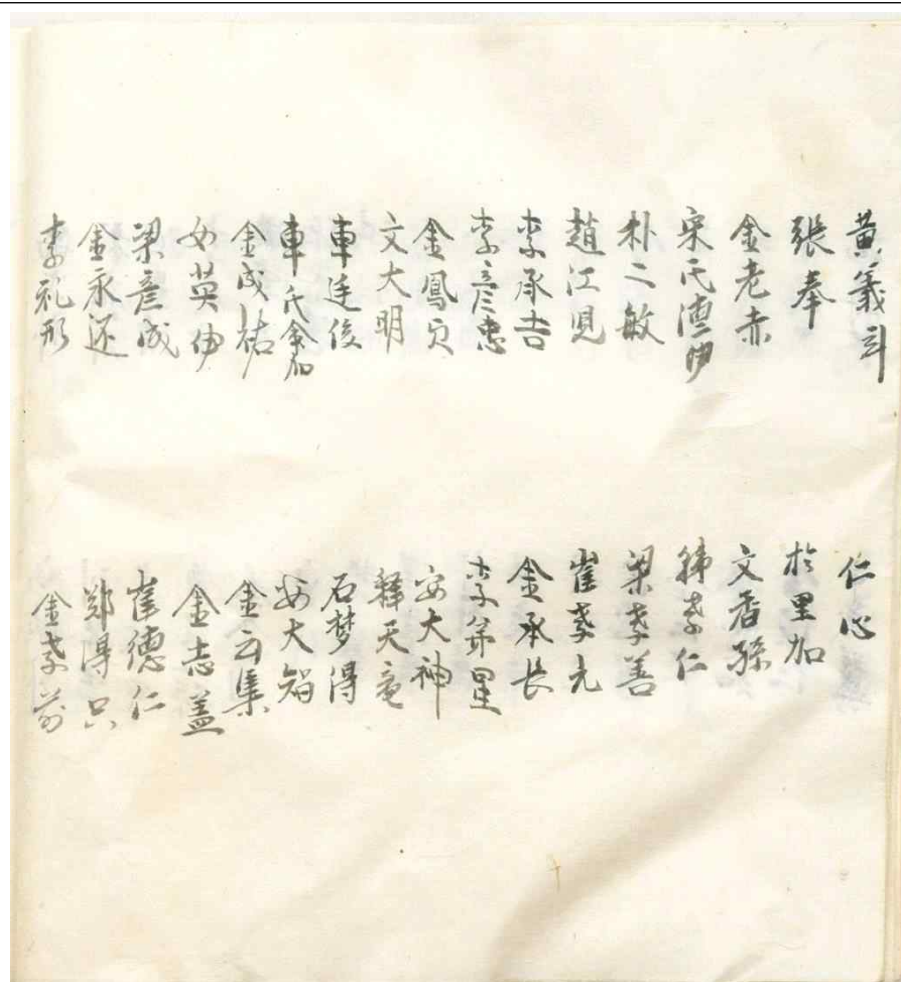
安默社 劉厚吉 卓敏奇 黃仍叱孫 秦龕同 象代 裴金 崔彥亨 朴補萬 洪疾命 朴晚立 崔德男 金仁順 金齡知 金德仁 申成翼



18. 화엄사 대응전 노사나불 시주질 17면

黃義斗
張奉
金老赤
宋氏德伊
朴二敏
趙江見
李承吉
李彦忠
金鳳員
文大明
車廷俊
車氏命加
金成祐
女英伊
梁彦成
金永还
李礼形

仁心
於里加
文香孫
韓孝仁
梁孝善
崔孝元
金承長
李弟星
安大神
釋天竜
石梦得
安大智
金云集
金志益
崔德仁
鄭得只
金孝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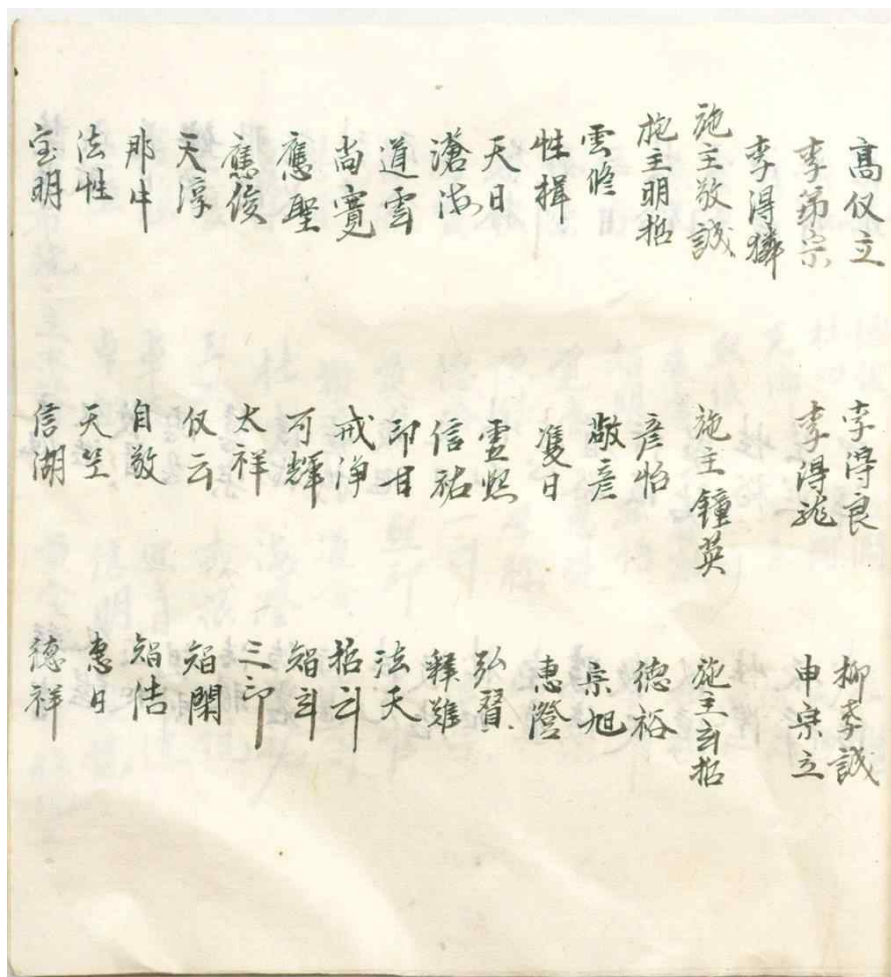


19. 화엄사 대응전 노사나불 시주질 18면

高仅立 李第宗 李得麟
 施主 敬誠
 施主 明哲
 雲修 性楫 天日 滄安 道雲 尚寬 應聖 應俊 天淳 那牛 法性 宝明

李得良 李得龍
 施主 鐘英
 彦怡 敬彦 濩日 靈熙 信祐 印甘 戒淨 可輝 太祥 仅云 自敬 天竺 信湖

柳孝誠 申宗立
 施主 玄哲
 德裕 宗旭 惠澄 弘贊 釋難 法天 哲玄 智玄 三印 智閑 智浩 惠日 德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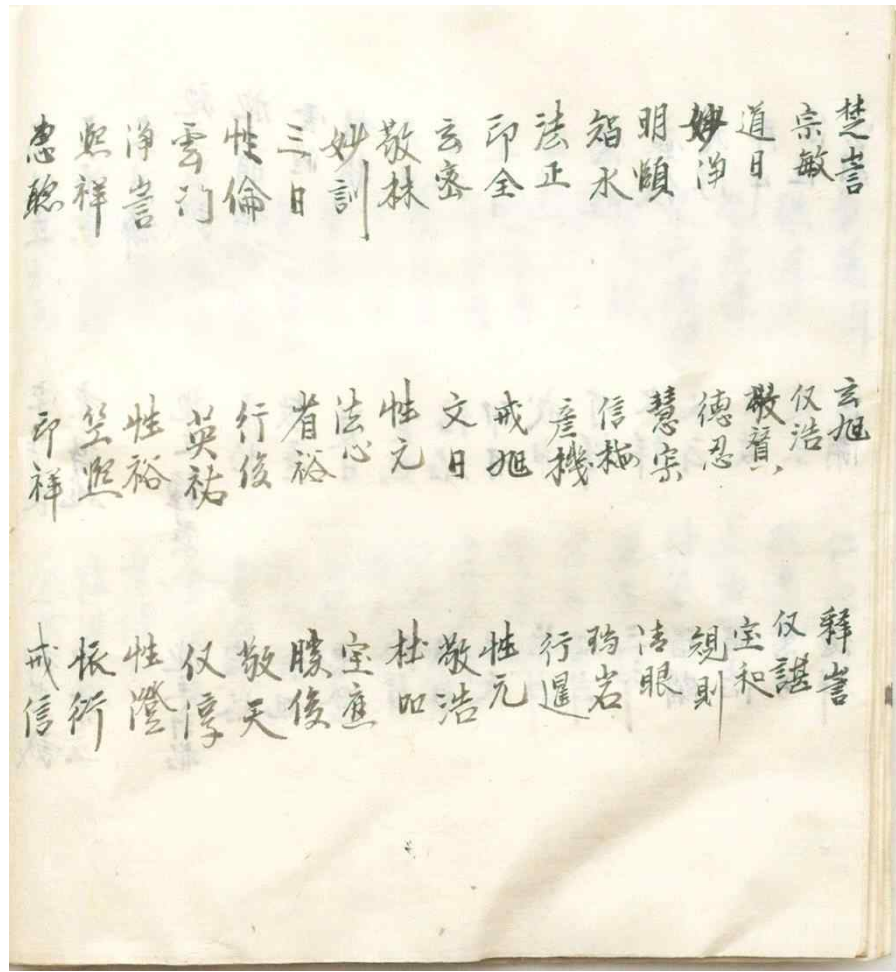


20. 화엄사 대응전 노사나불 시주질 19면

惠熙淨雲性三妙敬玄印法智明妙道宗楚
聰祥嘗行倫日訓林密全正水頤淨日敏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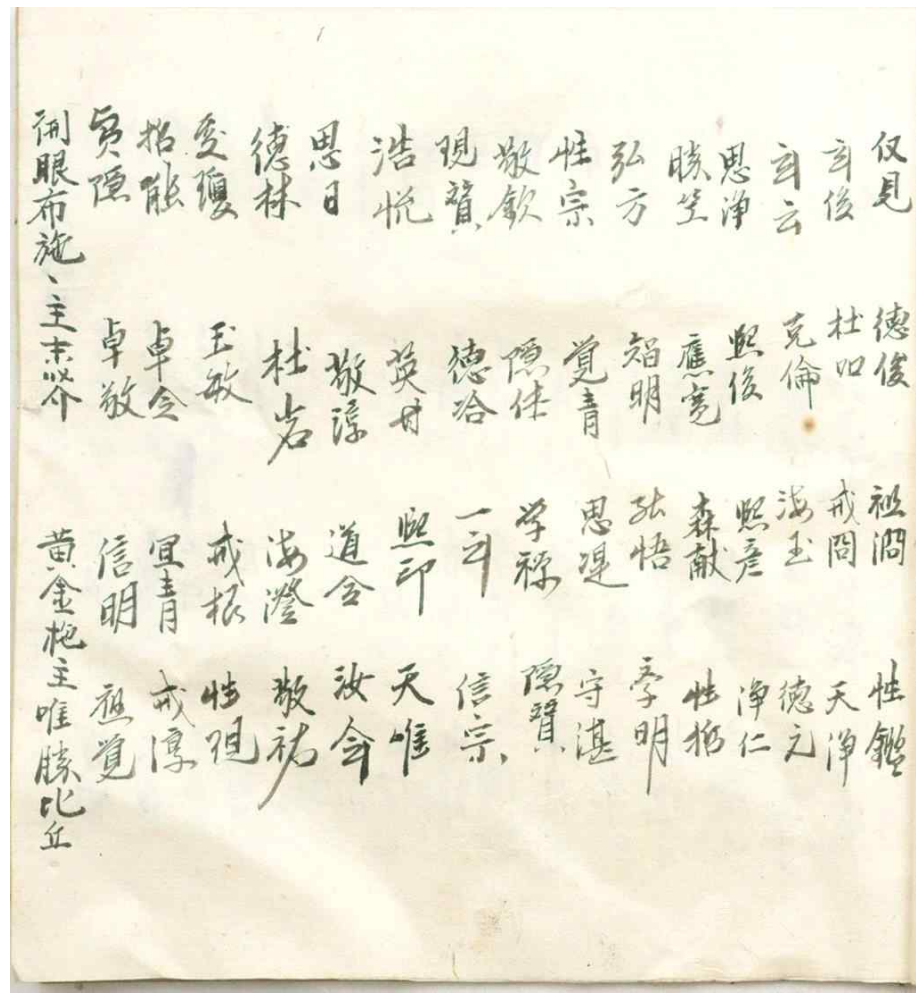
印竺性英行省法性文戒彥信慧德敬仅玄
祥熙裕祐俊裕心元日旭機梅宗忍贊浩旭

戒依性仅敬勝宝杜敬性行瑞法規則宝仅釋
信衍澄淳天俊應叩浩元暹岩眼則和諶嘗



21. 화엄사 대응전 노사나불 시주질 20면

開眼布施主	賢隱	哲能	愛瓊	德林	思日	浩悅	現贊	敬欽	性宗	弘方	勝竺	思淨	玄云	玄俊	仅見
主															
忞介	卓敬	卓令	玉敏	杜岩	敬淳	英甘	德洽	隱休	覺青	智明	應寬	熙俊	克倫	杜叩	德俊
黃金施主	信明	宜青	戒根	海澄	道令	熙印	一玄	学禪	思湜	弘悟	森猷	熙彦	海玉	戒罔	祖澗
唯勝比丘															
	祖寬	戒淳	性現	敬祐	汝会	天雄	信宗	隱贊	守湛	孝明	性哲	淨仁	德元	天淨	性鑑



22. 화엄사 대응전 노사나불 시주질 21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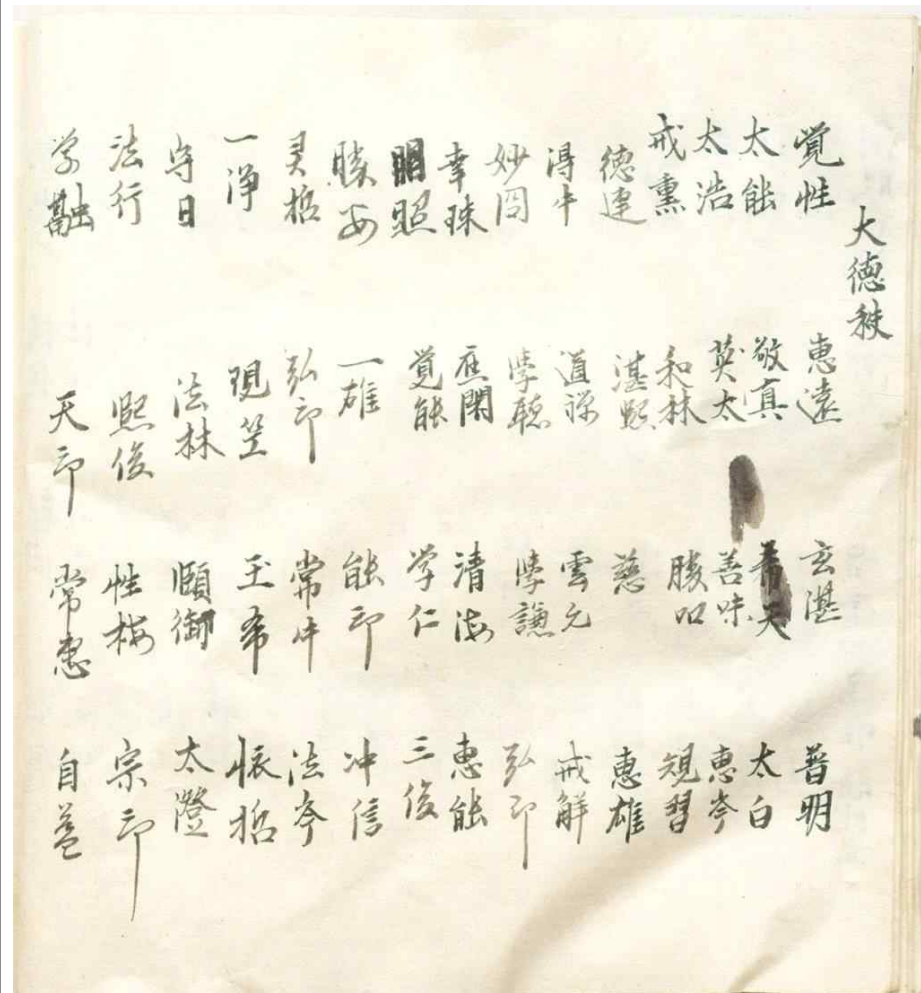
覺性 太能 太浩 戒熏 德連 得牛 妙罔 幸珠 明照 勝安 靈哲 一淨 守日 法行 學融

大德秩

惠遠 敬真 英太 和林 湛熙 道禪 學聽 應閑 覺能 一雄 弘印 現竺 法林 熙俊 天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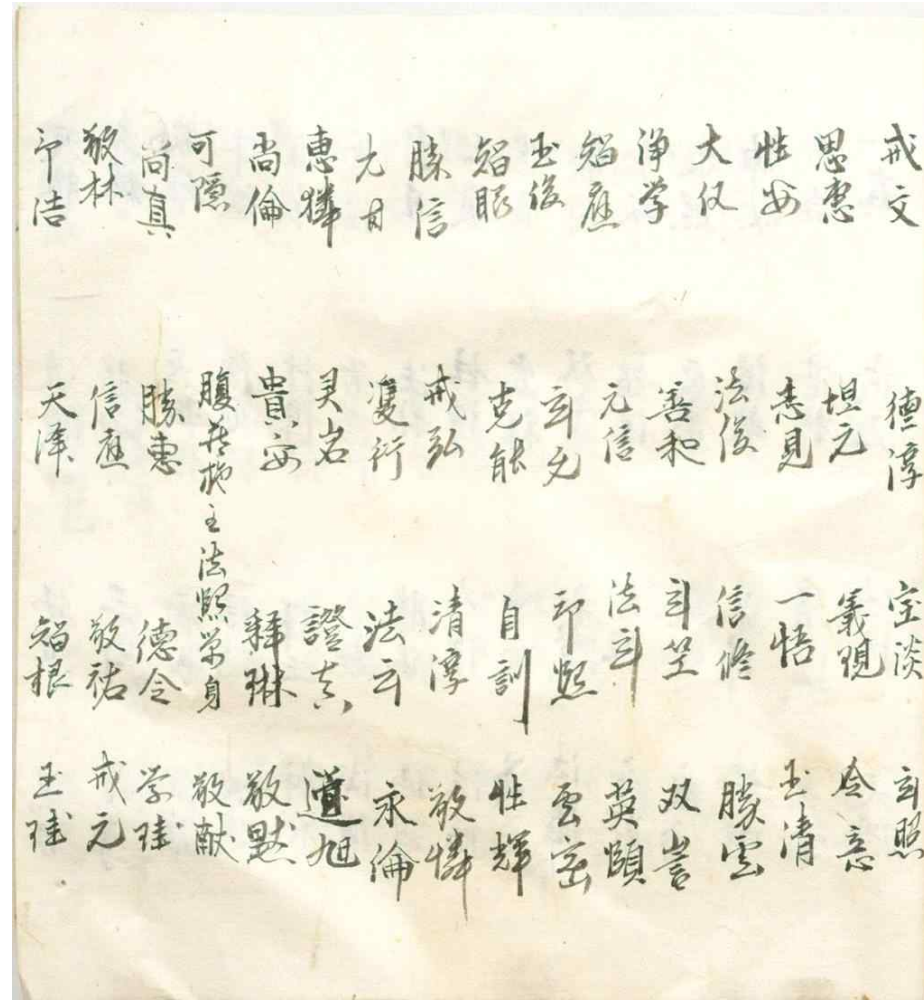
玄湛 希天 善味 勝叩 慈允 雲謙 學謙 清海 學仁 能印 常牛 玉希 頤御 性梅 常惠

普明 太白 惠夸 規習 惠峯 戒解 弘印 惠能 三俊 冲信 法岑 依哲 太澄 宗印 自蒼



23. 화엄사 대응전 노사나불 시주질 22면

戒文	思惠	性安	大仅	淨学	智應	玉俊	智眼	勝信	元日	惠憐	尙倫	可隱	尙眞	敬林	印浩
德淳	坦元	志見	法俊	善和	元信	玄允	克能	戒弘	雙衍	灵岩	貴安	腹藏施主	勝惠	信應	天澤
宝淡	義現	一悟	信修	玄竺	法玄	印熙	自訓	清淳	法云	證志	釋琳	單身	德令	敬祐	智根
玄照	会意	玉清	勝雲	双峯	英頤	雲密	性輝	敬憐	永倫	道旭	敬默	敬獻	学珪	戒元	玉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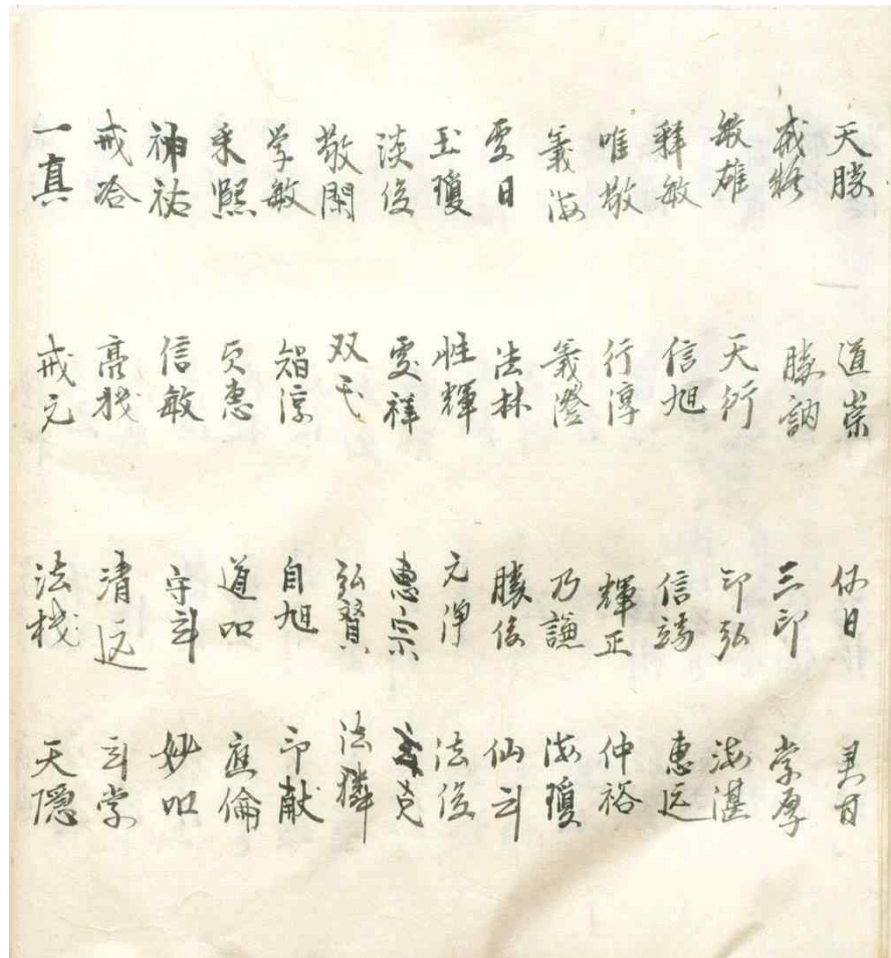
24. 화엄사 대응전 노사나불 시주질 23면

一 戒 神 采 学 敬 淡 玉 雲 義 唯 釋 敏 戒 天
眞 洽 祐 熙 敏 閑 俊 瓊 日 海 敬 敏 雄 ● 勝

戒 高 信 印 智 双 雪 性 法 義 行 信 天 勝 道
元 機 敏 惠 淳 式 祥 輝 林 澄 淳 旭 衍 訥 崇

法 清 守 道 自 弘 惠 文 勝 乃 輝 信 印 三 仅
機 远 玄 叩 旭 贊 宗 淨 俊 謙 正 端 弘 印 日

天 玄 妙 應 印 法 玄 法 仙 海 仲 惠 海 学 灵
隱 学 叩 倫 献 憐 克 俊 玄 瓊 裕 远 湛 厚 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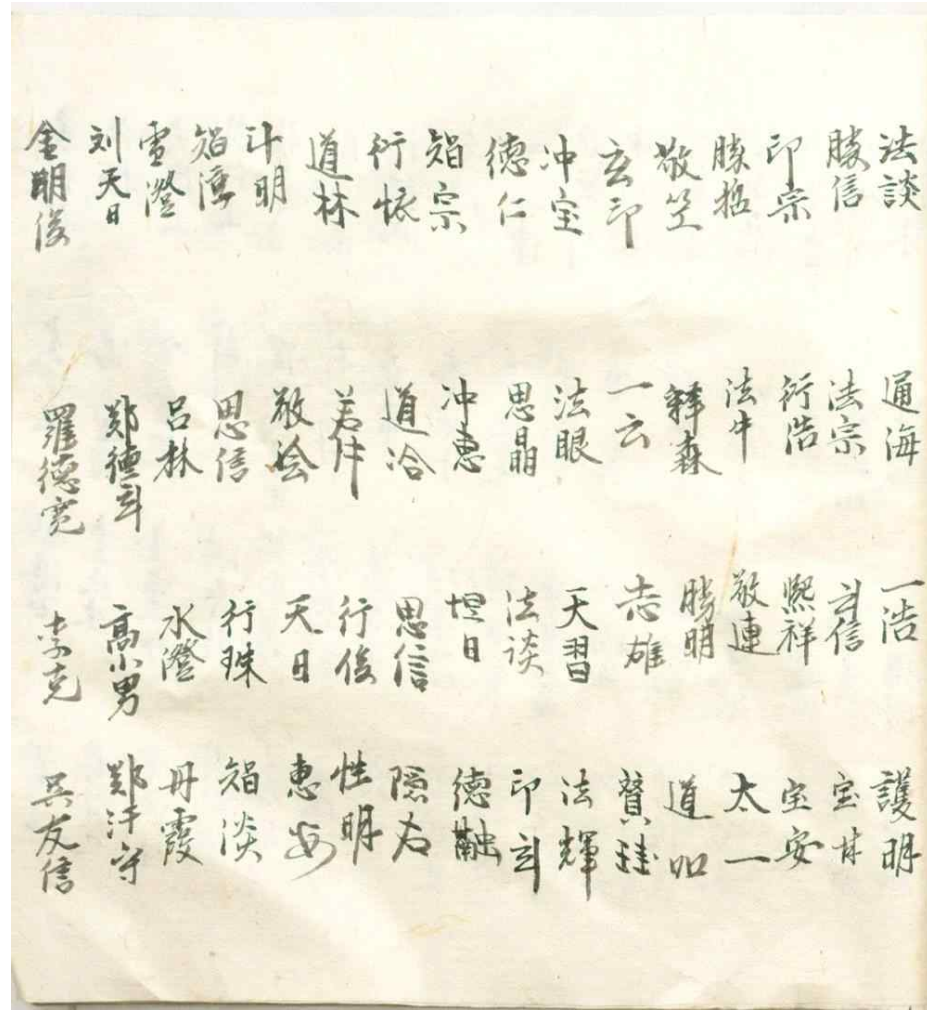
25. 화엄사 대응전 노사나불 시주질 24면

法談 勝信 印宗 勝哲 敬竺 玄印 冲宝 德仁 智宗 衍依 道林 斗明 智淳 雪澄 刘天日 金明俊

通海 法宗 衍浩 法牛 釋森 一云 法眼 思晶 冲惠 道洽 若牛 敬会 思信 吕林 鄭德玄 羅德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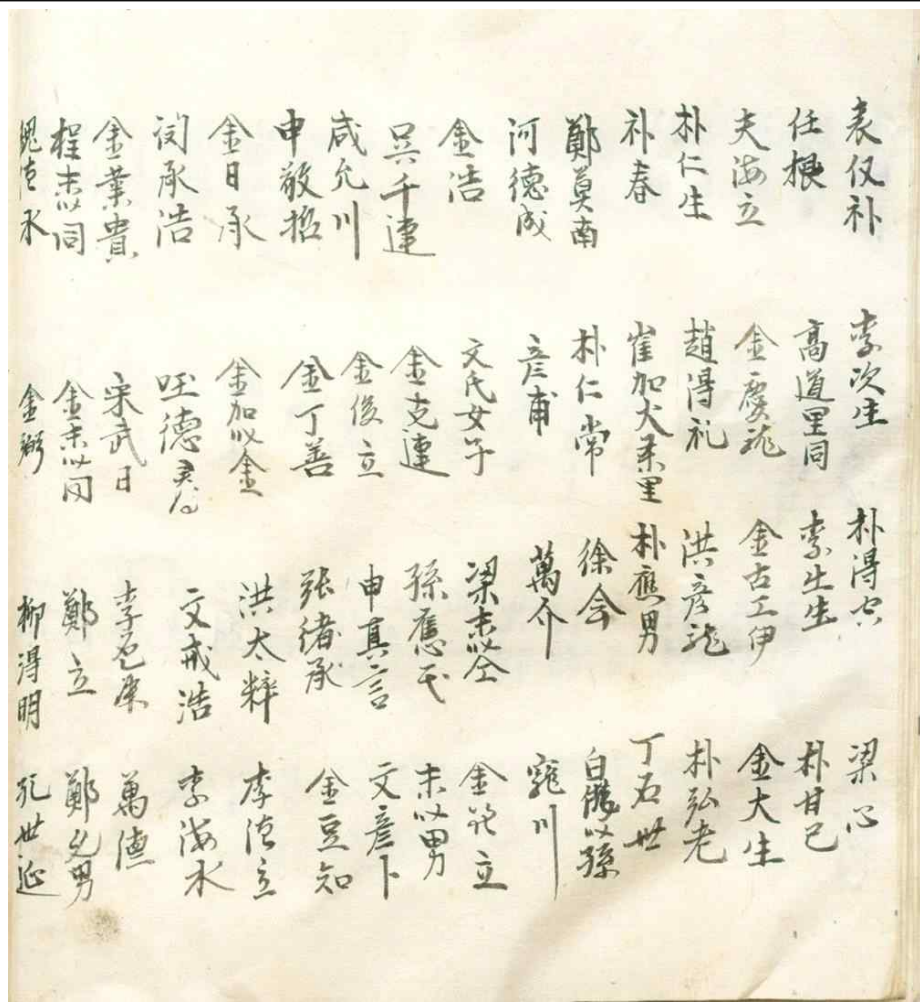
一浩 玄信 熙祥 敬連 勝明 志雄 天習 法淡 坦日 思信 行俊 天日 行珠 水澄 高小男 李克

護明 宝甘 宝安 太一 道叩 贊珪 法輝 印玄 德融 隱右 性明 惠安 智淡 丹霞 鄭汗守 吳友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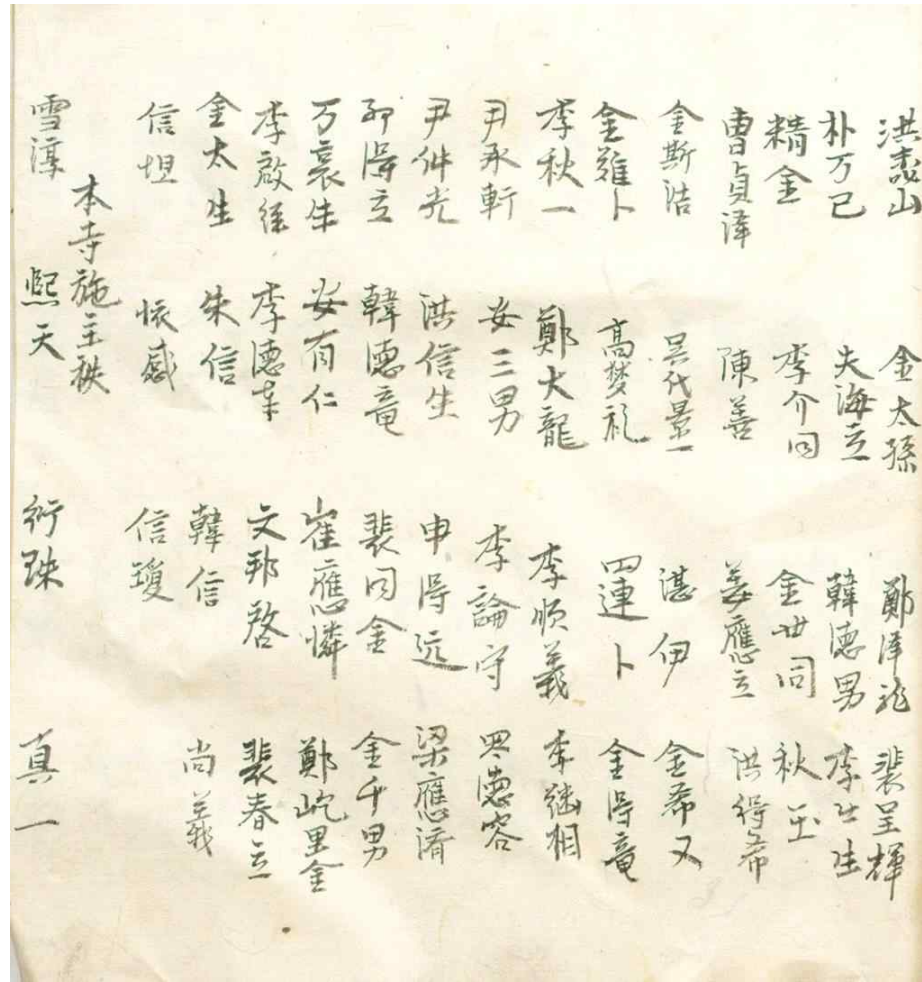
26. 화엄사 대응전 노사나불 시주질 25면

梁德水	程恣同	金業貴	閔承浩	金日承	申敬哲	咸允川	吳千連	金浩	河德成	鄭莫南	朴春	朴仁生	夫海立	任根	表仅补
金弼	金恣同	宋武日	國德灵駕	金韶金	金丁善	金俊立	金支連	文氏女子	彦甫	朴仁常	崔加大泉	趙得礼	金慶龍	高道里同	李次生
柳得明	鄭立	李豆屎	文戒浩	洪太粹	孫楮承	申眞言	孫應式	梁恣全	萬介	徐会	朴應男	洪彦龍	金古工伊	李土生	朴得只
孔世延	鄭允男	萬德	李海水	李德立	金豆知	文彦卜	恣男	金花立	寵川	白仍叱孫	丁石世	朴弘老	金大生	朴甘己	梁心



27. 화엄사 대응전 노사나불 시주질 26면

雪淳	信坦	金太生	李啓徑	万哀生	孫得立	尹件光	尹承軒	李秋一	金難卜	金斯浩	曹貞澤	精金	朴万己	洪恠山
熙天	依感	朱信	李德業	安有仁	韓德竜	洪信生	安三男	鄭大龍	高梦礼	吳代景一	陳善	李介同	夫海立	金太孫
衍珠	信瓊	韓信	文邦啓	崔應憐	裴同金	申得远	李論守	李順義	卍連卜	湛伊	姜應立	金世同	韓德男	鄭澤龍
眞一	尙義	裴春立	鄭屹里金	金千男	梁應濟	羅德容	李繼相	金得竜	金希又	洪得希	秋玉	李壬生	裴呈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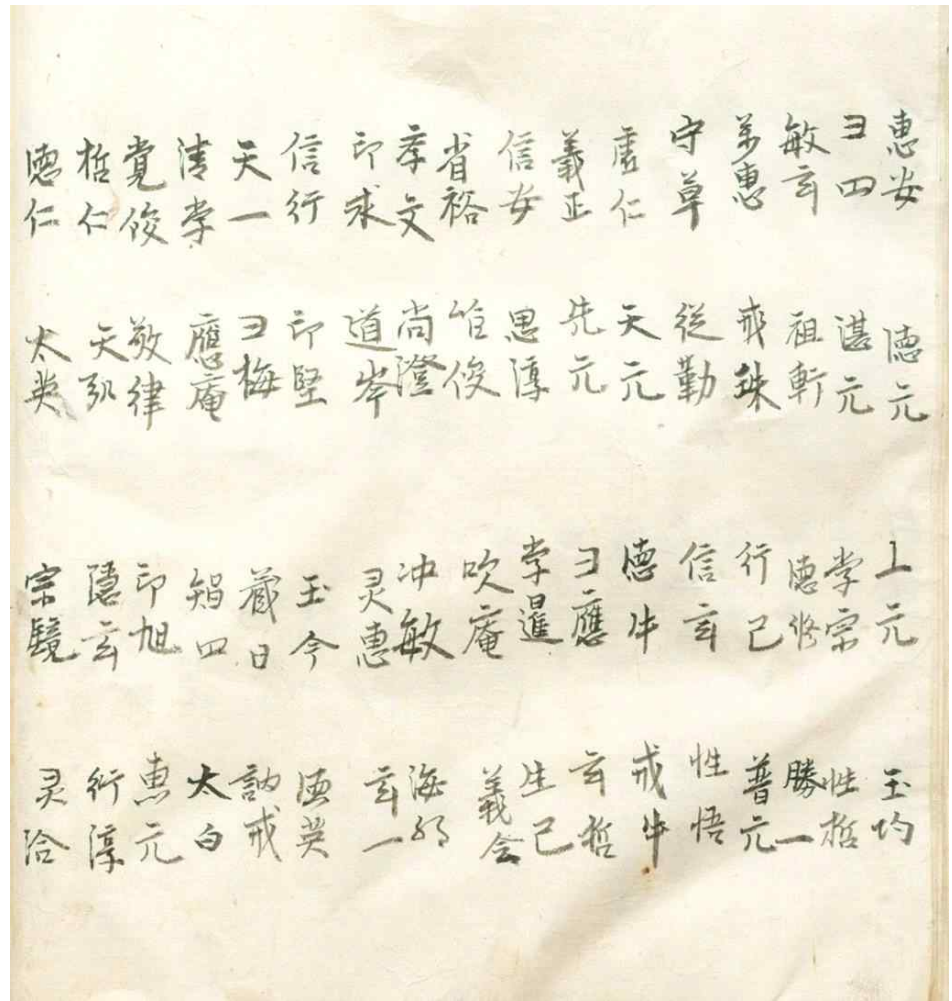
28. 화엄사 대응전 노사나불 시주질 27면

惠安 雪卍 敏玄 萬惠 守草 虛仁 義正 信安 省裕 孝文 印永 信行 天一 法學 覺俊 哲仁 德仁

德元 湛元 祖軒 戒珠 從勒 天元 先元 思淳 唯俊 尚澄 道岑 印堅 雪梅 應庵 敬律 天弘 太英

上元 學宗 德修 行己 信玄 德牛 雪應 學遲 吹庵 冲敏 灵惠 玉今 藏日 智卍 印旭 隱玄 宗鏡

玉均 性哲 勝一 普元 性悟 戒牛 玄哲 生己 義會 海龍 玄一 德英 訥戒 太白 惠元 衍淳 灵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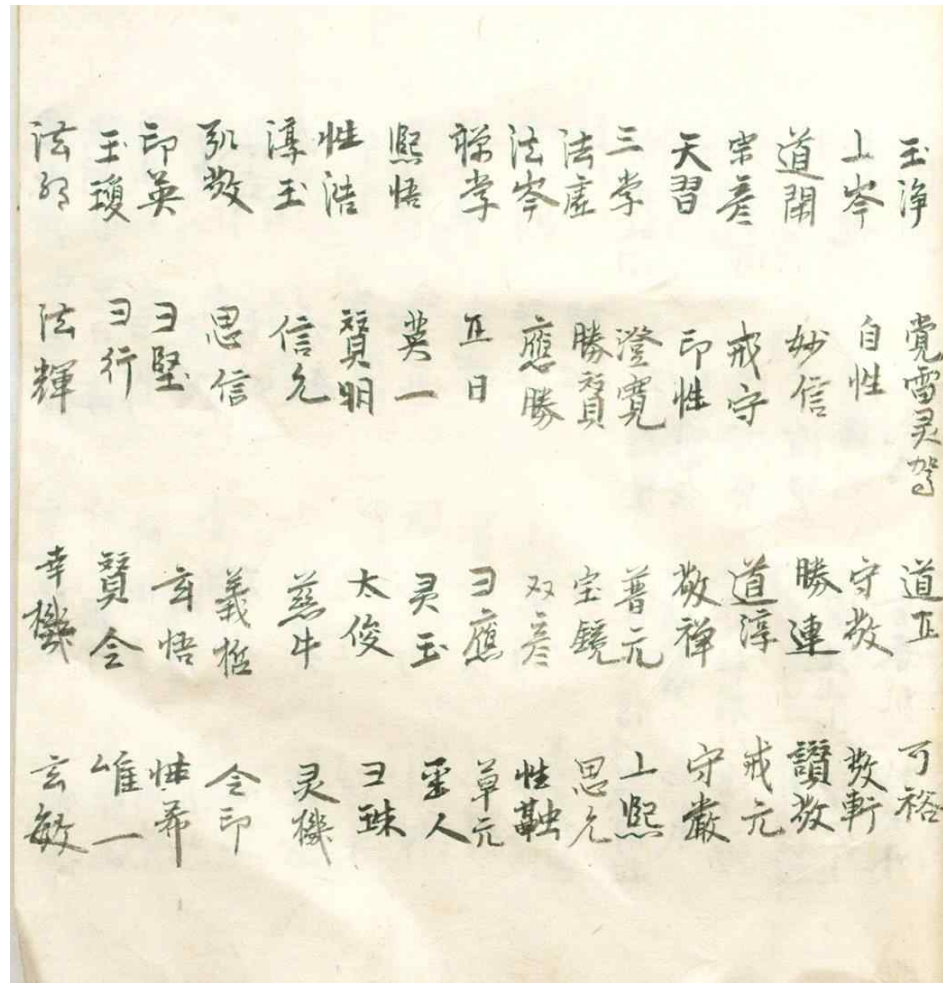
29. 화엄사 대응전 노사나불 시주질 28면

法龍 玉瓊 印英 弘敬 淳玉 性浩 熙悟 禪學 法岑 法虛 三學 天習 宗彥 道閑 一岑 玉淨

法輝 雪行 雪堅 思信 信允 贊明 英一 正日 應勝 勝贊 澄寬 印性 戒守 妙信 自性 覺雷靈駕

幸機 贊令 玄悟 義哲 慈牛 太俊 靈玉 雪應 双彦 宝鏡 普元 敬禪 道淳 勝連 守敬 道正

玄敏 唯一 性希 令印 靈機 雪珠 雲(?)人 草元 性融 思允 一熙 守嚴 戒元 讚敬 敬軒 可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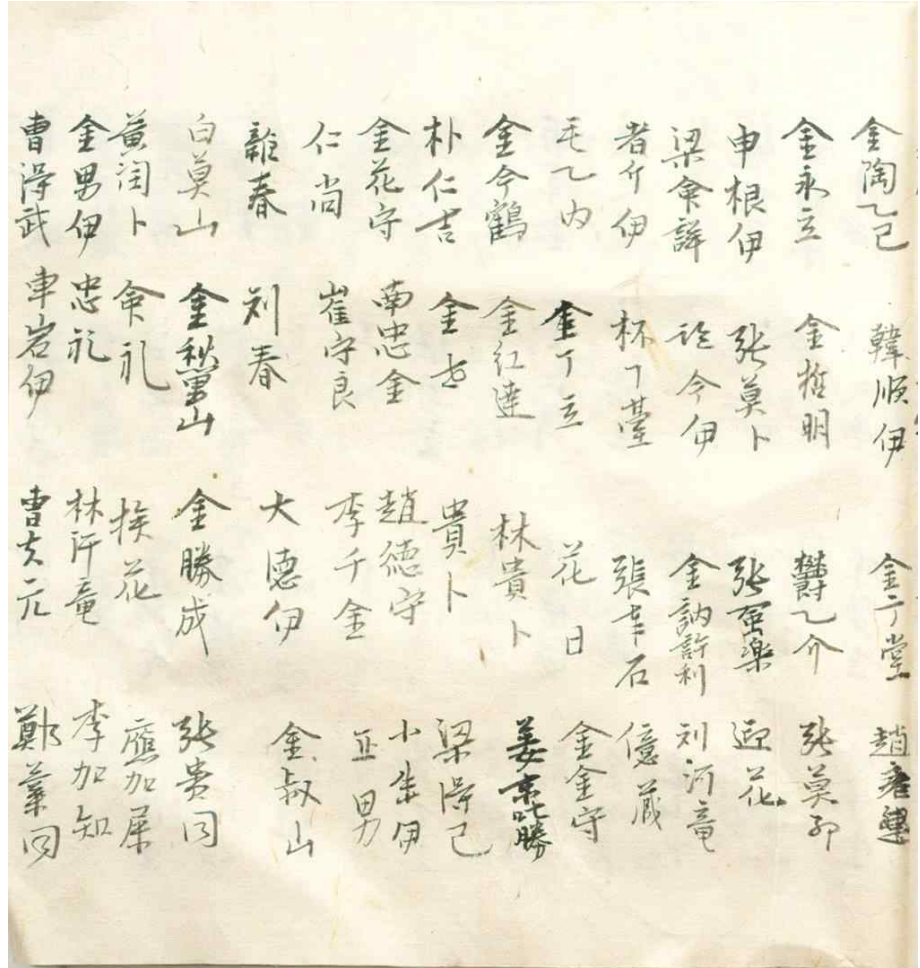
30. 화엄사 대응전 노사나불 시주질 29면

姜俊秀	朴德悅	秋陽	韓古音同	納終	朴種叱同	處文	法川	淳海	敬崐	宗卞	勝悅	熙式	石熏	省圭	法軒	處林
吳夏三	朴德明	金得伊	河一男	孫應住	朴德星	覺心	李宝	哲崐	丑元	灵源	香敏	玄过	信庵	雪淳	日海	戒和
金春弘	崔種叱山	善川	朴仁石	学悲	崔彦信	信宗	義尚	雲哲	印均	允全	弘彦	敬全	法淳	熙玉	坦衍	德雄
孫大承	梁仁卜	朴德輝	金正男	吳氏	鄭明知	禪玉	印祥	先輝	信英	学稔	心一	應照	坦元	印还	戒玉	

姜俊秀 朴德悅 秋陽 韓古音同 納終 朴種叱同 處文 法川 淳海 敬崐 宗卞 勝悅 熙式 石熏 省圭 法軒 處林
 吳夏三 朴德明 金得伊 河一男 孫應住 朴德星 覺心 李宝 哲崐 丑元 灵源 香敏 玄过 信庵 雪淳 日海 戒和
 金春弘 崔種叱山 善川 朴仁石 学悲 崔彦信 信宗 義尚 雲哲 印均 允全 弘彦 敬全 法淳 熙玉 坦衍 德雄
 孫大承 梁仁卜 朴德輝 金正男 吳氏 鄭明知 禪玉 印祥 先輝 信英 学稔 心一 應照 坦元 印还 戒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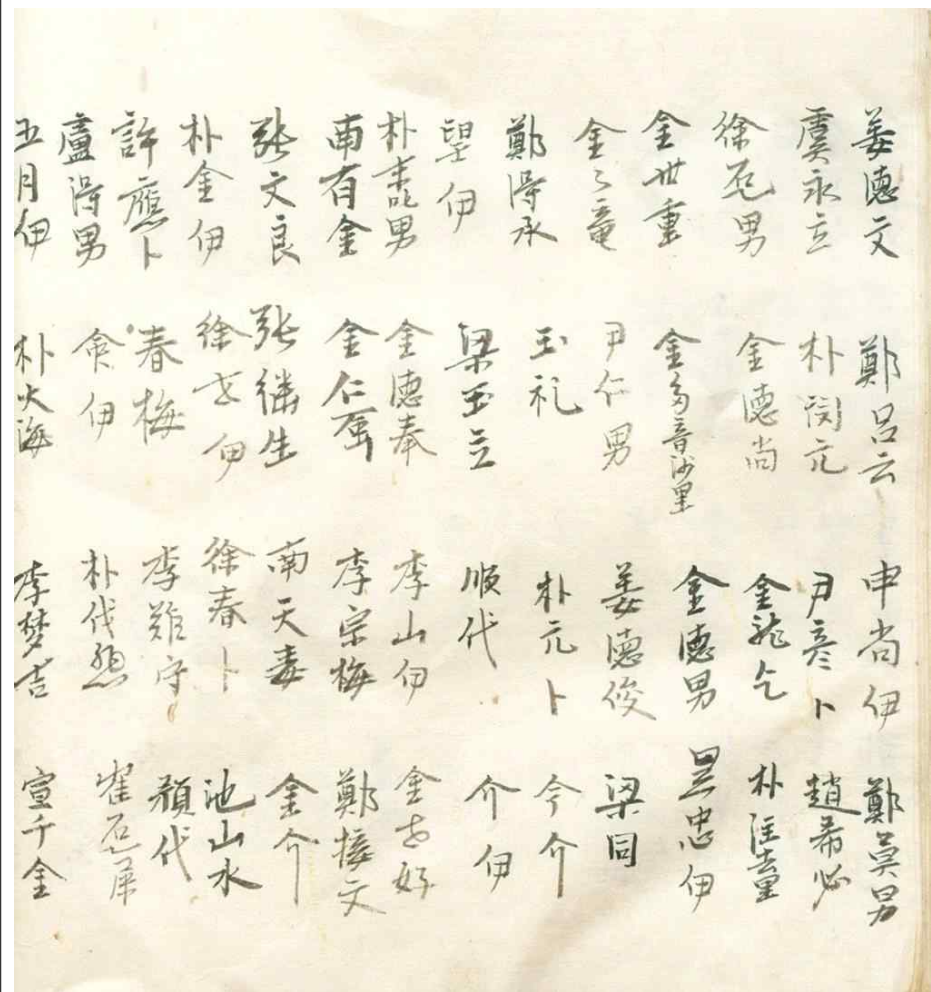
31. 화엄사 대응전 노사나불 시주질 30면

曹得武	金男伊	黃潤卜	白莫山	雜春	仁尙	金花守	朴仁吉	金今鶴	毛乙丙	者斤伊	梁命詳	申根伊	金永立	金陶乙己
車岩伊	忠礼	命礼	金愁里山	刘春	崔守良	南忠金	金式	金紅達	金丁立	杯丁臺	於今伊	張莫卜	金哲明	韓順伊
曹支元	林汗童	挨花	金勝成	大德伊	李千金	趙德守	貴卜	林貴卜	花日	張車石	金訥許利	張蚤樂	鬱乙介	金丁堂
鄭業同	李加知	應加屎	張貴同	金叔山	正男	小生伊	梁得己	姜忞勝	金金守	億藏	刘河竜	迎花	張莫龍	趙彦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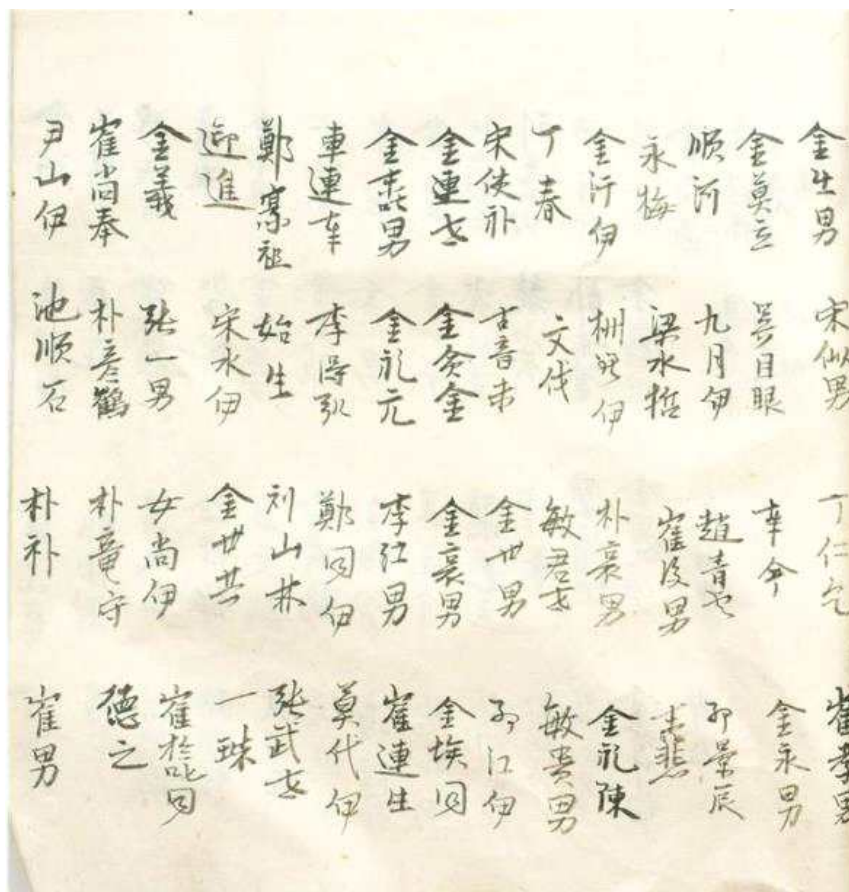
32. 화엄사 대응전 노사나불 시주질 31면

姜德文	鄭呂云	申尙伊	鄭莫男
虞永立	朴潤元	尹彦卜	趙希必
徐奭男	金德尙	金龍乞	朴注臺
金世重	金多音沙里	姜德俊	吳忠伊
金乙竜	尹仁男	姜德俊	梁同
鄭得承	玉礼	朴元卜	今介
望伊	梁玉立	順代	介伊
朴恔男	金德奉	李山伊	金式好
南有金	金仁蚕	李宗梅	鄭接文
張文良	張繼生	南天毒	金介
朴金伊	徐式伊	徐春卜	池山水
許應卜	春梅	李難守	預代
盧得男	命伊	朴伐然	崔奭屎
五月伊	朴大海	李夢吉	宣千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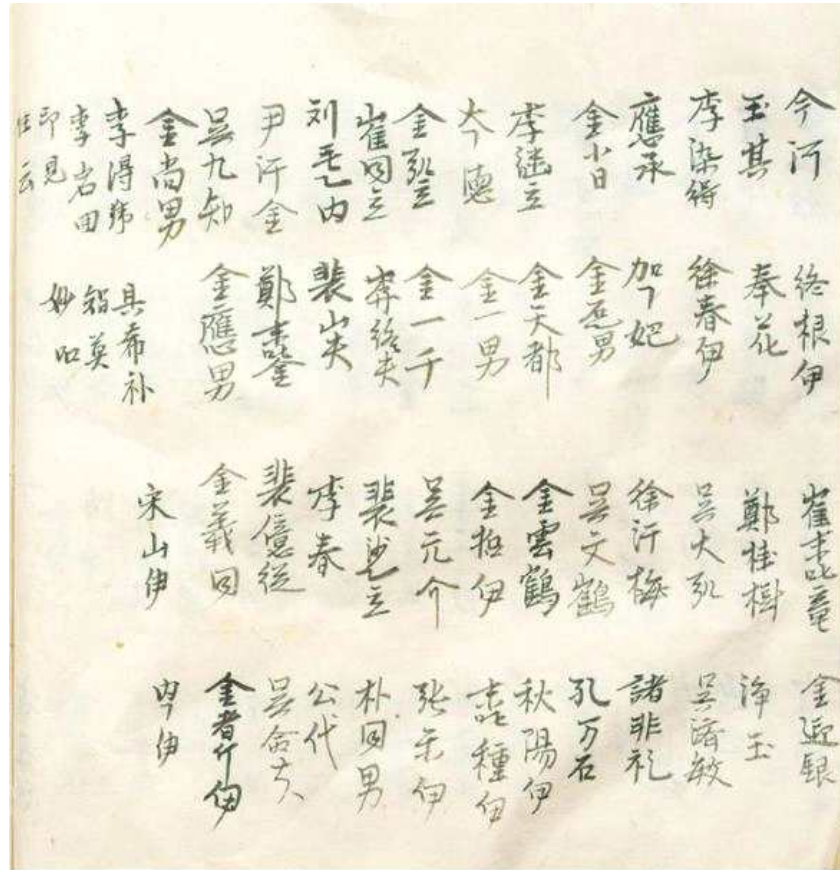
33. 화엄사 대응전 노사나불 시주질 32면

尹山伊	崔尙奉	金義	迎進	鄭高祁	車連車	金忞男	金連弋	宋体补	丁春	金汗伊	永梅	順河	金莫立	金生男
池順石	朴彦鶴	張一男	宋水伊	始生	李得弘	金礼元	金命金	古音未	文伐	權●伊	梁水哲	九月伊	吳目眼	宋似男
朴补	朴竜守	女尙伊	金世共	刘山林	鄭同伊	李紅男	金哀男	金世男	敏君弋	朴哀男	崔俊男	趙青虎	幸今	丁仁乞
崔男	德之	崔忞同	一珠	張武弋	莫代伊	崔連生	金埃同	孫紅伊	敏貴男	金礼陳	忞悲	孫景辰	金永男	崔孝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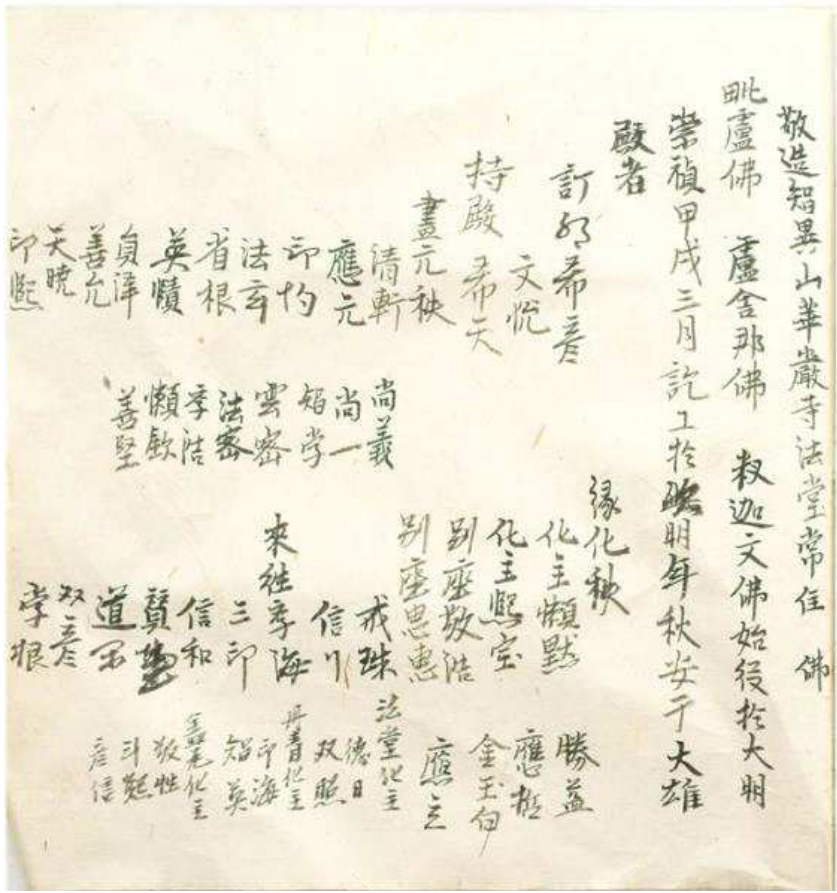
34. 화엄사 대응전 노사나불 시주질 33면

性云	印見	李岩回	李得●	金尙男	吳九知	尹汗金	刘毛乙内	崔同立	金弘立	大ㄱ德	李繼立	金小日	應承	李梁得	玉其	今河
	妙卍	智英	具希补	金應男	鄭忞金	裴山夫	李終夫	金一千	金一男	金天都	金彗男	加ㄱ妃	徐春伊	奉花	終根伊	
			宋山伊	金義同	裴億從	李春	裴沙立	吳元介	金哲伊	金雲鶴	吳文鶴	徐汗梅	吳大弘	鄭桂樹	崔忞童	
				金者斤伊	吳命支	公代	朴同男	張示伊	忞種伊	秋陽伊	孔万石	諸非礼	吳濟敏	淨玉	金迎銀	



35. 화엄사 대응전 노사나불 시주질 34면

印熙	天曉	善允	員澤	英頤	省根	法玄	印均	應元	清軒	畫員秩	持殿	文悅	證明	殿者	崇禎七年甲戌三月日訖工於次明年秋安宇大雄	敬造智異山華嚴寺法堂常住佛	毘盧佛 盧舍那佛 釋迦文佛始役於大明	敬造智異山華嚴寺法堂常住佛	毗盧佛 盧舍那佛 釋迦文佛始役於大明	崇禎甲戌三月訖工於次明年秋安宇大雄	殿者	訂好希音	文悅	持殿 希天	畫元秩	清軒	應元	印均	法玄	省根	英頤	員澤	善允	天曉	印熙	尚義	尚一	智學	雲密	法密	李浩	懶欽	善堅	緣化秩	化主 懶默	化主 熙寶	別座 敬浩	別座 思惠	戒珠	信可	李海	三印	信和	贊珪	道閑	雙彦	學根	勝益	應哲	金玉	應立	法堂 化主	德日	雙照	丹青 化主	印海	智英	蓋瓦 化主	敬悟	斗熙	彥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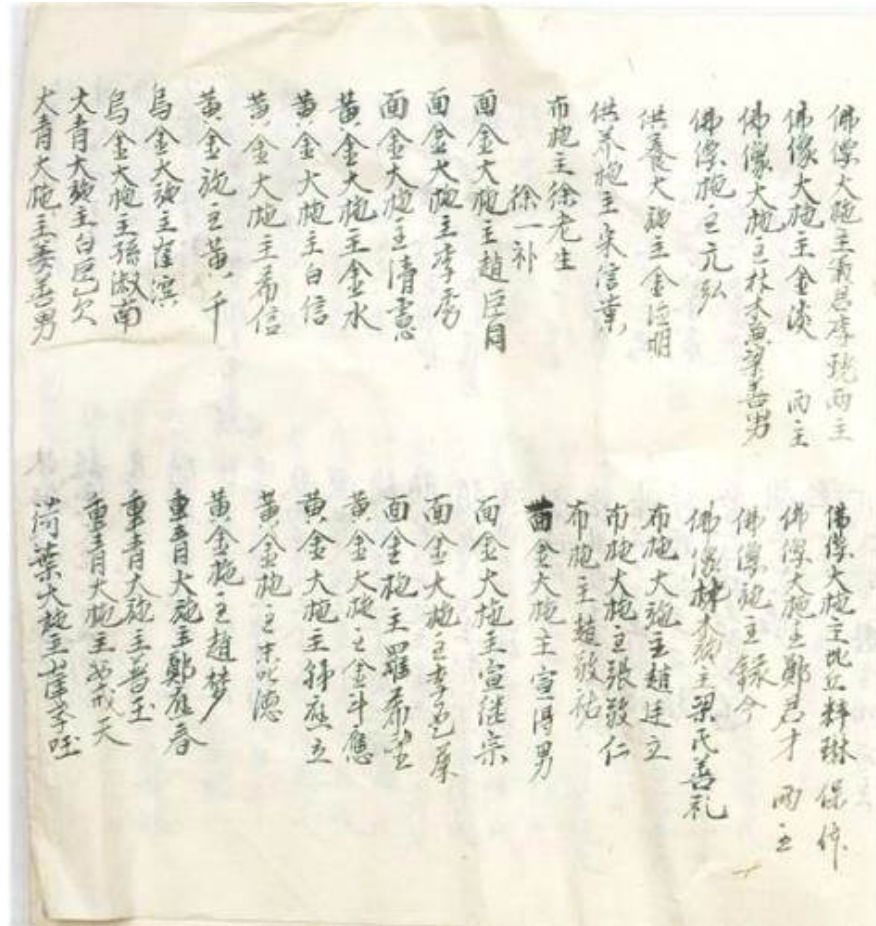
<석문제공 : 사단법인 사찰문화재보존연구소>

1. 화엄사 대응전 석가모니불 시주질 표지



2. 화엄사 대응전 석가모니불 시주질 1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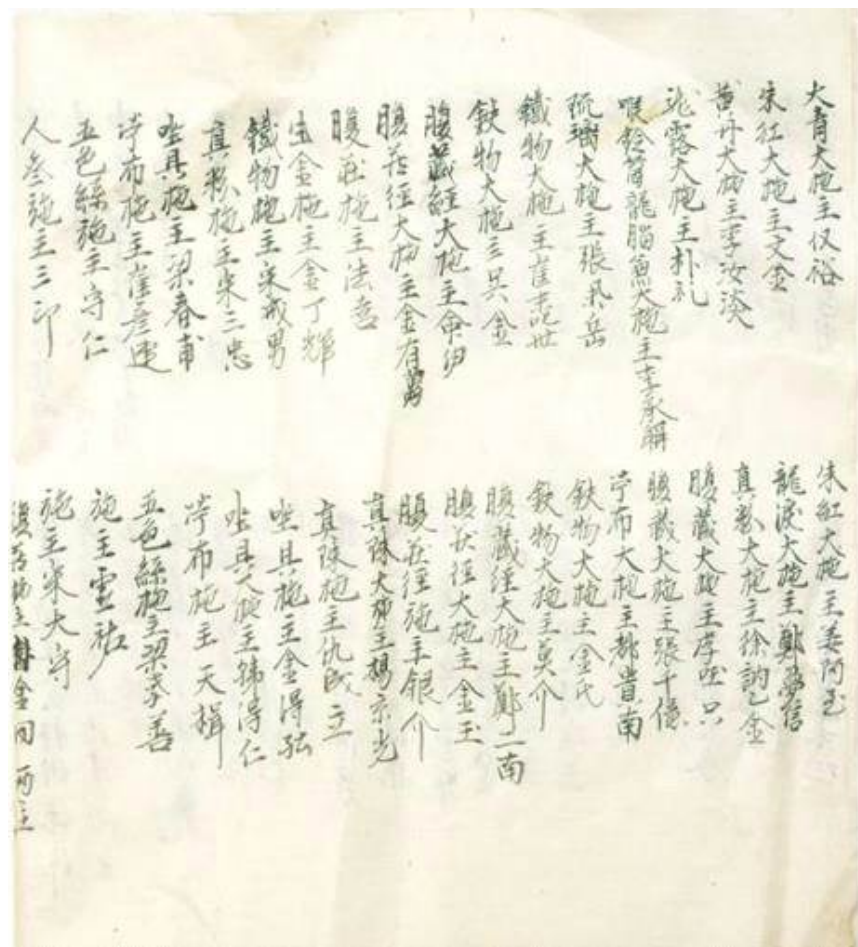
佛像大施主 義昌君李珖 兩主	佛像大施主 比丘粹琳 保体
佛像大施主 金淡 兩主	佛像大施主 鄭君才 兩主
佛像大施主 材木兼 梁善男	佛像施主 鑄今
佛像施主 元弘	佛像材木施主 梁氏善礼
供養大施主 金應明	布施大施主 趙廷立
供養施主 宋信業	布施大施主 張敬仁
布施主 徐老生	布施主 趙敬祐
徐一补	面金大施主 宣得男
面金大施主 趙臣同	面金大施主 宣繼宗
面金大施主 李秀	面金大施主 李芗屎
面金大施主 清憲	面金施主 羅希望
黃金大施主 金水	黃金大施主 金斗應
黃金大施主 白信	黃金大施主 韓應立
黃金大施主 希信	黃金施主 恽德
黃金施主 黃千	黃金施主 趙夢
烏金大施主 崔濱	重青大施主 鄭應春
烏金大施主 孫淑南	重青大施主 普玉
大青大施主 白芻乞	重青大施主 安戒天
大青大施主 姜善男	荷葉大施主 崔孝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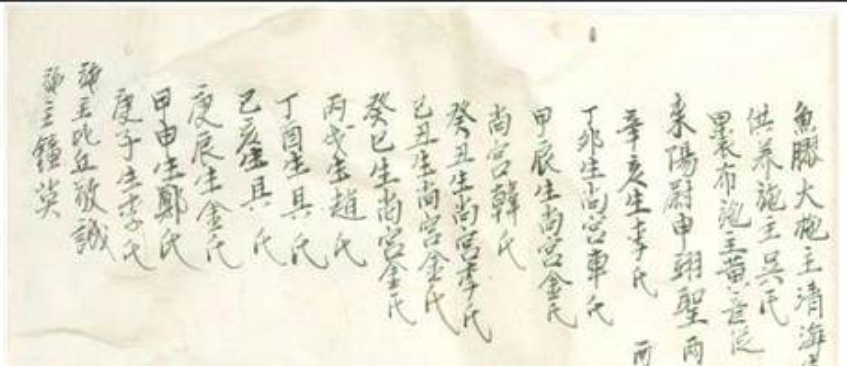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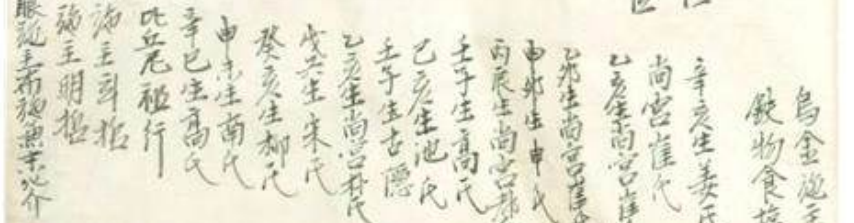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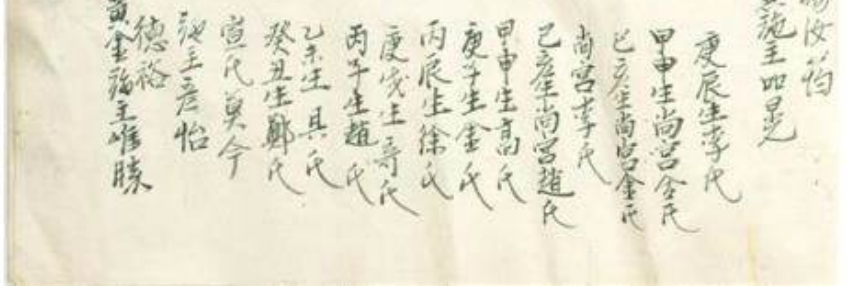
3. 화엄사 대웅전 석가모니불 시주질 2면

大靑大施主 仅裕
 朱紅大施主 文金
 黃丹大施主 李汝淡
 龍露大施主 朴礼
 喉鈴筒龍腦兼大施主 李承聃
 琉璃大施主 張風岳
 鐵物大施主 崔恣世
 鐵物大施主 吳金
 腹藏經大施主 命伊
 腹藏經大施主 金有萬
 腹藏施主 法喜
 生金施主 金丁輝
 鐵物施主 宋戒男
 眞粉施主 宋三忠
 坐具施主 梁春甫
 苧布施主 崔彦連
 五色絲施主 守仁
 人蔘施主 三印

朱紅大施主 姜阿只
 龍淚大施主 鄭夢信
 眞粉大施主 徐訥乙金
 腹藏大施主 李國只
 腹藏大施主 張千億
 苧布大施主 都貴南
 鐵物大施主 金氏
 鐵物大施主 莫介
 腹藏經施主 鄭二南
 腹藏經施主 金玉
 腹藏經施主 銀介
 眞珠大施主 楊京光
 眞珠施主 仇成立
 坐具施主 金得弘
 坐具施主 韓得仁
 苧布施主 天楫
 五色絲施主 梁孝善
 施主 靈祐
 施主 宋大守
 腹藏施主 朴金同兩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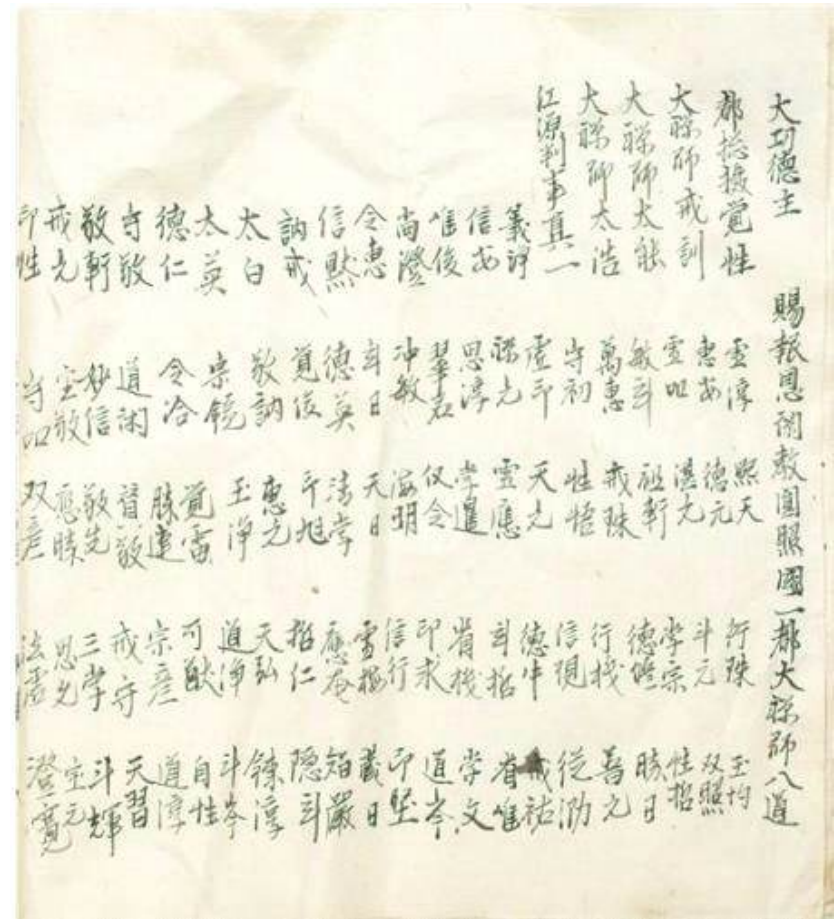


4. 화엄사 대응전 석가모니불 시주질 3면

<p>魚膠大施主 供養施主 吳氏 曩布施主 黃彥從 東陽尉申翊聖 辛亥生 李氏 兩位 丁卯生 尙宮車氏 甲辰生 尙宮金氏 尙宮韓氏 癸丑生 尙宮李氏 己丑生 尙宮金氏 癸巳生 尙宮金氏</p>	
<p>烏金施主 楊汝筠 鐵物食鹽兼施主 卍 辛亥生 姜氏 尙宮 崔氏 乙亥生尙宮崔氏 乙卯生尙宮崔氏 辛卯生申氏 丙辰生尙宮都氏 壬子生高氏 己亥生池氏 壬子生古隱 乙亥生尙宮朴氏</p>	
<p>庚辰生李氏 甲申生尙宮金氏 己亥生尙宮金氏 尙宮李氏 己亥生尙宮趙氏 甲申生高氏 庚子生金氏 丙辰生徐氏 庚戌生奇氏 丙子生趙氏 乙未生具氏 癸丑生鄭氏 宣氏莫今 施主 德裕 施主 莫今 施主 比丘敬誠 施主 李氏 庚子生 李氏 施主 比丘敬誠 施主 鐘莫 開眼施主 布施兼 忝</p>	

5. 화엄사 대응전 석가모니불 시주질 4면

大功德主 賜報恩禪教圓照國一都大禪師八道
 都摠攝覺性
 大禪師戒訓
 大禪師太能
 大禪師太浩
 江原判事眞一
 義淨
 信安
 唯俊
 尙澄
 令惠
 信默
 訥戒
 太白
 太英
 德仁
 守敬
 敬軒
 戒元
 印性
 雪淳
 惠安
 雪卍
 敏玄
 萬惠
 守初
 虛印
 禪元
 思淳
 聚岩
 冲敏
 玄日
 德英
 覺俊
 敬訥
 宗鏡
 令洽
 道閑
 妙信
 宝敬
 守卍
 熙天
 德元
 湛元
 祖軒
 戒珠
 性悟
 天元
 雪應
 學遲
 僅令
 海明
 天日
 法學
 印旭
 惠元
 玉淨
 覺雷
 勝連
 贊敬
 敬先
 應勝
 双彦
 衍珠
 斗元
 學宗
 德修
 行機
 信現
 德牛
 玄哲
 省機
 印永
 信行
 雪梅
 應庵
 哲仁
 天弘
 道淨
 可猷
 宗彦
 戒守
 三學
 思允
 法虛
 玉均
 雙照
 性哲
 勝日
 普元
 從渤
 戒祐
 省雄
 學文
 道岑
 印堅
 藏日
 智嚴
 隱玄
 鍊淳
 斗岑
 自性
 道淳
 天習
 斗輝
 宝元
 澄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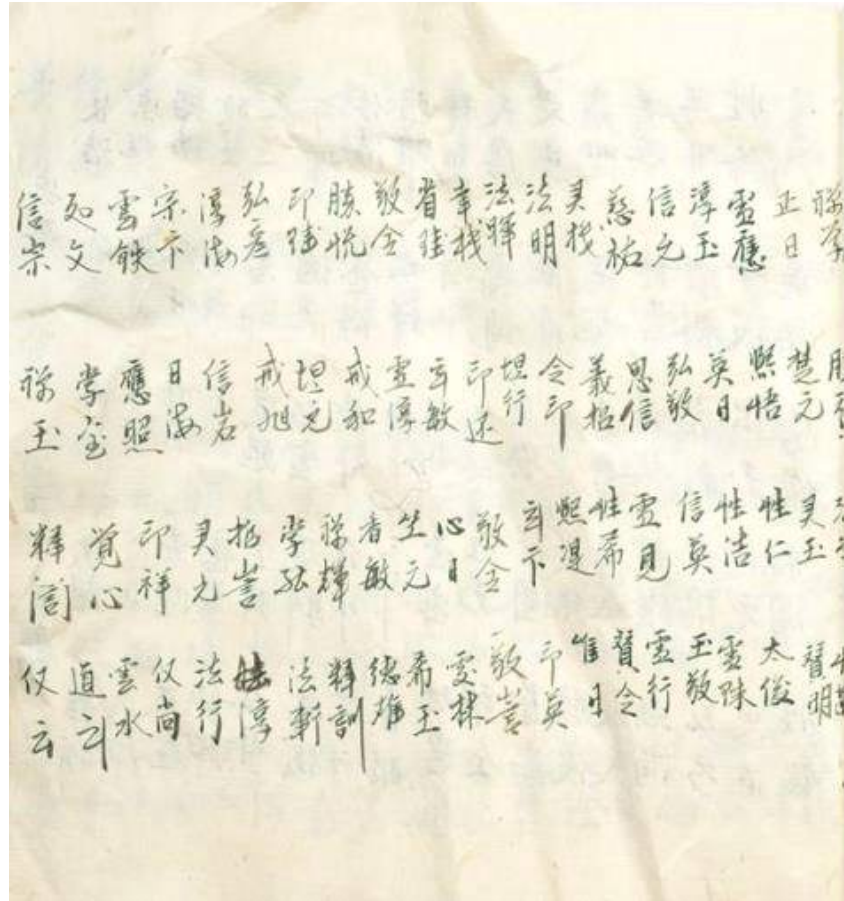
6. 화엄사 대응전 석가모니불 시주질 5면

信處雲宗淳弘印勝敬省幸法法靈慈信淳雪正禪
宗文鉄卞海彦珪悅令珪機暉明機祐允玉應日学

禪学應日信戒坦戒雪玄印坦令義思弘英熙楚明
玉宝照海岩旭元和淳敏还行印哲信敬日悟元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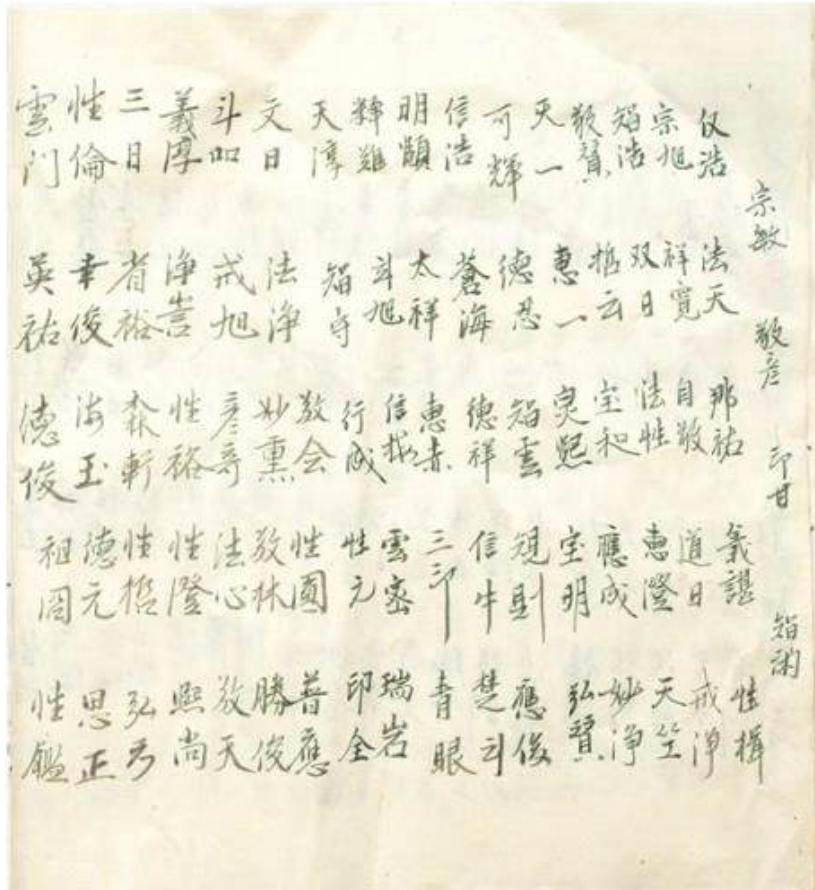
釋覺印靈哲学禪香竺心敬玄熙性雪信性性靈法
闍心禪元崑弘輝敏元日令卞湜希見英浩仁玉岑

仅道雲仅法法法釋德希愛敬印唯贊雪玉雪太贊
云玄水尙行淳軒訓雄玉林嘗英日令行敬珠俊明 ●●



7. 화엄사 대응전 석가모니불 시주질 6면

雲門	性倫	三日	義淳	斗叩	文日	天淳	釋難	明頤	信浩	可輝	天一	敬贊	智浩	宗旭	仅浩	宗敏				
英祐	幸俊	省裕	淨嘗	戒旭	法淨	智守	玄旭	太祥	蒼海	德忍	惠一	哲云	双日	祥寬	法天		敬彦			
德俊	海玉	森軒	性裕	彦奇	妙熏	敬会	行成	信梅	惠赤	德祥	智雲	灵熙	宝和	法性	自敬			印甘		
祖罔	德元	性哲	性澄	法心	敬林	性圓	雲密	三印	信牛	規則	宝明	應成	惠澄	道日	義謹				智閑	
性鑑	思正	弘彦	熙尙	敬天	勝俊	普應	印全	瑞岩	青眼	楚玄	應俊	弘贊	妙淨	天竺	戒淨					性楫
																敬彦				
																	印甘			
																		智閑		



8. 화엄사 대응전 석가모니불 시주질 7면

義清	信明	懷悅	覺能	道禪	惠岑	玄贊	弘印	學清	德連	惠湜	義堅	天淨	正仁	智明	竺熙	
卓玲	卓敬	英鑑	應覺	惠能	清海	惠雄	太英	熙天	隱休	道全	興會	性宗	印尚	玄俊	熙俊	
希印	天裕	玉敏	戒勒	花林	信宗	德洽	幸珠	學謙	淡熙	守淡	德林	禪雲	勝竺	能悟	懷衍	
戒淳	玉敏	哲能	靈隱	明照	令允	得牛	善淑	太白	學禪	妙同	普明	覺清	戒信	戒罔	熙彥	
斗庵	思日	敬淳	處敬	性玄	戒海	勝嚴	日雲	應閑	慈祐	隱贊	敬澄	敬欽	克倫	應觀	學明	惠聰



9. 화엄사 대응전 석가모니불 시주질 8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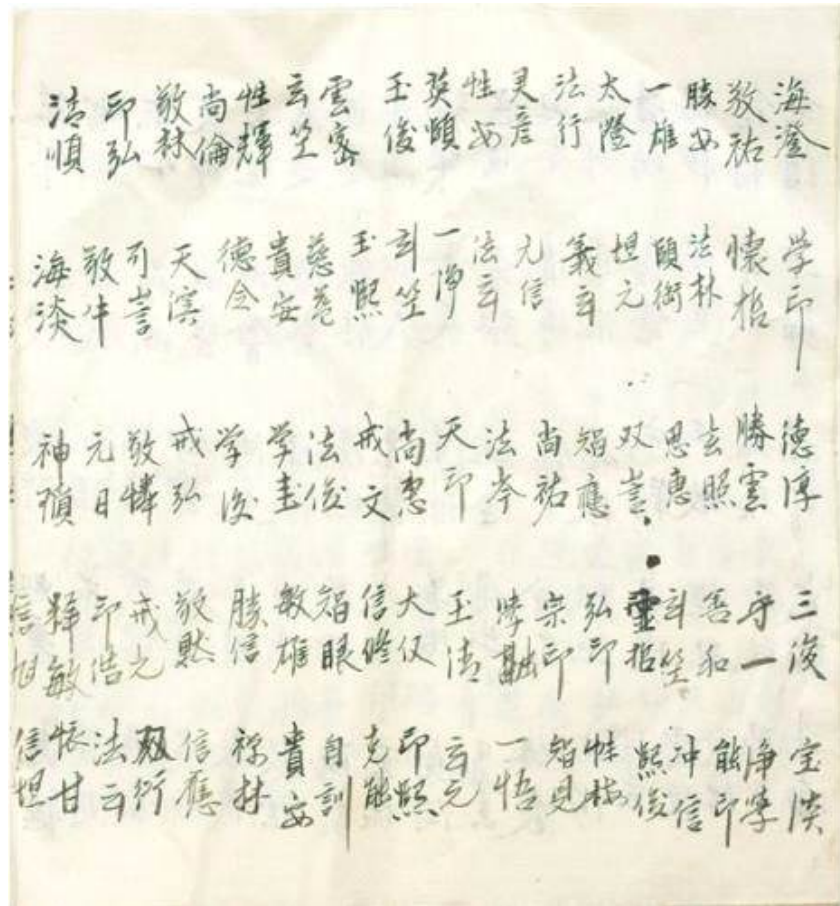
海澄 敬祐 勝安 一雄 太澄 法行 靈彥 性安 英頤 玉俊 雲密 玄竺 性輝 尙倫 敬林 印弘 法順

學印 懷哲 法林 頤衡 坦元 義玄 元信 法玄 一淨 玄竺 玉熙 慈雲 貴安 德令 天濱 可嘗 敬牛 海淡

德淳 勝雲 玄照 思惠 雙峯 智應 尙祐 法岑 天印 尙惠 戒文 法俊 學圭 學俊 戒弘 敬憐 元日 神瓊

三俊 守一 善和 玄竺 靈哲 弘印 宗印 學融 玉法 大儀 信修 智眼 敏雄 勝信 敬默 戒元 印浩 釋敏 信旭

寶淡 淨學 能印 沖信 熙俊 性梅 智見 一悟 玄元 印熙 克能 自訓 貴安 禪林 信應 雙衍 法云 懷甘 信坦



10. 화엄사 대응전 석가모니불 시주질 9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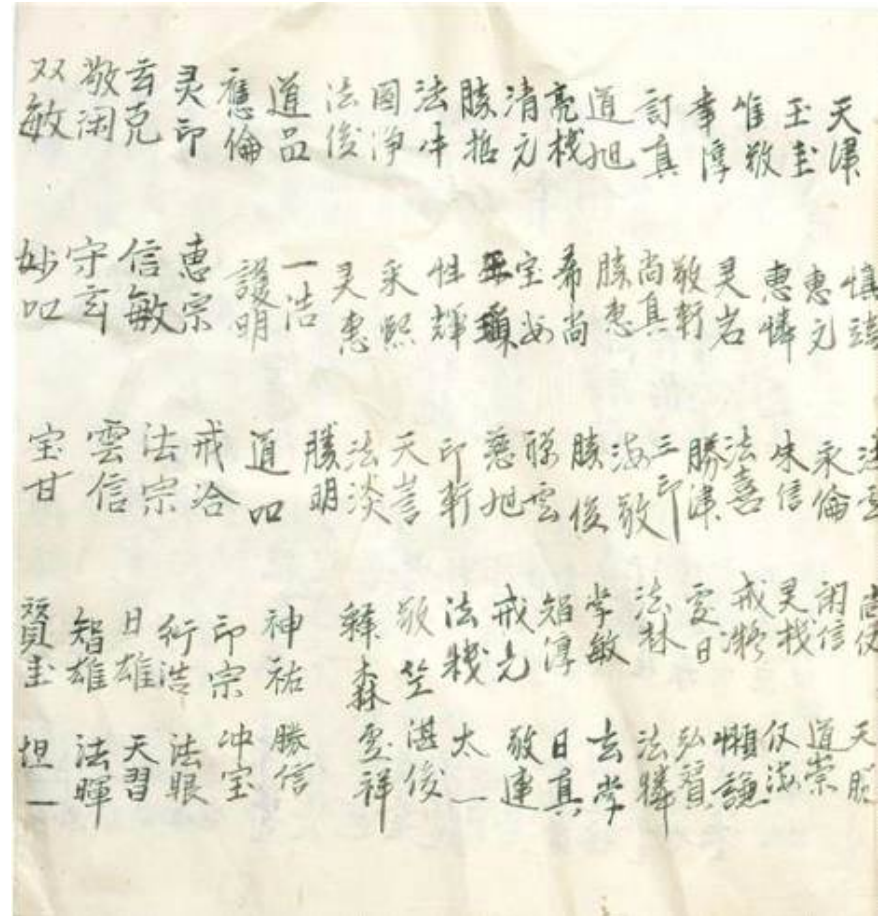
双敬玄灵应道法圆法胜清亮道訂幸唯玉天
敏閑克印倫品俊淨牛哲元機旭眞淳敬圭律

妙守信惠護一灵采性玉宝希勝尙敬灵惠惠慎
叩玄敏宗明浩惠熙輝瓊安尙惠軒岩憐元端

宝雲法戒道勝法天印慈禪勝海三勝法朱永法
甘信宗洽叩明淡嘗軒旭雲俊敬印津喜信倫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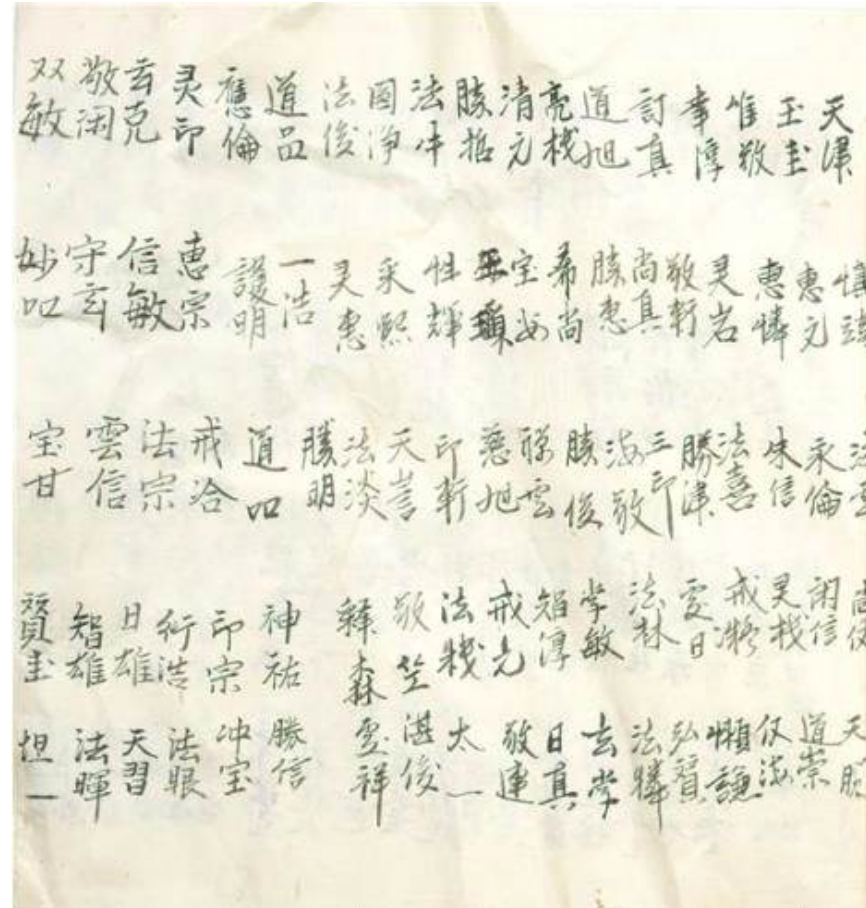
贊智日衍印神釋敬法戒智学法雲戒灵閑尙
圭雄雄浩宗祐森竺機元淳敏林日●機信仪

坦法天法冲勝處湛太敬日玄法弘懶仅道天
一暉習眼宝信祥俊一連眞学憐贊謙海崇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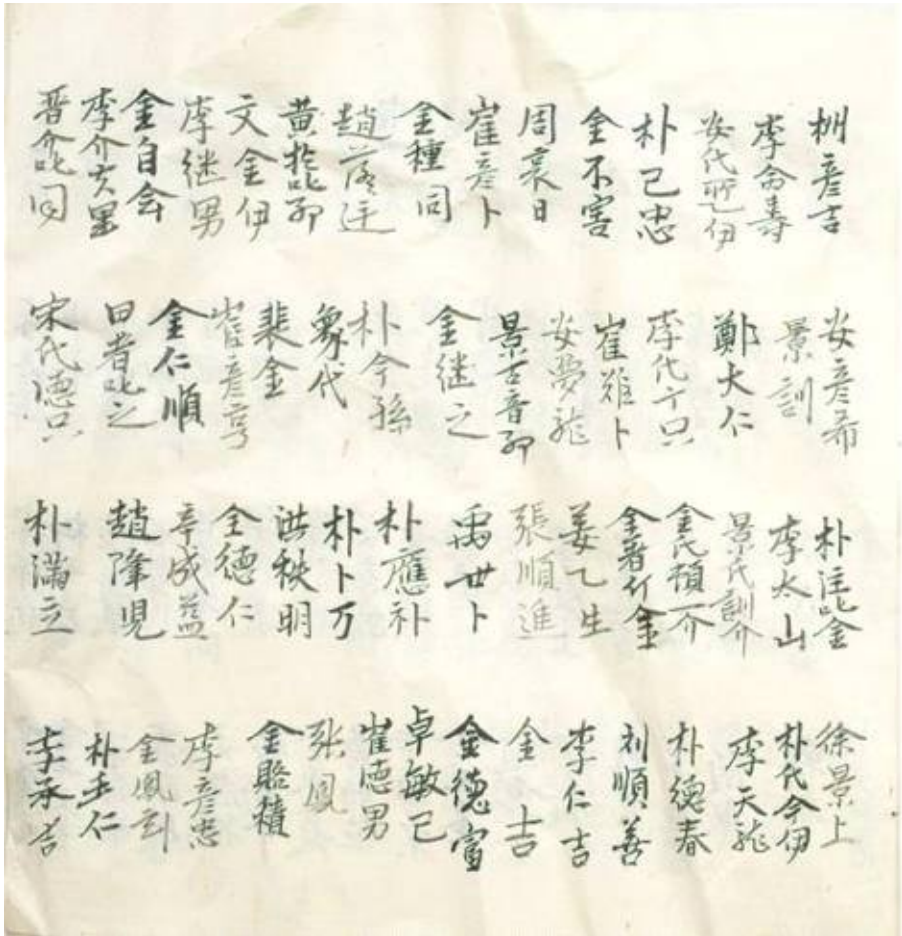
11. 화엄사 대응전 석가모니불 시주질 10면

趙氏仁花	田還壽	魯順民	金應東	礼從	崔大江	全氏承享	金高大	韓下龍	鄭順邦	李氏接相	崔愼業	智湛	幸珠	性明	幸俊	德融		
崔敬信	張恁孫	尹得春	單時只	林哲白	林春發	柳仅生	崔氏承礼	李氏順一	韓龍	金龍	徐后白	扈應相	一明	道洽	衍会	思正	德仁	
梁氏多勿伊	趙哀立	崔孫男	李楊春	李己生	尹棋木	金斗星	尹勝戈	李氏恁德	朴貴斤	崔信業	香伊	崔孝業	杜敬春	印玄	法淡	呂林	雪澄	敬会
安承淑	李冬叱金	朴希●	金氏千玉	劉亨●	金畢星	李氏	廉陣	朴繼还	金天立	李元己	鄭乱弘	李繼立	守澄	惠安	天日	隱牛	思信	智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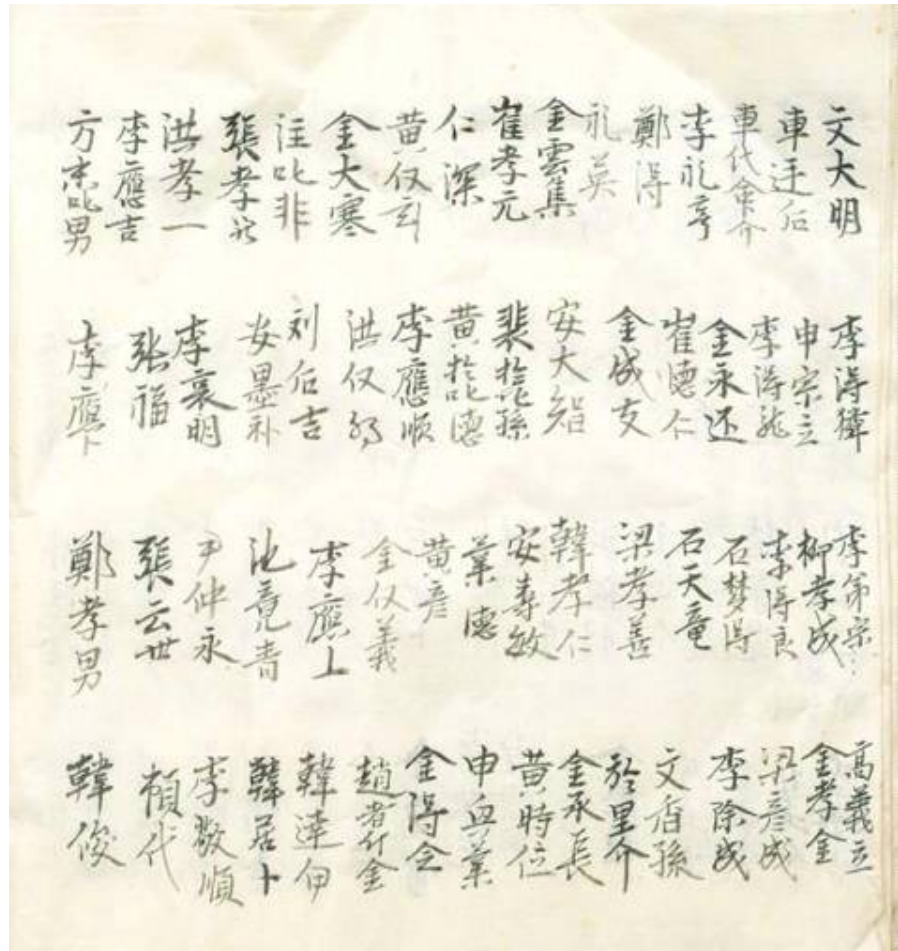
12. 화엄사 대응전 석가모니불 시주질 11면

<p>權彦吉 李命壽 安氏賢伊 朴己忠 金不害 周哀日 崔彦卜 金種同 趙發廷 黃齡孫 文金伊 李繼男 金自會 李介亥里 晉龜同</p>	<p>安彦希 景訓 鄭大仁 李氏丁只 崔難卜 安夢龍 景古音孫 金繼之 朴今孫 象代 裴金 崔彦亨 金仁順 田蓋之 宋氏德只</p>	<p>朴滉金 李太山 景氏訓介 金氏賴一介 金者斤金 姜乙生 張順進 禹世卜 朴應朴 朴卜万 洪秩明 全德仁 幸成益 趙降兒 朴滿立</p>	<p>徐景上 朴氏今伊 李天龍 朴德春 劉順善 李仁吉 金吉 金德富 卓敏己 崔德男 張鳳 金路積 李彥忠 金鳳玄 朴壬仁 李承吉</p>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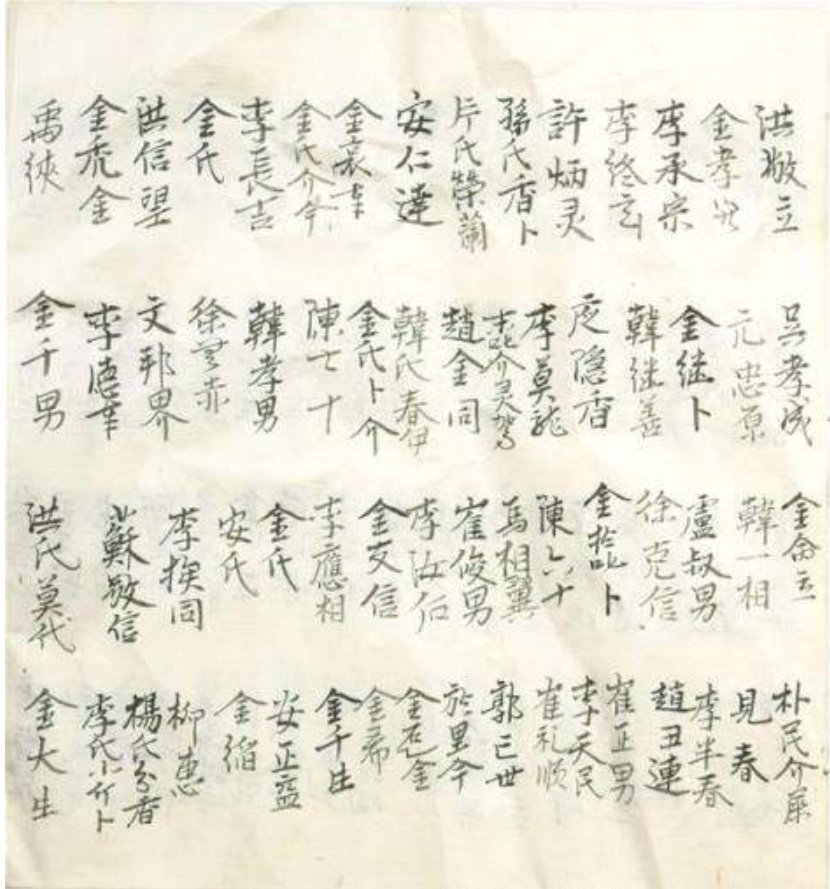
13. 화엄사 대응전 석가모니불 시주질 12면

方恔男	李應吉	洪孝一	張孝龍	澁非	金大寒	黃仅玄	仁深	崔孝元	金雲集	礼英	鄭得	李礼亨	車氏命介	車廷后	文大明
李應卜	張福	李哀明	安墨祢	刘后吉	洪仅孫	李應順	黃齡德	裴齡德	安大智	金成支	崔德仁	金永还	李得龍	申宗立	李得獐
鄭孝男	張云世	尹仲永	池竟青	李應一	金仅義	黃彦	業德	安壽敏	韓孝仁	梁孝善	石天竜	石梦得	李得良	柳孝成	李第宗
韓俊	賴代	李敬順	韓居卜	韓達伊	趙者斤金	金得令	申興業	黃時位	金承長	於里介	文香孫	李除成	梁彦成	金孝金	高義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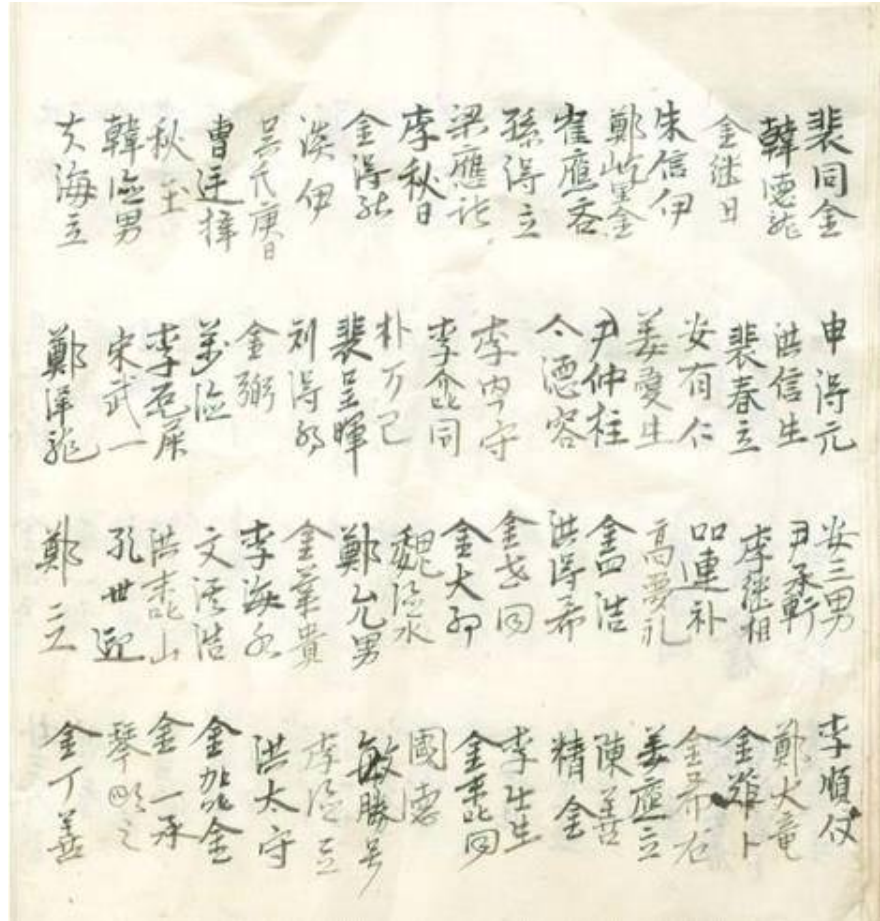
14. 화엄사 대응전 석가모니불 시주질 13면

禹 俠	金禿金	洪信望	金氏	李長吉	金氏介今	金哀東	安仁達	片氏榮蘭	孫氏香卜	許炳灵	李終玄	李承宗	金孝龍	洪敬立
金千男	李德東	文邦界	徐雪赤	韓孝男	陳七十	金氏卜介	韓氏春伊	趙金同	李莫龍	夜隱香	韓繼善	金繼卜	元忠原	吳孝成
洪氏莫代	蘇敬信	李挨同	安氏	金氏	李應相	金友信	李汝后	崔俊男	馬相翼	陣六十	金齡卜	徐克信	盧叔男	金命立
金大生	李氏小斤卜	楊氏分香	柳 惠	金 緜	安正益	金千生	金希	金夏金	於里今	郭亡世	崔禮順	李天民	崔正男	趙丑連
														見 春
														朴民介屏
														見 春
														李半春
														趙丑連
														崔正男
														李天民
														崔禮順
														郭亡世
														於里今
														金夏金
														金千生
														安正益
														柳 惠
														楊氏分香
														李氏小斤卜
														金大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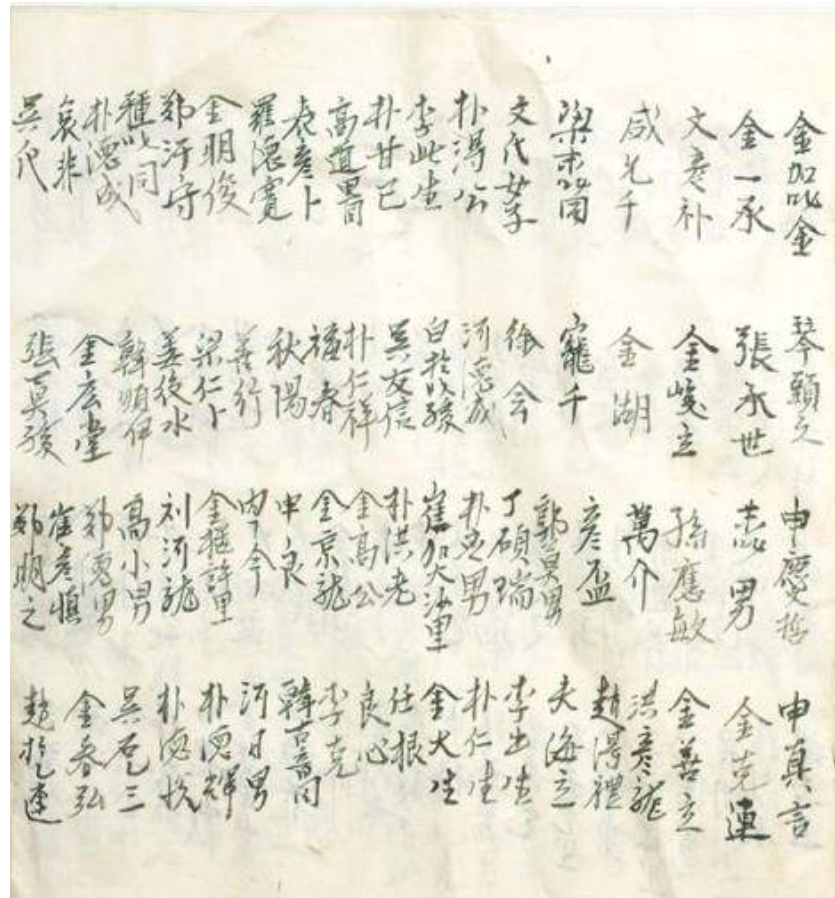
15. 화엄사 대응전 석가모니불 시주질 14면

支海立	韓應男	秋玉	曹廷擇	吳氏庚日	淡伊	金得龍	李秋日	梁應龍	孫得立	崔應齊	鄭屹里金	朱信伊	金繼日	韓德龍	裴同金
鄭澤龍	宋武一	李芑屎	姜險	金弼	劉得龍	裴呈暉	朴万己	李龜同	李內一守	人德容	尹仲柱	姜愛生	安有仁	裴春立	洪信生
鄭立	孔世迎	洪恁山	文●浩	李海龍	金業貴	鄭允男	魏險水	金大龍	金●同	洪得希	金四浩	高夢礼	卍連祢	李繼相	尹承軒
金丁善	琴●云	金一承	金祀金	洪太守	李險立	敏勝号	國德	金恁同	李壬生	精金	陣善	姜應立	金希右	金難卜	鄭大竜
															李順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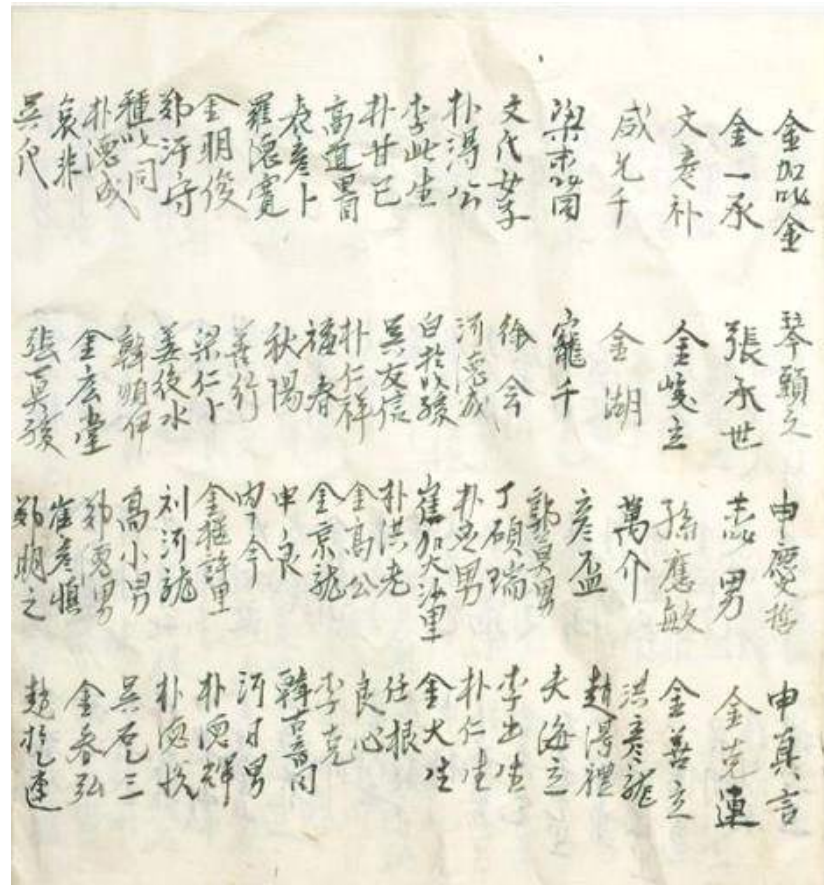
16. 화엄사 대응전 석가모니불 시주질 15면

吳氏	哀非	朴德成	種叱同	鄭汗守	金明俊	羅德寬	表彦卜	高道里同	朴甘己	李此生	朴得公	文氏女子	梁恔同	咸允千	文彦祜	金一承	金韶金	
張莫孫	金彦堂	韓順伊	姜後水	梁仁卜	善行	秋陽	福春	朴仁祥	吳友信	白齡孫	河德成	徐会	寵千	金湖	金峻立	張承世	琴頭文	
鄭明之	崔彦慎	鄭德男	高小男	刘河龍	金樓許里	内一今	申良	金京龍	金高公	朴洪老	崔韶沙里	朴應男	丁碩瑞	郭莫男	彦盃	萬介	孫應敏	申慶哲
趙登連	金春弘	吳亨三	朴德悅	朴德輝	河日男	韓古奇同	李克	良心	任根	金大生	朴仁生	李出生	夫海立	趙得禮	洪彦龍	金善立	金克連	申眞言



17. 화엄사 대응전 석가모니불 시주질 16면

榮花	鬱介	金哲明	金陶乙己	孫大承	崔種叱山	朴德龍	金正男	朴仁石	張應朱	納終	丹霞	刘千一	張奉石	杯一代	者斤伊	張豐東	張莫卜	金永男	
尹彦祚	朴●元	魏永立	鄭業同	曹夫元	忠女	金男	張貴同	金承成	柳春	雜春	小生	趙德守	金世	朴仁吉	金金守	花日	毛乙來	億藏	梁命祥
姜忞承	朴貴祚	金德祥	徐道男	趙希必	鄭呂云	姜德文	李韶知	林汗竜	命女	黃允卜	金熟山	大一德	崔守良	仁祥	梁得己	貴祚	金弘達	金今鶴	
梁玉立	鄭得承	梁同	金德男	金多勿沙里	金瑞重	朴走乞里	金童乞	鄭莫男	申祥	車嚴	曹得無	應介	去音花	金靛里山	白英山	鄭正男	李千金	南沸金	金花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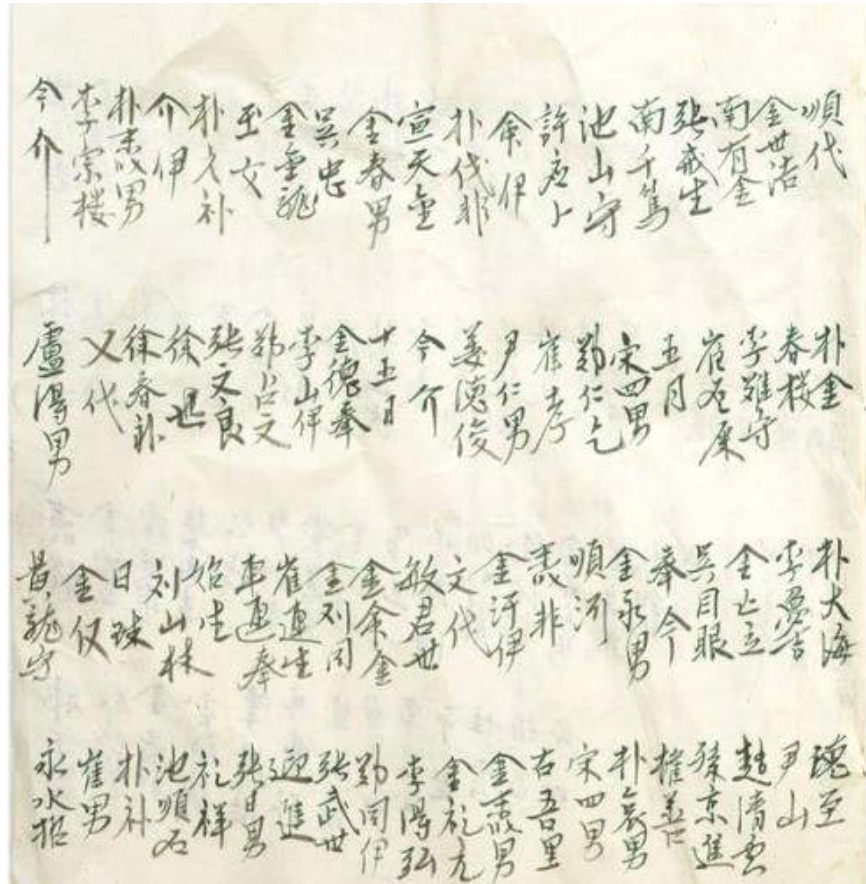
18. 화엄사 대응전 석가모니불 시주질 17면

順代 金世浩 南有金 張戒生 南千篤 池山守 許應卜 命伊 朴伐非 宣天金 金春男 吳忠 金金龍 玉女 朴六補 介伊 朴尨男 李宗樓 今介

朴金 春樓 李難守 崔芻屎 五月 宋四男 鄭仁乞 崔孝 尹仁男 姜德俊 今介 十五日 金德奉 李山伊 鄭占文 張文良 徐世 徐春補 又代 盧得男

朴大海 李夢吉 金亡立 吳目眼 奉今 金永男 順河 忞非 金汗伊 文代 敏君世 金命金 金劉同 崔連生 車連奉 始生 劉山林 日珠 金儀 黃龍守

德至 尹山 趙清雲 孫京進 權善 朴哀男 宋四男 古吾里 金尨男 金禮元 李得弘 鄭同伊 張武世 張日男 禮禪 池順石 朴補 崔男 永水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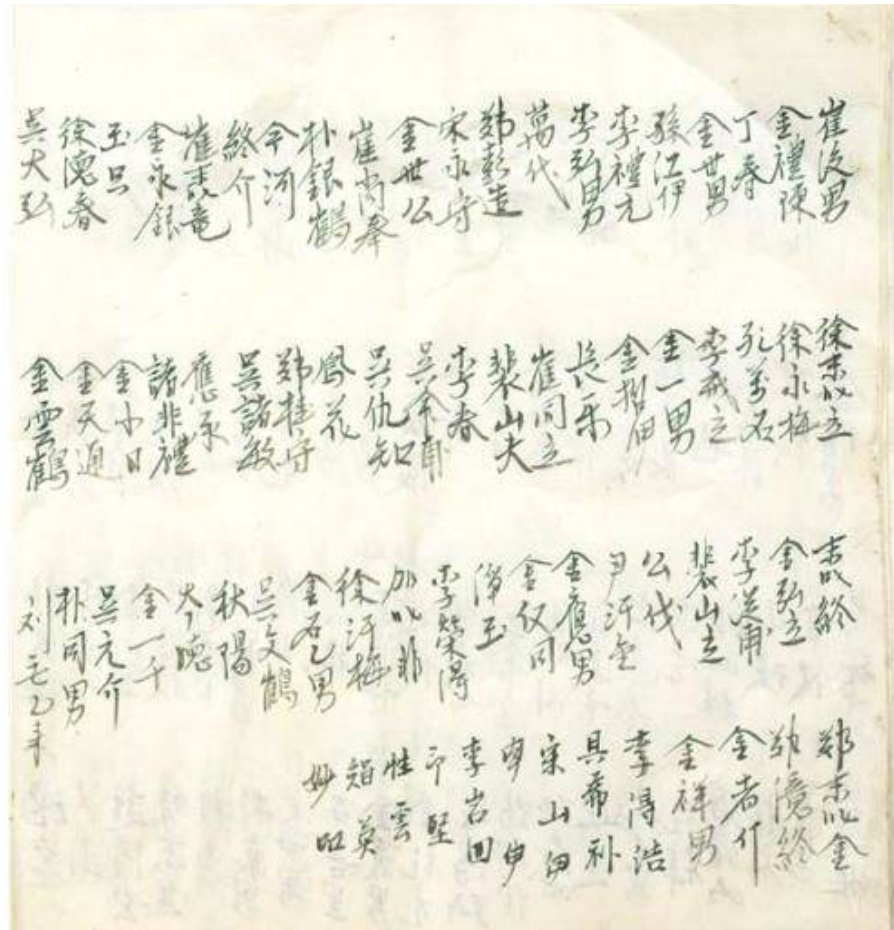
19. 화엄사 대응전 석가모니불 시주질 18면

崔後男 金禮陳 丁春 金世男 孫江伊 李禮元 李弘男 萬代 鄭彭造 宋永守 金世公 崔尙奉 朴銀鶴 今河 終介 崔恁菴 金永銀 玉只 徐德春 吳大弘

徐恁立 徐永梅 孔萬石 李戒立 金一男 金哲伊 長萬 崔同立 裴山夫 李春 吳命甫 吳仇知 鳳花 鄭桂守 吳諸敏 應承 諸非禮 金小日 金天通 金雲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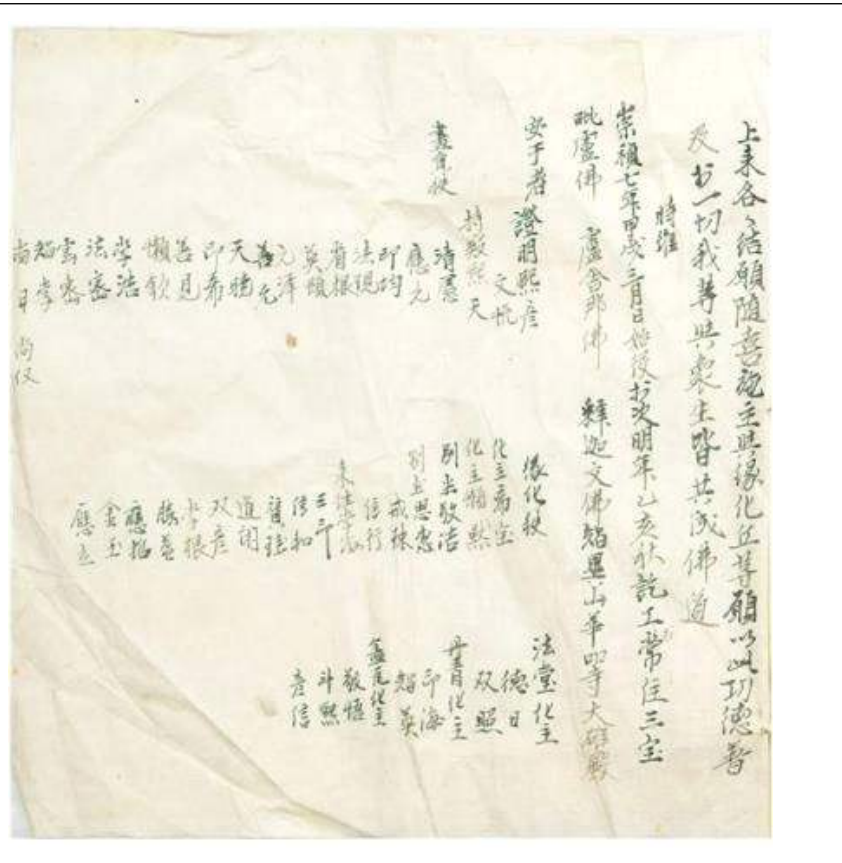
恁終 金弘立 李從甫 裴山立 公伐 尹汗金 金應男 金儀同 淨玉 李榮得 韶非 徐汗梅 金夏男 吳文鶴 秋陽 大德 金一千 吳元介 朴同男 刘毛乙未

鄭恁金 鄭億終 金者斤 金祥男 李得浩 具希朴 宋山伊 內一伊 李岩回 印堅 性雲 智英 妙叩



20. 화엄사 대응전 석가모니불 시주질 19면

上來各々結願隨喜施主與緣化丘等願以此功德普
 及於一切我等與衆生皆共成佛道
 時維
 崇禎七年甲戌三月日始役於次明年乙亥秋訖工於常住三宝
 毘盧佛 盧舍那佛 釋迦文佛 智異山華卍寺大雄殿
 安于者
 證明 熙彦
 文悅
 持殿 熙天
 畫員秩 清惠
 應元
 印均
 法現
 省根
 英頤
 元澤
 善允
 天曉
 印希
 善見
 懶欽
 學浩
 法密
 雲密
 智學
 尙日
 尙儀
 緣化秩
 化主 希宝
 化主 懶默
 別坐 敬浩
 別坐 思惠
 戒珠
 來往 學海
 三印
 信和
 贊珪
 道閑
 双彦
 學根
 勝益
 應哲
 金玉
 應立
 法堂 化主
 德日
 双照
 丹青 化主
 印海
 智英
 蓋瓦 化主
 敬悟
 斗熙
 彦信



II.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안건번호 동산 2021-03-002

2. 완주 송광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소조십육나한상 일괄 (完州 松廣寺 木造釋迦如來三尊坐像 및 塑造十六羅漢像 一括)

가. 심의사항

‘완주 송광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소조십육나한상 일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재)불교문화연구소장으로부터 「2013년도 불교문화재일제조사」 사업의 결과물로 ‘완주 송광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소조십육나한상 일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4.12.15.)이 있어 관계 전문가 조사(’14.7.30.~7.31.)를 실시하고 2014년도 본 위원회 제7차 회의(’14.12.11.)에 검토 사항으로 부의했으나, 복장발원문 실물 확인 사유로 보류되었음.
- 이에, 최근 발원문이 송광사로 이관됨에 따라 보완조사(’21.1.25.)를 통해 실물을 확인하고 본 위원회 검토 사항으로 재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2021년도 본 위원회 제2차 회의(’21.4.8.)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21.4.28~’21.5.28.)하고, 보물 지정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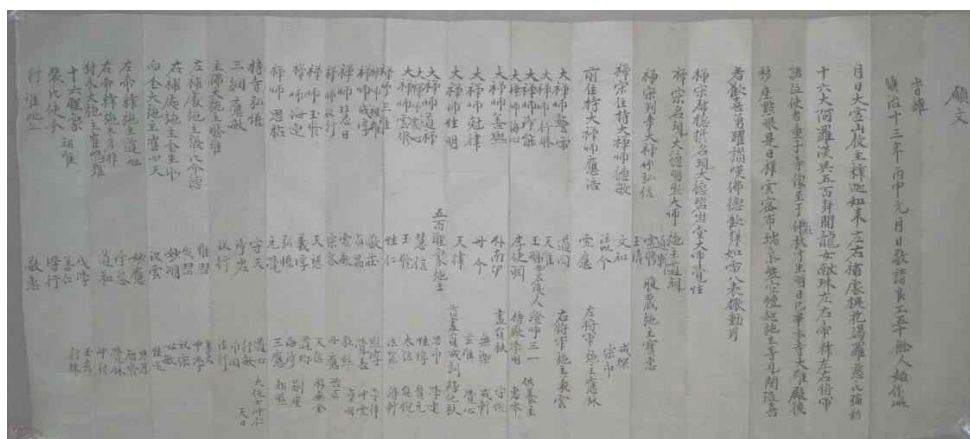
- 지정현황: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69호(1999.4.23.지정)
- 명 칭: 완주 송광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소조십육나한상 일괄
(完州 松廣寺 木造釋迦如來三尊坐像 및 塑造十六羅漢像 一括)
- 소유자(관리자):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
- 소재지: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송광수만로 255-16, 송광사
- 수 량: 27구(불상3, 나한16, 범천제석천2, 용녀2, 장군2, 사자2), 발원문 7점
- 규 격: ① 석가여래 상높이 192cm, 무릎폭 158cm ② 제각각 나한상 상높이 181cm, 무릎폭 130cm

③ 미륵보살: 상높이 181cm, 무릎폭 130cm 등 ※별첨 규격표 참조

- 재 질: 목조 및 소조
- 제작연대: 1656년(효종 7년)
- 제작자: 無染, 玄准, 戒訓, 思印, 性淳, 太信, 法器, 熙淳, 覺善, 敬熙, 丹應, 天信, 道均, 海淨, 三應, 道心, 行敏, 印罔, 法行, 善文, 冲學, 議宗, 心敏, 性環, 思忍, 智修, 覺林, 冲行, 玉玄, 行珠



<완주 송광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소조십육나한상 일괄>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발원문>

라. 2차 조사자 검토 종합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완주 송광사 나한전 불상은 2014년 7차(2014.12.11.) 동산분과위원회 검토 안건으로 부의하였으나 이곳에서 발견된 발원문 등 복장유물에 대한 보완조사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류된 바 있다. 이에 2021년 1월 25일 보완조사를 실시하였다.

복장유물은 발원문 이외 특별히 수습, 보관하고 있는 것은 없으며 기존 여러 자료에서 소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조성 발원문이었다. 특이사항은 기존에는 6점의 발원문이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나한전 해체수리로 석가여래삼존과 16나한상을 임시법당으로 옮겨 조사하는 과정에서 1점의 발원문이 추가로 수습되었다. 이 발원문은 말미에 第七이라는 목서명이 있어 제7존자와 관련된 발원문으로 판단된다. 이번 보완조사에서는 불상은 물론 기존에 알려진 발원문 6점과 추가로 수습된 발원문 1점까지 모두 7점의 발원문을 확인하였다.

이에 보완 조사에 참여한 조사위원의 공통된 종합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송광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소조십육나한상’ 일괄은 17세기 중엽 경 만들어진 불상의 수량과 규모면에서 가장 크다. 참여한 화원도 이에 걸맞게 30명(발원문의 본문에는 良工 50여인을 청했다고 함)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1622년 자수사·인수사(조각승 13명, 야장 4명) 불사를 능가하는 인원의 조각승이 참여한 것이다. 제작방식도 당시에 유행했던 목조와 소조, 채색 기법 등을 두루 활용하여 작가의 재치와 개성이 잘 드러나 있고 작품성도 뛰어나다, 특히 나한상과 동자상을 일체형으로 제작한 작자의 창의성이 돋보이며, 이외 영산회상에 용녀헌주상의 등장은 유례가 드문 것으로, 이는 모든 중생의成佛이라는 불교의 대명제를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실질적 사례로써 불교사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둘째, 불상의 제작에 있어서 수조각승 무염의 통솔 하에 일군의 조각승들이 1~4명으로 무리를 이루어 분담 제작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물론 이와 같은 사례는 구례 화엄사 대웅전 삼신불은 불상의 양식으로 두 개의 조각 집단이 참여하여 불상을 제작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이곳에서는 발원문에 각 상마다 제작자를 분명히 밝혀 놓고 있어 분장을 통한 조각 실명제가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조각승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무염·승일파, 현진·청현파, 수연파의 조각승들이 참여하고 있는 양상인데, 이는 자수사인수사 불사와 마찬가지로 벽암각성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그 만큼 이 나한전 불사의 중요성을 가늠케 한다.

셋째, 조각승과 불화승간의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불상과 나한상은 조각과 더불어 개금·개채 작업이 동시에 필요한 작업이다. 이 송광사 나한전 불상을 통해 영역이 다른 화원들이 어떻게 협업관계를 구축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넷째, 이곳 불상조성에 등장하는 丹應은, 김천 직지사 사천왕상과 구미 봉황사 삼존상 등에서 송광사와 위봉사의 조각승으로 기록되어 있다. 송광사 나한전 불상은 丹應(또는 端應)이 경북·충북으로 활동영역을 확대하기 이전 송광사를 근거로 삼고 있음을 확인해 주는 직접적인 자료이다. 따라서 이 불상은 송광사를 본산으로 활약했던 조각 집단의 조각 체계와 조각 태도, 경향 등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큰 조각사적 의의를 갖는다.

위와 같은 사유로 조사위원 전원은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오백나한상 후대에 보장된 것이 많고, 양식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검토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금번 국가지정문화재(보물)의 검토대상은 1656년에 일괄로 제작된 것이 분명한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3구, 소조나한상 16구, 용녀현주상 2구, 좌우 제석상 2구, 좌우 장군상 2구(금산사 성보박물관 소장) 등 모두 27구의 불상과 발원문 7점이다.

<표 1> 송광사 나한전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소조심육나한상 발원문 목록

연번	명칭	재질	크기cm	시대	비고
1	願文	지본 묵서	40.4x90.5	1656	*석가여래삼존좌상에서 수습된 것으로 추정
2	大靈山十六聖衆五百聲聞成造同願文(第三)	지본 묵서	40.0x49.5	"	*畫員 性淳 *말미 '第三' 묵서
3	大靈山十六聖衆五百聲聞成造同願文(第七)	지본 묵서	38.8x50.2	"	*畫員 道均 太信 照信 *말미 '第七' 묵서 *추가수습
4	大靈山十六聖衆五百聲聞成造同願文(第九)	지본 묵서	40.6x50.2	"	*畫員 忠學 思印 智修 覺林 *말미 '第九' 묵서
5	大靈山十六聖衆五百聲聞成造同願文(第十)	지본 묵서	40.3x50.2	"	*畫員 端應 性還 三應 法行 *말미 '第十' 묵서
6	大靈山十六聖衆聲聞成造同願文(第十四)	지본 묵서	39.5x45	"	*畫員 戒訓 性淳 思印 *말미 '第十四'
7	大靈山十六○○○○聞與 ³⁾ 左帝釋成造同願○	지본 묵서	39.5x48.2	"	*畫員 顯准 *우측면과 하단면 일부 결실됨

3) 원문에는 如로 되어 있으나 문맥상 與로 판단됨

1. 願文

願文

峇維

順治十三年丙申元月日敬請良工五十餘人始作此
月日大靈山教主釋迦如來左右補處提花竭羅慈氏彌勒
十六大阿羅漢與五百聲聞龍女獻珠左右帝釋左右將軍
諸位使者童子等像至于仲(孟)秋才生明日已畢本寺大雄殿後
移座點眼是日祥雲密布瑞氣盤空檀越施主等見聞隨喜
者歡喜勇躍讚嘆佛德歡聲如雷八表振動耳

1단

禪宗都摠攝名現大德碧巖堂大師覺性

禪宗名現大德明照大師

禪宗判事大禪師弘信

禪宗住持大禪師德敏

前主持大禪師應浩

大禪師警雷

大禪師行修

大禪師淨能

大禪師海心

大禪師善熙

大禪師剋律

大禪師性明

大禪師道禪

大禪師處心

大禪師雲修

禪師三准

禪師祖雄

禪師戒淳

禪師慧日

禪師議(ㄱ+又)行

禪師玉修

禪師海連

禪師思拈

持寺弘悟

三綱應敏

主佛大施主勝准

左補處施主張氏介德

右補處施主金生水

面金大施主崔四天

左帝釋施主道旭

右帝釋施主彦非

材木大施主崔鳴難

十六聖衆智准

裴氏使今

行惟比丘

2단

施主道規

道軒

靈修

玉清

文知

誥介

雪應

道罔

天准

玉明

李使淵

朴男伊

丹介

天律

五百聖衆施主

慧信

玉修

性仁

敬莊

貞勸

靈敏

宗洽

天認
義淳
弘悟
元覺
守天
淨岩
議(ㄱ+又)行
惟習
成習
妙明
議(ㄱ+又)雲
妙應
淨洽
道和
成學
善仁
得行
敬惠

3단

腹藏施主寶惠

戒環

宗印

左將軍施主應林

右將軍施主義雲

松岩後人證師三一

持殿學明

畫員秩

無染

玄准

首畫員 戒訓

思印

性淳

太信

法器

熙淳
覺善
敬熙
丹應
天信
道均
海淨
三應
道心
行敏
印罔
法行
善文
冲學
議(ㄚ+又)宗
心敏
性還
思忍
智修
覺林
冲衍
玉玄
行珠

供養主

惠岑
守悅
戒軒
覺心

緣化秩

學連
贊元
能悅
得軒
克律

冲雪
卓罔
冶匠
朴無金
別座
智照
大化土冲仁
天日

2. 大靈山十六聖衆五百聲聞造成同願文(第三)

大靈山十六聖衆五百聲聞造成同願文

大施主 道規比丘

證明松岩後人三一比丘

學明比丘

畫員 性淳比丘

化主 忠印

別座 智照

順治十三年丙申孟秋已畢

第三

3. 大靈山十六聖衆五百聲聞造成同願文(第七)

大靈山十六聖衆五百聲聞造成同願文

大施主 曹氏文知

證師 三一比丘

畫員 道均比丘

太信比丘

照信比丘

化主 忠印

順治十三年 丙申 孟秋既畢

第七

4. 大靈山十六聖衆五百聲聞成造同願文(第九)

大靈山十六聖衆五百聲聞成造同願文

大施主 雪罔比丘

畫員 忠學

思印

智修

覺林

化士 忠印

峇

順治十三年丙申孟秋既畢

第九

5. 大靈山十六聖衆五百聲聞造成同願文(第十)

大靈山十六聖衆五百聲聞造成同願文

大施主 道罔比丘

畫員 端應

性還

三應

法行

大化主 忠印

智照

覺心

峇

順治十三年丙申孟秋既畢

第十

6. 大靈山十六聖衆聲聞成造同願文(第十四)

大靈山十六聖衆聲聞成造同願文

大施主 朴男

證明大禪師 三一比丘

學明

畫員 戒訓

性淳

思印

化士 忠印

別座 智照

岾

維順治十三年丙申孟秋已畢

第十四

7. 大靈山十六〇〇〇〇如左帝釋成造同願文(左帝釋)

大靈山十六〇〇〇〇如左帝釋成造同願文

證明松岩後人 三一比丘

畫員玄准比丘

大功德主 忠仁比丘

別座 智照比丘

岾

順治十三年丙申孟秋已畢

마. 1차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완주 송광사 소조석가여래삼존좌상과 그 좌우보처와 권속의 상들은 임진왜란 이후에 화엄사, 법주사, 쌍계사 등을 중창하였던 팔도도총섭 碧巖覺性(1575~1660) 대사가 주축이 되어 발원한 조상불사로 이보다 먼저 1649년에는 이 사찰의 소조사천왕상을 조성을 주도하였다.

조성원문에 보이는 30명의 조각승들 이름에서 볼 때 석가삼존과 십육나한, 오백나한, 제석범천상을 조성하는 佛事의 규모가 매우 커서 당시 활동하던 여러 집단의 조각승들이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수조각승 무염의 알려진 작품 가운데 가장 제작시기가 가장 늦은 순치 13년(1656)의 조각으로서, 흥미로운 점은 조성발원문에 기록된 조각승 가운데 맨 앞에 이름이 올려진 무염의 다음에 玄准이 올라있고, 그 뒤에 오는 戒訓이 ‘수화원’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무염은 여러 집단의 조각승들을 이끌고 이 대규모 조상불사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고, 실제 조각작업에서 戒訓이 수조각승으로서 실무를 담당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름이 올려진 조각승은 思印인데, 이와 동일한 발음의 이름을 가진 鑄鐘匠 思忍비구가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까지 활동하였으나, 여기서는 戒訓과 함께 완주 송광사 원패(1654년)를 제작한 守衍 계열의 조각승으로 추정되고 있다. 화원질의 뒤쪽에 나오는 같은 발음의 思忍이 주종장 사인인지 동명의 조

각장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이 밖에도 丹端처럼 17세기 후반에 수조각승으로 여러 작품을 남기고 있는 조각승과, 서로 다른 유파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天信(印均계열)과 三應(勝一계열)이 함께 참여하여 작업하였음도 발원문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한편, 십육성중과 오백성중, 좌제석의 발원문으로 적힌 별개의 記文에는 앞의 여러 조각승 가운데 오직 忠學(沖學), 思印, 智修, 覺林 비구, 4명의 이름만 기록되어있다.

완주 송광사 나한전 석가삼존상과 십육나한 및 권속의 상들은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조각적으로도 우수할 뿐 아니라 17세기 중엽의 여러 계열의 조각승들이 협업하여 완성한 대규모 彫刻群이라는 점에서 조각사적인 의의가 크다. 국가 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하여 이 소조상들을 보존·관리함과 동시에 앞으로 조성발원문에 나타나는 조각승들의 관계와 記文에 보이는 조각승들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 (지정 가치 있음)

송광사 나한전에는 현재 석가여래, 미륵보살, 제화갈라보살을 비롯해 십육나한, 오백나한, 좌우제석, 좌우장군 등 526존이 봉안되어 있다. 이러한 대불사였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30명의 조각승들이 참여하여 조성하였다. 조선 후기에 십육나한상과 함께 오백나한상을 함께 봉안한 것은 흔치 않은 배치법으로 주목해야 한다. 불상들은 어깨와 상체가 넓고 양감이 잘 드러나 있으며, 하반신도 두껍고 폭이 넓어 전체로는 건장한 체격에 안정된 구도를 보인다. 마치 소조상처럼 다리와 옷주름에는 울퉁불퉁하게 양각이 강하게 베풀어져 입체감이 잘 살아 있으며, 예배상으로서 갖추어야 할 실재감도 성공적으로 구현되었다. 조각가, 제작시기가 밝혀져 있고, 예술성이 뛰어나며, 독특한 배치법을 갖고 있는 드문 작품들로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

○ (복장유물 조사 후 재검토 -보류)

대웅전 좌측 뒷편에 위치한 나한전에는 ㄱ형으로 이루어진 불단에는 석가여래삼존을 비롯하여 16나한상과 권속들이 배치되었다. 석가여래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발원문에 의하면, 이들 상들은 順治 13年(1656, 효종 7)에 良工 50여명을 초청하여 조성한 것인데, 이때 만들어진 상은 대영산교주 석가여래와 좌우보처 제화갈라보살과 미륵보살, 16대아라한, 오백성문, 용녀현주, 좌우제석, 좌우장군, 제위사자, 동자 등을 조성하였다고 한다. 현재 봉안된 오백성문상들은 대부분 근래에 석고로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하나하나의 상에 대한 정밀조사는 이루어져야 하리라 본다.

불상의 조성에는 禪宗都摠攝 碧巖覺性を 비롯하여 禪宗大德 明照, 禪宗判事 弘信, 禪宗住持 德敏 등 당대의 고승대덕들이 불사를 이끌었고, 화원으로는 無染, 玄浚, 首畫員 戒訓, 思印, 性淳, 太信, 法器, 熙淳, 覺善, 敬熙, 丹應, 天信, 道均, 海淨, 三應, 道心, 行敏, 印罔, 法行, 善文, 冲學, 議宗, 心敏, 性環, 思忍, 智修, 覺林, 冲行, 玉玄, 行珠 등 30명의 화원이 참여하였다.

한편 이 석가여래상에서 발견된 발원문 이외 5매의 기문이 더 발견되었는데, 이 記文에서는 施主者와 證明, 畫員, 大功徳主, 化主, 別座를 요약하여 기록하고 있어 개별적으로 존상 조성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을 명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삼존여래상은 얼굴과 신체에는 양감이 풍부해졌고, 앞선 시기에 비해 어깨는 넓고 허리는 줄어드는 등 일련의 양식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조상의 전 반에는 소조기법을 잘 활용하여 양감 있고 활발한 조각기법을 보여주고 있으며, 16나한상 역시 각 존상마다의 특징을 뛰어난 솜씨로 생동감 있게 조각하였다. 특히 본존여래와 미륵보살상은 양감 넘치는 상호와 통상적인 이중착의식의 통견착의법임에 반해, 우협시 제화갈라 보살상은 천의식 착의에 무릎에는 불꽃처럼 표현된 장식이 붙어 있고, 이목구비도 약간 각이 진 형태이다. 이러한 특징은 丹應이 조성한 일련의 불상들과 양식적 친연성이 있기 때문에 조각승 간의 역할 분담이 분명히 있었음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16나한상은 130cm 넘을 정도로 규모가 크고, 별도로 조성되어 나한상 앞에 봉안되던 동자상이 나한상과 일체형으로 조각하여 새로운 조각양식을 만들어 내고 있는 점도 흥미롭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하여 할 발원문이 금산사 성보박물관에 보관하고 있어 조사하지 못하였다. 불상과 관련된 직접적인 자료인 만큼 발원문과 기문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근래에 석고로 조성되었다고 하는 오백나한상 중 일부는 이들과 함께 조성된 것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지정여부는 발원문과 오백나한상을 정밀조사 한 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

1차 조사보고서

○ 내용 및 특징

1) 명문 및 특기사항

• 願文, 1656년, 종이, 6매, 금산사 정보박물관

銘文：願文」峇惟」順治十三年丙申元月日敬請良工五十餘人始作」月日大靈山教主釋迦如來左右補處提和竭羅慈氏彌勒」十六大阿羅漢與五百聲門龍女獻珠左右帝釋左右將軍」諸位使者童子等像至于孟秋才生明日已畢本寺大雄殿後」移座點眼是日祥雲密布瑞氣盤空檀越施主等見聞隨喜」者歡喜踊躍讚嘆佛德歡聲如雷八表振動耳」禪宗都摠攝名現大德碧巖堂大師覺性」禪宗名現大德明照大師」禪宗判事大禪師弘信」禪宗住持大禪師德敏」前主持大禪師應浩」大禪師警雷」大禪師行修」大禪師淨能」大禪師海心」大禪師善熙」大禪師克律」大禪師性明」大禪師道禪」大禪師處心」大禪師雲修」禪師三准」禪師祖雄」禪師戒淳」禪師慧日」禪師議行」禪師玉修」禪師海連」禪師思拈」持寺弘悟」三綱應敏」主佛大施主勝准」左補處施主張氏介德」右補處施主金生水」面金大施主崔四天」左帝釋施主道旭」右帝釋施主彥非」材木大施主崔鳴難」十六聖衆智准」褻氏」使令」行惟比丘」施主道觀」道軒」靈修」玉清」文知」注/叱介」雪應」道罔」天准」玉明」李使淵」朴男伊」丹介」天律」五百聖衆施主慧信」玉修」性仁」敬莊」貞勛」靈敏」宗洽」天認」義淳」弘悟」元覺」守天」淨岩」議行」惟習」成習」妙明」儀雲」妙應」淨洽」道和」成學」善仁」得行」敬惠」服藏施主寶惠」戒環」宗印」左將軍施主應林」右將軍施主義雲」松岩後人證師三一」持殿學明」畫圓秩無染」玄准」首畫員戒訓」思印」性淳」太信」法器」熙淳」覺善」敬熙」丹應」天信」道均」海淨」三應」道心」行敏」印罔」法行」善文」冲學」議宗」心敏」性環」思忍」智修」覺林」冲行」玉玄」行珠」供養主惠岑」守悅」戒軒」覺心」緣化秩學連」贊元」能悅」得軒」克律」冲雪」卓罔」治匠朴無金」別座智照」大化士忠印」天日」

• 願文, 종이, 5매, 금산사 정보박물관

銘文：①大靈山十六○○○○如左帝釋成造回願文」證明松岩後人三一比丘」畫員玄准比丘」大功德主忠仁比丘」別座智照比丘」峇」順治十三年丙申孟秋已畢」

②大靈山十六聖衆五百聲聞成造回願文」大施主道規比丘」證明松岩後人三一比丘」學明比丘」畫員性淳比丘」化士忠印」別座智照」順治十三年丙申孟秋既畢」第三」

③大靈山十六聖衆聲聞成造回願文」大施主朴男」證明大禪師三一比丘」學明」畫員戒訓」性淳」思印」化士」忠印」別座智照」峇」維順治十三年丙申孟秋已畢」第十四」

④大靈山十六聖衆五百聲聞成造回願文」大施主宜罔比丘」畫員忠學」思印」智修」覺林」化士忠印」峇」順治十三年丙申孟秋既畢」

⑤大靈山十六聖衆五百聲聞成造回願文」大施主道罔比丘」畫員端應」性還」三應」法行」

2) 조사 내용

송광사 나한전에는 석가여래좌상을 중심으로 제화갈라와 미륵보살을 협시하는 석가여래삼존상과 16나한상, 좌우제석, 좌우장군 등을 포함한 526존자들이 있다. 이들 존상에서 출토된 발원문을 통해 이들 존상들이 1656년에 무염을 포함한 30명의 조각승에 의해 조성된 것을 알 수 있다.

본존인 석가여래좌상은 어깨가 넓고 허리가 긴 장대한 체구를 보인다. 석가여래좌상은 육계의 구분이 없는 둥근 형태이다. 머리의 중앙에는 반원형에 가까운 중간계주가, 정상에는 원통형의 정상계주가 조각되어 있다. 석가여래좌상의 상호는 넓은 미간, 두툼하게 솟은 눈두덩이, 반개한 눈과 오뚝한 코, 살짝 미소머금은 입술로 구성된다. 착의법은 대의를 걸친 편단우견식으로 착의하여 오른편 어깨를 가렸지만 오른팔은 드러나 있다. 가슴을 가린 승각기는 살짝 주름이 잡혀 있으며 하반신에는 좌우 4가닥씩의 큰 주름이 펼쳐져 있다.

좌우협시보살좌상의 착의방식은 이형대칭으로 좌측 미륵보살은 승각기, 편삼, 대의를 걸친 가사를 걸쳤고, 우측 제화갈라보살은 천의를 입고 하반신에는 각대를 착용하고 있다. 좌우협시는 모두 보상화문, 화염, 구름문양으로 장식된 보관을 쓰고 있고, 귀걸이와 팔찌를 두르고 있다. 상호 표현은 좌측의 미륵보살은 본존과 비슷한 상호지만 두상을 타원형으로 조각하였고, 우측의 제화갈라보살은 방형의 얼굴에 눈두덩이와 양 볼의 양감이 훨씬 줄어들었고 눈윗꺼풀을 길게 표현하였다.

16나한상은 암석 대좌위에 결가부좌, 반가좌, 유희좌 등 다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나한상들은 해태, 호랑이, 학, 용, 코끼리 등과 같은 서수나 동자상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다. 좌우제석은 보관을 쓰고 소매가 긴 포를 입고 조끼와 같은 霞帔를 걸쳤다. 길게 흘러내린 소매자락은 좌우의 동자들이 들고 있다. 좌우사자는 모두 갑옷을 입고 있는 무장의 모습이다. 좌측사자는 해태얼굴이 새겨진 두건을 쓰고 있으며, 오른쪽 사자는 뿔이 2개 솟은 듯 한 모자를 쓰고 있다.

발원문의 인물들 중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禪宗都摠攝名現大德碧岩堂 覺性이다. 1636년 송광사 중창개창비에도 각성과 그의 문도들이 송광사의 중창에 크게 기여하였고, 영산전 존상불사의 증명을 맡은三一 또한 각성의 사제인 松嶠戒益의 제자이다. 이는 송광사 개창 이후에도 각성이 포함된 浮休문도들에 의해 지속적인 불사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산전 존상들은 조각승들은 畫圓秩 無染 玄准 首畫員 戒訓 思印 性淳 太信 法器 熙淳 覺善 敬熙 丹應 天信 道均 海淨 三應 道心 行敏 印罔 法行 善文 冲學 議宗 心敏 性環 思忍 智修 覺林 冲行 玉玄 行珠이다. 가장 앞에 이름이 언급된 무염은 17세기 전반기 활발한 활동을 했던 조각승이다. 무염의 1630년대부터 수화승으로 활동한 기록들이 남아있다. 그의 조성한 대표적인 불상들은 1633년 고창 선운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보물 제1752호), 1635년 영광 불갑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보물 제1377호), 1650년 대전 비래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보물 1829호), 1651년 속초 신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보물 제1721호) 및 목조지장보살삼존상(보물 1749호), 1654년 영광 불갑사 명부전 권속, 1656년 완주 정수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67호) 등이 남아있다.

무염과 함께 작업한 조각승들 중 무염집단에 속했을 조각승은 도균으로 1648년 해남 도장사 석가여래 제작시 10번째 조각승으로 참여한 기록이 전하고 나머지 조각승들은 비슷한 시기 활동하던 다른 집단들의 공동작업으로 여겨진다. 무염을 제외하고 불상조성에 관여했던 승려는 단응, 천신, 삼응 및 사인이다.

丹(端)應은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 활동한 조각승이다. 그가 조성한 주요 불상들은 1684년 경북 예천 용문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보물 제989-1호)과 대장전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보물 제989-2호) 및 명부전 존상, 1689년 충북 제천 정방사 목조관음보살좌상(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06호), 1689년 경북 성주 선석사 아미타삼존불좌상, 1692년 안동 봉황사 삼세불좌상, 1705년 하동 쌍계사 사천왕상(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413호)이다. 영산전 석가삼존 중 향우측 제화갈라보살은 단응의 작품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제화갈라보살의 눈 위꺼풀을 과장되게 조각한 표현한 상호 및 무릎에 두른 각대의 표현은 1684년 예천 용문사 목조관음보살좌상에서 보이는 표현과 유사하다. 이를 통해 제화갈라보살은 단응이 주도적으로 조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天信은 1655년 인균과 흥국사 석가삼존불좌상을 조성했고, 1668년에 금탑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을 중수한 기록이 남아있다. 三應은 승일과 1651년 서울 봉은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보물 제1819호) 1665년 송림사 명부전 존상, 1668년 김천 직지사 비로자나삼불좌상을 작업을 하였고, 1670년에는 김천 봉곡사 석조석가여래좌상을 조성하였다. 思忍은 1639년 수연과 예산 수덕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보물 제1381호), 1649년 회문산 만일사 목조석가불좌상(현, 포천 동화사)을 조성하였으며 1654년에는 영산전 발원문에서 首畫員으로 언급된 戒訓과 완주 송광사 원패를 제작하였다. 참여 조각승들의 이러한 활동은 통해 완주 송광사 영

산전 존상조성 불사는 무염집단, 인균집단, 수연집단 및 승일집단에 속했던 조
각승들의 합동작업으로 볼 수 있다.

■ 규격

존상명	전체높이	어깨폭
석가여래	192cm	158cm (무릎폭)
제화갈라보살	181cm	130cm (무릎폭)
미륵보살	181cm	130cm (무릎폭)
나한상 (우1)	135cm	-
나한상 (우2)	135cm	-
나한상 (우3)	123cm	40cm
나한상 (우4)	114cm	41cm
나한상 (우5)	131cm	39cm
나한상 (우6)	125cm	41cm
나한상 (우7)	131.5cm	45cm
나한상 (우8)	130cm	43cm
나한상 (좌1)	135cm	-
나한상 (좌2)	135cm	-
나한상 (좌3)	122cm	39cm
나한상 (좌4)	133cm	41cm
나한상 (좌5)	131cm	40cm
나한상 (좌6)	136cm	45cm
나한상 (좌7)	135cm	41cm
나한상 (좌8)	128cm	37.5cm
범천상 (우)	146cm	45cm
제석상 (좌)	150.5cm	51cm
동녀상 (우)	142cm	45cm
용녀헌주상 (좌)	136cm	33cm
사자상 (우)	148.5cm	43cm
사자상 (좌)	147cm	41cm
장군상 (우)	186cm	-
장군상 (좌)	182cm	-
오백나한상 (일괄)	20~45cm	-

■ 조각승 無染의 활동

지역	연대	구성내용	조각승	비고
전북 고창	1633년	선운사 소조비로자나 삼불좌상	法海, 無染, 道祐, 性脩, 信懷, 海心, 雲日, 性寬, 雪議, 信堅, 玉行, 雙照 無染, 天彥, 道祐, 性脩, 性律, 雙照, 海心, 性寬, 大祐, 信堅, 愛生, 淳日	보물 제1752호
전남 영광	1635년	불갑사 목조석가여래 삼불좌상	無染, 勝一, 道祐, 性脩, 雙照, 信會, 云一, 信見, 尙安, 宥性	보물 제1377호
전남 해남	1648년	도장사 목조아미타불좌상	幸思, 無染, 海心, 性寬, 勝秋, 宗稔, 智准, 敏機, 三愚, 道均, 明照, 敬聖	
대전	1650년	비래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	無染, 性脩, 德明, 天漸, 敬聖, 靈四	보물 제1829호
강원 속초	1651년	신흥사 목조아미타불좌상, 목조지장보살삼존상	無染, 道祐, ○○, 德明, 處常, 性岑, 元哲, 道未, 敏奇, 義信, 處仁, 日祥	보물 제1721호, 보물 제1749호
전북 완주	1652년	정수사 목조아미타여래 삼존상	無染, 信罔, 心印, 惠端, 敬性, 靈擇, 學梅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67호
전남 영광	1654년	불갑사 목조지장보살삼존과 시왕상 및 권속	無染, 正玄, 海心, 智堅, 三愚, 敏奇, 道未, 妙寬, 一安, 信一, 勝熙, 智文, 明照, 學梅, 處印, 英癸	
전북 완주	1656년	송광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및 권속 일괄	無染, 玄准, 戒訓, 思印, 性淳, 太信, 法器, 熙淳, 覺善, 敬熙, 丹應, 天信, 道均, 海淨, 三應, 道心, 行敏, 印罔, 法行, 善文, 冲學, 議宗, 心敏, 性環, 思忍, 智修, 覺林, 冲行, 玉玄, 行珠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69호

[사진]



<완주 송광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소조십육나한상 일괄>

소조십육나한상



나한상



나한상



나한상



나한상



나한상



나한상



나한상



나한상



적적상



윤녀상



사자상



나한상



나한상



나한상



나한상



나한상



나한상



나한상



나한상



편찬상



동녀상



사자상



<장군상>

3. 울진 불영사 불연 (蔚珍 佛影寺 佛輦)

가. 심의사항

‘울진 불영사 불연’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재)불교문화연구소장으로부터 「2014년도 불교문화재일체조사」 사업의 결과물로 ‘울진 불영사 불연’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5.12.30.)이 있어 관계 전문가 조사('21.1.28./2.24.) 및 과학조사('21.2.23.~2.24.)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 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2021년도 본 위원회 제2차 회의('21.4.8.)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21.4.28~'21.5.28.)하고, 보물 지정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97호(2007.1.8.지정)
- 명 칭 : 울진 불영사 불연(蔚珍 佛影寺 佛輦)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불영사(불영사정보박물관)
- 소재지 : 경상북도 울진군 서면 불영사길 48, 불영사
- 수 량 : 불연 2기, 동경 2점
- 규 격 : 불연① : 총높이 127.5cm, 총길이 290.0cm, 몸체63.0×64.0cm
불연② : 총높이 121.0cm, 총길이 301.0cm, 몸체53.0×58.0cm
동경① : 지름 22.7cm, 두께 0.48cm
동경② : 지름 15.0cm, 두께 0.37cm
- 재 질 : 목조, 금속, 유리, 명주 등
- 형 식 : 궁륭형 처마를 가진 가마
- 조성연대 : 1670년(현종 11년)
- 제작자 : 廣玄, 性悅, 德眞 추정



<울진 불영사 불연①>



<울진 불영사 불연②>



<울진 불영사 불연 동경① · ②>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불연은 불가(佛家)의 불보살, 사리, 경전, 불패, 영가 등 예배의 대상을 의식도량으로 모셔오는 시련의식(侍輦儀式)에서 쓰이는 매우 중요한 의식법구이다. 그러나 현존하는 불연 유물은 모두 임진왜란 이후의 것들이며, 그 중에서도 제작연대를 알 수 있는 유물은 20여기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까지 불연의 문화재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97호 <울진 불영사 불연(1670)>,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93호 <밀양 표충사 불연(1720)>, 부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25호 <부산 범어사 불연>이 등록되어 있다. 문화재로 지정된 유물들은 명문이 있어 제작연대나 조성연유 등이 확인되고, 원형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조형적으로 우수한 예들이다.

기년명 불연 중 가장 이른 예는 구례 천은사 불연(1643)이며, 17세기 유물로 청도 용천사 불연(1674), 예산 수덕사 불연(1676), 청도 운문사 불연(1688), 밀양 표충사 불연(1688)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불영사 불연의 원형보존 상태가 가장 양호하다.

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불영사(佛影寺) 소장 불연(佛輦) 2점은 1669년부터 1670년에 걸쳐 상중단연(上中段輦)을 조성하였다는 기록에 따라 불영사 시련의식에 사용할 목적으로 1670년에 2점이 같이 제작된 것으로 확인되며, 양호한 보존상태와 조형적인 우수성으로 인해 2007년 1월에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97호로 지정되었다.

1. 가장 중요한 명문(銘文)은 불영사 불연 중 <불연 1>의 바닥에 ‘조련기 및 연화질 시주질’이 적혀있고, <불연 2>에 ‘시주질과 사내질’, ‘연화질’이 바닥면과 가마 몸체 후면 머름청판에 적혀 있다.

이 명문에 의해 제작연대 뿐 아니라 ‘봉연(鳳輦)’이라는 불연의 명칭과 불연의 용도, 주렴과 거울, 용두장식 등의 조형까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주자와 제작에 참여한 화사들도 확인되어 불연 및 17세기 불사(佛事)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2. 불영사 불연 2점은 형태와 제작 기법, 장식 등 유사한 형식을 하고 있는데, 이는 2점 모두 같은 시기에 같은 제작장인이 제작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2점 모두 장식이 유실되거나 박락된 부분 등이 있으나, <불연 1>은 그 중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주목되는 점은 주렴(珠簾)과 거울이다. 남색과 투명한 유리 구슬을 귀갑문 형태로 엮어 만든 주렴이 전면을 제외한 삼면에 설치되어 있다.

귀한 공예재료인 색유리구슬로 만든 주렴은 왕실용 가마나 전각에서 볼 수 있고, 다양한 색의 구슬들은 면류관(冕旒冠) 등 왕실공예품에서 볼 수 있다. 또 가마의 좌우측 주렴에 달리는 거울의 존재 역시 조선 후기 사찰에서 소장하고 있는 거울들과의 연관성을 살펴볼 수 있는 재료이다.

3. 마지막으로 불영사 불연의 전체적인 조형뿐만 아니라 세부 조형에 있어서 나무로 엮어 만든 궁륭형 지붕과 봉황조각, 청판머름 조각들, 가마채의 용두장식, 난간 장식 등에서 보이는 조형미와 조각솜씨가 매우 뛰어나다. 또한 황동과 주석, 철 등 재료를 달리한 금속재료를 사용하여 보강재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조각단청, 주렴과 함께 색채효과가 뛰었을 것으로 보인다. 지붕과 몸체 곳곳의 장식과 보석을 물린 장식 등에서도 당시 뛰어난 장인이 정성을 들인 불교공예품의 정수임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영사 불연 2점은 명문에 의해 제작연대 및 조성연유 등이 확인되었고, 기년명 유물들 중에서도 제작시기가 이른 편이다. 특히 완전하지는 않지만 다른 불연 유물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조형미가 뛰어나고, 주렴과 거울 등 다른 유물들에서 볼 수 없는 독창적인 요소들도 갖고 있어 조선 후기 불교목공예품의 조형양식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에 불영사 불연 2점은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불연은 일부 손상되고 수리된 부분이 있지만 같은 시기에 제작된 두 점이 제작 당시의 모습을 잃지 않고 거의 완형에 가까운 모습으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두 점 모두 1670년이라는 분명한 제작시기와 化主 學宗이 좋은 장인을 만나 불연을 제작하게 되는 동기와 배경, 그리고 제작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사내질, 시주자, 그리고 불연의 제작자(畫員)로 추정되는 연화질의 스님 등이 일목요연하게 기록되어 있어 조선 후기 목공예 및 불연연구에 귀중한 정보를 제공한다.

불연의 몸체 주렴에 거울을 매단 사례로는 최초의 사례로, 이는 불상의 양면원경이나 불화 복장낭 앞에 매단 동경과 같이 無明을 밝혀주는 역할과 상징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불교 의례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시각과 면모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례사적 의미가 크다.

조선 후기 제작된 불연은 기록을 통해볼 때 수록재 등 시련의식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며, 불영사 불연은 그 증거자료이다. 불연사 불연은 전반적으로 궁중연의 의례를 따르되 불교적인 요소도 창의적으로 가미하여 궁중연 못지않게 화려

하고 장엄한 모습을 보여준다. <불영사조연기>에는 불연을 일컬어 ‘鳳輦’이라 명명하고 있는데, 이는 불연을 단순히 의식용 불연으로만 인식하고 있고, 아름답고 뛰어난 작품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들채에서 몸체 지붕, 그 속에 표현된 크고 작은 문양과 도상, 결구와 장엄을 위해 사용된 금속도구와 장엄구까지 어느 부분 소홀함 없이 다루어 華麗無比함을 갖추었고, 여기에 세련되고 뛰어난 공예기법, 조각기법, 채색기법이 어우러져 높은 예술성을 보인다.

조선 후기 기년 작 불연은 대략 20여점이 알려져 있지만, 제작 당시의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면서 제작배경을 소상히 담은 기록이나 높은 예술적 완성도를 갖추고 있는 불연은 단연 불영사 불연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불영사 불연은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

○ (지정 가치 있음)

울진에 위치한 불영사에 소장하고 있는 가마 2점은 형태와 제작 기법, 장식 등 같은 형식을 하고 있다. 그리고 2점 모두 명문에 의해 1670년을 제작시기로 밝히고 있어, 함께 세트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각각의 명확한 사용처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사찰의 시련의식을 위해 함께 구비되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불영사 성보박물관에는 동경 2점이 보관되어 있는데, 그 중 산화문 장식의 동경이 <불연 1>의 주립부분에 달렸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불연 1>에는 국화문 등 꽃문을 위주로 조각하여 채색 장식하였고, <불연 2>는 국화문 외에 봉황문과 용문을 장식하였다. 가마 지붕 사각에는 2채 모두 봉황조각을 꽂아 장식하였다.

<불연 1>의 명문에서 보는 조련기(造輦記)에 ‘난새와 봉황이 꿈틀대며 난간 중앙에 날아 오르고’, ‘황룡이 용솟음치며 靑蓮 위로 날아 오르고’는 마치 <불연 2>의 채색 장식을 언급하는 듯하며, ‘등그런 명월과 같은 거울이 앞뒤로 걸려 있으며’는 <불연 1>에 달렸을 동경을 가르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명문에서는 ‘봉연(鳳輦)’으로 지칭하여 가마의 명칭을 알리고 있다.

명문은 <불연 1>에 ‘조련기 및 연화질 시주질’이 바닥 면에 적혀있고, <불연 2>에는 ‘시주질과 사내질’, ‘연화질’ 이 바닥면과 가마몸체 뒷면 머름청판에 적혀 있다. 그 중 가마몸체 머름청판에는 붉은 바탕에 금색선의 구획안에 금색 글씨로 정연하게 적었다. <불연 1>과 <불연 2>의 연화질에 ‘성열비구(性悅比丘)’라는 이름을 볼 수 있는데, 그는 1686년 백련사의 불연 제작에도 참여한 인물로 보고 있다.

불영사 가마 2점은 장식이 유실되거나 박락된 부분 등이 있으나, 비교적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현전하는 불연 중에 이른 시기의 유물이며, 한 세트로 남아 있어 주목된다. 명문에서는 제작시기와 배경, 제작 형태, 제작자를 유추할 수 있으며, 자료로서 활용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사찰의 레플리카로서 화려한 조각솜씨를 보이고, 잘 짜인 목조공예품으로서 문화재 지정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불영사 불연은 1670년에 조성되어, 현존하는 불연 중 온전한 형태인 것으로는 조성연대가 가장 이르다. 현재 전국사찰에 전하는 전통불연은 모두 조선후기의 것으로, 관련연구에 따르면 가장 이른 17세기의 작품은 불영사 불연 2점을 포함해 약 10점이 파악되었다. 이 가운데 1643년에 조성된 천은사 불연 2점이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나, 명문이 밝혀진 불연1은 몸체와 지붕이 유실되고 받침대만 남아 있으며, 같은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짐작되는 불연2는 지붕의 외부 천과 장식이 유실되었고 조성연대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불영사 불연의 경우, 조성연대를 비롯해 제작과정과 시주자, 불연의 형상과 용도까지 상세하게 명문으로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함께 제작된 상단·중단 연의 한 세트가 완형으로 남아있어, 17세기 불교미술사 및 불교의식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특히 17세기는 왕실 중심의 수륙재에서 사찰과 지역공동체 중심의 수륙재로 변화하던 시기로, 수륙재를 비롯한 야외법회를 치르면서 각단에 모시는 봉안대상의 격에 따라 연의 조성에도 이를 적용한 소중한 사례로 주목된다. 약간의 손상이 있지만 두 점 모두 보존상태도 매우 양호한 편이다.

예술적 측면에서도 전반적인 형태와 장엄·조각이 격조 있고 단아한 균형미를 갖추었으며, 목조조각의 섬세함과 금속제 장식의 정교함이 돋보인다. 더욱이 불연에 부착된 동경은 17세기 불연에서 찾을 수 없는 희귀한 사례로, 거울과 불연의 관계 및 용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아울러 불교의식에 있어서도 시련에 대한 연구는 활발한 반면, 불연을 함께 주목하여 의식과 의식구가 어우러진 통합연구는 이루어진 적이 없다. 따라서 장차 불연에 대한 미술사적 연구는 물론, 불교의식과 관련한 연구에서도 활성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불영사 불연은 17세기 불연의 장엄요소를 대표적으로 고증해줄 수 있는 유물로서, 그 역사적·문화적·학술적 중요성으로 볼 때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 따라서 현재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불영사 불연을 보물로 승격해 그 중요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이를 계기로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

조사보고서



○ 현 상

불영사에 소장되어 있는 불연은 총 2점으로 원래는 불영사의 부속전각인 칠성각과 황화실에 한 점씩 전해지고 있었으나 현재는 불영사 정보박물관에 소장, 전시되어 있다. 불연은 전각형(殿閣形)의 왕실 가마와 기본 형식이 같아서 가마를 드는 가마채와 몸체, 지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장엄을 위해 주렴(珠簾), 유소(流蘇), 차면(遮面), 면경(面鏡) 등을 갖추고 있다. 불영사 불연 역시 2점 모두 가마채와 연대 몸체, 궁륭형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다.

<불연 1>은 칠성각에 전하던 유물로 지붕 외면 박락이나 주렴 일부, 유소 등의 유실이 있지만 비교적 완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바닥면에 제작배경과, 제작자, 제작시기를 명시한 명문이 남아 있다.

가마의 구조는 일반적인 가마와 같이 지붕과 몸체, 그리고 연대와 연결된 가마채가 하나로 3단으로 분리되는 구조이다.

먼저 가마의 지붕은 네 귀퉁이에 지지대를 세우고 대나무로 엮어 궁륭형으로 형태를 만든 뒤 종이를 바르고 다시 운문명주(雲文明紬)를 씌웠다. 명주는 3겹으로 씌워져 있는데 현재 색이 바래고 삭아서 탈락된 부분이 많다. 내부에는 세명주를 발랐다.

지붕의 정상에는 붉은 칠을 하고 표면에 능화형 금박문을 붙인 연봉을 꽂았는데 황색으로 칠한 복련의 받침 중앙에 꽂혀 있어 분리가 된다. 또 네갈래의 지지대를 따라 황동판을 대고 6엽의 꽃무늬 장식에 유리, 또는 보석돌을 물려서 장식하였는데, 현재 유실되고 남은 것들만 있다. 이 장식장식은 여모에 댄 금속판에도 동일하게 붙어 있다. 지붕의 네 귀퉁이에는 구멍이 뚫려 있고 봉황머리를 꽂았는데, 현재는 3개만 남아 있다. 남아 있는 봉황의 턱 아래에 금속고리가 달려 있는 것으로 보아 유소 등을 꽂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유소 등 다른 장식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

몸체에는 4개의 기둥을 두고 벽체를 구성하였다. 전체적으로는 주칠을 하고 조각에는 단청을 칠했다. 몸체 내부에는 바닥면을 제외하고 세명주(細明紬)로 보이

는 천이 발라져 있으나 훼손된 부위가 많다.

몸체를 살펴보면 각 면의 위, 아래에 한단씩 머름칸을 두고 모란쇠코무늬를 투각하고 단청을 칠했다. 전면을 제외한 3면 중 후면에는 중앙의 창을 중심으로 하단에 두단, 5칸의 머름칸을 두고 하단에는 모란넝쿨무늬를, 상단에는 국화무늬를 투각하였고, 창 좌우에는 3칸의 머름청판에 국화무늬를 투각하고 있다. 가마의 좌우 측면은 중앙에 창을 낸 것은 후면과 동일하지만 창 하단에 한단의 머름칸을 두고 모란넝쿨무늬를 투각하였으며, 상단에는 한단, 4칸의 머름칸에 국화무늬를 투각하고, 좌우에는 종으로 2단의 머름칸을 마련하여 바깥쪽에는 통판에 모란넝쿨무늬를 투각하고, 안쪽의 3칸 머름청판에는 상단과 같이 국화꽃을 투각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모란꽃을 연꽃으로 지칭하고 있으나 꽃의 형태로 보아 모란꽃으로 판단된다.

전면을 제외한 3면의 창에는 남색계열의 유리구슬과 반투명한 구슬로 육각형의 귀갑무늬패턴으로 엮은 주렴을 설치하였는데 유사한 예는 아직 확인된 바 없고, 조선 후기 불연 중 <순천 송광사 불연(1719)>에서 귀갑무늬가 아닌 능화형의 주렴이 확인된다. 주렴은 현재 부분적으로 탈락이 되었으나 철사 등으로 임시적인 보강을 해 놓았다.

동경(銅鏡)은 예전 사진에서는 측면 한쪽에 주렴에 매달려 있었는데, 지금은 떼어내서 따로 보관하고 있고 주렴에는 동경을 달았던 흔적만 남아 있다. 현재 정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떼어져 있지만 동경 둘레에 주렴에 매달기 위해 끈을 꿰었던 구멍이 남아 있어 불연에서 떨어진 동경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같이 보관되어 있는 또 다른 동경은 크기가 다르고 사진에서 확인이 되지 않아 불연에 달려있던 동경인지 확인할 수 없다.

몸체 아래쪽에는 앞쪽에서 2명, 뒤쪽에서 2명, 총 4명이 들게 되는 가마채, 즉 연대가 갖춰져 있다. 가마채의 형체는 온전하고 가마채 끝의 용두장식도 온전히 남아 있다. 가마채에 연결되어 가마의 계자난간이 둘러져 있다.

몸체와 난간, 연대의 용두조각은 전체적으로 도안이나 조각수법이 뛰어나다. 특히 머름청판의 고부조와 투각기법이 매우 유려하고, 금채 등을 포함하여 단청이 잘 남아 있는 편이다. 몸체와 난간의 목재 결구부분에는 국화형 거멸장식과 세발장식, 감잡이를 박아 놓았고, 장식의 사이사이에는 능화형 금박문을 붙여 놓았다. 이 장식들은 주석으로 밝혀졌으며, 현재는 삭아서 떨어진 부분도 있다.

<불연 2>는 기본적으로는 <불연 1>과 거의 같은 형식이나, 크기가 약간 작고 세

부장식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명문은 가마 몸체 뒷면 머름청판과 바닥 면에서 발견되었다.

<불연 2> 비교적 온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불연 1>보다는 부분적인 훼손이 심하다. 지붕의 구조는 <불연 1>과 같지만 <불연 1>에서는 지붕 표면에 운문명주를 씌운데 비해 <불연 2>는 무문의 명주가 씌워져 있다. 지붕의 네 모서리에 장식된 봉황머리는 현재 하나만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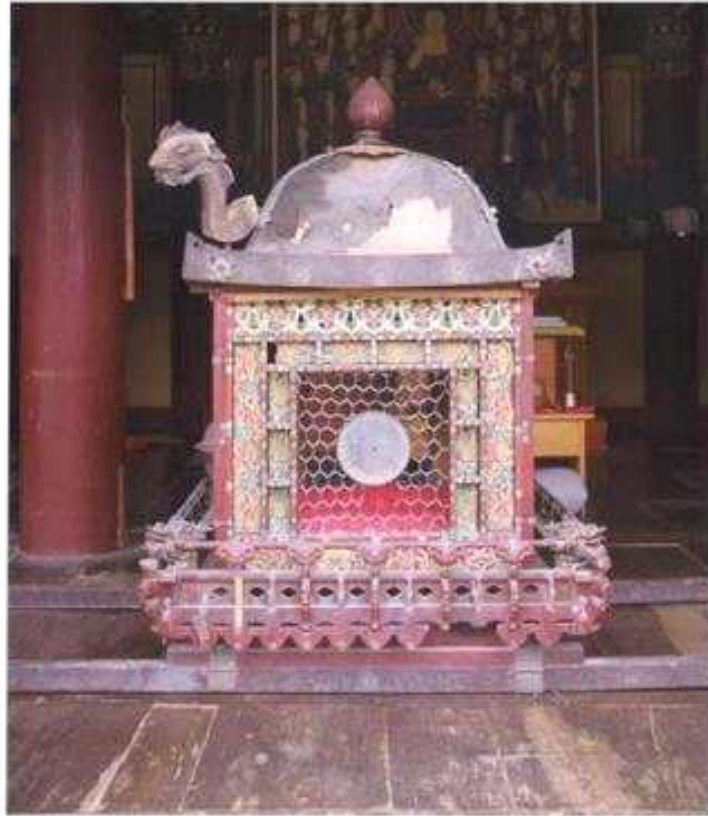
몸체의 머름청판 구조는 <불연 1>과 다르다. 전면과 후면에는 창 의 상하단에 단을 두고 상단에는 쇄코연결무늬를 조각이 아니라 단청으로 그렸고 하단에는 운룡문(雲龍文)을 조각하고 채색하였다. 단청으로 그려진 상단은 안쪽면에 명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후보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화학염료는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가 되었더라도 근대이후 후보된 것은 아니다.

창의 좌우측면에는 종(縱)으로 한단의 머름칸을 마련하고 봉황과 같은 새를 조각하고 채색하였다. 몸체의 좌우측면은 창 의 상단은 전후면과 같이 쇄코연결무늬를 그렸지만 하단과 좌우측면의 머름칸에는 국화문을 조각하고 채색하였다.

가마 몸체 4면 중 뒷면에만 주렴장식이 일부분 남아 있다. 원래는 <불연 1>과 같이 3면에 주렴이 설치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동경 부착의 유무는 확인되지 않는다.

연대는 난간과 가마채로 이루어져 있으며, <불연 1>과 달리 가마채의 앞부분에만 용두장식이 끼워져 있다.

부연 1



2 인형



		불연 1	불연 2
몸 체	머 름 청 판		
		상단조각 	상단 단형 
		하단고과-모란낭류부식 	하단고과 - 문룡부식 
주 렴			
			

		붙연 1	붙연 2
난간 · 용두			
			
장식 · 부재			
동경		 <p>부림의 앞과 뒷면 동경</p>	 <p>소달 부림 동경</p>

		붙연 1	붙연 2
지붕	지붕 외형		
	표면 직물		
		3겹 은문명주	홑겹 명주
내부 구조			
	장식	  연꽃, 복현발길 봉황장식	  연꽃, 복현발길 봉황장식, 구슬
몸체	측면		

○ 내용 및 특징

불연(佛輦)은 불가(佛家)의 시련의식(侍輦儀式)에서 쓰이는 가마이다. 시련의식은 불보살, 사리, 경전, 불패, 영가 등 예배의 대상을 가마에 태워 의식도량으로 모셔 오는 의식으로 靈山齋나 水陸齋 등에서 치러진다. 즉 불연은 불가의 야외법회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의식범구로 조선 후기까지는 사찰의 대규모 불교의식에서 중요한 의식범구였다. 그러나 근대기로 접어들면서 불교의식문화의 축소, 쇠퇴에 따라 불연의 존재는 유명무실해진 상황이 되어 남은 유물들조차 주목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불연의 용도는 왕실에서 왕이나 옥보 등 지엄한 존재를 이운할 때 사용하는 가마와 기본적으로 같다고 볼 수 있다. 불연의 기본적인 형식도 왕실에서 사용하던 輦이나 덩과 같으며, 기록에 의하면 왕실에서 발원하는 재회에 왕실의 가마를 보내 사용토록 하기도 하였다. 물론 사찰에서 사용하던 불연은 왕실의 가마와 비교하여 크기나 세부 조형에 차이가 있지만 인문학적 사실이나 공예적인 측면에서도 왕실과의 관련성도 빼놓을 수 없는 연구과제이다.

현재까지 불연에 대한 연구는 불교의례에 관련한 연구와 개별 불연의 조형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최근 석사학위논문이 한편 발표되었다. 이외에는 불교의식구 연구에서 단편적으로 다루어졌다. 이는 아직까지 불교공예품이 학계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시류와 목공예품이라는 재질적인 한계로 인해 완형이 드물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그나마 불영사 불연은 일찍이 명문의 존재와 양호한 보존상태로 인해 학계의 주목을 받아온 결과 2007년 1월에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97호로 지정되었다.

지금까지의 불영사 불연에 관한 연구는 조련기 및 연화질, 시주질 등 자세한 목서명의 내용에 따른 인문학적 자료제시와 유물의 현황보고에 그치고 있지만 이 유물을 계기로 기타 조선 후기 불연 유물들이 주목받기 시작하였으며, 불영사 불연은 하나의 기준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불영사 불연의 연구에 가장 핵심이 되는 명문은 <불연 1>과 <불연 2>에서 확인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⁴⁾

<佛輦 ① 底面墨書>

佛影寺造輦記」伏以鳳輦者修說法席之時恒沙諸佛昇」坐來臨之宮殿也豈徒然哉而况鸞鳳辮」飛於盡欄之中黃龍玄湧於青蓮之上十二」眞金爲壁七宝明珠爲戶金絲蛾蝶之結而」垂」於四隅團」明月之鏡懸」于前後綉闥開」而雲影臨軒瑱窓啓而日月照宮偉哉壯哉」赫」乎也世此物成之者阿誰耶學宗禪德是也」戊申之秋袖藏玉軸而行至慶尙

4) 심현용, 「불영사 불연」, 『미술자료』, 72·73호(국립중앙박물관 2005), pp. 123~132 참조.

道蔚山府」也風飄雲衲於萬落千村而募緣積善之家欲」成鴻功而良工不遇空負一歲也
己酉之春忽遇良」工而向入宜春北嶺圓寂山大乘庵始成矣未斷」功而庚戌之春以斷功
而結手也可謂非人之所致乃天」之所爲也古云天運循環無往不復誠可謂此也此非」積
德能施者也伏願造輦之後鬼神攸護龍天守伏」三灾五害絶歷而入不六時天樂續紛而自
來重暉」佛日再振禪風云

施主秩」慶尙道梁山地 供養布施主朴守億」九月」兩主」蔚山地 供養施主金春山兩
主 供養施主李林」

緣化秩 廣玄比丘性悅比丘德眞比丘

供養主」能藺比丘己敏保体 化主學宗比丘」引勸大德惠能大師比丘」己酉年爲始庚戌
年四月畢造」康熙九年庚戌四月畢功」

삼가 봉연(鳳輦)이라 하는 것은 법회를 열 때 수많은 부처들이 올라앉아 궁전으로
내림(來臨)하던 것이라. 그러나 어찌 한갓 그러한 것이기만 하랴. 향차 난봉(鸞鳳)
이 꿈틀대며 난간 중에 날아오르고, 황룡(黃龍)이 용솟음치며 청련(靑蓮) 위로 솟
아오르며, 십이진금(十二眞金)으로 벽을 장식하고, 칠보명주로 지붕을 엮고, 둥그
런 명월과 같은 거울이 앞뒤로 걸려 있으며, 수놓은 작은 문을 열면 운영(雲影)이
누각에 내리고, 작은 보석으로 장식한 창을 열면 일월이 궁전을 비추는 것 같음이
랴. 위대하고 장함이요, 찬연히 빛남이로다.

세상에 이 물건을 만든 자가 누구인가. 학종선덕(學宗禪德)이 바로 이것이로다.
무신년 가을에 소매 속에 옥축(玉軸)을 갈무리하고 길을 떠나 경상도 울산부에 이
르렀다. 온갖 마을에 바람이 거세고 구름이 젖어들거늘 적선지가(積善之家)의 선
연(善緣)을 맺게 하고, 홍공(鴻功)을 이루고자 했지만 좋은 장인을 만나지 못해 한
세월을 그냥 보냈다. 기유년 봄에 홀연히 좋은 장인을 만났으니, 그때 마침 춘북
령 원적산 대승암에 들어감으로써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다. 공업을 결정하지 못하
다가 경술년 봄에 결단을 내려 서로 인연을 맺게 되었다.

이는 가히 사람의 소치가 아니라 하늘이 하는 바라. 옛날에 이르기를 대운(大
運)이 도와 두루 미치지 못하면 정성만 거듭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가히 이를 두고 하는 말이라니, 이는 덕을 쌓고 능히 베푼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삼가 원컨대 불연을 조상한 후에 귀신이 용을 호위하여 하늘에서 지키고, 삼재
(三灾)와 오해(五害)가 모두 끊어져 들어오지 못하며, 육시(六時)와 천락(天樂)이 무성
하게 절로 내림하여 불일(佛日)이 거듭 빛나고, 선풍(禪風)이 다시 떨치게 하소서.

시주질, 경상도 양산 공양보시주 박수억 9월 양주, 울산 공양시주 김춘산 양주 공양시주 이림.

연화질, 광현비구 성열비구 덕진비구, 공양주, 능간비구 기민보체, 화주 학종비구, 인권대덕 혜능대사비구.

기유년에 시작하여 경술년 4월에 완성함. 강희 9년 경술 4월에 공력을 마침.

<佛輦② 底面墨書>

施主秩」蔚山供養大施主韓貴男兩主」蔚山鄭戒上兩主」蔚山許海立兩主」蔚珍南戒目兩主」蔚山愛今保体」寺內秩」智淳」太敬」道崑」海稔」法玄」敬旭」性珠」性眞」首僧卓倫」三寶思哲」化主學宗」康熙九年庚戌四月日畢」

시주질, 울산공양대시주 한귀남양주, 울산 정계상양주, 울산 허해립양주, 울진 남계목양주, 울산애령보체.

사내질, 지순, 태경, 도은, 해임, 법현, 경욱, 성주, 성진, 수승 탁륜, 삼보 사철, 화주 학종.

강희 9년 경술 4월 일 마침.

이상 명문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조련기에서 학종비구가 좋은 장인을 만나 1669년부터 1670년에 걸쳐 불연을 제작하였으며, 불연의 명칭을 ‘봉연(鳳輦)’이라 칭하고 있는 점, 그리고 봉황과 황룡장식, 명주를 싣은 지붕, 거울장식, 주렴장식 등 구체적인 불영사 불연의 조형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시주질과 연화질을 통하여 단편적이거나 시주자와 제작자 등의 성격과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연화질에 등장하는 승장들이 불영사 불패나 무주 백련사 불연의 제작과도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불교공예품의 조사, 연구가 축적된다면 진전된 연구도 기대된다.

다음으로 불영사 불연에서 주목할 수 있는 점은 바로 조형요소와 조형미이다. 먼저 <불연 1>과 <불연 2>는 조선 후기 불연 유물들 중 비교적 완형을 많이 유지하고 있는 편이며, 특히 <불연 1>은 훼손 부위가 있지만 원형을 추정하는데는 어려움이 없는 상태로 좋은 편이다. 또한 2점 모두 과학조사결과 화학염료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이 유물들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며 후

보가 있었어도 그 시기가 매우 올라간다는 것을 말해준다.

<불연 1>과 <불연 2>는 기본적인 형태와 제작수법, 청판조각과 장식무늬, 장식의 재질이나 형태 등 조형요소에 있어서 동일성을 보임에 따라 2점이 같이 조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불영사 불연 2점은 전각형의 가마로 대나무로 엮어 만든 궁륭형 지붕에 운문단을 씌우고 중앙에 연봉을 장식하였다. 몸체에는 화려한 조각과 주립으로 창을 장식하고 용두와 봉황조각으로 장식하였으며, 주철바탕에 화려한 단청으로 장식하였다.

제작 당시에는 짜임새 있는 목구조와 화려한 조각과 단청, 그리고 금색으로 번쩍이는 황동장식, 현재는 유실되어 없지만 유소 등으로 장식하여 매우 화려했을 것이다. 이는 뛰어난 솜씨를 지닌 장인과 성대한 불사를 통해 이루어진 불교목공예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울진 불영사에는 2점의 불연이 남아 있다. 지금은 두 불연 모두 불영사 성보박물관에 수장, 전시 중이나 예전에는 칠성각과 황화실에 보관하고 있었다.

불연은 궁중에서 사용되는 가마와 마찬가지로 부처의 위패나 영가의 위패를 이운할 때 사용했던 의식용 佛具이다. 불가에서 사용된 불연의 명칭 내지 용도와 관련된 기록으로 ‘鳳輦(불영사, 1670년, 실물)’, ‘金輦(청도 용천사, 1674, 실물)’, ‘中下輦(청도 운문사, 1688년, 실물)’, ‘中下壇輦(밀양 표충사, 1688년, 실물)’, ‘上輦下輦三輦(부산 범어사, 1711년, 실물)’, ‘上輦(고성 옥천사, 1754년, 실물)’, ‘上壇輦(기장 장안사, 1760년, 실물)’, ‘中壇輦(기장 장안사, 1760년, 실물)’, ‘下輦(김해 은하사, 1715년, 실물)’, ‘上位玉輦(순천 송광사, 1718년, 실물)’, ‘三輦’(1634년, 전주 송광사, 기록), ‘三壇輦(고창 선운사, 1707년, 기록)’ 등 다양하다. 봉연이나 금연같이 불연의 장엄 특징을 ‘輦名’으로 사용한 것도 있지만, 대체로 수록재 같은 儀式때 三壇勸供을 모시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남아 있는 명칭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불연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구례 천은사 불연으로, 이 불연은 1643년에 조성되었다는 목서명을 남기고 있으며 몸체와 지붕 등이 결실되어 하부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기년명 불연은 20여점 알려져 있고, 형태가 완전하면서 조성연대가 올라가는 것은 불영사 불연이다.

불영사에 유존되고 있는 두 기의 불연은 모두 같은 시기, 같은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며, 전체적인 형태와 크기는 흡사하지만 세부표현에서 약간 차이가 난다. 바닥면에 조연기가 있는 것은 본문 중에 봉연이라고 칭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편의상 이를 ‘鳳輦’으로 지칭하겠다.

불영사 불연은 하부와 몸체에 남아 있는 조연기에 의하면 化主 學宗의 노력으로

울산과 양산지역의 시주자들과 불영사 승려들이 동참하여 1670년에 제작된 것이다. 조연기에는 불연을 제작하게 되는 시절의 인연과 사연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 불연①(봉연)

우선 鳳輦은 세부표현이 치밀하고 하부부처 지붕까지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큰 결손 없이 보존상태가 비교적 온전하고, 다른 불연은 이 보다 상태가 좋지 못하며 일부 부재는 수리 교체되었다. 불연의 구성과 형태는 일반적으로 궁중의 가마와 같다. 구성은 하부와 몸체,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불영사 2기의 불연도 이와 같은 구성을 잘 따르고 있다.

우선 불연을 살펴보면, 하부에는 좌우에 나란히 긴 들채(長杠)를 나란히 놓아 손잡이 겸 몸체를 받을 수 있다. 이 長杠은 운반할 때 손잡이와 불연의 몸체를 지탱하는 받침대 역할을 한다. 들채의 끝부분 네 곳에는 용머리를 장식하였다. 긴 부재를 두고 중앙에 판재를 깔고 몸체를 만들었다. 몸체의 바닥면에는 불연의 제작과 관련된 <불영사조연기>가 남아 있다. 조연기는 세로로 먹줄을 그어 칸을 만들고 그곳에 해서체로 정갈하게 적었다.

중앙부에는 평상처럼 마루를 깔고 바닥을 만들었다. 마루의 하부에는 조성기가 묵서로 남아 있다. 바닥의 상면에는 난간과 몸체를 설치하였다. 난간은 화려한 모습인데, 우선 난간 하단의 아래쪽은 여의두문의 영락처럼 늘어뜨렸다. 하부에는 돌아가며 대롱모양의 방울을 달았다. 하부 각 면마다 5개의 계자각을 대고 그 위에 하엽동자를 설치하였으며, 예쁘게 주름 잡은 하엽은 공손히 손을 모아 돌란대를 받쳐 든 모습이다. 난간 머름판에도 구름모양의 풍혈을 뚫어 멋스럽게 처리하였다. 난간 네 모퉁이 엄지기둥 위의 난간범수로 용머리를 선택하였으며, 용이 입을 벌려 양쪽에서 돌아오는 난간대를 물고 있는 형상이다. 용은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생동감 넘쳐 조각솜씨가 우수하다. 난간의 안쪽에는 기둥을 세우고 몸체를 설치하였다. 몸체는 사방 각 1칸으로 각기둥을 사용하였다. 몸체의 표면에는 머름대와 머름동자로 결구하여, 그 사이는 머름청판을 끼워 벽체를 만들었고, 중심부는 창문을 내었다. 머름대의 표면은 크고 작은 단추모양을 반복해서 새겨 넣었고, 머름대와 머름동자의 결구는 양쪽에 국화문 머리를 가진 감잡이로 고정하였다. 벽면은 머름대와 머름동자를 이용해 내외 두 부분으로 구획하고, 문양을 새겨 넣었다. 좌우측면은 내외 2개로 구획을 나누고 내측은 국화문을, 외측은 모란문을 새겼다. 전·후 면은 좌·우 측면보다 구획이 줄어들었는데, 위쪽은 한단 아래쪽은 2단으로 구획하였다. 위쪽과 아래쪽 하단은 머름통판으로 모란꽃을 새겼고, 위쪽은 꽃잎 위에 꽃을 표현하고, 꽃과 꽃 사이는 여의모양의 고리로 연결한 모양으로 조각하였다. 아래쪽 하단의 머름통판에는 모란꽃을 새겼고, 상단은 머름동자로 다섯 면으

로 머름판을 분할하고, 각 면에는 국화꽃을 조각하였다. 좌우측은 머름판은 머름동자로 삼분하고 역시 국화문을 조각하였다.

사방 창호에는 주렴을 그물망처럼 달았다. 주렴은 오색영롱한 유리구슬을 철사에 꿰어 귀문(龜文)을 만들어 거물망처럼 촘촘히 연결하였다. 2007년도에 촬영한 사진상에는 한쪽 측면에 국화문 明鏡을 매단 것이 확인된다. 이는 목서기 중에 ‘둥그런 명월과 같은 거울이 앞뒤로 걸려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두 곳에 거울을 매단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국화문 거울 외 크기가 약간 큰 운봉문 동경이 있다. 이들 주렴은 군데군데 소실되고 끊어진 부분이 많다. <국조오례의> 중 궁대련 조에는 ‘주렴(朱簾)을 사면에 드리우고, 녹색 실[絲]로써 엮어서 귀문(龜紋)을 만들고, 가에는 녹색 저사로써 선[緣]을 두른다.’라고 되어 있다. 불영사 불연은 전반적으로 <국조오례의>에 실려 있는 내용과 형태를 대체로 잘 따르고 있지만, 주렴은 의궤와 달리 구슬을 사용하여 龜文을 만든 점이다. 부재와 부재의 이음 부위는 아령모양의 꽃머리형 감잡이 또는 세발 감잡이로 야무지게 고정하였다.

지붕은 활처럼 휘어진 들보를 중앙으로 모아 궁륭형 지붕을 이루도록 하였다. 천장은 대나무발을 촘촘히 엮어 단정하고 세련되게 뼈대를 잡고, 그 위를 운보문 비단천을 두겹 중첩해서 발랐다. 추너마루는 들보의 곡선을 따라 동판을 덧대고 네 곳에 별도로 만든 銅花을 꽃았다. 처마에도 ningkul문을 타출한 동판을 붙이고,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하며 5개의 銅花을 꽃았으나 일부는 결실하였다. 지붕의 꼭대기에는 연봉을 꽃았고, 지붕의 네 모퉁이에는 鳳頭를 꽃아 장엄하였다. 봉은 고리를 물고 있는데 이곳에 유소를 달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봉두 장식으로 인하여 鳳輦이라고 명명한 것으로 생각된다.



도 1 불영사 봉연



도 2 부분

○ 불연②(황화실)

두 번째 불연은 불영사 성복박물관으로 옮기기 전에는 황화실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鳳輦과 같은 시기에 같은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지만, 규모나 세부 의장이 봉연보다 소략하다. 세로 들 채의 한 쪽 면에만 龍頭를 장식하였고, 다른 한쪽에는 장식이 없고 가로 들채(橫杠)가 한 곳에 남아 있다. 이외 이 봉연과 마찬가지로 형태와 구조에서 거의 같지만 규모 약간 작고 세부표현에서 다소 차이가 난다. 즉 봉연의 몸체는 내·외구로 구획하여 국화와 모란문을 새겼으나 측면의 구획이 하나로 줄었다. 몸체의 상단 머름판은 여의두문으로 단청하여 마치 장막을 드리운 효과를 의도한 듯 보인다. 원래 이곳도 봉연과 마찬가지로 꽃과 꽃 사이를 여의두문 고리로 연결되도록 조각하였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의 것은 후대 수리후 단청으로 대체한 한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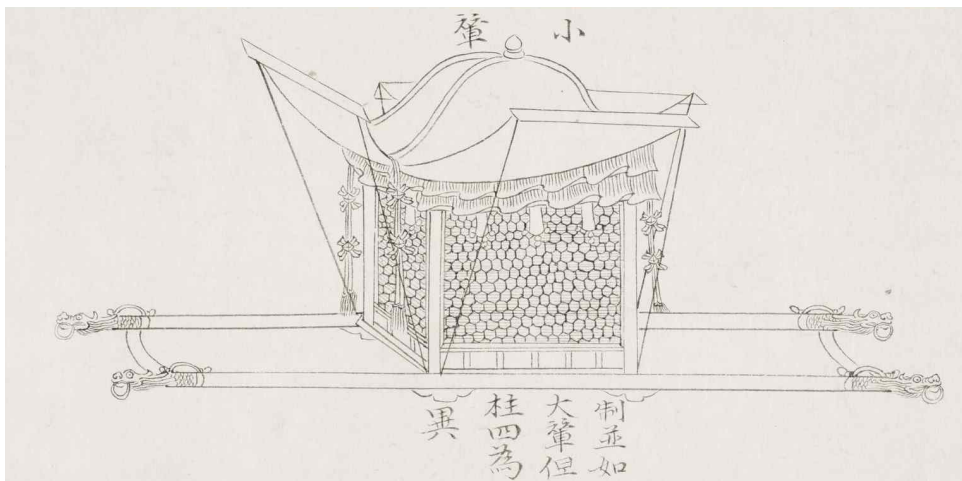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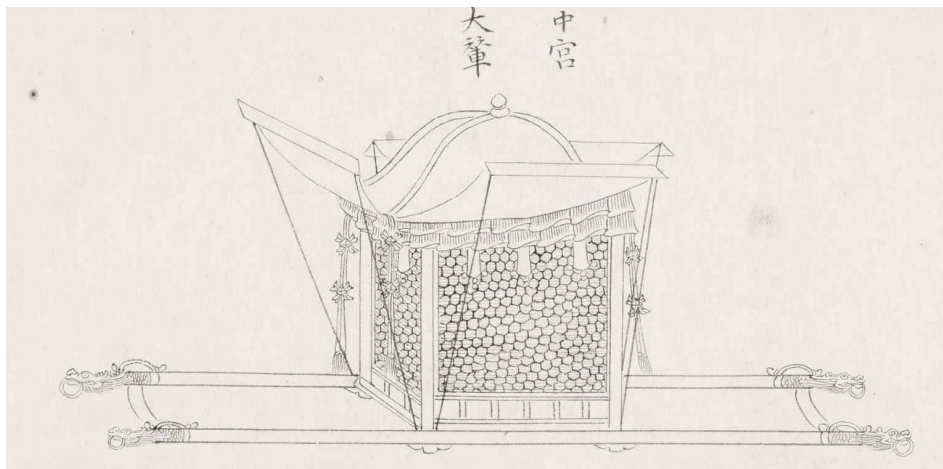
몸체의 구성은 봉연에 비해 소략하다. 앞·뒤 벽체의 구성도 정확한 대칭을 이루고 있지 않다. 후면 하부는 머름대로 상·하 2단으로 구분하고, 각각 어긋나게 머름동자로 삼분할하였다. 윗 단은 국화문을 새겨 넣었고, 아랫단은 바탕에 朱漆한 다음 황색으로 연화질을 써넣었다. 좌우측면의 하부 머름판은 통판으로 마감하고 이곳에는 구름 속을 비행하는 두 마리 용을 마주보게 조각하였다. 문 주변의 머름판에도 구름 속을 날아가는 봉황과 화려한 색감을 지닌 꽃무늬를 새겨 넣어 장엄을 극대화 하였다. 창호에는 鳳輦과 마찬가지로 주렴을 달았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남아 있는 부분이 없다. 지붕은 활처럼 휘어진 들보로 궁륭형 지붕을 이루고 있으며, 안쪽에는 대나무를 촘촘히 엮어 천장을 만들었고 위에는 종이와 비단천을 발랐다. 지붕의 꼭대기에는 궁중연의 호리병과 달리 연봉을 꽂았고, 네 모퉁이에는 봉황머리 장식을 꽂았다. 목서에는 鳳輦처럼 불연에 대한 명칭이 없지만, 봉연의 조연기와 제작배경이 같으므로 이 불연도 鳳輦으로 불렸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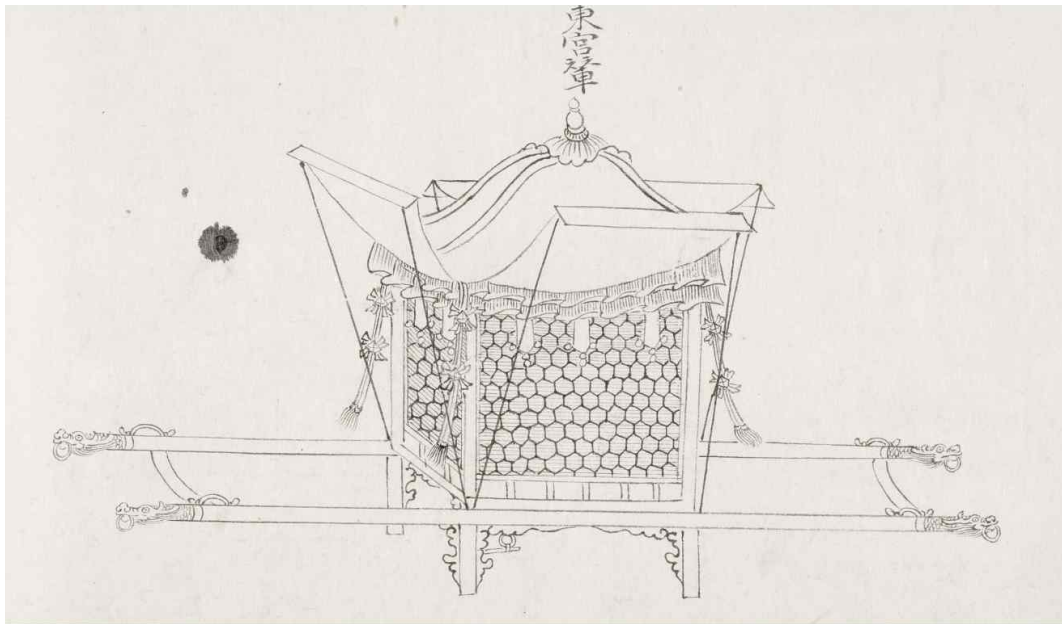


도 2 불영사 불연②(황화실 불연)

두 불연은 化主 學宗스님의 노력으로 조성된 것이다. 불연의 만든 장인은 확인되지 않지만, 통상 연화질에 증명, 화원, 화주 등 불연제작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승려들이 기재된다. 현재 봉연의 <조연기>에는 “緣化秩 廣玄比丘 性悅比丘 德眞比丘, 供養主 能簡比丘 己敏保体, 化主 學宗比丘, 引勸大德 惠能大師比丘” 순으로 기재되어 있고, 다른 불연의 머름관 朱漆黃書記에는 “緣化秩 廣玄比丘 性悅比丘 德眞比丘, 供養主 能澗比丘 小者己敏, 化主學宗比丘, 引勸大德” 순으로 동일하다. 연화질에 해당하는 승려 3인은 분명한 소임이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불교미술의 예와 같이 증명과 화원으로 구성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특히 연화질의 성열비구는 무주 백련사 불연을 만든 幸淸比丘와 나란히 등장한다. 행정은 보물 제 1239호로 지정된 <감로도>(1681년)에서는 畫員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연화질 다음에 화원이라는 소임을 표기하지 않았지만 이들은 불연을 제작한 화원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불영사 불연 寺內秩에 등장하는 惠能, 卓倫, 思撤도 <감로도>에서도 확인되기 때문에, 연화질에 등장하는 승려들은 화원일 가능성이 높다.

<세종실록 오례>에 수록된 대련. 소련, 동궁련





<佛影寺造輦記>

①

佛影寺造輦記

伏以鳳輦者修說法席之時恒沙諸佛昇
 坐來臨之宮殿也豈從然哉而况鸞鳳辮
 飛於畫欄之中黃龍玄湧於青蓮之上十二
 眞金爲璧七宝明珠爲戶金絲蛾蝶之結而
 垂、於四隅團、明月之境懸、于前後綉闌開
 而雲影臨軒瑣窓啓而日月照宮偉哉壯哉
 赫、乎也世此物成之者阿誰耶學宗禪德是也
 戊申之秋袖藏玉軸而行至慶尙道蔚山府
 也風飄雲納於萬落千村而募緣積善之家欲
 成鴻功而良工不遇空負一歲也己酉之春忽遇良
 工而向入宜春北嶺圓寂山大乘庵始成矣未斷
 功而庚戌之春以斷功而結手也可謂非人之所致乃天
 之所爲也古云天運循環無往不復誠可謂此也此非
 積德能施者也伏願造輦之後鬼神攸護龍天守伏
 三灾五害絕歷而入不六時天樂繽紛而自來重暉
 佛日再振禪風云
 慶尙道梁山地 供養布施大施主 朴守億
 施主秩
 九月 兩主

蔚山地 供養施主 金春山兩主 供養施主 李林」

緣化秩 廣玄比丘 性悅比丘 德眞比丘 供養主」

能簡比丘 己敏保休 化主 學宗比丘」

引勸大德 惠能大師比丘」

己酉年爲始庚戌年四月畢造」

②

康熙九年庚戌四月畢功

삼가 鳳輦이라 하는 것은 범회를 여는 때에 수많은 부처들이 올라앉아 궁전으로
來臨하던 것이다. 그러나 어찌 한갓 그러한 것이기만 하랴! 향차 鸞鳳이 꿈틀대면
난간 중에 날아오르고, 황룡이 용솟음치며 靑蓮 위로 솟아오르며, 十二眞金으로
벽을 장식하고, 칠보명주로 지붕을 엮고, 금사가 불나방이 영긴 듯 네모서리 치렁
치렁하고 둥그런 명월과 같은 거울이 앞뒤로 걸려 있으며, 수놓은 작은 문을 열면
雲影이 누각에 내리고, 작은 보석으로 장식한 창을 열면 일월이 궁전을 비추는 것
같음이라. 위대하고 장함이요, 찬연히 빛남이로다. 세상에 이 물건을 만든 자가 누
구인가. 學宗禪德이 바로 이것이로다. 무신년(1668, 현종9) 가을에 소매 속에 玉軸
을 갈무리하고 길을 떠나 경상도 울산부에 이르렀다. 온갖 마을에 바람이 거세고
구름이 젖어들거늘 積善之家의 善緣을 맺게 하고, 鴻功을 이루고자 하였지만 좋은
장인을 만나지 못해 한 세월을 그냥 보냈다. 기유년(1669) 봄에 마침 춘복령 원적사
대승암으로 들어가던 때에 마침 홀연히 좋은 장인을 만나게 되었으니 공업을 결
정하지 못하다가 경술년(1670) 봄에 비로소 손을 놓게 되었다. 이는 가히 사람의
소치가 아니라 하늘이 하는 바라, 옛날에 이르기를 大運이 도와 두루 미치지 못하
면 정성만 거듭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엿드려 원하건대 輦을 만든 후에
귀신이 용을 호위하여 하늘에서 지키고, 三災와 五害가 모두 끊어져 들어오지 못
하여, 六時와 天樂이 무성하게 절로 來臨하여 佛日이 거듭 빛나고, 禪風이 다시
떨치게 하소서!

시주질(이하 생략)

기유년(1669, 현종 10)에 시작하여 경술년(1670) 4월에 완성하였다.

강희 9년 경술 4월에 공력을 마쳤다. (최응천, 「불영사 소장 불연과 불전패에 관한 고찰」, 『강좌미술사』 48,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17, pp-252-253 재인용)

불연②

바닥묵서

施主秩

蔚山供養大施主韓貴男兩主

蔚山 鄭戒上兩主

蔚山 許海立兩主

蔚珍南 戒目兩主

蔚山 愛今保体

寺内秩

智淳

太敬

道豈

海稔

法玄

敬旭

性珠

性眞

首僧 卓倫

三宝 思哲

化主 學宗

康熙九年庚戌四月日畢

명문 ②(몸체 머름판 명문) 붉은 바탕에 황색 글씨로 썼다.

千鷲山佛

影寺奉輦

施主秩

慶尙道

梁山地供

養布施

大施主

朴守億

女九月 兩主

蔚山地供養

大施主金春山

兩主

供養施主李林
緣化秩
廣玄比丘
性悅比丘
德眞比丘
供養主
能潤比丘
小者己敏
化主學宗比丘
引勸大德
惠能大師
己酉年爲始
庚戌四月畢

○ 참고문헌

- 심현용, 「佛影寺 佛輦」, 『미술자료』 72·73, 국립중앙박물관, 2005. 12.
김순아, 「울진 불영사 불연 고찰」, 『蔚珍史香』 2, 울진향토문화연구회, 2009
최응천, 「佛影寺 소장 佛輦과 佛殿牌에 대한 고찰」, 『강좌미술사』 48, 한국불교 미술사학회, 2017
林昭延(如瑞), 「朝鮮 後期 佛輦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20.



○ 현 상

<불연 1>은 목재결구 된 가마형태로 가마채까지 온전하나, 유소 등 장식은 대부분 유실되었고, 주립 장식이 일부만 남아 있음.(<불연 1>의 경우, 몸체 앞면창을 제외한 3면 창에 주립장식이 각각 일부가 남아 있으며, <불연 2>는 몸체 뒷면창에 주립장식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음) 지붕 표면에 천이 박락되었고, 본래 4개였던 봉황조각도 일부가 소실된 상태이나, 전체 형태를 온전히 갖추고 있고 바닥 면에 제작배경과, 제작자, 제작시기를 명시한 명문이 명확히 남아 있음. 주립부분에 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동경 1개가 전하고 있음. 가마 몸체에는 국화문을 비롯하여 화려한 조각과 채색이 되어 있음.

<불연 2>는 <불연 1>과 거의 같은 형식이나, 규모나 장식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불연 2> 역시 박락이나, 유실된 부분도 보이나 전체 형태를 비교적 온전히 갖추고 있으며, 가마 몸체 뒷면 머름청판과 바닥 면에 또렷하게 제작자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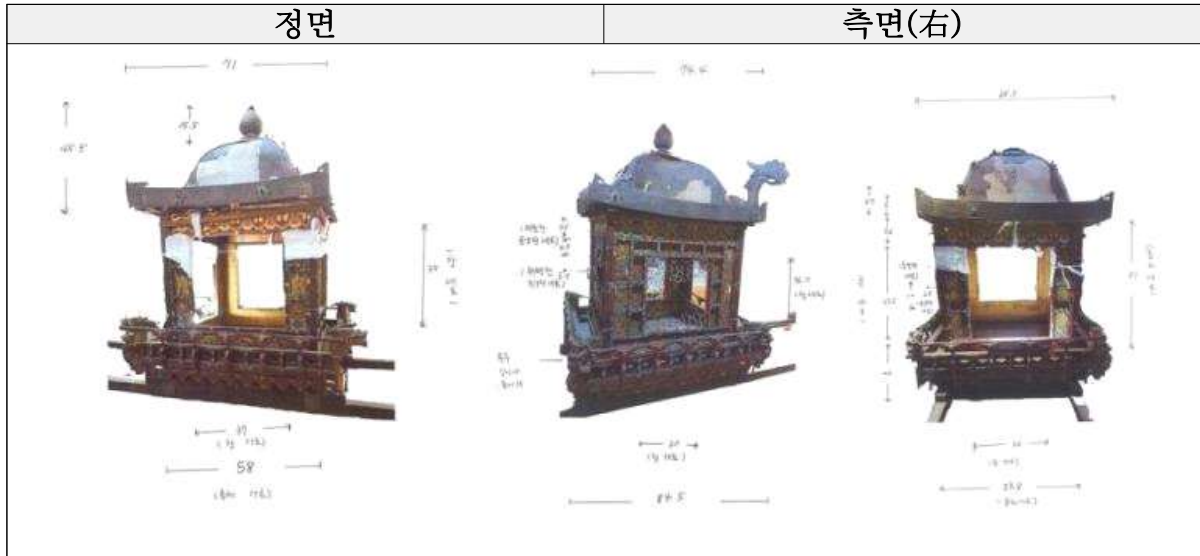
제작시기를 나타내는 명문이 남아 있음. 가마몸체에는 국화문 외에 용문과 봉황문 등 다양한 문양이 조각되고 채색되어 있음.

<불연 1>, <불연 2> 모두 같은 제작연도 1670년의 명문이 남아 있으며, 제작 당시의 모습을 비교적 온전하게 갖추고 있는 예임.

<불연 1>

정면	측면(右)
	
<p>(세부 치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뒷면 창크기: 37(가로) 31.5(세로)/ 주림 구멍크기(3x3) ② 가마몸체 앞면폭: 63 측면폭: 64/ 가마몸체의 쇠목과 동자주: 1.2 ③ 가마몸체 기둥: 2.4x2.4 ④ 가마채 용두: 길이 17/ 높이 8.8, 가마 난간 용두: 길이 10/ 높이 13 ⑤ 가마채(모죽임함): 총길이-297 너비-4.2(끝부분 10cm가량은 너비가 2.5로 줄어들음) 두께 4.5 	
	<p>좌측면 주림에 달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동경 (지름 14-15cm)</p>

<불연 2>



(세부 치수)

- ① 뒷면 창크기: 34.3(가로) 31.9(세로)
- ② 가마몸체의 앞면폭: 53.8 측면폭 : 58 / 가마몸체의 쇠목과 동자주: 1.0
- ③ 가마몸체 기둥: 2.3x2.3
- ④ 가마채 용두: 길이 16.5/ 높이 4
- ⑤ 가마채(모죽임함): 총길이-301



○ 내용 및 특징

1. <불연 1>과 <불연 2>는 같은 시기에 한 세트의 제작된 것으로 판단됨.
 - 1) 가마 두 채에 모두 1670년 제작의 명문이 남아 있음.
 - 2) 형태와 제작 수법, 장식이 흡사함.
 - ① 2점 모두 지붕, 몸체, 난간과 가마채의 3부분으로 분리되는 구조임.
 - ② ‘가마 몸체’와 ‘난간과 가마채’의 연결부분 혹은 난간의 연꽃장식 결구 등 육안으로 확인된 부분의 결구방법이 같음.
 - ③ 금속장식은 주석이나 황동 등으로 만들어졌으며, 2점 가마에 사용된 금속 장식 형태가 같음. 예를 들어, 난간에 연꽃장식을 고정한 주석으로 만들어진 감잡이의 경우를 보면, 가마 2점 모두 같은 형태에 7.2cm 길이로 통일되어 있어, 같은 시기에 제작되었음을 추정 할 수 있음.
 - ④ 지붕도 2점 모두 대나무를 엮어 궁륭형으로 만들고, 그 위에 종이와 천으로 발랐음.
2. <불연 1>과 <불연 2>의 형태는 매우 흡사하나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는데,

아직 명확한 연구 결과는 없으나, 이것은 시련의식에서 각 가마의 용도 차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


- 1) 높이와 폭등의 치수가 <불연 1>이 <불연 2>와 비교하여, 10cm 내외의 차이를 보임. 세부적인 치수에서도 쇠목과 동자주가 <불연 1>은 1.2cm로 통일되어 있고, <불연 2>는 1.0cm 정도로 통일되어 있음. 무게는 <불연 1>이 34.10kg이고, <불연 2>는 30kg임.
 - 2) <불연 1>은 가마 몸체 전체를 양각으로 장식하였는데, <불연 2>는 가마 몸체의 문양대 중, 맨 위 머름 청판은 양각 조각이 아니고 그림으로만 그려져 있음. 특히 이 그림으로 장식된 머름청판 안쪽부분을 보면, 다른 부분들과 다르게, 천이 발라 있지 않아서, 그림으로 장식된 머름청판은 後輔되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으나, 과학조사를 통해 화학염료는 전혀 발견되지 않아 후보되었다 하더라도 오래전에 된 것으로 보임.
 - 3) <불연 1>은 대나무로 엮은 지붕에 종이를 붙이고, ‘운문황색직물’ 3겹을 겹쳐 붙임. <불연 2>는 종이에 무문의 직물 1겹을 덧붙임
3. 가마 몸체의 세부 치수를 규격화하였고 조각과 금속의 장식성을 살려, 단정하면서도 화려한, 완성도 높은 목조공예품임.
- 1) <불연 1>의 가마몸체 세부 치수를 보면, 기둥은 2.4/ 쇠목과 동자주는 모두 1.2/ 국화문양 구획부분은 앞면과 뒷면은 6.5x 10으로, 양 측면은 5.5x10 으로 규격화 되어 있음. <불연 2>는 <불연 1>보다 각 사이즈가 약간 작고 세부 치수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확인되나, 거의 규격화된 치수로 각 부위를 제작하였음.
 - 2) 상부의 금속판 등은 구리와 아연이 섞인 황동으로 제작하였음. 그리고 가마 몸체 부분 결구 구조에 사용된 꽃문 세발장식이나, 난간에 부착된 감잡이는 모두 주석으로만 만들어져 현재 결실되거나 끊어진 경우가 많지만, 제작 당시에 황동과 주석의 금속장식은 금과은 색으로 빛나 채색장식과 어우러져 매우 화려한 외관을 지녔을 것임. 그 외 경첩이나 못, 가마몸체가 얹혀 고정되는 부위 등 단단한 결구가 필요한 부분에는 철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제작되었음.

<세부 사진>

세부	불연 1	불연 2
<p>지붕 뒤에 바른 겹(불연 1)에 쿠늬가 있는 '문풍의 직물'이 확인됨)</p>		
<p>가마 지붕 내부</p>		
<p>가마 문체 장식(〈불연 1〉은 꽃문위주이며, 〈불연 2〉는 용 문문 등 다양함)</p>		
<p>난간 결구부분 (난간 연꽃문조각은 넓은 속으로 난간에 통치음한 결구인데, 불연 1,2 모두 같은 구조방법 임)</p>		

○ 문헌자료

<명문 사진>

	불언 1	불언 2
바닥면		
가마솥재		

<佛輦 ① 底面墨書>

佛影寺造輦記「伏以鳳輦者修說法席之時恒沙諸佛昇」坐來臨之宮殿也豈徒然哉而況鸞鳳辯」飛於盡欄之中黃龍玄湧於青蓮之上十二」眞金爲壁七宝明珠爲戶金絲蛾蝶之結而」垂」於四隅團」明月之鏡懸」于前後綉闌開」而雲影臨軒瑱窓啓而日月照宮偉哉壯哉」赫」乎也世此物成之者阿誰耶學宗禪德是也」戊申之秋袖藏玉軸而行至慶尙道蔚山府」也風飄雲衲於萬落千村而募緣積善之家欲」成鴻功而良工不遇空負一歲也己酉之春忽遇良」工而向入宜春北嶺圓寂山大乘庵始成矣未斷」功而庚戌之春以斷功而結手也可謂非人之所致乃天」之所爲也古云天運循環無往不復誠可謂此也此非」積德能施者也伏願造輦之後鬼神攸護龍天守伏」三灾五害絕歷而入不六時天樂繽紛而自來重暉」佛日再振禪風云 施主秩 慶尙道梁山地 供養布施主朴守億 九月 兩主 蔚山地 供養施主金春山兩主 供養施主李林 緣化秩 廣玄比丘性悅比丘德眞比丘 供養主 能蘭比丘己敏保体 化主學宗比丘 引勸大德惠能大師比丘 己酉年爲始庚戌年四月畢造 康熙九年庚戌四月畢功」

<佛輦② 底面墨書>

施主秩」蔚山供養大施主韓貴男兩主」蔚山鄭戒上兩主」蔚山許海立兩主」蔚珍南戒目兩主」蔚山 愛今保体」寺內秩」智淳」太敬」道豈」海稔」法玄」敬旭」性珠」性眞」首僧卓倫」三寶思哲」化主學宗」康熙九年庚戌四月日畢」

* 이상의 명문 내용 해석은 심현용, 「불영사 불연」, 『미술자료』, 72·73호(국립중앙박물관 2005) 참조.

추가) <불연 2>의 뒷면 머름 청판에는 <불연 1>에서 보았던 연화질을, 붉은색 바탕 위에 금색선을 구획하고, 그 안에 금색의 글씨로 적었다. 연화질의 ‘성열비구(性悅比丘)’의 이름이 2점 가마에서 모두 보이는데, 성열비구는 1686년 백련사의 불연 제작에도 참여한 인물로 주목되는 이름이다.

□

○ 형 식

불연①②는 같은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규모와 투각장식에서 격을 달리한 점을 참조할 때 불연①은 상단용, 불연②는 중단용이라 추정된다. 2점 모두 받침대·몸체·지붕의 세 부분을 분리·조립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받침대는 누각 형태로 만들어 그 위에 몸체를 얹으면 자연스럽게 난간이 형성되는 구조를 갖추었고, 받침대에서 이어지는 긴 가마채를 앞뒤로 2개씩 두었다. 몸체는 정사각형에 가까운 형태로 사방에 큰 창이 나 있으며, 지붕은 둥글게 반원을 이루었다.

○ 조성연대

불연의 받침대인 연대(輦帶) 아래에, 붉은색 바탕에 묵서로 각각 조연기(造輦記)와 시주질·연화질 등을 써놓았다. 불연①에는 ‘己酉年爲始庚戌年四月畢造 康熙九年庚戌四月畢功(기유년에 시작하여 경술년 4월에 완성함. 강희 9년 경술 4월에 공력을 마침), 불연②에는 ‘康熙九年庚戌四月畢’이라 쓰여 있어, 두 점 모두 강희 9년인 1670년(현종 11)에 조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현 상

2점의 불연은 기본적인 구성과 재질 등이 동일하다. 몸체와 받침대의 외부 면은 모두 바탕을 붉은색으로 칠하였다. 몸체의 바닥은 3개의 널빤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4면의 벽체 각 연결부위에는 국화문양의 ‘가’자 장식으로 장식하였다.

【 불연① 】 · 받침대 : 몸체를 얹어 들고 갈 수 있도록 만든 받침대는 사각의 누각 형태이며, 앞뒤로 가마채가 연결되어 있다. 가마채 4개의 끝에는 여의주를

문 용두(龍頭)가 조각되어 있으며 모두 입을 벌린 모습이다. 난간에는 사면을 돌아다니며 연꽃으로 장식하고 장식으로 고정하였다. 난간의 사방 모서리에도 바깥을 향한 용두를 조각했는데, 입 안쪽으로 난간의 돌란대를 깊숙이 물고 있는 모습이다. 용두 아래에는 둥근 보주와 구름장식이 조각되어 보주가 용두를 받치고 있는 형국이다. 받침대 밑면에는 묵서로 24행의 조련기(造輦記)와 시주질·연화질을 기록하였다.

▪ 몸체 : 4면의 벽에 모두 큰 창이 나 있으며, 벽체에는 연화문·국화문 등 화문장식을 양각·음각으로 새기고 채색하였다. 특히 양 측면 벽체에는 문양판을 끼워 여러 겹의 장식효과를 주었다. 후면의 경우 아랫단을 더 높게 만들어 다른 3면에 비해 좀 더 폐쇄적으로 구성하였다. 양 측면과 후면의 창에는 얇은 철사에 청색·흰색 구슬을 끼워 육각형으로 만든 그물망을 치고, 전면 창은 봉안대상의 출입을 위해 비워두었다. 양 측면의 그물 중앙에는 원형의 동경(銅鏡, 지름 14.9cm)을 달았는데, 현재는 한쪽만 남아 있다. 거울에는 작은 산화문(散花文)이 새겨져 있다. 몸체의 벽체 안에는 종이를 덧대어 붙였다.

▪ 지붕 : 지붕 받침대의 네 모서리에서 꼭대기로 이어지는 곡선의 틀을 짠 다음, 가는 대나무로 촘촘하게 그물처럼 엮어 둥근 골격을 이루게 하였다. 대나무 위에 종이를 바르고 녹색비단을 씌웠으며, 그 위를 띠 모양의 주석으로 사방을 단단하게 고정한 뒤 꽃모양 장식으로 장식했다. 지붕 아래쪽 받침대에는 금속대를 두르고 연 넝쿨문을 새겼다. 지붕 네 모서리에는 봉황머리를 끼웠는데 봉황머리 3개가 남아 있으며, 봉황의 턱 밑에는 작은 쇠고리를 달아 장식하였다. 지붕 꼭대기에는 붉은색의 연봉을 세웠고, 황색 복련 받침에 끼워 고정된 모습이다. 지붕의 비단은 일부 찢어진 상태이다.

【 불연② 】 불연①과 기본구조는 동일하므로 차이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받침대 : 가마채 끝의 용두는 앞쪽 2개에만 있으며, 난간 모서리에 있는 용두 아래를 받친 보주는 윗면이 잘린 반원 모양으로 조각되어 있다. 받침대 밑면에는 묵서로 19행의 시주질이 기록되어 있다.

▪ 몸체 : 벽체 문양에는 화문·새와 함께 황룡과 봉황을 조각하고 채색했으며, 좌우 창의 그물망은 없어진 상태이다. 몸체 앞면의 아래쪽에도 주칠 바탕에 금선을 긋고 받침대 밑면의 내용과 동일한 시주질을 적었다. 조립과 해체를 염두에 두고 안쪽 윗면에 묵서로 '中友, 中左' 등의 명문을 남겨 앞뒤를 구분하게 하였다. 한편, 불영사 정보관에는 사중에 전하는 또 다른 동경이 보관되어 있다. 이는 불

연①의 것보다 크기가 작아 불연①의 반대편 창에 건 거울이라기보다는, 불연②에 부착된 동경일 가능성이 크다. 이 거울에는 운봉문(雲鳳文)이 새겨져 있다.

▪ 지붕 : 지붕을 형성하고 만드는 방식은 불연①과 동일하며 꼭대기에도 똑같은 연봉을 금색 복련 위에 세웠다. 네 모서리에 꽃아 장식하는 봉황장식은 1개만 남아있는데, 불연①보다 크기가 훨씬 작고 모양도 다르다.

⇒ 이처럼 두 불연을 함께 조성하면서 격을 달리한 점으로 보아 불연①은 상단 불연, 불연②는 중단불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두 불연의 눈에 띄는 차이점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규모 : 불연①이 불연②보다 높이 약 6.5cm, 총길이 약 8cm 정도로 더 크다. 난간의 폭은 같다.

- 조각장식 : 불연①은 4개의 가마채 끝에 여의주를 문 용두를 조각했고, 지붕 네 모서리에 큰 봉황머리를 조각했다. 이에 비해 불연②는 가마채의 앞쪽 2개만 용두를 조각했고, 지붕 네 모서리의 봉황머리는 훨씬 작고 모양도 다르다.

- 투각장식 : 불연①은 몸체 좌우 벽에 문양판을 끼워 장식 면을 많이 확보했으며, 불연②에 비해 장식이 좀 더 많고 섬세한 아름다움을 지녔다. 문양구성으로는 불연①은 화문장식이 주를 이루고, 불연②는 화문과 함께 용문·봉황문이 투각되었다.

- 하단명문 : 불연①에는 조련기와 시주질·연화질을 함께 써놓았고, 불연②에는 시주질만 써놓았다.

○ 내용 및 특징

불교의 연(輦)은 야외에서 의식을 설행할 때 봉안대상을 옮기는 이동수단이다. 따라서 '연(輦)에 모신다[侍]'는 뜻으로 이를 '시련(侍輦)'이라 부른다. 수륙재·영산재 등 야외에 단을 설치하고 대형 재회(齋會)를 치를 때 증명을 위한 불보살, 옹호와 정화를 위한 성중(聖衆), 천도의 대상인 영가 등을 모시는 절차에서 다양한 시련이 따르게 된다. 이때 연에 모시는 대상은 주로 해당존재를 나타내는 위패나 상징물이다.

시련은 불상·괘불·가사(袈裟)·법사(法師)·경함·시주(施主)·금은전 등을 특정장소로 옮기는 이운(移運) 의식과도 성격을 같이한다. 봉안대상과 의식목적에 따라 의문(儀文)은 조금씩 달라지지만, 연을 사용하여 이운하는 점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연은 천도재뿐만 아니라 개산대재·봉축법회·정대불사·가사불사·예수재 등 다양한 성격의 대규모 법회에서, 의식의 성립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의식구로 사용되어왔다.

봉안대상을 옮기는 행렬은 연을 중심으로 앞뒤좌우에 다양한 의식구를 배치하고, 의식을 실행하는 모든 승려와 신도들이 행렬에 동참하여 장엄한 위용을 갖추게 된다. 시련의 행렬체계는 왕실행렬과 유사하고, 행렬에 따르는 의식구 또한 왕실 의장법식의 여러 요소를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왕실과 사찰간의 긴밀한 관계 속에 조선 중후기 불연과 시련행렬이 정립되어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1565년(명종 20) 회암사 수록재에 대해 실록에는 ‘마치 임금행차와 같다’고 기록해, 불전패를 연에 모셔 이운하는 절차가 법왕의 도량 강림을 상징하듯 장엄하게 거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시련에 따르는 의식구는 오방불번 · 인로왕보살번 · 사명기 등과 함께, 의식을 널리 알리고 행렬을 옹호하는 순시기(巡視旗) · 청도기(淸道旗) · 영기(令旗) · 청룡기 · 현무기 등의 깃발, 천원(天圓) · 지방(地方) · 고당(鼓幢) · 봉선(鳳扇) · 일월선 · 용두 · 봉두 등 불보살의 위용을 드러내는 길상 장엄물, 금부(金斧) · 절부(節斧) · 삼지창 · 운두창 등 도량(道場)을 외호하는 벽사 장엄물을 든 대중이 법식에 맞는 위치에서 행렬을 이룬다. 각각의 상징성을 지닌 채 사찰에 전승되어오는 이들 기물 또한 행렬에서 그 본래의 의미를 발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불연은 주요 봉안대상을 이운하는 의식의 핵심요소일 뿐만 아니라, 장엄한 시련행렬로써 공동체의 환희로움과 축제성을 체감케 하는 주요역할을 맡아왔다. 특히 시련은 수록재의 핵심의식으로, 중국의 수록재가 상당 · 하당의 이단구조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초기부터 상 · 중 · 하단의 독자적 삼단구조를 갖추어, 이를 연의 구성에도 적용하였다. 조선시대 승려 지환(智還)이 엮은 『천지명양수록재의범음산보집(1723년)』의 「상중하삼단시련위의지도(上中下三壇侍輦威儀之圖)」에는 이러한 특성이 잘 나타나 있다. 따라서 봉안대상을 옮길 때도 각단에 모시기 위한 3개의 연을 지향했으며, 3개를 갖추지 못할 경우 영가위패는 뒤를 따르는 방식 등으로 의식을 치렀다.

불영사 불연은 상단 · 하단 연을 함께 조성해 각단 연에 대한 수요가 많았던 17세기의 경향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 무렵은 전란과 자연재해 등으로 사회적 · 경제적 혼란이 가중됨에 따라 종교의 힘으로 이를 극복하고자 수록재 등 천도재가 성행하고 의식집이 집중 간행되었다. 불영사 불연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조성되어, 당시 불영사에 대형 재회가 활발하게 실행되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불연①에 묵서로 적은 조련기에는 불연을 완성한 뒤 그 형용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여기서 연의 명칭을 ‘봉련(鳳輦)’이라 하고, 이는 “법회를 열 때 수많은 부처

들이 올라앉아 궁전으로 내임하기 때문”이라 적어 불연의 용도를 밝혔다. 불연에 대한 기록은 실록·의식문·문집 등에 소수 전하며, 명칭은 ‘불연’과 함께 ‘鳳輦·金輦·寶輦·玉輦’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그 가운데 ‘鳳輦’이라는 표현은 지금까지 불영사 불연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것으로, 이는 불연의 지붕 모서리에 꽂힌 봉두 장식과 관련된 것이자, 고대로부터 제왕이 타던 연의 명칭이기도 하여 격을 높이는 표현이라 하겠다.

조련기에는 불연의 형상을 표현하면서, “항차 난봉(鸞鳳)이 꿈틀대며 난간 중앙에 날아오르고, 황룡이 용솨음치며 청련 위로 솨아오르며, 십이진금으로 벽을 장식하고, 칠보명주로 지붕을 엮고, 둥그런 명월과 같은 거울이 앞뒤로 걸려 있으며, 수놓은 작은 문을 열면 운영(雲影)이 누각에 내리고, 작은 보석으로 장식한 창을 열면 일월이 궁전을 비추는 것 같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해 『침필집(1695년)』에는 동리산 대홍사에 새로 조성한 보련(寶輦)의 형용을 “앞뒤에서 용이 호위하고, 좌우에는 봉황이 날갯짓하며, 비단으로 하늘을 삼고, 구슬로 장막을 삼는다”고 묘사하였다. 이는 불영사 불연의 모습과 흡사하여, 불연 장엄의 정형성을 알기 힘든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자료라 할 수 있다. 1670년에 조성된 불영사 ‘불연’과 25년 뒤에 조성된 대홍사 ‘보련’의 장엄이 유사한 점을 참조할 때, 불영사 불연은 조선 중후기 불연의 장엄요소를 고증해주는 대표적인 자료라 판단된다.

특히 양 몸체의 걸려 있는 동경이 주목된다. 17세기에 조성된 불연 가운데, 조성당시 동경을 부착한 기록과 실제 불연에 걸린 동경이 함께 전하는 유일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불연에 동경을 부착하는 사례는 희귀한 경우로, 거울과 불연의 관계 및 용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는 거울이 보편적으로 지닌 권위와 신성성뿐만 아니라, 여래의 가르침인 광명을 나타내고, 불교의 자기성찰과 관련된 상징성 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불연에 목서로 기록한 조련기와 시주질·모연질 등에는 제작동기와 함께 공역에 동참한 시주자, 승려 등을 낱낱이 밝혀져 있다. 이는 당시 불교공예 제작장인의 활동범위와 특성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고, 불영사와 상당한 거리에 있는 울산지역 거주자들의 참여 등 시주자의 양상도 아울러 살필 수 있다.

○ 문헌자료

불연의 받침대 아래 목서로 적은 조련기·시주질·연화질이 불연의 조성내력과 인적구성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자료이다. 불연에 대해 기록한 사증의 별도자료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 외의 주목할 만한 자료로 『佛國寺誌』에 수록된 「天竺山佛影寺始創記」에 불연 조성과 관련된 기록이 적혀 있다. 이에 따르면 불영사에서는 1616년에 상중단연(上中壇輦)을 조성한 이후, 1670년에 다시 상중단연을 조성했다고 기록하였다. 불영사는 임진왜란으로 전각이 소실된 뒤 1609년에 중건불사를 마쳤으니, 몇 년 후 불연 2점 등 의식구도 갖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어떤 연유에서인지 1616년에 조성한 연이 없어지고, 54년 만에 다시 조성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불영사 불연과 관련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심현용, 「불영사 불연」, 『미술자료』 72 · 73, 국립중앙박물관, 2005.

최응천, 「불영사 소장 불연과 불전패에 관한 고찰」, 『강좌미술사』 48,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17.

임소연(여서), 「조선후기 불연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논문, 2020.

○ 기 타(소장경위 등)

1990년대까지 불영사에는 1점의 불연(불연②)만 소장된 것으로 알려졌으나(박찬수, 『불교목공예』, 대원사, 1990에 최초 수록), 2001년 10월 울진군에서 불영사 소장유물을 조사하던 중 또 다른 불연(불연①)이 있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대한 내용이 2005년 학술지에 소개되었고(심현용, 「불영사 불연」, 『미술자료』 72 · 73호, 국립중앙박물관), 이후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07년 1월에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97호로 지정되었다. 아울러 이때까지 불연②의 경우 연대 바닥에만 시주질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2008년 이후 몸체 앞면의 아래쪽에도 금니로 선을 긋고 동일한 내용을 기록했음이 확인되었다.

4. 송시열 초상(宋時烈 肖像)

가. 심의사항

‘송시열 초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송시열 초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8.12.14)이 있어 관계 전문가 조사(’20.8.25./9.25./10.22.) 및 과학조사(’20.9.25.)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 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2021년도 본 위원회 제2차 회의(’21.4.8)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21.4.28.~’21.5.28.)하고, 보물 지정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32호(2012.7.6.지정)
- 명 칭 : 송시열 초상(宋時烈 肖像)
- 소유자(관리자) : 안동권씨 문순공파 종중(제천의림지 역사박물관)
- 소재지 :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47길 7, 제천의림지 역사박물관
- 수 량 : 1축
- 규 격 : 전체 164.5×74.8cm, 화면 90.9×61.9cm
- 재 질 : 비단에 채색
- 형 식 : 족자
- 조성연대 : 18세기 전반



<송시열 초상>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 <송시열 초상>은 조선시대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송시열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후대 송시열 추앙의 양상을 잘 알려주는 중요한 작품이다.
- 현재 30점 가까이 남아 전하는 송시열 초상화 중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회화적 완성도가 높으며, 김창업 초본 계열을 대표하는 작품이다.
- 송시열의 초상화로는 국보 제239호로 지정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과 함께 가장 주목되는 작품이다.
-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 안동권씨 문순공파 종중 소유의 송시열 초상은 김진규(金鎭圭, 1658~1716)가 그린 사방건 초본 계열의 초상으로,
- 송시열이 입고 있는 현단 상의의 색상이 송시열이 제시한 복제와 일치하지는 않아 후대에 그려진 것으로 보임.

- 초상의 상태나 장황 등의 상태가 좋아 보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지정 가치 있음)

1. 송시열(宋時烈, 1607-1689) 야복본 초상화 중에서 황강영당본은 회색 사방건과 회색 심의로 단호하면서도 강건한 이미지를 강조한 반면, 국보 제239호 국립중앙박물관본이 검은색 복건과 흰색 심의로 문인의 검박한 이미지를 표상하는 차별화된 면모를 보여준다.
2. 74세의 송시열을 그린 황강영당본은 국립청주박물관에 기탁된 김진규의 초본을, 국보 제239호 국립중앙박물관본은 김창업의 초본을 밑그림으로 한 것으로 추정되며, 송시열 야복본 초상화가 두 가지 유형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회화적 표현기법도 뛰어난 수작(秀作)에 해당된다.
3. 황강영당본 위에 찬문을 적은 권상하 제자 채지홍은 1741년 사망하였고, 화면 구도나 표현기법에서 친연성을 보이는 삼성미술관 리움본을 그린 화원 진재해의 ‘부호군(副護軍)’ 재임시기는 숙종 어진을 그린 1713년부터 1718년 12월까지이므로 18세기 전반에 그려진 또 다른 유형의 야복본 사대부 초상화로서 보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 (지정 가치 있음)

- 현재 제천시에 위탁된 <송시열 초상> (이하 황강영당 정본)은 방건의 심의를 갖춘 송시열의 모습을 그린 야복 초상이다. 작품 상단에는 “우암 송선생 칠십사세진(尤庵宋先生七十四歲眞)”라는 화제가 전서체로 적혀 있다. 화면 우측에는 송시열의 초상을 김창업이 그렸음을 밝힌 김창협(金昌協)의 화상찬이 해서체로 적혀 있다. 화면 좌측에는 권상하(權尙夏, 1641-1721)가 짓고 권상하의 제자 채지홍(蔡之洪, 1683-1741)이 필사한 화상찬이 해서체로 적혀 있다. 이로써 이 작품이 1680년에 23세의 김창업이 74세의 송시열을 그린 초상과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황강영당 정본의 제작 시기 및 작가를 추정하기 위해 양식적으로 유사한 진재해 필 <송시열 초상>(삼성미술관 리움)과 비교하였다. 리움 정본의 우측에는 “후학안동김창업 부호군진재해모(後學安東金昌業 副護軍 秦再奚摹)”라는 화제가 적혀 있다. 여러 경로를 통해 황강영당 정본의 작가 역시 진재해이며, 제작 시기는 진재해가 부호군(副護軍)에 제수된 1713-1718년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즉 23세의 김창업이 그린 74세의 송시열 초상을 범본으로 황강영당 정본과 리움 정본이 동시에 제작된 것이다.

- 황강영당 정본의 송시열은 생전에 고관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관복을 갖춘 권위 있는 관료가 아닌, 심의(深衣)에 방건을 갖춘 청정한 유학자로 표현되었다. 주자를 존중한 산림(山林)의 영수이자 주자학의 대가로서 후손에게 영향을 끼친 학자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따라서 송시열 초상은 주자를 추종하는 학문적 성향과 그 권위를 드러내는 표상이자, 17세기 후반-20세기까지 전개된 야복 초상의 시작점이다.
- 송시열 초상은 후학들에게 주자의 학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도통지상(道統之像)이자 17세기 후반 노론의 학문적 계보를 알려주는 시각물이다. 특히 황강영당 정본에서 발견되는 탄력과 기운을 겸비한 필선, 그윽하지만 맑은 채색법, 간결하면서도 강인한 느낌을 선사하는 구도는 송시열의 깊은 학문 세계와 정신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이는 정조의 어제시가 쓰인 국보 제239호의 <송시열 초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과 더불어 초상화의 기본 개념인 전신사조(傳神寫照)가 발현된 송시열 초상의 수작이다. 이렇듯 황강영당 정본은 국가 보물 문화재로 지정하기에 충분한 작품이라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안동권씨 문순공파 종중 소장 <송시열 초상>은 조선후기의 정계와 학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평가되는 송시열의 모습이 재현된 그림이라는 점 외에 송시열의 적전(嫡傳)인 권상하의 신위가 모셔진 한 서원에서 300여 년 동안 보존되어 온, 즉 소장 내력이 분명한 그림이라는 점에서 높은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 또한 송시열 초상화를 대상으로 한 화상찬 중 가장 명문(名文)으로 평가되는 김창업과 권상하의 글이 적혀 있고 그 글을 서사한 이가 권상하의 핵심 문인 중 한 명인 채지홍란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초상화는 문인화가 김창업이 그린 초본을 저본으로 한 점과 진재해 등 당대의 최고의 화사가 그렸다고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려하면서도 단정한 필선 그리고 정교한 채색으로 뛰어난 예술성을 보이는 점에서 높은 예술적 가치가 있다. 이미 국보 239호로 지정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송시열 초상>과 견주어도 이 작품의 예술성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안동권씨 문순공파 종중 소장 <송시열 초상>은 국가문화재(보물)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크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

조사보고서



○ 현 상

- 한 점 내리단이 족자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전에는 유리액자 형태였는데, 2014년 12월부터 2016년 3월에 걸쳐 장황문화재연구소에서 보존처리를 거치면서 전통적인 족자 형태로 바뀌었다. 이 과정을 통해 꺾임흔적 및 미세한 결손 부분을 메움처리하고 색맞춤을 하였는데 전체적으로 원래 현상의 큰 변형이 없이 이루어졌다. 보존처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발간된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다.
- 이음새 없는 한 장의 비단을 화면으로 사용하여 네모난 회색 모자를 쓰고 검은 색으로 깃과 소매부리의 가장자리를 두른 회색 겹옷을 입은 채, 두 손을 맞잡아 소매 속에 넣은 반신상 인물을 묘사했다. 희끗희끗한 콧수염, 턱수염, 구레나룻에 이마와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파인 얼굴을 화면 왼편을 향하여 약간 돌린 자세이다.
- 화면 상단에는 표제에 해당하는 “尤庵宋先生七十四歲眞”을 전서체의 묵서로 적었는데 별도의 가로 구분선은 없다. 초상화의 주인공은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이며 그가 74세 때의 모습을 그린 것임을 알 수 있다.
- 화면 우측 위에는 송시열의 제자인 김창협(金昌協, 1651-1708)이 지은 찬문이 적혀 있다.

以豪傑英雄之姿 有戰兢臨履之功 斂浩氣於環堵之窄 可以塞宇宙 任至重於一身之小 可以抗華嵩 進而置之巖廊 爲帝王師而不見其泰 退而處乎丘壑 與麋鹿友而不見其窮 巖巖乎砥柱之峙洪河 凜凜乎寒松之挺大冬 苟億歲之下 觀乎此七分之貌 尙識其爲三百年間氣之所鍾 後學金昌協贊

(찬문 번역은 『초상화의 비밀』 (국립중앙박물관, 2011), pp.313-314참조)

이 찬문 바로 다음에는 “金昌業畫”라고 적혀 있어 김창협의 동생이며 송시열의 제자인 김창업(金昌業, 1658-1722)의 그림임을 밝히고 있다.

-화면 좌측 위에는 송시열의 또 다른 제자인 권상하(權尙夏, 1641-1721)가 지은 찬문이 적혀있다.

嶷嶷山嶽之氣像 恢恢河海之心胸 允矣集羣儒之大成 蔚然爲百代之宗師 以一言而闢聖路於將堙 以隻手而擎天柱於旣倒 深闡密贊吾不知其何謨 燕居長歎吾不知其何抱 吁嗟乎道之大而莫能容兮 吾將捨考亭而其誰從 門人權尙夏贊

(찬문의 번역은 『초상화의 비밀』 (국립중앙박물관, 2011), p. 314 참조)

이 찬문 바로 다음에는 “後學蔡之洪書”라고 적혀 있는데, 채지홍(蔡之洪, 1683-1741)은 권상하의 제자이다. 김창협(金昌協)의 찬문과 권상하의 찬문 글씨가 같으므로, 두 찬문을 모두 채지홍이 적었음을 알 수 있다.

- 그림은 매우 양호한 상태이다.

○ 내용 및 특징

- 초상화의 주인공인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은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성리학자로 본관은 은진(恩津), 자는 영보(英甫), 호는 우암(尤庵)이다. 그는 과거시험에 장원으로 합격한 뒤 높은 학문으로 이름을 널리 떨쳤고, 봉림대군(효종)의 스승이기도 했다. 효종의 두터운 신뢰를 얻어 북벌계획을 세웠으나, 효종이 죽은 후 화양동에 내려가 학문에 몰두하며 제자를 가르쳤다. 서인의 지도자인 그는 당쟁의 와중에서 제주도로 유배되었다가 사약을 받고 죽었다. 이후 다시 명예가 회복되어 노론의 지도자로 추앙받았다. 송시열은 정치적으로는 부침을 거듭했지만 그 와중에도 평생에 걸쳐 성리학 연구에 몰두하여 후대에 큰 영향을 주었다.

- <송시열 초상>은 얼굴에 깊게 파인 주름을 황갈색의 굵은 선으로 강조하여 묘사했는데 부분적으로 음영을 표현했다. 희고 검은 긴 수염을 세밀하게 표현했는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눈썹은 아직 검고 짙다. 상세한 얼굴 묘사와 달리 의복은 짙은 먹선을 위주로 간략하게 표현했다. 콧수염 아래로 보이는 두툼한 아랫입술은 곧은 성품을 더욱 강조한다. 송시열은 용모가 장대하고 기상이 높아서 두 손을 맞잡고 조용하게 앉아 있으면 마치 거대한 산과 같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말을 붙이면 부드럽고 편안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구도에서도 삼각형 모양의 인물이 화면 아랫부분에 꼭 차도록 하여 중후한 느낌을 더해 주어 인물의 품성을 잘 드러내 주는 초상화이다.

- 『송자대전부록(宋子大全附錄)』 卷11의 「연보(年譜)」에는 송시열 초상화 제작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송시열 생전에 그린 초상화는 3본 있었는데, 1683년 화가 한시각(韓時覺, 1621-?)이 그려 가묘에 봉안했던 77세 초상화가 있고, 제자 김진규(金鎭圭, 1658-1716)가 초(草)를 뜨고 화사가 옮겨 그려 나중에 화양서원에 봉안 한 것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김창업(金昌業, 1658-1721)이 초를 뜨고 화사가 옮겨 그린 것도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김진규와 김창업이 송시열 74세의 모습을 초본을 그렸기에 이는 1680년이 된다.

- 김진규가 그린 초본은 송시열의 후손가에서 소장하다가 국립청주박물관에 기탁되어 있는데 사방건을 쓴 모습이다. 이 초본을 기초로 그렸거나 또는 그것의 이모

본으로 추정되는 작품이 현재 국보 제239호로 지정되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또한 1820년 홍직필(洪直弼, 1776-1852)이 화상찬을 짓고 유한지(俞漢芝), 1760-?)가 이를 적은 송시열 초상화 역시 김진규 초본을 따른 것인데 최근 경기도박물관에 기증되었다. 한편 후손가에는 복건을 쓴 모습의 송시열 초상 초본도 함께 전하고 있는데, 이것을 김창업의 초본이라고 믿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얼굴 묘사가 사방건 초본과 거의 같다는 점에서 이 또한 김진규가 그린 초본일 가능성이 높다.

-<송시열 초상>의 얼굴 묘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위의 김진규 초본 및 그것을 바탕으로 제작한 작품들과는 눈썹과 코의 생김새 및 주름 표현에서 차이가 뚜렷하다. 따라서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 김창업의 초본을 바탕으로 제작한 초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림에 적혀있는 “金昌業畫”는 정본이 아닌 초본의 화가를 가리키는 것이 된다. 더욱이 삼성미술관리움 소장의 송시열 초상은 복건을 쓰고 있으나 얼굴의 묘사가 <송시열 초상>과 거의 같으며, 그림 상단에 같은 내용과 서체의 표제가 적혀있다. 또한 그림의 오른쪽에 “後學安東金(昌)業寫 副護軍 秦再奚摹”라고 적혀 있어 당시 최고의 초상화가로 이름을 날리며 국수(國手)라고 칭송받던 진재해(秦再奚, ?-1735이전)가 김창업의 초본, 또는 그것을 바탕으로 제작된 작품을 다시 이모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송시열 초상> 역시 진재해가 그렸을 가능성이 높다.

-회색의 모자는 사방건처럼 보이지만 분명하지는 않으며, 회색 겉옷은 심의(深衣) 모양이지만 색깔이 특이하다.

-<송시열 초상>의 제작연대는 18세기 초엽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하한은 찬문을 적은 채지홍의 물년인 1741년이 된다. 이 초상화가 전해져 내려온 경위를 살펴보면 권상하는 1675년 충청도 제천의 황강으로 이주했고 1686년에 한수재(寒水齋)를 건립했으며,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조카 권섭(權燮, 1671-1759)이 1725년 한수재 내에 권상하의 초상을 봉안하고 황강영당(黃江影堂)이라 이름했다. 이후 1726년 송시열과 권상하를 제향하기 위해서 황강서원(黃江書院)은 세워졌고, 이듬해 사액을 받았다. 정확하게 어느 시점부터 송시열 초상화를 이곳에서 모시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서원과는 별도로 한수재 내에 공간을 마련해 황강영당이라 하고 그곳에 함께 모셨던 것으로 보인다. 19세기에 한수재를 방문한 후학들이 송시열과 권상하의 초상을 봉심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는 후학들인 한원진(韓元震, 1682-1751), 윤봉구(尹鳳九, 1683-1767) 등의 초상화도 함께 보관되기 시작했다.

-송시열 사후에 그를 제향한 서원과 사당이 전국 각지에 30곳이 넘게 설립되었고, 상당수의 초상화가 봉안되었다. 현재 알려진 송시열의 초상화는 삼십 점에

육박하여, 조선시대 인물 중에서 가장 많은 초상화가 제작되었다. 송시열의 초상화는 초본, 반신상, 전신상 등에 복건본, 방건본 등 다양한 형식을 보여준다. 흥미롭게도 모두 평상복인 심의(深衣) 차림의 유복본 초상화다. 심의는 주희가 입었던 옷으로 조선시대에 예학이 발달하면서 유학자들에게 널리 보급되었다. 송시열은 모두 합해서 팔년간 벼슬에 올랐지만 그때마다 공복(公服)은 빌려 입고 스스로 만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초상화는 모두 관복이 아니라 유복을 입은 모습이다.

-이 작품은 2012년 7월 6일 충청북도 유형 문화재 제332호로 지정되었다.

○ 참고문헌

『초상화의 비밀』 (국립중앙박물관, 2011)

『유학자 관복을 벗다』 (대전 시립 박물관, 2014)

이혜경, 「송시열과 노론계 인사들의 유복본 초상화 제작」, 박은순 외, 『조선시대 회화의 교류와 소통』 (사회평론, 2014), pp. 60-66.

고연희, 『화상찬으로 읽는 사대부의 초상화』 (한국학 중앙 연구원 출판부, 2015)

조인수, 「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 소장 성현 초상 일괄에 대하여」, 『기록화, 인물화: 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 소장품도록』 (동아대학교박물관, 2016) pp. 296-309.

이성훈, 「송시열 초상화의 제작과 ‘대현(大賢)’의 이미지 구축」, 『미술사와 시각문화』 26호 (2020), pp.72-119.



○ 내용 및 특징

비단 바탕에 채색한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의 반신상으로, 사방건(방건)을 쓰고 심의로 추정되는 청회색 빛 상의를 입고 있다. 세로 92.5cm, 가로 62cm 크기이며 족자 형태로 장황되어 있다.

화면 상단에 “尤庵宋先生七十四歲眞”이라는 화제(畫題)가 있으나, 남인이 실각하고 송시열이 벼슬을 다시 제수받은 1680년 모습을 후대에 다시 그린 것으로 보인다.

사방건을 쓴 송시열의 초상은 문인 김진규(金鎭圭, 1658~1716)가 초하고 화사가 그린 것 초본을 활용하여 다른 화사가 그려 화양서원에 봉안했다고 한다.

우암의 왼쪽 어깨 위에는 김창협(金昌協, 1651~1708)의 찬문贊文이 있고 김창협 이름 아래로 “金昌業畫”라는 기록 있음. 오른쪽 어깨 위로는 권상하(權尙夏, 1641~1721)의 찬문이 있고 이를 채지홍(蔡之洪, 1683~1741)이 썼다는 기록이 있다.

김창협이 그린 초본은 복건본이라고 하고 김진규가 그린 초본이 방건이라고 하는데 이 그림 위에 김창협이 그렸다고 하는 찬문은 후대에 삽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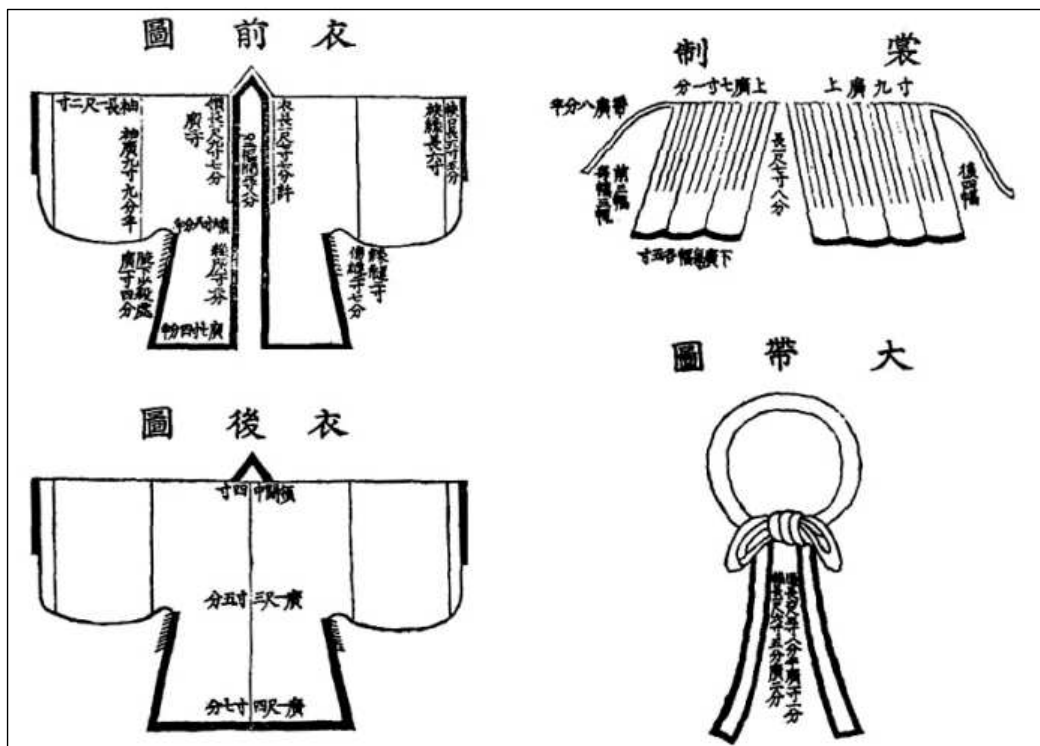
송시열의 장례과정을 기록한 『宋書續拾遺附錄』 卷3, 「楚山日記」에 따르면 송시열의 수의에 사(紗)로 만든 심의를 사용하고 소렴에 야복【상의·하상·대대】을 사용하였다. 송시열 초상은 반신상이므로 하의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상의를 기준으로 볼 때, 심의로 보기는 어렵다.

『宋子大全』 卷134의 「야복도설(野服圖說)」(그림 2)에 야복은 백방사주(白方紗紬)나 백주(白紬)로 하고 흑견(黑絹)의 선을 두른다고 하였다. 대대에도 2분 너비의 흑선을 두른다고 하였다. 백색 현단을 언급한 송시열의 의도와는 다르지만 후대에 그려진 그림으로 본다면 현단의 상의로 명명할 수 있다.

한편, 17세기에 대금형의 옷이었던 학창의는 색상에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송시열의 상의를 학창의로 생각해 볼 수도 있으나 단언하기는 어렵다.

초상의 장황 소재는 백색과 청색 주(紬)이며 장황 상태가 양호하지만 17세기 후기~17세기 전기의 것이라면 권상하 초상처럼 유문단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후대에 제작되었다고 보인다.

이상 검토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김진규(金鎭圭, 1658~1716)가 그린 사방건 초본 계열의 이 초상은 송시열이 제시한 백색 야복 상의와는 색상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심의나 학창의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송시열이 제시한 백색 야복(현단)이 아닌 청색 야복본으로 칭하는 것이 나을 듯하다.



『宋子大全』 卷134, 「野服圖說」

○ 문헌자료

『宋子大全』

국립중앙박물관, 2011, 『초상화의 비밀』.

대전시립박물관, 2014, 『유학자 관복을 벗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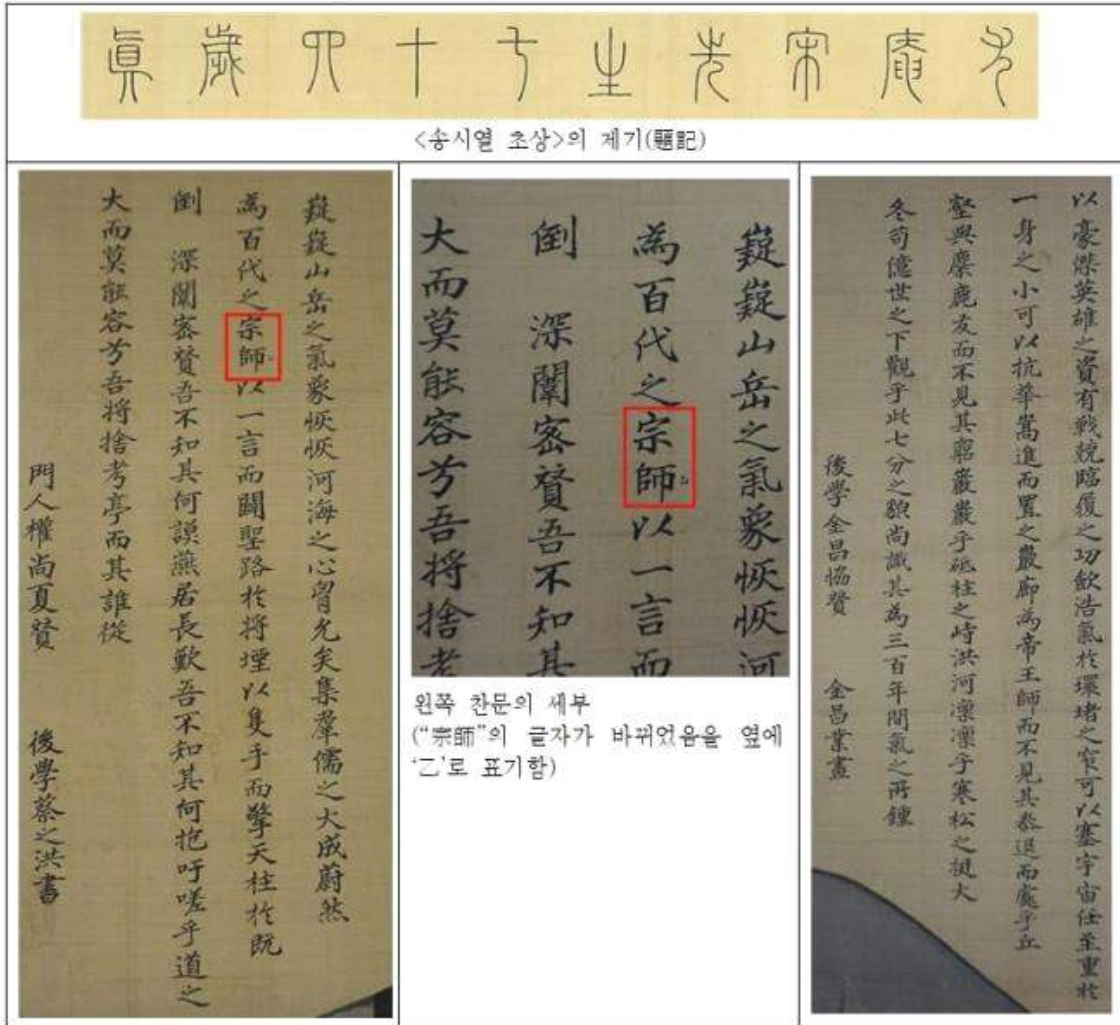
실학박물관, 2010, 『실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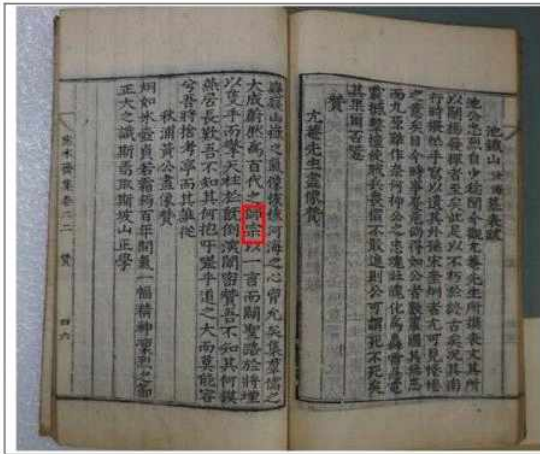
○ 현 상

- 황강영당(黃江影堂)본⁵⁾ <송시열 초상>은 좌안칠분면(左顔七分面)의 반신상으로 국보 제239호 국립중앙박물관본과는 다른 야복(野服) 차림이지만, 산림에서 은거하며 학문에 정진했던 유학자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수작(秀作)이며 보존 상태도 매우 양호함
- 얼굴과 상대적으로 과장된 몸체가 모두 선묘로 묘사되었으며, 얼굴은 진한 살색을 칠한 다음 갈색선으로 주름을 그리고 주위를 선염하고, 회색 심의도 굵은 먹선으로 대담하게 옷주름을 그린 다음 주위를 선염하는 동일한 기법으로 입체감을 나타냄
- 화면 상단에는 전서로 “우암 송선생 칠십사세진(尤庵宋先生七十四歲眞)”이라 제기(題記)가 적혀 있고, 오른쪽에 있는 찬문은 김창협(金昌協, 1651-1708)이 짓고 김창업(金昌業, 1658-1721)이 그렸다는 내용으로 원문과 번역문은 다음과 같음
“以豪傑英雄之資 有戰兢臨履之功. 斂浩氣於環堵之窄 可以塞宇宙 任之重於一身之小 可以抗華嵩. 進而置之巖廊 爲帝王師而不見其恭 窮退而處乎丘壑與麋鹿友而不見其. 巖巖乎砥柱之峙洪河 凜凜乎寒松之挺大冬 苟億世之下 觀乎此七分之貌 尙識其爲三百年間氣之所鍾. 後學金昌協贊, 金昌業畫(호걸과 영웅의 자태로 조심하고 삼가 공덕을 세웠네. 좁은 담 안에도 호연지기를 모으니 우주를 채울 만하고, 작은 한 몸으로 중임을 감당하니 화산 승산에 맞설 만하네. 높은 조정에 출사하여 제왕의 사부가 되어도 영화를 뽐내지 않고, 골짜기에 물러나 사슴과 벗하여도 곤궁하다 여기지 않네. 우뚝할 손 단단한 기둥이 큰 강물에 솟은 듯, 늠름할 손, 낙락장송이 한 겨울을 견디는 듯, 진실로 억만년 뒤에 이 칠분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삼백년 간의 기운이 모인 바를 우러러 알 수 있으리라. 후학 김창협이 짓고, 김창업이 그림).”

5) 1726년(영조 2) 창건되어 다음해 사액된 황강서원(黃江書院)에 송시열·권상하·한원진(韓元震)·권욱(權煜)·윤봉구(尹鳳九) 영정이 모셔졌으며, 1871년 서원철폐령 때 황강영당으로 개칭되었다. 이곳의 <송시열 초상>이 1906년 유럽에서 창건한 서당인 자양영당(紫陽影堂)으로 옮겨지면서 황강영당본(黃江影堂本)이라고도 한다.



- 왼쪽에 있는 찬문은 권상하(權尙夏, 1641-1721)가 짓고 그의 제자 채지홍(蔡之洪, 1683-1741)이 옮겨 적었다는 내용으로 원문과 번역문은 다음과 같음 “巍巍山岳之氣象 恢恢河海之心胸. 允矣集羣儒之大成 蔚然為百代之**師**。宗. 以一言而闢聖路於將堙 以隻手而擎天柱於既倒. 深闡密贊 吾不知其何謨, 燕居長歎 吾不知其何抱. 吁嗟乎 道之大而莫能容兮. 吾將捨考亭而其誰從. 門人權尚夏贊 後學蔡之洪書(높고 높은 산악의 기상 넓고 넓은 하해의 마음. 참으로 여러 유학자들을 집대성하여 성대하게 백대의 스승이 되시었네. 한마디 말로 막혀가는 성인의 길을 뚫었고, 한 손으로 쓰러지는 기둥을 붙들었네. 깊은 궁궐에서 은밀히 도운 것은 어떤 계책이었는지 나는 모르겠고, 한가로운 중에 긴 탄식은 어떤 심정이었는지 나는 모르겠네. 아, 도가 너무 커서 아무도 용납해주지 않았도다. 내가 주자를 버린다면 누구를 따라야 하겠는가. 문인 권상하가 찬하고 후학 채지홍이 씀).”



※ 왼쪽에 적혀 있는 권상하의 찬문은 그의 개인문집 『한수재집』 권22 「우암선생화상찬」이라 적혀 있으며 “師宗”이라고 바르게 적혀 있음

권상하(權尙夏),
『한수재집(寒水齋集)』 권22,
「우암선생화상찬(尤庵先生畫像贊)」

- 제기는 송시열의 74세 모습을 그린 초상화이며, 송시열을 칭송하는 김창협과 권상하의 화찬을 옮겨 적은 채지홍(蔡之洪, 1683-1741)의 1741년 사망은 황강영당본이 1694년 갑술환국으로 신원이 복관되며 그에 대한 추송 열기가 높아졌던 18세기 전반에 임모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해줌

○ 내용 및 특징



- 노론의 영수 송시열은 생존 당시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추송되며 문묘는 물론 서원이나 영당에서 그를 배향하기 위해 초상화가 이모(移摹)된 결과 다수의 작품이 현전하고 있으며, 크게 ① 문인(門人) 金鎭圭(1658-1716)가 1680년 그렸다고 전하는 초본, ② 김창엽이 그렸다는 초본, ③ 화원 한시각(韓時覺, 1621-?)이 1683년 그린 입상까지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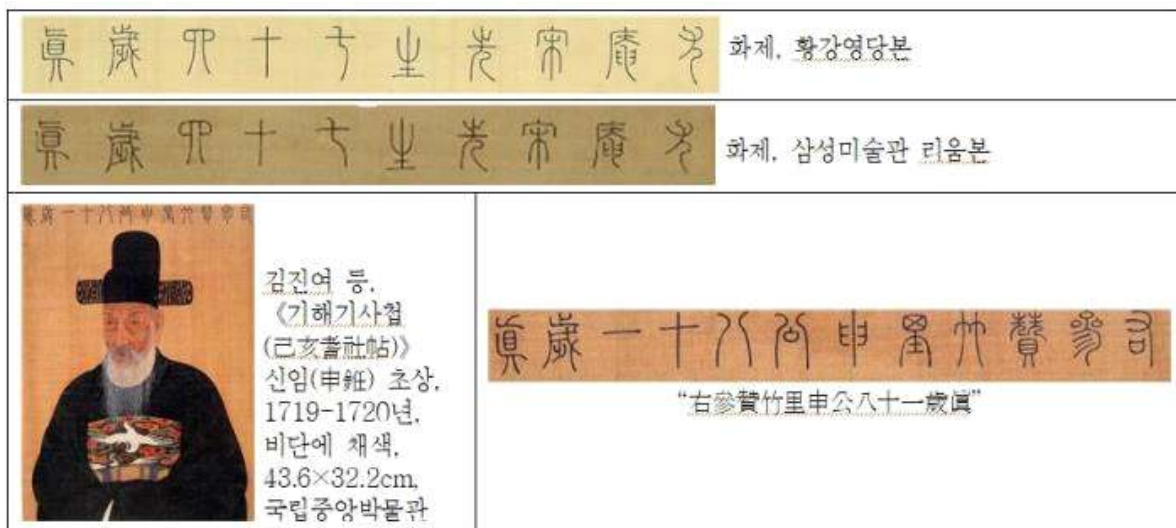
- 현전하는 송시열 초상화는 대부분 좌안칠분면에 공수(拱手)를 한 야복본 반신상이며, 황강영당본과 유사한 또 다른 <송시열 초상>은 종가에서 소장하다가 국립청주박물관에 기탁 증인데, 제기(題記)와 찬문이 없고 표현기법이나 화격(畫格)이 다소 떨어져 후대 임모본이라 생각됨
- 송시열의 야복본 초상화의 복식은 1680년 그렸다는 김진규의 초본을 밑그림으로 한 황강영당본처럼 회색 사방건(四方巾)에 회색 심의(深衣)를 착용한 것과 김창업 초본에 가까운 국보 제239호 국립중앙박물관본처럼 검은색 복건(幅巾)에 하얀색 심의 두 가지로 구분됨



- 화면의 오른쪽에 써어 있는 김창협 찬문 다음에 김창업이 그렸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황강영당본은 굴곡이 심했던 송시열의 삶이 고스란히 반영된 안면의 깊은 주름살이 화면 상단에 적혀 있는 74세라는 나이와 일치하고, 국립청주박물관에 기탁된 김창업의 <송시열 초본>보다 김진규의 <송시열 초본>(1680)과 유사하여 채지홍이 찬문을 잘못 옮겨 적었을 가능성도 상정해 볼 필요가 있음
- 조선시대 초상화는 동자와 홍채를 윤곽선으로 묘사하였으나, 황강영당본과 국보 제239호 국립중앙박물관본, 화원 진재해(奏再奚, 1691-1769)가 그린 삼성미술관 리움본은 눈과 눈동자 표현이 유사한 특징을 보임. 먼저 눈의 윤곽을 갈색선으로 묘사한 다음 위쪽 눈꺼풀에 검은색 아이라인을 선명하게 그리고 속눈썹까지 한올 한올 그린 것, 동공과 홍채는 윤곽선 없이 동공은 짙게 선명하고 그 주변은 열게 하여 흐릿한 인상을 주는 것, 흰자위 양 끝에 붉은색을 살짝 가한 것 등이 동일함
- 황강영당본, 국립중앙박물관본(국보 제239호), 삼성미술관 리움본을 비교하면 황강영당본과 삼성미술관 리움본은 화면구성이나 얼굴표현이 유사하고, 국립중앙박물관본과 삼성미술관 리움본은 복건과 심의로 된 유복(儒服)이 동일함



- 황강영당본의 제기(題記)는 삼성미술관 리움본과 거의 유사하고, 1719년 4월 17일과 18일에 70세가 넘는 정2품 이상의 원로대신을 예우했던 기로연을 기념해 제작된 《기해기사계첩(己亥耆社契帖)》의 기신(耆臣) 초상화에 보이는 전서와도 서체가 매우 유사하여 18세기 전반 제작되었을 것이라 판단됨



- 또한 황강영당본과 얼굴 표현이 유사한 삼성미술관 리움본은 화면 오른쪽 중간에 “후학안동김창업 부호군진재해모(後學安東金昌業 副護軍奏再奚摹)”라고 적혀 있는데, 진재해는 1713년 주관화사로 숙종의 어진을 제작한 공으로 ‘부호군’에

제수되어 1718년 12월까지 재직하였으므로 황강영당본도 18세기 전반 임모되었을 것이라는 추론에 설득력을 높여줌

○ 문헌자료

- 권상하, 『寒水齋集』 (의림지역사박물관 기탁)
- 국립청주박물관 편, 『화양서원과 만동묘』, 2011.
- 국립중앙박물관 편, 『조선시대 초상화 I』, 2007.
- 국립중앙박물관 편, 『조선시대 초상화Ⅲ』, 2009.
- 「도지정문화재(초상화) 보존처리 용역: 우암 송시열 초상, 수암 권상하 초상」 2014.12.10-2016.03.26, 제천시·장항문화재연구소, 2016.

○ 기 타

- 장항문화재연구소에서 2014년 12월 10일부터 2016년 3월 26일 사이에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32호인 <송시열 초상>과 제333호인 <권상하 초상>을 보존처리 하면서 클리닝을 하였고, 액자 상태 이전에 축(軸)이었음을 확인하고 2점을 다시 축으로 장황함



○ 현 상

<송시열 초상>은 송시열(宋時烈, 1629~1711)의 모습이 도해된 초상화이다. 이 초상화는 현재 족자로 장황되어 있다.

송시열 초상의 상단에는 전서체(篆書體)로 “우암송선생칠십사세진(尤庵宋先生七十四歲眞)”이란 화제가 적혀 있다. 이는 이 초상화가 74세 때(1680년)의 송시열의 모습을 도해한 그림임을 알려 준다. 이 초상화에는 김창협(金昌協, 1651-1708)과 권상하(權尙夏, 1641~1721)가 쓴 화상찬(畫像贊)이 화면 상단 좌우에 각각 적혀 있고, 각 화상찬 아래에는 ‘김창업 화(金昌業畫)’, ‘채지홍 서(蔡之洪書)’가 각각 적혀 있다. 김창협과 권상하가 작성한 화상찬은 다음과 같다.

영웅호걸의 자질을 지니고서 / 以英雄豪傑之姿

깊은 못에 임하듯 얇은 얼음을 밟듯 전전궁궁 근신하는 공을 닦았다 / 有戰兢臨履之工

좁은 방 안에 모은 호연지기는 / 斂浩氣於環堵之窄

우주를 채울 만하고 / 可以塞宇宙

작은 한 몸에 짙어진 막중한 짐은 / 任至重於一身之小

화산(華山)과 숭산(嵩山)에 비길 만하였다 / 可以抗華嵩

조정에서 불러들여 묘당(廟堂)에 두고 / 進而置之巖廊

제왕의 스승으로 삼았으나 거만한 기운을 찾아볼 수 없고 / 爲帝王師而不見其泰
 물러나 초야에 처했을 때는 / 退而處乎丘壑
 고라니와 사슴을 벗하였으나 궁색한 기색을 볼 수 없었다 / 與麋鹿友而不見其窮
 하수(河水)의 격류에 우뚝 선 지주(砥柱)처럼 당당하고 / 巖巖乎砥柱之峙洪河
 엄동설한에 홀로 푸른 소나무처럼 늠름하였다 / 凜凜乎寒松之挺大冬
 행여 억만대 이후에 / 苟億世之下
 이 화상을 본다면 / 觀乎此七分之貌
 조선 삼백 년간의 정기가 한 몸에 모인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尙識其爲三百年間氣之所鍾
 후학 김창업이 찬하다 / 後學金昌業贊

산악같이 높은 기상이요 / 嶷嶷山嶽之氣像
 하해같이 넓은 심흉이로다 / 恢恢河海之心胸
 진실로 못 유현을 집대성하여 / 允矣集羣儒之大成
 성대히 백 대의 종사가 되시어 / 蔚然爲百代之師宗
 말 한마디로 막혀가는 성로를 열어 놓았고 / 以一言而闢聖路於將堙
 한쪽 손으로 넘어진 천주를 붙들어 놓았네 / 以隻手而擎天柱於旣倒
 깊은 궁궐서 비밀히 찬조한 것은 / 深闈密贊
 무슨 계책이었는지 나는 모르겠고 / 吾不知其何謨
 평상시에 길이 탄식한 것은 / 燕居長歎
 무슨 회포였는지 나는 모르겠다 / 吾不知其何抱
 아 도가 커서 용납할 수 없어라 / 吁嗟乎道之大而莫能容兮
 내가 주자를 버리고 누구를 따르리요 / 吾將捨考亭而其誰從
 문인 권상하가 찬하다 / 門人權尙夏贊

김창협(金昌協, 1651-1708)은 숙종 대에 활동한 학자이다. 그의 본관은 안동(安東)이며, 자는 중화(仲和), 호는 농암(農巖)이다. 그의 증조는 좌의정을 지낸 김상헌(金尙憲), 부친은 영의정을 지낸 김수항(金壽恒)이다. 역시 영의정을 지낸 김창집(金昌集)이 그의 형이다. 1682년에 증광문과에 전시장원으로 급제하여 본격적으로 출사해 여러 관직에 제배되었다. 송시열의 유명(遺命)을 받아 송시열(宋時烈)의 『주자대전차의(朱子大全劄疑)』를 권상하와 함께 교정하였다. 청풍부사로 있을 때 기사환국으로 부친 김수항이 진도에서 사사되자 사직하고 영평(永平: 지금의 경기도 포천시)에 은거하였다. 1694년 갑술옥사 이후 아버지가 신원됨에 따라 호조참의, 예조참관, 홍문관제학 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직하고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권상하(權尙夏, 1641~1721)의 본관은 안동(安東)이며, 자는 치도(致道), 호는 수암(遂菴), 한수재(寒水齋)이다. 이이와 김장생으로부터 비롯된 송시열(宋時烈) 학문

의 정통 계승자로 평가되는 학자이다. 1674년에 효종의 승하 시(1659년)에 있었던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제 문제가 다시 발생해 스승 송시열이 관작을 박탈당하고 덕원(德源)에 유배되는 불운을 당하게 되자 그는 관계에 진출하는 것을 단념하고 청풍의 산중에 은거하며 학문과 교육에 전념할 것을 결심하였다. 이후 그는 많은 관직에 임명되었으나 그때마다 사직소를 올리고 관로에 나가지 않았다.

김창업의 본관은 안동이며, 자는 대유(大有), 호는 노가재(老稼齋)이다. 부친은 김수항이며, 어려서부터 김창집, 김창협, 김창흠(金昌翕) 등 형들과 함께 학문을 익혔다. 특히 시에 뛰어났다. 어려서부터 그림에 재주가 있어 김원행(金元行)으로부터 그림의 필격이 청진(淸眞)하고 고고(高古)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의 습기(習氣)가 없다는 호평을 들었다.

채지홍의 본관은 인천(仁川), 자는 군범(君範), 호는 봉암(鳳巖)·삼환재(三患齋)·봉계(鳳溪)·사장와(舍藏窩) 등이나. 권상하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동문인 한원진(韓元震), 윤봉구(尹鳳九), 이간(李柬), 윤혼(尹焜) 등과 교유하며 학문을 강론하였다. 스승의 영향으로 평생 과거 공부에 뜻을 두지 않고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송시열 초상에서 송시열은 방건(方巾)처럼 보이지만 그 측면부가 정확히 표현되지 않은 탓에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형태의 회색 건(巾)과 검은 색 연(緣)이 둘러진 회색 포(袍)를 입은 모습으로 재현되었다. 그가 착용한 건과 포는 조선시대 일반 사대부 초상화에서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 독특한 것으로 보인다. 송시열 초상에서 송시열의 안면은 곳곳에 주름이 깊게 파인 모습으로, 무성하게 자란 그의 수염은 거의 하얗게 섰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 내용 및 특징

안동권씨 문순공파 종중 소장 <송시열 초상>은 조선 후기 유학자 송시열(宋時烈, 1629~1711)의 모습을 도해한 초상화이다. 송시열은 ‘이이(李珣)-김장생(金長生)’으로 이어져 온 기호 학맥의 적전(嫡傳)으로 ‘공맹(孔孟)-주자’로 계승된 유학적 도통을 조술하고 산림(山林)의 종장으로서 세도(世道)를 자임하며 한 시대의 학문과 사상과 정치를 이끌었던 것으로 평가되는 학자이다. 이러한 이유로 송시열은 그의 사후에도 당시 학계와 정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문묘종사(文廟從祀)’와 ‘원사향사(院祠享祀)’ 등 그에 대한 추송 작업이 조선 말기까지 지속된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1680년에 김창업(金昌業, 1658-1721)은 송시열 초상화 초본을 제작하였다. 송시열의 문집 부록인 『송자대전부록(宋子大全附錄)』 중 연보(年譜)의 「송정칠십년정축(崇禎七十年丁丑)」에는 세 본의 송시열 초상화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 글에는 이 세 본 중 한 본에 대해 “또 하나는 진사(進士) 김창업(金昌業)이 초를 뜯 것을

화사(畫師)가 옮겨 그린 것이다”라 언급된 부분이 있다. 정축년은 송시열이 74세 되던 해인 1680년을 말하므로 김창업이 송시열 초상 초본을 제작한 시점은 바로 이 해이다.

안동권씨 문순공과 종중 소장 <송시열 초상>에 적힌 “김창업 화”의 글 그리고 화면 상단에 적힌 “74세 상”의 화제는 이 초상화가 1680년에 김창업이 제작한 그림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상기의 연보 기록을 1680년에 김창업은 송시열 초상 초본만을 제작했으며 정본 제작은 다른 화사가 수행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정본의 이 초상화는 1680년에 김창업이 그린 초본을 저본으로 하여 그 이후 어느 시점에 어느 화사가 완성한 그림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이 초상화의 주요한 양식적 특징으로 선묘(線描) 위주로 인물의 이목구비가 묘사되어 있는 점과 이로 인해 음영 표현이 안면의 윤곽선과 주름선 주변에만 이루어져 있을 뿐 면 단위로 넓게 적용되어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주름 표현에는 세선(細線) 없이 굵은 선들이 주로 사용되어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요소들은 이 초상화의 화가가 송시열 생전에 그의 모습을 직접 보고 이 초상화를 완성한 것이 아니라 송시열 사후에 송시열 종손가 소장 <송시열 초상 초본>과 같이 채색 없이 선묘로만 그려진 초본을 저본으로 하여 이 초상화를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있게 한다.

문순공과 종중 소장본의 표현 수법은 삼성미술관 Leeum 소장 <송시열 초상> 및 용문영당 소장(현 국립청주박물관 보관) <송시열 초상>의 것과 매우 유사하다. 이 중 Leeum 소장본과 용문영당 소장본은 송시열이 착용한 복식이 심의와 복건으로 동일함은 물론 안면에 음영을 넣은 방식, 안면 주름 및 수염 등을 표현한 방식 그리고 그림의 규격 등이 서로 거의 비슷하다. 문순공과 종중 소장본의 표현 요소들 역시 Leeum 소장본 및 용문영당 소장본의 것과 거의 동일하다. 다만 송시열이 착용한 복식만 위 두 본의 것과 다른데,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 의습선의 위치나 수, 모양 등이 위 두 본의 것과 거의 같다. 그 결과 문순공과 종중 소장본이 위 두 본보다 화폭의 가로 길이가 길어서 그 두 본과 정확히 같은 시점에 제작된 그림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그 제작 시점은 이 두 점의 것에 매우 근접할 것으로 추정된다.

Leeum 소장본의 우측 하단에는 “후학 안동 김창업이 그리고 부호군 진재해가 모사하였다(後學安東金昌業寫, 副護軍秦再奚摹)”란 글이 적혀 있다. 이 글은 1680년에 김창업이 그린 초상화를 저본으로 하여 진재해(秦再奚, ?-1735)가 이 초상화를 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진재해의 회화 활동은 그가 숙종 어진 제작에 주관화사로 참여한 1713년부터 그의 졸년인 1735년까지에 이르는 시기에 집중된다. 이로 미루어 Leeum 소장본은 적어도 1713년 이후에 제작된 그림으로 추정될 수 있다. 진재해는 일찍이 부사공신도감(扶社功臣都監)으로부터 소론 목호룡(睦虎龍,

1684-1724)의 초상화를 그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그것을 거절한 일이 있었다. 1725년 4월 21일 민진원은 이 일을 거론하며 그를 조용할 것을 영조에게 건의하였다. 이때 영조는 진재해의 이러한 처신을 칭송하였다. 그해 7월 28일 진재해는 격포별장(格浦別將)에 임명되었으나 낙마 사고로 부임하지 못하고 그 직에서 파출(罷黜)되었다. 다시 동년 11월 19일에 그는 부호군(副護軍)에 추천되었다. 송시열의 문인인 정호(鄭濤, 1648-1736)의 후손가에는 1725년 진재해가 그린 정호의 78세 초상화 한 점이 전한다. 이 초상화의 화면 좌측 하단에는 “을사년 부호군 진재해가 그리다(旃蒙大荒落副護軍奏再奚寫)”란 글이 적혀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부호군의 직명이 적힌 Leeum 소장본의 제작 시점 역시 1725년 11월 말 이후 어느 시점일 가능성이 높다.

리움 소장본의 화가가 진재해이므로 이 작품과 동일한 화풍과 양식을 공유한 안동 권씨 문순공과 종종 소장본을 그린 화가 역시 진재해일 가능성은 충분히 제시될 수 있다.

안동권씨 문순공과 종종 <송시열 초상> 상단 좌우에는 권상하와 김창협이 작성한 송시열 화상찬이 적혀 있고, 권상하가 작성한 화상찬 아래에는 그 글씨를 채지홍(蔡之洪, 1683-1741)이 쓴 사실이 간단히 명기되어 있다. 권상하와 김창협은 1696년경에 각자 화상찬을 작성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자문하였다. 그리고 이 초상화에 이 두 편의 화상찬을 쓴 채지홍은 1683년생이므로 그가 이 초상화에 찬문을 서사한 시기는 적어도 1700년 이후로 볼 수 있다. 결국 이 초상화는 진재해가 1725년-1726년경에 그린 Leeum 소장본과 양식적으로 유사한 점 그리고 채지홍이 이 그림에 화상찬을 서사한 시점이 18세기 초인 점으로 미루어 18세기 초에 제작된 본으로 상정해 볼 수 있다.

문순공과 종종 소장의 <송시열 초상>은 <권상하 초상>, <한원진 초상>, <윤봉구 초상>, <권육 초상> 등과 함께 황강서원(黃江書院)에서 보관해 왔던 초상화들 중 한 점이다. 황강서원은 1726년에 권상하를 제향할 목적으로 권상하의 독서 공간이었던 한수재(寒水齋) 바로 인근에 세워졌으며 1727년에 사액을 받았다. 황강서원은 고종 대에 훼손되고 그 이후 복설되었다. 황강서원은 원래 제천시 한수면 황강리에 있었으나 1983년 충주댐 건설로 현 위치(제천시 한수면 송계리)로 이 건되었다. 현재 이 서원은 크게 수암사(遂菴祠)의 사당, 한수재, 황강영당의 세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한수재는 권상하의 구거(舊居)로 서원 훼손 이전에 건립되어 보존된 건물인 반면에 수암사와 황강영당은 서원 복설 때 지어진 건물로 파악된다.

성해응(成海應, 1760-1839)은 1804년에 황강서원을 방문해서 서원 부속 건물 중 하나인 한수재에 보관된 송시열의 74세 상을 참배하였다. 그는 그 초상화가 김창

업이 모사(模寫)한 것이며 그 화면에는 김창협과 권상하의 찬(贊)이 적혀 있었다고 말하였다. 성해응의 이러한 증언으로 미루어 성해응이 침배한 송시열의 초상화는 바로 문순공과 종중 소장본일 것으로 여겨진다. 1831년에 충청도 황강서원을 방문한 송달수(宋達洙, 1808-1858)는 한수재에 입실한 후 기록을 남겼다. 그는 먼저 한수재에서 권상하의 초상화에 침배한 뒤 송시열의 초상화를 궤에서 꺼내어 벽에 걸고 봉심하였다. 송달수는 자신이 침배한 송시열 초상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황강서원을 방문한 시점이 성해응이 방문한 시점과 크게 차이하지 않으므로 그가 본 송시열 초상화 역시 문순공과 종중 소장본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성해응과 송달수에 앞서 원경하(元景夏, 1698-1761)가 1728년에 한수재를 방문해 송시열의 초상화를 침배한 일이 있었다. 원경하가 본 초상화가 문순공과 종중 소장 <송시열 초상>이 아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 초상화가 적어도 1728년 이전에는 한수재에 보관되어 있었을 가능성 역시 원경하의 기록으로 제시할 수 있다.

권상하의 조카인 권섭(權燮, 1671-1759) 등은 1725년경 백부(권상하)가 졸한 뒤 한수재 내 한 당(堂)에 그의 초상을 봉안하고 황강영당(黃江影堂)이라 명명하였다 [현재의 황강영당은 한수재 옆에 별도로 건립된 한 건물의 명칭이지만, 이때 권섭이 조성한 황강영당은 한수재 내의 한 방에 마련되었던 것의 명칭으로 여겨진다]. 권섭은 그 영당 내에 백부가 썼던 붓, 벼루, 궤장, 나무잔을 좌우에 두는 한편으로 여러 기명(器皿)과 서책은 벽감에 보관하고 시령은 그대로 두었다. 또한 권상하보다 앞서 졸한 백부의 아들 권욱(權煜, 1658-1717)의 초상화를 그 옆 벽에 걸어두었다. 이때 권섭은 만일 권상하의 문인 중 그의 도를 계승한 이가 있으면 그 문인의 초상화를 그 당에 봉안할 것이라 말하고 또한 학문을 연마하는 후손 및 문인들이 그를 모시고 그의 가르침을 듣는 듯한 모습을 연출할 것이라 말도 덧붙였다. 이때 그는 송시열 초상화의 봉안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기록들은 문순공과 종중 소장 <송시열 초상>이 한수재에 보관된 때가 황강서원이 건립되고 사액을 받은 시점인 1726-1727년 무렵이며 그 제작 시점 역시 바로 이 무렵으로 볼 수 있게 만든다. 그러나 권상하가 자신의 생전, 즉 1719년 이전에 자신의 선사를 추모하고 기릴 목적으로 이 초상화를 입수해 소장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결국 <송시열 초상>의 양식적 특징 및 유전 내력으로 볼 때 이 초상화의 제작 시점은 좁게는 1725-1727년, 그리고 이보다 좀 더 넓게는 1713-1735년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문헌자료

『宋子大全附錄』卷11, 年譜十「崇禎七十年丁丑」

『承政院日記』 32冊, 英祖1年 4月21日條
 『承政院日記』 32冊, 英祖1年 7月28日條
 『承政院日記』 33冊, 英祖1年 11月19日條
 宋達洙, 『守宗齋集』 卷7, 雜著, 「江巖奉審錄」
 權燮, 『玉所稿』, 文1 「黃江影堂記」
 成海應, 『研經齋全集』 卷9, 文一〇記, 「丹陽山水記」
 元景夏, 『蒼霞集』 卷7, 記 「入東峽記」
 국립청주박물관 편, 『우암 송시열』, 국립청주박물관, 2007.
 국립중앙박물관 편, 『초상화의 비밀』, 국립중앙박물관, 2011.
 강관식, 「우암 송시열의 화상 기문과 주자성리학적 영정 제의관」, 『美術史學』 33, 2017.
 이성훈, 「조선 후기 사대부 초상화의 제작 및 봉안 연구」, 서울대박사논문, 2019.
 조선미, 『韓國의 肖像畫』, 悅話堂, 1983.
 조선미, 『韓國의 초상화, 形과 影의 예술』, 돌베개, 2009
 韓基範, 「우암 송시열에 대한 후대인의 추승과 평가」, 『韓國思想과 文化』 42, 2008.

□

○ 현 상

자양영당에 소장된 <송시열 초상>로서, 현재 제천시에 위탁되어 있다. 황강영당(黃江影堂) 정본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비단에 채색으로 완성되었다. 방건(方巾)을 쓰고 회색 심의(深衣)를 입었으며 공수 자세를 취한 좌안칠분면(左顔七分面)의 반신상이다. 화면 상단과 좌우에 화제(畫題)와 화상찬(畫像讚)이 기록되었다. 송시열(宋時烈, 1607-1689) 생전에 그의 제자인 김창업(金昌業, 1658-1727)이 그렸던 초본을 토대로 후대에 임모한 정본으로 추정된다.

1) 얼굴

얼굴 전체에 피부색을 칠한 뒤 진한 갈색의 필선으로 얼굴 전체의 윤곽과 이목구비의 경계를 분명하게 구획하였다. 또한 동일한 갈색의 필선으로 주름을 표시하고, 선 주위에 옅은 먹색과 피부색을 선염하여 입체감을 주었다. 피부색은 다소 밝은 톤이며 가볍게 배채되었으나 육리문은 발견되지 않는다. 얼굴색과 같은 색조의 철선을 구사했고, 선 주변에 선염 처리를 하여 송시열 얼굴의 특징인 깊고 많은 주름과 큼직한 이목구비를 드러냈다. 문순공파에서 제천시에 기탁한 김진여 필 <권상하 초상>과 비교할 때, 피부톤이 훨씬 옅고 투명하며, 음영처리가 적어 과장된 입체감이 보이지 않는다.

눈동자의 경우, 동공은 농묵으로, 홍채 부위는 담묵으로 열게 발랐고, 홍채가

장자리의 먹선을 생략하여 흰 동자와의 경계를 없앴다. 눈동자와 속 눈꺼풀의 경계에 농묵의 세선을 긋고 속눈썹까지 묘사하였다. 콧등과 입술에 붉은 색을 칠해 얼굴에 생기를 부여했고, 눈동자 흰 자위의 가장자리에도 붉은 색을 칠해 다소 충혈된 눈을 표현했다. 수염과 귀밑머리에는 호분의 세선을 중봉으로 내리 긋고 중간 중간에 진한 농묵의 선을 곁들여 터럭 한 올 한 올을 정성껏 표현했다. 그러나 눈썹에는 호분선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오로지 농담을 달리한 필선만 사용되었다.

2) 복식과 관모

왼쪽 어깨가 약간 올라가고 등이 약간 굽어 얼굴이 앞으로 나온, 송시열 영정의 특징이 잘 드러난 초상화 정본이다. 얼굴에 비해 신체가 다소 크게 배분되었다. 영정 속의 송시열은 회색 방건(方巾)을 쓰고, 깃과 소맷부리에 흑색 천을 덧댄 회색 심의를 입었으며, 두 손은 맞잡은 공수 자세를 취했으나, 손을 옷소매 속에 감추고 있다. 얼굴은 갈색선과 선염으로 개성을 드러낸 반면, 복건과 심의는 얼굴의 묘사와는 대조적으로 매우 간결하고, 음영 표현이 살짝 가미된 상태다.

송시열의 신체를 드러내는 복식의 전체 윤곽과 주름선에는 중봉의 필선이 구사되었다. 필선은 장봉으로 시작되어, 동일한 두께로 구획되다가 서미(鼠尾)로 마무리된다. 그러나 속저고리의 옷선은 가는 먹선을 그은 후, 그 옆에 호분의 선을 다시 그어 매우 부드러운 느낌이다. 간결한 필선과 채색으로 완성된 복식은 단순하면서도 단정하고 정갈한 느낌을 선사한다.

방건은 윤곽선이 생략된 채 채색만으로 형태를 드러냈다. 농묵을 전체에 바르고 그 위에 호분을 얹은 것을 보인다. 18세기 초의 여타 초상화에 등장하는 관모들이 세부 묘사를 더한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3) 화제, 화상찬

작품 상단에는 “우암 송선생 칠십사세진(尤庵宋先生七十四歲眞)”라는 화제가 전서체로 적혀 있다. 화면 우측에는 김창업이 송시열 초상을 그렸음을 밝힌 김창협 의 화상찬이 해서체로 적혀 있다. 화면 좌측에는 권상하(權尙夏, 1641-1721)가 짓고 권상하의 제자 채지홍(蔡之洪, 1683-1741)이 필사한 화상찬이 해서체로 적혀 있다. 두개의 화상찬을 통하여 이 작품이 1680년, 23세의 김창업이 74세의 송시열을 그린 초상과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측에 적힌 김창협의 화상찬이다.

호걸과 영웅의 자태로 조심하고 삼가 공덕을 세웠네.

좁은 담 안에도 호연지기를 모으니 우주를 채울 만하고

작은 한 몸으로 중임을 감당하니 화산 승산에 맞설 만하네.

높은 조정에 출사하여 제왕의 사부가 되어도 영화를 뽐내지 않고
골짜기에 물러나 사슴과 벗하여도 곤궁하다 여기지 않네.

우뚝할 손, 단단한 기둥이 큰 강물에 솟은 듯
늠름할 손, 낙락장송이 한 겨울을 견디는 듯
진실로 억만년 뒤에 이 칠분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삼백 년간의 기운이 모인 바를 우러러 알 수 있으리.
후학 김창협이 짓고, 김창업이 그린다.

以豪傑英雄之資 有戰兢臨履之功
斂浩氣於環堵之窄 可以塞宇宙
任之重於一身之小 可以抗華嵩
進而置之巖廊 爲帝王師而不見其窮
巖巖乎砥柱之峙洪河 凜凜乎寒松之挺大冬
苟億世之下 觀乎此七分之貌
尙識其爲三百年間氣之所鍾
後學 金昌協贊, 金昌業畫

좌측에 적힌, 권상하의 화상찬이다.

높고 높은 산악의 기상 넓고 넓은 하해의 마음
참으로 여러 유학자들을 집대성하여
성대하게 백대의 스승이 되시었네.
한마디 말로 막혀가는 성인의 길로 뚫었고
한 손으로 쓰러지는 기둥을 붙들었네.
깊은 궁궐에서 은밀히 도운 것은 어떤 계책이었는지 나는 모르겠고
한가로운 중에 긴 탄식은 어떤 심정이었는지 나는 모르겠네.
아, 도가 너무 커서 아무도 용납해주지 않았도다.
내가 주자를 버린다면 누구를 따라야 하겠는가.
문인 권상하가 찬하고 후학 채지홍이 쓰다.
巖巖山岳之氣象 恢恢河海之心胸
允矣集羣儒之大成 蔚然爲百代之師宗(乙)
以一言而闢聖路於將堙 以隻手而擎天柱於既倒
深闡密贊 五不知其何謨
燕居長歎 五不知其何抱
吁嗟乎 道之大而莫能容兮

吾將捨考亭而其誰從
文人權尙夏贊 後學蔡之洪書

화면 좌측에 적힌 화상찬 2행 “蔚然爲百代之師宗” 중에서 “宗” 옆에 “乙”이 작게 표기되어 있어 후서(後書)할 때 수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두 화상찬 모두 스승이었던 송시열의 학문적 위상과 정치적 업적으로 숭상하고 있다. 두 화상찬의 서체가 모두 같아 채지홍(蔡之洪, 1683~1741)이 쓴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창협(金昌協)의 화상찬은 권섭(權燮, 1671-1759)과 나눈 편지글을 통해 1694년 이전에 이미 지었음이 파악된다.

○ 내용 및 특징

1) 연혁 및 유래

송시열은 본관이 은진(恩津), 아명이 성뢰(聖賚), 자가 영보(英甫), 호가 우암(尤庵), 화양동주(華陽洞主)다.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김장생(金長生, 1548-1631)에게 성리학과 예학을 배웠고, 1633년 생원시에 장원급제하여 출사하였으나 곧 사직하였다. 봉림대군(鳳林大君)의 사부가 되면서 효종(孝宗, 재위 1649-1659)과 깊은 인연을 맺고 효종의 북벌 계획의 핵심 인물로 활약하였으나, 1659년 5월에 효종이 급서하자 낙향하였다.

1679년 경신환국(庚申換局)으로 남인이 실각하자 1680년 중앙정계에 복귀하였고, 1683년에 봉조하(奉朝賀)의 영예를 받았다. 서인이 소론과 노론으로 갈라지자 정계에서 은퇴하고 청주 화양동에 은거했다. 그러나 1689년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남인이 세력을 잡자 제주도로 유배되었고 서울로 압송되는 중에 정읍에서 사약을 받고 죽었다. 1694년 갑술환국(甲戌換局)으로 서인계가 정국을 완전히 지배하면서 관직이 회복되었다. 1695년 숙종은 그에게 문정이란 시호를 내렸다. 송시열 사후 20년쯤 지난 1717년, 국가가 『우암집(尤庵集)』을 간행하였다. 송시열에 대한 추송 분위기가 크게 일어난 것이다.

서인과 남인의 정치적 갈등 속에서 유배를 거듭한 송시열은 평생 주자학을 연구한 대학자였다. 평소 예학(禮學)의 일상화를 추구하고 가례의 중요성을 몸소 실천하였고, 사대부의 옷가짐에 따른 법과 예를 중시하였다. 주자(朱子) 이후 동방의 성현으로 인정되면서 그의 학문적 업적과 정치적 성향이 확고하게 공인받아 1744년 문묘에 배향되었다. 이후 송시열을 배향하는 서원과 영당이 증가하면서 초상에 대한 이모와 확산이 지속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송시열 초상을 비롯한 문인 초상화가 지속적으로 양산되었다.

현전하는 송시열의 초상은 20여 점으로, 단일 인물의 초상으로는 가장 많은 수

량에 해당된다. 『송자대전부록(宋子大全附錄)』의 「연보(年譜)」에는 송시열 생전에 3점의 초상화가 제작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시각(韓時覺, 1621~?)이 그린 77세 진영본, 문인 김진규(金鎭圭, 1658-1716)가 초를 잡고 화사가 그린 영정, 김창업(金昌業, 1658-1721)이 초를 잡고 화사가 옮겨 그린 영정이 그러하다. 세 번째 사례가 바로 황강영당 정본과 연관된, 23세의 김창업이 74세의 송시열을 그린 초본으로 판단된다.

송시열이 생전에 고관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초상화는 관복이 아닌 심의(深衣)의 야복 차림으로 제작되었다. 이것은 그가 조선후기 문사들에게 주자를 존중한 산림(山林)의 영수이자 주자학의 대가로 인식되었음을 알려주는 증거다. 현존하는 송시열 초상의 정본들은 모두 좌안칠분면(左顔七分面)을 취하고 있다. 김창업이 그렸다는 초상 초본(국립청주박물관)과, 김진규가 그린 초상 초본(국립청주박물관)도 그러하다. 다수의 송시열 초상 가운데, 국보 239호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정본과 황강영당 정본 등이 손꼽히는 수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황강영당 정본의 제작 경위와 시기 등을 규명하기 위해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의 〈송시열 초상〉을 살펴본다. 우선 리움 정본의 화면 오른쪽에는 “후학안동김창업 부호군진재해모(後學安東金昌業 副護軍 秦再奚摹)”가 적혀 있다. 즉 “송시열의 후학 안동 김씨 창업이 그린 것을 부호군 진재해(秦再奚, 1691-1769)가 모사했다”는 것이다. 진재해는 숙종과 경종, 영조 연간에 활동한 어진화사다. 1713년 숙종 어진 제작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주요 노론 인사들에게 초상화가로서의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되었다. 따라서 송시열을 존송하는 노론계 문인들이 진재해에게 김창업이 그린 송시열 초상을 모사하도록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진재해는 1713년에 숙종어진 제작에 참여한 공으로 부호군(副護軍)에 제수되어 1718년 12월까지 복무하였다. 리움 정본 화제에 ‘부호군’이라고 적혀 있어 이 초상화가 1713년에서 1718년 사이에 제작되었음을 알려준다.

리움 정본은 황강영당 정본과 달리 송시열이 복건을 쓰고 있지만, 전체적인 표현 방식은 매우 유사하다. 먼저 작품 상단에 ‘우암 송선생 칠십사세진(尤庵宋先生七十四歲眞)’이라고 쓴 화제의 서체는 황강영당 정본 상단에 적힌 화제의 서체와 동일하다. 이는 1719년에 제작된 《기사계첩(耆社稊帖)》 기로신의 초상화 상단에 적힌 화제의 전서체와도 유사하여, 황강영당 정본 역시 리움 정본과 마찬가지로 18세기 초반 진재해에 의해 제작되었음을 알려준다. 즉 두 작품 모두 「연보」에 적힌 “김창업이 초한 것을 화사가 옮겨 그린 것이다”라는 기록을 입증하는 사례인 셈이다.

2) 미술사적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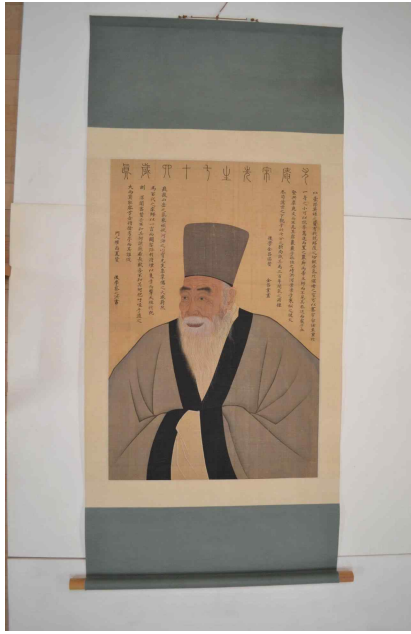
황강영당 정본이 지닌 미술사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송시열은 18세기 이후 노론 문인들의 학문과 사상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유학자였다. 관복이 아닌 야복 차림의 송시열 초상은 주자를 추종하는 학문적 성향과 그 권위를 드러내는 표상이 되어 꾸준히 제작되었다. 송시열 초상이 17세기 후반-20세기까지 전개된 야복 초상의 시작점이 된 것이다. 중국의 고대 복식에서 유래한 심의의 형식을 둘러싸고 노론과 남인들의 학문적 해석이 달랐고, 이러한 견해가 초상화 제작에 고스란히 반영되기도 했다. 이렇듯 송시열 초상은 18세기 후반 노론 문인들의 사상과 정치성의 상징물로 인식되며 이후 제작되는 문인 초상화에 범본으로 자리 잡았다.

황강영당 정본에서 발견되는 탄력과 기운을 겸비한 필선, 그윽하지만 맑은 채색법, 간결하면서도 강인한 느낌을 선사하는 구도는 송시열의 깊은 학문 세계와 강직한 정신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국보 제239호로 지정된 국립중앙박물관 정본과 더불어 전신사조(傳神寫照)가 가장 잘 드러난 송시열 초상인 셈이다. 그리하여 황강영당 정본은 송시열 초상의 초본을 따라 그린 모본에서부터 후대 작품에 이르기까지, 동일 인물 초상화의 변화 양상과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 참고문헌

- 심경보, 「조선 후기 深衣 肖像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4
- 이성훈, 「조선 후기 사대부 초상화의 제작 및 봉안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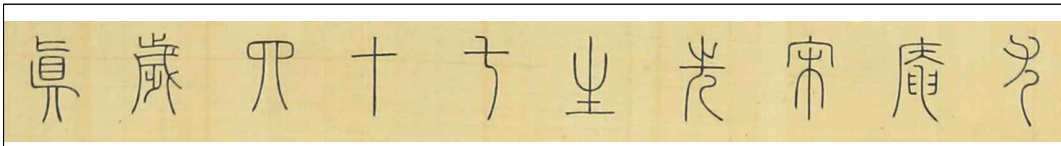
<참고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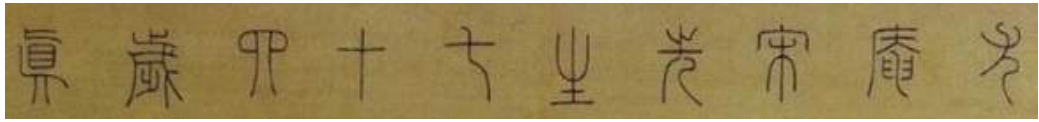
도 1. 김창업 초, 진채해 필(추정), <송시열 초상 정본>, 18세기 초, 비단에 색, 92.5×62.0cm, 황강영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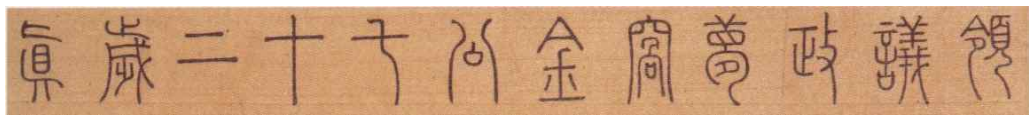
도 2. 김창업 초, 진채해 필, <송시열 초상 정본>, 18세기 초, 비단에 색, 97×60.3cm, 삼성미술관 Le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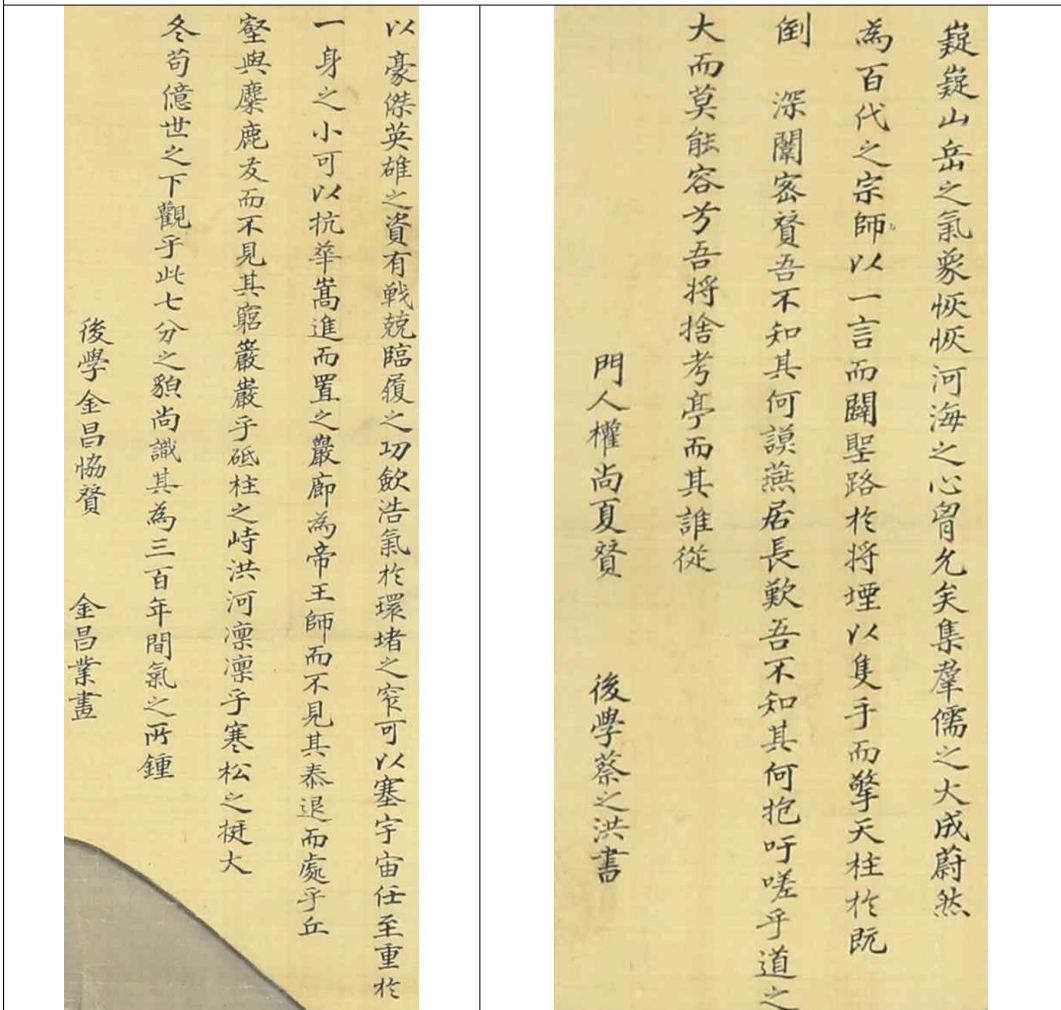
도 1. 황강영당 정본 화제



도 2. 리움 정본 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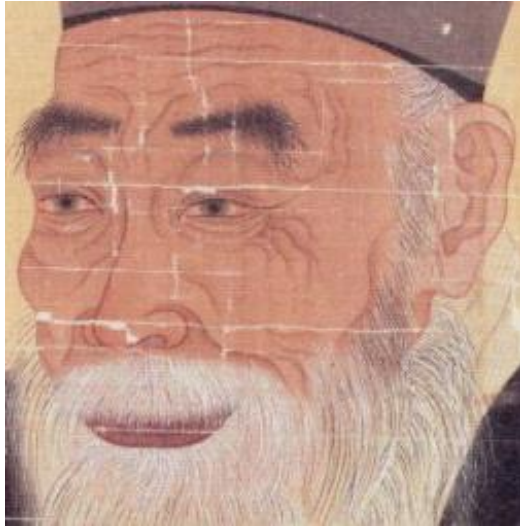


도 3. 《기사계첩》, <김창집 초상> 화제, 17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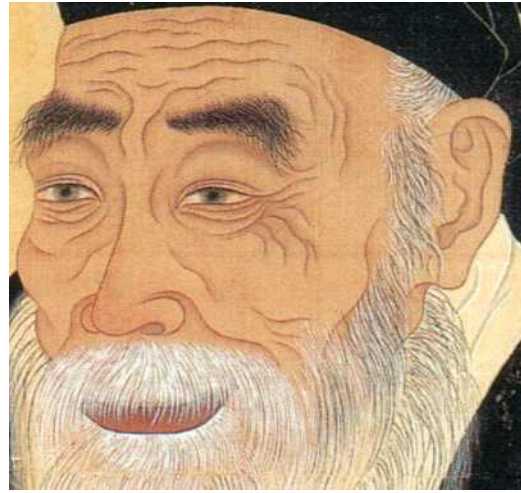


도 1. 김창업 초, 진재해 필(추정), <송시열 초상>부분, 김창협 화상찬

도 1. 김창업 초, 진재해 필(추정), <송시열 초상>부분, 권상하 화상찬



도 1. 김창업 초, 진재해 필(추정), <송시열 초상> (황강영당본) 부분, 얼굴 세부



도 2. 김창업 초, 진재해 필, <송시열 초상> (리움 소장본) 부분, 얼굴 세부



도 4. 김창업, <송시열 초상 초본>



도 5. 작가미상, <송시열 초상>, 조선후기, 비단에 색, 89.7×67.6cm, 국보 제239호, 국립중앙박물관.

검 토 사 항

Ⅲ.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안건번호 동산 2021-03-005

5. 보물 고령 장기리 암각화 (高靈 場基里 岩刻畵)

가. 검토사항

‘보물 고령 장기리 암각화’의 국보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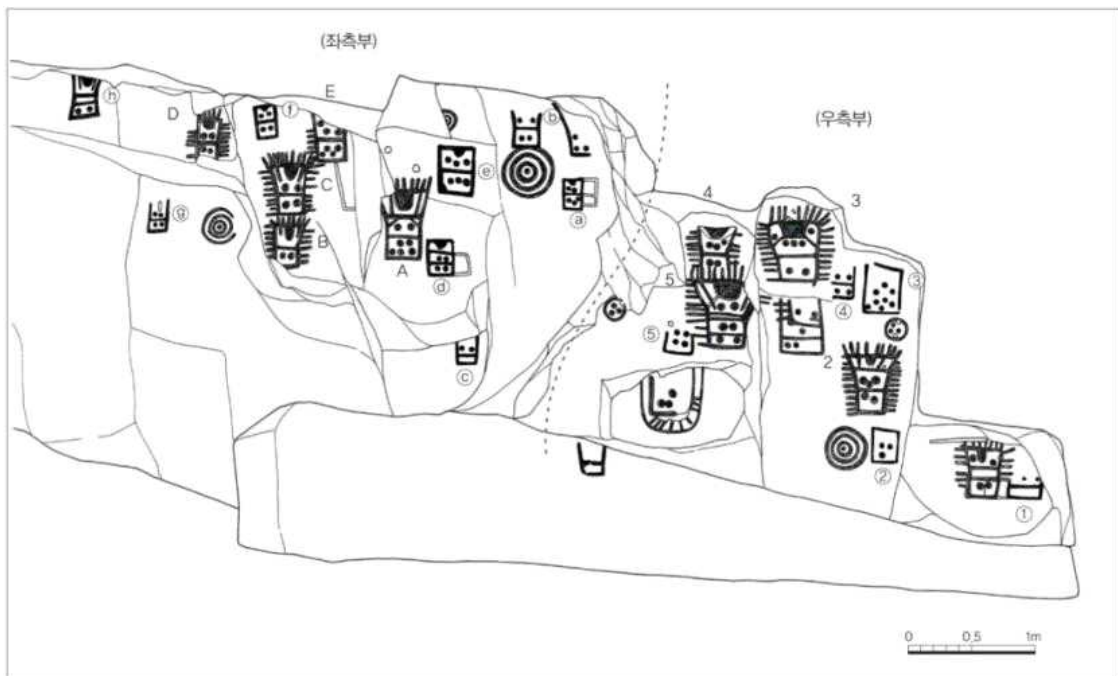
- 경상북도지사로부터 보물 ‘고령 장기리 암각화’에 대하여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신청(19.3.27.)이 있어 관계 전문가 조사(21.4.15.)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보물 제605호(1976. 8. 6.)
- 명 칭 : 고령 장기리 암각화(高靈 場基里 岩刻畵)
- 소유자(관리자) : 국유(고령군)
- 소재지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아래알터길 15-5(장기리532)
- 수 량 : 1기
- 규 격 : 높이 3.0m, 폭 6.0m
- 재 질 : 화강암
- 조성연대 : 청동기 시대~초기 철기시대
- 보호구역 : 987.6m²(지정구역 120.4m²)



<고령 장기리 암각화(보물 제605호)>



<고령 장기리 암각화 문양 도면>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보류)

고령 장기리 암각화는 과거에 양전동 암각화로 불리면서 지산동고분군과 함께 고

령을 대표하는 선사-고대 유적 중 하나이다. 한반도의 암각화는 유라시아 암각화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 중 하나인데 청동기시대에 가장 성행하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유적은 울산 반구대와 천전리, 그리고 이번 대상이 되는 장기리의 암각화이다.

반구대의 암각화가 다양한 주제와 오랜 시간에 걸쳐 조성된 데 비하여 장기리의 경우는 시간폭이 그리 넓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며 암각화의 내용은 상징성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점이 오히려 한반도 암각화의 종류와 내용을 풍부하게 해 준다는 측면이 있어서 학술적인 가치가 낮지 않다. 특히 검과형 문양이 중심을 이루는 일군의 암각화군 중에서는 규모나 보존 상태가 가장 좋다고 평가된다.

장기리 암각화의 보존 상태와 주변 경관은 최상의 상태는 아니지만 유적의 보존에 위협이 될 만한 상황은 아니다. 다만 보존을 위하여 설치한 보호시설이 오히려 유적의 경관을 해치고 무거운 하중으로 암반을 누르고 있어서 철거하고 새로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조건을 고려할 때 고령 장기리의 암각화는 국보로 승격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미흡한 점이 발견된다. 연구자 간에도 조성 시기 및 성격, 암각화의 의미, 역사적 가치 등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본 것도 아니다. 따라서 선부른 국보 승격 논의보다는, 유적의 보존과 관리에 더 주력하고, 학술적인 의미에 대한 연구가 진척된 후 재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보류)

고령 장기리 암각화는 천전리 암각화나 반구대 암각화와는 다른 결에 놓여 있는 검과형암각화의 대표 주자로, 이 계통 암각화중 최대 규모와 내용을 자랑하는 암각화임에는 틀림없다. 장기리 암각화의 제작 시기는 대략 청동기시대에서 초기철기시대로 편년되며, 이 시기 이 지역에서 생활을 영위했던 사람들의 생활의례와 意識의 구조를 상징성 강한 그림언어로 도해한 것으로서 선사시대 사람들의 삶과 사상, 세계관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들은 생명수가 흐르는 강변에 모여 태양을 향해 다산과 풍요를 기원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태양과 강은 고대인들의 생명과 번영과 직결되기 때문에 태양과 물이 접하는 장기리 바위는 암각화가 새기기 전부터 신성하게 여겨졌던 장소였을 것이다. 그래서 천변의 잘생긴 바위에 그들이 신앙했던 내용을 고대인의 상징화된 그림언어로 풀어내었기에 정확한 해독에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분명한 것은 선사시대의 종교, 사상, 문화, 미의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데 이만한 자료는 없다. 또한 이곳은 선사시대 이후 대가야 건국신화와 연결되는 역사적인 신성장소로, 대가야 초기 정치집단의 성격

과 문화를 연구하는데도 의미 있는 유적이다.

다만 유적의 성격과 조성시기 문제에 대해 아직도 학자간의 의견이 분분하고, 새겨진 도상에 대한 해석도 학자마다 조금씩 결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통설에 이를만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해당 암각화를 둘러싸고 시기판단의 준거로 삼을 수 있는 고고학적 자료 확보를 위해 암각화 주변에 대한 시·발굴 조사가 필요하다. 장기리 암각화는 이미 보물로서의 보존관리 되고 있으므로, 보존 관리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치와 활용성 증대를 위해 국보로 승격 지정이 필요하다면 암각화의 주변지역에서 시·발굴을 통한 암각화의 제작시기와 성격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고고학적 자료 확보가 필요하고, 더불어 응색하게 들어 선 보호각과 암각화의 경관과 보존을 저해하고 있는 주변의 환경 정비와 개선이 필요하다.

○(보류)

고령 장기리 암각화는 우리나라에서 울주 천전리 암각화(1970년 발견)에 이어 1971년에 두 번째로 발견된 유적이다. 이 암각화는 주변 사람들에게 ‘알터’로 불렸고, 마을 명도 알터마을이다. 예부터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오늘날까지 신성한 공간으로 이어져 왔던 문화유산으로 그 가치는 매우 크다 할 것이다. 암각화의 입지는 넓은 평지가 있는 하천변의 바위 절벽으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입지이다. 국보로 지정된 울주 천전리 각석(국보 제147호)과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국보 제285호)가 좁은 계곡에 입지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암각화에 표현된 내용은 58점(혹은 59점)의 암각 중 검과형 암각화 37점, 동심원문 4점, 원문 3점 등 44점으로 도식적이고 추상적인 암각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암각들은 각각 조형미를 갖추고 있어 예술적 가치도 엿볼 수 있다. 또한 암각 제작 수법은 폭 1cm 내외의 선각으로 쪼아파기와 갈아파기로 새긴 것이다. 이런 암각 내용과 수법은 위 국보로 지정된 것과는 차이가 크다. 울주 천전리 각석은 기하학 문양이나 후대의 세선 선각도 있으며,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는 인물과 동물 등 사실적인 암각들이 주이며 선각과 함께 면각도 많은 암각화이다. 위의 두 암각화들은 각기 독창적인 내용으로 다른 암각화에서는 볼 수 없는 암각화이라면 고령 장기리 암각화는 한반도 동남부지역에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검과문 암각화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암각 내용이나 입지 등에서 앞의 두 국보 지정 암각화과는 차별화되어 있고, 보편적인 입지와 광범위한 검과문 암각화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국보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완전성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일부 암각들이 훼손된 곳도 있지만 암각면의 균열과 박락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한 대책이 마련

되어야 한다. 현 보호각은 암각화 유적에 대해 손상을 입힐 염려가 있기 때문에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변의 민가와 함께 암벽 윗부분의 담장과 토사 등을 제거하고 더 넓은 암반층을 노출하여 당시의 경관을 최대한 복원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암각의 흔적을 확인하는 작업도 병행하였으면 한다. 암벽 주변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가 필요하다. 이는 암각화 유적의 성격에 대해 암각화 제작 시기나 제의 공간에 대해 실증적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 장기리 암각화는 우리나라 추상적인 암각화를 대표하는 유적이라는 점에 대해 동의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사유를 보완해 완전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국보로 지정하는 것을 보류했으면 한다.

○ (보류)

고령 장기리 암각화는 한국 암각화에 있어 최초의 학술적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진 유적이며, 한국 선사문화 연구의 영역을 물질계를 넘어 정신계까지 확장하여 학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주 문양인 장방형의 문양단위(소위 검파형문양)는 한반도라는 지역적 공간에서 내재적으로 발생하여 발전과정을 보이는 고유한 표현 형태로써 세계 각국의 여러 암각화에서도 유사한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문양이다.

이 유적의 발견과 보고는 이후 영호남 일원에서 동일한 모티프의 문양단위를 보여주는 암각화 유적을 속속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장기리암각화로 대표되는 ‘양전동형암각화(소위 검파형암각화)’ 가운데는 전라북도 남원 대곡리암각화, 경상북도 영주 가흥리암각화, 영일 칠포리암각화군, 영천 보성리암각화 등 시도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경우도 있고, 경주 석장동암각화와 고령 안화리암각화 처럼 시도기념물로 지정된 경우와 경주 안심리암각화처럼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어 보호되는 것이 있다. 장기리암각화는 ‘한국형암각화’로서 동일 유형의 암각화유적 중 조형 예술적 완성도가 가장 높아 이러한 유형의 암각화를 대표하며 선사시대 신앙의 성격과 제의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사료로서 탁월한 가치를 갖는다.

암각화 유적에 대한 문화재 지정 여부의 관점에서 본다면, 국보 제147호로 지정된 울주 천전리각석과 국보 제285호로 지정된 울주 대곡리 반구대암각화, 보물 제605호인 고령 장기리암각화를 제외하면 9건의 지방지정문화재가 있다. 이 가운데 전북 임실의 상가웃판형 암각화유적과 경북 안동의 수곡리암각화를 제외한 7건이 모두 장기리암각화와 같은 형식의 암각유적이다.

이상과 같이 학술적, 연구사적, 조형 예술적 측면 등 다양한 관점에서 볼 때 장기리암각화를 국보로 승격시켜 동일유형의 암각화 문화에 대한 대표성을 부각하고 그 상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이와 함께 ‘울주 대곡리

반구대암각화'처럼 처음 발견당시의 유적명칭이자 이미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고유한 전통지명을 살린 '고령 양전리 알터암각화'로 문화재명칭을 환원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처럼 장기리암각화는 국보로의 승격을 위한 충분한 가치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류의 암각화를 대표한다는 측면에서 학술적 근거의 충실한 보완과 보호관리 시설의 개선 및 정비가 요구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자면 가면형, 신면형, 패형, 방패형, 검파형 등 연구자별로 다양한 불리는 암각화의 문양명칭과, 청동기시대로부터 원삼국시대까지 그 조성연대에 대한 분분한 견해는 학술행사 등을 통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적지 주변의 고고학적 보완조사를 통해 암각유적의 조성연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고고학적 자료의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현재의 유적 보호각에 대한 존치 여부나 개선방안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아울러 주변 지형과 식생 등 자연환경과 함께 마을, 공단, 도로, 제방 등 인문환경을 고려한 장기적 보존대책의 수립도 요구된다.

요컨대 장기리암각화는 국보 승격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충분하나 시급히 승격을 추진하는 것 보다는 앞서 언급한 몇 가지 보완과 절차를 충실히 거쳐 그 결과를 토대로 안정적으로 승격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 (보류)

고령 장기리 암각화는 소위 검파형이라는 불리는 독특한 문양이 중심을 이루는 청동기시대 농경의례와 관련된 유적이다. 유적의 구체적인 성격과 형성시기, 검파형의 의미 등은 연구자간에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검파형 문양은 석검의 손잡이를 이미지화 한 것으로 추정되며 청동기시대 생업의례의 일환으로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장기리 암각화는 울산 천전리 암각화와 더불어 역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유적의 보존상태와 조형적인 측면에서 완성도가 가장 높다. 특히 검파형이라는 독특한 문양은 한반도 주변지역의 암각화 유적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형식적 차별성과 한반도 내에서 영남지역에서만 발견되는 지역적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한국 청동기시대 암각화의 전형성을 보여 준다. 그뿐만 아니라 청동기시대 암각화 중에서 가장 먼저 발견되고 한국암각화 연구사에서 차지하는 학술적 비중과 문화유산적 측면에서 본다면 장기리 암각화는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하여 보호, 관리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하여 보존 관리되고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연구자간에 논의가 분분한 유적의 성격과 시대에 대한 어느 정도 통일된 의견 도출이 필요하다. 특히 유적 성격을 기우제와 대가야 설화 등과 관련시키거

나 특정 고대 정치집단과의 연관성도 제기되는 점 등 다소 주관적이고 합리성이 결여된 피상적인 추론으로 규정되고 있는 점은 추가 학술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유적 성격과 조성시기 문제 등은 앞으로 추가 연구를 통해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합의된 의견 도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심도 있는 학술연구뿐만 아니라 유적의 조성시기와 성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명확히 하기 위해 유적의 전방부를 비롯한 주변 지역에 대한 시·발굴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암각화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보호막 시설물과 보호막의 기둥을 받치는 주춧돌이 암각화의 암면에 설치되어 있는 점 그리고 주변 담장 등은 유적 경관을 저해 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향후 유적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적의 안전한 보존 관리와 유적 경관 확보를 위한 개선 대책이 요구된다.

장기리 암각화의 국보승격 건은 상기한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해소, 보완된 후 국보 지정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현 시점에서는 국보승격을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보류: 추가조사 필요

조사보고서

□

○ 형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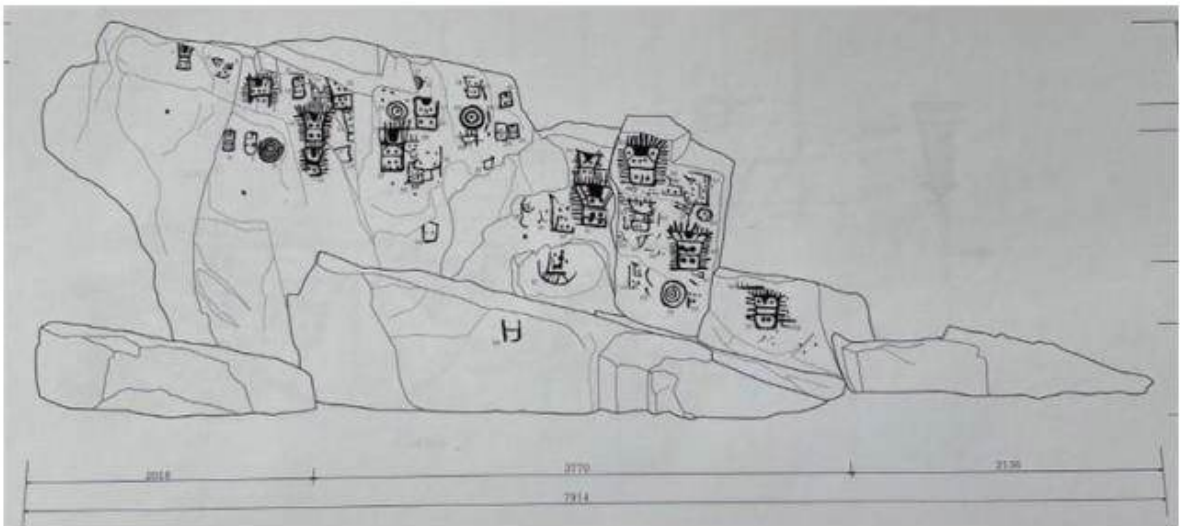
장기리(과거 양전동이라 불림)에 소재한 암각화는 검과형, 동심원문 등의 다양한 문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주류는 검과형인데 그 의미에 대해서는 인체, 혹은 방패를 표현한 것이란 설이 유력하다. 이러한 형태의 암각화는 울산 반구대나 천전리와는 약간 다른 내용으로서 한반도 암각화의 계보가 단일하지 않음을 잘 보여준다. 주로 고령 안회리, 포항 칠포리, 경주 석장동, 인심리, 영천 보성리, 영주 가흥동 등 영남지역에서 자주 발견된다. 그 시기는 청동기시대일 가능성이 높다.



<그림 1> 고령 장기리 암각화 3D 스캔 이미지

○ 조성연대

암각화의 조성 연대는 그 자체로서는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견해가 제출되게 마련이다. 장기리의 경우는 청동기시대로 보는 견해가 가장 유력하다. 그 이유는 검과형의 문양이 청동기시대 마제석검의 손잡이 부분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칼 손잡이는 초기철기 시대-원삼국 초기에도 존재하므로 그 하한이 약간 내려올 가능성은 있다.



<그림 2> 고령 장기리 암각화의 내용

○ 현 상

장기리암각화는 대가천과 안림천이 합류하여 회천을 이루는 장기리 알터마을 입구에 위치한다. 주변에는 청동기시대, 삼국시대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암각화는 수직에 가깝게 서 있는 암면에 검파형문, 동시원문 등을 새겼다. 오랜 시간 일광과 바람, 비 등에 노출된 결과 부분적으로 변색된 부분이 있고, 표면의 박락이 진행되는 부분도 있다.

○ 내용 및 특징

암각화를 구성하는 문양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점도 없지 않으나 검파형이 최다수(37점)를 이루고, 이외에 동심원문(4점), 원문(3점), 회오리문(1)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장기리 암각화를 상징하는 것은 검파형문이라고 할 수 있다.

검파형문이 주류를 이루는 한바도의 암각화 중에서는 장기리 유적이 처음이란 점에서 학술적인 의미가 높다. 이러한 형태의 암각화는 고령 안회리, 포항 칠포리, 경주 석장동, 인심리, 영천 보성리, 영주 가흥동, 남원 대곡리 등에서도 확인된다. 검파문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나올 수 있으나 청동기시대를 중심으로 한 한국 선사문화의 제의와 상징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림 3> 고령 장기리 암각화 보호시설 현황

○ 문헌자료

한국역사민속학회, 1996, 『고령의 암각유적』, 한길사.

대가야박물관, 2008, 『고령의 암각유적』.

울산대학교 반구대암각화유적보존연구소, 2016, 『한국의 검파형암각화』.

울산대학교 반구대암각화유적보존연구소, 2017, 『고령 장기리암각화의 재인식과 재평가』.

고령군, 2017, 『고령 장기리암각화 국보 승격을 위한 학술용역 - 결과보고서-』.

경상북도 고령군, 2018, 『고령 장기리 암각화 정밀실측조사보고서』.

고령군, 2019, 『대가야의 숨결이 살아있는 고령의 문화유산』.

○ 기 타

최초 발견된 1971년 이후 양전동 알터, 양전리 암각화 등으로 명명되었으나 그 후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하여 현재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이런 까닭에 학계나 일반시민들에게 혼동을 주는 경우가 있으며 아직도 알터 암각화를 더 친숙하게 느끼는 연구자들도 적지 않은 현실이다.

□

고령군 아래알터길 15-59(대가야읍 장기리 532)에 소재하고 있다. 이 암각화는 1970년 울주 천전리 암각화에 이어 1971년 1월 국내 두 번째로 발견된 암각화 유적이다. 발견된 이후 학술조사를 거쳐 1976년 8월 6일 고령 양전동 암각화라는 명칭으로 보물 제605호로 지정되었다. 최근까지 발견당시의 소재지의 이름을 따 양전동 암각화로 명명되어 왔으나, 문화재가 소재한 곳이 행정구역상 장기리로 편입되어 소재명에 따라 지정명칭이 부여되는 지정명칭 개선작업에 따라 2010년 12월 27일 ‘고령 장기리 암각화’로 변경되었다.

이 암각화는 낙동강의 지류인 회천에 잇닿아 있었으나 암각화 전방에 제방이 축조되면서 물길이 바뀌어 현재는 회천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암각화 뒤편에는 낮은 산이 임하고 있고 주변으로도 민가와 마을이 자리하고 있다. 암각화의 앞쪽으로는 최근에 마련된 넓은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다. 이곳은 대가야 건국신화와 관련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제의가 이루어지던 곳, 즉 알터 마을로 대대로 전승되어 오던 역사적인 장소이다.



그림 1. 고령 장기리 암각화 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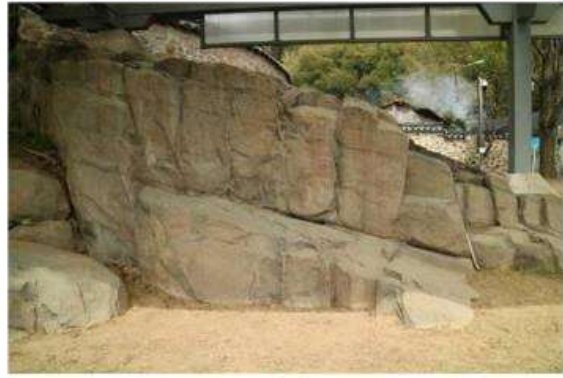


그림 2. 고령 장기리 암각화 근경

고령 장기리 암각화는 회천변의 바위 면에 새겨진 암각화로 강안 암각화의 입지 유형에 해당한다. 고령 지역에는 이 장기리 암각화 외에도 장기리 암각화 북쪽 4km정도 떨어진 대가천변에 조성된 봉평리 암각화와 회천의 또 다른 지류인 안림천변의 안화리 암각화가 있어, 하천을 끼고 동시기 유사한 형태의 암각화가 조성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강변에 조성된 이른바 ‘강안 암각화’는 울주 천전리 암각화, 울주 반구대 암각화, 경주 석장동 암각화, 군위 수서리 암각화 등이 있다.

○ **고령 장기리 암각화의 조성 시기**는 대체로 청동기시대에서 초기철기로 추정되고 있다. 고령지역의 선사시대는 구석기시대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인류가 삶을 영위 해왔던 곳으로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 입증된다. 대표적인 구석기유적으로는 다산 상곡리유적, 개진 구곡리 유적, 개진 반운리 유적 등이 있으며, 신석기 유적은 아직까지 많은 유적과 유물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최근 성산면 박곡리 고령산업단지에서 신석기시대의 즐문토기와 출토되어 신석기시대에도 역사의 숨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신석기시대의 빈약한 자료에 비해 청동기시대와 철기시대 이곳에서 활동한 선사인들의 흔적은 쉽게 찾을 수 있다. 이 시기 선사인들이 활동하며 만들어 낸 것들은 여러 곳에서 확인되는 지석묘와 입석, 장기리 암각화와 안화리 암각화, 지산리 30호분의 덧개돌의 암각화 많은 유적들이 확인된다. 이와같이 고령 지역은 구석기시대부터 신석기와 청동기를 거쳐 철기시대까지 선사인들이 삶의 터전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고령 장기리 암각화는 당시 사람들의 사상과 사유 체계를 풀이하는데 가장 풍부한 내용을 표현하고 있어 중요하고, 그와 더불어 분명하지만 추상적으로 도해한 도상은 언뜻 무질서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 질서와 규범도 엿볼 수 있어 당시의 시대상과 미의식을 탐구하는데 더 없이 좋은 자료이다. 그 중 고령 장기리 암각화는 동일한 도

상과 패턴을 가진 암각화 중에서 최대 규모와 내용을 자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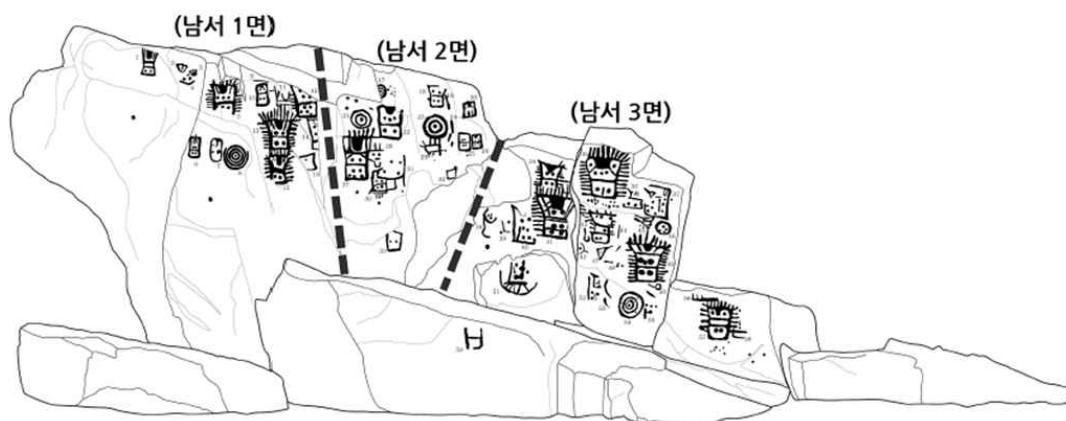


그림3. 장기리 암각화 실측도(고령장기리암각화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8)

암각화는 남서방향으로 직립한 넓은 암벽면에 새겨 졌는데, 크게 세 개의 구획에 걸쳐 크고 작은 몇 가지 도상을 반복된 모양이지만, 위치와 구성 세부 표현에서 차이가 있다. 고령 장기리 암각화에 새겨진 세부 문양의 종류와 수는 검파형문 38점, 동심원문 5점, 원문 3점, 여성 성기형문 2점, 동물 발자국문 1점, 다공문 1점, 선각문 5점, 미상 4점으로 총 59점이 새겨져 있다. 우측면(남서1면)은 16점의 도상이 확인되는데 검파형문이 12점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동심원문 1점도 확인된다. 중앙면(남서2면)에 새겨진 도상은 17점이며, 그 중 검파형문이 12점, 3중의 동심원문이 3점이 확인된다. 좌측면(남서3면)은 26점의 도상이 확인되며, 검파형문이 14점, 동심원문 1점, 여성 성기형문 1점 등이 확인된다. 이들 중 가장 두드러진 도상은 검파형문과 동심원문이며, 도상간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만 어떠한 서사적인 구조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향후 풀어내야할 과제로 남아 있다. 검파형문은 단순한 방형과 장방형, 도끼형 등 비교적 다양한 형태를 띠며, 동심원문도 원을 돌린 겹 수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다.

○ **검파형문**은 방형 또는 장방형, 가운데 부분인 약간 잘록하고 윗면이 도끼형으로 구분된다. 이를 기본으로 해서 다시 몸체의 좌우와 상단에 깃털을 새겨 넣은 것과 새겨 넣지 않은 것으로 구분된다. 이것이 검파형문의 기본형식이 되는데, 이 기본 형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표현방식이 등장한다. 즉 몸체의 상단부에 홈을 새긴 것과 새기지 않은 것이 등장하고, 여기에 허리부분에 분할선을 넣거나 넣지 않거나 하기도 한다. 분할선을 경계로 성혈(구멍)을 새겨 넣은 것과 넣지 않거나 하여 다양한 검파형문을 만들어 내었다. 크게 검파형문은 같은 계통이지만 크기와 세부 의장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는 위계와 질서, 역할, 새겨진 시간과

시점의 차이 등이 반영되었을 것이다. 문양의 중첩관계와 유물의 진화론적 발전과정 상에서 살펴본다면, 단순한 문양에서 복잡하고 화려한 문양으로 발전한 것으로 추정되며, 동심원문과 점과형문의 선후 관계는 장기리 암각화의 중앙 면을 기준으로 볼 때 동심원문이 먼저 출현하고 점과형문이 등장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는 장기리 암각화 뿐만 아니라 인근 안화리 암각화에서도 동일한 양상으로 등장한다. 다만 가장 화려하고 복잡한 'II4형식'의 점과형문은 장기리 암각화에서만 확인된다.

포항 칠포리 암각화 역시 고령 장기리 암각화의 표현양상과 유사하지만, 장기리 암각화에서 보이는 깃털이 새겨진 점과형문은 확인되지 않는다. 영천 보성리 암각화에서는 이마에 V자 홈을 파고 깃털이 달린 점과형문이 다수 확인되었고, 군위 수서리 암각화에서는 점과형의 이마에 U자형 홈을 파고 깃털이 없으며, 남원 대곡리는 깃털과 이마에 V홈이 새겨진 형식의 점과형문이 확인된다.

고령 장기리 암각화는 다른 지역에서 발견된 암각화들과 시대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도상이 등장하고, 표현력도 풍부하고 뛰어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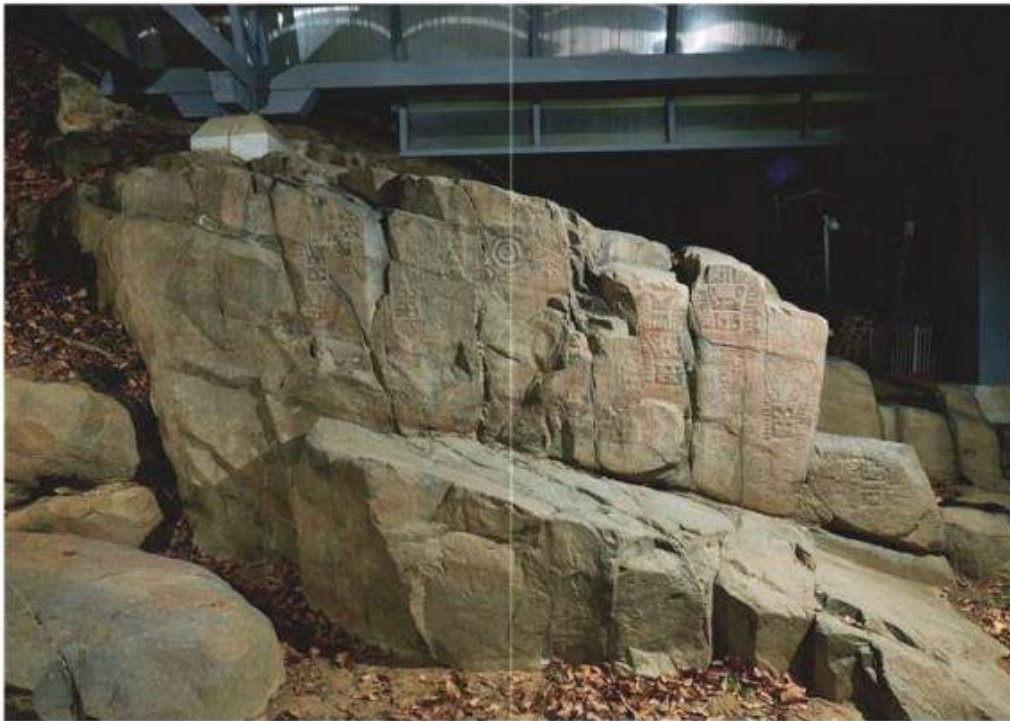


그림4. 장기리 암각화 세부(우측면) 그림5. 장기리 암각화 세부(좌측면)

점과형문의 형식과 세부 속성에 따라 형식을 구분하면 표1과 같다.

형식	속성 1	속성 2	속성 3
I : 깃털이 없는 단순형	1식 : 상변 중앙부에 홈(면새김)이 없는 것	ii식 : 내부에 분할선이 없는 것	a : 내부에 성혈이 없는것
	2식 : 상변 중앙부에 V자형 홈이 단순형으로 있는 것	ii식 : 내부가 2분할 된 것	
II: 깃털이 있는 형	3식 : 상변 중앙부에 U자형의 홈이 단순형으로 있는 것	iii식: 내부가 3분할 이상 된 것	b : 분할된 내부에 성혈이 있는 것
	4식: 상변 외곽 중앙부의 U자형의 홈(면새김) 좌우에 별도의 선이 추가된 것		

동심원문은 3-4겹으로 중첩된 모양인데, 태양빛이 퍼져나가는 형상이다. 동심원문은 검과형문 군락 사이사이에 등장하므로 검과형문과의 상호 관련성을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마도 제작 당시의 어떠한 종교적 의식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령 장기리 암각화의 검과형과 동심원 도상이 동시에 등장하는 암각화는 장기리 암각화에서 상류 쪽 3km가량 떨어진 안림천변에 위치한 안화리 암각화가 있다. 안화리 암각화는 1993년과 1994년 두 지점에서 발견되었는데, 1지점에 7개, 2지점에 10개의 암각이 확인되었다. 표현된 도상은 검과형 16개, 동심원 1개로 구성되어 있어 장기리 암각화보다 단순한 구성을 보이지만, 검과형 내부에서 ‘十’자형 분할선이 확인되는 점이 장기리 암각화의 그것과 구별된다. 한편 고령 지산동 30호분에서 암각화가 발견되었다. 이 암각화는 주석실 덮개돌과 하부석곽 덮개돌에서 확인된다. 내용은 주 석실 덮개돌에 검과형 암각 1개가 새겨져 있으며, 하부석곽 덮개돌에는 추정인물형 2개, 별자리형 1개, 성혈 30개 등이 확인된다. 이 암각화는 고분 축조 시 매장의례와 관련하여 제작된 암각화가 아니라 주변의 암각화를 채석하여 덮개돌로 활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들 암각화의 사실성이 강한 화강암 계통의 암질과 검과형과 동심원 도상 등을 통해 볼 때 장기리 암각화를 새겼던 집단과 같은 집단에 의해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도상의 분포 양상은 크게 3개의 군락으로 구획된다. 검과형문이 도상이 집중되어 있고, 검과형 도상 군락에 동심원 도상이 하나씩 끼여 있는 양상이다. 검과형문에 대해서는 이은창은 귀면, 가면, 혹은 인면으로, 동심원문은 태양으로 해석하였다. 그리하여 장기리 암각화는 선사시대 농경인의 소산이며, 태양신을 신앙하던 제단으로 해석하였다. 김원룡은 검과형문을 神面으로, 내면의 성혈은 중국의 도출문과 같이 벽사의 기능을 하는 눈을 표현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후 종족이나 부족

을 상징하는 문장과 같은 표식이라는 견해, 방패와 갑옷을 형상화한 그림, 불안정한 사회를 반영한 신상으로서 방패형 암각화라는 명칭도 제시되었다. 송화섭은 동심원문을 태양으로, 검과형문을 태양에 대한 대지(토지)의 문양으로 보아 관념상 지모신·여성신상 문양으로 해석하고, 청동기시대 농경민들의 주술적인 기원행위로 풀이하였다. 정동찬은 동심원문을 생명과 풍요의 상징인 비와 물을 나타내는 그림으로, 가면은 남자 인물상으로 파악하고 암각화는 제의과정에 대한 그림 언어로 판단하였다. 이상길은 인면이 제의와 관련된 사면의 身體 또는 형상화된 神으로 추정하고, 외형상의 특징에 착안하여 가슴에 착용하는 장신구에 착안하여 牌形岩刻이라는 안을 제시하였다. 어찌되었든 장거리 암각화의 암면에 새겨진 도상은 검과형의 가면을 쓴 많은 사람들이 태양(동심원)을 향해 풍요와 다산 등을 기원하는 의례를 진행하는 모습이 연상된다.

암각화에 표현된 주문양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지만, 대체로 검과형문 마제석검의 손잡이, 청동검의 검집이나 검과형 동기 모양을 모방한 것으로, 청동기시대 석검이나 동검을 형상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검과형문은 부족장이나 제사장의 권위와 주술적 힘을 담은 것으로 판단되고, 동심원문은 태양이나 하늘 등 초자연적인 힘(에너지)의 원천을 상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거리 암각화는 당시의 사람들이 풍요와 다산, 번영을 기원하며 거행한 제사의식을 당시 통용사람들에게 통용되던 그림 언어로 도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장거리 암각화의 제작 시기에 대해서는 청동기시대~초기철기시대 등으로 보고 있으나, 최근에는 청동기시대로 시대의 폭을 좁혀 잡고 있는 상황이다. 그 근거는 검과형 암각화가 농경을 생업기반으로 하는 집단의 소산물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장거리 암각화에서 主 문양으로 등장하는 검과형문, 동심원문 등은 농경이 본격화되는 청동기시대의 산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한편, 이곳 지명이 알터라는 것에 착안하여 난생설화와 관련하여 신성시되었던 제단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선사인들에게 신성시되었던 장소가 시대와 사람이 변한다고 해서 그 성격과 상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에 이 암각화를 제작했던 사람들이나 후세의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신성한 장소로 인식되었음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러한 바탕이 대가야 시조의 탄생 설화와 숨결이 이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이은창, 「고령 양전동 암각화 조사약보-석기와 암각화를 중심으로」, 『고고미술』 112, 1971.

이은창, 「고령 양전동 암각화」, 『한국의 암각화』 II, 울산암각화박물관, 2012.

『고령 장기리암각화 국보승격을 위한 학술용역』, 고령군, 2018.

『고령 장기리 암각화-정밀실측조사보고서』, 경상북도 고령군, 2018.

□

○ 형 식

한국의 암각화는 암각의 표현방법과 내용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울산 대곡리 암각화로 대표되는 사실적으로 표현된 암각화, 울산 천전리 암각화에서 보이는 기하학적 문양의 암각화, 고령 장기리 암각화로 대표되는 사람 얼굴이나 신상(神像)을 표현한 암각화 이외에 여수 오림동으로 대표되는 마제석검 암각화, 함안 도항리로 대표된 동심원문과 성혈 암각화 등이다.

고령 장기리 암각화는 낙동강 지류인 회천변의 수직 암벽을 이용해 각종 그림을 새겨놓은 유적이다. 암각화는 검과문, 동심원문, 원문, 회오리, 여성 성기, 동물 발자국, 다공문, 선각문 등이 새겨져 있다. 암각화 형태별 수량은 검과문 37점, 동심원문 4점, 원문 3점 등 44점으로 도식적이고 추상적인 암각화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이외 선각 6점, 회오리문 1점, 여성성기형 2점, 동물발자국형 1점, 다공문 1점, 미상 4점 등 총 58점에 이른다. 따라서 장기리 암각화는 주류를 이루는 검과문을 중심으로 암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조성연대

고령 장기리 암각화의 연대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들이 있지만 대체로 청동기시대에서 초기철기시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암각화의 연대 추정은 문양의 형태와 내용, 암각기법 등을 참고하여 여타 고고학적 상황과 비교 검토해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매우 난해하다 할 것이다. 청동기시대로 보는 측면은 검과문 암각화가 마제석검의 병부(손잡이)와 유사하다는 점, 청동기시대 대표적인 부장유물인 마제석검이 암각된 지석묘의 존재, 지석묘와 관련된 유구에서 동심원문이나 성혈이 발견된 점, 주변에서 청동기시대 유물이 다수 채집되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초기철기시대로 보는 견해는 검과문 암각화가 세형동검기의 검과형동기와 세형동검의 칼집 등과 유사한 점에 있다.

이와 같이 장기리 암각화 조성 시기에 대한 추론일 뿐 이를 뒷받침할 확실한 고고학적 자료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주변에서 수습된 청동기시대 유물도 암각화 유적과 직접적으로 연관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가능하다면 차후 암각화 앞부분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추론이지만 하천의 물길에 암각화에 인접한 것이라면 소(沼)가 형성되었을 것이다. 또 암각면을 제단으로 삼아 여기에서 제의 행위가 벌어졌다면 그와 관련된 유물이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 현 상

한국의 암각화는 입지에 따라 하천변의 수직 암벽에 새긴 암각화, 산기슭이나 정상부 바위 위에 새긴 암각화, 고고학적 유구와 관련된 암각화(지석묘, 입석, 고분 등)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 입지는 사람들의 생활공간에서 은밀하고 신성한 곳, 공간이 매우 협소한 지형에서 주변을 관망할 수 있는 곳, 특별한 공간으로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곳 등이다. 하천변 수직 암벽을 이용한 고령 장기리 암각화는 가장 많은 암각화 입지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암각화 유적이다.

고령 장기리 알터마을에 위치한 암각화는 강변 평지에 접한 수직 암벽에 새겨져 있다. 암각화 때문에 알터라는 지명이 유래된 것으로 보이며, 일반인들은 성혈(性穴, 흙구멍)을 알터, 알바위, 알구멍, 바위구멍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렀다. 이런 지명은 오래 전부터 암각화에 대해 알고 있었고, 신성한 곳으로 여겨져 왔음을 짐작케 한다. 주민들은 이곳을 천신과 산신이 교감해 알을 낳은 곳이라 하여 알터라 부른다고 한다. 난생설화와 관련되어 알에서 탄생한 사람이 나라를 세우거나 영웅으로 묘사되는 설화는 신라나 가야 등에 전해지는 설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고령 장기리 암각화는 낙동강의 지류에 해당되는 회천변의 구릉 말단부 암벽에 새겨져 있다. 이 암벽은 구릉 사면을 따라 비스듬하게 경사져 있고, 암각면은 남향의 수직 암벽면이다. 수직 암벽은 높이 3m에 길이 6m이며, 암각이 새겨진 면은 높이 1.5m에 길이 5m 범위이다.

기존의 수직과 수평의 균열이 나있는 상태인 암벽에 현재 보호각이 세워져 있고, 이로 인해 일부는 깨지거나 떨어져 나간 부분까지 있다. 암벽은 사암으로 절리가 잘 발달되어 있으며, 풍화나 인위적으로 쉽게 마모가 진행될 수 있는 석질이다. 그래서 암각면의 마모나 훼손의 위험성 등 제반 사항에 대한 근본적인 보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내용 및 특징

고령 장기리 암각화는 우리나라에서 널리 잘 알려진 대표적인 암각화 유적이다. 하천변의 수직 암벽에 길이 5m, 높이 1.5m의 범위에 다양한 문양이 새겨져 있다. 암각화를 구성하는 문양은 검과문 37점, 동심원문 4점, 원문 3점, 선각 6점, 회오리문 1점, 여성성기형 2점, 동물발자국형 1점, 다공문 1점, 미상 4점 등 총 59점에 이른다. 암벽의 수직면 위쪽과 이어지는 수평 암반에 지름 5-20cm 크기의 성혈 30 여개가 새겨져 있다. 이를 포함하면 90여 개의 암각이 새겨져 있다. 하지만 구릉 위쪽 토사에 묻혀진 곳까지 조사한다면 더 많은 암각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암각의 수량이나 배치 등으로 보아 장기리 암각화는 검과문 암각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검과문(검과형)은 석검의 손잡이와 유사하여 많은 학자들이 분류한 명칭이며, 신을 추상화한 것으로 보기도 하여 형태의 유사성과 추상적 상징 암각이라는 점에서 여러 명칭들이 혼재한다.

고령 장기리 암각화는 검과문의 분포와 배치로 보아 크게 3개군 구분할 수 있다.

중앙부는 2개의 동심원문과 함께 검파문 9개가 새겨져 있고, 그 왼쪽부분은 1개의 동심원문과 8개의 검파문이, 오른쪽은 1개의 동심원문과 11개의 검파문이 중심을 이루면서 배치되어 있다. 검파문은 동심원문을 중심으로 중앙과 좌우측 등 크게 3개의 소그룹을 이룬다. 장방형이 기본 형태이며, 이를 2-3단으로 구분하고, 그 안에 각각 2-3개의 성혈이 새겨져 있다. 반원이나 U자형의 이마 홈의 유무, 깃털의 유무 등에서 세분되기도 한다. 동심원문은 암벽 중앙 상단에 1개, 중앙 상단 왼쪽에 1개, 왼쪽 하단에 1개, 오른쪽 하단에 1개 등 모두 4개이다. 검파문 3그룹에서 중앙부만 2개이고, 나머지는 1개씩만 새겨져 있다.

고령 장기리 암각화는 중심이 되는 검파문(신상)을 비롯한 동심원문, 성혈 등은 도식적인 표현을 대표하고 있다. 넓은 지역에서 공통적인 특징으로 발견되는 검파문 암각은 고령 장기리를 비롯한 고령 인화리, 포항 칠포리, 영청 보성리, 경주 석장동과 안심리·상신리, 영주 가흥동, 남원 대곡리 등에서 발견되지만 남원 대곡리를 제외하면 경북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검파문 암각화는 검파형, 가면형, 신면(神面)형, 신상(神像)형, 신체형, 인면(人面)형, 패형, 방패형, 장방형 기하문 등 여러 학자에 따라 달리 부르고 있다. 이는 신의 모습 즉 신체를 도식적이고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태양신으로 보기도 한다. 검파문의 다양성과 조형성, 규모 수량 등에서 장기리 암각화는 청동기시대 암각화를 대표하는 유적으로, 한국 암각화의 전형을 보여주는 소위 한국형 암각화라고도 할 수 있다.



○ 연혁 및 현상

고령 장기리 암각화는 대가천과 안림천이 만나 회천(會川)을 이루는 곳의 산기슭 바위에 새겨져 있는데, 1971년 발견 이후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보물 제605호로 지정되었다. 유적이 위치한 곳은 발견 당시 고령군 개진면 양전동에 해당하였으나 이후 대가야읍 장기리로 행정구역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2010년 12월 27일 문화재의 명칭이 ‘고령 양전동 암각화’에서 ‘고령 장기리 암각화’로 변경되었다.

유적의 배후는 해발 280m 정도의 금산 정상에서 동남쪽으로 흘러내린 지맥의 산지를 이루고 있다. 암각화는 남서향하는 수직의 바위 면에 새겨져 있는데 바위의 크기는 높이 3m, 길이 6m 정도의 비스듬한 형태이다. 문양은 방형문(깃털 모양이 장식된 장방형의 윤곽을 상하로 구분하고 그 안에 몇 개씩의 구멍을 낸 형태)이 주를 이루며 몇 개의 동심원도 있다.

처음 이 암각화를 발견하여 학계에 보고한 이은창은 동심원은 태양, 방형문은 가면(假面)으로 보고 이는 선사농경인의 소산이며 태양신을 신앙하던 제단이라 보았다. 또 이곳의 지명이 ‘알터’라는 데서 난생설화와 관련하여 신성시되던 제단으로 보는 견해도 제기하였다. 그러나 김원룡은 장방형 윤곽 안을 상하 2구로 나누고 각 구에 두개의 소원을 배치하고 다시 사변에는 머리털 같은 집선을 방사선처럼 돌린 문양단위를 신면(神面)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인면(人面)에 수염, 머리털을

뻗게 한 암화가 아무르강 유역에서도 발견된다고 하며 처음으로 동북지방 암각화와 관련성을 제기하였다.

장방형 윤곽의 문양형태의 명칭에 대해서는 초기의 견해를 따라 신의 얼굴 모습을 상징한 것이라는 입장에서 신면형(神面形)이라 부르기도 하고, 혹은 이를 방패와 비슷한 모양이라고 생각하여 패형 또는 방패형(防牌形)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근래에는 마제석검의 손잡이 부분을 강조하여 상징화한 것이라 보는 관점에서 검과형(劍把形)이라고도 부르고 있는데, 이와 같은 모티프의 문양이 경상북도 일원을 중심으로 각지에서 추가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양전동형암각화(良田洞型岩刻畫)’라는 하나의 형식명으로 부르기도 한다.

○ 내용 및 특징

우선 암각화의 입지와 관련하여 인근의 안화리 암각화와 봉평리 암각화 처럼 산기슭의 수직 바위면 그림을 새겼으며 유적 바로 앞에는 하천이 흐르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그리고 바위면의 방향은 남서쪽을 향해 있기 때문에 햇빛이 비스듬히 비치는 오전 11시 전후한 시각에 그림이 가장 선명하게 보인다.

암각화를 새긴 사람의 제작행위를 유추해 본다면 손에 어떠한 도구를 들고 두드러듯 찍거나 갈면서 그림을 그렸다. 자세는 그림의 높이에 따라서 앉거나 허리를 구부리기도 했을 것이지만 대체로 바로 선 자세로 바위면을 마주보며 작업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구는 금속도구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끝이 뾰족한 석기로 쪼고 둥근날의 도구로 갈아서 작업한 것으로 보인다. 암각화가 새겨진 바탕 암질이 모두 질이 무른 사암이기 때문에 이보다 경도가 높은 돌로 도구를 삼으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었을 것이다. 더욱이 청동시가지대의 일반적인 석기 재질인 혼펠스는 전술한 바와 같이 고령 운수면 의봉산 일대에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다.

장방형 문양단위는 정형(定形)이 분명하고 오류가 거의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밑그림 없이 바로 새겼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어찌면 완성된 그림에도 채색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단순한 일광의 음영만으로 그림을 정확하게 인식하기에는 하루 중 너무 짧은 일정한 시간이며, 그 시간대가 아니거나 흐린 날의 경우에는 그림이 잘 보이지 않는다.

암각화의 앞쪽 하단에 비스듬히 경사진 돌출 바위면에 희미한 장방형 선각 그림 하나가 일부 보이기는 하지만 그 이외에는 그림이 전혀 없다. 이 바위의 경사진 상면은 당시 사람들도 밟고 서서 그림을 그린 공간이었기 때문에 경사 방향의 사선으로 구획할 수 있는 이 부분이 화면의 하한선(下限線)으로 보인다. 그리고 화면의 상한은 현재의 중앙부 상단이라 생각된다. 좁은 범위에서 암맥의 층리 발달은 평행 구조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 역시 그러하여 하한선과 평행하는 상한선이 지금의 중앙부 상단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변에 양호한 바위면이 많

이 있으나 전혀 암각화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양전동 암각화는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정도의 많은 그림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으며, 좌우측 상단부에만 그림들이 좀 더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은 장방형 문양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지금까지 이 형태의 문양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단위 문양을 구성하는 속성들을 세밀하게 관찰해 보고자한다. 동심원과 애매하거나 희미한 형태의 문양은 모두 제외하고, 비교적 형태 파악이 가능한 장방형의 문양만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장기리 암각화의 화면은 [도면 1]과 같이 좌측부와 우측부로 양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화면의 구분은 암면이 층리에 따라 자연적으로 구분되어지는 경계를 따라 설정한 것이며, 암각화를 그릴 당시부터 구분된 공간으로 볼 수 있다. 또 장방형의 문양 가운데 깃털이 있는 그룹도 이를 경계로 크게 양분되며 그림 전체의 공간적 분포도 이 부분을 경계로 구분되는 현상을 보인다. 이렇게 구분하면 양쪽의 그림 수가 비슷하게 된다. 이처럼 좌우로 구분한 화면에 따라 장기리 암각화의 장방형문양을 속성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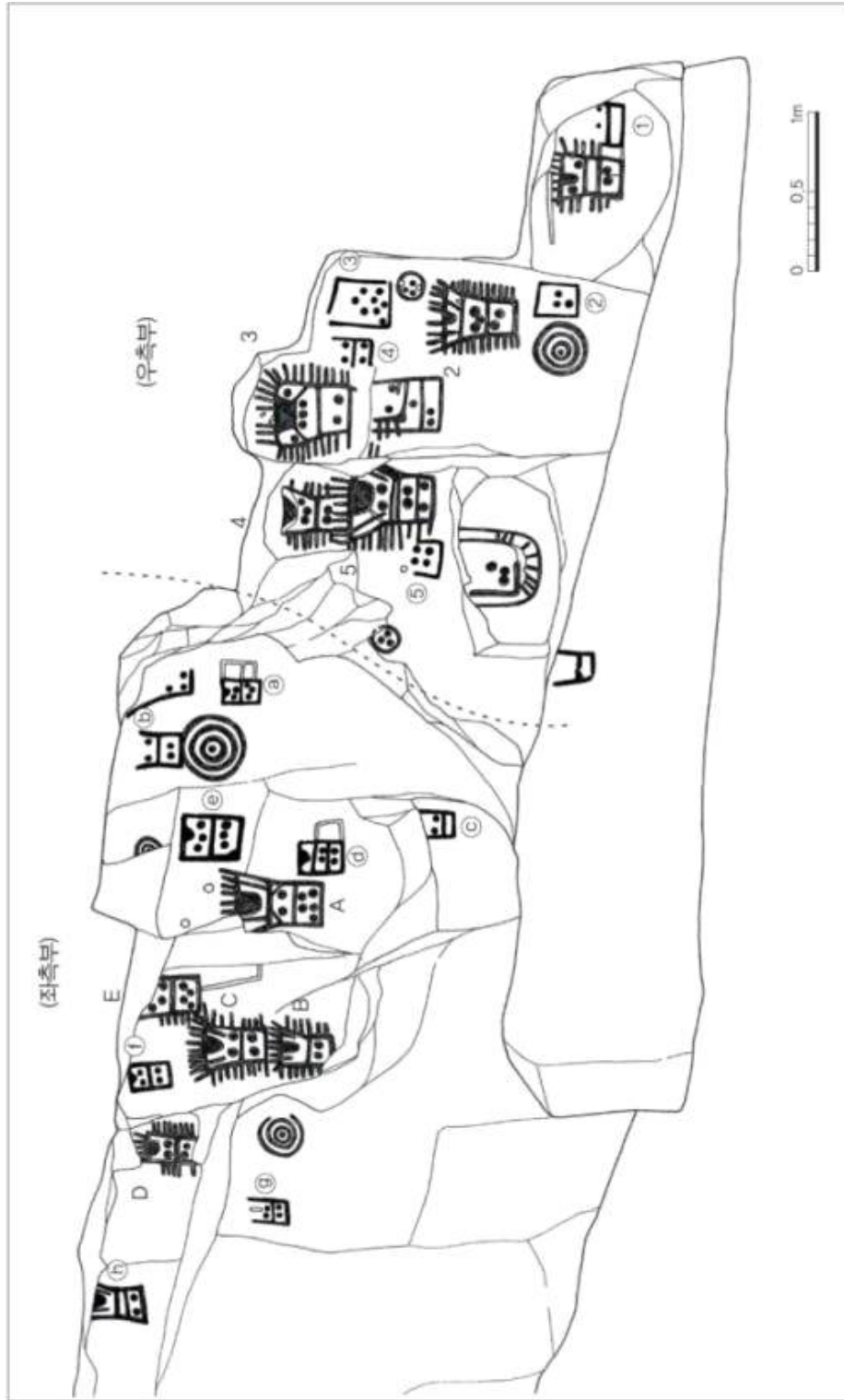
우측부 깃털장식 있는 것(5개)

1. 좌우와 상단 깃털장식 액면(額面)⁶⁾ 면새김.
3단구획 중단 공백, 상단과 하단만 각각 2개씩 총 4개 구멍.
2. 좌우와 상단 깃털장식, 액면 면새김.
3단구획, 중단 3개, 하단 2개 등 총 5개 구멍.
3. 좌우와 상단 깃털장식, 액면 면새김.
변형된 3단구획, 상단 2개, 중단 3개, 하단 2개 등 총 7개 구멍.
4. 좌우 깃털장식, 상단 깃털장식은 추정. 액면 면새김.
2단구획, 상단 3개, 하단 2개 등 총 5개 구멍.
5. 좌측과 상단 깃털장식, 우측 깃털장식 추정. 액면 면새김.
3단구획 각단에 2개씩 총 6개 구멍. 상단과 중단 구획선 이중.

우측부 깃털장식 없는 것(5개)

- 1) 상단은 알 수 없음. 2단구획 상단에 2개 구멍.
- 2) 액면 없고 미구획, 3개 구멍.
- 3) 액면 없고 미구획, 무질서한 6개 구멍.
- 4) 2단구획, 상단과 하단 각 2개 등 4개 구멍.
- 5) 미구획, 4개 구멍.

6) 얼굴의 이마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도면 1] 양전동 임각화

좌측부 깃털장식 있는 것(5개)

- A. 상단만 깃털장식, 액면 면새김.
3단구획, 중단 2개, 하단 5개 등 총 7개 구멍.

- B. 좌우와 상단 깃털장식, 액면 면새김.
2단구획, 하단에만 2개 구멍.
- C. 좌우와 상단 깃털장식, 액면 면새김.
2단구획, 상단과 하단 각 2개씩, 총 4개의 구멍.
- D. 좌우와 상단 깃털장식, 액면 면새김.
2단구획, 상단과 하단 각 2개씩, 총 4개 구멍.
- E. 좌측 깃털장식, 우측과 상단 깃털장식 및 액면은 추정.
2단구획, 상단 3개, 하단 4개 등 총 7개 구멍.

좌측부 깃털장식 없는 것(8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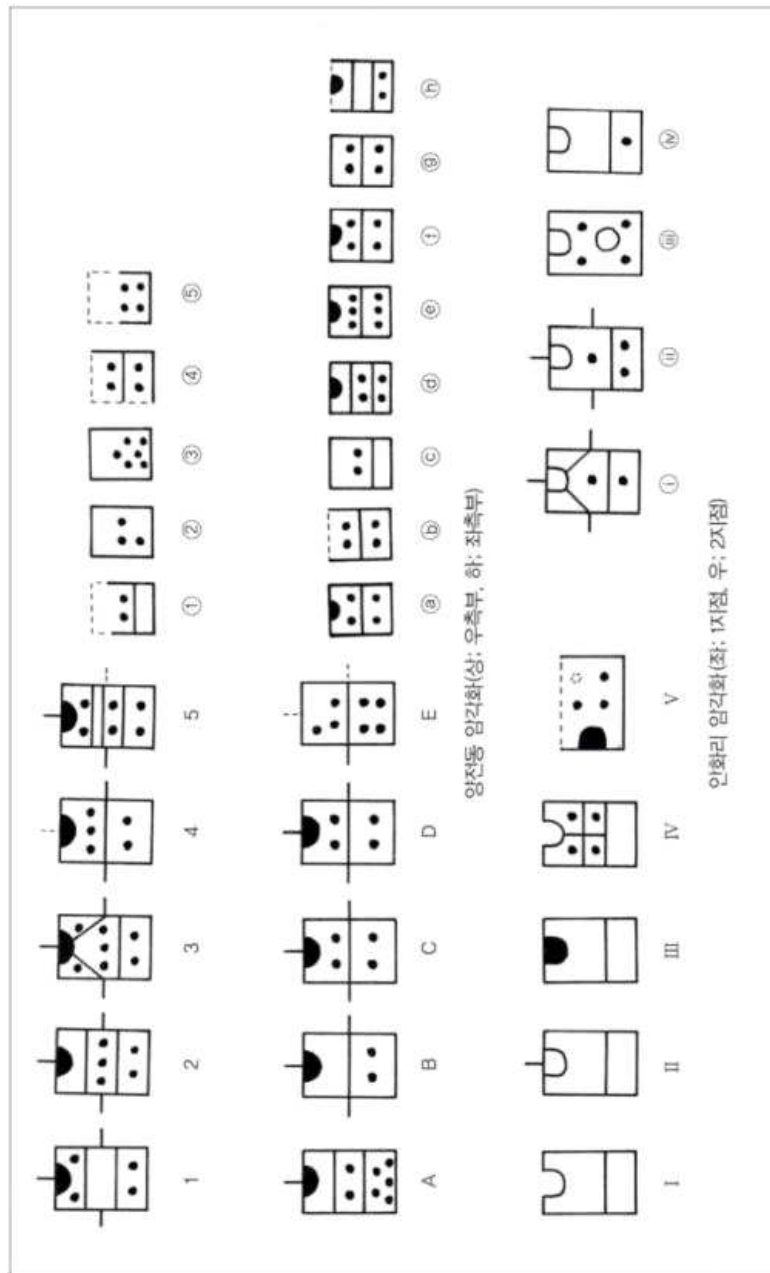
- a. 액면 면새김. 2단구획, 상단 하단 각 2개씩, 총 4개 구멍.
- b. 상단은 알 수 없고 2단구획, 상단 하단 각 2개씩, 총 4개 구멍.
- c. 2단구획, 상단에만 2개의 구멍.
- d. 액면 면새김. 3단구획, 중단 하단 각 2개씩, 총 4개 구멍.
- e. 액면 면새김. 2단구획, 상단 하단 각 3개씩, 총 6개 구멍.
- f. 액면 면새김. 2단구획, 상단 하단 각 2개씩, 총 4개 구멍.
- g. 상단은 알 수 없고 2단구획, 상단 하단 각 2개씩, 총 4개 구멍.
- h. 액면 면새김. 3단구획, 하단에만 2개 구멍.

그리고 장거리 암각화와 인근의 안화리 암각화의 장방형 단위문양에 대해 그 속성들을 단순히 약화하여 도식적으로 표현하면 [도면 3]과 같다. 크게 깃털장식이 가해진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된다. 장거리 암각화에서 깃털장식이 가해진 장방형은 문양은 모두 10개인데 [도면 3]의 C와 D만이 속성이 일치하고 나머지는 모두 구획된 단의 수나 구멍의 숫자가 다르다. 깃털장식이 없는 것 13개도 거의 모두 속성을 달리한다.

대체로 깃털장식을 가한 것들은 면새김으로 액면을 표현했으며, 단위문양의 크기가 크고 깊게 새겨져 문양이 뚜렷한 편이다. 그러나 깃털장식이 없는 것들은 일부 액면을 면새김으로 표현한 것도 있지만 생략된 것이 많고, 무엇보다도 단위문양의 크기가 깃털장식이 가해진 것에 비해 훨씬 작은 편이다. 그리고 선각이 깊지 않고 얇게 새겨져 풍화와 마모로 문양이 희미한 편이다. 또 모두 상하를 분명히 인식하는 형태로 새겨졌으며, 전반적으로 깃털의 유무와 관계없이 액면이 표현된 것이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해 크게 그려진 경향이다.

한편, 장거리 암각화의 동심원은 전체 화면에 총 4개가 표현되어 있는데 더 이상은 없었던 것 같다. 이들은 우측부 하단에서 시작하여 중앙부로 가면서 높아졌다

가 다시 좌측하단부에서 낮아지는 배치를 보인다. 이를 만약 태양으로 본다면 동쪽에서 해가 떠올라 정오의 중천을 거쳐 서쪽으로 일몰하는 태양의 운동성을 표현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아니면 4개의 동심원이 각각 춘하추동의 계절적 태양광의 기울기와 관련된 표현은 아닌지 검토해 볼 만한 일이다.



[도면 3] 양전동과 인화리 암각화의 신면형 모식도

○ 참고문헌

- 고령군·남매장문화재연구원, 『고령지산동30호분』, 이즈컴, 1998.
- 김원룡, 『한국고고학개설』, 일지사, 1983.
- 김원룡, 「청동기시대의 예술과 신앙」, 『한국사론』 13, 국사편찬위원회, 1983.
- 노중국, 「대가야의 정신세계에 대한 몇 가지 검토」, 『대가야의 정신세계』, 대가야 박물관·계명대학교한국학연구원, 2009.
- 대가야박물관·영남대민족문화연구소·한국암각화학회 『고령지역의 선사 고대사회와 암각화』, 학술총서6, 2008.
- 박정근, 2001, 「한국의 암각화 중 인물상에 대한 고찰」, 민속학연구(9), 국립민속박물관
- 신중환, 2012, 「고령 봉평리 암각화의 발견과정」, 『한국의 암각화Ⅱ-대구·경북편』, 울산암각화박물관.
- 신중환, 2008, 「선사시대의 고령」, 『고령문화사대계』 ①역사편, 대가야박물관·경북대 퇴계연구소.
- 신중환, 2010, 「고령의 선사시대예술과 암각화」, 『고령문화사대계』 ④예술편, 대가야박물관·경북대퇴계연구소.
- 신중환·정동락·손정미, 2008, 『고령의 암각유적』, 대가야박물관학술조사보고서5.
- 윤용진, 1966, 「고령 개진면 양전동선사유적에 對하여」, 『고고미술』 7-1, 고고미술사학회.
- 이은창, 1971, 「고령양전동암화조사보고」, 『고고미술』 112, 고고미술사학회.
- 이은창, 2012, 「고령 양전동 암각화」, 『한국의 암각화Ⅱ-대구·경북편』, 울산암각화박물관.
- 이상길, 2012, 「고령 안화리 암각화」, 『한국의 암각화Ⅱ-대구·경북편』, 울산암각화박물관.
- 이상목·이상길, 2009, 「고령암각화가 보여주는 정신세계」, 한국학연구원 학술대회,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 전호태, 2020, 「암각화와 고분벽화로 본 한국 고대 미술의 전개과정」, 역사와현실, 한국역사연구회.
- 전호태, 2012, 「한국 암각화 유적의 현황과 연구과제」, 울산사학, 울산대학교사학회.
- 하진호, 2012, 「고령 지산동 암각화 발굴경위-지산동 30호분 개석암각화」, 『한국의 암각화Ⅱ-대구·경북편』, 울산암각화박물관.

○ 기 타(보수·정비 및 현상변경 이력)

- 1976.08.06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605호 지정
- 1983.07.16. ~ 1983.11.19. 보호철책 확장 및 신설 등 주변정비

- 1988.03.27. ~ 1988.04.10. 기존 수목제거 및 조경수 식재
- 1993.09.18. ~ 1994.01.24. 보호시설 건립 (터널형 아치구조, 탄소강관)
- 2000.10.09. ~ 2000.12.07. 석축설치, 보호각 보수
- 2001.12.01. 석조문화재 보존관리 현황진단조사
- 2007. 1 ~ 2007. 11 주변정비(사유지 매입, 보호철책 교체, 주변조경 등)
- 2008.12.30. ~ 2009.04.29. 토지매입, 주변 조경 등 정비
- 2010.11.03.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고시
- 2010.12.27. 문화재명칭변경[고령 양전동 암각화→고령 장기리 암각화]
- 2015.07.10. ~ 2015.09.23. 보존처리 및 지의류 제거
- 2016.06.09. ~ 2016.06.28. 재난방지시설 설치(CCTV 설치)

□

○ 형 식

장기리 암각화는 검과형 혹은 신체문, 패형, 방패형 등으로 불리는 문양과 동심원문, 회오리문, 성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주류를 이루는 문양 형식은 검과형이다. 장기리 암각화와 같은 검과형 암각화는 한반도 동남부의 영남지역에서 주로 분포하며, 고령 안회리, 포항 칠포리, 경주 석장동, 인심리, 영천 보성리, 영주 가흥동, 남원 대곡리 암각화에서 확인된다. 특히 검과형 문양의 다양성과 규모, 조형성 측면에서 볼 때 장기리 암각화는 청동기시대 한국 암각화의 전형을 보여 주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 조성연대

연구자에 따라 청동기시대와 초기철기시대(청동기시대 후기), 원삼국시대로 보는 경우로 나누어지나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고고학적 근거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본다면 장기리 암각화는 검과형 문양이 청동기시대 석검 손잡이를 본뜬 형태라는 점과 함께 새겨진 동심원이 송국리형문화 단계에 속하는 지식묘 상석과 석관묘 개석 등에 새겨져 있는 것과 동일 형식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청동기대에 조성된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그리고 검과형 문양이 초기형식에서 다소 변형, 변질된 형태라는 점에서 청동기시대 후·말기까지(초기철기시대 어느 시점까지) 존속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현 상

장기리암각화는 대가천과 안림천이 합류하여 회천을 이루는 장기리 알터마을 입구의 구릉 말단부 암벽에 새겨져 있으며, 주변지역에는 청동기시대와 삼국시대유적이 분포

하고 있다. 유적에서 북쪽으로 4km 정도 떨어진 대가천변에는 봉평리 암각화가, 주변의 안림천변에는 안화리 암각화가 위치하고 있다.

암각화는 남서쪽을 바라보는 바위면의 가운데 부분에 검파형 문양의 비롯한 동심원문, 회오리문 등이 시문되어 있으며, 암벽의 수직면 위쪽과 이어지는 수평면에는 지름 5~20cm 크기의 성혈이 30여개가 새겨져 있다.

암각화가 조성된 암벽 재질은 사암으로 규모는 높이 300cm, 너비 600cm 정도이다. 장기리 암각화는 노천에 조성된 유적인 관계로 암각화가 부분적으로 변색, 박리, 박락 입상분해 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유적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보호막의 기둥 주춧돌이 암각화 조성 암면에 설치되어 있다. 이는 보호막 하중으로 향후 유적의 훼손이 예상된다. 따라서 유적의 보존 관리뿐만 아니라 유적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개선 대책이 요구된다.

○ 내용 및 특징

암각화를 구성하는 문양은 검파형(37점), 동심원문(4점), 원문(3점), 회오리문(1) 기타(불명 13 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혈(37)을 포함하면 현재 확인되는 문양은 총 95점이다.

암각화는 검파형 문양의 분포와 배치 상태로 보아 크게 3개군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류를 이루는 문양 형식은 석검 손잡이를 이미지 혹은 상징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검파형이다. 이밖에 태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동심원문이 암면의 중앙과 좌우 아래면에 새겨져 있다.



그림 146. 고령 장기리암각화 전경

검과형 문양은 평면 형태 및 세부 표현 속성에 따라 여러 형식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크게 장방형(제형) 내지 방형의 외형에 깃털 형상 표현된 것과 깃털이 없는 형식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장방형의 평면 내부의 분할 선과 문양의 세부 형태 등에 따라 여러 형식으로 세분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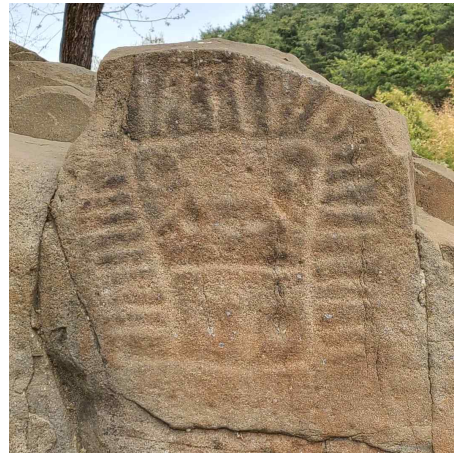


그림 147 검과형 문양

이러한 형태의 검과형 암각화는 한반도 동남부의 영남지역에서 주로 분포하며, 고령 안회리, 포항 칠포리, 경주 석장동, 인심리, 영천 보성리, 영주 가흥동, 남원 대곡리 암각화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이들 지역과 달리 장기리 암각화의 검과형 문양은 장방형 내지 제형의 평면 외곽에 새 깃털 같은 형상이 표현된 것이 주류를 이루는 점에서 장기리식 검과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그림 148 동심원문

특히, 청동기시대에 존재하는 검과형 암각화의 형식중 문양의 조형성과 다양성, 보존상태 등에서 완성도가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독특한 문양 형식에서 한반도 주변지역의 암각화와 차별적인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고령 장기리 암각화는 소위 검과형이라는 불리는 독특한 문양이 중심을 이루는 유적이라 할 수 있으며, 유적의 시기와 성격, 검과형의 모티브 내지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연구자간에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청동기시대 농경의례 혹은 생업의례와 관련하여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조성된 유적으로 추정된다.

○ 기 타

고령 장기리 암각화는 1971년 1월 마을 주민인 조용찬씨의 제보로 학계에 알려졌으며, 1971년 2월 영남대학교 박물관에 근무하는 이은창선생이 유적을 현장 답사 조사하면서 정식으로 학계에 보고 되었다. 장기리 암각화는 1970년에 처음으로 발견된 울산 천전리 암각화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발견된 청동기시대 암각화라는 점에서 고고학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암각화는 최초 발견 당시에는 고령 양전동 알터 암각화로 불리었으나 이후 고령군의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장기리 암각화로 변경되어 현재 공식 문화재명의로 통용되고 있다. 장기리 암각화는 발견초기 연구 결과 초기철기시대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새로운 연구로 그 연대가 청동기시대에서

초기 철기시대에 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참고문헌

대가야박물관, 2008, 『고령의 암각유적』

울산대학교 반구대암각화유적보존연구소, 2016, 『한국의 검파형암각화』

울산대학교 반구대암각화유적보존연구소, 2017, 『고령 장기리암각화의 재인식과 재평가』

한국역사민속학회, 1996, 『고령의 암각유적』, 한길사

이하우, 2011, 『한국 암각화의 제의성』, 학연문화사

울산암각화박물관, 2012, 『한국의 암각화』 II

Ⅲ.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안건번호 동산 2021-03-006

6. 음식디미방(閨壺是議方)

가. 검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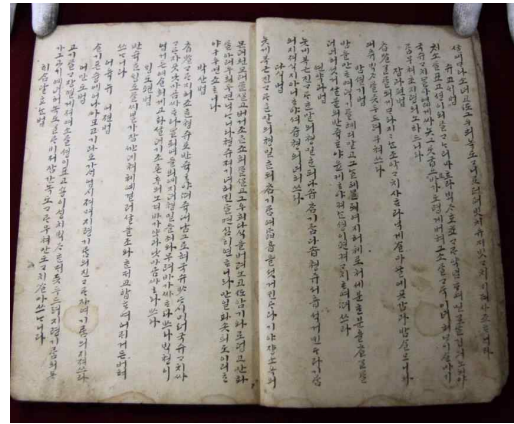
‘음식디미방’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음식디미방’에 대하여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7.9.4)이 있어 관계 전문가 조사(19.11.15./21.5.4)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 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음식디미방(閨壺是議方)
- 소유자(관리자) :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 수 량 : 1책(28장: 本文 22장, 空紙 6장)
- 규 격 : 26.5×18.0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필사본
- 형 식 : 선장(線裝)
- 조성연대 : 17세기 후반
- 제작자 : 장계향(張桂香, 1598~1680)



<음식디미방> 내지(오) 및 발문(원)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음식디미방』은 조선 중후기의 안동지역의 식생활 문화를 살필 수 있는 전통 음식 연구의 지침서이다. 이전의 우리나라 조리서들은 3종이 확인되나 모두 한문으로 쓰여 있다. 이에 비해 『음식디미방』은 당시 전해오거나 저자 자신이 개발한 음식 그리고 ‘맛질방문’에 소개된 16가지 음식 등이 비교적 자세히 여성 저자에 의해 한글로 소개해 놓았다. 그래서 당시의 음식문화를 살펴는데 요긴한 자료임은 물론 관련된 물명에 대한 한글 표기는 거의 독보적이라고 하겠다.

저술 시기가 17세기이기는 하나 여성이 저술하고 쓴 한글조리서 중에서 최고(最古)의 것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돋보인다. 그런 점에서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조사본 『음식디미방』은 한글로 된 음식조리서로서 17세기 후반 정부인 장계향이 쓴 것으로 비정되는 자료이다. 저자로 판단되는 장계향은 퇴계 이황의 학통을 이어받은 敬堂 張興孝의 따님으로 그 생애는 셋째 아들인 葛庵 李玄逸이 기록한 「先妣贈貞夫人張氏行實記」를 통하여 확인된다.

조사본은 필사본으로 본문이 22장이다. 본문 가운데 추가되는 내용을 기록하기 위한 공지가 들어 있고, 본문의 내용을 예리한 칼로 제거하거나 글자를 지우고 그 옆에 수정한 글자를 써넣은 곳도 확인되는 등 원고본으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다.

조사본은 17세기에 저술된 자료로서 후대에 속하나, 여성이 한글로 기록한 가장 오래된 조리서라는 점, 조선 후기 전통음식과 그 조리법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

라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자료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전통 음식의 복원사업과 명품화사업에 기본 자료로 활용되는 등 현대적 활용도가 매우 높다. 따라서 조사본은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음식디미방』은 17세기 張桂香(1598~1680)이 자필로 쓴 조리서이다. 표지에는 閨壺是議方이라 필사되어 있고, 권두에는 음식디미방이라 표기되어 있다.

내용은 麵餅類, 魚肉類, 酒類, 醋類로 구성되어 있다. 면병류에는 국수, 만두, 떡 등 밀가루 음식 18가지, 어육류에는 물고기와 육고기 음식 74가지, 주류 및 초류에는 54가지, 모두 146가지의 음식 조리법이 실려 있다. 이 중 ‘맛질방문’이라고 부기된 16종은 저자의 친정어머니 권씨의 친정이 醴泉 龍門 溪谷里 맛질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친정어머니를 통하여 전수 받은 예천 맛질의 안동권씨 문중 음식 조리법일 것이다.

이 책이 여성이 편찬한 우리나라 최초의 조리서라거나 班家の 음식을 정리한 최초의 조리서라는 의미를 떠나서, 한글로 쓴 최초의 조리서라는 점에서 가장 큰 가치를 부여해야 하며, 따라서 이 책은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 (지정 가치 있음)

『음식디미방』은 필사본으로 본문이 22장에 불과한 소형의 책자이며 6장의 여백지를 넣어 제책하였다. 본문에는 붓으로 쓴 글자를 한겹 걷어 내거나, 예리한 칼로 먹울 제거한 다음 수정한 흔적이 몇 군데 나타나고 있으며 먹으로 글자를 지우고 그 옆에 수정한 글자를 써넣은 곳도 몇 개가 보인다. 또한 17세기 후반에 필사한 책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하기에는 품격이 다소 간 떨어져 보인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한글로 쓴 최초의 조리서로서 조선시대 17세기의 전통음식과 그 조리법을 살펴보는 자료로서는 매우한 귀중한 자료이며, 당시의 한글 연구에도 도움이 되는 자료로 판단된다. 또한 전통 음식의 복원사업과 명품화사업에 기본 자료로 활용되는 등 현대적 활용도가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에 대한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사료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음식디미방』은 17세기 조리서로 여성인 안동 장씨가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필사한 유일본이다. 전체 구성에서 표지 서명은 남편 이시명의 글씨 『규

곤시의방(閩壺是議方)』이고 한문 행서로 썼으며, 권두 서명은 한글 정자로 필사한 아내 장계향의 글씨 『음식디미방』이다. 따라서 책의 제목은 저자인 장계향이 권두 서명에 필사한 『음식디미방』이다. 내용의 구성은 크게 4부분으로 분류하였고 서체는 정자와 흘림으로 병용하였으며 정자는 흘림의 필의가 섞여있다.

17세기 당시 한글 서예는 주로 왕후들이 주고받는 편지글에 사용하였고 간혹 왕들도 공주나 옹주들에게 한글로 편지를 썼으며, 사대부 남자들도 한글로 편지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대부가 여성이 전문을 한글로 필사하여 책으로 엮은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서체 형성의 과도기 시점에서 ‘정자’와 ‘흘림’으로 필사한 이 자료에 대한 서체의 연구는 서체 변천사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특히 정자는 일정한 틀로 정형화되기 이전이므로 그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언해두창집요』·『언해태산집요』·『두시언해중간본』과 같은 목판본의 글씨들과 유사한 형태의 이 필사본의 정자는 정방형에서 장방형으로 변화하고 글씨의 중심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또한 흘림의 필의를 섞어 필사하다가 흘림으로 조리의 내용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필획은 중세를 띠며 굳세고 유창하다. 책의 마지막 장에는 자신이 저술하여 후손에게 남기는 과정을 설명한 글씨가 있다. 행과 행 사이를 넓게 하고 필획의 생략과 역동적으로 길게 끌어 내린 세로획의 필력은 한문서예의 초서와 같이 운필하였다. 이 책의 글씨는 다양한 서체의 풍격이 혼재하고 연대·저자·필사자가 분명하며 여성이 저자인 조리서로서도 역사적, 국어사적 가치가 크다 할 것이다. 그리고 한글 서예사나 한글 서체 변천의 위치에서 볼 때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이 있다고 판단된다.

○ (국어사적 자료로서 지정 가치 있음)

1) 최초의 온전한 한글 음식 조리서

선행연구에서는, ‘음식디미방’보다 연대가 앞선 것으로 알려진 음식 조리서로 ‘주초침저방(酒醋沉菹方)’(16세기로 추정), ‘주찬방(酒饌方)’(17세기로 추정), ‘해주최씨음식법’(17세기 중엽으로 추정)이 있으나, ‘주초침저방’(한문 필사본으로, 권말에 다섯 가지 방문이 한글로 기록되어 있음)과 ‘해주최씨음식법’(신창맹씨가 여인들의 한글 수적을 모아 장정한 ‘子孫寶傳’에 실려 있음)은 낙장본이며, ‘주찬방’은 “내용이 온전하고 목록을 갖추어 체계성을 띠기는 하지만, 필사자 혹은 원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자료”라고 하고, ‘음식디미방’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음식디미방』은 그 내용이 온전할 뿐만 아니라 저술자와 필사자가 분명하고 자료가 생성된 가문과 지역적 배경이 확실한 자료이다. 따라서 내용의 온전성, 자료의 생성

배경과 생성자의 측면에서 『음식디미방』이 지닌 가치는 여전히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음식디미방’이 한글로 된 최초의 음식 조리서인 것은 아닐 수 있으나,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한 빠른 시기의 자료이면서, 온전한 체계를 갖추고 있고, 책의 출처, 저자 등에 관한 정보가 확실한 자료라는 점에서 독보적이며 매우 소중하다고 할 수 있다.

2) 17세기의 일상적 언어 사용 반영

‘음식디미방’은 한글 창제 후 간행된 자료의 대부분이 언해 자료이나, 한문 원문이 없이 한글로 바로 적은 자료로서, 한문의 영향을 받지 않고 당시 사용하던 실제 언어를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공적으로 간행된 것이 아니라, 사적인 목적을 위해 저술됨에 따라 당시의 일반적이던 표기의 제약에 얽매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음식디미방’에 관한 그동안의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 중 이러한 내용을 짐작케 하는 현상은 동일한 단어를 다양하게 표기한 예들이 많다는 점이다. 다음은 대표적인 예 몇 가지를 보인 것이다.

(1) ‘좋다’; 도하다~쥬하다

가. 황빅견이 7장 도하니라(개장쌈)

가. 황육을 힘줄 업손 술을 지령기름의 니겨 쏘아 녀허도 쥬하니라(만두법)

나. 훈 근의 복근 소곰과 닉근 기름 각 훈 냥 도훈 술 훈 잔으로 버무려(츄새)

나. 쥬훈 밋다니밭이나 오려밭이나 낭경즈밭이나 축축훈 밭로(증편법)

다. 그 움이 더워 그 늑물이 도커든 겨울 뻘면 도하니라(비시 늑물 쓰는 법)

다. 싸셔 국의 솟과도 쥬코 뎨이 싸어 초지령의 회도 쥬하니라(대합)

(2) ‘말리다’; 물로이다~물노이다

가. 옷겉질 벗기고 협도로 싸흐라 벗티 물로여(오가피쥬)

나. 싱강을 거피~~허~~여 사흐라 급히 버티 물노야 두고 뻘라(건강법)

나. 전복도 7장 무르게 고화 싸흐라 물노여 두고(희삼 전복)

다. 물노이는 고기를 널 우희 보흐로 뻘 조로 뻘오면 훈니에 뎨니라. 고기를 편을 알게 훈라. 또 더운 제 비 와 수이 물로이거든 독을 돌 노코 뻘다하고 포육 노흐로 뻘여 독의 츄츄이 두로 뎨야 물로이디 서로 뒤여 물로이고 고기 독의 훈 부드티지 아니커든 솟초로 뎨라(고기 물노이는 법)

(3) ‘씻다’; 시다~씻다

가. 터리 업시 훈고 칼로 글거 조케 시서 소슴소슴 뻘힌 후(애제육)

가. 조훈 밭 훈 되 뎨이 시어 뻘을 무르게 지어 츄거든(증편법)

나. 이튿날 새배 우물의 가 씨어 급히 7라(식면법)

위의 현상을 단순히 표기법의 혼란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백두현(2005)에서는 각 형태의 출현빈도를 검토하여 이것이 의미하는 당시의 언어 현실 및 음운사적 의미를 논의한 바 있는데, 이는 위와 같은 현상에 대해 좀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앞에서 언급한, 언해 자료와 한문 원문이 없는 자료가 차이를 보일 가능성에 관해서는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는 한문 원문이 없는 자료가 언간과 같은 특정 성격의 자료에 국한되며 양적으로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데 원인이 있을 것이다. 한글 자료이며 음식 조리서인 ‘음식디미방’과 같은 자료가 국어사 연구에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3) 방언의 반영

‘음식디미방’은 안동, 영해, 영양 등지에서 거주했던 장씨 부인이 지은 글이므로 17세기 경상도 북부 방언을 반영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이 있는 예들이다.

(4) 경상도 북부 방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예들

가. 마구 압피 움흘 뭇고 걸흘과 흘 싯고 식엄초 산갓 파 마닐 시무고(비시 누물 쓰는 법)

나. 고기를 7장 열게 저며 소를 성이 표고 송이 싱치 빅즈 훈디 좃두드려(어만도법)

다. 도랏과 만도라미 불근 물 드러 흐고 업거든 멀인물을 드리면 불느니라(잡치)

(4가)의 ‘흘’, (4나)의 ‘열게’, (4다)의 ‘불느니라’는 각각 ‘흙’, ‘열게’, ‘붙어진다’를 뜻하는 표현으로, 음절말의 겹자음이 단순화되는 현대 경상도 방언과 같은 모습을 보여 준다(백두현 2017:56).

그러나, ‘음식디미방’의 언어가 현대 경상도 방언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다음은 백두현(2017:57)에 제시된 예 중 일부만 보인 것이다.

(5) 중세국어와 음식디미방, 현대 경상도 방언의 비교

15세기	음식디미방	경상도 방언
가. 무수	무우	무수~무꾸~무시
나. 그슬다	그을다	끄실다
다. 사뵈	사이	새비
라. 구뵈	구어~구워	꾸버

(5)의 예들은 현대 경상도 북부 방언의 특징이 ‘음식디미방’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백두현(2017:58)에서는 17세기 전기 자료인 ‘현풍곽씨언간’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남을 지적하고, “17세기의 일반 평민들과 당시의 양반 지식인 계층의 언어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추정하였다.

(4)의 예들은 경상도 방언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5)의 예들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현상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검토는 일상적 언어를 반영한 필사본 한글 자료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음식디미방’처럼 ‘저술자와 필사자가 분명하고 자료가 생성된 가문과 지역적 배경이 확실한’ 자료는 이러한 점에서도 매우 소중하다.

4) 장르적 가치: 음식 문화, 문자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자료

‘음식디미방’은 음식 조리서로서, 음식 조리와 관련된 다양한 어휘를 보여 주며, 현실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백두현 2014:20).

‘음식디미방’에 등장하는 특징적 어휘들은 음식명, 음식 재료, 조리 기구와 같은 음식 관련 어휘와, 부사류, 수량 및 단위 명사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다음은 이광호(2000)에 제시된 어휘 중 일부를 보인 것이다.

(6) 양념

가. 장류: 된장, 장, 장국, 지령, 지령기름, 전디령, 토장, 청장

나. 가루류: 계조, 토장가루, 호초, 소곰, 새소곰, 천초가루

다. 즙(물): 기름, 촛기름

라. 기타: 빅조, 마늘(마를), 건강, 싱강, 파

(7) 조리 기구

가. 그릇: 관질그릇, 놋그릇, 사그릇, 냥푼힝그

나. 단지: 단지, 장독, 술독, 관독, 노란독, 준, 항

다. 접시: 대접, 징반, 접시, 채반

라. 숟: 화숟, 노고, 숟, 가매, 새용, 통노기

(8) 부사류

가. 일반부사: 하, 죄, ㄱ장, ㅈ로, 어덜(‘살짝’, ‘약간’), 들릿, 고로, 작작, 오오로(‘온통’), 골오로, 흐식게(‘흐물흐물하게’), 두운이(‘흥건히’, ‘넉넉하게’), 어서치(‘대강’, ‘슬쩍’)

나. 상징부사: 도독도독(‘약간 두껍게’), 도렷도렷(‘약간 두껍게, 둥글게’), 소습소습(‘숫구치도록’), 어숙어숙, 납덕납덕, 즐분즐분(‘약간 질척거리도록’), 조라조라(‘물이 가장자리에서 넘칠락 말락’), 서운서운(‘슬슬’, ‘가볍게’), ㄱ만 ㄱ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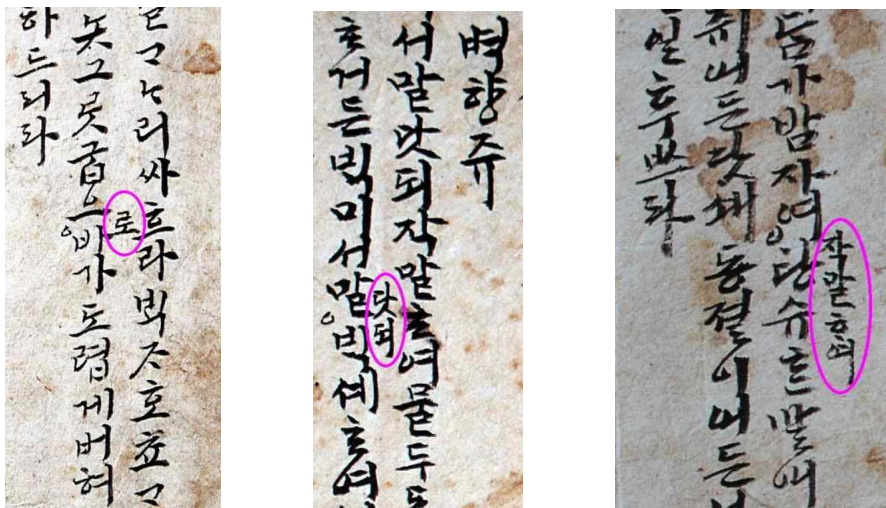
(9) 수량, 단위 명사

- 가. 날, 달: 이사흘(이삼일), 나흘닷새, 날워, 이칠일(14일); 셋들, 늑월
- 나. 개수, 양: 다엿낫, 여섯
- 다. 단위: 복즈, 술, 동히, 소슴; 흡, 되, 말, 낫, 시, 치

‘음식디미방’은 양반가에서 중요하게 간주되었던 奉祭祀와 接賓客을 위해 실제 생활에서 긴요하게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筆寫記의 다음 부분은 이를 뒷받침해 준다.

(10) ... 이 쓰줄 아라 이째로 시행하고 쫘즈식들은 각각 벗겨 가오디 이 책 가터갈
 생각을안 심심 말며 ...(... 이 뜻을 알아 이대로 시행하고, 딸자식들은 각각 베
 껴 가되 이 책을 가져갈 생각일랑 마음에 내지 말며, ...)

‘음식디미방’에는 빠진 글자를 추가하거나, 수정한 부분들이 있는데(남권희·임기영 (2017:153-155) 참조), 이 역시 ‘음식디미방’이 실제 생활에서 긴요하게 활용되었음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빠진 내용을 추가한 예들이다.



<사진 5. 빠진 내용을 추가한 부분>

5) 국어사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

1960년 ‘음식디미방’이 처음 알려진 이래로 국어학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성과가 쌓였다. 다음은 ‘음식디미방’에 관한 선행 연구를 주제별로 정리한 것이다.

(11) 음식디미방에 관한 국어학적 연구

- 가. 주해: 한복려 외(2000), 경북대학교 출판부(2003), 백두현(2006)

- 나. 서지·총론: 남권희·임기영(2017), 백두현(2001), 백두현(2014), 백두현(2017ㄱ)
- 다. 음운: 백두현(2004, 2005), 윤진영·신성철(2021), 장충덕(2003)
- 라. 어휘: 김예니(2012), 선한빛(2015), 이광호(2000), 이선영(2004)
- 바. 기타: 김미영(2011), 배영동(2012), 백두현·정연정(2019), 주영하(2017)

(11)은 ‘음식디미방’에 관한 연구가 주해, 서지·총론, 기타를 제외하면 국어학적 연구는 주로 음운론과 어휘론의 분야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 준다. (11라)의 선한빛(2015)는 ‘상정부사의 연어 관계’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통사론적인 성격을 성격도 가지고 있으나, 문법 범주나 구문 현상, 겹문장의 짜임새 등에 관한 본격적인 통사론 분야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음식디미방은 통사론 등 국어사의 문법 분야 연구를 위해서도 소중한 자료이다.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음식디미방’은 한문 원문 없이 한글로 직접 적은 자료로서, 한문 원문의 영향에서 자유로우며, 사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져서 일상적 언어 및 당시의 언어 사용 양상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한글 음식 조리서가 새로 소개되면서 그 양이 증가하였으나, 저자, 연대, 배경 등이 확실한, 이른 시기의 한글 음식 조리서로서는 ‘음식디미방’이 유일하다. 음식디미방은 여전히 한글 음식 조리서를 대표하며, 국어사 자료로서의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보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마. 의결사항

- 보류

조사보고서



○ 내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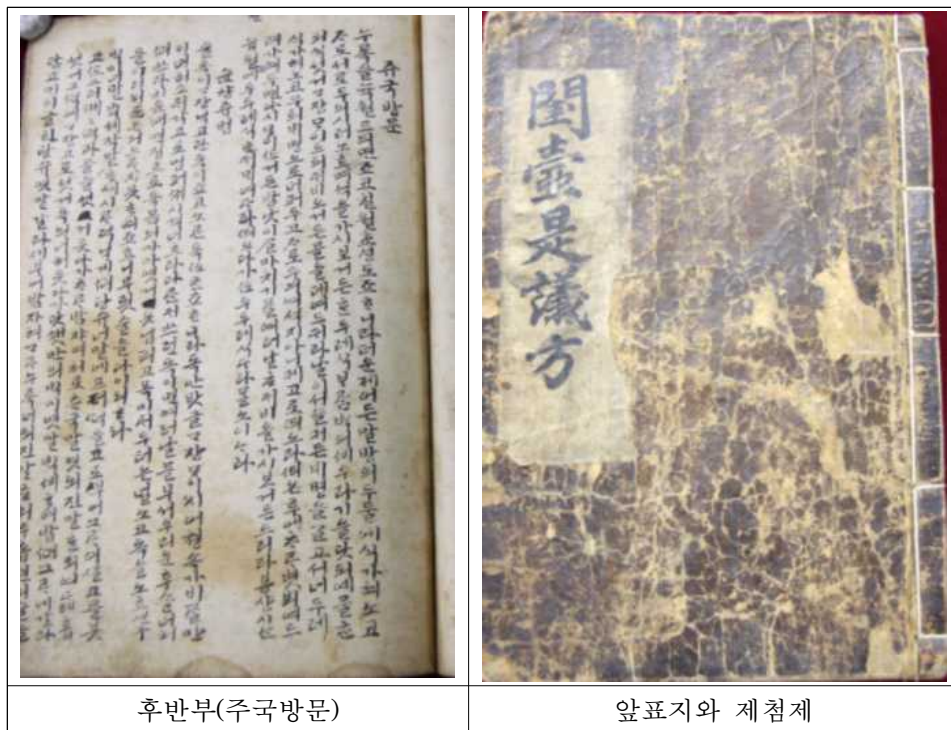
『음식디미방』은 장계향(1598~1680)이 17세기에 저술한 한글 조리서이다. 여성이 저술하였다는 점과 궁체로 쓰여진 한글 최고(最古)의 조리서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보다 앞선 우리나라 현전 조리서로는 전순의의 『산가요록(山家要錄)』, 김유의 『수운잡방(需雲雜方)』, 허균의 『도문대작(屠門大嚼)』 등이 있을 뿐이다.

안동 장씨인 저자는 신위 뒷면에 적혀 있었던 “계향”이라는 이름이 적혀져 있어서

2012년에야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고 한다. 장계향은 장흥효(張興孝, 1564~1633)의 딸로 19세 때 이시명(李時明, 1590~1674)과 결혼하였다. 1999년 11월에는 문화관광부에서 “정부인 안동 장씨”라는 이름으로 ‘이달의 문화인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⁷⁾

『음식디미방』의 앞뒤 표지는 모두 원래의 표지로 추정된다. 앞표지의 제침(題簽)에는 『閨壺是議方』(규곤시의방)이라는 제명이 묵서되어 있다. 그래서 혹 이 책을 『규곤시의방』라는 서명으로 소개하고 있기도 하다. 권수제는 한글로 『음식디미방』이라고 써 놓았다. 고문헌의 경우, 권수제를 서명의 으뜸 정보원으로 하는데 이 한글서명이 한글로 된 이 조리서에 대한 적합한 서명으로 판단된다. 그런 점에서 『규곤시의방』보다는 『음식디미방』이라는 명칭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누습의 흔적이 부분적으로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양호한 편이다. 권수제면 오른쪽 아래에는 「遠志齋文庫」라는 장서인이 찍혀 있다. 행자수는 일정하지는 않으나 대개 15-17행, 1행당 34-36자이다.

<그림1> 『음식디미방』



내용은 모두 146가지의 조리법을 담고 있는데, 이 중에는 ‘맛질방문’이라고 부기된 16종이 있다. 편성은 면병류와 어육류를 포함한 전반부와 술과 식초를 다룬 후반부로 나눌 수 있다. 전 후반부 사이에는 추기를 고려한 것인지 공백지가 있다.

7) 현재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두들마을1길 42에는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이 운영되고 있다.
(https://www.yyg.go.kr/jghcenter/eumsikdimibang/introduction_n)

이 조리서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는 밝혀져 있지 않으나 저자 자필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의 면지에는 당나라 시인 왕건(王建)이 지은 “신가랑사 삼수(新嫁娘詞 三首)” 중에서 세 번째 작품이 묵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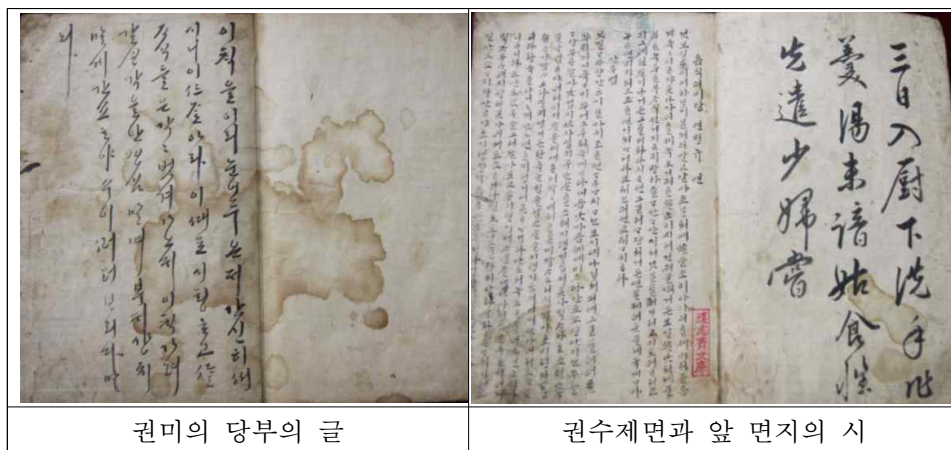
三日入廚下/ 시집은 지 사흘 만에 부엌에 들어가
 洗手作羹湯/ 손을 씻고 국을 끓이지만
 未諳姑食性/ 아직 시어머니의 식성을 몰라
 先遣小婦嘗/ 소부⁸⁾를 보내서 먼저 맛보시게 하였네

뒤의 면지에는 아래와 같이 적은 시기와 향후 보존에 대한 각별한 당부를 적어 놓았다.

“이 책을 이리 눈이 어두운데에 간신히 썼으니 이 뜻을 잘 알아 이대로 시행하고, 딸자식들은 각각 베껴가되, 이 책을 가져갈 생각일랑 마음도 먹지 말며 부디 상하지 말게 간수하여 쉽게 떨어버리지 말라.”

위의 한글은 해석상의 차이는 다소 있으나 대체적인 내용은 “눈이 잘 보이지 않는데도 간신히 이 책을 쓴 뜻을 잘 알아 이대로 시행하고, 원본은 이 집에 간수하여 오래 전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림2> 『음식디미방』의 앞뒤 면지의 묵서



8) 작은 부인, 젊은 아내.

□

○ 書誌事項

[음식디미방] / [張桂香 編]. -- 筆寫本. --

[英陽] : [石溪宗宅], [현종11(1670)년경].

1책(22장), 26.5×18.0cm, 線裝(改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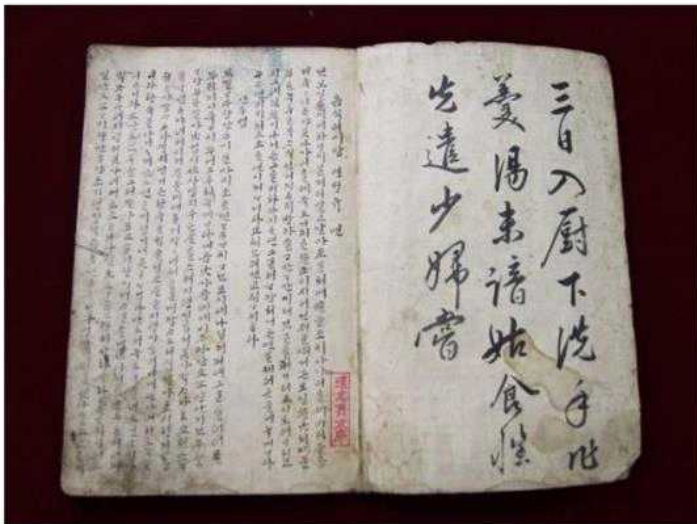
表題 : 閨壺是議方

卷首題 : 음식디미방

○ 현 상

조사본은 貞夫人 장계향(張桂香, 1598~1680)의 큰아들인 존재(存齋) 이휘일(李徽逸, 1619~1672)의 종가인 石溪宗家에서 보존 관리하였으나, 1960년에 경북대학교 도서관에 기탁되어 보관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책은 본래의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으나, 다만 책사만은 후손들이 내용 복사를 위하여 해책한 이후 다시 묶음하여 바뀌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존상태는 전체적으로 양호하다.



○ 내용 및 특징

『음식디미방』은 17세기에 정부인 장계향이 쓴 한글 조리서이다. 저자인 장계향은 퇴계 이황의 학통을 이어받은 경당(敬堂) 장흥효(張興孝, 1564~1633)의 딸이다. 그 생애에 대해서는 셋째 아들인 갈암(葛庵) 이현일(李玄逸, 1627~1704)이 기록한 「선비 증 정부인 장씨 행실기(先妣贈 貞夫人張氏行實記)」를 통하여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그 전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선비 부인(夫人)의 성은 장씨이고, 안동부(安東府) 금계리(金溪里) 사람이다. 고

려 태사(太師) 정필(貞弼)의 후손으로 대대로 본주(本州)의 저명한 성씨였다. 부의 휘는 흥효(興孝)인데 학문을 좋아하고 행실을 독실히 하여 학자들의 사표가 되었으니, 세상에서 이른 바 경당(敬堂) 선생이라는 분이 바로 이분이다. 인조(仁祖) 계유년(1633, 인조11)에 특지로 창릉 참봉(昌陵參奉)에 제수되었고, 안동 권씨(安東權氏)에게 장가들어 만력 무술년(1598, 선조31) 11월 을사일에 부인을 낳았다.

부인은 성품이 총명하고 자애로우며 효성스러웠고 선언(善言)을 듣기를 좋아하였다. 선생에게는 딸 하나뿐이라서 매우 사랑하여 『소학(小學)』과 십구사(十九史)를 가르쳤는데 힘들이지 않고 글 뜻을 통달하였다. 선생이 한번은 문인들과 원회운세(元會運世)의 수(數)에 대해 말하였는데 환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애기가 끝난 뒤에 돌아와 집에 들어가서 부인을 불러 물으니, 부인이 겨우 10여 세였는데 잠시 가만히 앉아 있다가 숫자를 세어 대답하자 선생이 매우 기특하게 여겼다. 이때부터 조석간(朝夕間)에 얼굴을 맞대고 말해 주는 것들이 모두 성현의 격언(格言)이었는데, 부인이 존중하여 믿고 공경히 지켜 반드시 일상생활 속에서 체험하려 하였다.

시(詩)와 글씨에 있어서도 배워 익히지 않고도 능하였다. 청풍자(淸風子) 정공윤목(鄭公允穆)이 일찍이 부인이 쓴 적벽부채(赤壁賦體)를 보고 놀라서 말하기를, “필체가 호방하고 굳세어 우리나라 사람의 서법과는 같지 않으니, 중국인의 필적이 아닌가.” 하였다. 일찍이 시를 지었는데 “창밖에 부슬부슬 비가 내리니, 부슬부슬 자연의 소리로다. 내 자연의 소리를 들으니, 내 마음 또한 자연이로다. [窗外雨蕭蕭 蕭蕭聲自然 我聞自然聲 我心亦自然]” 하였고, 또 절구(絕句)를 지었는데 “내 몸은 부모의 몸이니, 감히 이 몸을 공경하지 않으랴. 이 몸을 만약 욕되게 한다면, 이는 바로 어버이의 몸을 욕되게 함이다. [身是父母身 敢不敬此身 此身如可辱 乃是辱親身]” 하였다. 구사하는 말이 깨끗하고 단정하며 엄숙하기가 모두 이러하였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10세 전후 때의 일이고, 조금 자라 15세가 되어서는 시를 짓고 글씨를 쓰는 것은 모두 여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하여 마침내 모두 끊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시와 좋은 글씨가 많이 전하지 않는다. 권씨 부인이 중간에 병이 들어 여러 해 동안 앓았는데,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밤낮으로 시탕(侍湯)하면서 음식 공양을 몸소 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19세에 우리 선친께 계실(繼室)로 시집왔는데, 선친의 휘(諱)는 시명(時明)이고, 자는 회숙(晦叔)이며, 성은 이씨(李氏)이다. 시부모를 섬김에 있어 지극히 효도하고 삼갔으며, 60년 가까이 선친을 받들면서 공경하여 서로 대하기를 손님같이 하였고, 매사를 반드시 여쭙 뒤에 행하였다. 전부인의 자식을 기르고 사랑하기를 자기가 낳은 자식과 다름없이 하여 가르치고 꾸짖기를 지극히 하였고, 혼인시킬 때에는 혼수(婚需)를 자기가 낳은 자식보다 후하게 하였다. 어린 계집종을 딸처럼

대하여 병이 들면 반드시 음식을 먹이고 간호하여 완전히 낫도록 보살폈고, 잘못이 있으면 조용히 훈계하여 모두 감복하게 만드니, 다른 집의 종들이 그 소문을 듣고 모두 부인에게 부림받기를 원하였다. 가는 곳마다 외롭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을 진휼하고 도와주면서 마치 자기 일처럼 근심하였고, 집안이 곤궁하다 하여 게을리하지 않았다. 때로 몰래 물건을 보내어 받는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웃의 외로운 노인들이 모두 그 덕에 감격하였고 축수(祝壽)하고 복을 빌며 죽어서라도 반드시 보답하겠다고까지 하였다.

항상 옛 성현의 말은 반드시 본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늘 글 따로 사람 따로인 폐단에 대해 한탄하였다. 임신을 하자 『열녀전(列女傳)』의 경계를 생각하여, 과일 따위라도 모양과 색깔이 완전하고 바르지 않으면 모두 입에 대지 않았다. 마을에 회갑연이 있어서 종족과 인척이 모두 모이고, 기악(妓樂)이 함께 펼쳐지고, 눈앞에서 처용무(處容舞)와 탈춤 놀이를 하였는데, 부인이 마침 임신 중이어서 즉시 머리를 숙여 시선을 거두고 종일토록 눈을 들지 않았다. 경당 선생이 듣고 감탄하기를, “너는 배운 것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하였다.

6남 2녀를 두었는데, 매우 자애로웠으나 잘못이 있으면 조금도 가차없이 꾸짖었다. 선친께서 일찍이 조부 승지공의 상을 당해 거상(居喪)하느라 부인이 혼자서 집안 일을 맡았는데, 일을 처리하는 데 모두 법이 있었고, 여가가 있을 때마다 자녀에게 반드시 효제충신(孝悌忠信) 및 공경과 태만, 의리와 욕심의 구분을 가르쳐 자상하게 일러주고 반복해서 자세히 말해 주었다. 현일이 당시에 아직 어려서 비록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지금도 귀에 쟁쟁하다. 우둔하고 보잘것없어 비록 그 지극한 가르침을 실행하여 성취한 바가 있지는 못하지만 평생 비속한 말을 입에 올리거나 남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은 것은 실로 부인이 어려서부터 금지하고 경계하여 그렇게 된 것이다.

집안의 여러 부녀자와 아직 관례(冠禮)를 하지 않은 사내들에게도 반드시 옛 의리를 말해 주고 선(善)으로 인도하여 의롭지 않은 데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한 순간도 쉬지 않았다. 일찍이 말하기를, “선이란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지금 삼척동자를 가리키면서 ‘너 착하다.’ 하면 기뻐하고, ‘너 착하지 않다.’ 하면 화를 낸다. 선을 마땅히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똑같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만약 성인(聖人)은 정말로 사람의 부류가 아니고 일반적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면 참으로 노력하여 미칠 수 없겠지만, 그 외모와 언어가 애당초 보통 사람과 다르지 않고, 행한 바가 또 모두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항상 하고 있는 것이니, 문제는 배우지 않는 데 있는 것이다. 진실로 배운다면 성인이 되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하였다. 또 말하기를, “내가 일찍이 세상 사람들이 사물 때문에 의(義)를 해치는 것을 병통으로 여겼다. 의는 중요하고 사물은 중요

하지 않은 것인데, 어찌 중요한 것을 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취한단 말인가.” 하였다. 또 일찍이 자식들에게 경계하기를, “너희들이 비록 글을 잘한다는 명성이 있지만 나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라도 선행을 했다는 말을 들으면 내가 기뻐서 잊지 않는다.” 하였다.

선친의 성격이 엄하였는데, 노하시느 일이 있으면 반드시 조용히 풀어 드려서 지나치는 데에 이르지 않게 하였다. 일찍이 선친께 말씀드리기를, “공이 이미 은둔하여 집에 계시니 마땅히 시례(詩禮)를 가르쳐서 자식과 손자들을 훈도해야 할 것인데, 어찌 이러한 때에 자식과 손자들을 거느리고 강학하고 예를 익혀서 크게 선조를 빛내고 후손을 인도하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까.” 하자, 선친이 그 말에 대해 기뻐하였다. 뒷날 이르는 곳마다 매번 초하루와 보름에 『소학(小學)』과 성리서(性理書)를 강(講)하고, 중간중간에 향사례(鄉射禮)를 통해 선비들이 서로 만나는 의식을 행하여 후학(後學)을 권면하여 진전시켰으니, 이는 부인이 내조한 공로가 컸던 것이다.

우리 이씨는 대대로 영해(寧海)에 살았는데 안동(安東)과는 200리 길이였다. 부인이 시집온 뒤로 1년에 한 번씩 친정에 문안 갔고, 출가했다 하여 부모에게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얼마 안 있어 권씨 부인이 세상을 떠나고 경당 선생이 나이 60이 다 되었는데 후사가 없었다. 부인이 선친께 청하고서 친정에 돌아가 봉양하다가 선생이 계실(繼室)을 맞은 뒤에야 돌아왔다. 선생이 만년에 3남 1녀를 두었는데, 선생이 돌아가실 때 장남이 겨우 8세였다. 부인이 선친께 고하여 데려다 기르고 가르치고, 또 계모와 여러 동생들까지 데려다 집을 지어서 살게 해주었으며, 조고(祖考)와 고(考)의 신주를 모셔와서 춘추(春秋)로 제사를 거르지 않고, 동생들을 모두 제 때에 혼인시키니, 사람들이 선친의 의리를 훌륭하게 여기고 부인의 효성을 칭찬하였다.

부인이 비록 자신을 감추고 순종하였으나 기상이 호방하고 식견과 도량이 맑고 원대하여 고금의 사변(事變)을 모르는 것이 없었다. 오랑캐가 우리나라를 침범하고 능멸하여 국가의 위세가 진작되지 못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개탄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항상 노중련(魯仲連)이 진(秦)나라를 황제로 섬기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긴 것과 같은 마음을 가졌고, 〈소용(小戎)〉 처럼 군대를 일으키기를 바랐었다. 선친께서 세상 돌아가는 것이 마음에 맞지 않아 세상의 영화롭고 이로운 일에 대해 아예 마음을 접고 살았는데, 부인이 선친과 뜻을 함께하여 비록 자주 이사하느라 괴로웠지만 끝내 원망하는 기색이 없었다. 음식과 의복은 간소하고 깨끗하게 하였을 뿐이고 세상 사람들이 숭상하는 화려하고 진귀한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담담하여 좋아하는 것이 없었다.

부인은 성품이 너그럽고 느긋하여 급작스러운 상황에서도 말을 빨리 하거나

안색이 변하지 않았고, 또 기쁘거나 노여운 일이 있다고 해서 마음이 동하지도 않았다. 어렸을 때 한 번은 베를 짜고 있는데 어린 계집종이 실수로 불씨를 떨어뜨려 절반이나 타버렸는데도 부인은 얼굴빛이 변하지 않고 천천히 정리하였고 끝내 조금도 화를 내지 않았으니, 사람들이 그 도량에 감복하였다.

선친의 둘째 아들 휘일(徽逸)이 부인에게는 큰아들인 데다 행실이 어질어서 부인이 특히 사랑하였고, 딸 둘과 막내 운일(雲逸)도 모두 평생 염려하였었는데, 모두 불행히 부인보다 먼저 죽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부인이 필시 슬픔으로 몸을 해칠 것이라고 하였으나, 감정을 단속하고 슬픔을 억제하여 지나치게 상하는 데에는 이르지 않고서 말하기를, “나는 애통하고 절박하다 하여 부모님이 남겨 주신 몸을 해치지 않는다.” 하였다.

정사년(1677, 숙종3)에 불초자 현일이 선인의 음덕으로 시종(侍從)의 직함을 받아 잔치를 베풀고 추은(推恩)할 때 부인이 나라에서 하사한 곡식과 옷감과 음식을 받으니 사람들이 모두 영광스럽게 여겼으나 부인은 기쁜 기색을 하지 않고 말하기를, “나는 너의 선친께서 살아 계실 때 이런 일이 있지 못한 것을 슬퍼한다.” 하시며 더욱 행실을 닦고 선을 행하라는 뜻으로 거듭거듭 말하였다. 경신년(1680, 숙종6) 7월 갑오에 석보촌의 집에서 돌아가시니, 향년 83세였다.

부인은 타고난 자품이 이미 후덕한 데다가 학문을 한 힘까지 더하여 어질고 지성스러우며 선을 즐거워하고 의를 좋아하기를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내내 한결같이 하였다. 만년에 몸이 노쇠하여 다른 데에는 생각이 미치지 않았지만 오직 사람에게 선을 행하도록 인도하려는 뜻만은 끝내 조금도 쇠하지 않았다. 현일이 일찍이 조정에 벼슬하였기 때문에 추은하는 은전이 있어 선친은 가선대부 이조 참판에 추증되고 부인은 규례에 따라 정부인에 추증되었다. 내외의 손자와 증손자가 약간 있는데, 모두 선친의 행장에 갖추 실려 있기 때문에 다시 쓰지 않는다.

아, 부인의 아름다운 덕행은 마땅히 사책(史冊)에 갖추 실어서 후세에 전해야 하겠지만, 자식들 중에 선친의 덕업(德業)을 계승한 중씨(仲氏) 같은 이는 부인의 성년 때의 일을 익히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덕행을 잘 말할 수 있는데 불행히 미처 하지 못하였으니, 더욱 슬프다. 현일은 불초한 후생으로 덕이 적고 식견이 얕으니 어떻게 실상을 잘 표현하여 후세 사람이 믿도록 할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망설이면서 감히 경솔하게 붓을 들지 못하고, 슬픔을 머금고 생각을 다하여 쓰려다가는 다시 그친 것이 여러 차례였다. 그러나 지난날을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세월은 살같이 빠르고 사람의 일이란 알 수 없으니, 만약 세월이 더 흘러 세대가 멀어져 징험할 수 없게 된다면 불효한 죄를 실로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서 세월만 보내다가 끝내 전해질 수 없게 하는 것보다는 평소에 보고 들어서 아는 것들을 대강 기록하여 뒷날 입언(立言)할 사람이 채택할 수 있도록 해 두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에 마침내 피눈물을 흘리며 이상과 같이 그 대강을 쓴다. 망극한 슬픔을 견딜 수 없으니, 아, 애통하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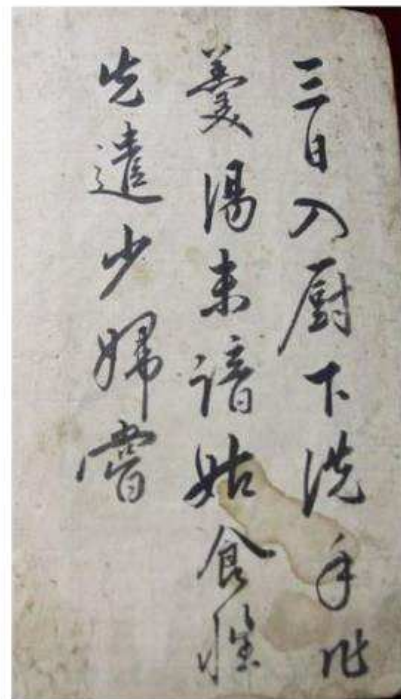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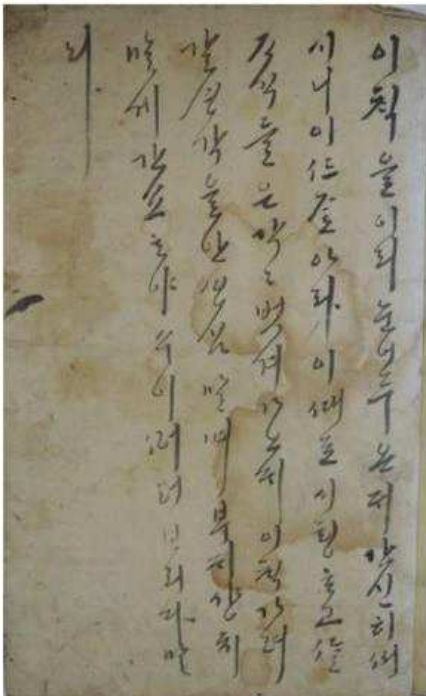
금상 18년 임신(1692) 3월 무오일에 아들 가선대부 이조참판 겸 세자시강원찬선 성균관좌주 현일은 피눈물을 흘리며 삼가 쓴다.

조사본 『음식디미방』은 표지의 제첩과 권수제의 명칭이 다르다. 제첩에는 『규곤시의방(閨壺是議方)』이라 적혀 있고, 권수제는 ‘음식디미방’이라 쓰였다. ‘규곤(閨壺)’은 여성들이 거처하는 공간인 ‘안방과 안뜰’을 뜻하고, ‘시의방(是議方)’은 ‘올바르게 풀이한 처방문’이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음식디미방’은 ‘飲食知味方’으로 ‘음식의 맛을 아는 방법’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표지의 제첩은 단정한 해서체로 쓰여져 있는데, 이는 안동장씨의 남편 이시명의 글씨라고 전하고 있다. 반면 본문의 권수제는 한글 정자로 필사하였는데, 표지와 본문의 보존상태 등으로 볼 때 동일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앞표지의 면지에는 당나라 시인 왕건(王建)이 지은 “신가랑사 삼수(新嫁娘詞 三首)” 중에서 세 번째 작품이 묵서되어 있다.

三日入廚下/ 시집온 지 사흘 만에 부엌에 들어가
洗手作羹湯/ 손을 씻고 국을 끓이지만



未諳姑食性/ 아직 시어머니의 식성을 몰라
先遣小婦嘗/ 소부를 보내서 먼저 맛보시게 하였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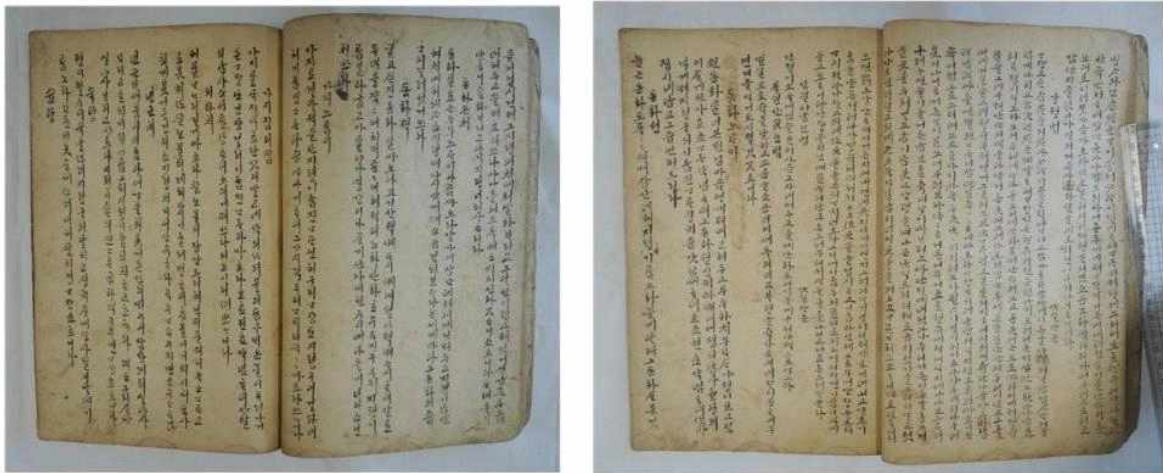
한편, 뒤의 면지에는 본문의 작성 내력과 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 책을 이리 눈 어두온디 간신히 써시니 이 쓰즐 아라 이새로 시흥하고 썰조식들은 각각 벗겨 가오디 이 책 가더갈 심각을안 심심 말며 부디 상처 말게 간쇼흐야 수이 써러 부리다 말라.”

조사본은 모두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본문 제14장 다음에 3장의 공지를 두었고 다시 8장의 본문 뒤에 3장의 공지가 추가되어 있다. 이는 음식조리법에 관해 더 서술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마련된 것이라 판단된다.

권수면의 하단에는 朱文方印의 ‘遠志齋文庫’라는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다. 遠志齋는 貞夫人의 첫째 아들인 存齋 李徽逸(1619~1672) 堂號로서 存齋 집안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을 보여준다.

내용은 모두 146항으로 麵餅類 18항, 魚肉類 74항, 酒類 51항, 醋類(식초 만드는 법) 4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 ‘맛질방문’이라고 표기한 16항이 있는데, 맛질이란 장계향의 친정 어머니의 동네인 禮泉郡 龍門面 溪谷里 맛질마을에서 전수 받은 외가의 조리비법을 소개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본문은 한글로 이루어졌는데 그 서체는 ‘정자’와 ‘흘림’의 두 형식이 확인된다. 그러나 ‘정자’로 쓴 글씨에도 흘림의 필의가 들어 있으며, 특히 ‘흘림’의 서체는 책의 말미에 쓴 안동장씨의 발문과 동일한 필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내용 가운데 붓으로 쓴 글자를 한겹 걷어 내거나, 예리한 칼과 같은 물건으로 먹 을 제거한 다음 수정한 흔적이 몇 군데 나타나고 있다. 또한 먹으로 글자를 지우고 그 옆에 수정한 글자를 써넣은 곳도 몇 개가 보인다. 이같은 특징으로 보아 이 책은 초고로 판단되며 가치 또한 높다고 할 수 있다.

○ 문헌자료

경북대학교 출판부(2003), 『음식디미방』, 경북대학교 고전총서 10.

- 김예니(2012), 『음식조리서에 나타난 근대국어 부사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권희·임기영(2017), 「『음식디미방』의 서지적 특징」, 『음식디미방과 조선시대 음식문화』, 125~163.
- 배영동(2012), 「『음식디미방』 저자 실명 ‘장계향(張桂香)’의 고증과 의의」, 『실천민속학연구』 19, 163~186.
- 배영동(2014), 「16~17세기 안동문화권 음식조리서의 등장 배경과 역사적 의의-『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의 사례」, 『남도민속연구』 29, 135~175.
- 백두현(2001), 「『음식디미방』[閨壺是議方]의 내용과 구성에 대한 연구」, 『영남학』 창간호, 249~280.
- 백두현(2004), 「『음식디미방』의 표기법과 자음변화 고찰」, 『국어사연구』 4, 95~121.
- 이광호(2000), 「음식디미방의 분류 체계와 어휘 특성」, 『문학과 언어』 22, 1~26.



○ 내용 및 특징

한글 음식조리서로는 현존 最古이다. 17세기 중엽 한국인들의 식생활 및 조리법과 음식문화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며, 역사, 민속, 국문학 연구에 있어서도 귀중한 자료이다.

앞 面紙에는 唐의 시인 王建이 지은 新嫁娘의 시 한 수가 수록되어 있고, 뒷면 지에는 후손들에게 주는 轉寫와 보존에 관한 당부가 수록되어 있다. 장마다 행자 수는 일정하지 않아 15-17행이며, 행당 34-36자이다.

이 책은 저자가 70이 넘은 만년에 며느리와 딸에게 전래의 음식 조리법을 물려주기 위해 만들었으며, 원본은 정부인이 낳은 첫아들 存齋 李徽逸(1619-1672)의 종가에 보존되어왔다.

저자 장계향은 敬堂 張興孝(1564-1633)의 딸이며 石溪 李時明(1590-1674)의 계실로 출가하였고, 셋째 아들 葛庵 李玄逸이 이조판서를 지냈기에 종2품 이상 관원의 부인에게 내려지는 貞夫人의 품계가 내려졌다.

저자는 이문열 소설 『선택』의 주인공으로 그려지기도 하였고 1999년에는 위대한 어머니상으로 문화관광부 이달의 문화인물로 선정되는 등, 전국적으로 이미 명망이 있으며, 동시에 이 책 역시 널리 알려져 있다.

○ 문헌자료

閨壺是議方: 음식디미방. 貞夫人 安東張氏 著, 韓國印書出版社, 서울, 1980.

貞夫人安東張氏實紀. 李猷遠 著, 헌종10년(1844)

(國譯)貞夫人安東張氏實紀. 이수병; 이재호 역, 국역정부인안동장씨실기간행소, 1999.

장계향의 女中君子像과 군자교육관에 관한 연구. 김춘희. 계명대학교, 대구, 2012.
 장계향의 삶과 인성 리더십 교육. 김수정. 대구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장계향의 삶과 철학에 나타난 자아실현 과정에 관한 연구. 蔣善禧. 大邱韓醫大學
 校 박사학위논문, 2020.
 張桂香의 『음식디미방』과 유교여성 살림의 철학. 이난수, 慶北大學校 退溪研究所. 2014.

□

○ 현 상

필사본으로 五針眼訂法으로 된 제책된 線裝本임. 표지의 題簽에는 『閨壺是議方』
 으로 적혀져 있고, 卷首題가 『음식디미방』임. 일부 수정한 면을 제외하면 保存狀
 態는 비교적 양호한 편임.

○ 내용 및 특징

『음식디미방』은 1670년(현종 11) 경 貞夫人 張桂香(1598-1680)이 쓴 한글 조
 리서 筆寫本이다. 본서의 저자 장계향은 退溪 李滉의 再傳 弟子인 敬堂 張興孝
 (1564-1633)의 딸로서, 어릴적부터 婦德과 詩, 書畫의 學藝를 익혔다. 19歲에 參奉
 이었던 石溪 李時明(1590-1674)에게 출가하여 일곱 명의 아들을 낳아 훌륭하게
 길러 내었다. 셋째 아들인 葛庵 李玄逸(1627-1704)이 1690년(肅宗 16)에 정2품의
 관직에 除授되자, 夫君은 吏曹判書에 贈職되고 부인에게는 貞夫人이라는 外命婦의
 職牒이 내려졌다.

『음식디미방』은 여성이 한글로 쓴 우리나라 최초의 조리서이다. 卷首題가 『음
 식디미방』으로 되어 있고, 표지에는 종이로 된 제첩에 『閨壺是議方』이라 적혀져
 있다. 본문의 내용 전체가 한글 궁서로 쓰여져 있는데, 굳이 표지 題名을 한문으
 로 意譯하여 표기한 것은 약간 어색해 보인다. 본서의 書誌事項은 다음과 같다.

음식디미방/ 張桂香(朝鮮) 著.

筆寫本.

[英陽], [張桂香], [顯宗 11(1670)년경 筆寫].

1책((28張; 本文 22, 餘紙 6장)

線裝.



<표지>

<권두>

後記 : 이 책을 이리 눈이 어두운데 간신히 썼으니, 이 뜻(을) 잘 알아 이대로 시행하고, 딸자식들은 각 각 벗겨[베껴] 가오되 이 책 가져갈 생각을 말며, 부디 상처말게 간수하여 수이 떨어져버리지 말라.

본서의 표지는 저지를 여러 장 겹쳐서 만든 장지인데, 유독 검은색을 띄고 있음이 특이하다. 권두면의 하단에는 ‘遠志齋文庫’라는 朱色(주색)의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다. 遠志齋는 貞夫人의 첫째 아들인 存齋 李徽逸(1619-1672) 堂號인데, 본서가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에 기탁되기 전까지는 存齋 집안에서 보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장계향은 석계 이시명에게 後妻로 출가하여 일곱 아들을 낳았는데, 석계와 前妻 사이에 아들은 없었지만 입양한 아들로 대를 이었고 본서의 소유자인 李燾은 이들 家系의 13대 宗孫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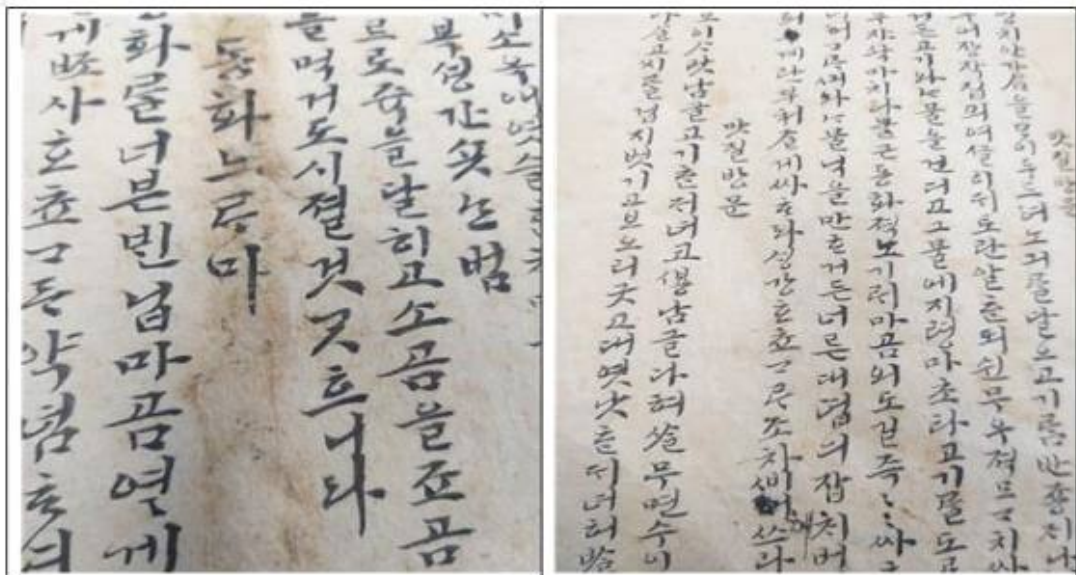
본문은 모두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본문 제14장 다음에 3장의 여백지를 두었고 다시 8장의 본문 뒤에 3장의 여백지가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製冊 방식은 다른 책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사례로, 이는 아마도 추후에 음식조리법에 관해 더 서술할 필요가 있을 경우 補筆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본문 뒤 여백지>

<여백지 뒤 본문>

본문 가운데에는 붓으로 쓴 글자를 한겹 걷어 내거나, 예리한 칼과 같은 물건으로 먹울 제거한 다음 수정한 흔적이 몇 군데 나타나고 있다. 또한 먹으로 글자를 지우고 그 옆에 수정한 글자를 써넣은 곳도 몇 개가 보인다.



<한 겹 걷어내고 수정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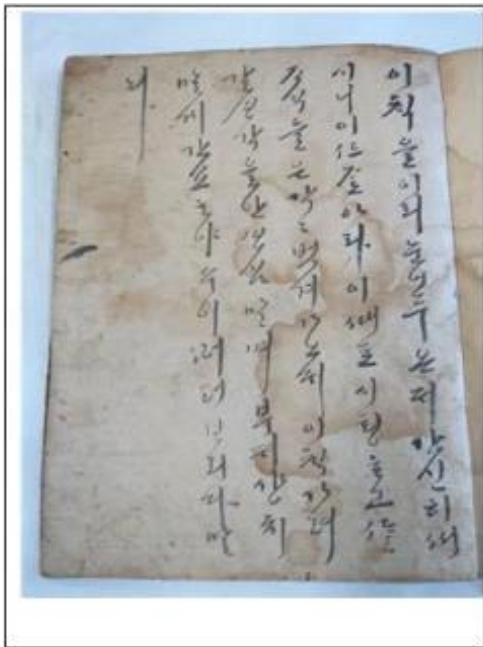
<먹으로 지우고 수정한 모습>

내용은 모두 146항으로 麵餅類 18항, 魚肉類 74항, 酒類 51항, 醋類(식초 만드는 법) 4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 ‘맛질방문’이라고 표기한 16항이 있는데, 맛질이란 장계향의 친정 어머니의 친정 동네인 禮泉郡 龍門面 溪谷里 맛질마을인

것으로 미루어, 그가 친정어머니를 통해 전수받은 외가의 조리비법을 소개한 것으로 추측이 된다. 이 책에서 정리하고 있는 조리법의 특징은 일반 음식이라기 보다는 接賓 음식 위주라는 점이고, 매운 음식에 고추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매운 맛은 천초, 후추, 겨자를 썼고, 마늘보다는 생강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본문이 끝나고 맨 뒷장에 위의 사진과 같은 後記가 적혀져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책을 이리 눈이 어두운데 간신히 썼으니, 이 뜻(을) 잘 알아 이 대로 시행하고, 딸자식들은 각 각 벗겨[베껴] 가오되 이 책 가져갈 생각을 말며, 부디 상처말게 간수하여 수이 떨어버리지 말라”. 이 후기는 筆體가 본문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며, 내용을 볼 때 저자인 장계향이 직접 쓴 글인 것으로 여겨진다.

본 『음식디미방』 이전에 쓰여진 음식관련 저술로는 許筠이 1611년에 편찬한 『屠門大嚼』을 비롯한 몇 종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한글로 쓴 최초의 조리서라는 데에 이 책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경북 영양군에서는 본



<後記 : 후손에게 당부한 글>

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음식디미방 복원사업’을 벌여, 이 책의 조리법 중 74여 종의 음식을 현대적으로 복원한 바 있다. 또한 ‘음식디미방 명품화사업의 일환으로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을 건립하여 음식디미방 음식체험, 음식디미방 체험아카데미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우리 전통 음식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다. 2010년대에 이르러서는 수차례에 걸친 『음식디미방』 관련 포럼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이 책의 학술적 가치를 논의하고 활용 방안, 세계화 방안 등을 토의하였다. 이와 같이 본서는 우리나라 최초 여성이 한글로 쓴 조리서라는 의미와 함께 현대적인 활용도가 매우 높은 책이라고 평가된다.



○ 현 상

『음식디미방』은 안동장씨 계향⁹⁾이 17세기에 저술한 조리서로 전체적인 보존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나 후손들의 전언에 의하면 후대 사람들이 복사를 위하여 책을 오픈하였다가 제책하기 위하여 새로운 실로 5침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현재 5침한 실은 새로 제본한 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정한 겉표지에 쓰인 표지 서명은 『규곤시의방(閨壺是議方)』으로 가로 5.1cm 세로 15.8cm의 제침에 서체는 한자 해서로 썼는데 이는 안동 장씨의 남편 이시명의 글씨라는 소유자 이돈의 전언이다. 표제지 제침 『규곤시의방』의 오른쪽 하단 의방(議方) 옆 부분은 종이의 탈락이 있다. 내지에는 당나라 시인 왕건(王建)이 지은 「신가랑사(新嫁娘詞)」 삼수(三首) 중 세 번째 작품이 행서로 쓰여 있다.¹⁰⁾

본문 첫머리 권두서명은 한글 정자로 『음식디미방』이라 필사하였는데, 표지 서명과 권두 서명의 서체와 명칭, 그리고 필사자가 서로 다르다.¹¹⁾ 권두면의 오른쪽 하단에는 세로로 ‘원지재문고(遠志齋文庫)’라고 붉은색의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다.¹²⁾

이 필사본의 서체는 ‘정자’와 ‘흘림’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자’로 필사한 부분도 간혹 흘림의 필의를 섞어 쓴 장법이 보인다. 또한 책의 중간에 필사한 흘림도 2-3글자씩 연면하여 필사한 글씨를 보면 안동 장씨는 매우 서예에 능숙했다고 볼 수 있다.

책의 말미에 안동 장씨가 자신이 이 책을 필사한 이유와 목적을 한문 초서와 같이 흘림으로 필사하였는데 책의 중간 중간에도 이와 유사한 필의가 나타나기도 한다.

책의 크기는 26.5cm×18cm이고 광곽과 계선이 없다. 전체 구성은 앞 뒤 표지를 포함하여 전체 30장으로 본문 28장은 면병류(麵餅類, 18종류), 어육류(魚肉類, 74종류), 주국방문(酒麴方文, 54종류)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이한 점은 주국방문에서 술 빚는 방법이 47종류로 가장 많은 조리법이 서술되어 있다. 표지를 뺀 28장 가운데 6장의 백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비시늉물쓰는법’¹³⁾이 끝나고 3장의 백지가

9) 정부인 안동 장씨(1598년-1680년)는 조선 중기의 문인이고 요리 연구가이며 이름은 계향(桂香)으로 1616년 참봉 이시명과 결혼하여 6남 2녀를 두었다. 경상북도 안동과 영양 일대에서 살았던 저자는 당시 요리 방법을 필사한 조리서 『음식디미방』을 남겼다. 이 조리서는 146개 향에 달하는 음식 조리법을 전개하여 17세기 중엽 우리의 식생활을 알 수 있으며 당시 음식문화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10) 삼일입주방(三日入廚房), 세수작갱탕(洗手作羹湯), 미암고식성(未諳姑食性), 선견소고상(先遣小姑嘗), 시집 와 사흘 만에 부엌에 들어 손을 씻고 국을 끓이지만 시어머니 식성을 몰라서 시누이더러 먼저 맛을 보게 하네.

11) 표지 서명 제침의 필사자는 남편 석계 이시명이고 한문 해서로 필사, 권두 서명 필사자는 부인 장계향으로 한글 정자로 필사

12) 원지재(遠志齋)는 정부인 안동 장씨의 첫째 아들 존재 이휘일(存齋 李徽逸, 1619-1672)의 당호이다. 따라서 ‘원지재문고(遠志齋文庫)’라는 장서인은 어머니 장씨가 필사한 조리서 『음식디미방』이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에 기탁되기 전까지는 큰 아들인 이휘일의 집안에서 보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3) 비시늉물 : 제철이 아닌 나물. 비시(非時)나물

있으며, ‘미즈초’의 내용이 끝나면서 반장 정도의 여백과 함께 3장의 백지가 더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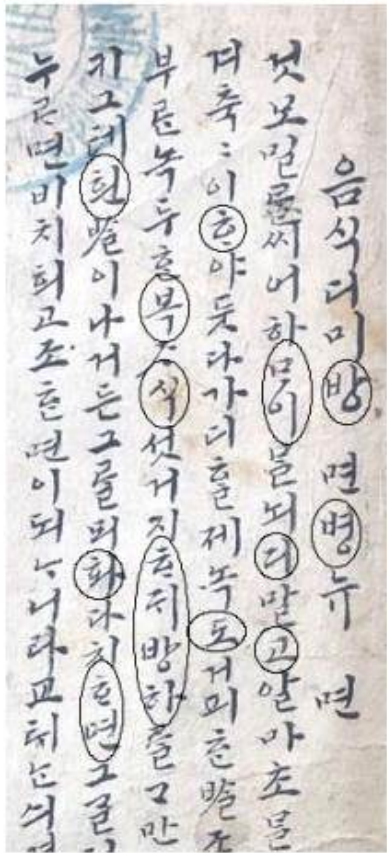
○ 내용 및 특징

『음식디미방』은 현재 대구 경북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17세기 정부인 안동 장씨가 한글로 저술한 우리나라 최초 조리서이며, 제작 목적과 필사자가 분명한 1권 1책의 필사본이며 유일본이다. 각종 육류·생선·채소·실과 등을 이용하여 음식을 조리하는 내용을 알아보기 쉽고 꼼꼼하게 정자로 필사하였다. 따라서 이 조리서는 17세기 경상도 근방의 식생활 문화와 전통 음식에 대한 방법을 알 수 있으며, 당시 사용하던 언어와 한글서예의 서체에 대한 연구 자료가 되는 매우 중요한 필사본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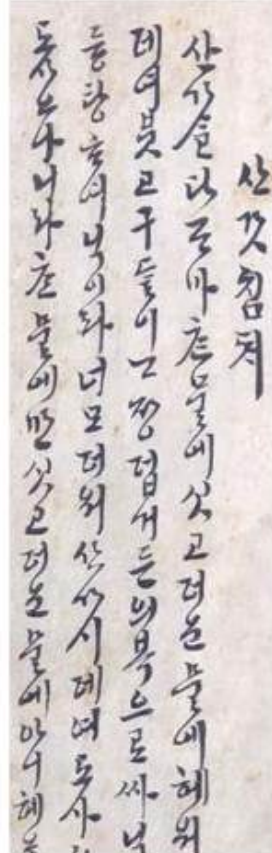
1. 책의 구성과 내용 분석

『음식디미방』의 전체 구성은 앞 뒤 표지를 포함하여 전체 30장이다. 본문 28장은 면병류(麵餅類, 18종류)·어육류(魚肉類, 74종류)·주국방문(酒麴方文, 54종류)으로 구성되어 있다. 메밀과 떡 종류의 조리법을 설명한 면병류에는 국수·떡·다식 등과 같은 조리법에 대한 내용이다. 어육류에는 생선과 고기를 재료로 조리하는 음식 조리법과 조개탕·고기를 말려 보관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리고 면의 조리법과 후식으로 먹는 약과·강정·떡 굽는 방법·복숭아 간수하는 방법·각종 느르미·화채·김치담그는 법·건강법·수박, 동아, 가지 간수하는 법·고사리, 마늘, 제철 아닌 나물의 저장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어육류 보다는 오히려 면병류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육류 뒤편에 쓴 것은 미리 내용을 썼다가 옮겨 적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분류되어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주국방문은 각종 술과 누룩을 만드는 조리법과 식초 담는 법을 필사하였다. 이 필사본에서 가장 많은 조리법은 각종 술 빚는 방법으로 47종류의 술 빚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 쓰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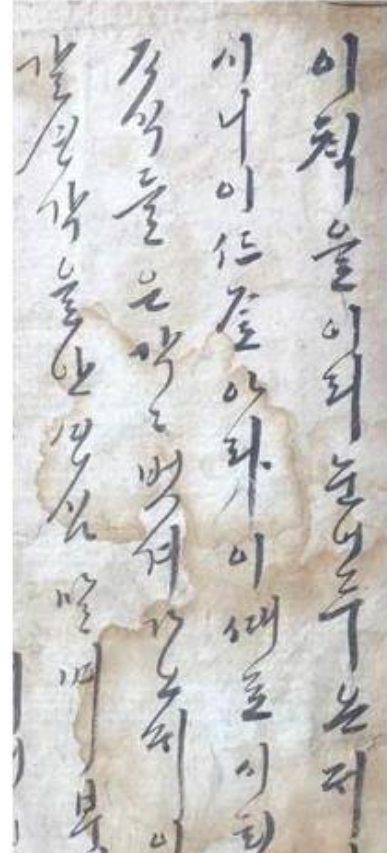
필사본의 서체 구성은 정자와 흘림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정자이나 흘림의 필사가 섞인 '면'의 조리법



흘림이므로 필사한 '산갓 김치'의 조리법



책의 끝에 저자가 흘림으로 필사한 후기

위 표에서와 같이 서체는 정자와 흘림이다. 그러나 정자로 필사한 곳도 흘림의 필의로 섞어 쓴 부분들이 간혹 보인다. 이러한 서체의 변화는 크게 4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권두면 면병류부터 어육류의 54항 ‘인절미 굽는 법’까지 정자로 필사하였고, 어육류 56-58항 즉 ‘복숭아 간수하는 법-동아돈채’까지는 정자보다는 거의 흘림에 가깝도록 필사하였다. 59-70 즉 ‘동아적-동아 담는 법’까지는 흘림으로 필사하였으며, 이후 주국방문 즉 술과 식초의 조리법에 대한 필사는 다시 정자로 필사하였다. 책의 끝에는 저자가 이 책을 필사하는 목적과 이유, 책을 잘 간수하기를 당부하는 필사자의 후기가 있는데 한문 초서와 같이 흘림으로 필사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책을 이리 눈 어두운디 간신히 써시니 이 쓰졸 아라 이 새로 시힘히고 싹조 식들은 각각 벗겨 가오디 이 책 가더 갈 싹각을안 싹심 말며 부디 상치 말게 간 쇼후야 수이 써러 버리다 말라.(이 책을 이렇게 눈이 어두운데 간신히 썼으니 이 뜻을 알아 이대로 시행하고 딸자식들은 각각 베껴 가되 이 책 가져갈 생각일랑 절대로 내지 말며 부디 상하지 않게 간수하여 빨리 떨어지게 하지 말아라.)

<음식디미방의 형태와 구성>



겉표지와 표지서명, 규곤시의방 (閔莚是議方), 해서, 제첩형태



내지, 왕건의 신가량사(新加良舍 新娘娘詞), 행서



권두 면과 권두 서명, 음식 디미방, 정자



필사자의 후기 내용과 흘림



새로 제책한 오침 형태



권두면 하단의 장서인

이 책은 현재까지 다른 등사본이 발견되지 않은 유일본으로 17세기 중엽의 음식문화와 음식 조리 방법 그리고 국어사적, 역사적, 한글서예의 사료적 가치와 서체 변천에 대한 매우 중요한 연구 자료로서 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2. 17세기 한글필사본 조리서 『음식디미방』의 서예사적 위치와 특징

『음식디미방』이 필사된 시기로 보는 1670년경 즉 17세기의 한글은 훈민정음이 간행된 이후 그 형태를 따라 쓴 고체를 비롯하여 정자와 흘림까지 모든 서체

가 나타난 시기이다. 비록 각 서체의 결구와 필법이 완벽에게 갖추어진 글씨는 아니지만 서체의 특징이 나타난 시기라고 할 수 있으며, 한문의 문화와 환경에서 한문혼용→한글전용으로 변화하며 정착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의 한글은 훈민정음의 자형과 같은 정방형의 형태로 글씨 중심축이 한자와 같이 중심에 있었으나 점차 글씨의 중심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장방형의 형태로 변화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음식디미방』 면병류의 자형은 정방형이고 **문·알**에서와 같이 서체는 ‘정자’이다. 글씨의 중심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광곽과 계선이 없는 지면에는 행간을 정하지 않고 한 행에 30-42자까지 배자하였다. 각 자음과 모음의 기필과 수필은 노봉으로 운필하였고 가로획은 한자의 필법과 같이 오른쪽으로 매우 경사지게 행필하여 비록 작은 글씨이나 필세가 시원하고 결구의 긴밀함이 느껴지며 필획은 매우 섬세하다. 면병류 부분의 대부분을 정자로 필사하였으나 종종 한두 글자 연면하여 흘림의 필의가 나타나고 있다.

책의 중간 부분에는 흘림으로 필사한 4면이 있다. **강·물·책·갈**과 같이 필사한 자형은 오른쪽으로 중심이 이동하여 장방형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서체는 흘림이나 2-3글자까지 연면하여 운필하였고 한 행에 25-33자까지 배자하였다. 자형은 장방형으로 세로로 길어지고 간혹 세로획을 굵게 운필하였으며, 각 항의 제목을 띄어서 필사한 것이 특징이다.

책의 말미에 저자가 필사한 후기는 흘림으로 필사하였다. 6행으로 행간을 넓게 하고 한 행에 13-15자를 배자하여 72자로 자신이 저술하는 이 책의 저술 이유를 적었다. 필획은 한문 행서와 같이 유창하고 신속하게 운필하여 결체는 성글고 긴밀함은 자형의 다양한 자태와 무궁한 변화를 나타내었다.

아래 표에서도 보이듯이 17세기 현전하는 한글의 자료를 보면 왕가의 편지글이 주를 이룬다. 간혹 사대부 남자들의 편지글은 보이지만 일반 여성의 글씨는 많지 않다. 따라서 사대부 여성이 한글 전문으로 필사한 것도 귀하거니와 하물며 이를 책으로 제본하여 후손에게 전한다는 것은 서예사적으로도 서체변천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료라고 할 수 있다.

『음식디미방』의 서예사적 위치는 당시 여염집 여인이 필사한 최초의 조리서이기 이전에 서체 변천의 중요한 사료적 위치에 있으며, 이러한 서체로 필사한 것은 이 책이 유일하다. 특히 앞 권두면에서부터 중간까지의 서체인 정자도 연구할 가치가 있겠으나 책의 말미에 후기로 필사한 안동 장씨의 흘림은 당시 어느 글씨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필법과 장법이 뛰어난 글씨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안동 장씨가 한문도 매우 잘 썼기 때문에 한글의 결자 변화를 잘 표현

						
1641년	1650년	1661년	1670년	1685년	1692년	
효종대왕어찰	인선왕후어찰	현종대왕어찰	장계향의 조리서	숙종대왕어찰	송규렴편지	

17세기 한글 필사 자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흘림은 부양(俯仰)·향배(向背)·수종(收縱)·소밀(疏密)·대소(大小)·장단(長短)·경중(輕重)을 긴밀하게 아울러 굳세고 안정되며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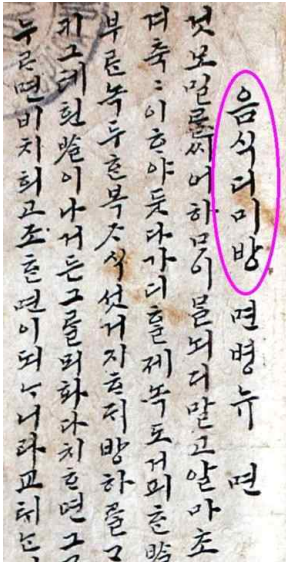
70대의 나이임을 고려할 때 이 책을 필사하여 후손에게 남기고자하는 사대부가의 며느리이자 어머니로서의 사명감이 아니었다면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눈도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어찌 저렇게 붓 끝이 다 보이는 노봉으로 정자를 필사하였으며, 원필과 방필을 병용하여 숙달된 필치로 써내려간 흘림은 성정만큼 굳세고 온화하다. 이와 살펴본 결과 『음식디미방』의 서예사적 가치와 의의는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 문헌자료

백두현, 『음식디미방 주해』, 글누림, 2006

□

이 책의 표지서명은 ‘閨壺是議方’(사진 1-나)이며, 권두서명은 ‘음식디미방’(사진 1-가)으로, 권두서명을 정식 명칭으로 삼는 관례에 따라 ‘음식디미방’으로 불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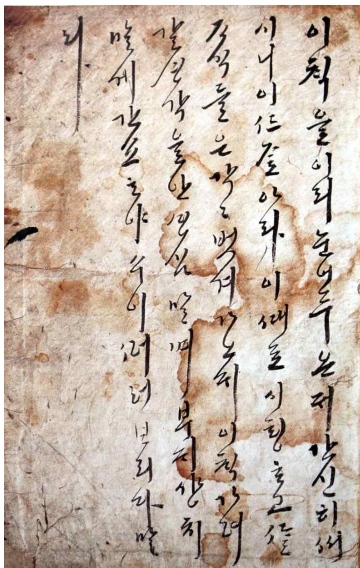
가. 권두서명



나. 표지서명

<사진 1. 음식디미방 표지서명과 권두서명>

이 책의 저자는 貞夫人 안동 장씨(1598~1680)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이 책의 보존 내력과 권말에 기록된 筆寫記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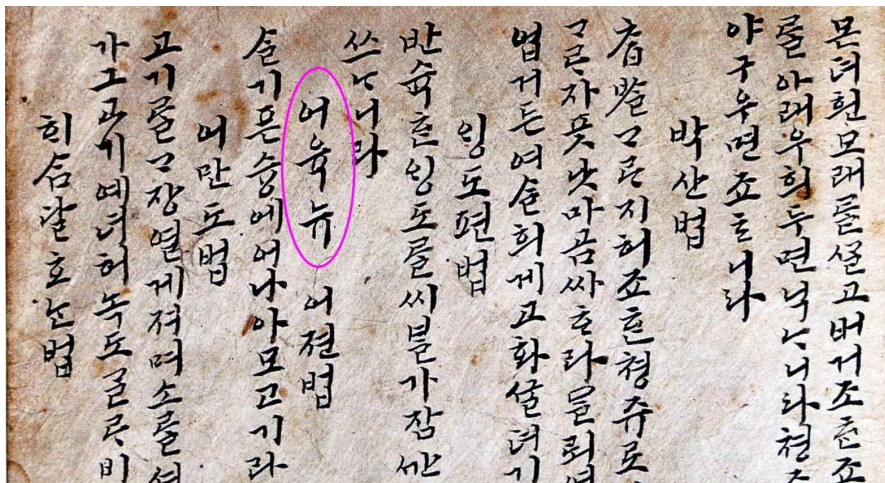
<사진 2. 筆寫記>

이 책을 이리 눈 어두운디 간신히 써시니 이 쓰줄 아
라 이새로 시행하고 딸자식들은 각각 벗겨 가오디 이
책 가져갈 생각을안 심심 말며 부디 상처 말게 간쇼
후야 수이 써러 버리다 말라.

(이 책을 이리 눈이 어두운데 간신히 썼으니, 이 뜻을
알아 이대로 시행하고, 딸자식들은 각각 베껴 가되
이 책을 가져갈 생각일랑 마음에 내지 말며, 부디 상
하지 않게 간수하여 쉽게 떨어져 버리게 하지 말라)

이 책은 貞夫人 장씨의 셋째 아들인 葛庵 李玄逸의 後孫家에서 장씨 부인이 이 책을 썼다는 이야기와 함께 보존되다가 알려졌다. 위 筆寫記의 “이 책을 이리 눈 어두운디 간신히 써시니”라는 표현은 장씨 부인이 직접 썼음을 밝히고 있으며, 말년에 쓴 것임을 짐작케 한다. 이에 근거하여 1670년 경에서 1680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백두현 2001:253).

이 책은 전체 146가지의 음식 조리법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차례로 실고 있는데, ‘면병뉴’(18가지), ‘어육뉴’(74가지), ‘유국방문’(54가지)이 그것이다. 다음 사진에서 보듯이 ‘어육뉴’는 ‘면병뉴’에 이어져 있으며, ‘어육뉴’ 뒤에는 백지가 3장이 있어 ‘유국방문’은 별도의 장에서 시작한다(‘유국방문’ 뒤에도 백지 3장이 있다). 여기의 백지들은 나중에 추가할 조리법이 있을 때를 대비한 조치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백두현 2001:2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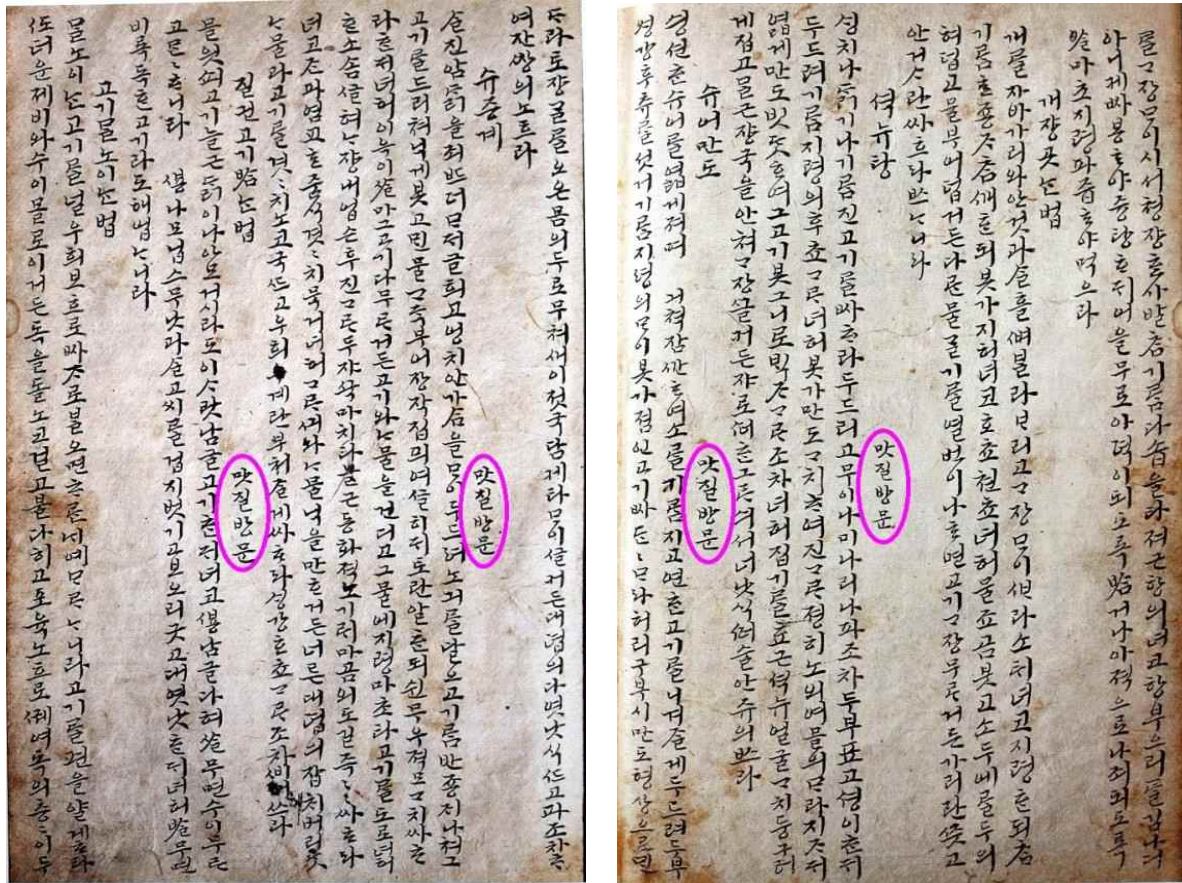
<사진 3. ‘어육뉴’ 시작 부분>

‘어육뉴’는 어육류뿐만 아니라, 면류, 餅菓類(과자와 떡류), 채소류 등도 포함하고 있어 엄밀하게 분류된 것은 아니다. ‘유국방문’은 주류 51가지 초류 3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 책에 실린 조리법 중 일부는 명칭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들이 있다. 면병뉴의 ‘탁면법’과 ‘어육뉴’의 ‘별착면법’, ‘차면법’, ‘면병뉴’의 ‘식면법’과 ‘어육뉴’의 ‘식면법’, 면병뉴의 ‘연약과법’과 ‘어육뉴’의 ‘약과법’ 등이 그 예이다. 또한 ‘유국방문’에는 술의 양에 따라 별개의 항목으로 실린 경우도 있고, 명칭이 완전히 동일한 경우도 있다. ‘삼희주’의 경우 ‘삼희주 스무 말 비지’, ‘삼희주 열 말 비지’, ‘삼희주’, ‘삼희주’의 4가지가 실려 있으며, ‘니화주’의 경우는 ‘니화주 누룩법’, ‘니화주법 혼 말 비지’, ‘니화주법 닷 말 비지’, ‘니화주법’, ‘니화주법’의 5가지를 실었다. 이밖에 ‘삼오주’, ‘절주’, ‘벽향주’, ‘칠일주’, ‘쇼주’ 등도 2회씩 실려 있으나, 재료와 방법

에 있어 조금씩 차이가 있다.

한편 ‘어육뉴’에는 ‘맛질방문’이라고 부기된 조리법 17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맛질’의 방문(조리법)이라는 뜻으로(백두현 2001:264), 여기의 ‘맛질’이 오늘날의 어디를 가리키는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영하(2017:116-120)을 참고할 수 있다.



<사진 4. 맛질방문>

○ 참고문헌

경북대학교 출판부(2003), 음식디미방, 경북대학교 고전총서 10.
 김미영(2011), 전통의 오류와 왜곡의 경계선: 음식디미방의 맛질방문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46, 437-469.
 金思燁(1960), 閨壺是議方과 田家八曲, 高秉幹博士頌壽紀念論叢 vol. 4.
 김예니(2012), 음식조리서에 나타난 근대국어 부사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남권희·임기영(2017), 『음식디미방』의 서지적 특징, 남권희 외(2017), 음식디미방과 조선시대 음식문화, 125-163.
 박채린(2015), 신창 맹씨 종가 「자손보전」에 수록된 한글조리서 「최씨 음식법」의

- 내용과 가치,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30(2), 137-149.
- 배영동(2012), 『음식디미방』 저자 실명 ‘장계향(張桂香)’의 고증과 의의, 실천민속학연구 19, 163-186.
- 배영동(2014), 16~17세기 안동문화권 음식조리서의 등장 배경과 역사적 의의 -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의 사례, 남도민속연구 29, 135-175.
- 백두현(2001), 『음식디미방』[閨壺是議方]의 내용과 구성에 대한 연구, 영남학 창간호, 249-280.
- 백두현(2004), 『음식디미방』의 표기법과 자음변화 고찰, 국어사연구 4, 95-121.
- 백두현(2005), 진행 중인 음운 변화의 출현 빈도와 음운사적 의미-17세기 후기 자료 『음식디미방』의 자음변화를 중심으로, 어문학 90, 45-72.
- 백두현(2006), 음식디미방 주해, 글누림.
- 백두현(2014), 한글 음식조리서-전통 음식 문화를 담은 우리말의 보물 창고, 새국어생활 24-1.
- 백두현(2017ㄱ), 『음식디미방』의 위상과 가치, 남권희 외(2017), 음식디미방과 조선시대 음식문화, 15-71.
- 백두현(2017ㄴ), 『주초침저방』(酒醕沍菹方)의 내용 구성과 필사 연대 연구, 영남학 62, 407-446.
- 백두현·안미애(2019), 표기와 음운변화로 본 『주찬방』의 필사 연대, 국어사연구 28, 233-268.
- 백두현·정연정(2019), 음식디미방의 맛질방문 재론, 지명학 30, 157-205.
- 백두현·홍미주(2019), 17세기 한글 음식조리서 『주찬방』의 서지와 내용 구성, 영남학 70, 7-46.
- 선한빛(2015), 근대 조리서에 나타난 상징부사의 연어 관계와 제약, 민족문화논총 60, 119-151.
- 윤진영·신성철(2021), 16~17세기 경상지역어를 반영한 한글 필사문헌의 구개음화 연구, 영주어문 47, 145-173.
- 이광호(2000), 음식디미방의 분류 체계와 어휘 특성, 문학과 언어 22, 1-26.
- 이선영(2004), 음식디미방과 주방문의 어휘 연구, 어문학 84, 123-150.
- 장충덕(2003), 『음식디미방』의 표기와 음운 현상, 개신어문연구 20, 183-219.
- 주영하(2017), 『음식디미방』, 누가 언제부터 무엇을 연구하였을까?, 남권희 외(2017), 음식디미방과 조선시대 음식문화, 75-121.
-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5), 조선 후기 한글 간찰(언간)의 역주 연구3, 태학사.
- 한복려·한복선·한복진(2000), 다시 보고 배우는 음식디미방, 궁중음식연구원.

7. 수운잡방(需雲雜方)

가. 검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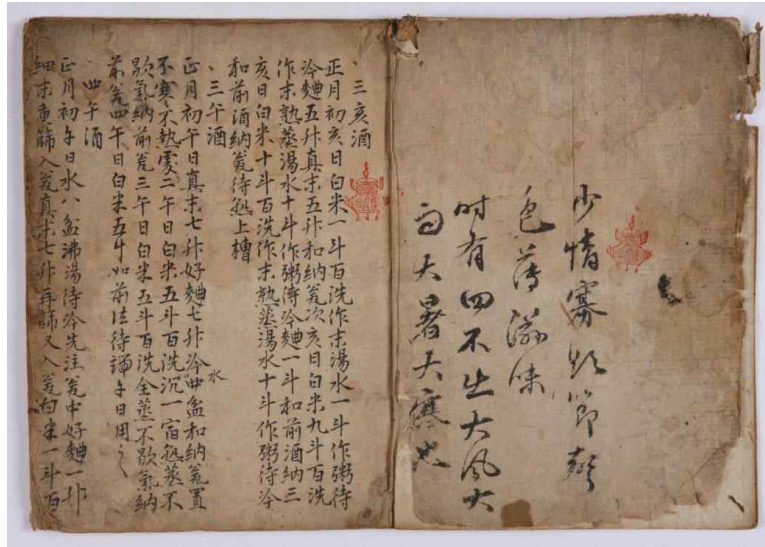
‘수운잡방’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수운잡방’에 대하여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9.10.25.) 이 있어 관계 전문가 조사(‘21.4.9.)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 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35호(2012.5.14.)
- 명 칭 : 수운잡방(需雲雜方)
- 소유자(관리자) : ○○○(한국국학진흥원)
- 소재지 :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중들 2길 9, 한국국학진흥원
- 수 량 : 1책(23장)
- 규 격 : 25.7×19.3cm
- 재 질 : 저지(楮紙)
- 조성연대 : 17세기 중반
- 제작자 : 김유(金綏, 1491~1555), 김영(金垓, 1577~1641)



<수운잡방>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수운잡방’은 23장에 불과하지만 조선 중기의 학자 김유(1491~1555)와 그의 손자인 김영(1577~1641)이 함께 저술한 안동지역에 전하던 조리법을 엮은 책으로 현재까지 공개된 것으로는 유일하다. 여기에 수록된 조리법을 통해 전통 조리법의 변천이나 용어의 변화 등을 살피는 데 매우 유용하다. 또한 우리 민족의 음식문화의 계통성을 살필 수 있는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도 매우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런 점에서 완성 시기는 조금 늦은 편이기는 하나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조사본 『수운잡방(需雲雜方)』은 경북 안동의 예안에 거주하였던 탁청정(濯淸亭) 김유(金綏, 1491~1555)와 그의 손자인 계암(溪巖) 김영(金垚, 1577~1641)이 지은 음식 조리서로서 한문으로 쓰인 필사본 1책(23장)이다.

조사본의 내용은 본문은 김유가 지은 앞 부분에 86項, 김영이 지은 뒷 부분에 36項이 수록되어 모두 122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총 114종의 음식 조리 및 관련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데, 주류 57종, 식초류 6종, 채소 절임 및 침채류 14종, 장류 9종, 조과 및 당류 5종, 찬물류 6종, 탕류 6종, 두부 1종, 타락(우유) 1종, 면류 2종, 채소와 과일의 파종 및 저장법 7종이다.

조사본의 역사적 가치는 조선시대 제사를 받들고 손님을 모시는 봉제사 접빈객

(奉祭祀接賓客)의 문화를 상징하고 있는 자료로서, 할아버지로부터 손자에 이르는 3대가 집필하고, 보존 관리한 음식조리서라는 사실이다.

또한 학술적 가치로는 안동 예안지방의 광산김씨 문중과 주변 지역에서 내려오던 전통적인 음식 조리법을 정리한 책으로서, 이를 통해 조선 전기의 전통 조리법과 저장법 및 음식 관련 용어 등을 고찰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는 점이다.

더욱 전통 음식의 복원과 문화의 전승이라는 점에서 현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서 높이 평가된다는 사실도 중요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조사본 『수운잡방』은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需雲雜方』은 안동 예안에 거주하였던 濯淸亭 金綏(1491~1555)가 저술한 한문 필사본 음식조리서이다. ‘需雲’이란 『周易』의 「水天需」 卦에 “구름이 하늘로 오르는 것이 ‘需’이니, 군자가 이로써 마시고 먹으며, 잔치를 벌여 즐긴다(雲上于天需 君子以飲食宴樂).”에서 취한 것이다.

이 책은 총23장으로 구성되는데, 행서로 쓴 상편 16장은 ‘濯淸公遺墨’이라 되어 있고 초서로 쓴 하편 7장은 ‘溪巖先祖遺墨’이라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濯淸亭 金綏가 1540년(중종 35)경에 집필해 둔 것을 후일에 그의 손자인 溪巖 金垠(1577~1641)이 뒷부분을 보완해서 쓴 것으로 추정된다. 이 책은 상편 86항, 하편 36항 등 122항의 음식 요리와 가공법 등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이나 조선의 다른 요리서를 참고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당대 안동의 양반가에서 유행하던 음식 조리법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책은 許筠의 『屠門大嚼』보다 70여 년 이르고, 안동장씨의 『음식디미방』보다는 110여 년 전에 만들어졌다. 2001년에 이 책보다 80년 앞서는 『山家要錄』이 발견되면서 最古의 조리서라는 이름은 잃었지만 조선 전기의 음식문화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임에는 틀림없다. 현재 시도유형문화재 제435호로 지정되어 있다. 조선 전기의 음식 조리서가 전하는 수량이 많지 않으므로 이 책을 국가 보물로 지정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고 본다.

○ (지정 가치 있음)

본 『需雲雜方』은 조선 중기의 학자 金綏(김유, 1491-1555)와 그의 손자인 金垠(김영, 1577-1641년)이 지은 음식 조리서이다. 한문으로 쓰여진 필사본 1책으로, 본문이 23장에 불과한 소형의 책자이다. 저자가 직접 쓴 原稿本이고 이후의 傳寫本도 없는 유일본으로 판단이 된다. 保存狀態는 본문의 권말 4장과 뒷 표지가 蟲害(좀)를 입어 일부 逸失되어 있는 점을 제외하면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내용은 술 빚는 방법과 음식 조리법 및 저장법 등을 다룬 122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서는 15세기에 필사된 全循義의 『山家要錄』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음식 조리서이다. 안동 예안지방의 광산김씨 문중에서 내려오던 전통적인 음식 조리법을 정리한 책이므로, 이를 통해 조선 전기의 전통 조리법과 저장법 및 음식 관련 용어 등을 고찰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또한 전통 음식의 재현하여 현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도 가치가 있다. 따라서 『需雲雜方』는 국가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활용만한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보물로 지정예고함.

조사보고서

□

○ 현 상

19세기경에 개장된 것으로 추정되며, 전체적으로 누습의 흔적이 있음. 22-3장은 윗부분 일부가 손상되어 몇 글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아랫부분은 뒤의 4장에는 천공이 있어서 매 면마다 1-2자는 확인하기 어려움.

○ 내용 및 특징

『수운잡방(需雲雜方)』은 안동 예안에 거주하였던 탁청정(濯淸亭) 김유(金綏, 1491~1555)와 그의 손자인 김영(金垓, 1577~1641)이 함께 저술한 음식조리서이다. 한문 필사본으로 원래의 면지 1장을 포함하여 모두 23장이다. 본문은 앞의 16장(상편)의 권두에는 “濯淸公遺墨”, 뒤 7장(하편)은 권두에는 “溪巖先祖遺墨”이라는 제명이 각각 앞부분에 묵서되어 있다. 탁청공은 김유, 계암은 그의 손자인 김영이다. 그러므로 『수운잡방』은 김유와 김영 등 조손(祖孫)의 저술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전체의 편성을 보면, 할아버지 김유의 저술에다 손자인 김영이 보태어 완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의 필서자가 누구인지는 판단하기가 어렵다. 언뜻 볼 때 “계암선조유묵”이라는 묵서에서 “선조”라는 용어가 보이므로 김영의 후손이 쓴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제명들은 본문보다 더 늦은 시기에 추기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본문의 필서자와 연관시키기는 곤란하다.

<그림1> 『수운잡방』 (상하편)



대체로 “『수운잡방』 상편(“탁청공유묵”)의 저술시기는 1540년경, 하편(“계암선조유묵”)은 조리에 고추가 사용되고 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1610년경으로 추정하고 있다. 곧 김유가 집필하기 시작하여 손자인 김영이 뒷부분을 보완한 것으로 보아 김영의 몰년인 1641년 이전에 완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김귀영, “음식으로 보는 조선시대”, 『수운잡방』의 권두에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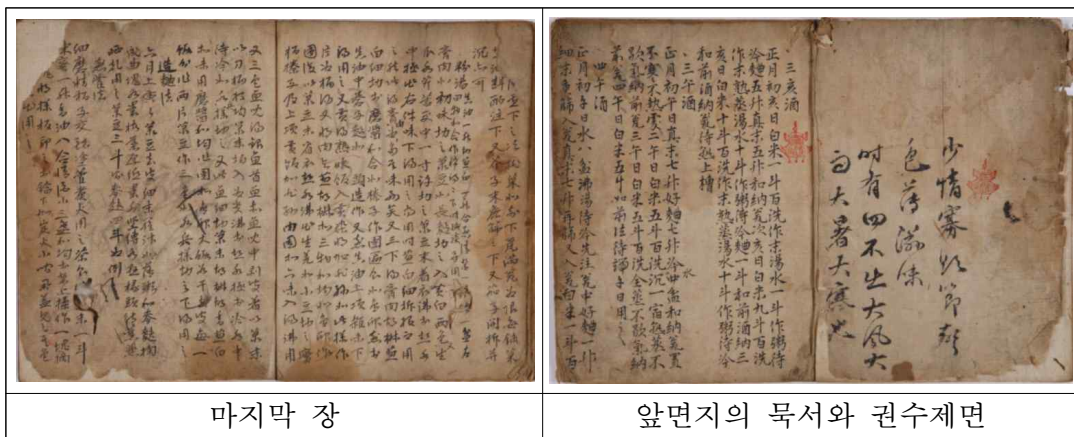
다만, 이 책의 필서자가 김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1641년 이전에 완성된 것이 틀림없지만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여러 서지학적 특징들을 볼 때 17세기 중기 경에는 완성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내용은 상편 86종, 하편 36종 등 122종의 음식 요리와 가공법 등이 수록되어 있다.

표제(表題)는 『需雲雜方』이나 표지는 19세기경에 개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표지 면지는 개장할 때 덧댄 것이므로 여기에 묵서된 “濯淸公遺墨”이라는 글씨는 개장할 때 쓴 것이다. 그래서인지 본문 제16장 후면에 묵서된 “溪巖先祖遺墨”이라는 글씨와는 크기뿐 아니라 필적에서도 차이가 있다.

개장될 때 덧댄 면지를 넘기면 원래의 면지가 있다. 이 면지의 가운데에는 「雪月堂」(설월당)이라는 향로 모양의 인장이 찍혀 있는데, 이 인장은 이곳 외에도 9 곳에 걸쳐 찍혀 있다. 「雪月堂」은 김유의 셋째 아들이자 김영의 아버지인 김부륜(金富倫, 1531~1598)의 호다. 그의 몰년과 이 책의 완성 시기로 보아 김부륜이 직접 찍었다고 보기가 어려운데, 개장된 뒷장의 면지에도 이 인장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아 더더욱 그렇다. 아마 집안에 전하던 인장을 개장한 뒤에 찍은 것이 아닌가 한다.

원 면지의 뒷면에는 “少情寡欲節聲」色薄慈味」時有四不出大風大」兩大暑大寒也.”가 4행에 걸쳐 묵서되어 있다. 내용은 “마음을 차분히 하고 욕심을 억제하여 음악과 여색을 절제하고 맛난 음식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 출타하지 말아야 할 네 가지는 큰바람, 큰비, 큰 더위, 큰 추위다.”(『수운잡방』, 김채식 옮김, 글항아리, 2015) 뒷부분의 “時有四不出”은 강절(康節) 소옹(邵雍)이 네 가지 일을 읊은 사사음(四事吟) 중의 하나이다. 이 내용은 집안사람들에게 경계하는 글로 가훈으로도 볼 수 있겠다. 아쉬운 점은 이 글이 누구의 필적인지는 알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그림2> 『수운잡방』



마지막 장

앞면지의 묵서와 권수제면

□

<書誌事項>

[需雲雜方] / [金綏]. [金垞]. 共著. -- 筆寫本. --

[安東] : [--], [1500년대 중반~1641년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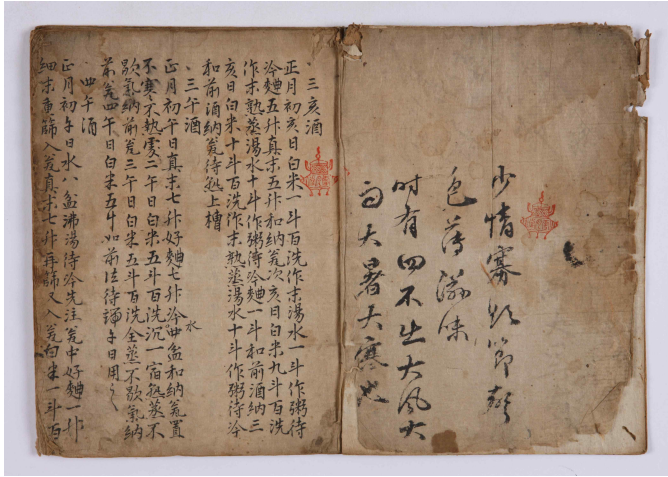
1책(23장), 25.7×19.3cm, 線裝(改裝).

表題 : 需雲雜方

所藏印 : 雪月堂

○ 현 상

조사본의 표지는 ‘需雲雜方’이라 묵서되었고, 본문은 卷首題 없이 바로 필사되어 있다. 현재 책의 마지막 장 반엽이 결실된 상태이다. 전체적으로 오염이 있고, 지류 유물의 일반적인 손상인 찢김, 마모 등과 함께 충해 등이 확인되지만 본문의 내용은 검토할 수 있다. 향후 보존처리를 통하여 유물의 안정화 할 필요가 있다.



○ 내용 및 특징

조사본 『수운잡방(需雲雜方)』은 경북 안동의 예안에 거주하였던 탁청정(濯淸亭) 김유(金綏, 1491~1555)와 그의 손자인 계암(溪巖) 김영(金垓, 1577~1641)이 지은 음식 조리서이다. 책의 이름은 『주역(周易)』의 「수괘(需卦)」 ‘象辭’에 나오는 내용에서 유래한 것이다. 곧 “雲上于天 需 君子以飲食宴樂, 구름이 하늘로 오르는 것이 ‘需’이니, 군자는 이로써 마시고 먹으며 잔치를 벌여 즐긴다”라는 문장이 해당된다. 본래 ‘需雲’은 연회를 베풀어 즐기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需雲雜方’이란 음식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조사본의 가장 큰 특징은 본문의 내용은 ‘음식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으나, 저자는 할아버지와 손자라는 두 사람이라는 점이다. 곧 본문의 제1장에서 제16장까지는 행서로 쓰여진 ‘濯淸公 金綏’가 지은 내용이 있고, 제18장부터 제23장까지는 행서에 초서가 가미된 필체의 ‘溪巖 金垓’의 집필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

저자인 김유의 본관은 광산(光山)으로 자는 綏之(유지), 호는 탁청정(濯淸亭)이다. 부친은 광산김씨 예안 입향조인 농수(壘守) 김효로(金孝廬)이며 어머니는 증정부인(贈貞夫人) 양성이씨(陽城李氏)로 군수 지(持)의 따님이다. 탁청정 김 공의 부인은 순천김씨(順天金氏)로 김수홍(金粹洪)의 따님이며 아들은 오천칠군자(烏川七君子)로 불리웠던 산남(山南) 김부인(金富仁, 1512~1584), 양정당(養正堂) 김부신(金富信, 1523~1566), 설월당(雪月堂) 김부륜(金富倫, 1531~1598) 등을 두었다. 탁청

정 김 공은 1525년(중종 20) 생원시 동방진사과에 2등 24인으로 합격하였고 무예에 정통하여 무과에 응시하였으나 마침내 뜻을 이루지 못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향에서 평생 독서하며 유유자적한 생활을 하였으며, 성품이 호협(豪俠)하여 빈객을 좋아하여 정자를 수리 확장하고 손님을 맞아 즐기니 선비들이 이 고을을 지나면 반드시 찾아와서 즐겼고 비록 폐의파립(폐衣破笠)한 사람이라도 친절히 대접하고 옳지 못한 사람을 보면 준엄하게 꾸짖어 용서가 없었다고 전한다. 후에 아들인 산남 김부인의 현달로 호조참판에 추증되었다.(『退溪先生文集』卷之四十六, 「成均生員金公墓誌銘」)

한편, 또다른 저자인 김영의 자는 자준(子峻)이며 호는 계암(溪巖)이다. 부친은 현감 김부륜(金富倫)이며, 어머니는 평산 신씨로 부호군(副護軍) 신수민(申壽民)의 따님이시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17세의 나이로 유성룡(柳成龍)의 막하로 자진 종군했으며, 당시 명나라의 총병사 오유충(吳維忠)과 유격장 노득공(盧得功) 두 사람으로부터 후한 대접을 받았을 정도로 학식이 숙성하였다고 한다. 이후 1612년(광해군 4) 증광 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승문원에 등용된 뒤 여러 벼슬을 거쳐 주서에 이르렀으나, 광해군의 어지러운 정치를 비판해 관직을 그만두고 낙향하였다. 인조가 여러 차례 불렀으나 번번이 나가지 않았다. 그러나 병자호란이 일어나 청나라 병사가 남한산성을 포위하자 가산을 모두 털어 의병들의 군량미로 충당했으며, 남한산성이 함락되자 비분강개한 시 몇 편을 남겼다. 1689년(숙종 15)에 도승지에 추증되었고, 영조 때는 원액(院額)이 하사되었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조사본의 표지는 개장되었는데 목서로 ‘需雲雜方’이라 기록하였고, 표지의 면지에는 후대에 기록된 것으로 이해되는 ‘濯淸公遺墨’이라는 墨書가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래의 원고본 첫 장의 후엽(後葉)에는 ‘少情寡慾，節聲色薄滋味，時有四不出，大風大雨大暑大寒也’라는 警句가 쓰여져 있는데, 곧 “마음을 차분히 하고 욕심을 억제하며, 소리와 여색을 절제하고 맛난 음식을 구하지 말라. 출타하지 말아야 할 네 가지는 큰바람, 큰비, 큰더위, 큰추위이다.”라는 의미이다.



한편, 조사본에는 많은 곳에 장서인(藏書印)이 날인되어 있는데 모두 ‘雪月堂’으로 되어 있다. 이 ‘雪月堂’은 김유의 셋째 아들이며, 김영의 아버지인 김부륜(金富倫, 1531~1598)의 호이다. 이를 통하여 조사본이 할아버지로부터 3대를 거슬러오며 보존되어 왔고, 손자에 의해 보완되었던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조사본은 모두 23張으로 각 장 14행 내외, 각 행 20자 내외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은 김유가 지은 앞 부분에 86項, 김영이 지은 뒷 부분에 36項이 수록되어 모두 122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음식 조리법과 가공법을 적고 있다. 앞 부분에는 삼해주(三亥酒)를 비롯한 술 빚는 법 42項, 식초 제조법 6項, 채소 절임과 김치 제조법 13項, 즈장을 비롯한 장(醬)류 제조법 11項, 채소와 과일의 파종과 저장법 7항, 한과 만드는 법 2項 및 두부, 우유, 더덕자반, 식혜, 육면(肉麵) 제조법 각 1項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뒷 부분에는 삼오주(三午酒)를 비롯한 술 빚는 법 20項, 채소 절임과 김치 제조법 2項, 한과 만드는 법 3項, 탕(湯) 만들기 6項, 육류 저장법 1項, 가지 장아찌 만드는 법(毛難伊法) 1項, 전(煎) 부치는 법 2項, 습면(濕麵) 제조법 1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2장/제23장



제16장 후엽 ‘溪巖先祖遺墨’

그런데 이 같은 내용은 삼오주, 백화주 등 몇몇 술을 제외하면 저자 두 사람이 지은 기술이 겹치지 않아 할아버지가 지은 내용에서 빠진 술과 음식 조리법을 손자가 보완하려 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총 114종의 음식 조리 및 관련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데, 주류 57종, 식초류 6종, 채소 절임 및 침채류 14종, 장류 9종, 조과 및 당류 5종, 찬물류 6종, 탕류 6종, 두부 1종, 타락(우유) 1종, 면류 2종, 채소와 과일의 파종 및 저장법 7종이다.

조사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술 담그는 법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점이다. 곧

삼해주(三亥酒), 녹파주(綠波酒), 호도주(胡桃酒), 포도주(葡萄酒), 이화주(梨花酒), 진상주(進上酒), 별주(別酒), 애주(艾酒), 예주(醴酒), 세신주(細辛酒), 진맥소주(眞麥燒酒) 등 다양한 종류의 술이 나온다. 이는 당시 제사를 받들고 손님을 모시는 봉제사접빈객(奉祭祀接賓客)의 문화를 상징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상징성을 지닌다.

또한 조사본의 내용 중에는 중국 조리서 『거가필용(居家必用)』이나 『식경(食經)』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된 것도 많으나, 저자들의 거주 지역인 안동을 중심으로 하는 광산김씨 양반가와 주변 민간의 속방(俗方)이나 세간의 인기를 끌던 조리법을 아울러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 문헌자료

배영동(2014), 「16~17세기 안동문화권 음식조리서의 등장 배경과 역사적 의의-『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의 사례」, 『남도민속연구』 29, 135~175.
정혜경 외(2015),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에 나타난 조리법 비교」,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30-1.



○ 내용 및 특징

雪月堂 金富倫의 宗家에서 450여 년간 보존해온 책으로서, 조선 전기 안동에 거주했던 광산김씨 金綏(1491~1555)가 1540년경에 편찬한 조리서로, 조선시대 술의 제조 방법과 각종 음식을 만드는 방법 등을 정리한 1책의 필사본이다.

金綏가 지은 상편 첫 장으로부터 상편 말미까지 총 여덟 곳에는 「雪月堂」이란 藏書印이 날인되어 있다. 雪月堂은 金富倫(1531-1598)의 號이다. 金富倫은 金綏의 셋째 아들이고 金垚의 아버지이다. 이처럼 金垚이 편집한 하편에는 ‘雪月堂’이 찍혀 있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이 책은 金綏가 집필해 둔 것을 후일에 金垚이 뒷부분을 보완한 것이 분명하다.

金綏의 자는 綏之, 호는 濯淸亭, 본관은 光山이다. 禮安縣 烏川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從姑母夫人 丹城縣監 金萬鈞의 집에서 양육을 받았으며, 中宗 20년(1525)에 生員試에 합격하였다. 金垚의 자는 子峻, 호는 溪巖이다. 광해군 4년(1612)에 增廣文科에 급제하여 承文院에 등용된 뒤 承政院 注書에 이르렀으나, 광해군의 어지러운 정치를 비관해 관직을 그만두고 낙향하였다. 그 후 司諫에 이르렀다. 저서로 『溪巖先生文集』 3책과 『溪巖日錄』 8책이 전한다.

□

○ 현 상

필사본으로 五針眼訂法으로 제책된 線裝本임. 표지에는 『需雲雜方』으로 묵서되어 있고, 卷首題는 없이 바로 본문이 필사되어 있음. 본문의 권말 4장과 뒷 표지가 蟲害(좀)를 입어 일부 逸失되어 있는 점을 제외하면 保存狀態는 비교적 양호한 편임.

○ 내용 및 특징

『需雲雜方』은 경북 안동의 예안에 거주하였던 濯淸亭 金綏(김유, 1491-1555)가 지은 음식 조리서로서 한문으로 필사된 필사본 1책이다. 書名인 ‘需雲雜方’이란 음식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이라는 의미이다. 본래 ‘需雲’은 연회를 베풀어 즐기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周易』의 《需卦》‘象辭’에 “雲上于天 需 君子以飲食宴樂, 구름이 하늘로 오르는 것이 ‘需’이니, 군자는 이로써 마시고 먹으며 잔치를 벌여 즐긴다”라는 문장에서 유래된 말이다.

이 책은 모두 23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지 다음 장에 ‘濯淸公遺墨’이라는 墨書가 있고 그 다음 장에는 ‘少情寡慾, 節聲色薄滋味, 時有四不出, 大風大雨大暑大寒也’라는 警句가 묵서되어 있다. 즉, “마음을 차분히 하고 욕심을 억제하며, 소리와 여색을 절제하고 맛난 음식을 구하지 말라. 출타하지 말아야 할 네 가지는 큰 바람, 큰비, 큰더위, 큰추위이다.” 그 다음 장부터 본문이 시작되는데, 제17張에는 ‘溪巖先祖遺墨’이라는 묵서가 나타나고 다음 장부터는 앞과는 다른 필체의 본문이 필사되어 있다. 즉 앞의 ‘濯淸公遺墨’은 행서로 되어 있는데 반해 뒤의 ‘溪巖先祖遺墨’은 행서에 초서가 가미된 필체로 필사되어 있는 것이다.



<『需雲雜方』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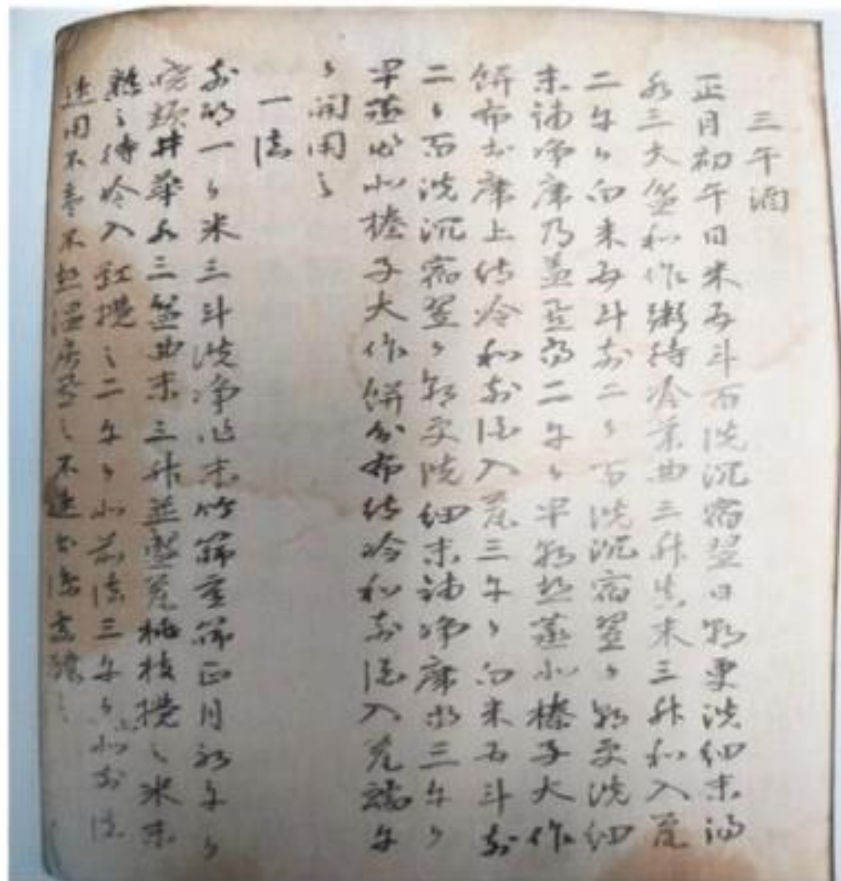
<표지 다음 裏面紙의 목서 '濯清公遺墨'>



<卷首面>



<제16장 뒷면의 목서 '溪巖先祖遺墨'>



<제17장의 본문>

표지 뒷면에 묵서된 ‘濯淸公’은 조선 중기의 학자 金綏(김유, 1491-1555)의 호인 濯淸亭을 지칭하니, 그의 字는 綏之요 본관은 光山이다. 禮安縣 烏川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종고모부인 丹城縣監 金萬均의 집에서 양육을 받았다. 1525(중종 20)년에는 生員試에 入格하였으나 출사보다는 집안에 머물며 부모를 奉養하는데 진력하였다. 성품이 豪俠하고 무예에 뛰어났으며 賓客을 좋아하였다. 집 가까이에 정자를 지어놓고 예안 지방을 지나는 선비들을 맞아 즐기며 정중하게 대접하였다고 한다. 戶曹參判에 贈職되었다. 退溪선생이 지은 ‘成均生員金公墓誌銘’에 그의 행적이 잘 나타나 있다.

제16장 뒷면의 묵서에 나오는 ‘溪巖’은 광해군·인조연간의 문신인 金垚(김영, 1577-1641년)의 호이다. 그의 자는 子峻이요 김유의 손자이다. 1612(광해군 4)년에 增廣文科에 급제하여 承文院 注書에 이르렀으나 당시의 어지러운 정치를 비판해 관직을 사직하고 낙향하였다. 후에 司諫에 이른 바 있다. 저서로는 『溪巖先生文集』 3책과 『溪巖日錄』 8책이 전한다.

이와 같이 『需雲雜方』은 앞 부분과 뒷 부분이 저자가 다르고 필체에서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앞의 제16장까지는 濯淸亭 金綏(김유, 1491-1555년)의 저술임이 분명하지만, 뒤편의 7장은 아마도 그의 손자인 溪巖 金垚(김영, 1577-1641년)이 조부가 원고에 내용을 증보하고 필사한 다음 한 권의 책으로 완성했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 따라서 본서는 김유와 김영의 共著書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서의 書誌事項은 다음과 같다.

需雲雜方/ 金綏(朝鮮) ; 金垚(朝鮮) 共著.

筆寫本.

[安東], [金綏, 金垚], [1500년대 중반-1641년 이전 筆寫].

1책(28張). 半葉 14行 20字. 25.7×19.3cm.

線裝.

表題 : 需雲雜方

藏書印 : 雪月堂

본서에는 김유가 지은 앞부분에 86項, 김영이 지은 뒷부분에 36項이 수록되어 모두 122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음식 조리법과 가공법을 적고 있다. 앞 부분에는 三亥酒를 비롯한 술 빚는 법 42項, 식초 제조법 6項, 채소 절임과 김치 제조법 13項, 즈장을 비롯한 장(醬)류 제조법 11項, 채소와 과일의 파종과 저장법 7항, 한과 만드는 법 2項 및 두부, 우유, 더덕자반, 식혜, 육면(肉麵) 제조법 각 1項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뒷 부분에는 三午酒를 비롯한 술 빚는 법 20項, 채소 절임과 김치 제조법 2項, 한과 만드는 법 3項, 탕(湯) 만들기 6項, 육류 저장법 1項, 가지 장아찌 만드는 법(毛難伊法) 1項, 전(煎) 부치는 법 2項, 습면(濕麵) 제조법 1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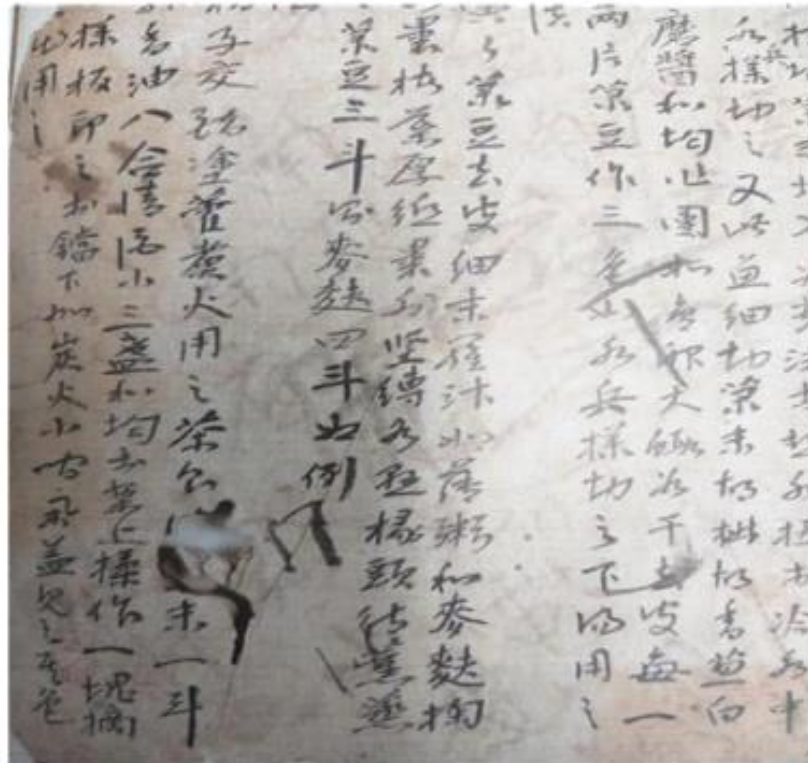
한편, 본서에는 유난히 많은 곳에 藏書印이捺印되어 있다. 즉 표지 다음의 裏面紙부터 卷首面과 本文 가운데 및 卷末에 이르기까지 모두 아홉 군데에 걸쳐 ‘雪月堂’이라는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는 것이다. 雪月堂은 본서의 저자인 김유의 셋째 아들이요, 공저자인 김영의 아버지인 金富倫(1531~1598)의 호이다. 권말의 본문 안에 찍힌 장서인을 제외하면 모두 선명한 상태이다.



<표지 다음 裏面紙의 '雪月堂' 장서인>

次日粘也
 粘米二斗万洗纳瓮熬水一盃并注沙三日右水更
 淘蒸饭待冷碧麹曲并和釀七日
 又
 粘米一斗万洗纳瓮熬水并纳瓮過三日右米蒸
 水和麹一种合釀七日澄法淨蛆注
 又
 米二斗更着万洗浸一宿作米豆師作醱待冷而
 粥二斗和釀第三日粘米二斗万洗浸一宿再蒸
 亦法和釀置淨待法用之
 小麹注又法
 二月内白米五斗万作米淘水与盆半作粥待冷
 五斗真米五斗和釀待冷白米五斗乾蒸亦注
 釀之法

<본문 가운데 찍힌 '雪月堂' 장서인>



<권말의 좌측 하단에 희미하게 나타나는 '雪月堂' 장서인>

따라서 본서는 조선 중기의 학자 金綏(김유, 1491~1555)와 그의 아들인 金富倫(김부윤, 1531~1598) 및 손자 金垚(김영, 1577~1641년)으로부터 오늘날의 후손인 김원동으로 이어지는 안동 예안지방 광산김씨 문중의 장서임이 분명하다.

8. 식료찬요(食療纂要)

가. 검토사항

‘식료찬요’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식료찬요’에 대하여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9.10.25.)이 있어 관계 전문가 조사(21.4.9.)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 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식료찬요(食療纂要)
- 소유자(관리자) : ○○○(한국국학진흥원)
- 소재지 :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중들 2길 9, 한국국학진흥원
- 수 량 : 1책(49장)
- 규 격 : 28.1×19.5cm(半郭 19.6×15.8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
- 형 식 : 선장(線裝)
- 조성연대 : 1460년(세조 6) 초간, 17세기 후쇄(後刷)
- 제작자 : 전순의(全循義, 15세기)



<식료찬요> 표지(오) 및 권수제(왼)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우리나라의 식이요법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을 것이지만 그 방법을 엮어놓은 문헌으로는 세조 6년(1460) 11월경에 간행된 『식료찬요』가 최초의 것이다. 이 판본은 임진왜란 이전 전국의 책판소장 사실이 기록된 『고사촬요』에 따르면, 강원도 양양에서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1487년 이전에 주석을 붙여 상주에서 간행되기도 하였다.

이 책을 통해 최소한 조선 전기에는 요즈음 일컫는 식이요법(食餌療法)이 구체적으로 생활화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그 방법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음식으로 병을 치료하는 우리의 전통의학의 한 계통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하고 귀중한 의학문헌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국내에는 두 종류의 판본이 전하는데, 조사대상본은 양양판이다. 그런 점에서 상주판과 구분이 된다. 마침 선행연구에 따르면, 두 판본 모두 국내 전본이 확인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앞서 간행된 조사대상본인 양양판 『식료찬요』는 상주판과의 구분이 필요하므로 “『식료찬요(양양판)』” 또는 “『양양판 식료찬요』”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 (보류)

조사본 『식료찬요』는 조선 초기 의관인 전순의가 세조 6년(1460)에 완성한 것으로 음식을 통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담은 처방서이다.

이 책의 판본에 대해서는 전국의 책판 소장 사실이 수록된 『고사촬요(攷事撮

要)』의 임진왜란 이전과 이후의 내용을 통해 1487년 이전에 상주판본과 양양판본의 두 가지 판본이 전해졌으며, 그 중 상주판본에는 이두식 주석이 포함되어 있어 열람에 편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본의 판본은 판식 등으로 보아 양양판본으로 판단된다.

조사본 『식료찬요』는 조선 전기에 이루어졌던 식이요법(食餌療法)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통하여 음식으로 병을 치료하는 우리의 전통의학의 한 계통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적 가치가 있다.

다만, 국내에 전하는 두 종류의 판본 가운데 하나인 상주판의 성격과 자료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관련 자료에 대한 비교 검토 후 문화재 지정 검토를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식료찬요』는 이 책은 조선 초기 식품을 통해 질병을 치료한 의학의 수준을 알 수 있는, 우리나라 의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傳存本이 귀하므로 국가문화재 보물로 지정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단, 2001년 발견되어 저자의 다른 저작으로 알려진 『山家要錄』의 문제를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한다.

○ (지정 가치 미흡)

본 『食療纂要』 1책은 1460년(세조 6년)에 내의였던 全循義가 편찬한 책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食餌療法書이다. 이 책에서 음식을 통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방안을 기술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전통 의학을 연구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평가된다. 다만 인쇄상태가 희미하게 나타나는 것은 물론이고 어떤 곳에서는 界線과 본문이 인쇄할 때 밀려나 본문을 확인할 수 없는 곳도 있는 등 목판본의 후쇄본으로서의 특징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뒷표지는 탈락하여 없어지고 제책한 끈이 부식하여 일부가 탈락하는 등 보존상태도 그리 양호하지 않다. 따라서 본서를 국가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하기에는 다소 품격이 떨어지는 자료로 평가된다.

마. 의결사항

○ 부 결

조사보고서

□

○ 현 상

누습과 부분적으로 인쇄상태가 좋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앞표지는 원래의 것으로 판단되고, 결락 장이 없음

○ 내용 및 특징

『식료찬요』는 전순의(全循義)가 『식의심감(食醫心鑑)』, 『식료본초(食療本草)』, 『대전본초(大全本草)』, 『보결식료(補闕食療)』 등을 참고하여 세조 6년(1460)에 완성한 것이다. 내용은 음식을 통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담은 음식 처방서이다.

이 판본은 “天順四年 庚辰(1460)冬十有一月 嘉靖大夫行龍驤衛上護軍 臣 全循義 拜手稽首謹序”와 같이 저자가 서문을 쓴 시기로 보아 세조 6년(1460) 11월경에 처음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대상본은 서문 1장, 목록 2장 및 본문 46장 등 모두 49장으로 결락 장은 없다. 다만 판목 손상과 인쇄상태가 불량한 탓에 제16장 후면, 제19장 전면, 제35장 후면, 제38장 전후면은 판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원래의 표지로 보이는 앞표지에는 『食療纂要』라는 표제(表題)가 보인다. 이에 비해 뒷표지는 후대에 보수한 것이고, 전권에 걸쳐 누습의 흔적이 남아 있다.

<그림1> 『식료찬요』의 앞부분



이 책의 앞 면지에는 다음과 같은 칠언절구 시 1수가 목서되어 있다.

何必餐霞服大藥/ 신선이 되기 위해 반드시 대약(大藥)을 먹어야 하는가.
 妄意延年等龜鶴/ 나는 오래 사는 것은 거북이나 학과 같다고 생각해.
 但於飲食嗜慾中/ 다만 즐기는 음식에 대한 욕심 중에

14) 포박자에서 신선이 되는 길은 보정(寶精), 행기(行氣) 그리고 한 알의 대약(大藥)을 먹어야 한다고 하였음.

去其甚者將安樂/ 지나침을 버리는 사람이 장차 편안하고 즐거울 거야.

시의 내용으로 보아 책을 입수한 옛 소장자는 음식으로 치료하고자 하는 이 책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다음 행에는 작은 글자로 “庚申夏, 得之於江陵.”이라고 적어 놓았는데, 경신년에 강릉에서 이 책을 입수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이후 동일한 서명의 다른 판본이 간행된 기사가 전하는데, 그 일은 아래와 같이 『성종실록』에 보인다.

우찬성 손순효가 『식료찬요』를 올렸다. [의원 전순의가 편찬한 것인데, 손순효가 일찍이 경상도 감사가 되었을 때 상주에서 간행하게 한 것이다.]

전교하기를, “이 책은 보기에 편리하게 되어 있어서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¹⁵⁾

위의 기사는 1487년 이전에 상주에서 간행된 판본에 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성종이 보기에 편리하게 되어 있다는 한 점과 이두식 한자어로 된 주석이 있기 때문이다.(신승운, “조선초기의 의학서 「식료찬요」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40집, 2008. 9)

그렇다면 『식료찬요』는 세조 6년(1460) 11월경에 간행된 판본, 곧 조사대상본과 1487년 이전에 상주에서 간행된 판본 등 최소한 2개의 판본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임진왜란 이전 전국의 책판 소장 사실이 수록된 『고사촬요(攷事撮要)』에는 <그림2>와 같이 『식료찬요』의 책판이 강원도 양양(襄陽)과 경상도 상주(尙州)에 소장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식료찬요』는 양양판과 상주판 등 이본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여기에서 간행 시기가 앞선 양양판이 조사대상본이고, 간행시기는 늦으나 이두식의 한자어 주석이 있어서 성종이 보기에 편리하게 되어 있다고 한 판본이 상주판이다.

15) 성종 18년(1487) 4월 27일, “右贊成孫舜孝, 進食療撰要.” [醫員全循義所撰, 舜孝, 曾爲慶尙道監司, 令刊於尙州.] 傳曰: “此書便於觀覽, 予甚嘉之.”

<그림2> 『고사촬요』에 보이는 『식료찬요』 책판 현황



그런데 임진왜란 이후 전국의 책판 사실이 수록된 『고사촬요』에는 『식료찬요』 책판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두 종류의 책판들은 임진왜란의 전화(戰禍) 속에서 망실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식료찬요』 판본은 어느 쪽이든 임진왜란 이전의 인본만이 전하는 셈이며, 향후에도 새로운 인본의 발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

<書誌事項>

[食療纂要] / 全循義(朝鮮) 著. 木板本.

[安東] : [--], [16세기 후반].

1冊(49張). 四周雙邊 半郭 19.6×15.8cm. 有界. 12行18字. 大黑口. 上下內 向黑魚尾. 28.1×19.5cm. 線裝.

表題 : 食療纂要

卷首題 : 食療纂要

序 : 天順四年庚辰(1460)冬十有一月 嘉靖大夫行龍驤衛上護軍 臣 全循義 拜手稽首 謹序.

○ 현 상

조사본은 목판본의 후쇄본으로 인출 상태가 양호하지 않다. 표지는 원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전체적으로 지류 오염에서 확인되는 오염과 충해 등이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결락장은 없다.



○ 내용 및 특징

『식료찬요(食療纂要)』는 조선 초기 의관인 전순의(全循義)가 『식의심감(食醫心鑑)』, 『식료본초(食療本草)』, 『대전본초(大全本草)』, 『보결식료(補闕食療)』 등을 참고하여 세조 6년(1460)에 완성한 것으로 음식을 통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담은 처방서이다.

『식료찬요』의 판본과 전래에 관한 사실은 상세하지 않으나, 『성종실록』의 기록을 통하여 대략의 사실을 정리할 수 있다.

우찬성 손순효가 『식료찬요』를 올렸다. [의원 전순의가 편찬한 것인데, 손순효가 일찍이 경상도 감사가 되었을 때 상주에서 간행하게 한 것이다.]

전교하기를, “이 책은 보기에 편리하게 되어 있어서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右贊成孫舜孝, 進食療撰要. (醫員全循義所撰, 舜孝, 曾爲慶尙道監司, 令刊於尙州.) 傳曰 此書便於觀覽, 予甚嘉之. (성종 18년, 1487, 4월 27일)]

인용된 기록은 1487년 이전에 상주에서 간행된 판본에 대한 내용이다. 그런데 전국의 책판 소장 사실이 수록된 『고사촬요(攷事撮要)』의 기록을 참고하면 임진왜란 이전(1568년 간행본/선조 1)에는 『식료찬요』의 책판이 강원도 양양(襄陽)과 경상도 상주(尙州)에 소장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데, 임진왜란 이후의 기록에서는

『식료찬요』의 책판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아 그 변화를 알 수 있다. 곧 임난 이전까지 존재했던 두 종류의 책판들은 임진왜란의 전화(戰禍) 속에서 망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식료찬요』의 저자인 전순의는 세종, 문종, 세조의 3조에 걸쳐 전의감(典醫監)의 의관을 지낸 인물로, 1445년(세종 27) 왕명에 따라 『의방류취(醫方類聚)』(365권)의 편찬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1452년(문종 2) 내의로서 밀성군의 병을 고쳤고, 문종의 종양을 수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문종의 죽음과 함께 의금부에 하옥되어 전의감 청직(廳直)으로 강등되었다가 단종 즉위 이후 석방되었다. 1462년(세조 8) 행첨지중추원사를 거쳐 동지중추원사로 승진하였고, 1463년 내의로서 입시하여 의약(議藥)하였고, 비현각(丕顯閣)에서 의학을 시강하기도 하였다. 이듬해 시약(侍藥)의 공로로 자헌대부에 가자되었고, 1467년에 내의로 상호군에 이어 좌익원종공신(佐翼原從功臣) 1등에 녹선되기도 하였다. 저서로는 『산가요록(山家要錄)』이 있고, 공저로는 김의손과 함께 편집한 『침구택일편집(鍼灸擇日編輯)』이 있다.

조사본은 서문 1장, 목록 2장 및 본문 46장 등 모두 49장으로 결락 장은 없다. 판식을 보면 四周雙邊으로 有界이며 12행 18자의 구성을 갖고 있다. 판심의 어미는 上下內向黑魚尾이며 大黑口를 갖추고 있다. 半郭의 크기는 19.6×15.8cm. 책의 전체 크기는 28.1×19.5cm이다. 조사본은 후쇄본으로 판단되는데 인출 불량으로 인하여 제16장 후면, 제19장 전면, 제35장 후면, 제38장 전후면은 판독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제49장



제37장/제38장

조사본은 서문에 보이는 “天順四年 庚辰(1460)冬十有一月 嘉靖大夫行龍驤衛上護軍臣 全循義 拜手稽首謹序”의 내용을 통해 볼 때, 세조 6년(1460) 11월경에 처음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본에 수록된 내용은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풍질환[諸風], 감기[傷寒], 心腹痛(심복통), 咳嗽(해수), 腰痛(요통), 眼目(안목), 咽喉(이후), 嘔吐(구토), 癰亂(곽란), 黃疸(황달), 水腫(수종), 술과 관련된 질병[酒病], 泄瀉(설사), 大便不通(대변불통), 小便不通(소변불통), 別れ물림[諸忠損傷], 부인질병[婦人諸病], 소아질병[小兒諸病], 경기와 간질[驚癇] 등으로, 식이요법이 차례로 기술되어 있다. 한편, 이 책의 앞 면지에는 다음과 같은 칠언절구 시 1수가 묵서되어 있다.

何必餐霞服大藥/ 신선이 되기 위해 반드시 대약을 먹어야 하는가.
妄意延年等龜鶴/ 나는 오래 사는 것은 거북이나 학과 같다고 생각해.
但於飲食嗜慾中/ 다만 즐기는 음식에 대한 욕심 중에
去其甚者將安樂/ 지나침을 버리는 사람이 장차 편안하고 즐거울 거야.

시의 내용으로 보아 책을 입수한 옛 소장자는 음식으로 치료하고자 하는 이 책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다음 행에는 작은 글자로 “庚申夏, 得之於江陵.”이라고 기록하여 경신년에 강릉에서 이 책을 입수하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조사본은 판본을 통해 볼 때 양양판으로 판단된다. 상주판에 대해서는 이미 연구 성과가 있는 바 간행 시기는 양양판에 비해서 조금 늦으며, 이두식의 한자어 주석이 있다고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신승운, “조선초기의 의학서 『식료찬요』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40집, 2008. 9)

○ 문헌자료

신승운, “조선초기의 의학서 『식료찬요』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40집, 2008. 9



○ 내용 및 특징

『식료찬요』는 실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을 통해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제시한 식이요법서로, 조선 세종, 세조조에 御醫로 이름난 인물인 全循義가 세조 6년(1460)에 편찬하였다. 신청본은 목판 후쇄본으로 刊記가 없으나 판식의 형태사항이 조선 전기에 유행하던 大黑口에 上下內向黑魚尾로 되어 있어 15세기 후반에 판각하여 임란 이전에 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책의 서문에는 세조가 이 책의 서명을 지어 하사하고 서문을 작성하라고 명하였으며 『食醫心鑒』, 『食療本草』 등의 여러 서적을 참고하여 본서를 편찬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임란 전 편찬된 책판 목록인 『攷事撮要』에서 강원도 양양과 경상도

상주에서 간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조선왕조실록』에서 1487년 4월조에 상주에서 간행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두 차례 이상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食療纂要. 全循義 著, 농촌진흥청. 2004.

식료찬요 : 우리나라 최초의 식이요법서. 전순의 김종덕, 예스민. 2006.

식료찬요 : 조선시대 편찬된 한국 最古의 食餌療法書. 농촌진흥청. Jinhan M&B. 2014.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식료찬요(食療纂要)의 통계적 연구. 이병욱 김기욱 황수정, 한국조리학회지 21권 4호, 한국조리학회, pp.269-270. 2015.

한방이유식에 대한 小考-食療纂要의 내용을 중심으로. 윤혜준 이진용 김덕곤,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25, 대한한방소아과학회, pp.70-76, 2011.

『食療纂要』에 나타난 피부과 질환 食治에 대한 고찰. 안진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Vol.32 No.2. 대한한의학원전학회, pp. 93-110, 2019.

□

○ 현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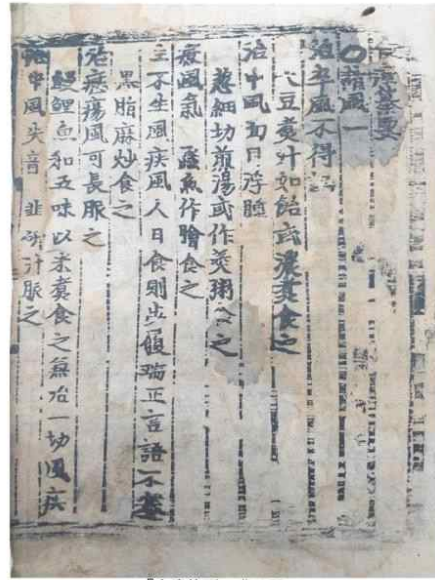
목판본으로 五針眼訂法으로 제책된 線裝本임. 표지에는 『食療纂要』로 묵서되어 있고, 표지 다음에 序와 目次가 있으며 卷首題도 食療纂要로 되어 있다. 뒷표지는 탈락하여 없고 표지를 묶은 끈이 부식되어 일부 탈락되어 있다. 표지를 제외한 몸통의 保存狀態는 비교적 양호한 편임.

○ 내용 및 특징

『食療纂要』의 序에 “天順四年 庚辰年에 臣 全循義가 序文을 썼다”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1460년(世祖 6年) 당시 內醫였던 全循義(전순의, 生沒年 未詳)가 편찬한 책임을 알 수 있다. 그의 서문에,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음식이 으뜸이고 약물요법[藥餌]는 그 다음이다. 古人이 처방을 내리는 데는 食療(식료, 음식요법)를 우선하고 음식으로 치료되지 않으면 약으로 치료한다. 이에 중국의 『食醫心鑑』을 비롯한 여러 서적을 살펴 45門을 만들어 바치니, 임금[世祖]께서 『食療纂要』라는 書名을 내렸다”라고 적고 있다. 수록된 주요 내용은 여러 가지 풍질환[諸風], 감기[傷寒], 心腹痛(심복통), 咳嗽(해수), 腰痛(요통), 眼目(안목), 咽喉(이후), 嘔吐(구토), 癩亂(곽란), 黃疸(황달), 水腫(수종), 술과 관련된 질병[酒病], 泄瀉(설사), 大便不通(대변불통), 小便不通(소변불통), 벌레물림[諸虫損傷], 부인질병[婦人諸病], 소아질병[小兒諸病], 경기와 간질[驚癇] 등으로, 식이요법이 차례로 기술되어 있다.



<『食療纂要』표지>



<『食療纂要』卷首面>

본서의 書誌事項은 다음과 같다.

食療纂要/ 全循義(朝鮮) 著.

木板本 後刷本.

[16세기 후반 印出].

1冊(49張). 四周雙邊 半郭 19.6 × 15.8cm. 有界. 12行18字.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28.1 × 19.5cm.

線裝.

表題 : 食療纂要

卷首題 : 食療纂要

序 : 天順四年庚辰(1460)冬十有一月 嘉靖大夫行龍驤衛上護軍 臣 全循義 拜手稽首謹序.

宣祖 1년(1568) 乙亥字本 『攷事撮要』 에는 557종의 冊板이 수록되어 있는데, 본 『食療纂要』 의 책판이 강원도 襄陽과 경상도 尙州에 남아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전순의가 서문을 쓴 1460년에서 1568년 이전 사이에 이 책이 지방에서 목판본으로 간행된 사실은 분명하다.

鹿肉四兩細切用水三掬煮入五味作餅
 意食之

治產後無所苦欲睡而不得睡
 白茯苓去皮末半兩粳米三合以米煮熟
 熟下茯苓粥熟任意食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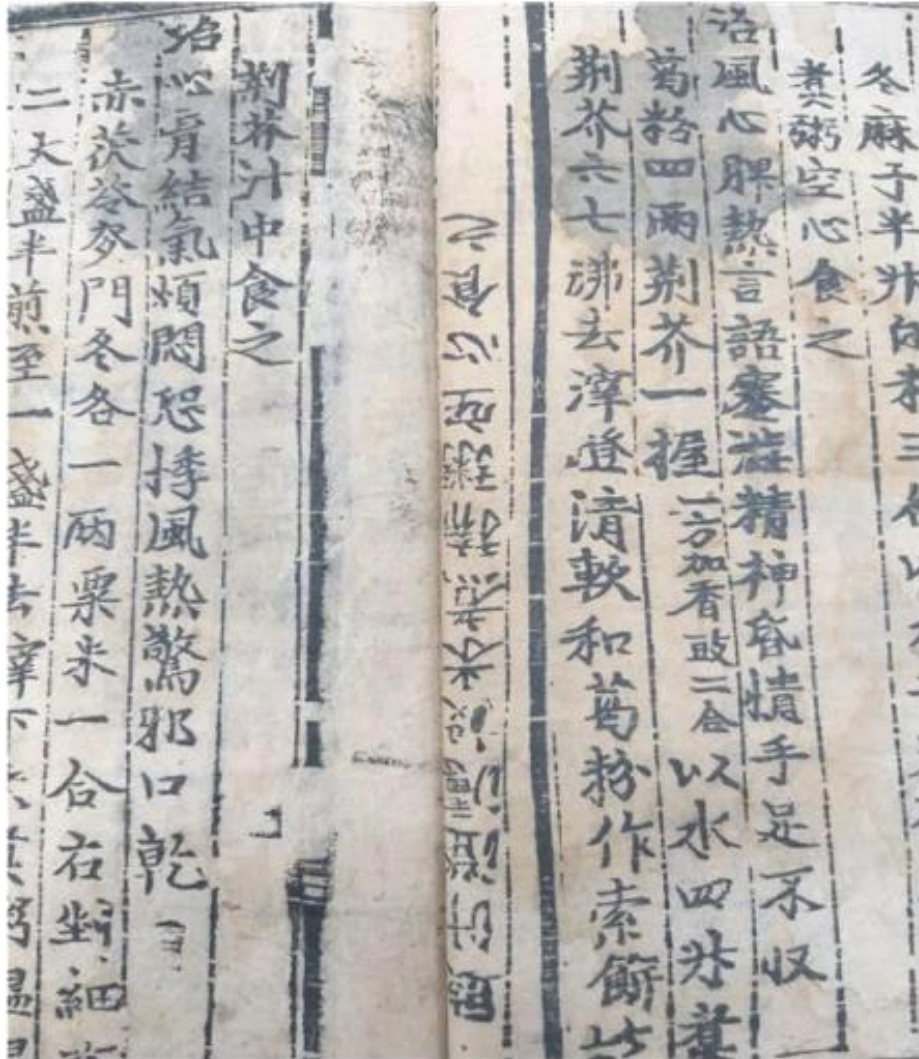
治產後口乾舌縮
 雞子一箇傾入一盞滾水內攪勻蓋火煎服
 之

治產後羸喘之乍寒乍熱痛如瘧狀名產後
 猪骨一具去脂四破如無以羊腎代香豉
 豉白粳米葱白各一升右四味以水三斗煮
 取五升去滓任性服之不差更作

<『食療纂要』의 본문 인쇄상태-희미하게 인쇄된 모습>



< 『食療纂要』의 인쇄상태-인쇄할 때 밀려서 본문을 잘 확인할 수 없는 모습 >



<제책이 잘못된 모습>

위의 사진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된 본 『食療纂要』는 목판본 원본이 아닌 後刷本으로, 여러 군데에서 후쇄본으로서의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 인쇄상태가 희미하게 나타나는 것은 물론이고 어떤 곳에서는 界線과 본문이 인쇄할 때 밀려나 본문을 확인할 수 없는 곳도 있다. 또한 板刻할 때에 1판에 2장을 새긴 것을 잘못 製冊하여 앞면의 일부가 드러나게 제책된 곳도 두 군데나 나타난다. 간행연대는 刊記가 없어서 알 수가 없으나 紙質을 살펴 보아 아마도 16세기 후반에 印出한 책이 아닐까 짐작된다.

9. 예념미타도량참법 권1~5 (禮念彌陀道場懺法 卷一~五)

가. 검토사항

‘예념미타도량참법 권1~5’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산광역시시장으로부터 ‘예념미타도량참법 권1~5’에 대하여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8.6.18.)이 있어 관계 전문가 조사(20.12.21.)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 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예념미타도량참법 권1~5(禮念彌陀道場懺法 卷一~五)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고불사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 28-77, 고불사
- 수 량 : 5권 1책
- 규 격 : 30.8×22.2cm(半郭 23.9×18.4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
- 형 식 : 선장(線裝)
- 조성연대 : 1474년(성종 5) 초인(初印)



<예념미타도량참법 권1~5>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禮念彌陀道場懺法』은 阿彌陀佛께 지극한 마음으로 禮拜하고 모든 罪業을 참회하며 菩提心을 내어 極樂往生을 기원하는 信者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빌며 참회하고 염불할 때 사용되는 說法文·懺悔文·念佛文·祈願文 등에 해당하는 「歸依西方三寶」·「決疑生信」·「引教比證」·「往生傳錄」·「極樂莊嚴」·「禮懺罪障」·「發菩提心」·「發願往生」·「求生行門」·「總爲禮佛」·「自慶」·「普皆迴向」·「囑累流通」 등 13편의 의례 절차가 수록된 10卷本의 불교 의식집이다.

古佛寺 소장의 指定申請本 『禮念彌陀道場懺法』은 성종 5(1474)년에 世祖의 妃인 貞熹大王大妃의 발원으로 刊經都監에서 개판된 朝鮮朝 王室版本이며, 全 10卷2冊 중의 권1~5의 5권 1책으로 後刷된 版本인 듯하다.

古佛寺 소장의 指定申請本 『禮念彌陀道場懺法』은 王室 發願版인 동시에 뒤에 전국의 여러 사찰에서 간행되는 『禮念彌陀道場懺法』의 母本의 자료이며, 조선조 전기의 印刷出版文化 연구에는 물론 佛敎學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또한, 指定申請本이 비록 10권 2책 중 권1~5의 1책에 지나지 않으나 이미 同一 版本의 完本 혹은 缺本의 4종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심지어 연산군 9(1503)년에 海印寺에서 翻刻된 판본도 보물 제1320호(5권1책, 김천 직지사 소장)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古佛寺 소장의 指定申請本 『禮念彌陀道場懺法』은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研究하고 保存·管理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조사본 『예념미타도량참법』권1~5는 성종 5년(1474)에 世祖의 妃인 貞熹大王大妃의 발원으로 刊經都監에서 개판된 王室版本으로 전 10卷2冊 중의 권1~5의 5권 1책본이다. 이 판본은 간행 이후 전국의 여러 사찰에서 간행되는 『예념미타도량참법』의 母本이 되는 자료로서 조선 초기의 불교사상과 인쇄문화사를 살필 수 있는 중요자료이다.

현재 『예념미타도량참법』은 고려대의 간본을 포함하여 간경도감본과 연산군 9년(1503)에 海印寺에서 翻刻된 판본(보물 제1320호, 5권1책, 김천 직지사 소장)까지 지정된 상태이다.

조사본의 역사적 가치는 「施主秩」을 통하여 왕실의 仁粹大妃·仁惠大妃를 비롯하여 公主·淑儀·尙宮 등 內命婦와 月山大君·齊安大君 등의 종친들과 信眉·學悅·學祖 등 당시 고승들이 참여하였던 사정을 알 수 있고, 「刊行秩」을 통해서 監役·畫員·刻字·木手·鍊板·冶匠·注匠·刀子·印出匠·漆匠 등 판각과 印出에 종사한 장인들의 이름이 모두 나열되어 있어 왕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가적인 사업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책의 앞머리에 보이는 과거·현재·미래 三世佛의 圖像은 화원 백종린(白終麟)과 이장손(李長孫)이 그린 작품으로 연대와 작가가 확실한 조선조 초기의 판화작품이라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 및 예술적 가치를 지니는 인본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조사본은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본서 『예념미타도량참법』은 권1-5의 잔본이고, 전반부만 남아있어 간행 관련 기록을 본서에서 확인할 수 없다. 표지는 개장되었으며, 책장은 모두 113장이다. 권두 첫 장에는 과거·현재·미래 삼세불의 도상과 그 명호가 있다. 다음 장2에는 중국 금나라의 趙秉文(1159-1232)이 지은 彌陀懺讚과 금나라의 李純甫가 송경 2(1213)년 지은 彌陀懺序가 실려 있다. 이어서 본문의 내용이 실려 있는데, 권1은 19장·권2는 23장·권3은 23장·권4는 21장·권5는 22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미타참찬의 아랫부분에는 ‘玄峯과 ‘曉林’이란 장서인이 검인되어 있고, 책 전체에 걸쳐 구결이 묵서되어 있다.

본서는 성종 5(1474)년 간본인 보물 제949호 국립중앙박물관장본 권1-5와 동일한 인면을 보이고 있다. 성종 5(1474)년 간본으로 추정되는 보물 제1144호 여주

목아박물관의 권6-10에서 간행 관계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도상은 연도와 작가가 확실한 조선 초기 작품이며, 일류 각수들을 동원해 판각한 수작이다. 이후 전국 각처에서 간행되는 『예념미타도량참법』의 모본이 된 자료이다. 본서는 왕실과 고승이 간행한 불서로서, 불교 및 불교사 연구는 물론 조선 전기 인쇄사와 판화사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비록 10권 중 권1-5의 1책만 있는 잔본이기는 하나, 동일판본의 완질본 혹은 낙질본 4종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고, 심지어 연산군 9(1503)년 해인사에서 번각한 판본도 보물 제1320호(권6-10, 김천 직지사)로 지정된 바가 있다. 따라서 국가 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보물로 지정예고함.

조사보고서



○ 書誌記述 및 現狀

指定申請本 『禮念彌陀道場懺法』 卷1~5의 書誌記述 및 現狀은 다음과 같다.

<書誌記述>

禮念彌陀道場懺法, 卷1~5 / 王子成(?~?, 金·元朝) 集. -- 木版本. -- [漢城]: [刊經都監], [成宗 5(1474) 板刻, 後刷 推定].

5卷1冊: 圖, 四周雙邊, 半郭 23.9×18.4cm, 有界, 半葉 9行15字 小字雙行22字, 上下大黑口, 上下下向黑魚尾, 30.8×22.2cm. 韓紙(楮紙). 線裝(五針眼訂法, 改裝).

表題: 彌陀懺經. (墨書)

卷頭題: 禮念彌陀道場懺法.

讚題: 彌陀懺.

序題: 彌陀懺.

版心題: 彌陀懺.

卷尾題: 禮念彌陀道場懺法.

書根題: 懺文. (墨書)

插圖: 第1張A面; 南無過去毗婆尸佛, 南無尸棄佛, 南無毗舍浮佛. 第1張B面; 南無拘留孫佛, 南無拘那含牟尼佛, 南無迦葉佛. 第2張A面; 南無教主釋迦牟尼佛, 南無西方阿彌陀佛, 南無當來彌勒尊佛. 第2張B面; 空白.

張數：114張；卷頭(插圖 2張，彌陀懺讚·彌陀懺序 4張)，卷1(19張)，卷2(23張)，卷3(23張)，卷4(21張)，卷5(22張)。

贊文：彌陀懺讚；極樂居士王慶之集淨土因緣爲懺文 … 奉政大夫翰林修撰同知制誥趙秉文(1159~1232)撰

序文：彌陀懺序；天地之中凡有血氣皆有鬪心 … 崇慶二年(1213)中春望日序 儒林郎應奉翰林文字同知制誥兼夔王府文學記室參軍武騎尉賜緋魚袋李純甫(1177~1223)撰。

印文：‘玄峯’，‘曉林’

墨書：‘朴圓’(表紙)，口訣(全體)。

內容：卷頭 第1張A面；南無過去毗婆尸佛，南無尸棄佛，南無毗舍浮佛。第1張B面；南無拘留孫佛，南無拘那含牟尼佛，南無迦葉佛。第2張A面；南無教主釋迦牟尼佛，南無西方阿彌陀佛，南無當來彌勒尊佛。第2張B面(空白)。-卷1；歸依西方三寶第一。-卷2；決疑生信第二。-卷3；引教比證第三。-卷4；往生傳錄第四。-卷5；極樂莊嚴第五。[以下 指定申請本 缺。-卷6；禮懺罪障第六，發菩提心第七。-卷7；發願往生第八。-卷8；求生行門第九(1)。-卷9；求生行門第九(2)，總爲禮佛第十。-卷10；自慶第十一，普皆迴向第十二，囑累流通第十三。跋。施主秩。]

跋文：[成化十(1474，甲午，成宗 5)年秋八月有日我，大王大妃殿下懿旨于臣若曰惟我，祖宗列聖之靈昭明于天陰翊後人克至，今休其在予苟不事事曷所以報我，前寧王我，前寧王其肯曰我有後人弼我不基鳴，呼我，世宗莊憲大王，昭憲王后則予婦事之，世祖惠莊大王則予配事之，懿敬大王，睿宗大王則予子育之曷敢忘于懷今，恭惠王后韓氏新赴玄宮此予所以仰追，先世俯念于今罔或須臾之暫捨間惟慈，悲三昧懺與夫彌陀懺實昔開土依，佛遺教撰輯成書行之當時顯有明徵其，板牽之行于世者字母已剝模子不，端命知中樞府事成任更楷鐫梓傳，布中外庶幾因茲勝締仰荅，先王先后罔極於萬一今已告訖爾其跋，之臣聞釋氏之有懺法猶吾儒之有，改過蓋人不能以無過過而能悔悔，而能改則善矣經曰衆生除舊皆即，入諸佛位此之謂也今我，大王大妃殿下欲薦，先王先后冥祐首刊是懺將與微塵刹土，衆生捨邪歸正改惡從善蓋不以無，過爲貴以改過爲重此即，大菩薩慈悲廣大四弘願之至德也，先王先后所以登極樂而證涅槃者此其，徑之歟純誠佐理功臣輔國崇祿大，夫領中樞府事永山府院君臣金守，溫奉教謹跋。] <보물 제949호 및 보물 제1144호 卷10 末尾>

施主秩：[主上殿下 貞懿公主 懿淑公主 明淑公主，仁粹王妃韓氏 崇壽公主 貴人朴氏 淑儀權氏，仁惠王大妃韓氏 淑儀愼氏 淑儀崔氏 淑儀李氏，淑儀尹氏 淑儀尹氏 淑儀尹氏 永嘉府夫人，申氏 帶方府夫人宋氏 祥原府夫人朴氏 林，川郡夫人金氏 德陽郡夫人盧氏 金堤郡夫人，崔氏 吉安縣主李氏 奉保夫人金氏 奉保夫，人白氏 貞夫人許氏 尙儀曹氏 尙服崔氏，尙宮金氏 尙工方氏 宮正洪氏 宮正尹氏，宮正趙氏 宮正金氏 尙工河氏 典藥梁氏，典飾李氏 金氏斤非 朴氏寶臺 周氏重德，金氏萬德 金氏頓田 崔氏葵花 高氏大平，崔氏丹之 朴氏玉今 朴氏從智 洪氏儉德，玄氏允同 金氏梨花 尹氏貴非 李氏惠宜，洪氏智牛 金氏寶背 趙氏丕今 金氏延生，金氏芷芝 吳氏曹籠 姜氏大耳 朴氏波獨，張氏莫非 趙氏小今 車氏微塵 鄭氏丁香，金氏今伊 金氏水德 鄭氏銀金 朴氏內隱非，李氏若今 韓氏六月 慧覺尊者信眉 學悅，學祖 月山大君婷 齊安大君瑜 德源君曙，昌原君晟 南川君嶠 清安君嶸 滄原君崢，河城府院君鄭顯祖 崇德大夫儀賓洪常 西平，君韓繼禧 中樞具壽永 洪加伊 具椿壽，監役內需司別坐扈從實 掖庭署司案白守和，內需司典貨朴揚春 唱准別監金終萬 畫員白，終麟 李長孫 刻字權頓一 張莫同 李永山，全祿同 高末終 崔得山 金貴孫 李長孫，禹仁守 洪寶千 木手劉山石 金貴山 鍊板，金尹生 崔末中 冶匠山守 注匠石山 豆伊，金 刀子匠周金萬 印出匠俞實仇知 漆匠高，未羅 金無其只。] <보물 제949호 및 보물 제1144호 卷10 末尾>

所藏歷: 2017년 3월경에 古佛寺의 전 창건주이자 주지이던 김무원(재범, 운성의 제자)이 金季竣(정오, 현 창건주)를 통하여 고불사(현 주지 김성원)에 무상으로 기증하였다고 함. <고불사 예념미타도량참법 소장 경위서 참간>

現 狀: 전체를 통하여 얼룩의 흔적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良好하며, 表紙는 後代에 改裝된 듯하다.

既指定: 同一版: ①보물 제949호(10권2책, 완질, 국립중앙박물관), ②보물 제1144호(5권1책, 권6~10, 목아불교박물관), ③보물 제1165호(4권1책, 권3·4·7·8, 김영래).

翻刻版: 보물 제1320호(5권1책 권6~10, 직지사)

高麗版: 보물 제1320호(1376년 간행, 4권1책, 권7~10, 계명대학교 도서관).

○ 現 狀

釜山廣域市 古佛寺 소장의 指定申請本 『禮念彌陀道場懺法』 권1~5의 보존상태는 전체를 통하여 얼룩의 흔적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며, 表紙는 後代에 改裝된 듯하다.

○ 內容 및 特徵

懺法은 讀經을 통해서 罪를 懺悔하는 佛敎 儀式이며, 西方 極樂淨土의 阿彌陀佛을 대상으로 삼는 彌陀懺法이다. 불교를 신앙하는 자라면 누구나 서방 극락정토로의 왕생을 기원하는 바라 일찍부터 이를 신앙하는 자들이 많았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부터 크게 성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禮念彌陀道場懺法』은 阿彌陀佛께 지극한 마음으로 禮拜하고 모든 罪業을 참회하며 菩提心을 내어 極樂往生을 기원하는 信者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빌며 참회하고 염불할 때 사용되는 說法文·懺悔文·念佛文·祈願文 등에 해당하는 「歸依西方三寶」·「決疑生信」·「引敎比證」·「往生傳錄」·「極樂莊嚴」·「禮懺罪障」·「發菩提心」·「發願往生」·「求生行門」·「總爲禮佛」·「自慶」·「普皆迴向」·「囑累流通」 등 13편의 의례 절차가 수록된 10卷本の 불교 의식집이다. 『禮念彌陀道場懺法』은 ‘『彌陀懺』’으로 약칭되기도 하며, ‘『淨土文』’이라 불리기도 한다.

『禮念彌陀道場懺法』의 集錄子인 王子成(?~?)은 ‘王慶之’라고도 하고 號는 ‘極樂居士’이며, 그의 生沒年과 行蹟은 구체적으로 전해지는 바 없다. 다만 그는 金·元朝의 인물로 당시를 末法의 시대로 규정하고 淨土往生을 發願하면서 念佛과 懺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禮念彌陀道場懺法』이 우리나라로 전래된 뒤 가장 일찍 開刊된 版本은 고려 우왕 2(1376)년에 고려의 승려 慧朗 등이 간행한 판본이며, 이 판본의 4권 1책(권 7~10)은 현재 보물 제1320호로 지정되어 啓明大學校 童山圖書館 碧梧文庫에 소장되어 있다.

古佛寺 소장의 指定申請本 『禮念彌陀道場懺法』은 성종 5(1474)년에 世祖의 妃인 貞熹大王大妃의 발원으로 刊經都監에서 개관된 朝鮮朝 王室版本이며, 全 10卷2

冊 중의 권1~5의 5권 1책으로 後刷된 版本인 듯하다.

指定申請本 『禮念彌陀道場懺法』의 表題는 ‘彌陀懺經’(墨書)이고 卷頭題와 卷尾題는 ‘禮念彌陀道場懺法’이며, 讚題와 序題 및 版心題는 ‘彌陀懺’이고 書根題는 ‘懺文’(墨書)이다. 卷頭에는 ‘南無過去毗婆尸佛’, ‘南無尸棄佛’, ‘南無毗舍浮佛’, ‘南無拘留孫佛’, ‘南無拘那含牟尼佛’, ‘南無迦葉佛’, ‘南無教主釋迦牟尼佛’, ‘南無西方阿彌陀佛’, ‘南無當來彌勒尊佛’ 등 과거·현재·미래 三世九佛의 變相圖가 있다.

指定申請本 『禮念彌陀道場懺法』의 版式의 邊欄은 四周雙邊이고 半郭은 세로 23.9cm 가로 18.4cm이며 界線이 있다. 每半葉의 行字數는 大字는 9行15字이고 小字는 雙行22字이다. 板口는 上下大黑口이며 版心の 魚尾는 上下下向黑魚尾이다. 책의 크기는 세로 30.8cm 가로 22.2cm이고 紙質은 韓紙(楮紙)이며 裝訂은 五針眼訂法의 線裝으로 後代에 改裝된 듯하다.

指定申請本 『禮念彌陀道場懺法』(권1~5)에는 卷1에 「歸依西方三寶第一」, 卷2에 「決疑生信第二」, 卷3에 「引教比證第三」, 卷4에 「往生傳錄第四」, 卷5에 「極樂莊嚴第五」 등이 수록되어 있다. 本문의 내용에는 墨書된 口訣이 있고 表紙에는 ‘朴圓’이라는 墨書가 있으며 卷頭에는 ‘玄峯’과 ‘曉林’의 印文이 있다. 이는 모두가 기존의 소장자와 관련이 있는 墨書이거나 藏書印으로 보인다.

指定申請本 『禮念彌陀道場懺法』과 동일한 판종의 보물 제949호 및 보물 제1144호의 제10권 末尾에는 乖崖 金守溫(1410~1481)의 「跋文」과 「施主秩」이 수록되어 있다.

乖崖 金守溫의 「跋문」은 다음과 같다.

성화 10(1474, 성종 5)년 가을 8월 어느 날, 우리 대왕대비¹⁶⁾ 전하께서 臣에게 聖旨를 내리시어, ‘생각건대, 우리 祖宗 列聖의 靈駕들께서는 하늘을 밝게 비추고 蔭德으로 후인을 도우심이 지극하셨건만 지금 계시지를 앎으니 내가 어떻게 섬길 수가 없구나. 圖像이라도 섬겨 그렇게나마 우리 前代의 寧王¹⁷⁾들께 보답한다면 우리 전대의 寧王들께서도 옳다고 여겨 우리에게는 후손이 있다고 하시며 국가의 기반을 튼튼하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嗚呼라! 우리 世宗 莊憲大王과 昭憲王后는 내가 머느리로서 섬긴 분들이고, 世祖 惠莊大王은 내가 배필로서 섬긴 분이며, 懿敬大王과 睿宗大王은 내가 기른 아드님들이니, 어찌 감히 가슴 속에서 잊을 수 있겠는가. 이제 恭惠王后 韓氏¹⁸⁾가 새로이 玄宮¹⁹⁾으로 부임함에 이 일로 내가 새삼 지금도 굽어살피며 잠시도 마음을 놓지 않으시는 先祖들을 우러르고 추모하게 되는구나.

16) 大王大妃는 世祖妃 貞熹大王大妃(1418~1483)를 지칭한다. 세조가 薨去하고 睿宗이 19세의 나이로 왕위에 등극하자 조선 최초로 수렴청정을 하였으며, 예종이 재위 1년 2개월 만에 薨去하자 어린 손자 成宗을 즉위시켜 成年이 되기 까지 섭정하였다.

17) 寧王은 천하를 편안하게 잘 다스린 왕을 의미하는 것이다.

18) 恭惠王后 韓氏(1456~1474)는 권신 한명회의 딸로 성종의 正妃로서 1469년에 왕비로 책봉되었으나 책봉된 지 5년 만에 슬하에 자식 없이 19살의 나이로 승하하였다.

19) 玄宮은 저승의 궁궐이며, ‘현궁으로 부임하였다’는 것은 승하를 의미하는 것이다.

생각건대, 『慈悲三昧懺』²⁰⁾과 『彌陀懺』²¹⁾은 진실로 옛날에 開士²²⁾들이 부처님께서 남기신 가르침에 의하여 撰集한 책으로 그것을 刊行하였던 당시에 분명한 징험이 드러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세간에 떠도는 板本은 글자(字母)가 이미 닳고 字體도 단정하지 못하니, 知中樞府事 成任²³⁾에게 명하여 다시 板下本을 서사하게 하고 板木에 새겨 中外에 널리 유포하도록 하라. 이런 훌륭한 인연을 맺어 우리러 先代의 왕과 왕후들의 끝없는 은혜에 萬分之一이나마 보답하기를 기대하니, 지금 한 말들을 바탕으로 跋文으로 쓰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臣은 불교에 懺法이 있는 것은 우리 儒家에 허물을 고침이 있는 것과 같다고 들었습니다. 대개 사람이란 허물이 없을 수 없으니,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뉘우칠 수 있고 뉘우치고서 고칠 수 있다면 훌륭한 것입니다. 經典에서 ‘중생이 옛 허물을 없애면 곧바로 모든 부처님의 지위에 들어간다.’라고 한 것은 이를 두고 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대왕대비 전하께서 幽冥界에서 도우시는 선대의 왕과 왕후들을 천도하시고자 가장 먼저 이 懺法을 간행하여 장차 작은 먼지처럼 수없는 國土의 衆生들과 더불어 샷됨을 버리고 바름으로 돌아가고 악을 고쳐 善을 따르고자 하시는 것은 아마도 허물이 없는 것을 귀히 여기지 않고 허물을 고치는 것을 중하게 여기는 까닭일 것이니, 이것이 곧 大菩薩의 자비요 넓고 큰 四弘誓願의 지극한 덕입니다. 선대의 왕과 왕후들께서 극락 세계로 올라가 涅槃을 證得하시는 데에는 이것이 그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순성좌리공신 보국승록대부 영중추부사 영산부원군 臣 金守溫²⁴⁾은 敎勅을 받들어 삼

20) 『慈悲三昧懺』은 『慈悲道場懺法』을 지칭하는 것이다.

21) 『彌陀懺』은 『禮念彌陀道場懺法』을 지칭하는 것이다.

22) 開士는 正道를 열어 중생을 인도하는 士夫를 의미하며, 高僧의 칭호로도 사용된다.

23) 成任(1421~1484)은 조선조 전기의 문신으로 本貫은 昌寧이고 자는 重卿이며 호는 逸齋·安齋 등이고 諡號는 文安이다. 증중부는 成石因이고 조부는 成揆이고 부친은 成念祖이다. 세종 20(1438)년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1447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정자에 제수되었다. 곧이어 승정원주서로 특진되었으며, 1453년 계유정란 때 세조를 도와 原從功臣 2등에 책록되었다. 그 뒤 예문관직제학을 거쳐 判軍器監事·判司宰監事를 역임하면서 『國朝寶鑑』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세조 3(1457)년에 문과중시에 병과로 급제하고 이듬해 첨지중추원사로서 당상관에 올랐다. 이듬해에 병조참의로 옮겼다가 곧 승정원으로 옮겨 기밀사무를 취급하면서 동부승지에서 도승지로 올랐다. 1461년 세조의 특별한 신임으로 이조참판에 제수되어 인사행정과 함께 樂學都監提調를 겸하여 음률의 정비에 힘썼다. 回奏使 부사로 명조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이듬해 공조참판으로 옮겼다가 중추원부사를 역임하였다. 1464년 전라도관찰사로 나가서 민정과 군정을 다스리며 사냥을 즐기다가 의금부의 탄핵을 받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다시 내직으로 옮겨 형조참판·仁順府尹을 역임하며 『經國大典』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1466년 拔英試에 을과로 급제하여 형조판서에 올라 지중추부사·지의금부사를 겸하고 사법 행정에 힘썼다. 곧 이조판서로 옮겨 인사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인사행정에 기여했으나 인사 부정이 있다고 하여 사헌부의 탄핵을 받기도 하였다. 1469년 친상으로 사임하였다가 성종 2(1471)년에 공조판서로 다시 부임하여 이듬해 明朝 황태자 冊封使로서 연경에 다녀왔다. 그 뒤 申叔舟의 추천으로 성균관에서 후진 양성에 이바지하였다. 이어 지중추부사·개성부유수를 역임하고 1482년 좌참찬에 올랐으나 병으로 사임, 지중추부사로 재직 중 병사하였다. 성품이 활달하고 식견이 풍부하며 글씨와 시문이 뛰어났다. 松雪體의 대가로 해서·행서를 특히 잘 썼으며, 글씨로는 「圓覺寺碑」·「韓繼美墓碑」·「崔恒神道碑」 등이 있고, 경복궁 殿門의 편액과 왕실의 寫經 등 국가적 書寫를 많이 하였다. 시문에도 능하여 율시에 일가를 이루었다. 일찍이 중국의 『太平廣記』를 모방하여 고금의 異聞을 수집하여 『太平通載』를 간행하였다. 문집으로 『安齋集』이 있다.

24) 金守溫(1410~1481)은 조선조 전기의 문신으로 本貫은 永同이고 字는 文良이며, 號는 乖崖·拭疣 등이고 諡號는 文平이다. 부친은 金訓이다. 李穡의 제자인 柳方善에게 학문을 배웠다. 세종 20(1438)년에 진사과에 급제하고 세종 23(1441)년에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正字가 되었으나 곧 세종의 특명으로 集賢殿學士가 되었다. 세종 28(1446)년에 副司直이 되고 이어서 訓練院主簿·承文院郊理·兵曹正郎 등을 거쳐 문종 1(1451)년에 典農司少尹을 역임하고 이듬해(1452) 知榮川郡事 등을 차례로 역임하였다. 세조 3(1457)년에 司藝로서 文科重試에 2등으로 급제하여 僉知中樞府事가 되고 이듬해(1458)년에 同知中樞府事에 올라 正朝副使로 명조에 다녀왔다. 세조 5(1459)년에 漢城府尹을 역임하고 이듬해 尙州牧使를 역임하였으며, 세조 10(1464)년에 知中樞府事·工曹判書를 역임하였다. 세조 12(1466)년에 拔英試와 登俊試에 모두 장원하여 判中樞府事에 오르고 쌀 20석이 하사되었는데, 文武科의 장원에게

가 발문을 씁니다.²⁵⁾

이상의 金守溫의 「跋文」을 통하여 볼 때, 성종비인 恭惠王后 韓氏가 승하하자 명복을 빌고 아울러 먼저 薨去한 世宗, 昭憲王后, 世祖, 懿敬王, 睿宗 등 先世의 왕과 왕비에 대한 추앙의 정을 잊을 수 없어 陰德을 기리고 명복을 빌기 위하여, 당시 知中樞府事 成任(1421~1484)에게 명하여 『慈悲道場懺法』과 『禮念彌陀道場懺法』의 板下本(登梓本)을 다시 쓰게 하여 板刻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보물 제949호 및 보물 제1144호 제10권 末尾의 「施主秩」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주상전하, 정의공주, 의숙공주, 명숙공주, 인수왕비한씨, 승수공주, 귀인박씨, 숙의권씨, 인혜왕대비한씨, 숙의신씨, 숙의최씨, 숙의이씨, 숙의윤씨, 숙의윤씨, 숙의윤씨, 영가부부인신씨, 대방부부인송씨, 상원부부인박씨, 임천군부인김씨, 덕양군부인노씨, 김제군부인최씨, 길안현주이씨, 봉보부인김씨, 봉보부인백씨, 정부인허씨, 상의조씨, 상복최씨, 상궁김씨, 상궁방씨, 궁정홍씨, 궁정윤씨, 궁정조씨, 궁정김씨, 상궁하씨, 전약양씨, 전식이씨, 김씨근비, 박씨보대, 주씨중덕, 김씨만덕, 김씨돈전, 최씨규화, 고씨대평, 최씨단지, 박씨옥금, 박씨중지, 홍씨검덕, 현씨갯동, 김씨이화, 윤씨귀비, 이씨혜의, 홍씨지우, 김씨보배 조씨돌금, 김씨연생, 김씨지지, 오씨조룡, 강씨대이, 박씨파득, 장씨막비, 조씨소금, 차씨미진, 정씨정향, 김씨금이, 김씨수덕, 정씨은금, 박씨내은비, 이씨약금, 한씨유월, 혜각존자신미, 학열, 학조, 월산대군정, 제안대군현, 덕원군서, 창원군성, 남천군쟁, 청안군영, 회원군쟁, 하성부원군정현조, 승덕대부의빈홍상, 서평군한계희, 중추구수영, 홍가이, 구춘수, 감역내수사별좌호종실, 액정서사안백수화, 내수사전화박양춘, 창준별감김종만, 畫員 백종린, 이장손, 刻字 권돈일, 장막동, 이영산, 전록동, 고말중, 최득산, 김귀손, 이장손, 우인수, 홍보천, 木手 유산석, 김귀산, 鍊板 김윤생, 최말중, 冶匠 산수, 注匠 석산, 두이금, 刀子匠 주금만, 印出匠

쌀을 하사하는 것은 이로부터 비롯되었다. 이어서 호조판서를 거쳐 성종 즉위(1469)년에 輔國崇祿大夫에 오르고 성종 2(1471)년에 佐理功臣 4등에 책록되어 永山府院君에 봉해졌으며, 성종 5(1474)년에 領中樞府事를 역임하였다. 세종과 세조의 신임을 받은 승려이자 만형인 信眉의 영향으로 佛敎에 깊은 지식을 가졌으며, 成三問·申叔舟 등과 한글 편찬과 翻譯事業에도 공헌하고 佛經에 통달하고 諸子百家·六經에 해박하여 뒤에 세조의 총애를 받았다. 특히, 詩文에 뛰어나 明朝使臣으로 왔던 한림 陳鑑과 「喜晴賦」로써 화답한 내용은 明朝에까지 알려졌다. 그리고 成三問·申叔舟·李石亨 등 당대의 석학들과 교류하며 文名을 다루었다. 『治平要覽』·『醫方類聚』 등의 편찬과 『釋迦譜』의 增修 및 『明皇誠鑑』·『金剛經』 등의 번역과 四書五經의 口訣에 참여하였으며, 「福泉寺記」·「道成庵記」·「上元寺重創記」·「如來현상기」·「圓覺寺碑銘」 등 佛家와 관련된 글을 많이 남겨 이로 인하여 성종조에는 儒臣들의 탄핵을 받기도 하였다. 저서로는 『拭疣集』이 있다.

25) 王子成 集錄, 『禮念彌陀道場懺法』, 木版本. [漢城] : [刊經都監], [成宗 5(1474) 推定]. 卷10. 末尾.

成化十(1474, 成宗 5)年 秋八月有日 我大王大妃殿下 懿旨于臣 若曰 惟我祖宗列聖之靈 昭明于天 陰翊後人克至 今休其在 予苟不事 事曷所以報 我前寧王 我前寧王 其肯曰 我有後人 弼我不丕基 嗚呼 我世宗莊憲大王 昭憲王后 則予婦事之 世祖惠莊大王 則予配事之 懿敬大王 睿宗大王 則予子育之 曷敢忘于懷 今恭惠王后韓氏 新赴玄宮 此予所以 仰追先世 俯念于今 罔或須臾之暫捨間 惟慈悲三昧懺 與夫彌陀懺 實昔開士 依佛遺教 撰輯成書 行之當時 顯有明徵 其板牽之行于世者 字母已剝 模子不端 命知中樞府事成任 更楷鐫梓 傳布中外 庶幾因茲勝緒 仰荅先王先后罔極於萬一 今已告訖 爾其跋之 臣聞 釋氏之有懺法 猶吾儒之有改過 蓋人不能以無過 過而能悔 悔而能改 則善矣 經曰 衆生除舊習 卽入諸佛位 此之謂也 今我大王大妃殿下 欲薦先王先后冥祐 首刊是懺 將與微塵刹土衆生 捨邪歸正 改惡從善 蓋不以無過爲貴 以改過爲重 此即大菩薩慈悲 廣大四弘願之至德也 先王先后 所以登極樂 而證涅槃者 此其徑之歟 純誠佐理功臣 輔國崇祿大夫 領中樞府事 永山府院君臣金守溫 奉教謹跋.

유실구지, 漆匠 고미라, 김무기지.26)

이상의 「施主秩」을 통하여 볼 때, 왕실의 仁粹大妃·仁惠大妃를 비롯하여 公主·淑儀·尙宮 등 內命婦와 月山大君·齊安大君 등의 종친들과 信眉·學悅·學祖 등 당시 고승들이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어서 刊行秩에는 監役·畫員·刻字·木手·鍊板·冶匠·注匠·刀子·印出匠·漆匠 등 판각과 印出에 종사한 장인들의 이름이 모두 나열되어 있어 왕실에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치밀하게 추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卷頭의 과거·현재·미래 三世佛의 圖像은 화원 白終麟과 李長孫이 그린 작품으로 연대와 작가가 확실한 조선조 초기의 판화작품이며, 刻字에 참여한 權頓一·張莫同·李永山 등은 당시의 일류 刻手임을 짐작할 수 있다.

『禮念彌陀道場懺法』의 판본은 우왕 2(1376)년의 高麗版을 비롯하여 성종 5(1474)년의 刊經都監版, 연산군 9(1503)년의 海印寺版, 중종 37(1542)년의 石頭寺版, 선조 5(1572)년의 毗盧寺版, 선조 9(1576)년의 甲寺版 등이다.

『禮念彌陀道場懺法』의 가장 이른 개판본은 고려 우왕 2(1376)년에 慧朗 등이 간행한 판본으로 이 판본의 4권 1책(권7~10)이 현재 보물 제1320호로 지정되어 啓明大學校 童山圖書館 碧梧文庫에 소장되어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임진왜란 이전의 『禮念彌陀道場懺法』의 版種과 文化財 指定 現況은 <表 1>과 같다.

<表 1> 『禮念彌陀道場懺法』의 版種과 文化財 指定 現況

番號	版種	所藏處	卷冊數	文化財 指定	備考
1	高麗版 (1376) (우왕 2)	계명대학교 도서관	4권1책(권7~10)	보물 제1320호	跋文: 朴免妥 施主: 韓仲禮 等
2	刊經都監版 (1474) (성종 5)	국립중앙박물관	10권2책(완질)	보물 제949호	跋文: 金守溫
		목아불교박물관	5권1책(권6~10)	보물 제1144호	
		대전 김영래	4권2책(권3·4/7·8)	보물 제1165호	

26) 王子成 集錄, 『禮念彌陀道場懺法』. 木版本. [漢城]: [刊經都監], [成宗 5(1474) 推定]. 卷10. 末尾.

主上殿下 貞懿公主 懿淑公主 明淑公主 仁粹王妃韓氏 崇壽公主 貴人朴氏 淑儀權氏 仁惠王大妃韓氏 淑儀愼氏 淑儀崔氏 淑儀李氏 淑儀尹氏 淑儀尹氏 淑儀尹氏 永嘉府夫人申氏 帶方府夫人宋氏 祥原府夫人朴氏 林川郡夫人金氏 德陽郡夫人盧氏 金堤郡夫人崔氏 吉安縣主李氏 奉保夫人金氏 奉保夫人白氏 貞夫人許氏 尙儀曹氏 尙服崔氏 尙宮金氏 尙工方氏 宮正洪氏 宮正尹氏 宮正趙氏 宮正金氏 尙工河氏 典藥梁氏 典飾李氏 金氏斤非 朴氏寶臺 周氏重德 金氏萬德 金氏頓田 崔氏葵花 高氏大平 崔氏丹之 朴氏玉今 朴氏從智 洪氏儉德 玄氏允同 金氏梨花 尹氏貴非 李氏惠宜 洪氏智牛 金氏寶背 趙氏芑今 金氏延生 金氏芷芝 吳氏曹籠 姜氏大耳 朴氏波獨 張氏莫非 趙氏小今 車氏微塵 鄭氏丁香 金氏今伊 金氏水德 鄭氏銀金 朴氏內隱非 李氏若今 韓氏六月 慧覺尊者信眉 學悅 學祖 月山大君婷 齊安大君瑁 德源君曙 昌原君晟 南川君晴 淸安君嶸 滄原君崢 河城府院君鄭顯祖 崇德大夫儀賓洪常 西平君韓繼禧 中樞具壽永 洪加伊 具椿壽 監役內需司別坐處從實 掖庭署司案白守和 內需司典貨朴揚春 唱准別監金終萬 畫員 白終麟 李長孫 刻字 權頓一 張莫同 李永山 全祿同 高末終 崔得山 金貴孫 李長孫 禹仁守 洪寶千 木手 劉山石 金貴山 鍊板 金尹生 崔末中 冶匠 山守 注匠 石山 豆伊金 刀子匠 周金萬 印出匠 俞實仇知 漆匠 高末羅 金無其只.

		영광 불갑사	5권1책(권6~10)	보물 제1470-1호	
		고려대학교 도서관	10권2책(완질)	-(晩松 貴394A)	
		기장 고불사	5권1책(권1~5)	指定申請本	
3	海印寺版 (1503) (연산 9)	김천 직지사	5권1책(권6~10)	보물 제1241호	·刊經都監版(1474)의 重刊版 ·跋文: 弘治十六年癸亥暮春上澗直指寺老衲 燈谷學祖七十二歲書于東廂
		서울 정암사	10권2책(완질)	서울유형 제322호	
		양주 육지장사	10권2책(완질)	경기유형 제349호	
		청주고인쇄박물관	5권1책(권1~5)	충북유형 제355호	
		고양 원각사	10권2책(완질)	-	
		동국대학교 도서관	5권1책(권1~5)	-	
		거제 총명사	5권1책(권6~10)	경남유형 제592호	
		부산 청량사	5권1책(권6~10)	부산문자 제110호	
4	石頭寺版 (1542) (중종 37)	고려대학교 도서관	5권1책(권6~10)	-(晩松 貴394)	跋: 信玄敬跋 刊字秩: 學宗 刊記: 嘉靖二十一年閏五月日黃海道兎山地 鶴峰山石頭寺開板
5	毗盧寺版 (1572) (선조 5)	하남 성某	10권2책(완질)	경기문자 제184호	刊記: 隆慶六年壬申慶尙道豐基地小白山毗 盧寺開板
		동국대학교 도서관	5권1책(권1~5)	-	
6	甲寺版 (1576) (선조 9)	창원 성덕암	1책	경남유형 제562호	跋文: 萬曆四年蒼龍丙子孟秋丙申壬辰日龍 城沙門默齋謹跋 刊記: 萬曆四年丙子五月日忠淸道公州地鷄 龍山甲土寺開刊
		양산 불광사	6권1책(권5~10)	경남유형 제581호	
		원주고관화박물관	5권1책(권1~5)	강원문자 제148호	
		고려대학교 도서관	1책	-(六堂 貴106)	

高麗版을 이어 開板된 朝鮮의 版本은 성종 5(1474)년의 刊經都監版이 처음이며, 이는 王室의 주도하에 開板되어 일반 寺刹에는 널리 퍼지지 않았던 듯하다. 그 결과 연산군 9(1503)년에 海印寺에서 刊經都監版을 底本으로 翻刻·重刊하였는데 이 經板은 현재 국보 제32호인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에 포함되어 있다.

古佛寺 소장의 指定申請本 『禮念彌陀道場懺法』은 성종 5(1474)년에 板刻된 刊經都監版의 後刷本人 듯하다. 그러나 王室 發願版인 동시에 뒤에 전국의 여러 사찰에서 간행되는 『禮念彌陀道場懺法』의 母本의 자료이며, 조선조 전기의 印刷出版文化 연구에는 물론 佛敎學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또한, 指定申請本

이 비록 10권 2책 중 권1~5의 1책에 지나지 않으나 이미 同一 版本의 完本 혹은 缺本の 4종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심지어 연산군 9(1503)년에 海印寺에서 翻刻된 판본도 보물 제1320호(5권1책, 김천 직지사 소장)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古佛寺 소장의 指定申請本 『禮念彌陀道場懺法』은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研究하고 保存·管理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文獻資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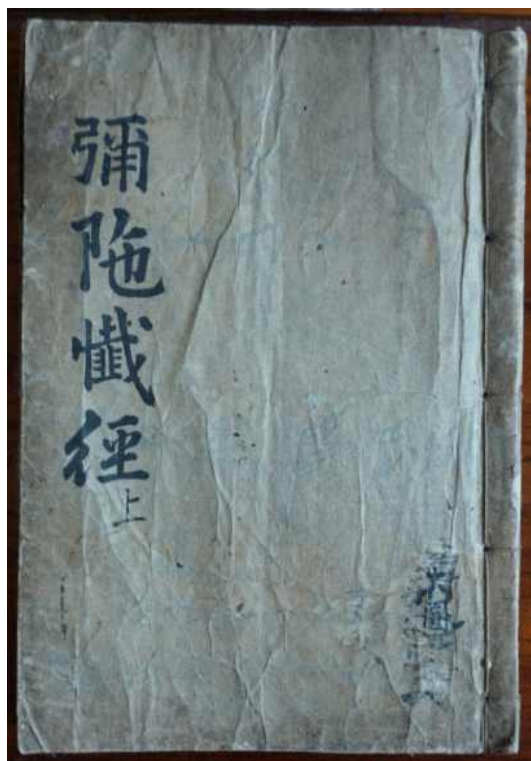
- 王子成 集錄, 『禮念彌陀道場懺法』. 木版本. [漢城] : [刊經都監], [成宗 5(1474) 推定]. 卷1~5. 古佛寺 所藏.
- 李仁榮 著, 『淸芬室書目』. 影印本. 서울 : 寶庫社, 1993.
- 부산광역시,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인정 자료보고서>. 서울 : 서울특별시, 2018. 11. 23.
-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유형분과,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 심의의결서>. 부산 :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 2018. 3. 15.
-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조사보고서(윤상기·최영호)>. 부산 :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 2018. 03. 15.
-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View.do?pageNo=1_1_1_1
- 국립중앙도서관: <https://nl.go.kr/>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snu.ac.kr/>
-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http://lib.dongguk.edu/>
-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https://east.skku.edu/#/>
- 人名規範檢索: <http://authority.dila.edu.tw/person/>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http://jsg.aks.ac.kr/>

○ 其 他 (소장 경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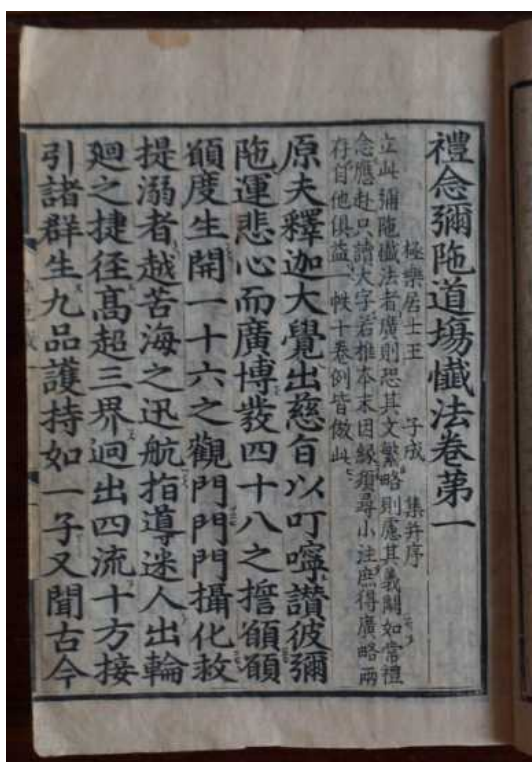
古佛寺 소장의 指定申請本 『禮念彌陀道場懺法』은 2017년 3월경에 古佛寺의 전 창건주이자 주지이던 김무원(재범, 운성의 제자)이 金季竣(정오, 현 창건주)를 통하여 고불사(현 주지 김성원)에 무상으로 기증하였다고 함. <고불사 예념미타도량 참법 소장 경위서 참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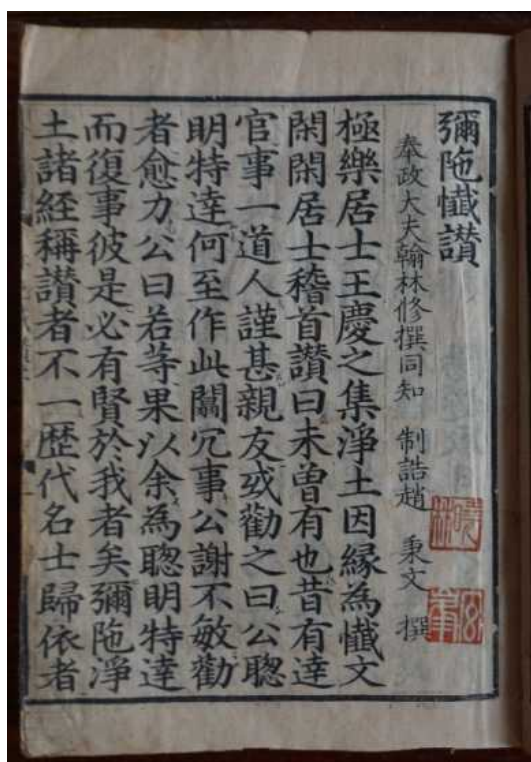
<書影 2> 變相



<書影 1> 表紙



<書影 4> 卷頭



<書影 3> 「彌陀懺讚」

□

<書誌事項>

禮念彌陀道場懺法, 卷1~5 / 王子成(?~?, 金·元朝) 集. -- 木版本. -- [漢城]: [刊經都監], [成宗 5(1474) 板刻, 後刷 推定].

5卷1冊 : 圖, 四周雙邊, 半郭 23.9×18.4cm, 有界, 半葉 9行15字 小字雙行22字, 上下大黑口, 上下下向黑魚尾, 30.8×22.2cm. 韓紙(楮紙). 線裝(五針眼訂法, 改裝).

表 題: 彌陀懺經. (墨書)

卷頭題: 禮念彌陀道場懺法.

讚 題: 彌陀懺.

序 題: 彌陀懺. 版心題: 彌陀懺.

卷尾題: 禮念彌陀道場懺法.

書根題: 懺文. (墨書)

插 圖: 第1張A面; 南無過去毗婆尸佛, 南無尸棄佛, 南無毗舍浮佛. 第1張B面; 南無拘留孫佛, 南無拘那含牟尼佛, 南無迦葉佛. 第2張A面; 南無教主釋迦牟尼佛, 南無西方阿彌陀佛, 南無當來彌勒尊佛. 第2張B面; 空白.

張 數: 114張; 卷頭(插圖 2張, 彌陀懺讚·彌陀懺序 4張), 卷1(19張), 卷2(23張), 卷3(23張), 卷4(21張), 卷5(22張).

贊 文: 彌陀懺讚; 極樂居士王慶之集淨土因緣爲懺文 … 奉政大夫翰林修撰同知制誥趙秉文(1159~1232)撰

序 文: 彌陀懺序; 天地之中凡有血氣皆有鬪心 … 崇慶二年(1213)中春望日序 儒林郎應奉翰林文字同知制誥兼夔王府文學記室參軍武騎尉賜緋魚袋李純甫(1177~1223)撰.

印 文: ‘玄峯’, ‘曉林’

墨 書: ‘朴圓’(表紙), 口訣(全體).

○ 現 狀

조사본 『예념미타도량참법』 권1~5는 고불사 창건주인 김무원 스님(재범, 운성스님의 제자라 전함)이 2017년 3월경 金季垞 스님(정오)을 통해 고불사 현 주지스님인 김성원(해륜)에게 무상으로 기증하였다고 전함. 조사본은 표지가 후대에 개장되었으나 전체적인 보존상태는 양호하다.



○ 內容 및 特徵

『예념미타도량참법(禮念彌陀道場懺法)』은 아미타불께 지극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모든 죄업을 참회하며 보리심(菩提心)을 내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식집이다. 그 내용을 보면 책의 앞부분에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불(三世佛)이 명호(名號)와 함께 도상(圖像)이 묘사되었고, 미타참찬(彌陀懺讚), 미타참서(彌陀懺序)에 이어 본문에 해당하는 「귀의서방삼보(歸依西方三寶)」·「결의생신(決疑生信)」·「인교비증(引敎比證)」·「왕생전록(往生傳錄)」·「극락장엄(極樂莊嚴)」·「예참죄장(禮懺罪障)」·「발보리심(發菩提心)」·「발원왕생(發願往生)」·「구생행문(求生行門)」·「총위예불(總爲禮佛)」·「자경(自慶)」·「보개회향(普皆迴向)」·「촉루유통(囑累流通)」 등 13편의 의례 절차가 수록되었다. 이 책은 『미타참(彌陀懺)』으로 약칭되기도 하며, 『정토문(淨土文)』이라 불리기도 한다.

『예념미타도량참법』을 결집한 왕자성(王子成, ?~?)은 왕경지(王慶之)라고도 하며 호는 극락거사(極樂居士)이다. 그의 생몰년과 행적은 구체적으로 전해지는 바 없으나 당시를 말법의 시대로 규정하고 정토왕생을 발원하면서 염불(念佛)과 참법(懺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던 인물이다.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예념미타도량참법』의 가장 오랜 판본은 고려 우왕 2년(1376)에 고려의 승려 혜랑(慧朗) 등이 간행한 책이 전하는데, 권7~권10의 4권 1책이 보물 제1320호(啓明大學校 童山圖書館 碧梧文庫 소장)로 지정된 상태이다. 조선시대에는 성종 5년(1474)의 刊經都監版, 연산군 9년(1503)의 海印寺版, 중종 37년(1542)의 石頭寺版, 선조 5년(1572)의 毗盧寺版, 선조 9년(1576)의 甲寺版 등이 전해진다.

조사본 『예념미타도량참법』 권1~5의 表題는 ‘彌陀懺經’(墨書)이고, 書根題는 ‘懺文’(墨書)이다. 표지는 개장된 상태로 표지의 하단부 책사에 가까운 부분에 ‘朴圓’이라는 墨書가 있으나 그 의미는 분명하지 않다. 卷頭題와 卷尾題는 ‘禮念彌陀道場懺法’이다.



책의 앞부분에는 ‘南無過去毗婆尸佛’, ‘南無尸棄佛’, ‘南無毗舍浮佛’, ‘南無拘留孫佛’, ‘南無拘那含牟尼佛’, ‘南無迦葉佛’, ‘南無教主釋迦牟尼佛’, ‘南無西方阿彌陀佛’, ‘南無當來彌勒尊佛’ 등 과거·현재·미래三世九佛의 도상이 있다.

책의 판식을 보면 邊欄은 四周雙邊으로 半郭은 세로 23.9cm 가로 18.4cm이며 界線이 있다. 每半葉의 行字數는 大字는 9行15字이고 小字는 雙行22字이다. 板口는 上下大黑口이며 版心의 魚尾는 上下下向黑魚尾이다. 책의 크기는 세로 30.8cm 가로 22.2cm이고 紙質은 韓紙(楮紙)이며 裝訂은 五針眼訂法의 線裝이다.

책의 내용은 卷1에 「歸依西方三寶第一」, 卷2에 「決疑生信第二」, 卷3에 「引教比證第三」, 卷4에 「往生傳錄第四」, 卷5에 「極樂莊嚴第五」 등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본문의 卷頭에는 ‘玄峯’과 ‘曉林’의 印文이 있으며, 본문 전체에 墨書된 口訣이 보인다. 이는 책의 전래 과정을 보여주는 기록에 해당하나 상세한 사실은 확인이 어렵다. 조사본은 판식과 인출상태를 통하여 성종 5년(1474)년에 판각된 간경도감판의 후쇄본으로 판단된다. 현재 전하는 간경도감판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국립중앙박물관본	1474년 판각/1503년 인출	10권2책(완질)	보물 제949호
목아불교박물관본	1474년 판각 인출	5권1책(권6~10)	보물 제1144호
대전 김영래본	1474년 판각 인출	4권2책(권3·4/7·8)	보물 제1165호
영광 불갑사본	1474년 판각/1503년 인출	5권1책(권6~10)	보물 제1470-1호
고려대학교 도서관본	1474년 판각/1503년 인출	10권2책(완질)	-(晩松 貴394A)
조사본	1474년 판각 인출	5권1책(권1~5)	-



보물 제1320호, 우왕 2년(1376), 계명대본



조사본

간경도감판 『예념미타도량참법』의 간행 목적은 지정되어 있는 책의 제10권 마지막에 보이는 김수온(金守溫, 1410~1481)의 「跋文」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화 10(1474, 성종 5)년 가을 8월 어느 날, 우리 대왕대비 전하께서 臣에게 聖旨를 내리시어, ‘생각건대, 우리 祖宗 列聖의 靈駕들께서는 하늘을 밝게 비추고 蔭德으로 후인을 도우심이 지극하셨건만 지금 계시지를 앎으니 내가 어떻게 섬길 수가 없구나. 圖像이라도 섬겨 그렇게나마 우리 前代의 寧王들께 보답한다면 우리 전대의 寧王들께서도 옳다고 여겨 우리에게는 후손이 있다고 하시며 국가의 기반을 튼튼하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嗚呼라! 우리 世宗 莊憲大王과 昭憲王后는 내가 며느리로서 섬긴 분들이고, 世祖 惠莊大王은 내가 배필로서 섬긴 분이며, 懿敬大王과 睿宗大王은 내가 기른 아드님들이니, 어찌 감히 가슴 속에서 잊을 수 있겠는가. 이제 恭惠王后 韓氏가 새로이 玄宮으로 부임함에 이 일로 내가 새삼 지금도 굽어살피며 잠시도 마음을 놓지 않으시는 先祖들을 우러르고 추모하게 되는구나. 생각건대, 『慈悲三昧懺』과 『彌陀懺』은 진실로 옛날에 開士들이 부처님께서 남

기신 가르침에 의하여 撰集한 책으로 그것을 刊行하였던 당시에 분명한 징험이 드러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세간에 떠도는 板本은 글자(字母)가 이미 닳고 字體도 단정하지 못하니, 知中樞府事 成任에게 명하여 다시 板下本을 서사하게 하고 板木에 새겨 中外에 널리 유포하도록 하라. 이런 훌륭한 인연을 맺어 우러러 先代의 왕과 왕후들의 끝없는 은혜에 萬分之一이나마 보답하기를 기대하니, 지금 한 말들을 바탕으로 跋文으로 쓰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臣은 불교에 懺法이 있는 것은 우리 儒家에 허물을 고침이 있는 것과 같다고 들었습니다. 대개 사람이란 허물이 없을 수 없으니,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뉘우칠 수 있고 뉘우치고서 고칠 수 있다면 훌륭한 것입니다. 經典에서 ‘중생이 옛 허물을 없애면 곧바로 모든 부처님의 지위에 들어간다.’라고 한 것은 이를 두고 한 말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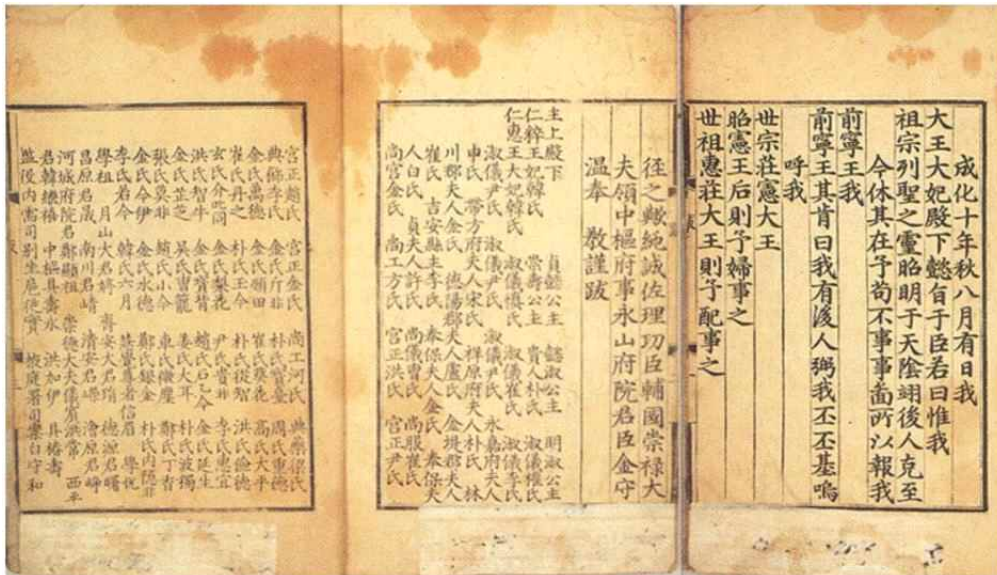
지금 우리 대왕대비 전하께서 幽冥界에서 도우시는 선대의 왕과 왕후들을 천도 하시고자 가장 먼저 이 懺法을 간행하여 장차 작은 먼지처럼 수없는 國土의 衆生들과 더불어 샅뽀를 버리고 바름으로 돌아가고 악을 고쳐 善을 따르고자 하시는 것은 아마도 허물이 없는 것을 귀히 여기지 않고 허물을 고치는 것을 중하게 여기는 까닭일 것이니, 이것이 곧 大菩薩의 자비요 넓고 큰 四弘誓願의 지극한 덕입니다. 선대의 왕과 왕후들께서 극락세계로 올라가 涅槃을 證得하시는 데에는 이것이 그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순성좌리공신 보국송록대부 영종추부사 영산부원군 臣 金守溫은 敎勅을 받들어 삼가 발문을 씁니다.

(成化十年 秋八月有日 我大王大妃殿下 懿旨于臣 若曰 惟我祖宗列聖之靈 昭明于天 陰翊後人克至 今休其在 予苟不事 事曷所以報 我前寧王 我前寧王 其肯曰 我有後人 彌我丕丕基 嗚呼 我世宗莊憲大王 昭憲王后 則予婦事之 世祖惠莊大王 則予配事之 懿敬大王 睿宗大王 則予子育之 曷敢忘于懷 今恭惠王后韓氏 新赴玄宮 此予所以 仰追先世 俯念于今 罔或須臾之暫捨間 惟慈悲三昧懺 與夫彌陀懺 實昔開士 依佛遺教 撰輯成書 行之當時 顯有明徵 其板本之行于世者 字母已剝 模子不端 命知中樞府事 成任 更楷鏤梓 傳布中外 庶幾因茲勝締 仰答先王先后罔極於萬一 今已告訖 爾其跋之 臣聞 釋氏之有懺法 猶吾儒之有改過 盖人不能以無過 過而能悔 悔而能改 則善矣 經曰 衆生除舊咎 卽入諸佛位 此之謂也 今我大王大妃殿下 欲薦先王先后冥祐 首刊是懺 將與微塵刹土衆生 捨邪歸正 改惡從善 盖不以無過爲貴 以改過爲重 此卽大菩薩慈悲 廣大四弘願之至德也 先王先后 所以登極樂 而證涅槃者 此其徑之歟 純誠佐理功臣 輔國崇祿大夫 領中樞府事 永山府院君臣金守溫 奉教謹跋.)

곧 간경도감관은 성종비인 恭惠王后 韓氏가 승하하자 명복을 빌고 아울러 먼저 薨去한 世宗, 昭憲王后, 世祖, 懿敬王, 睿宗 등 先世의 왕과 왕비에 대한 추앙의

정을 잊을 수 없어 陰德을 기리고 명복을 빌기 위하여, 당시 知中樞府事 成任(1421~1484)에게 명하여 『慈悲道場懺法』과 『禮念彌陀道場懺法』의 板下本(登梓本)을 다시 쓰게 하여 板刻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보물 제949호. 국립중앙박물관본(연산 9(1503)년 간본) 김수온 발문

○ 文獻資料

· 부산광역시,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인정 자료보고서』. 서울 : 서울특별시, 2018. 11. 23.

○ 指定事例

보물 제949호. 『禮念彌陀道場懺法』 권1~10. 성종 5(1474)년 판각. 연산 9(1503)년 간본. 국립중앙박물관.(1988.06.16.)

보물 제1144호. 『禮念彌陀道場懺法』 권6~10. 성종 5(1474)년 간본. 목아불교박물관.(1992.12.11.)

보물 제1165호. 『禮念彌陀道場懺法』 권3~4,7~8. 성종 5(1474)년 간본. 대전 김영래.(1993.06.15.)

보물 제1241호. 『禮念彌陀道場懺法』 권6~10. 연산군 9(1503)년 간본. 직지사. (96.04.04.)

보물 제1320호. 『禮念彌陀道場懺法』 권7~10. 우왕 2(1376)년 간본. 계명대학교. (2001.08.03.)

보물 제1470-1호. 『禮念彌陀道場懺法』 권6~10. 성종 5(1474)년 판각. 연산 9(1503)년 간본. 영광 불갑사. (2006.04.28.)

□

○ 현 상

조사대상 『禮念彌陀道場懺法』은 彌陀懺 또는 淨土文이라고도 하는데, 극락왕생을 기원하고자 서방 극락정토의 아미타불을 예참하는 도량의식의 절차를 밝힌 불교의례서이다. 본서는 고려의 승려 慧朗 등이 우왕 2(1376)년 간행한 판본을 저본으로 하여, 조선 성종 5(1474)년 간행한 왕실 발원판으로 조선 最古本이다. 이후 전국 각처에서 간행한 『예념미타도량참법』의 모본이 된 판본이다. 도상은 연도와 작가가 확실한 조선 초기 작품이며, 일류 각수들을 동원해 판각한 수작이다. 동일 판본의 권말에는 성종 5(1474)년에 쓴 金守濫의 발문·시주질·판각에 참여한 감역·화원·각자·목수·연판·야장·注匠·刀子·인출장·칠장 등 간행 종사자들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불교 및 불교사 연구는 물론 조선 전기 인쇄사와 판화사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서지사항>

禮念彌陀道場懺法, 卷1-5 / 王子成(金) 撰.

木版本(後刷). [成宗 5(1474)年頃] 30.8 × 22.2cm.

1冊(零本). 四周雙邊. 半郭 23.9 × 18.4cm. 有界, 9行15字. 黑口, 下向黑魚尾.

表紙書名 : 彌陀懺經.

版心書名 : 懺題.

彌陀懺讚 : 趙秉文.

彌陀懺序 : 李純甫.

書根題 : 識文

藏書印 : 玄峯, 曉林.

○ 내용 및 특징

『禮念彌陀道場懺法』은 彌陀懺 또는 淨土文이라고도 하는데,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서방 극락정토의 아미타불을 예참하는 도량의식의 절차를 밝힌 불교의례서이다. 禮는 격식을 갖춘 예배행위이며, 念은 稱念 또는 觀念으로 수행법을 말한다. 彌陀는 아미타인데, 극락세계의 교주인 부처님의 명호이다. 彌陀道場은 아미타불에 귀의하여 서방 극락정토에 왕생하는 것을 발원하고, 이를 위해 勸供·예배·찬불의 절차로 의식을 진행하는 정토왕생 법회이다. 懺法은 경전을 읽으며 죄업을 참회하는 법회로, 이 의식은 일심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는 염불의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아미타불에게 지극한 정성으로 죄업을 참회하고자 예배하고, 죽은 사람이 극락왕생하기를 기원하는 의례절차를 수록한 의식집이다.

『禮念彌陀道場懺法』은 금나라 王子成이 편집한 10권본 서적이다. 왕자성의 이력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王慶之 또는 極樂居士라고 불렸다고 한다. 내용은 歸依西方三寶·決疑生信·引教比證·往生傳錄·極樂莊嚴·禮懺罪障·發菩提心·發願往生·求生行門·總爲禮佛·自慶·普皆迴向·囑累流通의 1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彌陀道場은 신라 신문왕연간 오대산 水精社에서 행한 기록이 있고, 고려시대에도 민간에서 크게 성행하였다. 가장 오래된 고려시대 기록은 충숙왕 복위 1(1332)년 順菴이 구해서 昊天寺에 소장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서적이 공민왕 10(1361)년 불타서, 우왕 2(1376)년 慧朗 등이 목판으로 간행한 판본이 알려지고 있다. 우왕 2(1376)년 판본의 권말에는 朴免妥의 발문, 시주와 간행에 참여한 인물의 명단이 있다. 이 책의 판각에는 覺因·慧朗·上黨君 韓仲禮·完山郡夫人 崔氏·上黨郡夫人 鄭氏·高敞郡夫人 吳氏 등이 후원하고, 申天瑞·李仁烈·金允貴 등이 판각하였다. 이 판본에는 계선이 없는 고려말의 특징이 보이며, 折帖裝으로 장책하고자 판각되었으나 線裝으로 개편된 상태이다.

조선 성종 5(1474)년 세조비인 慈聖大王大妃(貞熹王后)의 후원으로 慧朗이 간행한 판본을 저본으로 간행한 왕실 발원판이 조선의 최고본이다. 慈聖大王大妃는 손부인 성종비 恭惠王后 韓氏가 요절하자 명복을 빌고, 아울러 먼저 죽은 世宗·昭憲王后·世祖·懿敬王·睿宗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간행하였다. 慈聖大王大妃·仁惠大妃를 비롯하여 公主·淑儀·尙宮 등 내명부와 月山大君 등 종친·信眉·學悅·學祖 등 고승이 간행에 참여하였다.

본서의 권두에는 과거·현재·미래 三世佛의 도상이 명호와 함께 묘사되어 있고, 趙秉文이 지은 彌陀懺讚, 李純甫가 쓴 彌陀懺序에 이어 본문이 실렸다. 조사대상본은 잔본이어서 간행 관련 정보를 알 수 없다. 동일 판본으로 추정되는 판본의 권말 기록을 통해 간행 관련 정보를 알 수 있을 뿐이다.

권말에는 성종 5(1474)년에 쓴 金守溫의 발문과 시주질이 실려 있다. 시주질에는 慈聖大王大妃·仁惠大妃를 비롯하여 여러 내명부와 종친·信眉·學悅·學祖 등 당시 고승이 수록되어 있다. 이어 內需司 別坐의 감독 아래 판각에 참여한 감역·화원·각자·목수·연관·야장·注匠·刀子·인출장·칠장 등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 명단을 통해 본문 글씨는 지중추부사 成任(1421-1484)이 썼고, 圖像은 도화서 화원 李長孫과 白終麟이 그렸으며, 판각에는 權頓一·張莫同·李永山이 동원되었고, 인출장은 兪實仇知 등 일류 화원·각수·인출장이 동원된 것을 볼 수 있다. [玄峯]과 [曉林]이란 장서인이 있으나, 인물을 비정할 수 없다.

세월이 지나면서 새로운 수요가 있었으므로, 연산군 9(1503)년 해인사에서 이를 복각하였다. 이때 해인사에서 판각한 판목은 국보 제32호 합천 해인사 대장경

판에 포함되어 있다. 이후 동일계열의 중종 37(1542)년 石頭寺版, 선조 5(1572)년 毘盧寺版, 선조 9(1576)년 海印寺版, 선조 40(1607)년 松廣寺版, 광해군 2(1610)년 長壽佛堂版 등의 간본이 전래되고 있다. 조선초 간본의 주요 전래본은 <표 1>과 같다.

<표 1> 『禮念彌陀道場懺法』의 조선초 간본

번호	권차	책수	간행연도	간행관련	서발	수장처
보물1320호	7-10	1	우왕 2(1376)	慧朗	朴免妥	계명대학교
보물 949호	1-10	2	성종 5(1474)	王室發願	金守溫	국립중앙박물관
보물1144호	6-10	1	성종 5(1474)	王室發願	金守溫	여주 목아박물관
보물1165호	3,4,7,8	1	성종 5(1474)	王室發願		대전 신흥사 김영래
보물1470-1호	6-10	1	성종 5(1474)	王室發願	金守溫	영광 불갑사
—	1-5	1	성종 5(1474)	王室發願		原州 고판화박물관
보물1241호	6-10	1	연산 9(1503)	陝川 海印寺	燈谷 學祖	김천 직지사
—	1-10	2	연산 9(1503)	陝川 海印寺	燈谷 學祖	동국대학교

○ 문헌자료

우진웅, 『한국 밀교경전의 판화본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張仁鎭,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보물 도서 11종의 문헌적 가치」, 『한국학논집』 37. (2008) 5-34
 崔永好, 「海印寺大藏經板의 구성체계와 범위」, 『석당논총』 68. (2017) 175-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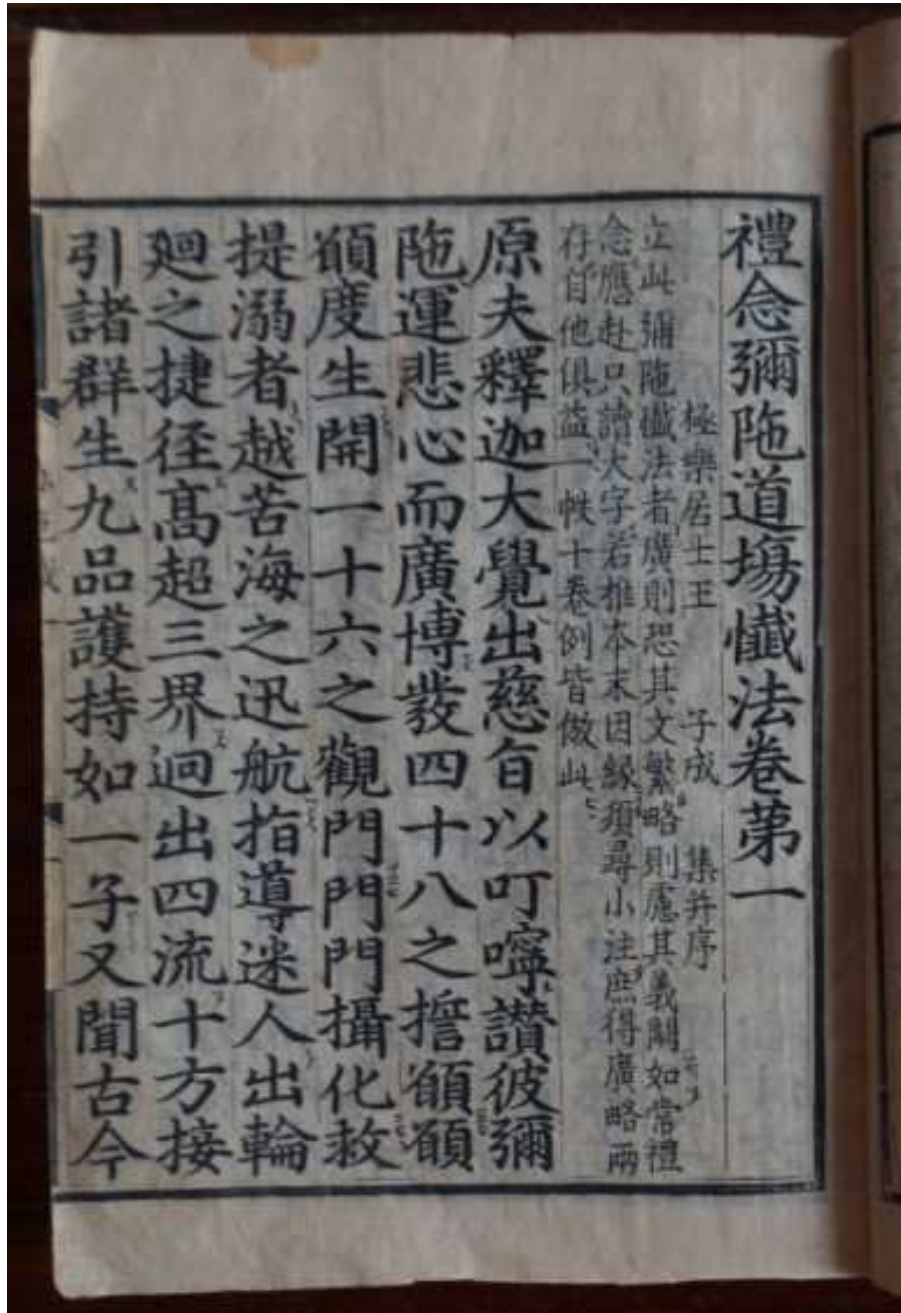
○ 기 타

고불사 창건주인 재범스님(운성스님 제자)이 고불사에 기증한 것이라 함.

○ 지정사례

보물 제949호. 『禮念彌陀道場懺法』 권1-10. 성종 5(1474)년, 연산 9(1503)년 간본. 국립중앙 박물관. (1988.06.16.)
 보물 제1144호. 『禮念彌陀道場懺法』 권6-10. 성종 5(1474)년 간본. 목아불교박물관. (1992.12.11.)
 보물 제1165호. 『禮念彌陀道場懺法』 권3-4,7-8. 성종 5(1474)년 간본. 대전 김영래. (1993.06.15.)
 보물 제1241호. 『禮念彌陀道場懺法』 권6-10. 연산군 9(1503)년 간본. 직지사. (96.04.04.)
 보물 제1320호. 『禮念彌陀道場懺法』 권7-10. 우왕 2(1376)년 간본. 계명대학교. (2001.08.03.)
 보물 제1470-1호. 『禮念彌陀道場懺法』 권6-10. 연산 9(1503)년 간본. 영광 불갑

사본. (2006.04.28.)



禮念彌陀道場懺法卷第一

極樂居士王

子成

集并序

立此彌陀懺法者廣則恐其文繁略則慮其義闕如常禮念應赴只讀大字若推本末因緣須尋小注庶得廣略兩存自他俱益一帙十卷例皆倣此

原夫釋迦大覺出慈旨以叮嚀讚彼彌陀運悲心而廣博教四十八之誓願願願度生開一十六之觀門門門攝化救提溺者越苦海之迅航指導迷人出輪迴之捷徑高超三界迴出四流十方接引諸群生九品護持如一子又聞古今

그림 227 고불사본.



그림 228 보물 제1320호. 우왕 2(1376)년. 계명대학교본



그림 229 보물 제1320호. 우왕 2(1376)년. 계명대학교본



그림 230 보물 949호. 성종 5(1474)년, 연산 9(1503)년. 국립중앙박물관본.



그림 231 보물 949호. 성종 5(1474)년, 연산 9(1503)년. 국립중앙박물관본.

10. 서울 영국사지 출토 의식공양구 일괄 (서울 寧國寺址 出土 儀式供養具 一括)

가. 검토사항

‘서울 영국사지 출토 의식공양구 일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서울 영국사지 출토 의식공양구 일괄’에 대하여 국가 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9.11.28.)이 있어 관계 전문가 조사(‘20.12.2/21.3.30.)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 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서울 영국사지 출토 의식공양구 일괄(서울 寧國寺址 出土 儀式供養具 一括)
- 소유자(관리자) : 국유(한성백제박물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71, 한성백제박물관
- 수 량 : 10건 10점
(금동금강저 1건 1점, 금동금강령 1건 1점, 청동현향로 1건 1점, 청동향합 1건 1점, 청동순가락 3건 3점, 청동굽다리그릇 1건 1점, 청동유개호 1건 1점, 청동동이 1건 1점)
- 규 격

대 상	크 기
금강저	전체 길이 17.5cm, 손잡이 길이 7.17cm, 양쪽 고부 길이 각 4.86cm, 4.97cm, 양쪽 고부 너비 각 4.86cm, 4.64cm)
금강령	(금강령) 전체 높이 19.5cm, 령부 높이 8.16cm, 령부 직경 5.36cm, 손잡이 높이 6.24cm, 고부 높이 4.92cm (탁설) 길이 7.0cm, 너비 2.6cm, 연결 고리 직경 1.90cm
현향로	몸체 높이 13.1cm, 뚜껑 높이 4.9cm, 손잡이 높이 14.0cm
향합	높이 14.7cm, 뚜껑 직경 17.8cm

향시(술가락)	(서위H12433) 길이 25.9cm, 술길이 8.0cm, 술너비 3.96cm (서위H12437) 길이 26.0cm, 술길이 8.0cm, 술너비 4.0cm (서위H12441) 길이 26.0cm, 술길이 8.5cm, 술너비 4.3cm
청동굽다리 그릇 (대부완)	높이 7.53cm, 구연부 직경 11.6cm, 굽 높이 2.1cm, 굽 직경 6.0cm
청동유개호	높이 44.3cm, 구연부 직경 17.5cm, 굽 직경 21.5cm
청동동이	높이 27.0cm, 구연부 너비 38.5cm, 굽 너비 25.7cm

- 재 질 : 금동, 청동, 철
- 조성연대 : 고려 시대



<서울 영국사지 출토 의식공양구 일괄>



<서울 영국사지 출토 의식공양구 일괄-금강저>

○ 지정 대상 목록

연번	사진	유물명	수량	소장번호 (한성백제박물관)	비고
1		금동금강저	1건 1점	서위H12394	
2		금동금강령	1건 1점	서위H12395	탁설 1점 분리
3		청동유개호	1건 1점	서위H12393	
4		청동동이	1건 1점	서위H12413	
5		청동현향로	1건 1점	서위H12414	‘道峯寺’명문 (손잡이, 뚜껑, 몸체 분리)
6		청동 향합	1건 1점	서위H12415	‘道峯寺’명문
7		청동 굽다리그릇 (대부완)	1건 1점	서위H12418	‘雞林公施’명문
8		청동 숟가락	1건 1점	서위H12433	
9		청동 숟가락	1건 1점	서위H12437	
10		청동 숟가락	1건 1점	서위H12441	
	계		10건 10점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영국사지 출토 공예품은 도봉서원의 옛 터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혜거국사의 비석 파편을 통해 도봉산 ‘영국사(寧國寺)’의 존재가 명확해지면서, 중심 건물지로 추정되는 제5호 건물지의 기단 아래에서 출토된 총67건 79점 중 청동유개호(靑銅有蓋壺) 1건 2점, 청동항(靑銅缸) 1건에 들어 있던 퇴장유물(退藏遺物) 또는 진단구(鎭壇具)로 추정되는 금강저 1건, 금강령 1건 2점, 둘째 공양구로서 명문이 있는 현향로(懸香爐) 1건 3점, 향합(香盒) 1건 2점, 향시(香匙) 3건, 대부완(臺附盥) 1건의 10건이다.

첫째, 유물 중 현향로, 향합, 향시, 대부완 등의 명문을 통해 유물의 사용처와 사용 방식, 중량, 제작 시기, 시주자 등에 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릇의 굽 다리에 새겨진 ‘雞林公施’는 1077년에서 1095년 사이에 내려준 ‘계림공’의 작위명을 통해 고려 숙종이 기물을 시주했다고 여겨져 본 유물이 고려 왕실의 후원을 받았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평가된다.

둘째, 본 유물들 10건 10점은 출토지가 확실하고 영국사에서 사용하였다가 퇴장된 유물로서 일괄 매납되었다가 발견되었는데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기물의 용도나 의례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 학술적인 의미도 자못 크다.

셋째, 불교 의식구인 금강저와 금강령이 완형의 세트로 발견되었는데, 주조기술이 정밀하고 세부 조형도 탁월하여 조형예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더욱이 금강령에 탁설이나 사리공의 존재는 국내 유일한 사례이고, 금강령의 몸체 상단의 오대명왕과 하단의 범천과 제석천 및 사천왕 등 11존상의 배치 또한 그동안 보기 드문 희귀한 사례로서 우리나라 밀교 법구에 대한 연구에도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영국사지 출토된 10건 10점의 불교의식구는 도봉산 영국사라는 출토지가 분명하고, 고려시대 왕실 관련 밀교 법구로서 원형을 갖고 있으며, 금강령에 조각된 11존상의 조형예술적 특성도 우수하여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 (지정 가치 있음)

영국사지 출토 공예품은 도봉서원의 옛 터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수습되었다. 또한 도봉산 영국사의 존재와 위상에 대해서는 추후 발견된 혜거국사 비석 파편을 통해 좀 더 명확하게 파악되었다. 따라서 유물의 출토지가 분명하고 관련 사찰의 내력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첫 번째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음은 출토된 정황으로 볼 때, 퇴장유물로 볼 수 있는 점이다. 퇴장유물은 특별한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매납한 유물이다. 대체로 일괄품으로 발견되고 보존 상태도 양호하여, 기물의 용도와 성격, 의례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국내에서 발견되는 퇴장유물이나 유구가 점차 증가하면서, 이에 관한 학계의 관심이 크고 향후 연구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세 번째로 주목할 것은 영국사지 출토품 가운데 명문이 있는 기물이다. 현향로, 향합, 향시, 대부완 등에서 명문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유물의 사용처와 사용 방식, 중량, 제작 시기, 시주자 등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였다. 특히 굽다리 그릇에 전하는 “雞林公施”를 통해, 후원자가 고려 숙종임을 알 수 있었고 계림공의 작위에 따라 1077년에서 1095년 사이에 기물을 시주한 정황도 확인되었다. 왕실의 주요 인물이 후원한 점에서 영국사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고 기물의 제작 시기를 추정하는 자료로 평가된다.

다음은 불교 의식구로 금강저과 금강령을 주목할 수 있다. 금동제 금강저와 금강령이 국내에서 세트로 발견된 예는 많지 않다. 두 유물은 완형을 갖추고 있으며, 정밀하게 구조되었고 세부 조형도 우수하게 제작되었다. 금강령은 정교하게 만든 탁설도 함께 발견되어, 우리나라 탁설의 형태를 복원하고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또한 금강령에는 사리를 매납했던 사리공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밝혀진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금강령의 몸체에 표현된 오대명왕과 사천왕, 범천, 제석천 등 11존상의 구성과 배치는 중국이나 일본의 유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도상의 특징이다. 우리나라 밀교 법구의 수용과 변용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불교 공양구로 세트화된 기물의 특징을 고찰할 수 있는 점이다. 출토품 중에는 향, 물, 음식 등을 공양할 때 사용하는 여러 종류의 공양구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향로와 향합, 향시 등이 함께 발견된 것은 주목된다. 향을 담아 보관하고 향을 옮겨 분향하는, 일련의 불교 의례에서 사용한 기물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영국사지 출토 불교 공예품의 중요한 의미와 특징을 볼 때,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 가치와 근거는 충족된다고 판단된다. 한편, 유물이 출토된 배경과 정황을 고려하면 특정 기물보다는 일괄품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금강저와 금강령의 중요성, 현향로, 향합, 향시, 대부완 등 명문 유물이 지니는 의의, 퇴장유물의 성격을 반영하는 청동유개호와 청동항은 상호 보완되고 연결되어 있다. 다만 불교 의식구와 공양구가 동반되어, 지정 명칭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비슷한 사례로 보물 제2022호 <군위 인각사 출토 공양구 일괄>을 참고할 수 있는데, 의식구와 공양구가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 점이 쉽지 않은 부분이다. 따라서 <서울 영국사지 출토 의식구와 공양구 일괄> 또는 <서울 영국

사지 출토 불교 의례품 일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유물이 출토된 영국사지는 고려시대 국사를 지낸 혜거가 하안소로 삼았던 곳으로, 이후 고려 광종대 3대 부동사원으로 지명되어 천태종의 중요한 사찰이 되었다. 청동 유물이 정확히 언제 매장(퇴장)되었는지 알 없으나 유물의 시기가 대체로 고려 후기로 내려가지 않는 것으로 볼 때 몽고병란 시점으로, 사찰도 전란의 화를 면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퇴락되었던 사찰은 조선 전기 효령대군 등 조선왕실의 주도아래 다시금 중창하게 되는 사찰이다. 그것도 잠시 이 유서 깊은 사찰 자리에 기묘사림의 영수인 조광조를 기리기 위해 사찰을 철폐하고 도봉서원이 들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으나 그 마저도 대원군의 서원철폐로 훼손된, 한마디로 굴곡의 역사가 중첩되어 있는 유적이다. 이런 곳에서 창건 이래 가장 번성했을 때 역사적 사실과 수수께끼를 담은 금속공예구가 큰 손상 없이 전문 발굴 조사기관의 발굴을 통해 매납 당시의 형태를 고스란히 유지하며 고고학적 교란 없이 발굴되었다는 점에서 탁월한 고고학적, 미술사적, 역사적 가치를 가진다.

영국사지에서 출토된 금속공예품은 고려시대 금속공예의 기술적, 예술적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오대명왕이 조각된 금강령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작품으로서 중요하다. 금강저 역시 형태적으로 완벽하게 보존되고 있어, 화려했던 고려금속 공예의 수준을 가늠하는데 기준을 삼을 수 있는 유물이다. 사찰명이 들어 있는 현향로는 영국사에서 도봉사로 사찰명의 변천과정을 더듬는데 매우 의미있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용도와 사용처를 분명히 기록한 향합, 왕실 유력자의 시주한 굽다리 완 등은 영국사지 의식·공양구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귀중한 정보를 제공한다.

영국사지 출토 금강령은 오대명왕, 제석·범천, 사천왕 등 모두 11구의 존상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러한 도상 표현은 지금까지 동아시아에서 지역에서 발견된 금강령 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사례이다. 금강령의 뛰어난 세부 표현과 기품 있는 조형감각,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도상과 배치는 우리나라를 뛰어넘어 국제적 작품성을 지닌 최고의 작품이다. 문양과 조각의 깊이, 탁월한 표현력, 동아시아 불교도상에서 유례가 없는 오대명왕과 제석·범천, 사천왕상과의 조합 등에서 고려시대 높은 수준의 금속공예의 수준과 불교신앙의 다양한 면모도 함께 볼 수 있다. 계림공 시주로 판단되는 향합을 통해, 이곳에서 발견된 대부분의 의식공양구들은 왕실 등 고려시대 유력자들에 발원 제작된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곧 고려 최고의 금속공예 장인의 참여로 연결되었을 것이다. 영국사지는 고려 전기 국사를 지낸 혜거의 주석과 고려 광종대 3대 부동사원으로 지정될 만큼 사격이 높았다. 그런

연유로 문종의 셋째 아들인 계림공이 직접 공양구를 시주한 사실은 당연해 보이며, 이들 의식공양구들이 고려 왕실과의 밀접한 관계를 묵묵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도봉사명이 새겨진 현향로는 구름모양의 걸이가 멋스러운 향로로, 고려시대 사람들의 공예기술은 물론 미적 감각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이러한 현향로는 주로 고려 전기에 11~12세기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계림공’이 새겨진 굽다리 그릇과 함께 고려시대 금속공예의 편년 설정에 기준이 되는 자료로서 크게 주목해야 한다.

청동 유개호와 동이는 영국사지에서 일괄 출토된 금속유물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금속공예사적 의의가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퇴장 시 다른 금속 유물들을 담거나 포장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데 학술적 가치가 더해진다. 이는 고려시대 퇴장의식과 형식을 연구하는데도 귀중한 학술적 사료가 된다.

따라서 영국사지 출토 공양의식구는 고려시대 수준 높은 금속 공예기법과 불교의례와 공양의식에 사용했던 다종다형의 금속기들을 일괄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불교공예사적, 불교의례사적 의의와 더불어, 전란 같은 긴급 상황을 맞이하여 행해졌던 중요 의식공양구들의 퇴장의식의 일면을 또렷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다량으로 출토된 금속유물 중 예술적, 공예사적으로 우수한 금강령과 금강저를 비롯하여, 명문을 통해 사용처와 용도, 시주자를 분명히 알 수 있는 현향로, 청동향합, 청동굽다리 완, 손가락과 이들의 최종적으로 포장한 청동향아리와 청동동이는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보물로 지정 예고함.

조사보고서



○ 유물의 출토 현황

2012년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시 기념물 제28호인 도봉구에 소재하고 있는 도봉서원(道峯書院) 부지를 발굴하였다. 도봉서원은 이이(1536-1584)의 『율곡전서』와 김정호(미상-1866)의 『대동지지』 등의 문헌을 보면 1573년(선조6)에 양주 목

사로 부임한 남언경(南彦經)이 사림의 영수인 조광조(趙光祖, 1482-1519)를 기리기 위해 영국사(寧國寺)라는 옛 절터에 서원을 건립하고, 이듬해에 사액을 받았다. 1696년부터는 송시열(宋時烈)을 추가 배향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300여 년간 유지되어오다 1871년(고종8)에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따라 훼손되었다. 대한제국 기인 1903년에 다시 제단이 만들어졌고, 1970년대에 3칸 정도 되는 사우(祠宇)와 3개의 문을 복원하고, 조광조와 송시열(宋時烈)의 위패를 봉안하고 제향을 지내왔다. 2009년에 ‘도봉서원과 각석군’이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28호로 지정되면서 2011년부터 원형 복원사업이 시작되었다. 발굴 당시 도봉서원의 핵심건물터이자 사찰의 금당지인 정면 3칸, 측면 3칸 이상으로 추정되는 방형 건물지 기단에서 자기, 도기, 비석과편, 철기, 청동기 등이 출토되었다. 중심 건물지로 추정되는 제5호 건물지의 기단 아래에서 퇴장유물(退藏遺物) 또는 진단구(鎭壇具)로 추정되는 청동제 향로와 향완, 향합, 각종 그릇 등과 함께 금동제 금강저(金剛杵)와 금강령(金剛鈴)을 포함하여 고려시대 금속공예품 총67건 79점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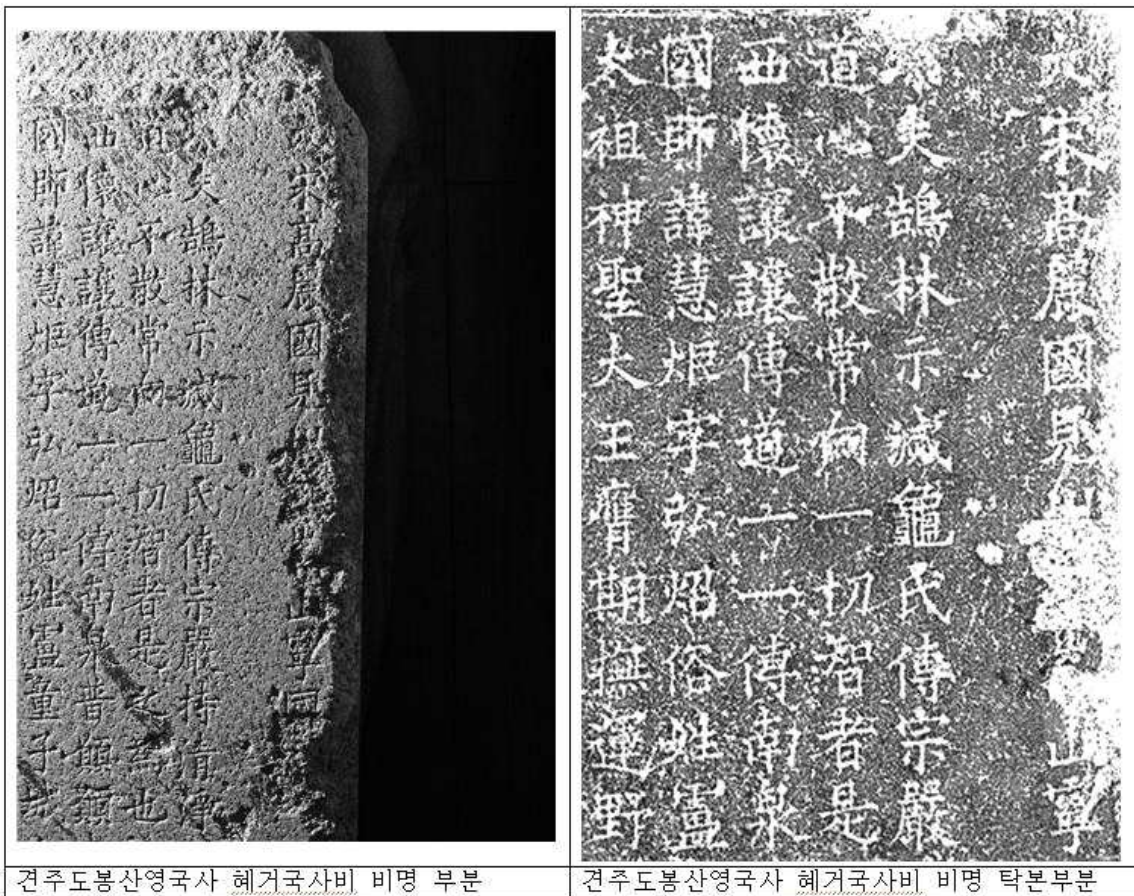
도봉서원 발굴 모습, 2011년

발굴현장



2012년 발굴된 고려시대 금속공예품 총67건 79점

2017년,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기존에 조사한 층의 하부에 대한 추가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추가발굴 과정에서 고려 초기 고승 혜거국사(慧炬國師) 홍소(弘韶, 899-974)의 비석(碑石) 파편이 발견되었다. 그동안 <영국사 혜거국사비>의 탁본은 일부만 전해져 『대동금석서(大東金石書)』(1688)에 수록되어 왔지만, 이를 통해 비석의 소재지와 혜거국사에 대해 명확히 알려주는 유물이다. 이 발굴조사를 통해 탁본에 없던 내용이 비편의 출토로 확인되어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었다. 즉 비문의 내용 중 ‘견주도봉산영국사’(見州道峯山寧國寺)라는 명문이 판독됨에 따라 이 지역이 ‘도봉산 영국사(寧國寺)’의 터였음이 밝혀진 것이 큰 소득이다. 영국사는 본래 혜거의 스승인 신정선사가 머물다가 광종 때 국사인 혜거가 와서 활약한 고찰(古刹)로 알려져 있는데, 『고려사』에 따르면 혜거는 968년에 국사가 되어 974년 입적하였으므로, 영국사는 그 이전부터 운영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고려시대 건물지의 하층에서 통일신라시대 기와와 건물 기단이 드러나서 영국사의 창건연대가 통일신라로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영국사는 『조선왕조실록』에도 중건 기록이 전할 정도로 조선 초까지 건재했으나 이후 유림들에 의해 사찰이 폐사되고 서원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견주도봉산영국사 혜거국사비 비명 부분

견주도봉산영국사 혜거국사비 비명 탁본부분

그런데 청동유물에 기록된 도봉사와 혜거국사비편에 새겨진 영국사는 선후관계가 명확치 않지만 영국사로 추정되는 금당지 기단 정지층에 매납된 점을 고려하면 영국사 이전부터 도봉사가 존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혜거국사비가 출토된 영국사와 도봉사가 같은 사찰일 가능성이 크며, 도봉사가 영국사의 전신이 아닐까 추정된다.

출토유물의 편년은 숙종(肅宗)이 ‘계림궁’에 봉해졌던 1077년부터 즉위 전인 1095년 사이가 하한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일괄로 매납한 점과 알려진 고려시대 불구들의 기형 및 양식을 비교하면 11-12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이 유물들은 전형적인 고려전기 양식을 보이고 있어 이 지역에서 불교가 매우 번성하였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 유물들은 출토 이후 서울시로 귀속, 임시 보관되어 오다가 2020년과 2021년 조사 현재 한성백제박물관으로 관리 위임되어 보관되어 있는 상태이다.



도봉산 영국사지 청동향아리 출토 당시

제5호 건물지 청동세와 청동유개호 출토당시

○ 내용 및 특징

영국사지 출토품은 두 점의 청동 향아리[靑銅有蓋壺] 안에 담겨 있었고 그 위에 뚜껑처럼 청동세(靑銅洗)가 덮여진 후 거적으로 감싼 상태로 출토되어 기단 정지층(整地層)을 조성하며 매납된 67건 79점이다. 영국사지 출토품은 금동금강저 1점, 금동금강령 1건 2점(舌 포함), 청동유개호 1건 2점(뚜껑 포함), 청동향완 10점, 청동향완 받침 1점, 청동발 18점, 청동세 2점, 청동현향로 1건 2점(뚜껑 포함), 청동삼족형 향로 1점, 청동합 3건 6점(각 뚜껑 포함), 청동발우 25점, 청동숟가락 3점, 청동수각(獸角)향로 1점이다. 이들은 청동향로와 청동현향로의 표면에 ‘道峯寺’라는 사찰명을 새긴 것으로 보아 도봉사에서 사용하던 불교 의식구 일괄로 생각된다. 이들 67건 79점 중 조사 대상은 10건이다. 첫째 의식구인 금강저 1건, 금강령 1건 2점, 둘째 공양구로서 명문이 있는 현향로(懸香爐) 1건 3점, 향합(香盒) 1건 2점, 향시(香匙) 3건, 대부완(臺附盥) 1건, 셋째 이들 유물이 담긴 채 출토되어 매납 상황을 알려주는 청동유개호(靑銅有蓋壺) 1건 2점, 청동향(靑銅缸) 1건이다.



청동유개호 뚜껑 분리 상태

금강령, 금강저 등 유물 수습 상태

1) 금동금강저와 금동금강령

영국사지 출토품 가운데 청동유개호 안에서 함께 수습된 77점의 유물 중 주목되는 것은 청동 위에 도금한 금동제 금강저와 금강령이다. 출토 당시 흙과 동 부식물, 녹이 표면에 두껍게 덮여 있었으나 이물질 제거하고 세척, 건조시킨 후 부식억제제를 침투 등 보존처리를 실시한 상태이다.

금강저와 금강령은 원래 인도에서 무기였던 것이 밀교 의례에서 주로 사용하던 의식구로서, 중국 당 8세기 무렵부터 유행하였으며 당대 유물이 일본에도 전해져 여러 점이 남아있다. 우리나라에 금강령과 금강저가 한 세트 출토된 사례는 그다지 많지 않아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본리와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남성리에서 출토된 유물이 있지만 모두 청동제이다.

영국사지 출토 금강저와 금강령 두 유물은 청동으로 정밀주조하고 조금기법(彫金技法)으로 문양을 새긴 후에, 수은아말감기법으로 도금하였다. 금강저와 금강령은 고부(鉤部)의 갈고리가 5개로 구성된 오고저(五鉤杵)와 오고령(五鉤鈴)의 형식이다. 유물의 크기와 형식, 제작기법 등이 비슷하여, 세트로 만들어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금강령은 물고기 형상의 탁설(鐸舌)도 함께 발견되었다. 탁설은 연결고리가 부식되면서, 몸체와 분리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석굴암에 금강저가 조각되어 있지만 아직 통일신라 유물은 없다. 주로 고려시대부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밀교의식법구의 수량과 종류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한정적이어서 영국사지 출토 금강저와 금강령이 대표적이다.



(1) 금동금강저

금강저는 손잡이인 중앙의 파부(把部)와 양 끝단에 창끝처럼 생긴 고부(鉤部)로 구성된다. 고부의 수에 따라 독고저(獨鉤杵), 삼고저(三鉤杵), 오고저(五鉤杵), 구고저(九鉤杵) 등으로 구분한다. 금강저는 번개 모양을 형상화한 무기로, 불교에서는 마음의 번뇌와 망상을 없애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주로 제석천(帝釋天)이나 집금강신(執金剛神)의 지물(持物)로 나타난다.

영국사지 출토 금강저는 양쪽에 5개의 고(鉤)를 갖춘 완형이며, 전체 길이는 17.5cm, 손잡이의 길이는 7.17cm, 양쪽 고부의 길이는 각각 4.86cm, 4.97cm이다. 공반 출토된 금강령에 비해 크기가 조금 작지만 고부의 구조와 형태는 거의 같다. 고부의 중앙에 해당되는 중고는 독고저(獨鉤杵)의 형태로 중간에 예리한 마디가 있고 용의 입에서 뺀어 나온 4개의 협고(脇鉤)와 서로 맞대고 있다. 번개를 형상화한 날카로운 4개의 협고의 끝은 중고를 향해 오므라든 모습이다. 고의 표면에는 가는 음각선이 새겨져 있고, 손잡이에는 가운데 마디 모양의 귀목(鬼目)을 중심으로 위, 아래에 끝으로 묶인 6엽 연판대가 대칭을 이룬다. 영국사지 출토 금동오고저는 원래 무기로서의 상징적인 예리함이 그대로 남아 있을 뿐 아니라 세련된 조형미를 갖추고 있어 고려 초기에 금강령과 함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2) 금동금강령

금강령은 종모양의 령부(鈴部)와 손잡이인 파부(把部), 그리고 고부(鉤部)로 구성되고 령부 안쪽에는 소리를 낼 수 있는 탁설(鐸舌)이 있다. 금강저와 마찬가지로 고의 수에 따라 형식을 분류하며, 우리나라는 삼고령과 오고령이 알려져 있다. 영국사지 출토 금동금강령은 금강저와 마찬가지로 보수 흔적이 없이 완형이며, 금강저에 비하면 약간 크기가 크다. 금강령은 전체 높이는 19.5cm, 령부의 높이는

8.16cm, 지름은 5.36cm, 손잡이의 높이는 6.24cm, 고부의 높이는 4.92cm, 금강령의 무게는 621.8g이다.

종의 내부에 달렸던 탁설(鐸舌)의 길이는 7.0cm, 너비는 2.6cm, 탁설의 무게는 72.0g이다. 탁설은 보주를 문 물고기 모양이며, 눈과 아가미와 비늘 및 지느러미 등이 자세하게 새겨져 있다. 종과 연결하는 탁설의 고리는 철제로 만들었는데 부식되면서 종에서 떨어진 상태이다. 이와 같은 물고기 모양 탁설은 청주 사뇌사지 출토 금강령이나 미국 보스턴미술관 소장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영국사지 출토 금강령의 탁설은 보주를 물고 있는 물고기의 모습인데 반해 나머지 기출토된 탁설 유물은 물고기 머리[魚頭]만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어 비교된다.

강령은 고부와 파부 및 령부로 구분된다. 첫째, 고부는 금강저와 비슷하다. 종고를 향하여 용의 입에서 4개의 헝고가 뺀어 나와 맞댄 형상이다. 특히 오고(五鈷) 사이에는 작은 구멍이 마련되어 있어 사리(舍利)를 납입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사리 장치는 보이지 않고 구멍만 남았지만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 금강령에서 사리공(舍利孔)이 발견된 예가 있어 우리나라 금강령 중 유일한 예로서 자료적 가치가 크다.

둘째, 파부도 금강저와 비슷하다. 손잡이의 가운데 부분에는 마디 모양의 귀목(鬼目)을 중심으로 위아래에 끝으로 묶인 연판대가 대칭을 이루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형식의 귀목은 변형된 형태로 고려시대 금강령에 많이 볼 수 있어 양식적으로 친연성이 있다.

셋째, 영부는 종모양으로 되어 있다. 령신은 상단의 어깨부분에는 복련대를 두르고 오릉형(五陵形)의 구연부를 따라 다섯 면으로 나뉘어진다. 복련은 입체적이고, 연판 안에는 여의두문이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다. 령부의 다섯 면은 각각 상하 2단으로 구성된다. 상단은 오대명왕상이, 하단에는 1면에 범천과 제석천이, 그 나머지 4면에는 사천왕상이 배치된다. 즉 상단 5존(尊), 하단 6존(尊)의 총11존상이 고부조로 조각되어 있다. 오대명왕의 경우 중앙에는 정면관의 부동명왕(不動明王)을 중심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남방 군다리명왕(軍荼利明王), 동방 향삼세명왕(降三世明王), 서방 대위덕명왕(大威德明王), 북방 금강야차명왕(金剛夜叉明王, 烏菟沙摩) 등의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도상은 초기 밀교 경전의 오대명왕 도상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다.

			
中央 不動明王 (大日如來)	南方 軍荼利明王 (寶生如來)	東方 降三世明王 (阿闍如來)	西方 大威德明王 (無量壽如來)
			
東方 提頭賴吒天王 (持國天王)	梵天・帝釋天	南方 毗摩博叉天王 (增長天王)	西方 太聖毘沙門天王 (多聞天王)

- ① 중앙의 부동명왕은 대일여래(大日如來)의 뜻을 받들어 오른손에 칼을 세우고 왼손에는 견삭(絹索, 밧줄)을 쥐고서 두 눈을 부릅뜨고 왼쪽을 향한 채 용이 받치고 있는 연화좌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다. 두발(頭髮) 모양은 다른 명왕상과는 달리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왼쪽 어깨 위에 늘어뜨린 것이 특징적이다. 일체 악마를 항복시키기 위해 분노한 무서운 형상으로써 악마나 도리를 모르는 중생을 교화시키기 위함이다.
- ② 남방 군다리명왕상은 보생여래(寶生如來)의 뜻을 받드는 1면삼목8비상(一面三目八臂像)으로 한쪽 무릎을 살짝 세우고 용 위에 놓인 대좌에 앉아 있는 모습이다. 두 손은 가슴 앞에서 교차하여 근본인(根本印)을 짓고, 좌우 6개의 손에는 삼고저, 도끼, 금륜, 밧줄 등을 지물로 쥐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 ③ 동방 향삼세명왕상은 아촉여래(阿闍如來)의 뜻을 받들며 3면8비상(三面八臂像)으로 용 위의 연화좌에 앉아 있다. 두 손은 가슴께에서 당심(當心)을 결하고(二手結印當心), 나머지 6개의 손은 칼, 도끼, 활, 화살, 독고저, 새끼줄을 쥐고 있다.
- ④ 서방 대위덕명왕상은 무량수여래(無量壽如來) 뜻을 받드는데, 힌두신에 항상 따라다니는 물소 위에 앉아 있는 6면6비6족(六面六臂六足)의 형상으로 표현되었다. 특히 이 명왕은 특이하게 용이 물소와 교차되어 5명왕 모두 용이 배치된 점은 이 금강령에서만 보이는 특징이다. 3개씩 2단으로 구성된 6개의 얼굴 중 정면에는 눈이 3개 있으며, 좌우 손에는 모두 지물을 들고 있는데 삼지창(三叉戟), 밧줄, 활, 화살, 검, 봉(棒)으로 보인다.

⑤ 북방 금강야차명왕은 불공성취여래(不空成就如來)의 뜻을 받들며, 오추사마명왕이라고도 부른다. 1면삼목4비상(一面三目四臂像)으로 위로 치솟은 화염형 머리 카락으로 인하여 가장 생동감이 있다. 지물로는 오른손(上右手)에 삼고저(三鈷杵)와 손을 밖으로 뻗고 있고(下右手), 왼손은 밧줄과 가슴께에 염주를 들고 있다. 이 오추사마명왕상은 주로 금강야차 대신에 배치하는 존상으로 서로 같은 성격을 가진 상으로 불교도상집인 『별존잡기(別尊雜記)』(『新修大藏經-圖像』 제3권)의 도상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형적인 밀교도상인 오대명왕이 고려시대 불교공예품에 수용된 경우이며, 경기도 파주 사면석불에 음각된 경우를 보면 비록 중앙의 대일여래는 생략되었으나 동방 아촉여래, 남방 보생여래, 서방 아미타여래, 북방 불공성취여래와 같이 금강계(金剛系) 도상과 함께 고려 전기에 밀교 신앙이 유행했음을 알려 주는 증거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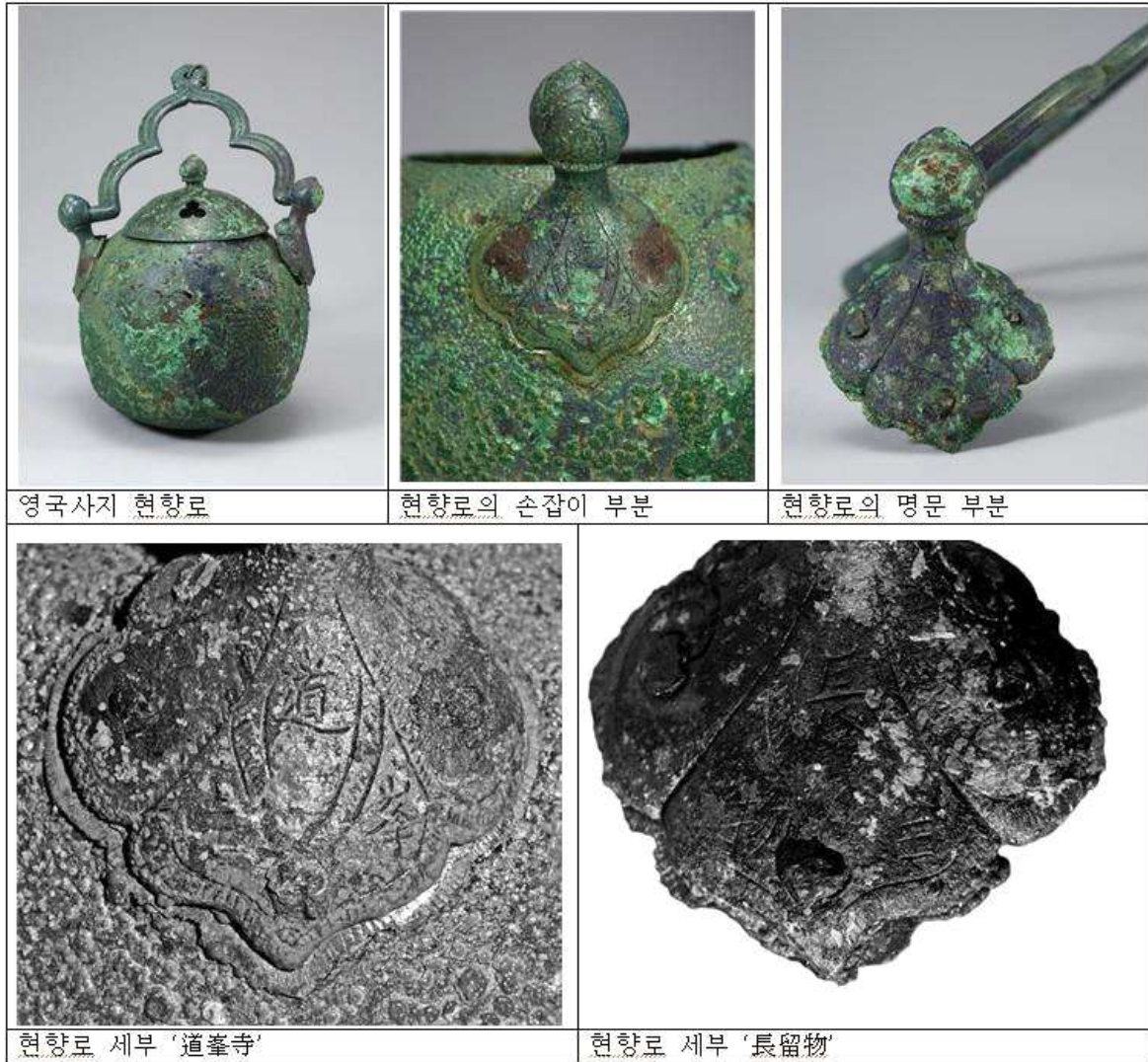
⑥ 오대명왕상 아래 한 면에는 불자(拂子)를 든 범천(梵天)과 금강저를 쥐고 있는 제석천(帝釋天)이 함께 배치되어 있고, 네 면에는 사천왕상이 각각 조각되어 있다. 사천왕상의 경우는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은 무장형의 모습으로 발아래에는 악귀가 표현된 것이 공통된 특징이다. 그중 탑을 든 북방 다문천상만 확인될 뿐, 그 외는 지물로 칼, 활, 화살을 들고 있다.

중앙 부동명왕 아래에 오른 손으로 검을 쥐고 왼손으로 칼끝을 받쳐 든 천왕은 동방 제두돈타천왕(提頭頓吒天王: 持國天)이다. 다음은 남방 군다리명왕 아래에는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으로 불자를 든 범천과 오른손으로 금강저를 든 제석천이 배치되었는데, 통일신라 석굴암(751)에 조각된 범천과 제석천의 도상과 일치한다. 동방 향삼세명왕 아래에는 두 손으로 검을 옆으로 잡고 있는 남방 비루박차천왕(毗婁博叉天王: 增長天)이, 서방 대위덕명왕 아래에는 오른 손으로 창을 들고 왼손으로 탑을 받쳐 든 북방 대성비사문천왕(大聖毘沙門天王: 多聞天)이 배치되었다. 북방 오추사마명왕 아래에는 오른 손으로 화살을 쥐고 왼손에 활을 든 서방 비루룩차천왕(毗婁勒叉天王: 廣目天)이 배치되었다.

이를 통해 11존의 배치방향을 보면 5대명왕은 중앙→남→동→서→북, 사천왕은 동→범천과 제석천→남→북→서 순서임을 알 수 있다. 밀교에서는 불, 보살, 명왕의 삼부존이라 하며 부처를 자성윤신(自性輪身), 보살을 정법윤신(正法輪身), 명왕을 교령윤신(敎令輪身)이라 본다. 이 밀교의 삼부존에 해당되는 11존의 도상은 국내 뿐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의 금강령 유물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유일한 사례가 유존하는 것으로서 그 의미가 자못 크다.

2) 출토품 중 명문이 있는 유물: 현향로, 향합, 향시, 대부완

영국사지 출토 유물처럼 큰 그릇에 여러 점의 작은 법구를 함께 넣어 발견된 경우는 1993년 청주 사뇌사지에서 발굴된 청동호 내부에 청동기명 40여 점을 일괄 매납한 것과 2003년 창녕 말흘리 유적에서 쇠술 안에 용구를 넣고 향로로 덮은 유물이 출토된 점과 유사하다.



(1) 현향로(懸香爐)

고려시대는 여러 형식의 향로가 제작된다. 원통형의 몸체에 나팔 모양의 받침을 가진 향완(香垸), 손잡이가 달아 들고 다니며 사용하는 병향로(柄香爐), 공중에 매달아 쓰는 현향로가 그것이다. 영국사지 출토 유물에는 11점의 향완과 1점의 현향로가 발견되었다. 현향로는 청주 사뇌사지와 원주 법천사지 등에서도 출토되었다. 영국사지의 현향로는 세로로 긴 타원형의 몸체에 뚜껑이 있으며,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손잡이로 구성된다. 뚜껑에는 향연(香煙)이 나가는 구멍이 세 개 있는데, 세잎무늬로 정연하게 투각되어 있다. 뚜껑의 꼭지도 연봉형으로 아름답게 표현하

였다. 손잡이는 몸체에서 분리된 채 출토되었으며, 윗부분은 어딘가에 매달 수 있는 작은 고리가 남아있고 양쪽 끝은 연봉형으로 만들었다. 연봉형 장식아래로 얇은 판을 이중으로 덧대어 몸체와 연결했던 것으로 보이며, 세 개의 못으로 부착하였다. 양쪽의 얇은 판 위에는 각각 “道峯寺”, “長留物”이라는 명문이 있다. 현향로가 도봉산에서 사용되었고 오래도록 지니고 있었던 물품인 것을 알 수 있다.



(2) 향합(香盒) 3점

영국사지 출토 향합은 모두 세 점이다. 기본적으로 외형은 원형이지만 세부 특징은 약간씩 차이를 보인다.

크기가 가장 큰 향합은 높이 14.7cm, 뚜껑 지름 17.8cm이다. 향합의 몸체와 뚜껑은 각이 진 모습이며 몸체에는 바닥에 굽이 있으며 형태는 균형감이 있다. 주조기법으로 두께는 얇게 만들었는데, 전체적으로 산화가 진행되어 표면에 녹이 생긴 상태이다. 뚜껑에는 “道奉寺金堂左香合一口入重二十六兩持存皿一行○○○知堂○○信○○○○”이라는 내용의 명문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어, 이 향합이 ‘도봉사’의 ‘금당’에서 사용하기 위해 ‘무게 26냥’으로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2) 청동제 숟가락 3점

청동제 숟가락은 향합과 마찬가지로 3점이다. 향합과 함께 출토되어 향을 올릴 때 사용하는 의례용 수저[香匙]로 여겨진다. 3점의 숟가락은 크기와 무게가 비슷하며, 제작기법은 두드려서 만드는 단조(鍛造)로 제작되었다. 세 점의 숟가락은 일반적

인 손가락과 긴 타원형의 술은 일치하지만, 손잡이의 끝이 부채꼴처럼 펼쳐진 모양은 두드러진 특징이다. 향로나 향합과 함께 출토된 점으로 볼 때, 손가락은 불교 의례용으로 사용한 향시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 손가락 가운데 한 점에는 ‘捌兩’으로 추정되는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표면의 녹으로 인해 명확하지 않은 편이다.



(3) 대부완(臺附盃) 1점

대부완은 굽다리가 달린 그릇이며, 전체적으로 둥근 몸체에 굽이 달려 있고 구연부 부분인 살짝 외반되어 있다. 영국사지에서는 청동 유개호와 청동 향아리 속에 나누어 담겨 출토된 그릇 중에는 이것과 크기와 외형이 유사한 굽다리 그릇이 모두 17점이다. 이 그릇들은 별다른 장식이 없는데, 구연부 바깥에 정으로 쪼아서 “雞林公施”라는 명문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어 이를 통해 “계림공이 시주하였다”는 내용이다. 『고려사』에 따르면 고려 제15대 국왕인 숙종(肅宗, 1054-1105)은, 문종(文宗, 재위 1046-1083)의 셋째 아들이자 1077년 계림공으로 봉해졌다. 이후 조카인 헌종(獻宗, 재위 1094-1095)에 이어 1095년에 왕위에 오르게 된다. 이처럼 ‘계림공’이라는 명문에 의해 1077년에서 1095년 사이 왕자였던 숙종이 시주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 유물은 출토품 중 시주자가 확인된 유일한 사례로서 제작시기와 왕실 인물의 후원을 추정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

(4) 청동 뚜껑 달린 호[靑銅有蓋壺]와 청동향아리[靑銅缸]

청동유개호는 몸체와 뚜껑으로 구성되고 굽이 달렸으며, 몸체 어깨 부분 양쪽에는 손잡이인 고리가 있고 동물 머리모양 장식으로 고정되어 있다. 발굴 당시, 향아리 안에 금강령, 금강저, 향완, 굽다리 그릇 등이 들어 있는 채로 출토되었다. 구연부가 넓은 청동향은 뚜껑은 없고 몸체 양쪽에는 유개호와 마찬가지로 고리가 달려 있다. 청동 동이 안에도 향완과 굽다리 그릇, 손가락 등 다수의 기물이 담겨 있는

채로 수습되어, 유물의 매납에 관한 당시 정황을 파악할 수 있다.

영국사지 출토품 중 향아리 2점은 크기가 크고 나머지 기물을 모두 담아 매납용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 점은 뚜껑이 달려 있고, 다른 한 점은 뚜껑이 없는 상태이다. 두 점 다 양쪽 어깨에 동물머리형 귀를 별도로 주조해서 못으로 박고, 귀에는 둥근 철제 고리가 달린 모습이다.



① 청동유개호

청동유개호는 높이 44.3cm, 구연부 직경 17.5cm, 굽 직경 21.5cm이다. 형태는 긴 원통형 몸체에 높은 굽이 달리고 연봉형 꼭지가 있는 뚜껑이 있다. 몸체의 어깨, 중앙, 바닥 부근 표면에는 음각의 횡침선(橫針線)이 보인다. 어깨에 부착된 동물머리형 장식은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손잡이형 고리가 달려있다. 이와 비슷한 유물은 경상북도 청도 운문사와 경상남도 합천 영암사지의 것이나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雲奉寺傳來’가 새겨진 향아리>이 있다.



영국사지 출토 청동항아리

청동항아리의 동물형 손잡이와 철제 고리

② 청동항아리

청동항아리는 높이 27.0cm, 구연부 너비 38.5cm, 굽 너비 25.7cm이다. 형태는 구연부가 넓고 뚜껑이 없는 기형이다. 어깨에 부착된 동물 머리형 장식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입도 벌린 모습이다. 몸체와 귀는 청동제이고, 철제 고리는 부식된 상태이다. 몸체 아래에 낮은 굽이 있고 구멍이 3개가 뚫려 있다.

○ 양식적 특징

발굴 당시, 청동 유개호에 뚜껑처럼 청동세(靑銅洗)가 덮여진 후 거적으로 감싼 상태로 출토되었다. 청동유개호 안에서는 금강령, 금강저, 향완, 굽다리 그릇 등이 담겨 있었고 청동항아리 안에서는 향완이나 향시, 굽다리 그릇 등이 담겨 있었다. 이처럼 큰 기물 안에 작은 그릇을 넣어 매납한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통일신라시대 군위 인각사 출토 공양구 일괄품이나 말흘리사지 출토 유물, 고려시대 청주 사뇌사지 출토품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 향후 이 분야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례이자 유물이다.



영국사지 출토 금강령은 오대명왕상과 범석사천왕상의 11존상은 여러 면에서 독특하다. 상하 2단으로 조각된 형식인 점, 명왕은 모두 용 위에 앉아 있는 점에서 국내 유물이나 일본에 있는 당대 유물과 비교해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유일한 예이다. 부동명왕상을 제외하고는 모두 얼굴과 팔이 여러 개인 다면다비상(多面多臂像)으로 표현되었는데, 형태나 지물에서 도상적 특징을 갖추고 있어 각각의 존명을 추정할 수 있다.

국내에 현존하는 금강령은 가장 대표적인 송광사 금동요령을 비롯하여 12-13세기 작인 진주 남성리 출토 청동금강령, 국립경주박물관의 금동오고명왕령, 호림 소장 청동오고오명왕령, 사뇌사지 출토 청동금강령, 리움 소장 청동오고오대명왕령, 보스톤 뮤지엄 소장 금동오고사천왕령 등이 알려져 있다.

영신에서 분리된 채 발견된 탁설은 목어(木魚)처럼 보주(寶珠)를 물고 있는 입과 아가미, 지느러미, 비늘 등을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다. 꼬리부분에 원형의 구멍을 뚫고 동계 환(環)을 통과시킨 후 이 고리를 금강령 내부의 원형고리와 다시 연결하는 방법으로 결합했던 것이다. 물고기형 탁설은 청주 사뇌사지 출토 금강령이나 보스톤 뮤지엄 소장 금동오고사천왕령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나, 이 두 유

물의 탁설은 어두(魚頭)만 간략히 표현한 것이고 이처럼 보주를 물고 있는 입과 아가미, 지느러미와 비늘 등을 세밀하게 표현한 예는 극히 드물며, 보존상태 역시 완벽하다. 현재 우리나라 금강령 중 유일하게 국보로 지정돼 있는 송광사 금강령의 경우에도 탁설은 결실되어 있다.

○ 문헌자료

<명문 내용>

- 1) 현향로 몸체와 손잡이를 연결하는 부분 양쪽; “道峯寺”, “長留物”
- 2) 향합 뚜껑 ; “道奉寺金堂左香合一口入重二十六兩持存皿一行○○○知堂○○信○○○○”
- 3) 청동제 손가락 1점 자루 끝부분; “捌兩”
- 4) 대부완의 구연부 ; “雞林公施”

○ 기 타

발굴 이후 현재 한성백제박물관에 소장되어 보관되어 있다.

○ 참고문헌

도봉구·서울문화재연구원, 『道峯書院』, 2014.

박상명, 『한국 금강령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박찬문, 「서울 도봉서원 하층 영국사지 출토 금석문 자료 소개」, 『목간과 문자』 20, 2018.

이숙희, 「高麗時代 金剛鈴의 圖像的 研究」, 『미술사학연구』 186, 1990.

최응천, 「한국 불교 퇴장 유물의 성격과 영국사(도봉서원) 출토품의 특징」, 『강좌미술사』 52, 2019.

한성백제박물관, 『영국사와 도봉서원』 특별전, 2018.

한성백제박물관, 『천년 만에 빛을 본 寧國寺와 도봉서원』, 2018.

호림박물관, 『湖林博物館所藏 佛教美術名品展 - 慈悲와 莊嚴의 美』, 2002.

호암미술관, 『大高麗國寶展』, 1995.

□

○ 현 상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28호인 도봉서원(道峯書院)의 옛터가 지난 2012년에 발굴되었으며, 당시 제5호 건물지 기단에서 고려시대 금속공예품 67건 79점이 수습되었

다(도1). 이후 2017년,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기존 조사 층의 하부에 대한 추가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는 고려 초기 고승 혜거국사(慧炬國師, 899-974)의 비석(碑石) 파편이 발견되었다. <영국사 혜거국사비>의 탁본은 일부만 『대동금석서(大東金石書)』(1688)에 전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탁본에 없던 내용이 비편의 출토로 확인되어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었다. 이를 통해 도봉산 영국사는 혜거가 주석(駐錫)하며 활동한 사찰이며, 왕실의 후원 아래 불교계에서 유력하게 기능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영국사지 출토 유물은 대부분 두 점의 청동 향아리 안에 담겨 있었고 그 위에는 화로와 대야를 뒤집어 덮은 상태로 발견되었다(도2). 모두 67건 79점의 출토품 가운데, 금동제 금강저(金剛杵)와 금강령(金剛鈴)을 비롯한 중요 유물과 명문이 있는 현향로(懸香爐), 향합(香盒), 향시(香匙), 대부완(臺附盃), 그리고 유물이 담겨 있었던 청동유개호(靑銅有蓋壺)와 청동항(靑銅缸) 등을 포함하여 10건을 조사하였다(도3). 상세한 내역은 금강저 1건, 금강령 1건 2점, 현향로 1건 3점, 향합 1건 2점, 향시 3건, 대부완 1건, 청동유개호 1건 2점, 청동항 1건 등이다.

금강저와 금강령은 표면을 도금하였고 그 외의 출토품은 모두 청동제 유물이다. 두 유물은 청동으로 정밀주조하고 조금기법(彫金技法)으로 문양을 새긴 후에, 수은아말감기법으로 도금하였다. 금강저와 금강령은 고부(鈷部)의 갈고리가 5개로 구성된 오고저(五鈷杵)와 오고령(五鈷鈴)의 형식이다. 유물의 크기와 형식, 제작기법 등이 비슷하여, 세트로 만들어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금강령은 물고기 형상의 탁설(鐸舌)도 함께 발견되었다. 탁설은 연결 고리가 부식되면서, 몸체와 분리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현향로는 매달아 놓고 사용하는 향로의 일종이며, 타원형 몸체에 뚜껑이 있고 걸이가 연결되는 형태이다. 손잡이인 걸이 부분은 몸체에서 떨어진 상태로 남아 있다. 향로의 몸체와 손잡이를 연결하는 부분 양쪽에는 “道峯寺”, “長留物”이라는 명문이 확인된다. 향합은 몸체과 뚜껑으로 구성되고 몸체에는 굽이 있으며, 뚜껑에는 “道奉寺金堂左香合一口入重二十六兩持存皿一行…”라는 명문이 있다. 청동제 숟가락은 3점이 수습되었고 크기와 형태가 대체로 비슷하게 제작되었다. 그 가운데 한 점에서 명문이 보이는데, 자루 끝부분에 음각으로 새겼고 글자가 다소 불분명하지만 “捌兩”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청동제 숟가락은 향을 뜨는 향시(香匙)로 파악된다. 대부완은 청동제 굽다리 그릇으로, 구연부에 “雞林公施”라는 명문을 가지고 있다. 비슷한 형태의 굽다리 그릇은 모두 17점 출토되었는데, 명문은 한 점에서만 확인된다.

청동유개호는 몸체와 뚜껑으로 구성되고 굽이 달렸으며, 몸체 어깨 부분 양쪽에는 손잡이인 고리가 있고 동물 머리모양 장식으로 고정되어 있다. 발굴 당시, 향아리 안에 금강령, 금강저, 향완, 굽다리 그릇 등이 들어 있는 채로 출토되었다.

구연부가 넓은 청동항은 뚜껑은 없고 몸체 양쪽에는 유개호와 마찬가지로 고리가 달려 있다. 청동 동이 안에도 향완과 굽다리 그릇, 손가락 등 다수의 기물이 담겨 있는 채로 수습되어, 유물의 매납에 관한 당시 정황을 파악할 수 있다.

○ 내용 및 특징

영국사지 출토품 가운데 조사 대상인 10건의 유물은 성격과 특징에 따라,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의식구인 금강저와 금강령, 공양구이면서 명문이 있는 유물인 현향로, 향합, 향시, 대부완, 그리고 앞의 유물이 담긴 채로 출토되어 당시 매납 정황을 알려주는 청동유개호와 청동항 등의 항목이며, 각각의 내용과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① 금강저와 금강령

영국사지 출토품 가운데 우선 주목되는 유물은 금강저와 금강령이다(도4, 5). 영국사지 출토품 가운데 두 점만 금동제 유물이고 도금한 금강저와 금강령이 세트로 출토된 사례도 거의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강령과 금강저가 함께 출토된 경우로,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본리와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남성리 유물을 들 수 있지만 모두 청동으로 제작되었다.

금강저와 금강령은 인도의 무기에서 변화되었으며, 밀교 의례에서 사용하는 의식구로 자리하게 된다. 중국은 唐代 8세기 무렵부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석굴암의 제석천이 금강저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조각되었고 도리사 세존사리탑 금동 사리기에도 비슷한 도상을 찾아볼 수 있지만 통일신라의 유물은 아직 확인된 바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고려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유행한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금강저는 손잡이인 중앙의 파부(把部)와 양 끝단에 창끝처럼 생긴 고부(鈷部)로 구성된다. 고부의 수에 따라 독고저(獨鈷杵), 삼고저(三鈷杵), 오고저(五鈷杵), 구고저(九鈷杵) 등으로 구분한다. 금강저는 번개 모양을 형상화한 무기로, 불교에서는 마음의 번뇌와 망상을 없애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주로 제석천(帝釋天)이나 집금강신(執金剛神)의 지물(持物)로 나타난다.

영국사지 출토 금강저는 양쪽에 5개의 고(鈷)가 있으며, 완형을 갖추고 있다(도4). 전체 길이는 17.5cm, 손잡이 길이 7.17cm, 그리고 양쪽 고부 길이 각각 4.86cm, 4.97cm 크기로 조사되었다. 고부(鈷部)의 중심에 있는 중고(中鈷)는 끝이 뾰족하고 마디가 있으며, 사방으로 협고(脇鈷)가 자리하고 그 아래의 고부 받침은 용으로 생각되는 동물의 머리가 표현되어 있다. 고의 표면에는 음각선이 가늘게 새겨져 있다. 파부(把部)의 중심에는 마디 모양의 귀목(鬼目)이 있고 양쪽에 6엽의 연판장식이 대칭을 이룬다. 연판 장식의 가운데에도 마디가 있어, 연판을 끈으로 묶은

듯한 모습이다. 고부의 예리함이 잘 드러나고 귀목을 중심으로 양쪽 부분이 대칭을 이루면서 우수한 조형미를 갖추고 있다.

금강령은 종모양의 영부(鈴部)와 손잡이인 파부(把部), 그리고 고부(鈷部)로 구성되고 영부 안쪽에는 소리를 낼 수 있는 탁설(鐸舌)이 있다. 금강저와 마찬가지로 고의 수에 따라 형식을 분류하며, 우리나라는 삼고령과 오고령이 알려져 있다. 한편 영부에 표현된 도상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사천왕(四天王), 범천(梵天)·제석천(帝釋天), 팔부신장(八部神將), 오대명왕(五大明王) 등 대부분 불교의 호법신이 등장한다. 영국사지 금강령은 오고령이고 영부에는 오대명왕과 사천왕, 범천·제석천 등 다양한 존상이 나타난다.

금강령의 전체 높이는 19.5cm로, 금강저에 비하면 약간 큰 외형이다(도5). 영부의 높이는 8.16cm이고 직경 5.36cm, 그리고 손잡이 높이는 6.24cm, 고부 높이는 4.92cm에 이른다. 종의 내부에 달렸던 탁설(鐸舌)은 길이 7.0cm, 너비 2.6cm로, 보주를 물고 있는 물고기 모양으로 만들었다(도6). 물고기의 눈과 아가미, 비늘, 지느러미 등이 세세하게 잘 표현되어 있다. 꼬리 부분에는 원형의 구멍을 뚫어 연결고리를 달았는데, 직경 1.90cm 정도의 크기이다. 고리는 진한 녹색으로 산화되었고 Cu 99.83%의 순수한 동(銅)으로 판명되었다. 고리 한쪽에는 종과 연결되는 다른 고리 일부가 남았는데, 이 부분은 철제로 만들었다. 고리가 부식되면서, 탁설은 종부분에서 떨어진 채로 남아 있다. 물고기 모양의 탁설은 청주 사뇌사지 출토 금강령이나 미국 보스턴미술관 소장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탁설은 어두(魚頭)만 간략히 표현된다. 영국사지 금강령의 탁설처럼, 보주를 물고 있는 물고기의 형상을 섬세하고 우수하게 제작한 사례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금강령의 고부는 금강저와 유사하다. 끝이 뾰족하고 마디가 있는 중고(中鈷)를 향해 용의 입에서 사방의 협고(脇鈷)가 나온 형상이다. 중고와 협고 사이에는 사방으로 4개의 보주를 배치하였는데, 그 중 하나는 안쪽을 파서 구멍을 만들었다(도7). 작은 구멍은 깊이가 약 1cm 정도로 추정되며, 사리를 납입했던 공간으로 파악된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이 구멍만 있는 상태이다. 금강령과 금강저의 파부(把部)나 고부(鈷部)에 사리공을 만들고 사리를 매납하는 방식은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선례가 알려져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발견되어 매우 중요하다.

금강령의 손잡이인 파부도 금강저와 비슷한 모양이다. 가운데에 마디 모양의 귀목(鬼目)을 중심으로 양쪽에 연판대가 대칭을 이루고 있다. 그 아래로 영부가 연결되는데, 상단 어깨부분에 복련대를 두르고 오릉형(五陵形)의 구연에 따라 다섯면으로 구분하였다. 복련의 연판 안에는 섬세하게 초문(草文)이 장식되어 있다. 오릉형(五菱形)으로 구성된 영부의 각 면은 다시 상하로 나누어 공간을 만들었다. 상단의 다섯 면에는 오대명왕을 배치하였고 하단의 네 면에는 사천왕이 자리하고 있으며, 남은 한 면에는 범천과 제석천을 함께 표현하였다. 따라서 모두 11존이

등장하는데, 고부조로 조각되었고 세부 묘사가 정교하다. 존상의 위엄과 각각의 특징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표현되어 있다. 이와 같은 11존의 도상은 기존에 알려진 국내 유물에서 찾아볼 수 없고 중국이나 일본의 금강령에도 확인되지 않는 유일한 사례로 의미가 크다.

오대명왕은 정면의 부동명왕(不動明王)을 중심에 두고, 우측 방향으로 남방 군다리명왕(軍荼利明王)이 자리하고 동방 향삼세명왕(降三世明王), 서방 대위덕명왕(大威德明王), 북방 금강야차명왕(金剛夜叉明王, 烏菟沙摩) 등으로 배치되었다. 명왕은 밀교의 금강계(金剛界) 만다라(曼荼羅)의 주존인 금강계 오불(五佛)의 명을 받아, 교화하기 어려운 중생이나 마귀를 복속시키기 위하여 분노하는 형상으로 표현된다. 또한 명왕은 여래(如來)나 보살의 변화신(變化身)이기 때문에, 높은 존격(尊格)과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진언(眞言)의 상징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밀교에서는 불, 보살, 명왕을 삼부존이라고 하며, 부처는 깨달음의 경지를 체현한 자성운신(自性輪身), 보살은 진리와 깨달음을 알기 쉽게 설교하는 정법운신(正法輪身), 명왕은 구원불능의 중생을 힘으로 강요하여 구원하는 교령운신(敎令輪身)으로 본다. 금강령에 나타나는 각각의 존상을 살펴보면, 먼저 대일여래(大日如來)의 뜻을 받드는 중앙의 부동명왕상이 있다(도8). 왼쪽을 향하면서, 용이 받치고 있는 연화좌 위에 앉아 있다. 오른손은 칼을 들고 왼손은 견삭(絹索)을 쥐고 있으며, 두발(頭髮)은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왼쪽 어깨 위에 늘어뜨린 모습이다. 부동명왕의 아래에는 오른손에 칼을 들고 있는 천왕이 묘사되어 있다.

부동명왕의 우측방향에는 보생여래(寶生如來)의 뜻을 받드는 남방 군다리명왕상이 자리한다(도9). 군다리명왕은 얼굴 1면에 8개의 팔을 하고 있다. 한쪽 무릎을 살짝 세운 듯 표현하였고 용 위에 놓인 대좌에 앉아 있다. 두 손은 가슴 앞에 교차하고 6개의 손에는 삼고저, 도끼, 금륜, 밧줄 등의 지물을 들고 있다. 군다리명왕상의 아래에는 양손으로 불자(拂子)를 든 범천과 오른손에 금강저를 들고 있는 제석천이 꿰어앉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본래 범천과 제석천은 중앙 부동명왕의 하위 존격인데, 군다리명왕 아래에 배치되어, 존상의 상호 관계가 정확하지는 않다. 아촉여래(阿闍如來)의 뜻을 받드는 동방 향삼세명왕상은 3면8비상(三面八臂像)이고 용 위의 연화좌에 자리한다(도10). 두 손은 가슴 앞에 있고 나머지 6개의 손은 칼, 도끼, 활, 화살, 독고저, 새끼줄 등의 지물을 들고 있다. 향삼세명왕의 아래에는 두 손으로 칼을 들고 있는 천왕의 모습이 나타난다.

다음은 서방의 대위덕명왕상으로 무량수여래(無量壽如來)의 뜻을 받든다(도11). 명왕은 물소 위에 앉아 있는데, 용과 서로 교차된 모습이다. 전거에 맞게 물소를 표현하면서, 다른 명왕과 마찬가지로 용좌의 일면도 나타내고 있다. 외형은 얼굴과 팔, 다리 등이 모두 여섯 개로 표현되었다. 손에는 모두 지물을 들고 있으며, 삼지창(三叉戟), 밧줄, 활, 화살, 검, 막대기 등으로 추정된다. 대위덕명왕상 아래에는

탑을 들고 있는 북방의 다문천(多聞天)이 등장한다. 전거에 따르면 대위덕명왕상의 수하는 서방 광목천(廣目天)으로 알려져 있어, 존격의 방위는 일치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불공성취여래(不空成就如來)의 뜻을 받드는 북방 금강야차명왕을 볼 수 있으며, 오추사마명왕이라고도 한다(도12). 다른 명왕과 마찬가지로 용 위에 앉은 자세로 등장한다. 얼굴에 눈이 세 개 있고 팔은 네 개 확인되는데, 지물은 삼고저, 밧줄, 염주 등이 있다. 금강야차명왕의 아래에는 활을 가진 천왕이 묘사되어 있다.

명왕과 천왕의 배치가 전거에 맞지 않는 부분도 일부 있지만 대체로 8세기 후반 불공이 번역한 『인왕경의궤』와 『별존잡기(別尊雜記)』(『新修大藏經-圖像』 제3권)의 도상을 따르고 있다. 존상의 얼굴과 자세, 지물 등이 작은 크기이지만 섬세하게 표현되어, 각 도상의 특징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조형화한 것을 알 수 있다.

국내에 현존하는 금강령은 보물 제176호인 순천 송광사 금동요령이 대표적이며(도13), 출토품으로는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본리와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남성리, 청주 사뇌사지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국립경주박물관과 삼성미술관 리움, 호림박물관, 미국 보스턴미술관 등의 소장품도 알려져 있다(도14). 기존에 알려진 금강령은 오대명왕을 묘사한 경우, 사천왕이나 범천과 제석천을 함께 배치한 6존상, 또는 팔부신상을 표현한 종류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오대명왕상을 비롯하여, 범천, 제석천, 사천왕상 등 11존상이 상하 2단으로 배치되는 영국사지 출토 금강령은 매우 특별한 형식이다. 모든 명왕들이 용좌(龍座)에 앉아 있는 점도 다른 금강령에서는 보이지 않는 특징이다. 또한 방울 소리를 내기 위한 탁설이 동반된 점도 의미가 크다. 보물로 지정된 송광사 금강령도 탁설이 결실되었고 영국사 출토품처럼 보주를 물고 있는 섬세한 모양의 물고기형 탁설은 기존의 유물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② 명문이 있는 유물: 현향로, 향합, 향시, 대부분

영국사지 출토품 중에는 명문이 있는 유물도 포함되어 있으며, 먼저 현향로(懸香爐)가 주목된다(도15). 고려시대에는 여러 형식의 향로가 제작되었는데, 원통형의 몸체에 나팔 모양의 받침을 가진 향완(香垸)이 유행하였다. 또한 손잡이가 달려 들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는 병향로(柄香爐)와 허공에 매달아 쓰는 현향로도 있었다. 영국사지에서는 11점의 향완과 1점의 현향로가 발견되었다. 현향로는 청주 사뇌사지와 원주 범천사지 등에서도 출토된 바 있다.

영국사지의 현향로는 세로로 긴 타원형의 몸체에 뚜껑이 있으며,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손잡이로 구성된다. 뚜껑에는 향연(香煙)이 나가는 구멍이 세 개 있는데, 세잎무늬로 정연하게 투각되어 있다. 뚜껑의 꼭지도 연봉형으로 아름답게 표현하였다. 손잡이는 몸체에서 분리된 채 출토되었으며, 윗부분은 어딘가에 매달 수 있

는 작은 고리가 남아있고 양쪽 끝은 연봉형으로 만들었다. 연봉형 장식아래로 얇은 판을 이중으로 덧대어 몸체와 연결했던 것으로 보이며, 세 개의 못으로 부착하였다. 양쪽의 얇은 판 위에는 각각 “道峯寺”, “長留物”이라는 명문이 있다(도16, 17). 현향로가 도봉사에서 사용되었고 오래도록 지니고 있었던 물품인 것을 알 수 있다.

영국사지에서는 향로와 함께 향합(香盒)도 발견되었다. 모두 세 점이 수습되었고 기본 외형은 원형이지만 세부 특징은 다소 차이가 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향합에 명문이 남아 있다. 높이는 14.7cm, 뚜껑의 직경 17.8cm에 이르고 몸체와 뚜껑은 각진 모습이면서 몸체 바닥에는 굽이 있다(도18). 주조기법으로 만들었고 두께는 얇으면서 전체적으로 균형 있는 외형을 지니고 있다. 뚜껑에는 “道奉寺金堂左香合一口入重二十六兩持存皿一行…”이라는 내용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도19). 명문은 “도봉사 금당 왼쪽의 향합 한 개를 만드는 데 들어간 무게가 26량이다”라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뒷부분에도 10자 이상의 명문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산화되어 녹이 생기면서 정확하게 판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명문의 앞부분에 언급된 내용을 보면, 도봉사 금당의 왼쪽에 놓이는 향합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오른쪽에 두는 향합, 또는 중앙에 두는 향합 등을 일련의 세트로 만들어 사용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른 두 점의 향합에 명문은 없지만 불단에 함께 올리는 기물일 수도 있다. 이러한 추정은 동반 출토된 세 점의 순가락과도 연결된다.

청동제 순가락은 모두 비슷한 크기와 무게로 만들었고 단조기법으로 제작되었다(도20). 술 부분은 긴 타원형이고 손잡이 끝부분은 부채꼴 모양으로 넓게 펼친 외형으로 마무리되었다. 술의 모양과 손잡이의 굴곡진 형태는 일반적인 순가락과 유사하지만 부채꼴형은 독특한 부분이다. 향로나 향합과 함께 출토된 점으로 볼 때, 순가락은 불교 의례용으로 사용한 향시(香匙)였을 가능성이 크다. 세 점의 향합과 같은 수량이 발견된 점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시 가운데 한 점에는 명문이 있는데, 부채꼴 모양 부분에 두 글자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도21). 그렇지만 표면의 녹으로 인해 정확하게 판독하기는 어렵고 ‘捌兩’으로 추정하기도 하지만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대부완(臺附盥)도 명문이 있는 유물로 중요하다(도22). 대부완은 굽다리 그릇으로, 둥근 몸체에 굽이 달린 형태이고 도톰한 구연부는 살짝 외반된 모습이다. 영국사지에서는 크기와 외형이 유사한 굽다리 그릇이 모두 17점 확인되었고 청동 향아리와 청동 동이 속에 나누어 담겨 있었다. 굽다리 그릇에 특별한 장식은 없지만 구연부 바깥에 정으로 쪼아서 글자를 새겨 넣었다(도23). “雞林公施”로 확인되고 이는 “계림공이 시주하였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명문에 언급된 계림공은 고려 제15대 국왕인 숙종(肅宗, 1054-1105)이다.

『고려사』에 따르면, 그는 문종(文宗, 재위 1046-1083)의 셋째 아들로 1065년 계림후(鷄林侯)의 작위를 받았고 1077년에 계림공에 봉해졌다. 이후 조카인 헌종(獻宗, 재위 1094-1095)에 이어, 1095년에 왕위에 오르게 된다. 따라서 그릇의 명문에 나타나는 계림공의 작위를 통해 1077년에서 1095년 사이, 11세기 후반 즈음에 왕자의 신분이었던 숙종이 시주한 것을 알 수 있다. 영국사지 출토품 가운데 유일하게 시주자가 확인된 사례로 의미가 크고 제작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또한 왕실 주요 인물의 후원이라는 점에서도 영국사의 특별한 위상을 엿볼 수 있다. 17점의 굽다리 그릇 가운데 한 점에만 명문이 있지만, 계림공이 일괄품으로 시주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③ 청동유개호(靑銅有蓋壺)와 청동항(靑銅缸)

영국사지 출토품 가운데 두 점의 항아리는 각 기물의 용도와 특징으로 주목되지만 그 안에 기물이 담긴 채 출토된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한 점은 뚜껑이 달린 청동유개호(靑銅有蓋壺)이고 다른 유물은 뚜껑이 없는 청동항(靑銅缸)이다. 두 유물은 모두 양쪽 어깨에 귀가 달렸는데, 동물의 머리모양으로 장식된 귀에 둥근 고리가 달린 모습이다. 몸체와 귀는 각각 주조하여 못으로 연결하였다.

청동유개호는 높이 44.3cm, 구연부 직경 17.5cm, 굽 직경 21.5cm에 이르며, 긴 원통형 몸체에 높은 굽이 달렸고 연봉형 꼭지가 있는 뚜껑으로 구성된다(도24). 항아리 몸체의 어깨, 중앙, 바닥 부근 표면에는 음각의 횡침선(橫針線)이 보이고 구연부 안쪽에 부호 같은 것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지만 정확하게 판독할 수는 없다. 어깨에 자리한 동물머리형 장식은 이목구비가 뚜렷하게 묘사되었고 손잡이 역할을 했을 고리가 달려있다. 유사한 형태의 항아리는 경상북도 청도 운문사와 경상남도 합천 영암사지에도 전하고 있으며,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雲奉寺傳來’가 새겨진 항아리>와도 비교할 수 있다(도25).

청동 동이는 높이 27.0cm, 구연부 너비 38.5cm, 굽 너비 25.7cm이며, 구연부가 넓고 원래 뚜껑이 없는 기형으로 추정된다(도26). 몸체의 어깨에 있는 동물 머리모양 장식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입도 벌린 모습이다. 몸체와 귀는 청동으로 제작했지만 고리는 철제로 만들었고 지금은 부식되어 변색된 모습이다. 몸체 아래에는 낮은 굽이 달렸는데, 의도적으로 뚫은 듯한 구멍이 3개 확인된다.

두 점의 대형 기물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가는 명확하지 않다. 청동 동이와 비슷한 형태로 만든 옹기나 도기는 주로 물동이로 사용하였다. 또한 ‘드르’로 불리는 방화수(防火水)를 저장하는 기물과도 연관된다. 따라서 불교 의례에 사용되는 정수(淨水)를 담은 기물로 생각된다.

발굴 당시, 청동 유개호에는 금강령, 금강저, 향완, 굽다리 그릇 등이 담겨 있었고 청동 동이에도 향완이나 향시, 굽다리 그릇 등의 기물이 들어 있었다(도27,

28). 이처럼 의도적으로 큰 기물 안에 작은 그릇을 넣어 매납한 상황을 보면, 영국사지 출토품은 퇴장유물(退藏遺物)의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퇴장유물은 특별한 상황에서 중요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땅속에 매장하거나 정해진 의례에 따라 법식을 갖추고 매납하는 유물을 의미한다. 영국사지 출토 불교 공예품이 사찰이 폐사되면서 매납된 것인가, 조선시대 서원이 들어서면서 매납된 것인가, 혹은 특별한 의식을 위하여 행한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유물의 매납 시기와 불교적 의미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출토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물의 성격도 중요한 부분이다. 국내에서 퇴장유물의 성격을 보여주는 사례는 통일신라시대 균위 인각사 출토 공양구 일괄품과 말흘리사지 출토 유물, 그리고 고려시대 청주 사뇌사지 출토품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향후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 참고문헌

- 최응천, 「한국 불교 퇴장 유물의 성격과 영국사(도봉서원) 출토품의 특징」, 『강좌 미술사』 52, 2019.
- 한성백제박물관, 『천년 만에 빛을 본 寧國寺와 도봉서원』, 2018.
- 서울문화유산연구원, 『道峯書院』, 2014.
- 호림박물관, 『湖林博物館所藏 佛教美術名品展 - 慈悲와 莊嚴의 美』, 2002.
- 호암미술관, 『大高麗國寶展』, 1995.
- 奈良國立博物館, 『特別展 密教工芸 - 神秘のかたち』, 1992.
- 이숙희, 「高麗時代 金剛鈴의 圖像的 研究」, 『미술사학연구』 186, 1990.

<참고도판>



도1. 제5호 건물지 기단 내부 토층



도2. 대야와 화로가 유물을 덮고 있는 모습



도3. 영국사지 슬터 불교공예품 10건 15점



본
미양고, 영귀사지



본, 미강영목, 목실, 영귀사지



본, 목실, 영귀사지



도7. 금강현 사리공 부분



도8. 부총의왕과 전왕



도9. 원상리영왕 영건 금부관



도10. 왕산포영왕과 전왕



도11. 대왕포영왕과 대왕전



도12. 금강야차명왕과 천황



도13. 순천 송광사 금강령



도14. 금강령, 고려, 미국 보스턴미술관



도15. 영양포, 영비사기



도16. 영양포, 영비



도17. 영양포, 영비



도18. 함합, 영곡사지



도19. 함합, 영문



도20. 향시(서위 H12441). 영국사지



도21. 향시. 명문



도22. 대부완. 영국사지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도26. 정릉향 영묘사지



도27. 정릉향거북 내부 출토 모습



도28. 정릉향 내부 출토 모습

□

도봉서원은 서울 도봉구도봉산길 90 일대에 소재하고 있는 서원터이다. 도봉서원은 1573년 양주목사 南彦經(1546~1594)이 靜菴 趙光祖(1482~1519)를 경모하고 배향하고자 향인들과 함께 도봉산 寧國寺터에 서원을 건립하였다. 도봉구는 역사적 장소인 도봉서원터를 복원하기 위해 2010년부터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부터 2017년까지 4차례에 걸친 실시하고 그 성과를 보고서와 학술대회를 통해 밝혀왔다.

조사대상 유물은 2012년 (재)서울문화유산연구원에서 실시한 발굴조사에서 출토되었고, 그 중 금동금강령과 금강저는 독특한 도상의 구성과 형태, 뛰어난 보존상태 등에서 크게 주목받았다. 출토된 금속유물은 도봉서원터 제5호 건물지로 명명된 곳에서 일괄 출토되었는데, 이곳은 동서 12.63m 남북 12.74m의 규모로 원래는 영국사 금당터로 추정되고 있다.

사명과 관련하여 2017년 (재)불교문화재연구소의 발굴조사 때 발견된 ‘혜거국사비편’을 통해, 고려 광종 때 국사로 책봉된 혜炬(899-974)가 주석한 寧國寺임이 확인되었다. 그동안 <영국사혜거국사비>는 『대동금석서』(1688)에 일부만 탁본으로 전하고 있었고, 발굴조사에서 추가된 비편을 토대로 혜거국사와 영국사의 실체가 보다 분명해졌다.

영국사는 고려 광종이 971년 지정한 3대 不動禪院 중 하나인 道峯院으로 추정되기도 하며, 2012년 발굴조사에서 발견된 금속기의 명문에는 도봉사로도 등장한다. 따라서 고려시대 이 사찰은 영국사, 도봉원, 도봉사 등으로 불렸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고려전기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찰이었지만, 고려 중·후기부터 조선전기까지의 연혁은 전하지 않는다. 사지에서 발굴된 금속기를 통해 볼 때, 금속유물의 제작시기가 대체로 12세기 이전, 고려 전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들 유물은 아마도 몽고병란 같은 위급한 재난을 맞이하여 의도적으로 매장(퇴장)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전기 국가적으로 중요했던 사찰이 고려후기 여타의 기록에서 잘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사찰도 재난의 비바람을 피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조선 전기 중창될 때까지 지속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다 조선 초 왕실 대표적인 護佛 왕자인 孝寧大君(1395-1486)의 원력으로 고려시대의 명성을 어느정도 회복하였으나 그것도 잠시 1573년 양주목사 남언경이 기묘사림의 영수인 조광조를 기리기 위해 도봉서원이 건립되면서 사찰은 또 다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도봉서원의 영광과 운명도 영원히 이어지지 못하고 조선 말, 즉 1897년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해 훼철되고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다.

도봉서원의 전신인 영국사는 한울문화재연구원에 이어서 2017년 (재)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진행한 발굴조사에서는 고려시대 국사를 지낸 혜거국사의 ‘見州道峯山寧國寺 慧炬國師碑’片(길이 62cm, 폭90cm, 두께 20cm)이 발견되어 더욱 주목을 받았다. 혜거국사의 흔적이 주변의 사찰에서도 확인된다. 영국사지에서 북서쪽으로 2km 정도 떨어진 망월사에는 조선 전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혜炬塔이 남아 있고, 인근 회룡사는 혜거국사가 3창하였다고 한다.

영국사와 관련된 문헌자료는 고려시대 적연국사비, 『고려사절요』가 있고 탐비로는 적연국사비, 보조국사비, 원종대사비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선시대의 문헌으로는 『조선왕조실록』과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조선 전기에 집중되어 나타난다.

이후의 기록은 폐사된 영국사지 위에 건립된 도봉서원과 관련된 기록들이다.

의식·공양구는 모두 67건 79점이 발견되었는데, 이들은 5호 건물지 기반 정치층을 조성하면서 매납된 것으로 추정된다. 포장방식은 손잡이가 달린 큰 솥 안에 크고 작은 청동 향완을 차곡차곡 넣는 방식을 취했으며, 그 주변으로도 많은 수의 공양구를 함께 매납하였다. 특히 이들 유물은 거적 내지 가마니 같은 초본류로 싸서 매납한 것으로 볼 때, 매우 신중을 써서 매납한 것으로 여겨진다. 고려시대 이와 같은 형식의 일괄품 출토 유구는 ‘退藏’유구 혹은 ‘窖藏’유구라고 부른다. 고려시대 청동유물이 일괄로 출토된 사례로는 충북 청주 운천동 흥덕사지(1985년), 충북 청주 사녀사지(1993년), 경남 창녕 마흘리 사지(2003), 경북 군위 인각사지(2008) 등이 있다.

유물의 종류는 금동금강령과 금강저 일조를 비롯하여 청동향완, 현향로, 높은 굽이 달린 대부완, 뚜껑이 있는 합과 대접과 완, 크고 작은 청동 세반과 청동향합 등이다. 특히 삼족의 향완과 여러 점의 고배형 향완, 현향로와 같은 불교 공양품부터 세반, 숟가락, 三足鼎과 같은 생활 공양구도 함께 출토되었다. 발견 유물의 세부목록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출토 양상으로만 보면 청주 사녀사지의 청동 의식공양구 일괄의 매납모습과 매우 흡사하다. 지금까지 일괄 출토된 금속유물은 어느 정도 패턴화 되어 있으며, 이들의 매납 양식을 통해 당시에 행했던 퇴장구의 매납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원래 지정 신청은 금속유물 중 가장 돋보이는 금동금강령과 금강저 2점이었으나, 청동유물 중 봉안처나 사용처, 시대 편년 등 고려 금속공예 연구에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유물도 포함하였다.



그림1. 서울 영국사지 출토 지정대상 의식공양구 일괄

○ 금동금강령과 금강저(金銅金剛鈴과 金剛杵)

금강령과 금강저는 한 세트의 이루어진 밀교 범구이다. 금강저는 범어로 바즈라(vajra, 跋折羅)라고 하며 금속 가운데 가장 단단하고 강하다는 뜻으로 무기에서 유래되었다. 불교의식에서는 번뇌를 없애주는 상징으로 수용되었다. 금강령은 금강저의 한쪽 면에 종의 형태가 부각되어 만들어진 것인데, 불교의식때 소리를 내어 여러 불·보살들을 기쁘게 해주고 어리석은 중생의 불성을 깨닫게 하여 궁극적으로 성불로 인도하기 위해 사용되는 불구이다. 꽃잎처럼 주름 잡은 몸통에는 불교의 호법 신중들이 표현된다. 금강령은 고의 숫자와 몸체에 표현되는 도상에 따라 오대명왕령, 사천왕령, 제석·범천 사천왕령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영국사지 금강령은 오대명왕과 제석·범천, 사천왕상 모두가 조합된 아주 특별한 금강령이다.

오고저를 가진 금강령이다. 고부와 손잡이(병부), 그리고 鈴部로 구성되어 있다. 표면에는 큰 퇴락없이 금빛이 찬란하게 남아 있고 표면과 각부의 연결 부위도 주조 결함없이 완벽한 상태를 보여준다. 鈷部는 용(또는 마카라)의 입에서 나온 역동적인 번개 모양의 4개의 협고가 중심의 창(戟)날 모양의 鈷를 긴장감 넘치게 에워싸고 있는 형상이다. 고의 표면에는 강력한 힘과 역동성을 강조하기 위해 고의 형태에 맞춰 음각선을 힘줄같이 새겨 넣었다. 협고와 협고 사이에는 손등뼈처럼 보주를 도드라지게 표현하였고, 그 중 하나는 구멍을 뚫어 불사리를 봉안한 것으로 생각된다. 손잡이의 중앙에는 대마디처럼 이어붙인 鬼目帶를 두르고, 귀목대의 위아래 부분에도 서로 6엽의 꽃잎을 맞댄 장구(杖鼓)형 꽃판장식을 배치하여 손잡이를 구성하였다. 마주 댄 꽃장식 가운데도 귀목대와 같이 대를 두르고, 여백에는 S형으로 휘감아 도는 문양 얇게 음각하였다. 꽃잎의 가장자리에는 침선을 시문하여 잔털효과를 내었다.

鈴身の 어깨를 따라 견장처럼 연꽃무늬를 돌려 장식하였고 연꽃무늬의 내부에는 여의두문을 새겨 넣었다. 금강령의 몸체는 다섯 개의 꽃잎판을 참외모양 오므린 형태이며, 각 면의 상단에는 오대명왕을 하단에는 범천·제석, 사천왕상과 짝을 이루며 위계적 관계로 배치하였다. 사천왕상은 악귀의 등에 올라 탄 모습인데, 이 중에서 가장 확실한 도상적 특징을 보이고 있는 사천왕상은 보탑과 창을 든 북방 다문천왕상이다. 즉 보탑은 통일신라 이래 고려시대까지 북방 다문천왕의 확실한 지물로 확립되었다. 그다음으로 주목되는 사천왕상은 활과 화살을 지물로 채택한 사천왕상이다. 활과 화살을 지물로 채택한 사천왕상은 통일신라~고려초기에 걸쳐 다수의 석탑·승탑의 부조상에서 등장하는데, 가령 화엄사 서오층석탑과 화엄사 원통전앞 사자탑, 그리고 고달사지 원종대사탑, 보원사지 법인국사탑, 거둔사지 원공국사탑, 경북대박물관 승탑(II) 등 유사시기에 제작된 대부분의 사례에서 남방 증장천의 지물로 채택되고 있고, 드물지만 태안사 광자대사탑(945~950)과 경북대박

물관 승탑(940~950)에서는 광목천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이곳에 표현된 사천왕상의 契印을 북방 다문천왕을 중심에 놓고 살펴보면 북(보탑)-동(칼)-남(칼)-서(활과 화살)로 볼 수 있다.

오대명왕과 제석·범천, 사천왕의 세부적인 조합을 보면, 중앙의 부동명왕과는 오른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왼손으로 칼날을 비스듬히 받쳐 든 남방 증장천왕이, 동쪽의 향삼세명왕과는 무릎 위에서 두 손으로 칼을 잡은 동방 지국천왕이, 남쪽의 군다리명왕과는 불자를 든 범천과 금강저를 든 제석천이, 서쪽의 대위덕명왕과는 보탑과 창을 든 북방 다문천왕이, 북쪽의 오추사마명왕과 활과 화살을 든 서방 광목천왕이 상·하에서 짝을 이루며 배치되었다. 그런데 한가지 이채로운 것은 사천왕상과 오대명왕과의 방위상의 조합을 보면 도상적 특징이 분명한 북방 다문천왕이 서쪽의 대위덕명왕이 짝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있다. 오대명왕과 사천왕의 방위를 일치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오대명왕은 8세기 후반 不空이 한역한 여러 밀교경전 중에서도 호국경전인 인왕경과 관련 있으며, 특히 불공이 한역한 『仁王護國般若波羅蜜多經陀羅尼念誦儀軌』에 다섯 보살과 그 위덕을 현현한 다섯 금강, 즉 오대명왕을 설명하고 있어 이와 같은 ‘오대명왕 금강령’의 도상적 근거가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유행하지 못했으나, 금강령 같은 불교의식을 장엄하는 도상으로 등장한다.

오대 명왕중 위력과 공덕이 큰 부동명왕은 대일여래의 敎令(명령)을 받아서 행동한다. 오대명왕 중 중앙에 안치하며, 수행하는 자를 보호하는 불이다. 부동명왕은 오른손에 칼, 왼손에 견삭을 쥐었다. 연화대좌에 앉았으며 대좌 주위를 龍이 감싼 형태이다. 향삼세명왕은 인도의 시바신을 기원으로 하는 불이다. 부동명왕 다음으로 격이 높은 명왕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와 貪, 瞋(怒), 癡(無知)을 항복하는佛이므로 향삼세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곳에는 1면8비의 형태로 분노한 형상이며 두 손이 가슴에서 교차한 수인을 짓고, 나머지 손에는 三鈷鉤斧, 견삭, 금강저 등을 쥐고 있다. 오른다리를 비스듬히 세우고 龍위에 앉았다. 군다리명왕은 산스크리트어로 ‘뱀이 몸을 서린 것’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명왕이다. 뱀(蛇)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손끝과 발끝 등에 뱀을 칭칭 감은 분위기(氣味)의 악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諸事를 해결하고 여러 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불이다. 한편, 不死의 묘약인 감로신양과 결부되어 예배되는 경우가 있다. 이곳에는 3면8비의 모습으로 두 손이 가슴에서 교차시키고, 나머지 손에는 삼고구부, 활, 견삭, 독고저 화살, 검을 쥐고 있다. 대좌는 다른 명왕과 마찬가지로 龍座에 앉아 역동적인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대위덕명왕은 물소 위에 걸터앉아 六面六臂六足の 특이한 모습을 띤다. 아미타여래의 敎令輪身으로, 문수보살의 화신 또는 六足尊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다른 명왕과 곧 바로 구분된다. 이곳에서도 용이 휘감은 물소를 타고 있으며, 오른손에는 칼, 붓, 화살을 왼손에는 창,

견삭, 화살을 잡고 있다. 북방의 오추사명왕은 ‘금강저의 위력을 가진 夜叉’라는 의미의 산스크리트어의 이름을 가졌다. 금강저로 다양한 악을 부수뜨리고, 조복하는 不空成就如來의 敎令輪身이 되고 있다. 이곳의 오추사명왕은 1면4비의 모습이며, 손에는 삼고저, 견삭, 염주를 들고, 龍 위에 앉았다.

내부에는 물고기 모양의 탁설을 달았는데, 물고기는 구슬(여의주)를 물고 있는 형상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되지만, 물고기의 눈과 수염, 이빨, 지느러미, 비늘 등 물고기의 생태적 특징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꼬리에 구멍을 뚫어 고리를 걸었다.

우리나라의 금강령 중 오대명왕이 표현된 것은 호림박물관 소장 오대명왕령, 해인사 소장 오대명왕령, 경북대 소장 오대명왕령 등이 있다. 그러나 영국사지 금강령처럼 오대명왕과 제석·범천, 사천왕상이 짝을 이루며 위계질서를 지키며 수직 병렬로 배치된 것은 동아시아 금강령을 통틀어 유일한 사례이다. 이는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오대명왕령 신앙과 도상을 고려적으로 재해석하여 새롭게 창출한 도상으로 여겨진다. 즉, 오대명왕이 각자의 여래로부터 교령을 받아 역할을 수행하고 있듯이, 이곳에는 제석범천, 사천왕상이 각자의 명왕의 교령을 받아 역할을 수행하는 모양새로 등장한다.

금강저는 양 끝단에 창끝처럼 길게 돌출된 고부와 중앙 손잡이로 구성되어 있다. 고부는 금강령과 마찬가지로 창끝모양의 날카로운 중앙고를 용(또는 마카라)의 입에서 나온 갈고리형태의 脇鉤가 둘러싼 모습이다. 손잡이는 금강령과 마찬가지로 귀목을 중심으로 위아래 양복련을 장구처럼 마주대어 손잡이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손잡이의 형태와 표현은 고려시대 제작된 금강저와 금강령에서 일반적으로 보이고 있으나, 영국사지 금강저와 금강령은 고려시대 어느 것보다도 기술적으로 뛰어나며 세부 표현, 각 연결부의 구성과 비례, 표면에 표현된 문양과 도상의 조각수법 등에서 고려시대 최고로 예술적 감성이 발현된 작품이다.



그림 2. 금동금강령

그림 3. 금동금강저

○ 청동 현향로(靑銅 懸香爐)

현향로는 현로라고도 부르는데, 법천사지 향로에서 현로라는 명칭이 새겨진 향로가 발견된 사례가 있다. 현향로는 걸이와 뚜껑, 몸체부로 구성되어 있다. 걸이는 좌우의 귀에서 3자형으로 굴곡을 이루며 뺨어 올라와 중앙의 보주를 받쳐 든 모습이다. 걸이는 몸통의 어깨에 마련된 연봉형 귀구멍에 꽃아 몸체와 연결 하였고, 몸통은 항아리 모양을 이루며 뚜껑을 닫으면 연봉형태를 이룬다. 뚜껑에는 연봉형 꼭지를 달았으며 표면에는 삼엽형의 연기 구멍을 뚫었다.

몸체와 걸이가 연결되는 귀 장식에 명문이 남아있다. 한쪽 귀장식에는 ‘道峯寺’를 다른 한쪽 귀장식에는 ‘長留物’이라 음각하였다. 제작시기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으나, 도봉사에 오래도록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향로임을 명문을 통해 알 수 있다. 걸이의 표면에는 줄무늬와 연주문 등 다채로운 문양을 새겨 넣어 기교를 부렸고, 중앙부는 보주로 장식하였다. 보주에는 둥근 구멍을 뚫어 쇠고리를 달았다. 걸이의 양측 끝은 둥근 축을 만들어 몸통 어깨부에 마련된 연봉형 귀구멍(연결장식)에 꽃도록 설계되었다. 우뚝 솟은 연봉형 귀는 몸통에 부착되는 면과 손잡이와 연결되는 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몸통과 연결되는 면은 3엽형으로 3개의 리벳을 이용하여 몸통에 고정하였다. 현재 손잡이와 연결부는 리벳의 부식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이다. 몸통의 어깨에서 우뚝 솟은 연봉과 여기에 연결된 날렵하게 굴곡진 손잡이의 모습은 씩씩하고 기운이 넘친다.

이와 유사한 현향로는 국립중앙박물관 현향로를 비롯하여 청주 사뇌사지 현향로, 법천사지 현향로 등이 남아 있는데, 걸이의 형태와 연구구멍의 모양 등 세부 표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특히 법천사지 향로에는 懸爐라는 명칭과 戊子라는 제작시기가 새겨져 있는데, 이 향로는 12세기경의 작품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향로는 지금까지 발견된 사례는 많지 않으며, 제작 시기도 12세기 이전에 주로 나타나는 시기성 짙은 유물로 판단된다.



그림 4 현향로

그림 5 귀장식의 鎬후추 명문

그림 6 귀장식의 長留物 명문

○ 굽다리 그릇(臺附盃)

이 굽다리 그릇은 모두 17점이 발견되었다. 그 중 한 점에서 명문이 발견되었다. 명문은 구연부 바깥쪽에 蹴彫기법으로 ‘鷄林公(施)’라고 새겨 놓은 것인데, 이를 통해 같은 형식의 굽다리 그릇은 계림공이 일괄로 시주한 것으로 풀이된다. 계림공은 고려 15대 국왕인 숙종의 즉위 전 책봉 받은 작위이다. 『고려사』에 따르면, 숙종은 1054년 문종의 셋째아들로 태어났다. 이름은 顥이고 자는 天常이다. 문종 19년 2월 1065년 鷄林侯로 책봉되었고, 문종 31년 1077년 鷄林公으로 승진하였다. 1095년 현종의 선양으로 고려 제15대 왕으로 즉위하였다. 따라서 이 굽다리 그릇의 상한과 하한은 숙종이 계림공으로 책봉된 1077년부터 왕으로 등극하던 1095년 사이에 도봉사에 봉헌한 청동유물로 판단되므로 11세기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굽다리 그릇은 굽과 몸체를 통으로 주조한 후 표면은 가질로 다듬었다. 그릇의 몸통의 상중하단 부분에 2줄의 선을 넣었을뿐 별다른 기교를 부리지 않았다. 고려시대 흔히 볼 수 있는 공양구이다. 이 명문을 통해 명문이 없는 굽다리 그릇들은 계림공의 시주품으로 판단되며, 왕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영국사지가 크게 번창하였음을 알려주는 물적 자료인 셈이다.



그림 7 대부완



그림 8 대부완 '鷄林公' 명문

○ 향합(香盒)

향합은 몸통과 뚜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뚜껑이 단친 채 청동 동이 안에서 발견되었다. 몸체의 바닥에는 낮은 원형의 굽이 달려 있다. 몸체는 수직으로 곧추세웠고, 몸체의 상단에는 턱을 만들어 뚜껑을 닫을 수 있도록 하였다. 몸체에서 굽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비스듬히 경사지게 처리하였다. 뚜껑의 형태는 몸체에 달려 있는 굽을 빼면 몸체와 비슷한 형태를 띤다. 직립한 뚜껑의 측면을 따라 '道奉寺 金堂左香合一口入重二十六兩持...'라는 음각명문이 새겨져 있다. 판독되는 내용은 '도봉사 금당 왼쪽의 향합 하나를 만드는데 들어간 무게가 26량이다' 정도로 이다. 명문을 통해 금강 좌측에 사용된 향합이라는 사실과 무게가 26량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 9 향합



그림 10 향합의 명문

○ 순가락(匙)

순가락은 3점이 청동 동이 속에서 출토되었는데, 모두 같은 형태를 띠며 완전한 모양을 갖추고 있다. 단조기법으로 제작되었고, 술 부분은 계란모양으로 가운데가 오목하고 끝은 다소 예리하게 처리하였다. 손잡이는 활모양으로 유연하게 휘어졌으며, 손잡이의 굽기는 술과 연결되는 부분은 가늘게 하고 자루장식 부근에는 굽게 처리하였다. 손잡이의 끝부분은 은행잎처럼 모양을 내어 장식하였다. 은행잎처럼 펼쳐진 손잡이의 끝부분에 '捌兩'으로 추정되는 명문을 새겨놓았다. 의식·공양구들과 함께 매납된 것으로 볼 때 일반 식생활에 사용했던 순가락이라기보다는 공양의식에 사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1 청동순가락



그림 12 청동순가락 '捌兩(?)' 명문

○ 청동 유개호(靑銅有蓋壺)

청동 유개호는 전체 높이가 44.3cm의 대형 청동유물로, 연봉형 꼭지를 가진 뚜껑과 길쭉한 단지모양으로 이루어진 몸체로 구성되어 있다. 뚜껑은 굴곡이 있는 접시모양이며, 꼭지는 연봉형으로 표면에는 꽃잎이 새겨져 있다. 구연은 직립하였으며, 구연에서 어깨부의 경사는 완만하게 처리하고, 몸체의 어깨 두 곳에 귀면형 장식 귀를 부착하고 여기에 둥근 청동제 고리를 달았다. 몸체는 길쭉하고 늘씬하며, 몸체의 상중하 세 곳에는 굽은 돌기선을 돌렸다. 바닥에는 밖으로 살짝 벌어진 굽을 달았다.

이와 같이 귀가 달린 청동유개 항아리는 청동 운문사 동호(보물 제208호), 합천 영암사지 동호, 국립중앙박물관의 '雲峯寺傳來'명 銅壺 등 고려시대 청동유물 중에서 더러 확인된다. 발견당시 이곳에는 금강령, 금강저, 향완, 굽다리 그릇 등이 담겨 있었는데, 영국사지 청동유물 중 뚜껑이 없는 동이 보다는 좀 더 값이 나가는 귀한 물건을 담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3 청동유개호. 높이 44.3cm



그림 14 운봉사명 청동유개호.
높이 34cm. 개성출토. 덕수5676

○ 청동동이(靑銅盆)

청동동이는 물동이 형태로 높이 27cm, 구연부 너비 38.5cm로, 이곳뿐만 아니라 고려시대 발견된 청동유물 중에서 대형기물에 속한다. 구연부는 부드럽게 면 처리하였으며, 배가 가장 부른 곳에 살짝 돌출 주름을 멋스럽게 잡아 상하를 경계 지었다. 몸체의 어깨에는 청동 유개호와 마찬가지로 귀면 형태의 장식 귀를 부착하였고, 이곳에 철제로 된 둥근 고리를 달았다. 귀면의 모습은 번개를 토해내는 금강령·금강저의 용(또는 마카라)이나 청동유개호의 장식 귀의 귀면의 모습과 일맥상통한다. 동이의 바닥에는 낮은 굽이 달려 있고, 밑면에는 의도적으로 뚫은 구멍이 3개 확인되었다. 동이의 표면에는 중앙의 얇은 돌출주름 외 별다른 문양은 넣지 않았다.

이 청동동이는 청동 유개호와 함께 청동 유물을 담았던 그릇이며, 발견 당시 이곳에는 향완, 숟가락, 굽다리 그릇 등이 담겨 있었다.



그림 15 청동동이



그림 16 청동동이의 바닥

○ 참고문헌

- 『도봉서원』, 도봉구·(재)서울문화유산연구원, 2014
- 주경미, 「도봉서원터 출토 금속공예품과 고려 전기 불교문화」, 『영국사와 도봉서원』, 한성백제박물관, 2018
- 최응천, 「불교 퇴장유물의 성격과 도봉서원터 출토품의 특징」, 『영국사와 도봉서원』, 한성백제박물관, 2018
- 「도봉서원 보존 정비를 위한 2019년 학술대회 - 도봉서원 발굴조사 성과와 의의」, 도봉구·(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19

11. 국새 대군주보 (國璽 大君主寶)

가. 검토사항

‘국새 대군주보’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청의 환수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추진의 일환으로 국립고궁박물관 관장으로부터 ‘국새 대군주보’에 대하여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20.11.11.)이 있어 관계 전문가 조사(’21.1.21.)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 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국새 대군주보(國璽 大君主寶)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고궁박물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 수 량 : 1과
- 규 격 : 전체 높이: 7.9cm, 무게: 4.11kg
보신(寶身) 크기: 9.57×9.66×2.63cm, 보뉴(寶鈕) 크기: 12.73×7.28×5.33cm
- 재 질 : 은(수은 아말감 도금)
- 용 도 : 외교 및 고위 관원 위임장, 사령장 및 대군주의 명으로 반포되는 법률, 칙령 등에 사용
- 형 식 : 귀뉴(龜鈕)가 달린 정방형 인장
- 조성연대 : 1882년(고종 19) 7월 1일
- 환수일자 : 2020. 2월 미국에서 환수 후 국립고궁박물관에 이관



<국새 대군주보>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대군주보>는 1882년 고종이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국기와 함께 국새를 제작토록 하여, 5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무위영에서 호조의 예산을 지원받아 제작하였다는 『고종태황제실록』의 기록을 통해 제작배경과 제작시기 및 제작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보인부신총수』에 그려져 있는 그림과 기록에 의해 순은에 도금을 했고, 거북이형 뉴식에 보면에는 구첩전문으로 대조선국의 대군주라는 의미를 지닌 ‘대군주보’라는 글씨를 새겼으며, 가로 세로 높이 등의 크기가 일치한다는 점에서도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한편 고종 대에 존호 등 왕실행사가 많아지며 금보의 제작이 활발하였는데, 당시 보장 전흥길(全興吉)은 1851년부터 1898년까지 47년간 활동하는 기간 중 1878년 보인소에서 보인을 제작하였고, 1898년 대한제국의 새보 10과도 제작하는 등 여러 도감에서 금보를 제작하였기 때문에 1882년 당시 <대군주보>의 제작 장인을 유추할 수 있어 공예기술사적인 가치도 높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유물은 제작된 이후 외국과의 통상이나 법률과 칙령(勅令), 조칙(詔勅) 및 관료의 임명 문서에 실제 날인된 대한제국 이전 조선의 국가적 상징물로서 유일한 유물이라는 점, 해방 이후 그 존재를 알 수 없다가 해외에서 환수되어 국내로 되돌아온 소중한 유물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처럼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대군주보는 조선의 국새 중 문헌기록에 의해 제작시

기가 분명하고 제작 장인의 유추가 가능하며 당시 그려진 그림이나 제원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유물로서 보물로 지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 (지정 가치 있음)

1) 문화재 가치

국새 「대군주보(大君主寶)」는 갑오개혁을 전후한 국제정세의 변화와 이에 대한 조선의 대응방식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며, 공식적인 사용 시기는 1882년에 제작된 이후 1897년 대한제국기 성립 이전으로 역사적 사실이 이를 뒷받침 한다. 또한 거북 모양 손잡이에 사각형 모양 인판에 구첩전이라 하여 글자를 아홉번 구부려 예술적으로 아름답게 조각하였다. 그리고 「대군주보(大君主寶)」의 제작 배경 등이 명확하게 밝혀져 학술적인 가치도 함께 지니고 있다.

2) 문화재 상태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에 「대군주보(大君主寶)」 도식이 수록되어 있어 실물과 비교해 보았을 때 국새 형태의 구성요소를 제대로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새의 재질과 크기, 보문에 새겨진 글자 등 보존상태 또한 양호한 편으로 판단된다.

3) 제작연대

국새 「대군주보(大君主寶)」는 1882년(고종 19) 7월 1일에 제작한 것으로 개화기에 국명과 국왕의 호칭으로 제작, 사용한 여섯 과의 국새 가운데 유일하게 발견된 사례이다. 『보인부신총수』에 기재된 국새의 재질과 크기, 보문, 뉴의 도설 등이 모두 일치하여 진품으로 확인된다.

연번	보문	재질	뉴식	서체	제작	비고
1	大朝鮮國主上之寶	天銀鍍金	龜鈕	疊篆	1876. 12. 15	분실
2	大朝鮮國寶	天銀鍍金	龜鈕	疊篆	1881.7. 27 이후	"
3	大朝鮮國大君主寶	天銀鍍金	龜鈕	小篆	1882. 7. 1	"
4	大朝鮮大君主寶	天銀鍍金	龜鈕	小篆	1882. 7. 1	"
5	大君主寶	天銀鍍金	龜鈕	疊篆	1882. 7. 1	고궁
6	大朝鮮國寶	天銀鍍金	龜鈕	疊篆	1889. 8. 5 이후	분실

4) 희소성

국새 「대군주보(大君主寶)」는 전해지는 문헌상으로 검증되었고, 양식적으로나 사용된 사례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형태·기법·재료 등의 측면에서 유사한 가치와 희소성을 지닌 대표적인 국새로 판단된다.

5) 명확성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에 수록된 국새 「대군주보(大君主寶)」의 기록 내용인 재질과 크기, 보면, 뉴의 도설 등이 모두 일치하여 진품으로 명확하게 증명된다. 특히 국새 「대군주보(大君主寶)」는 교린 문서 보다는 고위 관원의 위임장, 사령장 등과 대군주의 명으로 반포되는 법률, 칙령 등에 사용되었음을 날인된 문서를 통해 밝혀졌다.

6) 특이성

국새 「대군주보(大君主寶)」는 서체, 뉴식, 재질, 주물방식 등 대한제국 이전의 고종 대 국새 제작방식이 담겨진 현재로서는 유일한 유물이라는 점에서 특이성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국새 「대군주보(大君主寶)」는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내용 등을 종합하였을 때 문화재로서의 지정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국새 대군주보’는 갑오개혁을 전후한 국제정세의 변화와 이에 대한 조선의 대응 방식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유물이다. 서체, 뉴식, 재질, 주물방식 등 대한제국 이전의 고종 대 국새제작방식이 담겨진 현재로서는 유일한 유물이라는 점에서 보물로서 지정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보물로 지정예고함.

조사보고서

□

○ 형 식

대군주보(大君主寶)는 거북이 모양의 손잡이[龜紐]에 거북이 몸체로 되어 있다. 보면(寶面)은 9.5x9.5cm이고, 높이 7.25cm에 길이 12.49cm의 크기이다. 대군주보는 1882년 고종이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국기와 함께 국새를 제작토록 하

여, 5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무위영에서 호조의 예산을 지원 받아 제작한 것이다. 재료는 순은 재질에 도금을 했고, 거북이형 뉴식에 보면에는 구첩전문으로 대조선국의 대군주라는 의미를 지닌 ‘대군주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이 대군주보는 고종 말 1882년에 제작된 조선의 국새로서 외국과의 통상이나 법률과 칙령(勅令), 조칙(詔勅)과 관료의 임명 문서에 날인하였고,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한 이후에는 <대한국새(大韓國璽)>로 바뀌었다.



○ 조성연대 : 1882년 7월 1일

○ 유물의 제작 배경

1882년 4월 고종은 미국과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 근대적 외교 수립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자, 국기(國旗)를 준비하는 한편 국새(國璽)도 마련하였다.

『고종태황제실록』 고종 19년(1882) 5월 23일의 기록에 “교린을 할 때 국서(國書)를 만든 다음 <대군주보(大君主寶)>와 <대조선국대군주보(大朝鮮國大君主寶)>를 찍었다. 도장을 새로 만드는 일은 본영[武衛營]과 호조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고, 동문사(同文司)의 두 당상이 일체 감독하라”고 하였다. 이후 7월 1일 기록에는 “<대군주보(大君主寶)>와 <대조선대군주보(大朝鮮大君主寶)> 및 <대조선국대군주보(大朝鮮國大君主寶)>를 조성하였다.”

이후 이 국새는 1883년 7월 18일 민영목에게 내린 <일본과의 통상장정세칙체결 및 비준교환에 대한 국왕의 전권위임장>에 사용되었고, 1884년 4월 13일자 <조미수호 통상조약 비준서>를 비롯하여 영국이나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프랑스 등과 체결한 수호통상조약에 대한 비준서에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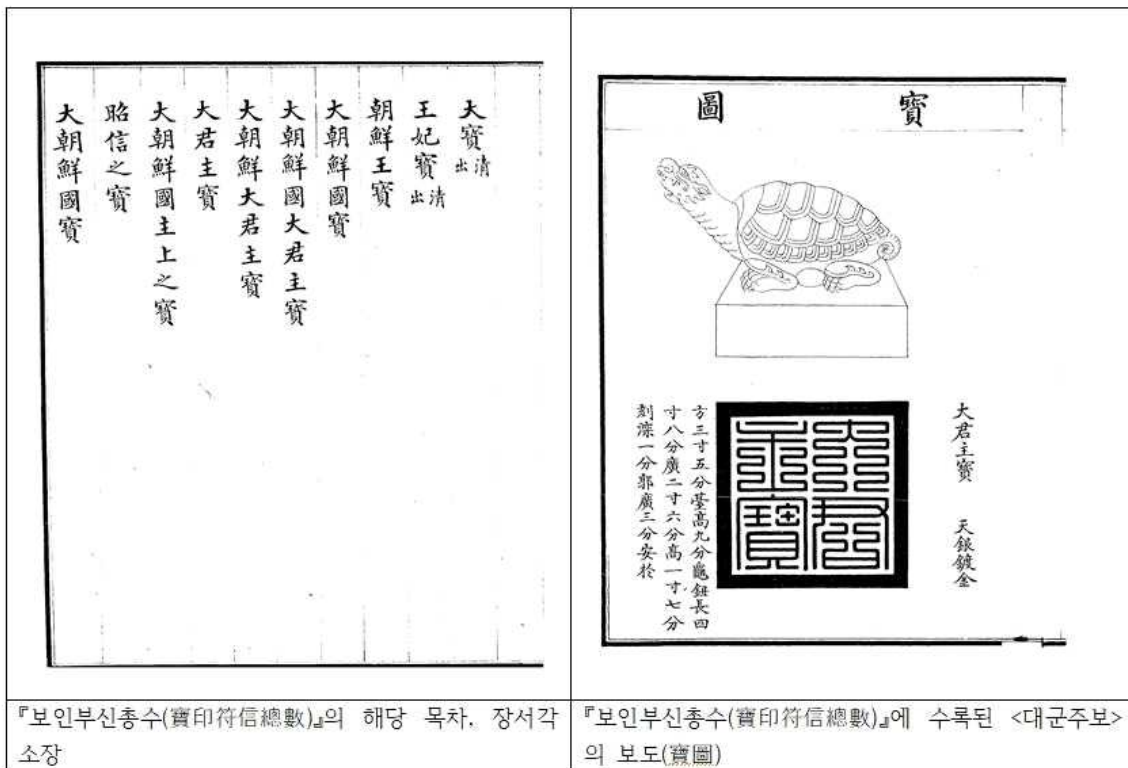
1894년 11월 21일에 반포 및 1896년 5월 8일 재반포된 <公文式>을 보면 제3조와 제12조 및 제19조에서 ‘어새(御璽)’와 ‘국새(國璽)’의 사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제3장 ‘인새(印璽)’에 관해, 제12조 국새와 어새는 궁내부 대신이 보관한다. 제13조 법률, 칙령은 친서 후에 어새를 날인한다. 제14조 조약의 비준서, 외국 파견 관리 위임

장, 각국 영사 증인 장에는 친서 후에 국새를 날인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국새와 어새는 주권국의 국왕 명의로 동등한 위상의 외국과 국서나 조약을 비준하는 등에 발급하는 문서에는 국새를 사용하고, 국내에 반포한 법률과 칙령 및 사령장에는 어새를 사용토록 하였다.

따라서 <대군주보>는 고종이 갑오경장기에 대외적으로 국가의 주권을 표시하는 용도로 국가간 비준이나 공식 문서에 자주독립국을 지향하는 ‘국새’로 사용하기 위해 1882년 7월 1일 무위영에서 제작했던 보인이다. 이후 1897년 10월 11일 고종이 원구단에서 황제위에 올라 나라를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고치고 국새도 <대한국새(大韓國璽)>로 바뀌었다. 이에 1899년 1월 고종황제는 이때부터 <대한국새>를 사용하면서 <대군주보>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그 존재도 알려지지 않은 채 국내에서 행방이 확인되지 않았다가 2020년 재미 교포가 기증을 하여 국내로 돌아왔다.

○ 유물수록 문헌

<대군주보(大君主寶)>의 도면[寶圖]과 제원은 장서각에 소장된 연대미상의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장3-56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에는 고종대에 제작하여 사용한 보인(寶印)과 부신(符信)의 총수를 망라하고 있다.



○ 유물의 재질과 제작 기법 :

『보인부신총수』에 의하면 <대군주보>는 천은 위에 도금[天銀鍍金]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해당 유물에 대해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과학적인 분석을 한 결과, 금 48.60%, 수은 13.28%, 은 38.12% 등이 검출되었다. 이를 통해 해당 유물의 바탕재는 98.92%에 해당되는 천은(天銀) 혹은 순은(純銀)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여기에서는 그 밖에 미량의 황이나 구리가 검출되었고, 납 성분이 엿보이고 특히 수은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문서에 기록된 대로 천은 위에 전통적인 수은아말감기법으로 도금한 것을 알 수 있다.

○ 유물의 크기

『보인부신총수』에 의하면 <대군주보>의 크기는 사방 3치 6푼, 받침대의 높이는 9푼이다. 뉴식은 거북뉴인데, 그 길이는 4치 8푼, 폭은 2치 6푼, 높이는 1치 7푼이다. 글자가 새겨진 보면의 글자 깊이는 1푼이고, 보곽의 넓이는 3푼이다. 이것을 실측하여 cm로 환산해보면, 사방 9.6cm, 받침대의 높이는 2.6cm이다. 거북뉴는 길이 12.7cm, 폭 7.7cm, 높이 6.2cm이다. 글자가 새겨진 깊이는 0.18cm, 보곽의 넓이는 0.8cm이다.

구분	크기		실측 치수 cm
사방 넓이[方]	方 三寸六分	3치 5푼	9.6×9.6cm
받침 높이[抬高]	臺 高 九分	9푼	2.6cm
뉴의 길이[紐長]	長 四寸八分	4치 8푼	12.7cm
뉴의 폭[紐廣]	廣 二寸六分	2치 6푼	7.7cm
높이[高]	高 一寸七分	1치 7푼	6.2cm
새김 깊이[刻深]	刻 深 一分	1푼	0.18cm
보곽 넓이[郭廣]	郭 廣 三分	3푼	0.8cm

표 136 보인부신총수에 의거한 치수와 실측치수(2021.4.1)

이것은 그보다 앞서 제작된 1878년 『보인소의궤』에 수록된 <대조선국주상지보>의 크기와 비교된다. 길이는 4치 2푼, 너비는 4치 1푼, 높이는 1치이다. 뉴식은 거북뉴인데, 그 길이는 4치 8푼, 폭은 2치, 높이는 1치 8푼이다. 글자가 새겨진 보면의 보곽의 넓이는 5푼이다. 양자는 세부적으로 약간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비슷하다.

○ 유물의 형태와 양식

1) 뉴식(紐式)

<대군주보>의 손잡이는 거북이형으로 이뤄진 귀뉴(龜紐)이다. 비록 전체 형상은 거북 형태이지만, 얼굴의 표현은 거북이 아닌 용머리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1866년 고종이 명성왕후 민씨를 왕비로 책봉할 때의 이보다 늦은 1890년에 문조와 신정왕후에게 존호를 올릴 때에 용문양의 얼굴로 변화되는 과도기적 양상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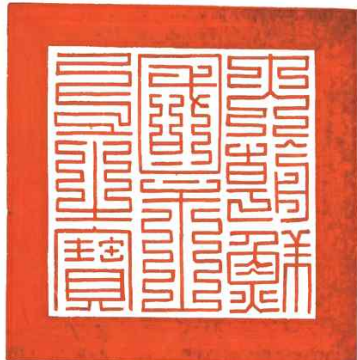

당시 이러한 거북 형태의 뉴식을 제작한 장인은 1851년부터 1897년까지 46년간 여러 도감에서 국역을 졌던 보장(寶匠) 전흥길(全興吉)이었을 것이다. 전흥길은 국역을 지던 초기에 보장으로서는 필수적인 기본 기능을 여러 도감에서 익혔다. 1851년에는 옥장으로서는 옥보의 거북 형상을 조각하였고, 1863년에는 천혈장으로서는 구멍을 뚫거나 부납장(付鑢匠)으로서 땀 작업을 익혔으며, 1864년에는 두석장으로서는 합금 기술을, 1865년 마경장으로서는 표면을 매끈하게 처리하게 되었다. 입문 후 14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기술을 습득한 후 1867년 순조와 순원왕후의 존호보를 제작할 때 드디어 금보장(金寶匠)으로 활동하여 도감역이 끝난 후 1등상을 받았다. 이후에도 다양한 장색에서 활동하면서 금보를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을 확장시킨다. 1872년 두석장으로서는, 1878년 철인왕후의 국장 때에는 시호보를 금보로 제작하는데, 이때 주목되는 것은 그가 거북형 뉴식을 제작하는 보장이면서 보면(寶面)의 전문(篆文)을 새기는 보소이장(寶召伊匠)으로도 동시에 활동한 점이다. 이후 1878년 보인소에서 11과의 보인을 제작할 때 보장이었고, 이후 1888년 문조나 신정왕후의 존호보, 1890년 숙종의 존호보 제작시 보장 겸 보소이장, 1890년 영조라는 묘호와 함께 ‘정문선무 희경현효(正文宣武 熙敬顯孝)’라는 시호를 올린 금보를 제작할 때 금보장, 1890년 문조에게 추상시호보 제작시 보장, 1890년 신정왕후 사후 국장시 휘호보, 1890년 문조와 신정왕후의 존호 금보 제작시 금보장, 1890년 숙종의 추상존호보를 제작할 당시에는 보장이면서 보면의 전문을 새기는 보소이장(寶召伊匠)으로 1등상을 받았고, 1892년 문조와 신정왕후의 가상존호시 금보장이었다. 1897년 대례시 대한제국의 금제 새보 7과를 제작할 때에도 보장이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1882년 당시 가장 뛰어난 금보 제작기술을 가졌던 장인은 전흥길이었기 때문에 그가 <대군주보>를 제작한 장인으로 여겨진다.

<영조 正文宣武 熙敬顯孝 金보> 1890년. 금보장 全興吉	영조금보의 보면, 1890년	문조존호보의 보면, 1890년
		
<문조 존호보>. 1890년. 금보장 全興吉	영조금보의 뒷면, 1890년	문조존호보의 뒷면, 1890년
		
1882년 <대군주보>	<영조존호보>. 1890년. 금보장 전 全興吉	<문조존호보>. 1890년. 금보장 전 全興吉

2) 서체(書體)

<대군주보>에서 글자가 새겨진 면은 보면(寶面)이다. 보면은 아름다운 서체와 비율로 예술적 가치를 갖는다. 보면에 글씨를 새기는 것은 19세기에는 ‘보전각(寶篆刻)’이라고 하였고, 이것을 새기는 장인은 ‘보각수(寶刻手)’나 ‘보전각장(寶篆刻匠)’이나 ‘보소이각수(寶召耳刻手)’ 및 ‘보조이장(寶雕伊匠)’이라고 부른다. 해당 보인을 제작할 당시의 전말을 기록한 의궤는 없지만, 1878년 『보인소의궤』부터 1890년 『영조묘호도감의궤』 및 1897년 『대례의궤』 때에도 7과의 금보를 제작할 때에도 대표적인 보장(寶匠)은 계속 전흥길(全興吉)이었다. 게다가 이미 1878년 철인왕후의 국장 때 시보를 금보로 제작할 때 거북형 뉴식을 제작하는 보장이면서 보면(寶面)의 전문(篆文)을 새기는 보소이장(寶召伊匠)으로도 동시에 가능하였다는 점에서 미루어 볼 때 이 유물의 제작에 그가 아닌 다른 장인을 생각하기 어려워, 그의 주도로 제작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조선시대 어보에 사용된 서체는 구첩전(九疊篆)이다. 이것은 첩전(疊篆)이나 상방대전(上方大篆, 尙方大篆)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첩전은 필획을 중첩하고 쌓아올려 보면을 가득 채우는 서체인데, 필획을 많이 중첩하는 것은 어보에 사용되는 특별한 서체라는 의미도 있을 뿐 아니라,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렇게 모든 글자마다 굴곡을 아홉 획으로 구부리는데, 아홉 ‘九’자는 양(陽)의 숫자이며, 하늘[天]의 덕(德)을 실행한다는 의미로 포함하고 있다.

		
<p>1882년 <대군주보>의 구첩전</p>	<p>1878년, 『보인소의괘』, <대조선국주상지보>의 구첩전</p>	<p>1897년 대한제국 <황제지보>의 소전체</p>

조선시대 내내 구첩전이 사용되다가, 대한제국으로 넘어오면 큰 변화를 보여 비교적 간명한 ‘소전(小篆)’으로 바뀐다. 소전은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승상 이사(李斯)로 하여금 만들었다는 글씨체로서, 문자가 균일하고 좌우대칭의 정제된 형태로 나타나 제왕의 냉엄한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다. 대한제국을 선포한 고종이 소전체로 바꾼 이유는 중국 최초로 중원을 통일하고 황제의 지위에 오른 진시황의 권위와 상징성을 담긴 서체를 차용해서 황제국의 위상을 ‘소전’체에 담아 대한

제국
새와
제지
에사
한것
로보
다.

국
황
보
용
의
인

		
<p><대군주보>, 1882년</p>	<p><대조선국주상지보>, 1878</p>	<p>영조의 묘호 개조, 1890</p>
		
<p><대군주보>의 보면</p>	<p><대조선국주상지보>의 보면</p>	<p><正文宣武 熙敬顯孝 太王之寶>의 보면</p>

○ <대군주보>의 사용례

원래 『경국대전』 이래 1894년까지 4품 이상의 품계에 오른 관원에게는 교지(敎旨) 양식의 임명문서를 작성하고 여기에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어서 발급하였다. 그러다 갑오개혁 이후에는 칙지(勅旨) 및 칙명(勅命) 양식의 문서양식으로 바뀌었고, 개화기의 공문식에 따라 칙임관에게 발급한 사령서, 전권대신의 임명문서, 법률, 칙령, 주문 등에 대군주의 서명이 있고, 그 아래에 <대군주보>를 찍어서 사용했다. 예를 들어 1895년에 대군주 명의로 어윤중에게 발급된 칙임관 사령서, 1896년 이남규에게 발급된 칙임관 사령서에는 당시 공문식에 부합되게 대군주의 서명이 있고, 그 아래에 <대군주보>가 찍혀 있다.



그밖에 1883년 6월 15일 민영목에게 발급한 문서 또한 붉은색 바탕의 종이에 대군주의 서명을 쓰고 <대군주보>를 찍은 것이다. 당시 독판교섭통상사무였던 민영목이 전권대신(全權大臣)으로서 각국과의 통상조약이나 일본과의 통상장정세칙을 체결하는 등의 임무를 맡긴다는 내용의 문서에도 사용되었다. 그밖에도 칙령과 조칙(詔勅) 등에서도 <대군주보>가 사용된 사례가 확인된다.



민영복을 전권대신으로 삼는 임명문서. 1883년

1894년 12월 7일 법무아문에서 올린 주본

○ 문헌자료

- 1) 『高宗太皇帝實錄』, 고종 19년(1882) 5월 23일 무신. “命交隣時國書所安之大君主寶與大朝鮮國大君主寶, 令本營戶曹造成。”
- 2) 『高宗太皇帝實錄』, 고종 19년(1882) 7월 1일 을유. “大君主寶、大朝鮮大君主寶、大朝鮮國大君主寶, 造成。”
- 3) 『승정원일기』, 고종 19년(1882) 5월 23일 무신. “以司謁口傳下教曰, 交隣時國書造成, 大君主寶與大朝鮮國大君主寶安寶, 而新造之節, 令本營·戶曹舉行, 同文司二堂上, 一體監董.”
- 4) 『일성록』, 고종 19년(1882) 5월 23일.
- 5) 『승정원일기』, 고종 19년(1882) 5월 24일 기유. “朴泳教, 以武衛營言啓曰, 大君主寶與大朝鮮國大君主寶新造之節, 令本營·戶曹舉行事, 命下矣。 造成吉日時, 令日官韓應翼推擇, 則今五月二十四日酉時爲吉云, 以此日時舉行, 何如? 傳曰, 允。”
- 6) 『승정원일기』, 고종 19년(1882) 7월 1일 을유. “戶曹啓曰, 大君主寶, 大朝鮮大君主寶, 大朝鮮國大君主寶, 今旣造成矣。 內入吉日時, 令日官韓應翼推擇, 則今月初二日巽時爲吉云。 以此日時, 舉行之意, 敢啓。 傳曰, 知道。”
- 7) 『보인부신총수』 (장서각 K3-566)

○ 기 타

본 유물은 1882년 7월 1일 제작되어 갑오개혁 이후 칙임관에게 발급한 사령서, 전권대신의 임명문서, 법률, 칙령, 주본 등에 대군주의 서명을 하고 그 아래에 <대군주보>를 찍어서 사용했다. 이후 봉모당에 봉안 중이었다가 한국전쟁기에 미국으로 불법 반출되었다. 보신(寶身) 뒤쪽에는 W.B.Tom이라는 음각이 있다. 재미교포 이대수가 1990년대 후반 경매를 통해 매입하고 소장하다가 2020년 2월 기증하여 국내로 환수되어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었다.

○ 참고문헌

『高宗太皇帝實錄』

『大禮儀軌』, 1897년, 규13486.

『寶印符信總數』, 장3-567.

『승정원일기』

『일성록』

국립고궁박물관,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 황실 어보』, 국립고궁박물관, 2019.

박성호, 「환수된 대군주보와 개화기의 국새 어새 제도」, 『고궁문화』13호, 국립고궁박물관, 2020.

성인근, 『국새와 어보』, 현암사, 2018.

장경희, 『의궤 속 조선의 장인』, 솔과학, 2013.



○ 규 격 : 보뉴 12×7×5cm, 보신 10×10×3cm, 높이 8cm

보인부신총수	크기	cm	비고
全高	三寸六分	8cm	전체 높이
方	三寸五分	10×10cm	보신 가로×세로
臺高	九分	2.6cm	보신 높이
龜鈕長	四寸八分	12cm	귀뉴 길이
廣	二寸六分	7cm	귀뉴 폭
高	一寸七分	5.3cm	귀뉴 높이
刻深	一分	1.8cm	글자 깊이
郭廣	三分	7cm	보곽 폭

○ 무 계 : 4,112g

○ 재 질 : 천은도금(天銀鍍金)

- 천은도금(天銀鍍金) : 『보인부신총수』의 기록에 의함)

- 도금층 : 금(Au)과 수은(Hg)이 검출되었으며, 도금층은 손상 상태에 따라 성분비 편차가 나타남

· 평균 금 48.60%, 수은 13.28%, 은 38.12% 등이 검출되었으며, 금, 수은의 검출로 보아 수은 아말감 기법으로 도금한 것으로 보임. 금, 수은 이외에 바탕금속 재료인 은이 검출되었으며, 이는 도금층이 얇아 바탕금속까지 투과되어 함께 검출된 것으로 추정

- 바탕금속 : 국새 「대군주보(大君主寶)」는 은(Ag) 등이 검출됨

· 은 98.92%, 그 외 황, 구리, 납 등이 미량으로 검출되었으며, 미량의 황, 구리,

- 납 등이 포함된 은 광석으로 제작한 것으로 보임
- 국새 「대군주보(大君主寶)」는 은으로 주조한 몸체에 수은 아말감 도금하여 제작됨
- 성분 분석 표

Wt(%)

위치	지점	황 (S)	구리 (Cu)	아연 (Zn)	은 (Ag)	납 (Pb)	금 (Au)	수은 (Hg)	Total
보뉴	도금층	N.D.	N.D.	N.D.	38.76	N.D.	47.45	13.79	100.00
	비탕금속	0.76	0.21	N.D.	98.66	0.37	N.D.	N.D.	100.00
보신	도금층	N.D.	N.D.	N.D.	37.49	N.D.	49.75	12.76	100.00
	비탕금속	N.D.	0.82	N.D.	99.18	N.D.	N.D.	N.D.	100.00

N.D.=Not Detected

- 형 식 : 귀뉴(龜鈕)
- 서 체 : 구첩전(九疊篆)
 - 글자 획을 여러 번 꾸부려서 쓴 서체
 - 구첩전은 국새와 어보에 사용하는 특별한 서체
 -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함
- 용 도 : 외교 및 고위 관원의 위임장, 사령장 등과 대군주의 명으로 반포되는 법률, 칙령 등에 사용
- 조성연대 : 1882년(고종 19) 7월 1일

○ 현 상

정사각형의 보신에 거북 모양의 손잡이를 접합한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접합시 거북 머리가 왼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형태로 제작되었다. 귀잡은 3겹으로 층이 지게 표현했다. 앞다리와 뒷다리 사이에는 구멍을 내고 인끈[綬]을 끼울 수 있도록 하였다. 얼굴엔 뽀족뽀족하게 도식화된 눈썹과, 전방을 응시하고 있는 눈엔 눈동자를 표현하였고, 입에는 가지런한 앞니와 총 2개의 뽀족한 송곳니를 표현하였으며 양 눈 옆으로 작은 홈을 내어 귀를 표현하였다. 거북머리는 치켜들고 있으며 목에는 마치 용처럼 복갑(腹甲)을 새겼으며, 꼬리는 휘말아 접어 좌측으로 붙였다.

○ 내용 및 특징

- 『고종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에 외교관련 업무를 위해 고종의 명에 따라 1882년에 제작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 갑오경장 전후하여 조선은 중국과의 사대관계를 끝내면서 종전의 책봉에 의한 국새 인수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국내에서 자체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한편 1876년(고종 13) 한일수호조약을 체결함에 따라 조선과 일본 사이 종래의 봉

- 건적인 통문관계(通文關係)를 폐지하고, 국제법적인 토대 위에서 외교관계를 성립하였다.
- 즉 기존의 중국에서 반사된 국새의 보문과 달라진 점은 '인(印)' 자에서 천자만이 쓸 수 있는 '보(寶)'자로 대체하였다.
 - 이전까지 조선은 명과 청에서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국새를 받아 사용했으나, 고종의 명으로 '대(大)조선국'의 '대군주(大君主)'라는 글씨를 새긴 「대군주보(大君主寶)」를 새롭게 만들어 사용하게 되었다. 이것은 고종이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1882년) 등의 당시 조선의 정세 변화에 발맞추어 중국 중심의 사대적 외교관계를 청산하고 독립된 주권국가로의 전환을 꾀한 것이다.
 - 「대군주보(大君主寶)」의 공식적인 사용 시기는 1882년 제작 이후 1897년까지로 파악되었으며, 외국과의 통상조약 업무를 담당하는 전권대신(全權大臣)을 임명하는 문서(1883년)에 실제 날인된 예를 확인된다.
 - 1894년 갑오개혁 이후에 새롭게 제정된 공문서 제도를 바탕으로 대군주(국왕)의 명의로 반포되는 법률, 칙령(勅令), 조칙(詔勅)과 관료의 임명문서 등에 사용한 사실도 확인된다.
 - 이 시기 외교용 국새의 제작에 대한 기록으로 1881년 고종은 “기존에 신사(信使)가 가지고 가는 국서(國書)에 「위정이덕(爲政以德)」 보를 쓰지 말고 「대조선국보(大朝鮮國寶)」를 제작하여 쓰라”는 명령을 내렸고, 1889년에는 「대조선국보(大朝鮮國寶)」, 「준명지보(濬明之寶)」, 「동문지보(同文之寶)」, 「흠문지보(欽文之寶)」, 「명덕지보(命德之寶)」, 「광운지보(廣運之寶)」를 새로 제작하였다. 이로써 1894년 갑오개혁이 있기 이전에 이미 일본관련 국서에 사용할 국새를 자체 제작하였음을 볼 수 있다. 갑오개혁을 즈음하여 조선에서는 「대조선국보」 외에 「대조선국대군주보(大朝鮮國大君主寶)」(1882. 7. 1 제작), 「대군주보(大君主寶)」(1882. 7. 1 제작), 「대조선국주상지보(大朝鮮國主上之寶)」(1876. 12. 15 제작)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 「대군주보(大君主寶)」는 갑오개혁을 전후한 국제정세의 변화와 이에 대한 조선의 대응방식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유물이며 서체, 뉴식, 재직, 주물방식 등 대한제국 이전의 고종 대 국새 제작방식이 담겨진 유물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 보신 뒷편에 W.B.Tom이라고 음각되어 있다.

○ 문헌자료

- 『훈유흠차주차관철(訓諭欽差駐筭官綴)』 : 대한제국 시기(1887~1905年, 高宗 24~光武 9) 고종 황제가 외국 주차관(駐筭官)에 조선인 관원을 임명하며 내린 임명장과 위임장, 신임장 등을 모아놓은 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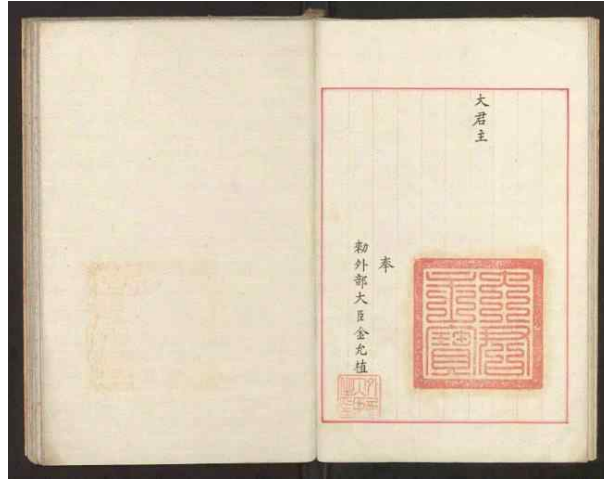


그림1. 훈유흠차주차관철(訓諭欽差駐筭官綴)에 수록된 대군주보

-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 : 대한제국 황실의 공용(公用)의 보인(寶印)과 부신(符信)을 그림과 함께 설명한 책. 1900년에서 1907년 사이에 편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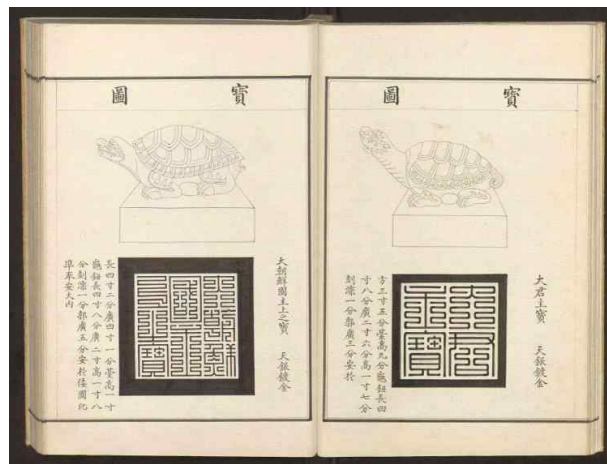


그림2. 좌측 : 대조선국주상지보, 우측 : 대군주보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고종실록』 19권, 고종 19년(1882) 5월 23일 무신
『고종실록』 19권, 고종 19년(1882) 7월 1일 을유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탈초본 133책) 고종 19년(1882) 5월 23일 무신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탈초본 133책) 고종 19년(1882) 5월 24일 기유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탈초본 134책) 고종 19년(1882) 7월 1일 을유

- 『일성록(日省錄)』

『일성록(日省錄)』 고종 5월 23일 무신

○ 국새 「대군주보(大君主寶)」 날인 문서 : 고위 관원의 위임장, 사령장 등과 대군주의 명으로 반포되는 법률, 칙령 등에 사용되었음을 현존하는 안보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3. 일본과의 통상장정세칙체결 및 비준교환에 대한 국왕의 전권위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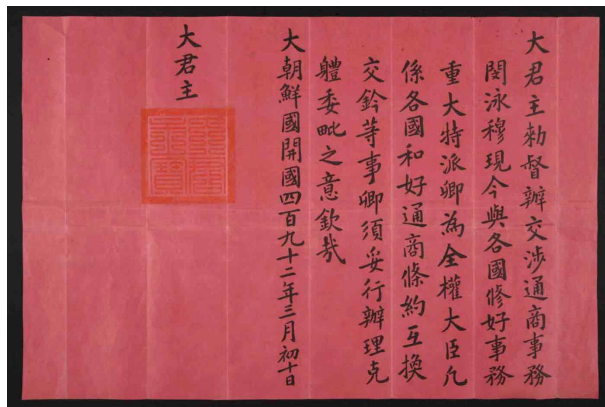


그림4. 1883년 민영목을 각국과 수호(修好)사무를 위해 특파하면서 전권대신으로서의 권한을 위임하는 문서. <규장각 소장>



그림5. 개항장 재판소와 지방재판소 개설을 재가.
1895년 윤5월 10일 칙령, <규장각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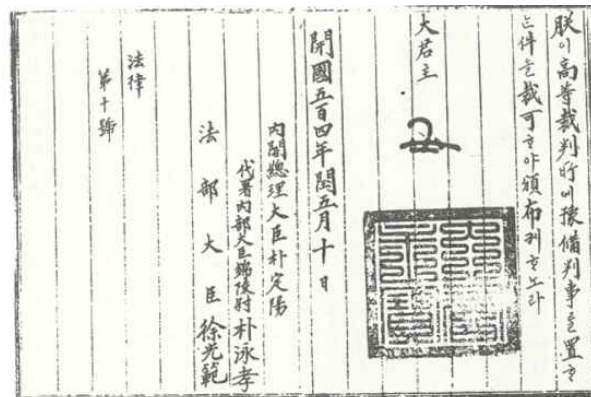


그림6. 고등재판소에 예비판사를 두는 건을 재가.
1895년 윤5월 10일 법률, <규장각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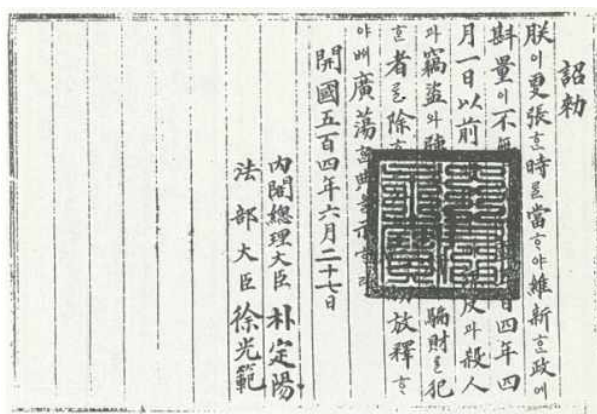


그림7. 1895년 4월 1일 이전의 범죄 가운데 모반, 살인, 절도, 강도, 강간, 재물에 대한 사기죄를 범한 자 외에는 일체 석방한다는 조칙. <1895년 6월 27일 조칙, 규장각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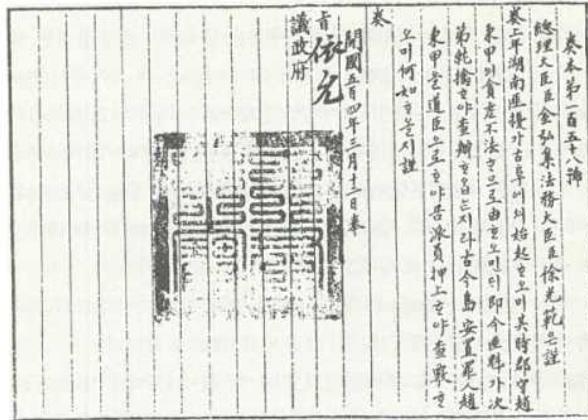


그림8. 총리대신 김홍집과 법무대신 서광범이 유배중인 조병갑을 압송하여 조사할 것을 고종에게 요청한 주본. <1895년 3월 12일 주본(奏本), 규장각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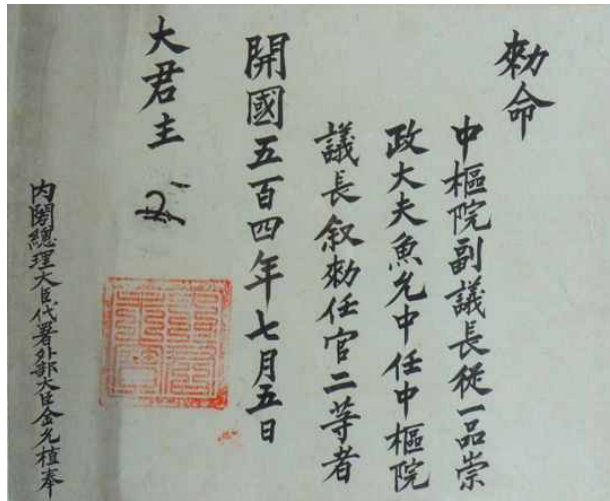


그림9. 1895년 어윤중 칙명, <규장각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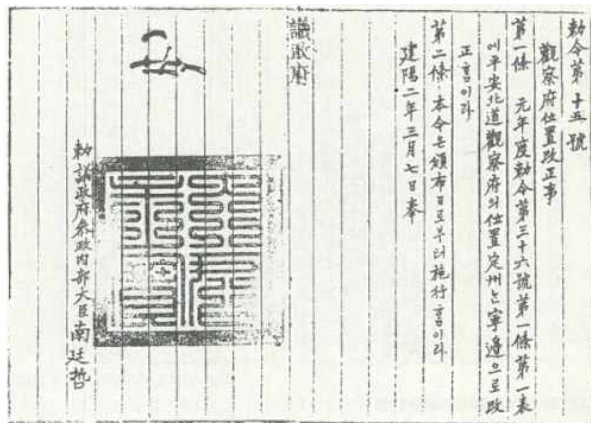


그림10. 1897년 3월 7일 칙령, <규장각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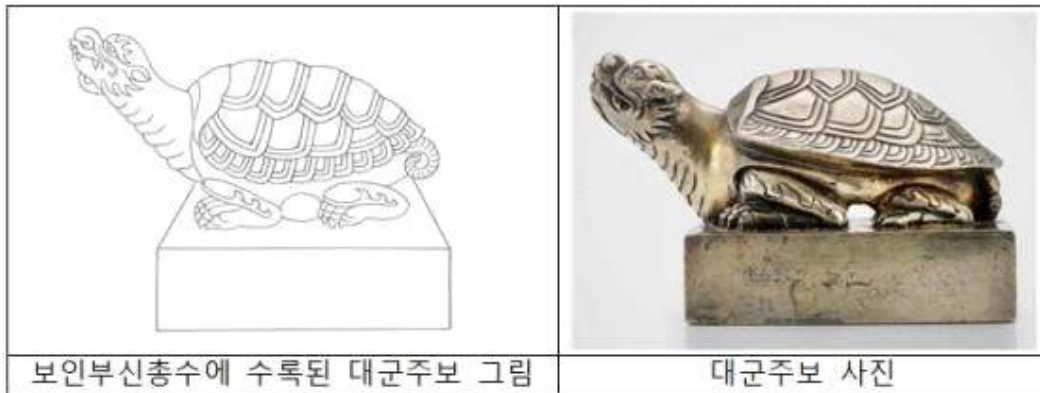


그림11. 평안북도 관찰부 위치 개정에 관한 칙령.
1848년(헌종 14, 무신)의 내용임.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 기 타

- 1877년(고종 13) 일본과 강화 수호조약을 체결할 시,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 으로서는 외국에 대한 체면이 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새로 「대조선국 주상지보(大朝鮮國主上之寶)」 라는 국새를 주조(鑄造)하여 사용하였다. 이후 서양의 여러 나라와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되자 「대조선국보(大朝鮮國寶)」, 「대조선국대군주보(大朝鮮國大君主寶)」, 「대군주보(大君主寶)」 등의 국새를 제작하여 병용(併用) 하였다.
- 1897년 대한제국(大韓帝國)을 수립하면서 황제국에 걸맞은 새로운 국새를 제작하였는데, 이때 제작한 국새는 「대한국새(大韓國璽)」, 「황제지새(皇帝之璽)」, 「황제지보(皇帝之寶)」(3과), 「제고지보(制誥之寶)」, 「칙명지보(勅命之寶)」(2과), 「흠문지새(欽文之璽)」, 「대원수보(大元帥寶)」 등 총 10과이다.
- 개화기에 제작하여 이후 봉모당에 봉안 중이던 이 국새는 한국전쟁기에 미국으로 불법 반출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국새 「대군주보(大君主寶)」 는 재미교포인 이대수씨가 기증한 것이다. 기증자인 재미교포 이대수씨는 1960년대 미국으로 유학 후 졸업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문화재에 관심이 많아 틈틈이 경매 등을 통해 문화재들을 매입하던 중 1990년대 후반에 이 유물을 매입하였고, 최근 국새·어보가 대한민국 정부의 소중한 재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고국에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기증을 결심하였다고 한다.

○ 국새 「대군주보(大君主寶)」 사진



□

○ 규 격

<실 측 치>

유물 번호	-	제작시기	1882. 7. 1
보문내용	대군주보(大君主寶)	글자수/행	4자/ 2행
분류	국새	재질	은에 수은 아말감 금도금
무게	4,112g	크기(전체높이)	79.67
보신 크기 가로*세로*높이	95.71*96.60*26.37	보뉴 크기 가로*세로*높이	127.32*72.84*53.30
보곽 폭	7.71~8.08	보문 두께	2.53
보문 깊이	1.83	귀갑문	13개

보뉴 형태	귀뉴(龜鈕)	보뉴 문양	귀갑문
귀뉴 형태	용(龍)	정수리	-
목주름	8개	녹각(鹿角)	-
귀(耳)	있음	아미(蛾眉)	3개 있음
눈(龍眼)	동그랑게	코(龍鼻)	여의두형
이빨(齒)	앞니3/ 송곳니2/ 어금니2	용염(龍鬚)	있음
서기(瑞氣)	있음	용주(龍珠)	-
용린(龍鱗)	있음	꼬리(尾)	좌향 1미
발톱(龍爪)	앞 5 / 뒤 3	상하엽(上荷葉)	있음/ 앞 1 뒤0
인문서체		인문형태	양각, 방인
제작방법			

『보인부신총수』 기재 크기

	크기	cm	비고
全高	三寸六分	8cm	전체 높이
方	三寸五分	10×10cm	보신 가로×세로
臺高	九分	2.6cm	보신 높이
龜鈕長	四寸八分	12cm	귀뉴 길이
廣	二寸六分	7cm	귀뉴 폭
高	一寸七分	5.3cm	귀뉴 높이
刻深	一分	1.8cm	글자 깊이
郭廣	三分	7cm	보곽 폭

○ 내용 및 특징

1882년(고종 19) 7월 1일 완성한 국새이다. 개화기에 국명과 국왕의 호칭으로 제작, 사용한 여섯 과의 국새 가운데 유일하게 발견된 사례이다. 『보인부신총수』에 기재된 국새의 재질과 크기, 보면, 뉴의 도설 등이 모두 일치하여 진품으로 확인된다.

개화기 국새의 종류와 형태사항

No	보명	뉴식	재질	서체	완성시기	현존
1	大朝鮮國主上之寶	龜鈕	天銀鍍金	疊篆	1876. 12. 15	×
2	大朝鮮國寶	龜鈕	天銀鍍金	疊篆	1881. 7. 27 이후	×
3	大朝鮮國大君主寶	龜鈕	天銀鍍金	小篆	1882. 7. 1	×
4	大朝鮮大君主寶	龜鈕	天銀鍍金	小篆	미상	×
5	大君主寶	龜鈕	天銀鍍金	疊篆(9疊)	1882. 7. 1	○
6	大朝鮮國寶	龜鈕	天銀鍍金	疊篆	1889. 8. 5 이후	×

1) 제작경위

갑오경장을 전후하여 조선은 중국과의 사대관계를 끝내면서 종전의 책봉에 의한 국새인수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국내에서 자체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한편 1876년(고종 13) 한일수호조약을 체결함에 따라 조선과 일본 사이 종래의 봉건적인 통문관계(通文關係)를 폐지하고, 국제법적인 토대 위에서 외교관계를 성립하였다.

이 시기 외교용 국새의 제작에 대한 기록으로 1881년 고종은 “기존에 신사(信使)가 가지고 가는 국서(國書)에 「위정이덕(爲政以德)」 보를 쓰지 말고 「대조선국보(大朝鮮國寶)」를 제작하여 쓰라”는 명령을 내렸고, 8년 후인 1889년에는 「대조선국보(大朝鮮國寶)」를 포함하여 「준명지보(濬明之寶)」, 「동문지보(同文之寶)」, 「흠문지보(欽文之寶)」, 「명덕지보(命德之寶)」, 「광운지보(廣運之寶)」를 새로 제작하였다. 이로써 1894년 갑오개혁이 있기 이전에 이미 일본관련 국서에 사용할 국새를 자체 제작하였음을 볼 수 있다. 갑오개혁을 즈음하여 조선에서는 「대조선국보」 외에 「대조선국대군주보(大朝鮮國大君主寶)」(1882. 7. 1 제작), 「대군주보(大君主寶)」(1882. 7. 1 제작), 「대조선국주상지보(大朝鮮國主上之寶)」(1876. 12. 15 제작)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2) 인문의 ‘대군주’

1895년 1월 7일부터 1897년 10월 12일까지 사용한 조선국왕의 칭호는 대군주(大君主)였다. 1894년 7월 조선은 개국기년(開國紀年)을 선포하여 기존에 대외적으로 썼던 청나라의 연호나 국내에서 사용해 왔던 명나라의 숭정연호를 대신하여 중국의 왕조에 종속되지 않은 완전한 자주국임을 나타내려 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1895년(고종 30) 1월 7일 ‘홍범 14조(洪範十四條)’를 발표하면서 중국과의 종·번(宗藩) 관계를 끝낸다고 선포하고 ‘대군주’라는 칭호를 쓰게 되었다. 이로써 국왕과 관계된 각종 격식을 제후왕이 아닌 황제에 준하는 것으로 바꾸되 칭호만 황제보다 낮은 형태가 된 셈이었다. 대군주 칭호의 도입과 더불어 ‘대군주 폐하’, ‘왕태후 폐하’, ‘왕후 폐하’, ‘왕태자 전하’, ‘왕태자비 전하’ 같은 칭호와 호칭이 도입되었다(『고종실록』 권32, 31년, 12월 17일). 또 ‘전문(箋文)’은 ‘표문(表文)’으로 격상됐고, ‘과인(寡人)’은 ‘짐(朕)’으로, 대군주의 명령은 황제와 마찬가지로 ‘칙(勅·敕)’이라고 부르게 하였다.

3) 서 체

인문은 2항 2자로 포치하였고, 서체는 구첩전(九疊篆)이다. 모든 글자는 가로획의 수가 9가 되게끔 의도적으로 구성하였다. 구첩전은 인전(印篆)의 한 형태로 필획이 중첩되고, 분포가 균일하여 마치 벽돌을 쌓아 올린 듯 한 서체를 말한다. 필획을 많이 중첩한 경우 10첩 이상인 경우도 있다. 국새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송

대로부터 시작하여 원 대에 성행했으며 모두가 주문(朱文)이다. 구첩전은 국새와 어보에 사용하는 특별한 서체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한다. 명대인(明代人)은 “우리나라의 모든 인장은 매 글자마다 전서의 굴곡이 아홉 획이며 이는 바로 ‘건원용구(乾元用九)’의 뜻”이라 하였다. 또한 중국 현대의 학자는 새보와 관인에서 ‘건원용구’의 의미를 차용함에 대해 ‘건원(乾元)은 천(天)의 덕(德)이며 구(九)는 양(陽)의 수로 천(天)의 덕(德)이니, 곧 하늘의 덕을 사용함, 즉 인장을 통해 천덕(天德)을 실행한다는 의미’로 해석했다(沙孟海, 『印學史』, 西泠印社, 1987). 병자호란 이전 명나라로부터 받은 조선의 국새를 포함해 세종대 정비된 대부분의 대내용 국새 또한 9첩을 정확히 지키고 있다. ‘대군주보’를 포함한 조선 새보의 글자가 의도적으로 9획을 사용한 이유도 바로 구첩전에 포함된 ‘건원용구’의 의미를 인장에 함축한 것이었다. 이는 고궁의 건축물과 꽃담 등에 있는 길상문의 서체가 대부분 구첩전인 점과 상통하는 현상이다.

4) 재 질

국립고궁박물관 비파괴 성분분석(2020년 2월 4일~2월 10일) 결과를 아래에 제시한다.

- 도금층 : 금(Au)과 수은(Hg)이 검출되었으며, 도금층은 손상 상태에 따라 성분비 편차가 나타남.

· 평균 금 48.60%, 수은 13.28%, 은 38.12% 등이 검출되었으며, 금, 수은의 검출로 보아 수은 아말감 기법으로 도금한 것으로 보임. 금, 수은 이외에 바탕금속 재료인 은이 검출되었으며, 이는 도금층이 얇아 바탕금속까지 투과되어 함께 검출된 것으로 추정.

- 바탕금속 : 국새 대군주보는 은(Ag) 등이 검출됨.

· 은 98.92%, 그 외 황, 구리, 납 등이 미량으로 검출되었으며, 미량의 황, 구리, 납 등이 포함된 은 광석으로 제작한 것으로 보임.

- 국새 대군주보는 은으로 주조한 몸체에 수은 아말감 도금하여 제작됨

- 아래는 성분 분석표임

Wt(%)

위치	지점	황 (S)	구리 (Cu)	아연 (Zn)	은 (Ag)	납 (Pb)	금 (Au)	수은 (Hg)	Total
보뉴	도금층	N.D.	N.D.	N.D.	38.76	N.D.	47.45	13.79	100.00
	비탕금속	0.76	0.21	N.D.	98.66	0.37	N.D.	N.D.	100.00
보신	도금층	N.D.	N.D.	N.D.	37.49	N.D.	49.75	12.76	100.00
	비탕금속	N.D.	0.82	N.D.	99.18	N.D.	N.D.	N.D.	100.00

N.D.=Not Detected

5) 안보문서(安寶文書)

『훈유흠차주차관철』(訓諭欽差駐筭官綴: 대한제국 시기(1887~1905) 고종 황제가 외국 주차관(駐筭官)에 조선인 관원을 임명하며 내린 임명장과 위임장, 신임장 등을 모아놓은 문서철) 등 장서각과 규장각에 다수의 문서가 있다. 주로 고위 관원의 위임장, 사령장 등과 대군주의 명으로 반포되는 법률, 칙령 등에 사용되었음을 현존하는 안보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 유물의 이동경위

개화기에 제작하여 이후 봉모당에 봉안 중이던 이 국새는 한국전쟁기에 미국으로 불법 반출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보신(寶身) 뒷편에 W.B.Tom이라고 음각되어 있는데, 반출자, 혹은 뒤의 소장자가 기념품으로 인식하여 자신의 사인을 새겨놓은 흔적이다. 이후 2020년 2월 재미교포 이대수씨의 기증에 의해 국내로 환수되었다. 기증자는 1960년대 미국으로 유학 후 졸업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문화재에 관심이 많아 틈틈이 경매 등을 통해 문화재들을 매입하던 중 1990년대 후반에 이 유물을 매입하였고, 최근 국새·어보가 대한민국 정부의 소중한 재산이라는 점을 알게 되어 고국에 돌려보내는 편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기증을 결심하였다.

○참고문헌

『고종실록』 18년 윤7월 27일

『고종실록』 19년 7월 1일

『고종실록』 26년 8월 5일

『고종실록』 31년 12월 17일

『보인부신총수』(장서각 K3-05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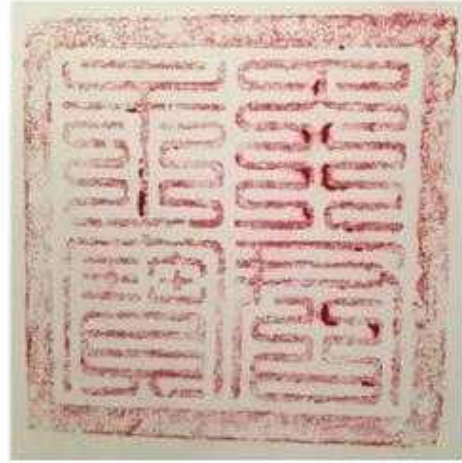
성인근, 『한국인장사』, 다운샘, 2013.

성인근, 『국새와어보-왕권과 왕실의 상징』, 현암사, 2018.

유물 사진



보면(寶面)



보영(寶影)



측면(側面)



전면(前面)

12. 국새 제고지보 (國璽 制誥之寶)

가. 검토사항

‘국새 제고지보’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립고궁박물관장이 보물 지정 신청한 ‘국새 대군주보’와 관련하여, 동종문화재 비교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국새 제고지보’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조사(‘21.2.23.)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 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국새 제고지보(國璽 制誥之寶)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재지 : 전라북도 전주시 싑고개로 249, 국립전주박물관
- 수 량 : 1과
- 규 격 : 전체 높이: 8.69cm, 무게: 5.85kg
보신(寶身) 크기: 11.13×11.13×2.16cm, 보鈕(寶鈕) 크기: 3.11~3.07×9.59×6.53cm
- 재 질 : 은(수은 아말감 도금)
- 용 도 : 고급관리(책임관) 임명(勅任官勅旨)
- 형 식 : 용鈕(龍鈕)가 달린 정방형 인장
- 조성연대 : 1897년(광무 1) 9월 19일
- 환수시기 : 1946년 8월 15일 미군정이 총무처에 인계
1954년 6월 28일 총무처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이관



<국새 제고지보>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제고지보(制誥之寶)는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로서 등극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대한제국의 국새 10과 중 하나로 1897년 9월 19일에 보장(寶匠) 전홍길 등에 의해 제작되었다. 첫째 이 유물을 제작한 과정의 전말은 『대례의궤(大禮儀軌)』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책보조성소’에서 도제조 심순택의 책임 아래 전문(篆文)서사관 홍문관학사 민병석(閔丙奭)이 글씨에 의해 보장을 비롯한 다수의 각색 장인들이 10일 동안 제작한 원형이면서 그것의 제작 일시와 제작자 및 제작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물이 가진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둘째, 『대례의궤』와 대한제국의 국새 일괄에 대한 목록이 수록된 『보인부신총수』에 <제고지보>의 형태와 재료 및 치수 등의 도설이 수록되어 있고, 이 유물이 대한제국 황제의 상징물로서 문서에 찍혀 실제 사용된 관고들까지 다수 현존하여 대한제국 국새로서 학술적인 가치도 우수하다. 셋째 본 유물은 대한제국 국새로서 조선 왕실의 보인들과 형식적으로 비교된다는 점이다. 조선왕실의 보인이 거북형 귀뉴인데 비해 대한제국 국새로서 용모양의 용뉴인 점, 용뉴의 받침대인 유대(鈕臺)를 마련하고 있는 점, 보면(寶面)의 사방 크기가 조선 보인이 3치 5푼 내외인데 비해 대한제국 새보로서 4치 1푼 [11.1x11.1cm] 정도로 약간 커진 점, 보면의 글씨체가 조선 보인의 구첩전문에서 대한제국 새보는 소전(小篆)으로 바뀐 점 등 여러 면에서 대한제국의 조형적 특징도 잘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제고지보>는 대한제국의 국새로서 그것을 제작하기 위한 전말을 문헌을 통해 파악할 수 있고, 제작 날짜와 제작 장인을 파악할 수 있는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국새로서 원형을 온전하게 확인할 수 있어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 (지정 가치 있음)

1) 문화재 가치

국새 「제고지보(制誥之寶)」는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을 수립하고 제작한 10과의 국새 가운데 하나이다. 대한제국이 제작한 국새는 국가의 운명과 함께 여러 수난을 겪었다. 국새 「제고지보(制誥之寶)」는 대한제국기 고종의 황권강화에 대한 의지와, 외세변화의 상황에서 고급관리[책임관] 임명(勅任官勅旨) 등에 사용되었음을 날인된 문서를 통해 밝혀진 역사적 유물이다. 예술적으로도 공예기술, 서체, 전각방면에서도 당대 최고 수준의 문화역량을 담은 것으로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높다.

2) 문화재 상태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에 「제고지보(制誥之寶)」 도식이 수록되어 있어 실물과 비교해 보았을 때 국새 형태의 구성요소를 제대로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새의 재질과 크기, 보문에 새겨진 글자 등 보존상태 또한 양호한 편으로 판단된다.

3) 제작연대

고종은 대한제국을 수립하면서 황제의 나라에 걸맞은 새로운 국새를 제작하였다. 이때 제작한 국새는 ‘대한국새(大韓國璽)’, ‘황제지새(皇帝之璽)’, ‘황제지보(皇帝之寶)’ 3과, ‘칙명지보(勅命之寶)’ 2과, ‘제고지보(制誥之寶)’, ‘대원수보(大元帥寶)’, ‘흠문지새(欽文之璽)로 총 10과이다. 이 가운데 ‘대한국새’는 외교 문서에 사용하고, 다른 인장들은 모두 국내용 국왕 문서에 사용한 국새이다.

이때 제작된 국새를 살펴보면 우선 1과를 제외한 모든 손잡이가 거북에서 용으로 바뀌었고, 보문은 ‘인(印)’에서 ‘새(璽)’와 ‘보(寶)’자로 대체하였다. 서체도 복잡한 첩전(疊篆) 위주에서 대부분 간명한 소전(小篆)으로 바뀌었다. 「제고지보(制誥之寶)」는 정1품~종2품에 해당하는 책임관(勅任官)에게 칙지(勅旨)를 내릴 때 찍은 국새이다.

연번	보명	뉴식	재질	서체	제작시기	사용처
1	大韓國璽	龍鈕	天銀鍍金	疊篆(9疊)	1897. 9. 19	國書
2	皇帝之璽	龍鈕	天銀鍍金	疊篆(9疊)	1897. 9. 19	勳記
3	皇帝之寶	龍鈕	天銀鍍金	小篆	1887. 9. 17	親任官勅旨
4	皇帝之寶	龍鈕	玉	小篆	1897. 9. 19	親任官勅旨
5	皇帝之寶	龜鈕	玉	小篆	1897. 9. 19	親任官勅旨
6	制誥之寶	龍鈕	純金鍍金	小篆	1897. 9. 19	勅任官勅旨
7	勅命之寶	龍鈕	純金鍍金	小篆	1897. 9. 19	奏任官勅旨
8	勅命之寶	龍鈕	天銀鍍金	小篆	1897. 9. 20	加資陞六勅旨, 詔勅
9	欽文之璽	龍鈕	天銀鍍金	小篆	미상	御製鈐識, 頒賜書籍
10	大元帥寶	龍鈕	天銀鍍金	小篆	1899. 6. 22	軍令

4) 희소성

국새 「제고지보(制誥之寶)」는 전해지는 문헌상으로 검증되었고, 양식적으로나 사용된 사례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형태·기법·재료 등의 측면에서 유사한 가치와 희소성을 지닌 대표적인 국새로 판단된다.

5) 명확성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에 수록된 국새 「제고지보(制誥之寶)」의 기록 내용인 재질과 크기, 보면, 뉴의 도설 등이 모두 일치하여 진품으로 명확하게 증명된다. 특히 국새 「제고지보(制誥之寶)」의 사용 용도를 살펴보았을 경우에 특히 관원 임명문서의 경우 1894년까지는 조선시대 법제에 따라 4품 이상 관원에게는 '교지(教旨)' 양식의 문서에 「시명지보(施命之寶)」가 사용되었고, 갑오개혁 이후 '칙명(勅命)' 양식의 임명문서에, 「대군주보(大君主寶)」가 한시적으로 사용되었다가 대한제국기에는 '칙명' 양식의 임명문서에 「제고지보(制誥之寶)」나 「칙명지보(勅命之寶)」가 관원의 품에 따라 구분되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6) 특이성

국새 「제고지보(制誥之寶)」는 서체, 뉴식, 재질, 주물방식 등 대한제국 이전의 고종 대 국새 제작방식이 담겨진 현재로서는 유일한 유물이라는 점에서 특이성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사(國事)에 사용하던 국새(國璽)·어새(御璽)로서 현존하는 것은 극히 소수이다. 그중 이 「제고지보(制誥之寶)」는 대형이며, 보존상태도 양호하고, 국새 제작의 전형(典型)을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

이상과 같이 국새 「제고지보(制誥之寶)」는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내용 등을 종합하였을 때 문화재로서의 지정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을 수립하고 제작한 10과의 국새 가운데 하나이다. 대한제국이 제작한 국새는 국가의 운명과 함께 여러 수난을 겪었고, 현존하는 국새는 4과에 불과하다. 「제고지보」는 대한제국은 물론 고종을 위시한 황실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유물이며, 공예, 서체, 전각 방면에서도 당대 최고 수준의 문화역량을 담은 문화재이다.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함이 마땅하며, 향후 미확인된 대한제국 국새의 발견을 위한 근거자료로서의 가치도 가진다.

마. 의결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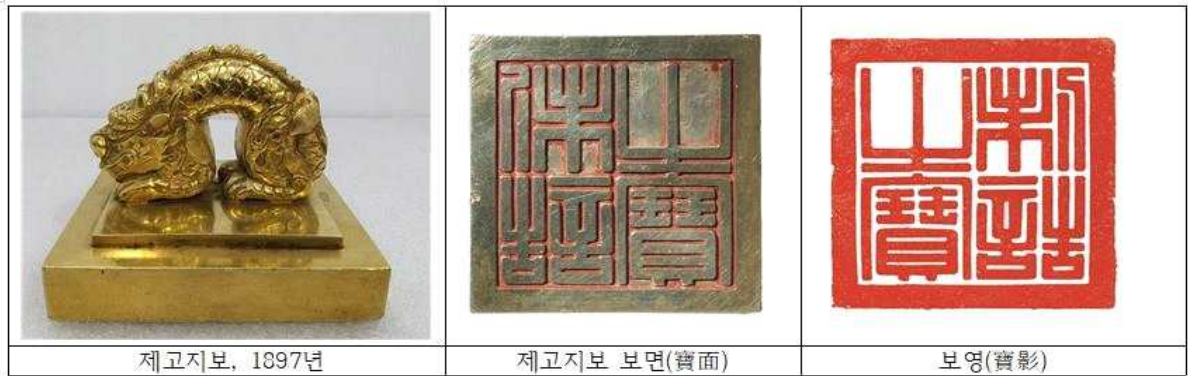
- 원안가결: 보물로 지정예고함.

조사보고서



○ 형 식

제고지보(制誥之寶)는 용모양의 손잡이[龍紐]와 그 받침대인 유대(鈕臺)를 마련하고 그 아래에 보신이 위치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신 아래쪽 보면(寶面)은 11.1x11.1cm이고, 전체 높이는 8.6cm에 보뉴는 3.2x9.9cm의 크기이고, 무게는 5.85kg이다. 재료는 순은 재질에 도금을 했고, 보면에는 전문서사관 홍문관학사 민병석(閔丙奭)이 소전(小篆)의 간명한 글씨로 쓴 ‘制誥之寶’를 1897년 9월 9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보장(寶匠) 전흥길(全興吉) 등 다수의 장인에 의해 제작되었다. 이 유물의 제작과정은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로서 등극하는 과정을 기록한 『대례의궤(大禮儀軌)』를 통해 대한제국의 국새로서 제작 일시와 제작 장소, 제작을 하기 위한 관리조직, 보전문의 서사관과 장인 및 재료 등 제작 전반에 대한 전말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이후 대한제국의 국새 전반의 현황을 기록한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를 통해 그것의 채원과 실제 사용례를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이다.



○ 조성연대 : 1897년 9월 19일

○ 유물의 제작 배경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한 고종이 10월 12월(음력 9월 17일) 원구단에 제사를 드리고 황제로 즉위하는 행사가 대례(大禮)이다. 이 때의 전말을 기록한 『대례의궤(大禮儀軌)』에는 대한제국의 황제를 상징하는 책보의 조성과정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1897년 9월 25일(음력 8월 29일) 농상공부협랑 권재형이 소를 올려 황제를 칭하고 자주할 것을 상소하였다. 이후 9월 26일부터 10월 3일까지 조정대신 등이 황제의 자리에 오를 것을 상소하였다. 그러나 고종은 가당치 않다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며 이러한 상소를 물리쳤다가 결국 10월 3일 윤허하였다. 마지못해 황제위에 오른 듯하지만, 이미 1895년 윤5월 20일부터 칙령으로 원구단을 건설 중이었고, 국새 또한 10일 만에 완성되었다.

보새(寶璽)를 제작하기 위한 책보조성소는 태복사(太僕司)에 설치하였고, 총책임자인 도제조는 의정부 의정 심순택(沈舜澤), 제조 3인은 궁내부 대신 민영규(閔泳奎), 장례원 경 김영수(金永壽), 농상공부 대신 정낙용(鄭洛鎔)이었다.

보새를 제작하는 시역은 1897년 9월 9일(양력 10월 3일)에 하였으며, 9월 13일에는 총10과의 보문(寶文)을 죽청지에 죽제비붓에 참먹으로 정서하여 대내에 들였다. 당시 보새 전문서사관(篆文書寫官)은 홍문관학사 민병석(閔丙奭)이었고, 그가 <대한국새(大韓國璽)>, <황제지새(皇帝之璽)>, <황제지보(皇帝之寶)>, <칙명지보(勅命之寶)>, <제고지보(制誥之寶)>, <시명지보(施命之寶)>, <명헌태후지보(明憲太后之寶)>, <황후지보(皇后之寶)>, <황태자보(皇太子寶)>, <황태자비지보(皇太子妃之寶)>를 간일하면서도 명확한 소전체로 썼다. 이중 옥보 3점은 옥보로 제작하였기 때문에 금보는 총7과였다.

9월 17일에는 <황제지보(옥보)>를 비롯하여 <황후지보>, <황태자보>, <황태자비지보>를 먼저 만들어 채여에 싣고 태극전(太極殿)에 바치고 즉위의례를 거행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대한국새>를 비롯한 나머지 보새는 9월 19일에 완성되어

대내에 들었다. 1898년 윤3월 2일에는 은제의 작은 <칙명지보>와 <시명지보>를 추가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 유물의 재료

『대례의궤』에 의하면 <제고지보>의 ‘제고(制誥)’라는 뜻은 ‘황제의 명령’을 뜻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선왕실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황제를 칭한 대한제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국새이다. <제고지보>는 ‘순금’으로 만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금빛이 매우 좋지만, 『대례의궤』에 의하면 책보조성소에 실제 금보 7과를 제작하기 위해 들인 재료는 탁지부에서 들인 천은(天銀) 35근과 황금(黃金) 41근 12냥을 사용하였고, 보새 1과를 도금하는 황금은 4돈, 수는 1냥 9돈, 땀은 1돈, 봉사 1돈 5푼, 비상 1돈이다. 이렇게 기록된 재료를 통해 <제고지보>는 천은 위에 수은아말감기법으로 도금을 하여 제작한 것이 확인된다.

○ 장인의 종별과 제작 기법

『대례의궤』에 의하면 <제고지보>를 비롯한 7종의 금보를 제작한 장인들의 명단은 ‘보책조성시별단’에 의해 확인된다. 그중 금보를 제작한 장인들은 금장(金匠), 은장(銀匠), 주장(鑄匠), 보장(寶匠), 천혈장(穿穴匠), 소이장(召伊匠), 마경장(磨鏡匠) 등이다.

대체로 은장(銀匠)은 천은을 녹이고 용뉴와 보면을 땀하고, 주장(鑄匠)은 용모양 손잡이[용뉴]를 밀납으로 형태를 만든 다음 백토로 만든 풍로 위 도가니 속에 녹여 만든다. 금장(金匠)은 황금을 수은과 봉사 및 비상으로 녹이는 수은 아말감기법으로 도금하는 역할을 한다. 보장(寶匠)은 용 형태를 각도(刻刀)로 새기고 쫄정(쫄釘)과 세정(細釘)으로 쪼아서 제작한다. 천혈장(穿穴匠)은 용의 배 부분의 구멍을 뚫어내는 역할을 한다. 소이장(召伊匠)은 보면(寶面)의 전각(篆刻) 부분을 쫄정(쫄釘)과 세정(細釘)으로 새긴다. 마경장(磨鏡匠)은 거친 숫돌[中礪石]이나 세밀한 숫돌[延日礪石] 및 오미자로 표면을 매끈하게 정리하는 작업을 한다.

별단에 의하면 보장(寶匠)은 전흥길(全興吉), 전수명(全壽命), 전억만(全億萬), 전일만(全一萬)이다. 19세기 말 이들 전씨 가문은 보인을 제작하는 데 특장을 보이는 장인 가문으로서, 특정 기술이 가업으로 세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다. 특히 전흥길의 경우 1851년부터 1897년까지 47년간 금보를 제작하는데 탁월한 솜씨를 발휘하였던 19세기 말의 대표적 보장이자 보소이장이다. 전수명 또한 1875년부터 두석장, 조각장, 소은장, 마조장 등 다양한 기술을 습득한 후 1890년 문조와 신정왕후의 추상존호보를 만들 때에는 금보장이자 소은장이었다. 1892년 문조와 신정왕후의 상호보를 제작할 때에는 금보장이자 조이장(雕伊匠)이었다. 1875년부터 1897년까지 22년간 금보를 제작하였다.

그밖에 보면을 새긴 소이장(召伊匠)은 김제당(金濟塘)과 전일득(田一得)이다. 표면을 매끈하게 갈아낸 마경장(磨鏡匠)은 유치혁(柳致赫)과 이구성(李九成)이다. 도금을 위해 금을 녹인 금장(金匠)은 김희영(金喜永), 안일성(安一成), 김후복(金厚福)이다. 은을 녹인 은장(銀匠)은 최종환(崔宗煥), 이완근(李完根)이다. 용뉴의 형태를 주물을 만든 주장(鑄匠)은 김원여(金元汝), 한치옥(韓致玉)이다. 이들 19세기 말 장인들은 대개 1회성으로 활동할 뿐인데, 금장 김희영은 1885년부터 1907년까지 22년간 활동하는 동안 여러 도감에 참여하되 대부분 付金匠이어서 1897년 국새를 제작할 때에는 도금을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주장 김원여는 1897년부터 1906년에는 유기장[鑄匠]으로 금속을 녹이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 유물의 크기와 조선의 국새와 비교

고종대에 보새(寶璽)와 부신(符信)을 망라하여 수록한 장서각에 소장된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장3-567)를 통해 대한제국의 국새와 조선왕실의 보인을 확인할 수 있다.

	보새명	재료	뉴식	뉴대	서체	크기	제작시기
1	大韓國璽	天銀鍍金	龍鈕	있음	疊篆	方 3치 5푼	1897. 9. 19
2	皇帝之璽	天銀鍍金	龍鈕	있음	疊篆	方 3치 5푼	1897. 9. 19
3	皇帝之寶	天銀鍍金	龍鈕	없음	小篆	方 4치 2푼	1887. 9. 17
4	皇帝之寶	玉	龍鈕	있음	小篆	方 3치 4푼	1897. 9. 19
5	皇帝之寶	玉	龜鈕	있음	小篆	方 4치 2푼	1897. 9. 19
6	制誥之寶	純金鍍金	龍鈕	있음	小篆	方 4치 1푼	1897. 9. 19
7	勅命之寶	純金鍍金	龍鈕	있음	小篆	方 4치 1푼	1897. 9. 19
8	勅命之寶	天銀鍍金	龍鈕	없음	小篆	方 3치 4푼	1897. 9. 20

표 159 <보인부신총수>에 수록된 대한제국의 국새

대한제국의 국새는 조선의 국새와 전체적인 크기나 구조 등이 공통되나 여러 면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우선, 대한제국의 보문(寶文)에서 비교된다. 조선에서 <왕세자인>이나 <왕세자빈지인> 등의 인장에 사용되던 ‘인(印)’자가 사라지고, 대한제국에서는 <대한국새>나 <황제지새>에서의 ‘璽’자를 비롯하여, <제고지보>의 ‘誥’나 <칙명지보>의 ‘勅’자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둘째, 뉴식에 있어 조선에서는 거북이형태의 귀뉴였는데, 대한제국에서는 용형태의 용뉴로 바뀐다.

셋째, 뉴대(鈕臺)의 경우 조선의 보인에는 보이지 않으나, 대한제국의 새보부터 등장한다. 귀뉴 <황제지보>에만 없을 뿐 <제고지보>를 비롯한 나머지 대한제국의 용뉴 보새에는 뉴대가 용뉴와 보신의 사이에 배치되어 보신 위에 1단을 더 두

어 대한제국의 권위적인 면모를 상징한다.

넷째, 대한제국 새보의 서체는 조선 보인의 서체보다 간결하게 바뀐다. 조선의 보인은 구첩의 첩전(疊篆)이고, <대한국새>와 <황제지새>는 구첩의 첩전이 이어진다. 그러나 <제고지보>를 비롯한 대다수의 대한제국 보새들은 소전체를 사용한다.

다섯째, 새보의 치수는 조선보다 대한제국의 것이 좀더 크다. 『보인부신총수』에 수록되어 있는 조선의 보인은 사방 3치 5푼 내외이나, 대한제국의 새보는 4치 1푼 내외이다. <제고지보>의 경우 『대례의궤』와 『보인부신총수』에 치수가 수록되어 있는데, 전자의 치수는 간단하나 후자는 복잡한 편이다.

『대례의궤』	크기	실측 치수cm (2021.5.10. 실측)	
方	四寸一分	보신 가로*세로	11.13×11.13cm
厚	八分	보신 두께	2.16cm
篆刻郭廣	四分	전각곽 넓이	1.0cm
上有龍鈕 高	二寸三分	용뉴 높이	6.53cm
廣	一寸二分	넓이	3.07-3.11cm
龍頭 長	三寸七分	용머리 길이	9.59cm
鈕臺 方	二寸六分	뉴대 가로*세로	8.47×8.53cm
厚	二分	뉴대 두께	0.51cm

표 160 대례의궤의 치수와 2021.5.10 실측 치수

『대례의궤』에 의하면 <제고지보>의 보신(寶身)은 사방 4치 1푼, 두께 8푼, 전각곽의 넓이 4푼, 위쪽 용뉴의 높이 2치 3푼, 넓이 1치 2푼, 용머리 길이 3치 7푼, 뉴대의 사방 2치 6푼, 뉴대의 두께 2푼이다. 이것을 실측한 결과, 보신의 가로*세로는 11.13x11.13cm, 보신의 두께는 2.16cm이다. 전각곽의 넓이는 1.0cm, 위쪽 용뉴의 높이는 6.53cm, 용뉴의 넓이는 3.07-3.11cm, 용머리의 길이는 9.59cm, 뉴대의 가로*세로는 8.47x8.53cm, 뉴대의 두께는 0.51cm이다.

『보인부신총수』에 의하면 <제고지보>의 보신은 사방 4치 1푼, 보신[臺]의 높이는 8푼이다. 육각지[栗甘只]의 높이는 2푼, 모서리 넓이 6푼, 용뉴의 길이 3치 7푼, 용뉴의 너비 1치 2푼, 용머리의 높이 1치 9푼, 용의 몸체 높이 2치 3푼, 꼬리 높이 1치 9푼, 글씨 새긴 깊이 1푼, 글씨 외곽의 넓이 4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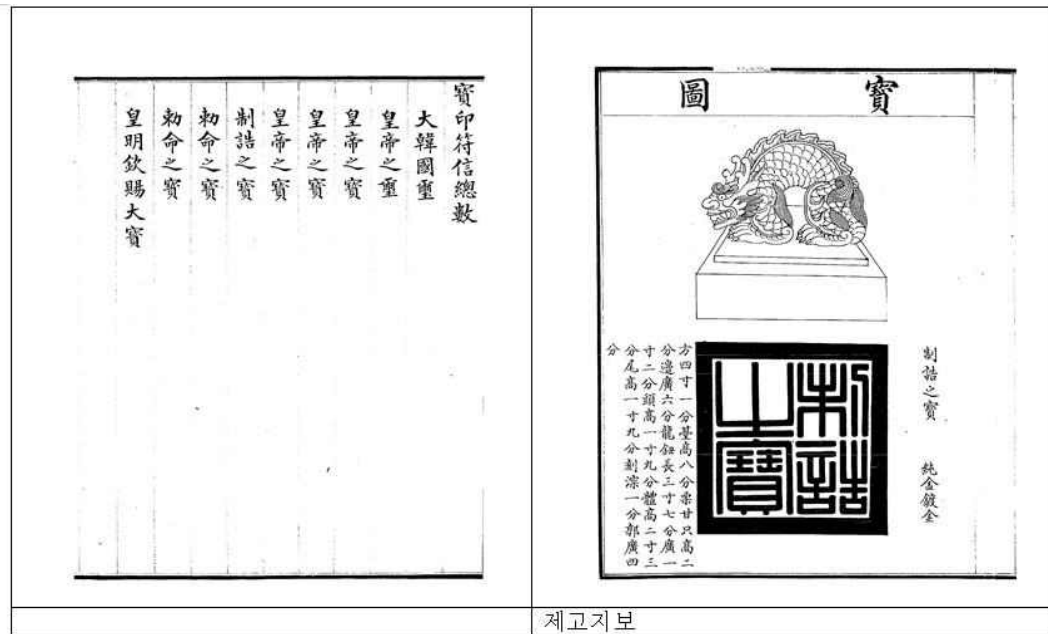


표 175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 보도(寶圖) 중 <제고지보>

○ 유물의 서체(書體)

<제고지보>을 비롯한 대한제국의 보새 10과 중 8과의 서체는 소전(小篆)이다. 조선시대 어보에 사용된 서체는 대부분 구첩전(九疊篆)이라 하여 필획을 중첩하고 쌓아올려 보면을 가득 채우는 서체이다. 이처럼 필획을 많이 중첩하는 것은 어보에 사용되는 특별한 서체라는 의미 뿐 아니라,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대한제국의 새보에 사용된 ‘소전(小篆)’은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승상 이사(李斯)로 하여금 만들었다는 글씨체로, 문자가 균일하고 좌우대칭의 정제된 형태로 나타나 제왕의 냉엄한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다. 대한제국을 선포한 고종이 소전체

로 바꾼 이유는 중국 최초로 중원을 통일하고 황제의 지위에 오른 진시황의 권위와 상징성을 담긴 서체를 차용해서 황제국의 위상을 ‘소전’체에 담아 대한제국 국새와 황제지보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 유물의 뉴식(鈕式)

<제고지보>는 손잡이의 모양은 용 형태로서 용뉴(龍紐)이다. 용의 정수리에 점문이 있고 비늘이 있고, 머리에는 녹각뿔이 솟아있다. 코에는 여의두문이 있고, 입을 벌리고 이빨 2개가 아래로 빠져 나와 있고, 입 주위로 서기(瑞氣)가 보이며 여의주를 물고 있다. 몸 전체는 비늘이 덮였고, 등 위쪽 비늘이 8개이며, 앞뒤 발톱은 각각 4개씩이다. 옆쪽에서 보면 등을 위로 솟구쳐 반원을 그리며, 배쪽으로 구멍이 뚫려 있다. 여기에 다회로 꼬은 보수(寶綬)를 꿰게 되어 있으나 현재 보수는 없어졌다.

<제고지보>는 금빛이 선명하여 ‘순금제’에 가깝다. 해당 유물은 맨 위쪽의 용뉴와 받침에 해당되는 납작한 뉴대가 있고, 그 아래쪽에 보신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용뉴를 밑남으로 섬세하게 주물을 떠내고, 뉴대와 은뿔으로 붙이되 앞뒤 다리 부분을 유대와 리벳팅한 것으로 여겨진다. 뉴대와 용뉴를 연결시킨 다음, 보면을 조각한 다음 네 군데에 리벳을 박아 고정시킨 다음 뿔을 해 접착한 다음 표면을 매끈하게 갈아내는 방식으로 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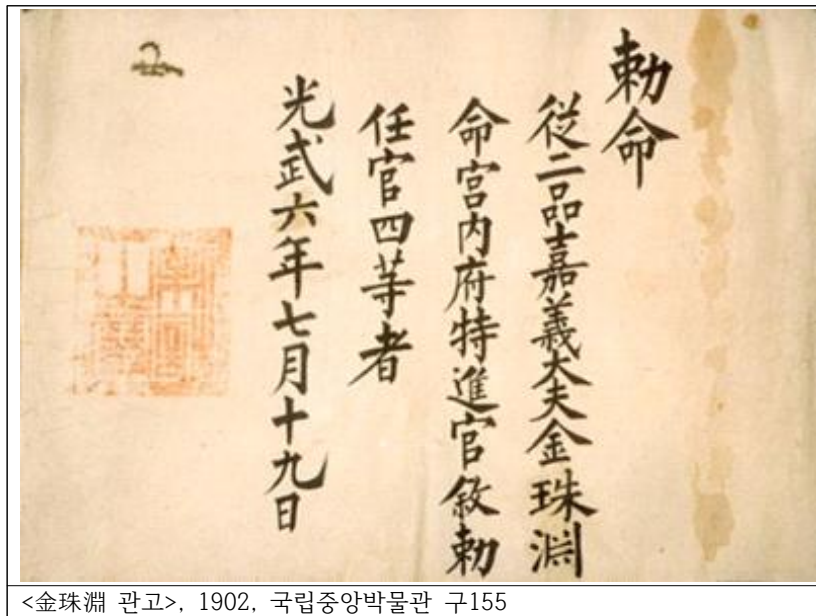
○ <제고지보>의 사용례

『李朝璽寶印押符信制』(k3-575)에 수록된 대한제국 국새의 용도에 의하면, <제고지보>는 칙임관을 임명할 때 찍었음을 알 수 있다.

	보새명	재질	뉴식	사용처
1	大韓國璽	천은도금	용뉴	국서
2	皇帝之璽	옥	용뉴	훈기
3	皇帝之寶(3과)	백옥	귀뉴	칙임관 칙지
4	制誥之寶	순금	용뉴	칙임관 칙지
5	勅命之寶	순금	용뉴	주임관 칙지 가자승육칙지
6	勅命之寶	천은도금	용뉴	조칙
7	大元帥寶	천은도금	용뉴	

표 162 『李朝璽寶印押符信制』에 수록된 대한제국 국새의 용도

1902년 7월 19일 종2품 가의대부 김주연(金珠淵)을 궁내부 특진관에 임명하고 칙임관 4등으로 서용하는 관고에 어압과 <제고지보>가 선명하다.



<金珠淵 관고>, 1902, 국립중앙박물관 구155

○ 문헌자료

『大禮儀軌』, 1897년 (규13486); “大禮儀軌 光武元年 丁酉 九月 日 寶冊造成所設于太僕司 大韓國璽一顆 天銀鍍金 皇帝之璽一顆 天銀鍍金 皇帝之寶三顆 一顆天銀鍍金二顆玉 勅命之寶二顆 一顆純金一顆天銀鍍金 制誥之寶一顆 純金 施命之寶一顆 天銀鍍金 明憲太后之寶一顆 玉 皇后金冊一件 純金 皇后之寶一顆 純金 皇太子金冊一件 純金 皇太子寶一顆 純金 皇太子妃金冊一件 天銀鍍金 皇太子妃之寶一顆 天銀鍍金”

『大禮儀軌』, 1897년 (규13486) 時日; “丁酉九月初九日 始役 十三日 大韓國璽 皇

帝之璽 皇帝之寶三顆 一顆金寶 二顆玉寶 勅命之寶 制誥之寶 明憲太后之寶 皇后之寶 皇太子寶 皇太子妃之寶 寶文正本入 奏.”

『大禮儀軌』, 1897년 (규13486) 時日; “十九日 大韓國璽 皇帝之璽 皇帝之寶二顆 一顆金寶一顆玉寶 勅命之寶 制誥之寶 明憲太后之寶 皇太子妃金冊 皇太子妃之寶 封裹 內入.”

『大禮儀軌』, 1897년 (규13486); “大禮儀軌 光武元年 丁酉 九月 日 寶冊造成所設 于太僕司

大韓國璽一顆 天銀鍍金 皇帝之璽一顆 天銀鍍金 皇帝之寶三顆 一顆天銀鍍金二顆玉 勅命之寶二顆 一顆純金一顆天銀鍍金 制誥之寶一顆 純金 施命之寶一顆 天銀鍍金 明憲太后之寶一顆 玉 皇后金冊一件 純金 皇后之寶一顆 純金 皇太子金冊一件 純金 皇太子寶一顆 純金 皇太子妃金冊一件 天銀鍍金 皇太子妃之寶一顆 天銀鍍金”

『大禮儀軌』, 時日; “丁酉九月初九日始役 十三日 大韓國璽 皇帝之璽 皇帝之寶三 顆 一顆金寶 二顆玉寶 勅命之寶 制誥之寶 明憲太后之寶 皇后之寶 皇太子寶 皇太 子妃之寶 寶文正本入 奏.”

『大禮儀軌』, 時日; “十九日 大韓國璽 皇帝之璽 皇帝之寶二顆 一顆金寶一顆玉寶 勅命之寶 制誥之寶 明憲太后之寶 皇太子妃金冊 皇太子妃之寶 封裹 內入.”

『大禮儀軌』, 圖說; <制誥之寶> 以黃金鑄成 各重十斤十四兩 方四寸一分 厚八分 篆刻郭廣四分 上有龍鈕 高二寸三分 廣一寸二分 龍頭長并三寸七分 鈕臺方二寸六分 厚二分 用禮器尺 腹下有橫穴 全體鍍黃金

『大禮儀軌』, 所入; “金寶十顆造成所入 天銀三十五斤 黃金四十一斤十二兩 每顆鍍 黃金四錢 水銀一兩九錢 汗音黃銀一錢 砒砂二錢五分 砒礪一錢 大銅絲五尺 炭五斗 草圖書次 竹清紙二張 黃筆一柄 眞墨一丁 油紙一張 黃蜜一錢五分 眞末一合 眞粉二 錢 小書板二立.”

『보인부신총수』 圖說; ‘<制誥之寶>“方四寸一分 臺高八分 栗甘只高二分 邊廣六 分 龍鈕長三寸七分 廣一寸二分 頭高一寸九分 體高二寸三分 尾高一寸九分 刻深一 分 郭廣四分”

○ 참고문헌

『大禮儀軌』, 1897년, 규13486.

『寶印符信總數』, 장3-567

『李朝璽寶印押符信制』, 장3-575.

강상규, 「고종의 대내외 환수된 제고지보와 개화기의 국새 어새 제도」, 『고궁문화』 13호, 국립고궁박물관, 2020.

국립고궁박물관,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 황실 어보』, 국립고궁박물관, 2019.

박성호, 「환수된 제고지보와 개화기의 국새 어새 제도」, 『고궁문화』13호, 국립고궁

박물관, 2020.

성인근, 『국새와 어보』, 현암사, 2018.

성인근, 「조선시대와 대한제국기 國璽의 변화상」, 『고궁문화』13호, 2008.

이경주, 「대한제국 국새의 제작과 활용」,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6.

장경희, 『의궤 속 조선의 장인』, 솔과학, 2013.

□

○ 규 격

- 보뉴 3.2×9.9(cm), 보신 11.1×11.1cm, 높이 8.6(cm)

보인부신총수	크기	cm	비고
方	四寸一分	11.1×11.1cm	보신 가로×세로
臺高	八分	2.1cm	보신 높이
栗甘只高	二分	0.5cm	울각지 높이
邊廣	六分	1.6cm	보신 변 폭
龍鈕長	三寸七分	9.9cm	용뉴 길이
廣	一寸二分	3.2cm	용뉴 넓이
頭高	一寸九分	5.1cm	용뉴 높이
體高	二寸三分	6.2cm	대 높이
尾高	一寸九分	5.1cm	꼬리 높이
刻深	一分	0.3cm	글자 깊이
郭廣	四分	1.0cm	보곽 폭

대례의궤	크기	cm	비고
方	四寸一分	11.1×11.1cm	사방
厚	八分	2.1cm	두께
篆刻郭廣	四分	1.0cm	곽광
上有龍鈕高	二寸三分	6.2cm	용뉴 높이
廣	一寸二分	3.2cm	넓이
龍頭長	三寸七分	9.9cm	용뉴 길이
鈕臺方	二寸六分	8.5×8.5cm	뉴대 사방
厚	二分	0.5cm	두께

○ 무 계 : 5.85kg

- 『대례의궤』 기록 : 十斤十四兩

○ 재 질 : 천은도금(天銀鍍金)

- 보인부신총수에는 순금도금(純金鍍金)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금에 약간의 은과 납, 구리가 약간 함유된 천은도금(天銀鍍金)으로 판단됨

- 분석방법 : X-선형광분석기(XRF)에 의한 비파괴 성분(정성)분석

- 분석결과 : 「제고지보(制誥之寶)」는 은에 수은 아말감 금도금 한 것으로 판단됨.

유물명	분석 위치	Ag(Ka)	Au(La)	Hg(La)	Pb(La)	기타 검출원소	비고
제고지보 (신수 239)	손잡이	13.97	64.58	21.19	-	Cr, Cu, Fe	은에 아말감 금도금
	인판	13.32	66.47	20.02	-	Cr, Cu, Fe	
	인주	27.72	48.25	5.13	16.77	Ca, Fe, Ba	연단

- 형 식 : 용뉴(龍鈕)
- 서 체 : 소전(小篆)
- 용 도 : 고급관리[책임관] 임명(勅任官勅旨)
- 조성연대 : 1897(광무 1) 9월 19일

○ 현 상

손잡이는 용의 형태이며 2단의 인판 위에 등을 접어 웅크리고 있는 모양이다. 몸체는 물고기 비늘로 덮였고 등지느러미는 화염 형태같이 뾰족하게 8개가 묘사되어 있다. 정수리는 점문으로 표현하였으며, 뿔은 사슴의 뿔[鹿茸] 형태이고, 얼굴에는 갈기와 충수를 달았고, 귀는 소의 귀를 닮았고, 눈썹은 아미형태이고 눈은 굽은 음각 선으로만 표현했으며, 코는 여의두문 형태이다. 이뿔은 앞니 2개, 아랫니 2개이다. 입에는 여의주를 물고 있는 전형적인 용의 특징들은 갖추고 있다. 꼬리는 말 꼬리처럼 세 가닥으로 나뉘어져 몸체를 덮고 있다. 다리는 편한 자세로 발꿈치까지 인판에 밀착하고 서있는 자세이다. 앞발에는 발톱이 4개, 뒷발에도 발톱이 4개 이다.

○ 내용 및 특징

- ‘제고(制誥)’는 임금이 내리던 사령(辭令) 또는 조서란 뜻이다.
- 「제고지보(制誥之寶)」는 方 11cm(方 4寸 1分), 高 8.5cm, 重 5.85kg의 대형 국새이다.
- 「제고지보(制誥之寶)」는 많이 사용하지 않은 관계로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 「제고지보(制誥之寶)」는 대한제국 시기에 제작된 것이며, 칙령(勅令)을 반포(頒布)할 때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였다.
- 「제고지보(制誥之寶)」의 존재와 사용여부는 <성진항 재판소에서 처결이 어려운 죄인의 처결을 부탁하는 보고서(報告書 第十四號)> · <사령서 격식과 이유서(隆熙三年九月二十日(1909년 09월 20일))> 등에서 확인된다.

○ 문헌자료



그림1. 보인부신총수에 수록되어 있는 제고지보

-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 : 대한제국 황실의 공용(公用)의 보인(寶印)과 부신(符信)을 그림과 함께 설명한 책. 1900년에서 1907년 사이에 편찬된 것임.

- 『대례의궤(大禮儀軌)』 : 1897년(광무1) 10월, 고종(高宗)이 대한제국(大韓帝國)의 황제(皇帝)로 즉위한 대례(大禮) 의식을 준비한 과정을 당시 보책조성소(寶冊造成所)에서 정리한 의궤이다. 보책조성소는 고종의 즉위식을 준비하기 위해 설치되었는데, 왕에서 황제로, 왕국에서 제국으로 격상하는 군주와 국가의 위상에 맞는 각종 보새(寶璽)를 제작하고 왕후 · 대비 · 왕태자 · 왕태자비를 황후 · 태후 · 황태자 · 황태자비로 책봉하는 금책문(金冊文)과 보인(寶印)을 제작하는 일을 주로 담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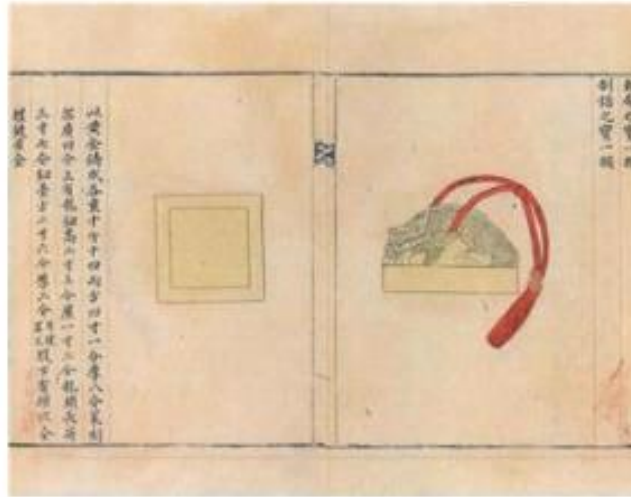


그림2. 대례의궤에 수록되어 있는 제고지보

- 『조선왕조실록(조선왕조실록)』 :
- 『고종실록』 36권, 고종 34년 11월 1일 양력 1897년 대한 광무(光武) 1년
- 『순종실록부록』 2권, 순종 4년 3월 3일 양력 1911년 일본 명치(明治) 44년

○ 국새 「제고지보(制誥之寶)」 날인 문서

- 制誥之寶가 安寶된 예를 보면, 1898년(光武 2) 4월 14일에 2곳, 1904년(光武 8) 10월 15일에 1곳, 1905년 2월 26일에 17곳 등 20곳을 확인할 수 있다.

○ 기 타

- 고종 13년(1877) 일본과 강화 수호조약을 체결할 시,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 으로서는 외국에 대한 체면이 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새로 「대조선국주상지보(大朝鮮國主上之寶)」 라는 금인(金印)을 주조(鑄造)하여 사용하였다. 이후 서양의 여러 나라와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되자 「대조선국보(大朝鮮國寶)」, 「대조선국대군주보(大朝鮮國大君主寶)」, 「대군주보(大君主寶)」 등의 국새를 제작하여 병용(倂用)하였다.
- 1897년 대한제국(大韓帝國)을 수립하면서 황제국에 걸맞은 새로운 국새를 제작하였는데, 이때 제작한 국새는 「대한국새(大韓國璽)」, 「황제지새(皇帝之璽)」, 「황제지보(皇帝之寶)」 (3과), 「제고지보(制誥之寶)」, 「칙명지보(勅命之寶)」 (2과), 「흠문지새(欽文之璽)」, 「대원수보(大元帥寶)」 등 총 10과이다.

- 1910년 한일합방을 강제 체결한 일본은 약 6개월 후인 1911년 3월 3일 대한제국의 국새 가운데 상당수를 약탈해갔다. 『순종실록』에 의하면 이왕직 차관(次官) 고미야 사보마쓰(小宮三保松)가 “옛 국새(國璽)와 보새(寶璽)를 총독부에 인계했다.”는 기록이 있으며,²⁷⁾ 인계한 국새로는 「대한국새(大韓國璽)」 1과, 「황제지보(皇帝之寶)」 1과, 「대원수보(大元帥寶)」 1과, 「제고지보(制誥之寶)」 1과, 「칙명지보(勅命之寶)」 1과, 「칙령지보(勅令之寶)」 1과²⁸⁾로 기재되어 있다. 조선총독부에서 인계한 대한제국의 국새는 일본 천황에게 진상품으로 바쳐져 일본 궁내청에 보관하였다.
- 1945년 8월 15일 해방 1년 후인 1946년 8월 15일 미군정 맥아더 원수는 궁내청에 소장되어 있던 대한제국 국새를 모두 빼앗아 한국에 정식으로 인계하였다.²⁹⁾ 이때 반환된 국새는 「대한국새」, 「황제지보」, 「제고지보」, 「칙명지보」(2과), 「대원수보」로 조선일보 기사에 실려 있다.³⁰⁾
- 당시 총무처에서는 1949년 2월 3일부터 10일간, 되찾은 국새를 대한제국 조약 문서들과 함께 국립박물관에서 특별 전시하였다. 이때 공개한 국새와 관인은 「대한국새」, 「황제지보」, 「대원수보」, 「제고지보」, 「칙명지보」, 「내각지인」, 「내각총리대신장」 등이다.³¹⁾
- 전시회가 끝난 뒤 총무처에서 관리하였으나, 한국전쟁 때에 국새를 모두 유실하였다. 1954년 6월, 잃어버렸던 「대원수보」, 「제고지보」, 「칙명지보」 등 3과는 경남도청 금고에서 발견하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27) 『순종실록』, 1911년 3월 3일.

28) ‘칙령지보(勅令之寶)’는 대한제국 국새에 없는 것으로 2과의 ‘칙명지보’의 오기(誤記)로 보인다.

29) 중앙신문, 1946. 8. 16. 기사

30) 조선일보, 1946. 8. 15. 기사

31) 동아일보, 1949. 1. 25. 기사.

○ 국새 「제고지보(制誥之寶)」 사진



□

○ 규 격

실 측

유물 번호(구)		유물 번호(신)	신수 239
보문내용	制誥之寶	글자수/행	4자 2행
분류	국새	재질	은에 수은 아말감 금도금
수여시기		제작시기	1897년 9월 19일
무게	5.85kg	크기(전체높이)	8.69
보신 크기 가로*세로*높이	1단 : 11.13*11.13*2.16 2단 : 8.47*8.53*0.51	보뉴 크기 가로*세로* 높이	3.11~3.07*9.59*6.53
보곽 폭	1.0	보문 두께	0.45~0.41, 0.53~0.47
보문 깊이	0.3	보뉴 형태	용뉴(龍鈕)
보뉴 문양	비늘	정수리	점문

귀뉴 형태	용(龍)	녹각(鹿角)	있음
귀(耳)	있음	아미(蛾眉)	있음
눈(龍眼)	2선	코(龍鼻)	여의두문
이빨(齒)	위2/ 아래 2	용염(龍鬚)	있음
서기(瑞氣)	있음	용주(龍珠)	있음
용린(龍鱗)	있음	꼬리(尾)	하향 3미
발톱(龍爪)	4/ 4	등 비늘	8개
인문서체	소전체	인문형태	양각, 방인

『보인부신총수』 기재 크기

부분	크기	cm	비고
方	四寸一分	11.1×11.1cm	보신 가로×세로
臺高	八分	2.1cm	보신 높이
栗甘只高	二分	0.5cm	울각지 높이
邊廣	六分	1.6cm	보신 변 폭
龍鈕長	三寸七分	9.9cm	용뉴 길이
廣	一寸二分	3.2cm	용뉴 넓이
頭高	一寸九分	5.1cm	용뉴 높이
體高	二寸三分	6.2cm	대 높이
尾高	一寸九分	5.1cm	꼬리 높이
刻深	一分	0.3cm	글자 깊이
郭廣	四分	1.0cm	보곽 폭

『대례의궤』 기재 크기

부분	크기	cm	비고
方	四寸一分	11.1×11.1cm	사방
厚	八分	2.1cm	두께
篆刻郭廣	四分	1.0cm	곽광
上有龍鈕高	二寸三分	6.2cm	용뉴 높이
廣	一寸二分	3.2cm	넓이
龍頭長	三寸七分	9.9cm	용뉴 길이
鈕臺方	二寸六分	8.5×8.5cm	뉴대 사방
厚	二分	0.5cm	두께

○ 대한제국의 수립과 국새의 제작

조선에서는 명·청과의 외교를 위한 국새를 국초부터 인수받아 사용했지만, 국내의 각종 결제를 위한 국새는 국내에서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러한 현상의 시작은 주로 세종 때로부터 보이며, ‘신보’와 ‘행보’를 제작하면서 시작되었다. 인문은 각각 ‘국왕신보(國王信寶)’·‘국왕행보(國王行寶)’이다. 신보는 사신(事神)·사유(赦宥)·공거(貢擧)에, 행보는 책봉·제수(除授) 등에 사용하였다. 신보와 행보는 고려에서도 사용하였으며, 중국 새보의 제도에 연원을 두었다. 신보와 행보로부터 시작

한 국내용 국새는 이후 용도의 확장과 다변화로 매우 많이 늘어났으며 대한제국 이전까지 약 19과가 집계된다.

개화기를 전후하여 조선은 청나라와의 사대 관계를 끝내면서 종전의 책봉에 의한 국새 인수 제도를 폐지하고 국내에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1881년(고종 18) 고종은 일본에 신사(信使)가 가지고 가는 국서(國書)에 기존에 사용하던 ‘위정이덕(爲政以德)’보 대신에 ‘대조선국보(大朝鮮國寶)’를 제작하여 쓰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때를 즈음하여 조선에서는 이 국새 외에도 ‘대조선국대군주보(大朝鮮國大君主寶)’(1882. 7. 1 제작), ‘대군주보(大君主寶)’(1882. 7. 1 제작), ‘대조선국주상지보(大朝鮮國主上之寶)’(1876. 12. 15 제작) 등을 제작하여 외교관련 문서에 사용하였다. 대한제국기에는 국새의 전면적인 교체가 있었다. 1897년(고종 34)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환궁한 직후 조선에서는 황제 즉위를 요청하는 상소가 조야 각계로부터 쇄도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의 위압을 받아 정해졌던 건양(建陽)이란 연호를 광무(光武)로 변경하고, 10월 초에는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였다. 국명을 ‘대한(大韓)’으로 변경함으로써 505년간 지속된 조선 왕조는 종언을 고하였고 대한제국이 수립되었다.

고종은 대한제국을 수립하면서 황제의 나라에 걸맞은 새로운 국새를 제작하였다. 이때 제작한 국새는 ‘대한국새(大韓國璽)’, ‘황제지새(皇帝之璽)’, ‘황제지보(皇帝之寶)’ 3과, ‘칙명지보(勅命之寶)’ 2과, ‘제고지보(制誥之寶)’, ‘대원수보(大元帥寶)’, ‘흠문지새(欽文之璽)로 총 10과이다. 이 가운데 ‘대한국새’는 외교 문서에 사용하고, 다른 인장들은 모두 국내용 국왕 문서에 사용한 국새이다.

대한제국 국새 일람

No	보명	뉴식	재질	서체	제작시기	사용처
1	大韓國璽	龍鈕	天銀鍍金	疊篆(9疊)	1897. 9. 19	國書
2	皇帝之璽	龍鈕	天銀鍍金	疊篆(9疊)	1897. 9. 19	勳記
3	皇帝之寶	龍鈕	天銀鍍金	小篆	1887. 9. 17	親任官勅旨
4	皇帝之寶	龍鈕	玉	小篆	1897. 9. 19	親任官勅旨
5	皇帝之寶	龜鈕	玉	小篆	1897. 9. 19	親任官勅旨
6	制誥之寶	龍鈕	純金鍍金	小篆	1897. 9. 19	勅任官勅旨
7	勅命之寶	龍鈕	純金鍍金	小篆	1897. 9. 19	奏任官勅旨
8	勅命之寶	龍鈕	天銀鍍金	小篆	1897. 9. 20	加資陞六勅旨, 詔勅
9	欽文之璽	龍鈕	天銀鍍金	小篆	미상	御製鈴識 頒賜書籍
10	大元帥寶	龍鈕	天銀鍍金	小篆	1899. 6. 22	軍令

이때 제작된 국새를 살펴보면 우선 1과를 제외한 모든 손잡이가 거북에서 용으로 바뀌었고, 보문은 ‘인’에서 ‘새’와 ‘보’자로 대체하였다. 서체도 복잡한 첩전(疊篆) 위주에서 대부분 간명한 소전(小篆)으로 바뀌었다. 「제고지보(制誥之寶)」는 정1품~종2품에 해당하는 칙임관(勅任官)에게 칙지(勅旨)를 내릴 때 찍은 국새이다. 「제고지보」가 찍혀 있는 문서는 다수 남아있으며, 특히 『장서각소장 고문서대관 I-왕명, 상주』(한국학중앙연구원, 2010)에 상세하다.

○ 서체와 전서자(篆書者)

조선시대 국새에 사용한 서체는 대부분 구첩전(九疊篆)이다. 구첩전은 첩전(疊篆), 혹은 상방대전(上方大篆, 尙方大篆)이라고도 한다. 인장을 새기는 전서의 하나로 필획을 중첩하고 쌓아올려 인면을 가득 메우는 서체이다. 그런데 대한제국을 수립하면서 제작한 국새 10과 중 8과가 소전(小篆)으로 바뀐 현상을 볼 수 있다. 소전은 전서의 일종으로 발생국의 명칭을 따 진전(秦篆)이라고도 하며 대전(大篆)과는 상대개념이다.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승상 이사(李斯)로 하여금 만들게 하였다고 전한다. 소전은 이전의 문자에 비해 균일(均一)하며 좌우 대칭의 정제된 형태로 나타나 제왕의 냉엄한 권위를 대하는 듯하다. 또한 최초로 중원을 통일한 진나라와 시황제의 자긍심이 담긴 서체로 인식된다.

대한제국을 선포한 고종 또한 최초로 중원을 통일하고 황제의 지위에 오른 진시황의 권위와 상징성이 담긴 서체를 대한제국의 국새에 차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중원의 여러 국가에서 대대로 새보에 사용한 서체 또한 소전이었으므로, 대한제국은 조선왕조 500년 동안 사용하여 온 구첩전에서 탈피하여 황제국으로서의 위상을 소전에 담아 국새의 서체에 반영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대례의궤』에 의하면 대한제국 선포 당시 제작하였던 각종 국새와 어보의 전서자(篆書者)가 기재되어 있다. 즉 보문(寶文)을 누가 썼는지를 밝혀놓은 것이다. 보문은 크게 황제(皇帝), 명헌태후(明憲太后), 황후(皇后), 황태자(皇太子), 황태자비(皇太子妃)로 나누었는데 모두 민병석(閔丙奭)이 쓴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여기서 황제의 보(寶)는 위에서 제시한 대한제국 국새 10과 가운데 〈대원수보〉를 제외한 9과로, 모두 그가 쓴 것이다.

민병석(1858~1940)은 1880년(고종 17) 문과에 급제한 뒤 고종대와 대한제국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정부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서예에도 능해 주로 행서를 잘 썼다는 기록이 있고, 고종의 육순(六旬)과 왕위 40년을 기념하기 위해 광화문 앞에 세운 《고종황제보령육순어극사십년칭경기념비(高宗皇帝寶齡六旬御極四十年稱慶紀念碑)》도 그의 글씨이다. 고종은 그를 매우 신뢰하였던 듯 대한제국 선포 직전에 의정부참찬(議政府參贊)에 제수하고, 대한제국 선포 후에는 궁내부대신(宮內府大臣), 규장각학사 겸 시강원일강관(奎章閣學士兼侍講院日講官),

내부대신(內部大臣) 등에 차례로 임용하였다. 그러나 그는 1910년 8월 한일병합조약 체결에 찬성·협조하여 경술국적(庚戌國賊) 8인의 한사람이 되었다. 또한 한일 강제병합 이후 이왕직장관(李王職長官)에 취임하였고, 조선귀족령(朝鮮貴族令)에 의거하여 자작(子爵)을 수여받았으며,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을 5회 중임하였다. 또한 1935년 총독부가 발행한 『조선공로자명감』에 조선인 공로자 353명 중 한 명으로 수록되어 있다. 한민족 자주독립의 염원을 담고 출범한 대한제국 국새의 모든 보문(寶文)을 쓴 사람이 이후 경술국적의 한사람이자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친일인사라는 점은 우리 근현대사의 뼈아픈 부분이 아닐 수 없다.

○ 대한제국 국새의 유실과 이동경로

일제는 한일합방을 강제 체결하고 약 6개월 후인 1911년 3월 3일 대한제국의 국새 가운데 상당수를 약탈하였다. 『순종실록』에 의하면 이왕직 차관(次官) 고미야 사보마쓰(小宮三保松)가 ‘옛 국새(國璽)와 보새(寶璽)를 총독부에 인계했다’는 기록이 있다.³²⁾ 구체적인 내역을 <대한국새(大韓國璽)> 1과, <황제지보(皇帝之寶)> 1과, <대원수보(大元帥寶)> 1과, <제고지보(制誥之寶)> 1과, <칙명지보(勅命之寶)> 1과, <칙령지보(勅令之寶)> 1과로 적었다. 마지막의 ‘칙령지보(勅令之寶)’는 대한제국의 국새에 없는 것으로 두 과의 <칙명지보>를 오기(誤記)한 것으로 여겨진다. 아무튼 조선총독부에서 인계한 대한제국의 국새는 천황의 진상품으로 바쳐져 일본 궁내청으로 들어가는 모욕을 겪었다.

8.15 해방 1년 후인 1946년 8월 15일 미군정은 궁내청에 소장된 대한제국 국새를 모두 인수하여 한국에 정식으로 인계하였다. 이때 반환된 국새는 <대한국새>, <황제지보>, <제고지보>, <칙명지보> (2과), <대원수보>로 당일 조선일보 기사에 실려 있다.³³⁾ 순종실록에 기록된 목록과 일치하므로 한일합방 이후 일본이 가져간 국새가 모두 국내로 되돌아온 셈이다.

8·15 광복과 더불어 1945년 9월 11일 군정장관(軍政長官)에 소장 A.V.아널드가 임명됨으로써 미군정이 실시되었다가 행정권을 한국인에게 이양하는 첫 단계로서 1947년 2월 10일 민정장관에 안재홍(安在鴻)이 임명되고, 1947년 6월 3일 종래의 미군정청을 남조선과도정부로 개편하였다. 기구개혁위원회가 설치되고, 미국인 부처장은 고문이 되었으며 한국인이 그 후임 부처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5·10 (오십선거) 결과 이승만(李承晩)이 1948년 7월 24일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이에 따라 과도정부는 그 행정권을 대한민국에 이양하였다. 당시 과도정부로부터 대한민국 총무처에 이전된 정부의 물품목록에는 당시 인수한 대한제국 국새의 목록이 상세하다.³⁴⁾ 이 목록에 수록된 대한제국의 국새와 관

32) 『순종실록』, 1911년 3월 3일.

33) 조선일보, 1946. 8. 15.

인은 〈황제지보〉, 〈대한국새〉, 〈대원수보〉, 〈제고지보〉, 〈내각총리대신장〉, 〈칙명지보〉, 〈내각지인〉이다. 1946년 일본으로부터 환수한 목록에 〈내각총리대신장〉과 〈내각지인〉이 추가되었다.

이후 총무처에서는 1949년 2월 3일부터 10일간, 되찾은 국새를 대한제국 조약문서들과 함께 국립박물관에서 특별전시하였다. 이때 공개한 국새와 관인은 〈대한국새〉, 〈황제지보〉, 〈대원수보〉, 〈제고지보〉, 〈칙명지보〉, 〈내각지인〉, 〈내각총리대신장〉이다.³⁵⁾ 당시까지만 해도 대한제국의 국새는 일본에서 돌아온 그대로 전해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전시회가 끝난 뒤 총무처에서 관리하던 시기에 6·25 전란을 겪었고, 전쟁의 와중에 국새를 모두 유실하였다. 전란 이후 동아일보 사설에서는 국새 분실사건을 다루면서 ‘흔히 우리 국민 중의 몰지각한 분자들은 외국인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고귀한 물건을 선사하는 버릇이 있는 것 같으며, 국보이건 무엇이건 가리지 않는 악질적인 경우가 간혹 있다는 소문도 있다.’며 국새의 해외 유출에 대한 개연성과 함께 문화재에 대한 몰지각함을 꼬집기도 했다.³⁶⁾ 그 뒤 1954년 6월, 잃어버렸던 〈대원수보〉, 〈제고지보〉, 〈칙명지보〉 등 3과는 경남도청 금고에서 발견하였다고 한다.³⁷⁾ 1911년 일제의 약탈로부터 시작된 대한제국 국새의 유실상황을 시기별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대한제국 국새의 이동과 유실상황

No	寶名	1911년 순종실록의 기사	1946년 조선일보 기사	1948년 과도정부사무 인계서	1949년 특별전시 도록	현재 유실여부 (소장기관)
1	大韓國璽	○	○	○	○	유실
2	皇帝之璽					유실
3	皇帝之寶					유실
4	皇帝之寶	○	○	○	○	(국립고궁박물관)
5	皇帝之寶					유실
6	制誥之寶	○	○	○	○	(국립전주박물관)
7	勅命之寶	○	○	○	○	유실
8	勅命之寶	○	○	○	○	(국립중앙박물관)
9	欽文之璽					유실
10	大元帥寶	○	○	○	○	(국립전주박물관)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 현재 대한제국의 국새는 〈황제지보〉, 〈칙명지보〉, 〈제고지보〉, 〈대원수보〉 등 4과가 현존한다. 그런데 위의 표를 보면 하나의

34) 「과도정부사무인계서(총무과)」, 문서번호 77-(1), 국가기록원 서울기록정보센터 소장,

35) 동아일보, 1949. 1. 25 기사.

36) 동아일보, 1965. 3. 25 사설.

37) 동아일보, 1965. 3. 20 기사.

의문점이 발견된다. 흔히 한일강제병합 이후 일제가 대한제국의 국새를 모조리 가져간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실은 총 10과 가운데 6과만을 가져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순종실록』에 실린 목록에 근거하므로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기록을 신뢰한다고 가정했을 때 일본으로 넘어가지 않고, 국내에 남겨진 국새는 〈황제지새〉, 〈황제지보〉 2과, 〈흙문지새〉이다. 이 네 과의 국새는 대한제국이 일본에 병합된 이후 자취를 감춰 현재까지 오리무중이다. 언제 어떻게 유실하였는지 알려진 바가 전혀 없다. 1946년 조선일보의 기사, 48년 과도정부사무인계서의 목록, 49년의 특별전시 등의 경로를 거치는 동안 그 누구도 일본으로부터 되돌아온 국새의 수량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보면 당시인들은 『순종실록』의 목록을 그대로 인정한 것만은 사실이다. 향후 한일강제병합 이후 종적을 감춘 국새 4과와 함께, 한국전쟁 이후 유실하여 현재까지 자취를 감추고 있는 국새 2과의 행방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 재질의 상이점

한편 이 국새의 재질에 대하여 『대례의궤』와 『보인부신총수』에는 ‘순금도금(純金鍍金)’으로 기재하였으나, 비파괴 성분조사 결과 ‘은에 수은 아말감 금도금’으로 판명되었다. 당시의 기록에 순금으로 기재한 이유를 알 수 없으나 동시기에 제작하여 ‘천은도금(天銀鍍金)’으로 기재한 ‘칙명지보’나 ‘대원수보’보다 금의 함량이 월등히 높은 것은 사실이다. 또한 국새의 제작기법, 크기, 전승과정, 안보문서(安寶文書) 등을 통해 진품임을 확인할 수 있다. 기록과 실측의 재질이 상이한 이유만으로 이 유물을 부정하긴 어렵다.

○ 참고문헌

『고종실록』

『보인부신총수』 (장서각 K3-0566)

성인근, 『고종황제비밀국새』, 소와당, 2010.

성인근, 『한국인장사』, 다운샘, 2013.

성인근, 『국새와어보-왕권과 왕실의 상징』, 현암사, 2018.

『장서각소장 고문서대관 I-왕명, 상주』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유물 사진



보면(寶面)



측면(側面)



정면(正面)



상면(上面)

13. 국새 칙명지보 (國璽 勅命之寶)

가. 검토사항

‘국새 칙명지보’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립고궁박물관장이 보물 지정 신청한 ‘국새 대군주보’와 관련하여, 동종문화재 비교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국새 칙명지보’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조사(’21.2.24.)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 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국새 칙명지보(國璽 勅命之寶)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 수 량 : 1과
- 규 격 : 전체 높이: 8.30cm, 무게: 2.74kg
보신(寶身) 크기: 9.08×9.12×2.10cm, 보紐(寶紐) 크기: 3.3×6.2cm
- 재 질 : 은(수은 아말감 도금)
- 용 도 : 황제의 명령서에 날인
- 형 식 : 용뉴(龍鈕)가 달린 정방형 인장
- 조성연대 : 1898년(광무 2) 윤3월 19일
- 환수시기 : 1946년 8월 15일 미군정이 총무처에 인계
1954년 6월 28일 총무처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이관



<국새 칙명지보>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칙명지보(勅命之寶)는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로서 등극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대한제국의 국새 10과 중 하나로 1898년 윤3월 19일에 제작되었다.

첫째, 이 유물을 제작한 과정의 전말은 『대례의궤』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책보조성소’에서 도제조 심순택의 책임 아래 전문(篆文)서사관 홍문관학사 민병석(閔丙奭)이 글씨에 의해 제작된 원형이면서 그 제작과정의 전말을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둘째, 『대례의궤』와 『보인부신총수』에 <칙명지보>의 형태와 재료 및 치수 등의 도설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 유물이 찍힌 문서가 다수 현존하여 대한제국 국새로서 학술적인 가치도 우수하다. 셋째 본 유물은 대한제국 국새로서 용모양의 용뉴인 점, 보면의 글씨체가 소전(小篆)인 점 등 조형적 특징도 뛰어나다.

이처럼 <칙명지보>는 대한제국의 국새로서 제작과정의 전말이 문헌에 기록되어 있고 제작시기나 형태 및 제원 등도 도설에 의해 확인되고 실제 사용례도 다양하게 파악되는 등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국새로서 원형을 온전하게 확인할 수 있어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 (지정 가치 있음)

1) 문화재 가치

국새 「칙명지보(勅命之寶)」는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을 수립하고 제작한 10과의 국새 가운데 하나이다. 대한제국이 제작한 국새는 국가의 운명과 함께 여러 수난을 겪었다. 국새 「칙명지보(勅命之寶)」는 대한제국기 고종의 황권강화에 대한 의지와, 외세변화의 상황에서 황제의 명령서에 날인하는데 사용되었음을 문서를 통해 밝혀진 역사적 유물이다. 예술적으로도 공예기술, 서체, 전각 방면에서도 당대 최고 수준의 문화역량을 담은 것으로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높다.

2) 문화재 상태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에 「칙명지보(勅命之寶)」 도식이 수록되어 있어 실물과 비교해 보았을 때 국새 형태의 구성요소를 제대로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새의 재질과 크기, 보문에 새겨진 글자 등 보존상태 또한 양호한 편으로 판단된다.

3) 제작연대

고종은 대한제국을 수립하면서 황제의 나라에 걸맞은 새로운 국새를 제작하였다. 이때 제작한 국새는 ‘대한국새(大韓國璽)’, ‘황제지새(皇帝之璽)’, ‘황제지보(皇帝之寶)’ 3과, ‘칙명지보(勅命之寶)’ 2과, ‘제고지보(制誥之寶)’, ‘대원수보(大元帥寶)’, ‘흠문지새(欽文之璽)로 총 10과이다. 이 가운데 ‘대한국새’는 외교 문서에 사용하고, 다른 인장들은 모두 국내용 국왕 문서에 사용한 국새이다.

이때 제작된 국새를 살펴보면 우선 1과를 제외한 모든 손잡이가 거북에서 용으로 바뀌었고, 보문은 ‘인(印)’에서 ‘새(璽)’와 ‘보(寶)’자로 대체하였다. 서체도 복잡한 첩전(疊篆) 위주에서 대부분 간명한 소전(小篆)으로 바뀌었다. 「칙명지보(勅命之寶)」는 황제의 명령서에 날인하는데 사용한 국새이다.

연번	보명	뉴식	재질	서체	제작시기	사용처
1	大韓國璽	龍鈕	天銀鍍金	疊篆(9疊)	1897. 9. 19	國書
2	皇帝之璽	龍鈕	天銀鍍金	疊篆(9疊)	1897. 9. 19	勳記
3	皇帝之寶	龍鈕	天銀鍍金	小篆	1887. 9. 17	親任官勅旨
4	皇帝之寶	龍鈕	玉	小篆	1897. 9. 19	親任官勅旨
5	皇帝之寶	龜鈕	玉	小篆	1897. 9. 19	親任官勅旨
6	制誥之寶	龍鈕	純金鍍金	小篆	1897. 9. 19	勅任官勅旨
7	勅命之寶	龍鈕	純金鍍金	小篆	1898. 윤3. 19	奏任官勅旨
8	勅命之寶	龍鈕	天銀鍍金	小篆	1897. 9. 20	加資陞六勅旨, 詔勅
9	欽文之璽	龍鈕	天銀鍍金	小篆	미상	御製鈐識, 頒賜書籍
10	大元帥寶	龍鈕	天銀鍍金	小篆	1899. 6. 22	軍令

4) 희소성

국새 「칙명지보(勅命之寶)」는 전해지는 문헌상으로 검증되었고, 양식적으로나 사용된 사례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형태·기법·재료 등의 측면에서 유사한 가치와 희소성을 지닌 대표적인 국새로 판단된다.

5) 명확성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에 수록된 국새 「칙명지보(勅命之寶)」의 기록 내용인 재질과 크기, 보면,紐의 도설 등이 모두 일치하여 진품으로 명확하게 증명된다. 특히 국새 「칙명지보(勅命之寶)」의 사용 용도를 살펴보았을 경우에 황제의 명령서에 날인되었다. 특히 관원 임명문서의 경우 1894년까지는 조선시대 법제에 따라 4품 이상 관원에게는 '교지(教旨)' 양식의 문서에 「시명지보(施命之寶)」가 사용되었고, 갑오개혁 이후 '칙명(勅命)' 양식의 임명문서에, 「대군주보(大君主寶)」가 한시적으로 사용되었다가 대한제국기에는 '칙명' 양식의 임명문서에 「제고지보(制誥之寶)」나 「칙명지보(勅命之寶)」가 관원의 품에 따라 구분되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6) 특이성

국새 「칙명지보(勅命之寶)」는 서체,紐식, 재질, 주물방식 등 대한제국 이전의 고종 대 국새 제작방식이 담겨진 현재로서는 유일한 유물이라는 점에서 특이성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국새 「칙명지보(勅命之寶)」는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내용 등을 종합하였을 때 문화재로서의 지정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을 수립하고 제작한 10과의 국새 가운데 하나이다. 대한제국이 제작한 국새는 국가의 운명과 함께 여러 수난을 겪었고, 현존하는 국새는 4과에 불과하다. 「칙명지보」는 대한제국은 물론 고종을 위시한 황실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유물이며, 공예, 서체, 전각 방면에서도 당대 최고 수준의 문화역량을 담은 문화재이다.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함이 마땅하며, 향후 미확인된 대한제국 국새의 발견을 위한 근거자료로써의 가치도 가진다.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보존과학 등 관계전문가 추가 실사 필요.

조사보고서



○ 형 식

칙명지보(勅命之寶)는 용모양의 손잡이[龍紐]와 보신(寶身)이 위치한 구조로 되어 있다. 보신 아래쪽 보면(寶面)은 9.1x9.1cm이고, 전체 높이는 8.3cm에 보주는 3.3x9.1cm의 크기이고, 무게는 2.74kg이다. 재료는 순은 재질에 도금을 했고, 보면에는 전문서사관 홍문관학사 민병석(閔丙奭)이 소전(小篆)으로 간일하게 쓴 ‘制誥之寶’를 1897년 9월 9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보장(寶匠) 전흥길(全興吉) 등 다수의 각색 장인들에 의해 제작되었다. 이 유물의 제작과정은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로서 등극하는 과정을 기록한 『대례의궤(大禮儀軌)』를 통해 대한제국의 국새로서 제작 일시와 제작 장소, 제작을 하기 위한 관리조직, 보전문의 서사관과 장인 및 재료 등 제작 전반에 대한 전말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이후 대한제국의 국새 전반의 현황을 기록한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를 통해 그 형태와 제원 및 실제 사용례를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이다.



○ 조성연대 : 1898년 윤3월 19일

○ 유물의 제작 배경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한 고종이 10월 12월 원구단에 제사를 드리고 황제로 즉위하는 대례 행사를 거행했고, 『대례의궤(大禮儀軌)』에는 그 전말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보새(寶璽)를 제작하기 위한 책보조성소는 태복사(太僕司)에 설치하였고, 총책임

자인 도제조는 의정부 의정 심순택(沈舜澤), 제조 3인은 궁내부 대신 민영규(閔泳奎), 장례원 경 김영수(金永壽), 농상공부 대신 정낙용(鄭洛鎔)이었다.

보새를 제작하는 시역은 1897년 9월 9일부터 시역하였고, 9월 13일 10과의 보문(寶文)은 전문서사관(篆文書寫官)인 홍문관학사 민병석(閔丙奭)이 소전(小篆)으로 썼다. <대한국새(大韓國璽)>, <황제지새(皇帝之璽)>, <황제지보(皇帝之寶)>, <칙명지보(勅命之寶)>, <제고지보(制誥之寶)>, <시명지보(施命之寶)>, <명헌태후지보(明憲太后之寶)>, <황후지보(皇后之寶)>, <황태자보(皇太子寶)>, <황태자비지보(皇太子妃之寶)> 중 3점은 옥보이고, 7점은 금보이다. 9월 17일에는 <황제지보(옥보)>를 비롯하여 <황후지보>, <황태자보>, <황태자비지보>는 먼저 완성하여 즉위의례를 거행하였다. <대한국새>를 비롯하여 <칙명지보>는 9월 19일에 완성되었다.

그런데 이 <칙명지보>는 1897년이 아닌 이듬해 1898년[戊戌] 윤3월 2일에 <칙명지보>와 <시명지보>의 보문 정본을 들고 있으며, 크기가 작은 <칙명지보> 1과와 <시명지보> 1과는 1898년 윤3월 19일에 완성하여 20일에 대내로 들이도록 하였다.

○ 유물의 재료

『대례의궤』에 의하면 책보조성소에 실제 금보 7과를 제작하기 위해 탁지부의 천은(天銀) 35근과 황금(黃金) 41근 12냥을 들였으며, 보새 1과를 도금하는 황금은 4돈, 수은 1냥 9돈, 땀은 1돈, 붕사 1돈 5푼, 비상 1돈이다. 이를 통해 <칙명지보>는 천은 위에 수은아말감기법으로 도금한 것이 확인된다. 『보인부신총수』에 의하면 <칙명지보>는 ‘천은도금’으로 기록되어 순은에 도금한 것을 알 수 있다.

○ 장인의 종별과 제작 기법

『대례의궤』에 의하면 <칙명지보>를 비롯한 7종의 금보를 제작한 장인들은 ‘보책조성시별단’에 의해 확인된다. 그중 금보를 제작한 장인들은 금장(金匠), 은장(銀匠), 주장(鑄匠), 보장(寶匠), 천혈장(穿穴匠), 소이장(召伊匠), 마경장(磨鏡匠) 등이다.

보장(寶匠)은 전흥길(全興吉), 전수명(全壽命), 전억만(全億萬), 전일만(全一萬)이다. 이들 전씨 장인들은 19세기 말 보인의 제작을 가업으로 세습한 장인 가문이었다. 전흥길의 활동시기는 1851년부터 1897년까지 47년간이며, 전수명은 1875년부터 1897년까지 22년간 금보를 제작한 보장이자 보소이장[조이장]이었다. 이들은 19세기 말 여러 도감에서 조선왕실의 보인이나 대한제국의 새보를 제작하였다.

한편 보면의 글씨를 새긴 소이장(召伊匠)은 김제당(金濟塘)과 전일득(田一得)이다. 표면을 매끈하게 갈아낸 마경장(磨鏡匠)은 유치혁(柳致赫)과 이구성(李九成)이다.

도금을 위해 금을 녹인 금장(金匠)은 김희영(金喜永), 안일성(安一成), 김후복(金厚福)이다. 은을 녹인 은장(銀匠)은 최종환(崔宗煥), 이완근(李完根)이다. 용뉴의 형태를 주물을 만든 주장(鑄匠)은 김원여(金元汝), 한치옥(韓致玉)이다. 이들 중 금장 김희영은 1885년부터 1907년까지 22년간 활동하는 동안 여러 도감에서 대부분 부금장(付金匠)이어서 국새를 제작할 때 도금을 했을 것이다. 주장 김원여는 1897년부터 1906년까지 9년간 유기장[鑄匠]으로도 활동하였다.

금속공예 장인들이 새보를 만드는 역할은 분업적으로 협업을 한다. 은장(銀匠)은 천은을 녹이고 용뉴와 보면을 뿔하고, 주장(鑄匠)은 용모양 손잡이[용뉴]를 밀납으로 형태를 만든 다음 백토로 만든 풍로 위 도가니 속에 녹여 만든다. 금장(金匠)은 황금을 수은과 붕사 및 비상으로 녹이는 수은 아말감기법으로 도금하는 역할을 한다. 보장(寶匠)은 용 형태를 각도(刻刀)로 새기고 쫄정(鬚釘)과 세정(細釘)으로 쪼아서 제작한다. 천혈장(穿穴匠)은 용의 배 부분의 구멍을 뚫어내는 역할을 한다. 소이장(召伊匠)은 보면(寶面)의 전각(篆刻) 부분을 쫄정(鬚釘)과 세정(細釘)으로 새긴다. 마경장(磨鏡匠)은 거친 숫돌[中礪石]이나 세밀한 숫돌[延日礪石] 및 오미자로 표면을 매끈하게 정리하는 작업을 한다.

○ 유물의 크기와 조선의 국새와 비교

고종대에 보새(寶璽)와 부신(符信)을 망라하여 수록한 장서각에 소장된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장3-567)를 통해 대한제국의 국새와 조선왕실의 보인을 확인할 수 있다.

	보새명	재료	뉴식	뉴대	서체	크기	제작시기
1	大韓國璽	天銀鍍金	龍鈕	있음	疊篆	方 3치 5푼	1897. 9. 19
2	皇帝之璽	天銀鍍金	龍鈕	있음	疊篆	方 3치 5푼	1897. 9. 19
3	皇帝之寶	天銀鍍金	龍鈕	없음	小篆	方 4치 2푼	1887. 9. 17
4	皇帝之寶	玉	龍鈕	있음	小篆	方 3치 4푼	1897. 9. 19
5	皇帝之寶	玉	龜鈕	있음	小篆	方 4치 2푼	1897. 9. 19
6	制誥之寶	純金鍍金	龍鈕	있음	小篆	方 4치 1푼	1897. 9. 19
7	勅命之寶	純金鍍金	龍鈕	있음	小篆	方 4치 1푼	1897. 9. 19
8	勅命之寶	天銀鍍金	龍鈕	없음	小篆	方 3치 4푼	1898. 3. 19

표 177 <보인부신총수>에 수록된 대한제국의 국새

대한제국의 국새는 조선의 국새와 전체적인 크기나 구조 등이 공통되나 여러 면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첫째, 대한제국의 보문(寶文)에서 비교된다. 조선의 보인에서 사용되는 ‘인(印)’자 대신 대한제국의 보새는 <대한국새>나 <황제지새>처럼 ‘璽’자를 비롯하여, <칙명지보>의 ‘勅’자와 같이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했다.

둘째, 뉴식에 있어 조선의 보인은 거북이형 귀뉴였으나, 대한제국에서는 용형 용뉴로 바뀌었다.

셋째, 대한제국 새보의 서체는 조선 보인의 서체보다 간결한 소전(小篆)으로 바뀌었다. 조선의 보인은 구첩의 첩전(疊篆)인데, <칙명지보>는 소전체를 사용한다.

넷째, 새보의 치수 중 정유년(1897)에 제작된 대한제국의 보새는 4치 1푼 내외로 조선의 보인보다 조금 컸으나, 무술년(1898)에 제작된 <칙명지보>는 3치 3푼으로 조선의 보인과 비슷한 편이다. 『보인부신총수』에 수록되어 있는 조선의 보인은 사방 3치 5푼 내외이나, 대한제국의 새보는 4치 1푼 내외이다. <칙명지보>의 경우 『대례의궤』와 『보인부신총수』에 치수가 수록되어 있다.

『대례의궤』	크기	실측 치수cm (2021.5.10. 실측)	
		무게	치수
重	四斤十二兩	무게	2.74kg
方	三寸三分	보신 가로*세로	9.08×9.12cm
厚	八分	보신 두께	2.10cm
篆刻郭廣	四分	전각곽 넓이	0.24cm
上有龍鈕 高	二寸三分	용뉴 높이	6.20cm
廣	一寸二分	넓이	2.61-3.33cm
龍頭 長并	三寸七分	용머리 길이	9.42cm
鈕臺 方	二寸六分	뉴대 가로*세로	8.26×8.30cm
厚	二分	뉴대 두께	0.51cm

표 178 대례의궤의 치수와 2021.5.10 실측 치수

『대례의궤』에 의하면 <칙명지보>는 2과가 있는데, 그중 크기가 조금 큰 <제고지보>와 크기가 같은 것은 보신(寶身)은 사방 4치 1푼이다. 크기가 조금 작고 <시명지보>와 크기가 같으며 보신이 사방 3치 3푼이다.

본 유물은 크기가 작아 보신의 사방이 3치 3푼이고, 두께 8푼, 전각곽의 넓이 4푼, 위쪽 용뉴의 높이 2치 3푼, 넓이 1치 2푼, 용머리 길이 3치 7푼, 뉴대의 사방 2치 6푼, 뉴대의 두께 2푼이다. 이것을 실측한 결과, 보신의 가로*세로는 9.08x9.12cm, 보신의 두께는 2.10cm이다. 전각곽의 넓이는 0.24cm, 위쪽 용뉴의 높이는 6.20cm, 용뉴의 넓이는 2.61-3.33cm, 용머리의 길이는 9.42cm, 뉴대의 가로*세로는 8.26x8.303cm, 뉴대의 두께는 0.51cm, 무게는 2.74kg이다.

『보인부신총수』에 의하면 <칙명지보>의 보신은 사방 3치 4푼, 보신[臺]의 높이는 7푼이다. 용뉴의 길이 3치 7푼, 용뉴의 너비 1치 2푼, 용머리의 높이 1치 9푼, 용의 몸체 높이 2치 3푼, 꼬리 높이 1치 9푼, 글씨 새긴 깊이 1푼, 글씨 외곽의 넓이 3푼이다.

○ 유물의紐式(紐式)

<칙명지보>는 손잡이의 모양은 용 형태로서 용뉴(龍紐)이다. 용머리에는 녹각뿔이 솟아있고 정수리에는 점문이 있다. 코에는 여의두문이 있고, 입을 벌리고 이빨 2개가 아래로 빠져나와 있고, 입 주위로 서기(瑞氣)가 보이며 여의주를 물고 있다. 몸 전체는 비늘이 덮였고, 등 위쪽의 비늘은 7개이며, 앞뒤 발톱은 각각 4개씩이다. 옆쪽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등을 위로 솟구쳐 반원을 그리며 배쪽으로는 구멍이 뚫려 있어, 여기에 다회로 꼬은 보수(寶綬)를 꿰게 되어 있으나 현재 보수는 없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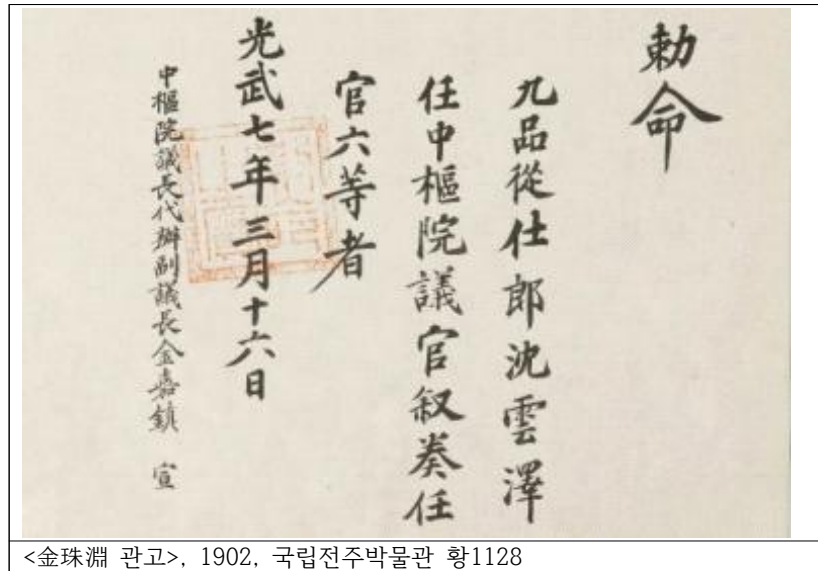
○ <칙명지보>의 사용례

『李朝璽寶印押符信制』(k3-575)에 수록된 바에 의하면 <칙명지보>의 용도가 구분되어 있다.

	보새명	재질	뉴식	사용처
1	大韓國璽	천은도금	용뉴	국서
2	皇帝之璽	옥	용뉴	훈기
3	皇帝之寶(3과)	백옥	귀뉴	칙임관 칙지
4	制誥之寶	순금	용뉴	칙임관 칙지
5	勅命之寶	순금	용뉴	주임관 칙지 가자승육칙지
6	勅命之寶	천은도금	용뉴	조칙
7	大元帥寶	천은도금	용뉴	

표 179 『李朝璽寶印押符信制』에 수록된 대한제국 국새의 용도

1903년 3월 16일 9품 종사랑이던 심운택(沈雲澤)을 중추원 의관에 임명하고 주임관 6등으로 서용하는 문서에 <칙명지보>가 찍힌 사례가 있다.



○ 문헌자료

『大禮儀軌』, 1897년 (ㄱ13486); “大禮儀軌 光武元年 丁酉 九月 日 寶冊造成所設于太僕司 大韓國璽一顆 天銀鍍金 皇帝之璽一顆 天銀鍍金 皇帝之寶三顆 一顆天銀鍍金二顆玉 勅命之寶二顆 一顆純金 一顆天銀鍍金 制誥之寶一顆 純金 施命之寶一顆 天銀鍍金 明憲太后之寶一顆 玉 皇后金冊一件 純金 皇后之寶一顆 純金 皇太子金冊一件 純金 皇太子寶一顆 純金 皇太子妃金冊一件 天銀鍍金 皇太子妃之寶一顆 天銀鍍金”

『大禮儀軌』, 1897년 (ㄱ13486) 時日; “丁酉九月初九日 始役 十三日 大韓國璽 皇帝之璽 皇帝之寶三顆 一顆金寶 二顆玉寶 勅命之寶 制誥之寶 明憲太后之寶 皇后之寶 皇太子寶 皇太子妃之寶 寶文正本入 奏.”

『大禮儀軌』, 1897년 (ㄱ13486) 時日; “十九日 大韓國璽 皇帝之璽 皇帝之寶二顆 一顆金寶一顆玉寶 勅命之寶 制誥之寶 明憲太后之寶 皇太子妃金冊 皇太子妃之寶 封裹 內入.”

『大禮儀軌』, 1897년 (ㄱ13486); “大禮儀軌 光武元年 丁酉 九月 日 寶冊造成所設于太僕司

大韓國璽一顆 天銀鍍金 皇帝之璽一顆 天銀鍍金 皇帝之寶三顆 一顆天銀鍍金二顆玉 勅命之寶二顆 一顆純金 一顆天銀鍍金 制誥之寶一顆 純金 施命之寶一顆 天銀鍍金 明憲太后之寶一顆 玉 皇后金冊一件 純金 皇后之寶一顆 純金 皇太子金冊一件 純金 皇太子寶一顆 純金 皇太子妃金冊一件 天銀鍍金 皇太子妃之寶一顆 天銀鍍金”

『大禮儀軌』, 時日; “丁酉九月初九日始役 十三日 大韓國璽 皇帝之璽 皇帝之寶三顆 一顆金寶 二顆玉寶 勅命之寶 制誥之寶 明憲太后之寶 皇后之寶 皇太子寶 皇太子妃之寶 寶文正本入 奏.”

『大禮儀軌』, 時日; “十九日 大韓國璽 皇帝之璽 皇帝之寶二顆 一顆金寶一顆玉寶 勅命之寶 制誥之寶 明憲太后之寶 皇太子妃金冊 皇太子妃之寶 封裹 內入.”

『大禮儀軌』, 時日; “戊戌閏三月初二日 勅命之寶 施命之寶 寶文正本內下 / 二十日 勅命之寶 施命之寶封裹 內入 堂上郎廳奉 寶腰輿俱儀仗陪進 內入.”

『大禮儀軌』, 甘結; “戊戌閏三月初二日 寶文正本 內下 敎是寘陪來本所時腰輿一部 細儀仗鼓 吹卽刻等待于 闕下事”/ “戊戌閏三月十九日 勅命之寶 施命之寶 造成 今二十日 內入是如乎腰輿一部 細儀仗鼓吹待令于本所事”

『大禮儀軌』, 圖說; <勅命之寶> “以天銀鑄成 各 重四斤十二兩 方三寸三分 厚八分 篆刻郭廣四分 上有龍鈕 高二寸三分 廣一寸二分 龍頭長并三寸七分 鈕臺 方二寸六分 厚二分 用禮器尺 腹下有橫穴 全體鍍黃金.”

『보인부신총수』 圖說; ‘<勅命之寶>“方三寸四分 臺高七分 龍鈕長三寸七分 廣一寸二分 頭高一寸九分 體高二寸三分 尾高一寸九分 刻深一分 郭廣三分”

○ 참고문헌

『大禮儀軌』, 1897년, 규13486.
 『寶印符信總數』, 장3-567
 『李朝璽寶印押符信制』, 장3-575.
 국립고궁박물관,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 황실 어보』, 국립고궁박물관, 2019.
 박성호, 「환수된 제고지보와 개화기의 국새 어새 제도」, 『고궁문화』13호, 국립고궁박물관, 2020.
 성인근, 『국새와 어보』, 현암사, 2018.
 성인근, 「조선시대와 대한제국기 國璽의 변화상」, 『고궁문화』13호, 2008.
 이경주, 「대한제국 국새의 제작과 활용」,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6.



○ 규 격 : 보뉴 3.3*6.2(cm), 보신 9.1×9.1cm, 높이 8.3(cm)

보인부신총수	크기	cm	비고
方	三寸四分	9.1×9.1cm	보신 가로×세로
臺高	七分	2.1cm	보신 높이
龍鈕長	三寸七分	9.4cm	용뉴 길이
廣	一寸二分	3.2cm	뉴 폭
頭高	一寸九分	5.1cm	용머리 높이
體高	二寸三分	6.2cm	뉴 높이
尾高	一寸九分	5.1cm	꼬리 높이
刻深	一分	0.2cm	글자 깊이
郭廣	三分	0.8cm	보곽 폭

대례의례	크기	cm	비고
方	三寸三分	9.1×9.1cm	사방
厚	八分	2.1	두께
篆刻郭廣	四分	1.0	곽광
上有龍鈕高	二寸三分	6.2	용뉴 높이
廣	一寸二分	3.2	넓이
龍頭長	三寸七分	9.4	용뉴 길이
鈕臺方	二寸六分	7.0	뉴대 사방
厚	二分	0.5	두께

- 무게 : 2.74kg
- 재질 : 천은도금(天銀鍍金)
 -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에는 천은도금(天銀鍍金)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조사자의 의견 또한 천은도금으로 판단된다.
 - 분석방법 : X-선형광분석기(XRF)에 의한 비파괴 성분(정성)분석
 - 분석결과 : 「칙명지보(勅命之寶)」는 은에 수은 아말감 금도금 한 것으로 판단됨.

유물명	분석 위치	Ag(Ka)	Au(La)	Hg(La)	Pb(La)	기타 검출원소	비고
칙명지보 (신수 241)	손잡이	36.41	51.11	12.37	-	Cr, Cu, Fe	은에 아말감 금도금
	인판	30.94	57.10	11.84	-	Cr, Cu, Fe	
	인주	88.85	<1.0	1.06	9.39	Ca, Fe, Ba	연단

- 형식 : 용뉴(龍鈕)
- 서체 : 소전(小篆)
- 용도 : 황제의 명령서에 날인
- 조성연대 : 1898년(광무 2) 윤3월 19일

○ 현상

손잡이는 용의 형태이며 인판 위에 등을 접어 웅크리고 있는 모양이다. 몸체는 물고기 비늘로 덮였고 등지느러미는 화염 형태같이 뾰족하게 7개가 묘사되어 있다. 정수리는 점문으로 표현하였으며, 뿔은 사슴의 뿔[鹿茸] 형태이고, 얼굴에는 갈기와 충수를 달았고, 귀는 소의 귀를 닮았고, 눈썹은 아미형태이고 눈은 굽은 음각 선으로만 표현했으며, 코는 여의두문 형태이다. 이뿔은 앞는 2개, 아랫니 2개이다. 입에는 여의주를 물고 있는 전형적인 용의 특징들은 갖추고 있다. 꼬리는 말 꼬리처럼 세 가닥으로 나뉘어져 몸체를 덮고 있다. 다리는 편한 자세로 발꿈치까지 인판에 밀착하고 서있는 자세이다. 앞발에는 발톱이 4개, 뒷발에도 발톱이 4개 이다.

○ 내용 및 특징

- 고종이 조선의 국왕에서 대한제국의 황제로 격상되면서 보인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고종이 황제로 즉위한 이후에 사용한 보인에 대해 정리한 책으로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가 있다. 이 책은 1900~1907년 사이에 편찬한 것으로 고종 황제는 물론이고 황후, 황태자, 황태자비, 황태손이 사용하던 보인이 차례로 정리되어 있다.
- 『보인소의궤(寶印所儀軌)』에 수록된 보인과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에 수록된 보인의 가장 큰 차이는 황제의 보인이 대폭 늘어났다는 점이다. 대한제국이 성립되었으므로 이를 상징하는 「대한국새(大韓國璽)」를 만들었고, 여러 종류의 「황제지보(皇帝之寶)」와 황제의 명령을 의미하는 「제고지보(制誥之寶)」, 「칙명지보(勅命之寶)」를 만들었다. 이들 보인의 손잡이는 모두 용 모양으로 만들어 외형상 황제의 보인임을 분명히 드러나게 하였다.
- 1897년(광무 1) 10월 고종은 원구단(圓丘壇)에서 황제로 즉위하였다.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개정하고 고종이 황제로 즉위한 것은 조공체계(朝貢體系)를 통해 중국의 번국(藩國)에 머물던 조선이 중국에서 완전히 분리된 독립 국가가 되었음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대한제국은 황제의 위격에 적합한 최고 수준의 보인을 갖추었던 것이다
- 「칙명지보」는 국새 가운데 하나이며 대한제국 황제의 명령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에 사용하였다.
- 「대원수보」는 군대 운영과 관련된 업무에 사용한 것이고, 「제고지보」는 고급 관원의 임명에 사용하였다. 「칙명지보」는 통신조서에 사용한 것이다.

○ 문헌자료

1)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



그림1. 보인부신총수에 수록되어 있는 칙명지보

- 2) 『대례의궤(大禮儀軌)』 : 1897년(광무1) 10월, 고종(高宗)이 대한제국(大韓帝國)의 황제(皇帝)로 즉위한 대례(大禮) 의식을 준비한 과정을 당시 보책조성소(寶冊造成所)에서 정리한 의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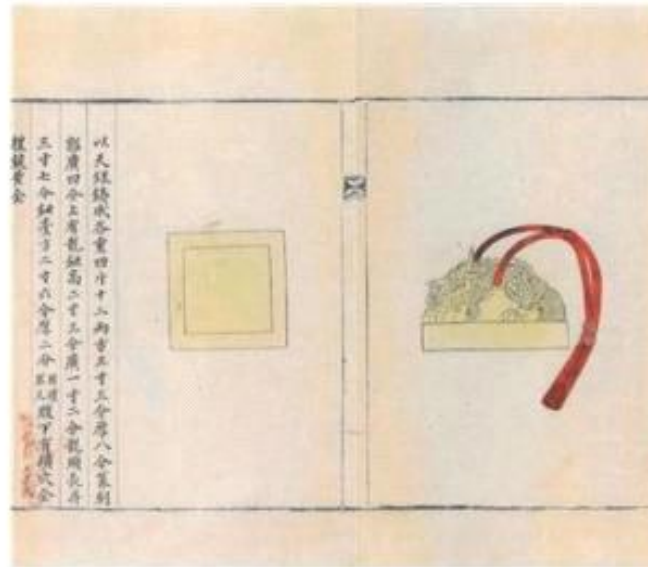


그림2. 대례의궤에 수록되어 있는 칙명지보

- 3)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 『고종실록』 36권, 고종 34년 11월 1일 양력 1897년 대한 광무(光武) 1년
 4) 국새 「칙명지보(勅命之寶)」 날인 문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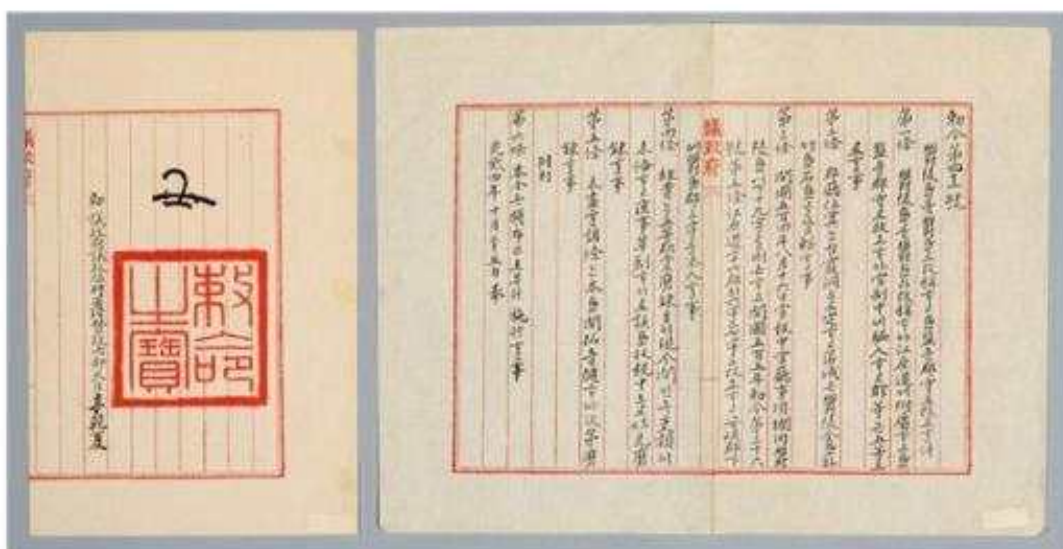


그림3. 1900년 10월 25일 울릉도 및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칙령 제41호에 날인된 칙명지보

○ 기 타

신문기사의 내용은, “舊韓國 말엽 나라를 상징, 모든 외교문서에 황제가 직접 날인하던 순금제의 ‘大韓國璽’를 비롯, ‘皇帝之寶’, ‘勅命之寶’(모두 3천7백여 돈쫌, 금값으로 따져 현시세로 5백 91만원)의 황금옥새와 ‘內閣之印’(銀製), ‘內閣總理大臣章’(銀製) 등 구한국정부의 권위를 상징한 국보급 유물 5점이 없어진 것을 최근에야 발견, 문화재관리의 소홀한 일면을 드러내고 있다. 국새가 없어진 사실은 文化財管理局 유물진열을 맡고 있는 朴鎭柱씨가 문헌에 의존, 大韓國璽의 소재를 찾다가 밝혔는데 이 국새들은 1910년(隆熙 4년) 일본이 강탈해간 것을 해방직후 정부가 「맥아더」사령부와 교섭, 8점을 되찾아서 總務處에서 직접 보관, 국민에게 그 귀중함을 인식시키기 위해 1949년 1월 국립박물관에서 전시회를 가진 일도 있다. 그후에도 총무처가 계속 보관, 6·25사변을 겪었는데 휴전후 8점의 국새 가운데 현재 국립박물관에 보관중인 것은 ‘大元帥寶(金製), ‘制誥之寶’(金製), ‘勅命之寶’(銀製) 등 3점만을 지난 1954년 6월 慶南 도청 금고에서 찾았을 뿐 가장 중요한 전기 5점은 행방이 묘연한채 총무처엔 근거 서류마저 일체 보관 않고 있다. 이 국새를 보관했어야할 文化財管理局은 ”그당시 총무처가 주관, 전람당시 전시기일을 좀더 연장하자는 제의도 거절, 곧 가져가버려 그후 소식은 모른다“고 말하고 있으며 총무처당국은 ”총무처에서 보관했었다는 말은 들었으나 그 당시 인계·인수가 어떻게 됐었는지 지금은 근거서류도 안남아 알 길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어 문화재관리가 얼마나 소홀했던가를 말해주고 있다. 괴뢰군이 가져갔다는 설도 있지만 휴전 후 3점이 慶尙道에서 나온 점으로 보아 개인 손에 들어갔거나 외국으로 흘러나갔기 쉽다는 설이 짙다. (중략) 국립박물관장 金載元 박사의 말 “사변 직전 전람회를 끝낸 후 총무처에서 곧 가져가버려 그 후엔 아는 바 없다. 없어졌다면 우리문화재의 막대한 손실이다.” 문화재관리국 유물담당 朴鎭柱씨의 말 “최근 유물 전시회를 갖기 위해 ‘대한국새’의 소재를 찾다가 없어진 사실을 비로소 알았다. 3점의 국새가 나온 것으로 보아 괴뢰군이 가져간 것은 아니다. 이 국새들만은 꼭 찾아야한다.” 前총무처 문서계원 盧慶鎬씨의 말 “총무처가 보관했었으나 피난당시 누가 맡았는지 알 길이 없다. 다만 종전 후 3점의 국새가 慶南도청 금고에 있는 것을 인수해 국립박물관에 인계해준 사실은 있다.” 총무처 문서계장 閔京植씨의 말 “국새에 대한 현물과 근거서류 일체가 없어 전혀 알 수 없다.” 고 하였다.

○ 국새 「칙명지보(勅命之寶)」 사진

	
<p>보인부신총수에 수록된 칙명지보 그림</p>	<p>칙명지보 사진</p>



칙명지보 보문

□

○ 현 상

1) 규 격

실 측

유물 번호(구)		유물 번호(신)	신수 241
보문내용	勅命之寶	글자수/행	4자 2행
분류	국새	재질	은에 수은 아말감 금도금
수여시기		제작시기	1897년 9월 20일
무게	2.74kg	크기(전체높이)	8.30
보신 크기 가로*세로*높이	9.08*9.12*2.10	보뉴 크기 가로*세로*높이	용뉴폭 2.61*3.33 용뉴길이 8.26~9.42 용뉴 높이 6.20
미고	2.79	글씨	3.2*3.6 / 3.53*3.40
보곽 폭	0.80	보문 두께	0.32, 0.36
보문 깊이	0.24	보뉴 형태	용뉴(龍鈕)
보뉴 문양	비늘	정수리	점문
귀뉴 형태	용(龍)	녹각(鹿角)	2개 있음
귀(耳)	있음	아미(蛾眉)	있음
눈(龍眼)	1선	코(龍鼻)	여의두문
이빨(齒)	위2/ 아래 2	용염(龍鬚)	있음
서기(瑞氣)	있음	용주(龍珠)	있음
용린(龍鱗)	있음	꼬리(尾)	하향 3미
발톱(龍爪)	4/ 4	등 용비늘	7개
인문서체	소전체	인문형태	양각, 방인

『보인부신총수』 기재 크기

구분	크기	cm	비고
方	三寸四分	9.1×9.1cm	보신 가로×세로
臺高	七分	2.1cm	보신 높이
龍鈕長	三寸七分	9.4cm	용뉴 길이
廣	一寸二分	3.2cm	뉴 폭
頭高	一寸九分	5.1cm	용머리 높이
體高	二寸三分	6.2cm	뉴 높이
尾高	一寸九分	5.1cm	꼬리 높이
刻深	一分	0.2cm	글자 깊이
郭廣	三分	0.8cm	보곽 폭

『대례의궤』 기재 크기

구분	크기	cm	비고
方	三寸三分	9.1×9.1cm	사방
厚	八分	2.1	두께
篆刻郭廣	四分	1.0	곽광
上有龍鈕高	二寸三分	6.2	용뉴 높이
廣	一寸二分	3.2	넓이
龍頭長	三寸七分	9.4	용뉴 길이
鈕臺方	二寸六分	7.0	뉴대 사방
厚	二分	0.5	두께

○ 내용 및 특징

대한제국이 제작한 10과의 국새 가운데 하나이다. 대한제국은 2과의 「칙명지보」를 제작했다. 첫째, 주임관칙지(奏任官勅旨)에 찍는 1과와, 가자승육칙지(加資陞六勅旨)와 조칙(詔勅)에 찍는 1과이며, 해당 유물은 후자에 해당한다. 고위관원의 품계를 올려주거나, 참하(參下)의 품계(品階)에서 참상(參上)의 품계로 올려줄 때 내려주는 문서에 찍었다. 또한 황제가 신하에게 내려주는 문장에도 사용한다고 규정하였다.

대한제국 국새 일람

No	보명	뉴식	재질	서체	제작시기	사용처
1	大韓國璽	龍鈕	天銀鍍金	疊篆(9疊)	1897. 9. 19	國書
2	皇帝之璽	龍鈕	天銀鍍金	疊篆(9疊)	1897. 9. 19	勳記
3	皇帝之寶	龍鈕	天銀鍍金	小篆	1887. 9. 17	親任官勅旨
4	皇帝之寶	龍鈕	玉	小篆	1897. 9. 19	親任官勅旨
5	皇帝之寶	龜鈕	玉	小篆	1897. 9. 19	親任官勅旨
6	制誥之寶	龍鈕	純金鍍金	小篆	1897. 9. 19	勅任官勅旨
7	勅命之寶	龍鈕	純金鍍金	小篆	1897. 9. 19	奏任官勅旨
8	勅命之寶	龍鈕	天銀鍍金	小篆	1898. 윤3. 19	加資陞六勅旨, 詔勅
9	欽文之璽	龍鈕	天銀鍍金	小篆	미상	御製鈴識 頒賜書籍
10	大元帥寶	龍鈕	天銀鍍金	小篆	1899. 6. 22	軍令

대한제국 국새의 이동과 유실상황

No	寶名	1911년 순종실록의 기사	1946년 조선일보 기사	1948년 과도정부사무 인계서	1949년 특별전시 도록	현재 유실여부 (소장기관)
1	大韓國璽	○	○	○	○	유실

No	寶名	1911년 순종실록의 기사	1946년 조선일보 기사	1948년 과도정부사무 인계서	1949년 특별전시 도록	현재 유실여부 (소장기관)
2	皇帝之璽					유실
3	皇帝之寶					유실
4	皇帝之寶	○	○	○	○	(국립고궁박물관)
5	皇帝之寶					유실
6	制誥之寶	○	○	○	○	(국립전주박물관)
7	勅命之寶	○	○	○	○	유실
8	勅命之寶	○	○	○	○	(국립중앙박물관)
9	欽文之璽					유실
10	大元帥寶	○	○	○	○	(국립전주박물관)

「칙명지보」 또한 대한제국의 여러 국새처럼 한일강제병합 이후 1911년 총독부에 인계되어 일본 궁내청으로 들어갔고, 이후 미군정에 의해 한국으로 인계, 한국 전쟁기를 거쳐 현재에 전하고 있다.

본래 천은도금으로 제작하였으나 시간의 축적과 관리의 소홀로 도금이 상당히 벗겨지고 천은이 노출된 상태이다. 보면(寶面) 또한 후대의 알 수 없는 충격으로 글자와 변의 훼손이 가해진 상태이다. 「칙명지보」가 찍혀 있는 문서는 다수 남아있으며, 특히 『장서각소장 고문서대관 I-왕명, 상주』(한국학중앙연구원, 2010)에 상세하다.

○ 참고문헌

『고종실록』

『보인부신총수』(장서각 K3-0566)

『대례의궤』(장서각 K2-2626)

성인근, 『고종황제비밀국새』, 소와당, 2010.

성인근, 『한국인장사』, 다운샘, 2013.

성인근, 『국새와어보-왕권과 왕실의 상징』, 현암사, 2018.

『장서각소장 고문서대관 I-왕명, 상주』(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유물 사진



보면(寶面)



측면(側面)



정면(正面)



보면(寶面) 세부

14. 국새 대원수보 (國璽 大元帥寶)

가. 검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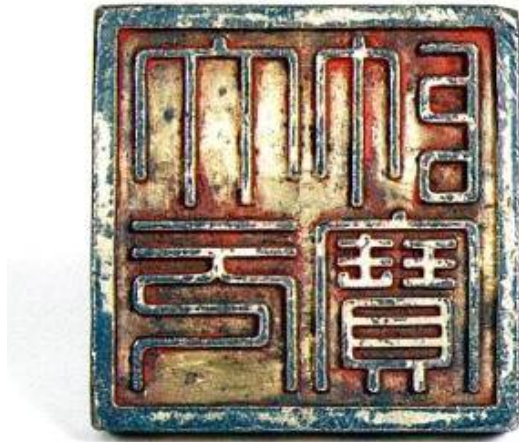
‘국새 대원수보’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립고궁박물관장이 보물 지정 신청한 ‘국새 대원수보’와 관련하여, 동종문화재 비교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국새 대원수보’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조사('21.2.24.)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 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국새 대원수보(國璽 大元帥寶)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 수 량 : 1과
- 규 격 : 전체 높이: 7.0cm, 무게: 1.61kg
보신(寶身) 크기 ①1단: 8.41×8.39×1.89cm, ②단: 6.90×6.96×0.40cm,
보뉴(寶紐) 크기: 1.9×7.3cm
- 재 질 : 은(수은 아말감 도금)
- 용 도 : 군인 임명서에 날인
- 형 식 : 용뉴(龍鈕)가 달린 정방형 인장
- 조성연대 : 1899년(광무 3) 6월 22일
- 환수시기 : 1946년 8월 15일 미군정이 총무처에 인계
1954년 6월 28일 총무처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이관



<국새 대원수보>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대원수보(大元帥寶)는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로 등극한 고종은 1899년 6월 22일 설치한 원수부(元帥府)를 설치하고, 원수부관제 제5조에 의해 3과의 <대원수보> 1과, <원수지보> 1과, <원수부인> 1과를 만든 것 중 1과이다. 첫째 이 유물은 『보인부신총수』에 의해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유물로서 제작시기와 사용처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둘째, 『보인부신총수』에 <대원수보>의 보도(寶圖)에 의해 형태와 재료 및 치수 등이 확인되고, 이 유물이 찍힌 문서가 다수 현존하여 대한제국 국새로서 학술적인 가치도 우수하다. 셋째 본 유물은 대한제국 국새로서 용모양의 용뉴인 점, 보면의 글씨체가 소전(小篆)인 점 등 같은 시기의 유물들과 양식적으로 일치하는 등 조형적 특징도 뛰어나다.

이처럼 <대원수보>는 재질은 천은도금이고, 용뉴의 받침인 유대[栗甘只]를 갖춘 대한제국의 국새로서 원형을 갖고 있으며, 고종황제가 군사적 실권을 갖고 강력한 군사력 강화를 통해 자주적인 개혁을 추진하고자 했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유물로서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지정 가치 있음)

1) 문화재 가치

국새 「대원수보(大元帥寶)」는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을 수립하고 제작한 10과의 국새 가운데 하나이다. 대한제국이 제작한 국새는 국가의 운명과 함께 여러 수난을 겪었다. 국새 「대원수보(大元帥寶)」는 대한제국기 고종의 황권강화에 대한 의지와,

외세변화의 상황에서 군대의 일원화된 체계를 세우고자 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상징적이고 역사적 유물이다. 예술적으로도 공예기술, 서체, 전각 방면에서도 당대 최고 수준의 문화역량을 담은 것으로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높다.

2) 문화재 상태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에 「대원수보(大元帥寶)」 도식이 수록되어 있어 실물과 비교해 보았을 때 국새 형태의 구성요소를 제대로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새의 재질과 크기, 보문에 새겨진 글자 등 보존상태 또한 양호한 편으로 판단된다.

3) 제작연대

국새 「대원수보(大元帥寶)」는 1899년 6월 22일 용뉴 형태로 천은도금으로 제작된 것이다. 글자의 모양은 소전체로 새겼으며 군임을 임명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이다. 대한제국 시기에 제작된 구새의 현황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연번	국새명칭	재질	뉴식	서체	제작시기	사용처
1	大韓國璽	天銀鍍金	龍鈕	疊篆(9疊)	1897. 9. 19	國書
2	皇帝之璽	天銀鍍金	龍鈕	疊篆(9疊)	1897. 9. 19	勳記
3	皇帝之寶	天銀鍍金	龍鈕	小篆	1887. 9. 17	親任官勅旨
4	皇帝之寶	玉	龍鈕	小篆	1897. 9. 19	親任官勅旨
5	皇帝之寶	玉	龜鈕	小篆	1897. 9. 19	親任官勅旨
6	制誥之寶	純金鍍金	龍鈕	小篆	1897. 9. 19	勅任官勅旨
7	勅命之寶	純金鍍金	龍鈕	小篆	1897. 9. 19	奏任官勅旨
8	勅命之寶	天銀鍍金	龍鈕	小篆	1897. 9. 20	加資陸六勅旨, 詔勅
9	欽文之璽	天銀鍍金	龍鈕	小篆	미상	御製鈐識, 頒賜書籍
10	大元帥寶	天銀鍍金	龍鈕	小篆	1899. 6. 22	軍令

4) 희소성

국새 「대원수보(大元帥寶)」는 천은도금(天銀鍍金)이며, 용뉴(龍鈕)의 형식이다. 보뉴(寶鈕)는 주조하여 조각을 정과 도자로 다듬었다. 보신(寶身)은 단조법으로 만들고 보문(寶文)은 금장(金章 - 銅章)의 각법으로 새겨 단조전각식(鍛造篆刻式)이다. 이와 같이 대원수보는 용의 형태와 단조전각식의 기법으로 제작하고 은에 아말감으로 금도금한 것으로 국새의 한 종류로서 희소성을 띤 것이라 할 수 있다

5) 명확성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에 수록된 국새 「대원수보(大元帥寶)」의 기록 내용인 재질과 크기, 보문, 뉴의 도설 등이 모두 일치하여 진품으로 명확하게 증

명된다. 특히 국새 「대원수보(大元帥寶)」의 사용 용도를 살펴보았을 경우에 1907년(융희 1) 8월 16일 황태자 은(垠)을 육군보병참위에 임명하는 문서에 순종 황제의 어압과 대원수보가 날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6) 특이성

국새 「대원수보(大元帥寶)」는 서체, 뉴식, 재질, 주물방식 등 대한제국 이전의 고종 대 국새 제작방식이 담겨진 현재로서는 유일한 유물이라는 점에서 특이성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국새 「대원수보(大元帥寶)」는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내용 등을 종합하였을 때 문화재로서의 지정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을 수립하고 제작한 10과의 국새 가운데 하나이다. 대한제국이 제작한 국새는 국가의 운명과 함께 여러 수난을 겪었고, 현존하는 국새는 4과에 불과하다. 「대원수보」는 대한제국기 고종의 황권강화에 대한 의지와, 외세변화의 상황에서 군대의 일원화된 체계를 세우고자 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상징적 유물이다. 유물로서도 공예, 서체, 전각 방면에서도 당대 최고 수준의 문화역량을 담은 문화재로서 가치가 높다. 보물로 지정하여 보전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보물로 지정예고함.

조사보고서

□

○ 형 식

대원수보(大元帥寶)는 용모양의 손잡이[龍紐]와 유대(鈕臺) 및 보신(寶身)이 위치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신 아래쪽 보면(寶面)은 8.41x8.39cm이고, 전체 높이는 6.9cm에 보뉴는 2.28x4.62cm의 크기이고, 무게는 1.61kg이다. 재료는 순은 재질에 도금을 했고, 보면에는 소篆(小篆)으로 간일하게 쓴 ‘大元帥寶’를 제작하였다. 이 유물은 1899년 6월 22일 고종이 원수부(元帥府)를 만들고, 제5조에 원수부의 어보(御寶)로 <대원수보> 1과, <원수지보> 1과, <원수부인> 1과를 만든 중 1과이다.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를 통해 이것의 재질은 천은도금이고, 방 3치이며, 용뉴의 받침인 유대[栗甘只]를 갖춘 대한제국의 국새로서 고종황제가 군사적 실권을 갖고 강력한 군사력 강화를 통해 자주적인 개혁을 추진하고자 했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유물이다.



○ 조성연대 : 1899년

○ 유물의 제작 배경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로 등극한 고종은 1899년 6월 22일 원수부를 설치하였다. 『고종태황제실록』이나 『관보』에 의하면, “대황제 폐하는 대원수(大元帥)로서 군기(軍機)를 총괄하고, 육해군(陸海軍)을 통령하며, 황태자 전하는 원수(元帥)로서 육해군을 일률적으로 통솔한다. 이에 원수부를 설치한다. (중략) 제5조 원수부의 어보(御寶)와 신장(信章)은 다음과 같다. <대원수보(大元帥寶)> 1, <원수지보(元帥之寶)> 1, <원수부인(元帥府印)> 1, 각국(各國)의 신장 각각 1이다.”

이를 통해 1899년 원수부에서 사용하기 위해 <대원수보> 1과, <원수지보> 1과, <원수부인> 1과를 제작한 것을 알 수 있으나, 제작일시나 제작장인과 관련된 정보는 알려져 있지 않다.

○ 유물의 재료와 제원

장서각에는 1903년 12월 5일부터 1907년 7월 사이에 편찬된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가 소장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고종대에 제작된 조선시대 보인과 함께 대한제국기에 제작된 보새(寶璽)와 부신(符信)을 망라하여 수록하고 있다.

그중 대한제국기에 제작된 국새 중 <대원수보>가 수록되어 있다.

	보새명	재료	뉴식	뉴대	서체	크기	제작시기
1	大韓國璽	天銀鍍金	龍鈕	있음	疊篆	方 3치 5푼	1897. 9. 19
2	皇帝之璽	天銀鍍金	龍鈕	있음	疊篆	方 3치 5푼	1897. 9. 19
3	皇帝之寶	天銀鍍金	龍鈕	없음	小篆	方 4치 2푼	1887. 9. 17
4	皇帝之寶	玉	龍鈕	있음	小篆	方 3치 4푼	1897. 9. 19
5	皇帝之寶	玉	龜鈕	있음	小篆	方 4치 2푼	1897. 9. 19
6	制誥之寶	純金鍍金	龍鈕	있음	小篆	方 4치 1푼	1897. 9. 19
7	勅命之寶	純金鍍金	龍鈕	있음	小篆	方 4치 1푼	1897. 9. 19
8	勅命之寶	天銀鍍金	龍鈕	없음	小篆	方 3치 4푼	1898. 3. 19
9	欽文之璽	天銀鍍金	龍鈕	없음	小篆	方 3치 5푼	
10	大元帥寶	天銀鍍金	龍鈕	없음	小篆	方 3치	1899.

표 193 <보인부신총수>에 수록된 대한제국의 국새

<대원수보>는 ‘천은도금’으로 기록되어 순은에 도금했는데, 전체적으로 대한제국의 국새의 특징이 발견된다.

첫째, 뉴식에 있어 조선의 보인은 거북이형 귀뉴였으나, <대원수보>는 대한제국 보새의 형식을 따라 용형 용뉴로 바뀌었다.

둘째, 뉴식의 아래 받침에 해당되는 뉴대[栗甘只]

셋째, 대한제국 새보의 서체는 조선 보인의 구첩전보다 간결한 소전(小篆)으로 썼는데, <대원수보>는 소전체이다.

넷째, 조선의 보인은 사방 3치 4푼 정도이고, 대한제국의 보새는 사방 4치 1푼 내외이나, 1899년에 제작된 <대원수보>는 사방 3치로 작은 편이다.

『보인부신총수』 크기		실측 치수cm (2021.5.10. 실측)	
方	三寸	보신 가로*세로	8.41×8.39cm
臺 高	七分	보신 높이	1.89cm
栗甘只 高	一分	뉴대 높이	0.40cm
邊 廣	四分	전각곽 넓이	0.24cm
龍鈕 長	二寸七分	용뉴 높이	7.30cm
頭 高	一寸五分	용머리 길이	4.05cm
體 高	一寸八分	용몸체 높이	4.62cm
尾 高	一寸一分	용꼬리 높이	2.9cm
刻 深	一分	글씨 깊이	0.4cm
郭 廣	二分	곽 넓이	0.5cm

표 194 『보인부신총수』의 치수와 2021.5.10 실측 치수

본 유물은 크기가 작아 보신의 사방이 3치 3푼이고, 두께 8푼, 전각곽의 넓이 4푼, 위쪽 용뉴의 높이 2치 3푼, 넓이 1치 2푼, 용머리 길이 3치 7푼, 뉴대의 사방 2치 6푼, 뉴대의 두께 2푼이다. 이것을 실측한 결과, 보신의 가로*세로는 9.08x9.12cm, 보신의 두께는 2.10cm이다. 전각곽의 넓이는 0.24cm, 위쪽 용뉴의 높이는 6.20cm, 용뉴의 넓이는 2.61-3.33cm, 용머리의 길이는 9.42cm, 뉴대의 가로*세로는 8.26x8.303cm, 뉴대의 두께는 0.51cm, 무게는 2.74kg이다.

○ 유물의紐式(鈕式)

<대원수보>는 손잡이의 모양은 용 형태로서 용뉴(龍紐)이다. 용머리에는 녹각뿔이 솟아있고 정수리에는 점문이 있다. 코에는 여의두문이 있고, 입을 벌리고 이빨 2개가 아래로 빠져나와 있고, 입 주위로 서기(瑞氣)가 보이며 여의주를 물고 있다. 몸 전체는 비늘이 덮였고, 등 위쪽의 비늘은 7개이며, 앞뒤 발톱은 각각 4개씩이다. 옆쪽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등을 위로 솟구쳐 반원을 그리며 배쪽으로는 구멍이 뚫려 있어, 여기에 다회로 꼬은 보수(寶綬)를 꿰게 되어 있으나 현재 보수는 없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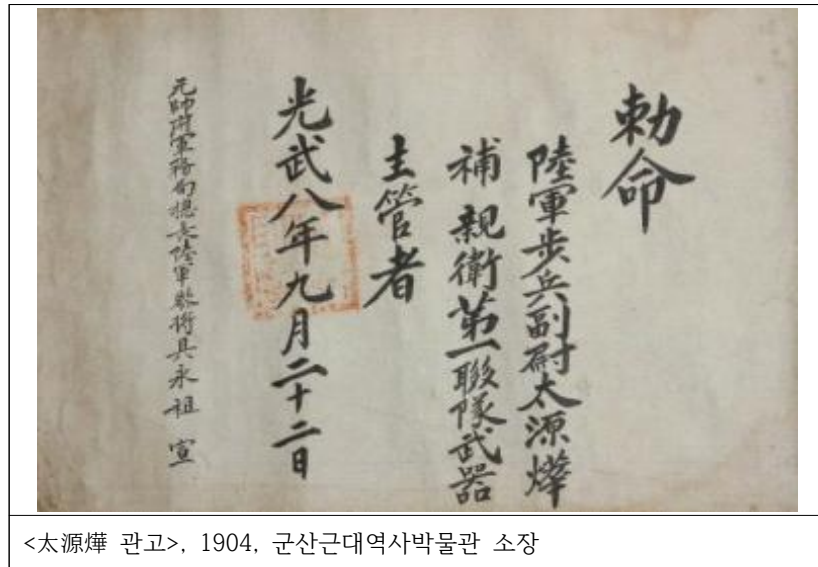
○ <대원수보>의 사용례

『李朝璽寶印押符信制』(k3-575)에 수록된 바에 의하면 <대원수보>의 용도가 구분되어 있다.

	보새명	재질	紐식	사용처
1	大韓國璽	천은도금	용뉴	국서
2	皇帝之璽	옥	용뉴	훈기
3	皇帝之寶(3과)	백옥	귀뉴	칙임관 칙지
4	制誥之寶	순금	용뉴	칙임관 칙지
5	勅命之寶	순금	용뉴	주임관 칙지 가자승육칙지
6	勅命之寶	천은도금	용뉴	조칙
7	大元帥寶	천은도금	용뉴	친위 무관의 임명

표 196 『李朝璽寶印押符信制』에 수록된 대한제국 국새의 용도

군산근대역사박물관에는 1904년 9월 22일 9품 태원엽(太源燁)을 친위 제1연대의 무기주관(武器主管)에 임명하는 문서에 <대원수보>가 찍힌 사례가 소장되어 있다.



○ 문헌자료

『官報』, 광무 3년(1899) 7월 6일(양력)

『高宗太皇帝實錄』, 고종 36년(1899) 6월 22일(음력) ; “詔曰: “以軍制事, 昨歲已有詔勅, 而因時制宜, 未合於時, 有未可膠守故常, 亦未可創新立異。 今各國軍制, 未必師古, 而其訓練操制之精嚴, 亦要不出乎古, 所以參互斟酌, 輯爲《元帥府規則》一編而頒下, 其各欽遵無違。” 元帥府官制。大皇帝陛下게옵서 大元帥이시니 軍機를 總攬ᄃᆡ사 陸海軍을 統領ᄃᆡ시고 皇太子殿下게옵서 元帥이시니 陸海軍을 一例統率ᄃᆡ사 元帥府를 設置ᄃᆡ심이라. <중략> 第五條, 元帥府御寶信章은 左와 如ᄃᆡ이다. 大元帥寶一, 元帥之寶一, 元帥府印一, 各局信章各一。”

『보인부신총수』寶圖 ; “<大元帥寶> 天銀鍍金 / 方三寸 臺高七分 栗甘只高一分 邊廣四分 龍鈕長二寸七分 頭高一寸五分 體高一寸八分 尾高一寸一分 刻深一分 郭廣二分”

○ 참고문헌

『관보』

『寶印符信總數』, 장3-567

『李朝璽寶印押符信制』, 장3-575.

국립고궁박물관,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 황실 어보』, 국립고궁박물관, 2019.

성인근, 『국새와 어보』, 현암사, 2018.

성인근, 「조선시대와 대한제국기 國璽의 변화상」, 『고궁문화』13호, 2008.

이경주, 「대한제국 국새의 제작과 활용」,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6.

□

○ 규 격

보뉴 1.9×7.3(cm), 보신 8.3×8.3cm, 높이 7.0(cm)

보인부신총수	크기	cm	비고
方	三寸	8.4×8.4cm	보신 가로×세로
臺高	七分	1.9cm	보신 높이
栗甘只高	一分	0.4cm	울각지 높이
邊廣	四分	1.0cm	뉴 폭
龍鈕長	二寸七分	7.3cm	용뉴 길이
頭高	一寸五分	4.0cm	용뉴 높이
體高	一寸八分	4.6cm	몸체 높이
尾高	一寸一分	2.9cm	꼬리 높이
刻深	一分	0.2cm	글자 깊이
郭廣	二分	0.5cm	보곽 폭

○ 무 계 : 1.61kg

○ 재 질 : 천은도금(天銀鍍金)

-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에는 천은도금(天銀鍍金)으로 기록되어 있다.
- 분석방법 : X-선형광분석기(XRF)에 의한 비파괴 성분(정성)분석
- 분석결과 : 「대원수보(大元帥寶)」는 은에 수은 아말감 금도금 한 것으로 판단됨.

유물명	분석 위치	Ag(Ka)	Au(La)	Hg(La)	Pb(La)	기타 검출원소	비고
대원수보 (신수 240)	손잡이	49.93	34.35	15.41	-	Cr, Cu, Fe	은에 아말감 금도금
	인판	18.49	59.74	21.66	-	Cr, Cu, Fe	
	인주	38.52	26.29	16.28	14.29	Ca, Fe, Ba	연단

○ 형 식 : 용뉴(龍鈕)

○ 서 체 : 소전(小篆)

○ 용 도 : 군인 임명

○ 조성연대 : 1899년(광무 3) 6월 22일

○ 현 상

손잡이는 용의 형태이며 2단의 인판 위에 등을 접어 웅크리고 있는 모양이다. 몸체는 물고기 비늘로 덮였고 등지느러미는 화염 형태같이 뾰족하게 7개가 묘사되어 있다. 정수리는 점문으로 표현하였으며, 뿔은 사슴의 뿔[鹿茸] 형태이고, 얼굴

에는 갈기와 충수를 달았고, 귀는 소의 귀를 닮았고, 눈썹은 아미형태이고 눈은 굽은 음각 선으로만 표현했으며, 코는 여의두문 형태이다. 이빨은 앞니 2개, 아랫니 2개이다. 입에는 여의주를 물고 있는 전형적인 용의 특징들은 갖추고 있다. 꼬리는 말 꼬리처럼 세 가닥으로 나뉘어져 몸체를 덮고 있다. 다리는 편한 자세로 발꿈치까지 인판에 밀착하고 서있는 자세이다. 앞발에는 발톱이 4개, 뒷발에도 발톱이 4개 이다.

○ 내용 및 특징

- 대한제국 선포 이후 육해군을 통솔한 원수부에서 대원수의 명으로 군무(軍務)에 사용한 국새이다.
- 대원수(大元帥)는 원수부(元帥府)의 수장으로, 국가의 전군(全軍)을 통솔하는 최고 계급을 지칭한다.
- 1899년(광무 3) 고종은 군제개편과 함께 「대원수보(大元帥寶)」와 「원수지보(元帥之寶)」를 제작하였다. 당시 원수부규칙(元帥府規則) 제1편을 발표하면서 황제인 고종이 대원수로서 군기(軍機)를 총람(總攬)하고 황태자인 순종이 원수로서 육해군을 통솔하면서 제작한 국새이다.
- 1899년 반포된 원수부규칙에 의하면 “대황제 폐하는 대원수로서 군기를 총람하고 육해군을 통령하며, 황태자 전하는 원수로서 육해군을 일률적으로 통솔한다. 이에 원수부를 설치한다.”고 전제하고, 제5조에서는 원수부의 국새와 신장(信章)을 제시하였는데, 「대원수보」·「원수지보」·「원수부인」 각 하나씩과, 각 국의 신장 각 하나씩이라고 하였다.
- 원수부의 각 국은 군무국(軍務局), 검사국(檢査局), 기록국(記錄局), 회계국(會計局)이며, 당시 원수부에서 군무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한 국새와 관인은 대원수인 고종 황제, 원수인 황태자 이척(李坫), 원수부 그리고 4개 국의 관인을 포함하여 모두 7과였음이 확인된다.
- 1897년에 대한제국이 수립되면서 국새로 「대한국새(大韓國璽)」, 「황제지새(皇帝之璽)」, 「황제지보(皇帝之寶)」, 「칙명지보(勅命之寶)」, 「제고지보(制誥之寶)」, 「시명지보(施明之寶)」, 「대원수보(大元帥寶)」, 「원수지보(元帥之寶)」 등을 제작, 사용하였다.

○ 문헌자료

- 1)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 : 대한제국 황실의 공용(公用)의 보인(寶印)과 부신(符信)을 그림과 함께 설명한 책. 1900년에서 1907년 사이에 편찬된 것임.



그림1. 보인부신총수에 수록되어 있는 대원수보

2)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 『고종실록』 36권, 고종 34년 11월 1일 양력 1897년 대한 광무(光武) 1년
- 『고종실록』 39권, 고종 36년 6월 22일(양력), 1899년 대한 광무(光武) 3년
- 『고종실록』 39권, 순종 4년 3월 3일 양력 1911년 일본 명치(明治) 44년

- 『일성록(日省錄)』 光武 3年 5月 15日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光武 3年 5月 15日
- <官報 光武 3年 7月 6日>
- <독립신문 光武 3年 7月 8日> 등에서 확인된다.

3) 국새 「대원수보(大元帥寶)」 날인 문서 :



그림2. 1907년(융희 1) 8월 16일 황태자 은(垠)을 육군보병참위에 임명하는 문서. 순종황제의 어압과 대원수보가 날인되어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 기 타

- 고종 13년(1877) 일본과 강화 수호조약을 체결할 시,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 으로서는 외국에 대한 체면이 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새로 「대조선국주상지보(大朝鮮國主上之寶)」 라는 금인(金印)을 주조(鑄造)하여 사용하였다. 이후 서양의 여러 나라와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되자 「대조선국보(大朝鮮國寶)」, 「대조선국대군주보(大朝鮮國大君主寶)」, 「대군주보(大君主寶)」 등의 국새를 제작하여 병용(併用)하였다.
- 1897년 대한제국(大韓帝國)을 수립하면서 황제국에 걸맞은 새로운 국새를 제작하였는데, 이때 제작한 국새는 「대한국새(大韓國璽)」, 「황제지새(皇帝之璽)」, 「황제지보(皇帝之寶)」(3과), 「제고지보(制誥之寶)」, 「칙명지보(勅命之寶)」(2과), 「흠문지새(欽文之璽)」, 「대원수보(大元帥寶)」 등 총 10과이다.
- 1910년 한일합방을 강제 체결한 일본은 약 6개월 후인 1911년 3월 3일 대한제국의 국새 가운데 상당수를 약탈해갔다. 『순종실록』에 의하면 이왕직 차관(次官) 고미야 사보마쓰(小宮三保松)가 “옛 국새(國璽)와 보새(寶璽)를 총독부에 인계했다.”는 기록이 있으며,³⁸⁾ 인계한 국새로는 「대한국새(大韓國璽)」 1과, 「황제지보(皇帝之寶)」 1과, 「대원수보(大元帥寶)」 1과, 「제고지보(制誥之寶)」 1과, 「칙명지보(勅命之寶)」 1과, 「칙령지보(勅令之寶)」 1과³⁹⁾로 기재되어 있다. 조선총독부에서 인계한 대한제국의 국새는 일본 천황에게 진상품으로 바쳐져 일본 궁내청에 보관하였다.
- 1945년 8월 15일 해방 1년 후인 1946년 8월 15일 미군정 맥아더 원수는 궁내청에 소장되어 있던 대한제국 국새를 모두 빼앗아 한국에 정식으로 인계하였다.⁴⁰⁾ 이때 반환된 국새는 「대한국새」, 「황제지보」, 「제고지보」, 「칙명지보」(2과), 「대원수보」로 조선일보 기사에 실려 있다.⁴¹⁾
- 당시 총무처에서는 1949년 2월 3일부터 10일간, 되찾은 국새를 대한제국 조약 문서들과 함께 국립박물관에서 특별 전시하였다. 이때 공개한 국새와 관인은 「대한국새」, 「황제지보」, 「대원수보」, 「제고지보」, 「칙명지보」, 「내각지인」, 「내각총리대신장」 등이다.⁴²⁾
- 전시회가 끝난 뒤 총무처에서 관리하였으나, 한국전쟁 때에 국새를 모두 유실하였다. 1954년 6월, 잃어버렸던 「대원수보」, 「제고지보」, 「칙명지보」 등 3과는 경남도청 금고에서 발견하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38) 『순종실록』, 1911년 3월 3일.

39) ‘칙령지보(勅令之寶)’는 대한제국 국새에 없는 것으로 2과의 ‘칙명지보’의 오기(誤記)로 보인다.

40) 중앙신문, 1946. 8. 16. 기사

41) 조선일보, 1946. 8. 15. 기사

42) 동아일보, 1949. 1. 25. 기사.

○ 국새 「대원수보(大元帥寶)」 사진



□

○ 규 격

실 측

유물 번호(구)		유물 번호(신)	신수 240
보문내용	大元帥寶	글자수/행	4자 2행
분류	국새	재질	은에 수은 아말감 금도금
수여시기		제작시기	1899. 6. 22
무게	1.61kg	크기(전체높이)	6.90
보신 크기 가로*세로*높이	1단 : 8.41*8.39*1.89 2단 : 6.90*6.96*0.40	보뉴 크기 가로*세로*높이	1.94*2.28*4.62 두고 : 4.05* 머리폭 1.76 두 밑부분 5.75~7.30
미고	2.9	글자크기	3.21*3.40 3.25*3.36
보곽 폭	0.5	보문 두께	0.21~0.27

보문 깊이	0.27	보뉴 형태	용뉴(龍鈕)
보뉴 문양	비늘	정수리	점문
귀뉴 형태	용(龍)	녹각(鹿角)	2개 있음
귀(耳)	있음	아미(蛾眉)	있음
눈(龍眼)	2선	코(龍鼻)	여의두문
이빨(齒)	위2/ 아래 2	용염(龍鬚)	있음
서기(瑞氣)	있음	용주(龍珠)	있음
용린(龍鱗)	있음	꼬리(尾)	하향 3미
발톱(龍爪)	4/ 4	등 비늘	6개 반
인문서체	소전체	인문형태	양각, 방인

『보인부신총수』 소재 크기

구분	크기	cm	비고
方	三寸	8.4×8.4cm	보신 가로×세로
臺高	七分	1.9cm	보신 높이
栗甘只高	一分	0.4cm	울각지 높이
邊廣	四分	1.0cm	뉴 폭
龍鈕長	二寸七分	7.3cm	용뉴 길이
頭高	一寸五分	4.0cm	용뉴 높이
體高	一寸八分	4.6cm	몸체 높이
尾高	一寸一分	2.9cm	꼬리 높이
刻深	一分	0.2cm	글자 깊이
郭廣	二分	0.5cm	보곽 폭

○ 제작배경과 현황

대한제국이 제작한 10과의 국새 가운데 하나이다. 1897년 2월 아관(俄館)에서 경운궁(慶運宮)으로 돌아온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를 반포해 자강(自強)을 꾀하는 동시에 근대적 개혁을 추진해 갔다. 이러한 자강의 의지를 바탕으로 1899년 군통수권을 장악하기 위해 원수부(元帥府)를 설치하였다. 즉, 군통수권자인 황제가 대원수(大元帥)로서 모든 군기(軍機)를 총괄하고 육해군을 통령하며, 황태자는 원수(元帥)로서 육해군을 하나로 통솔하기 위해 황궁(皇宮) 안에 원수부를 둔 것이다.⁴³⁾ 이 당시 관보에 의하면 「대원수보」 1과 외에 원수지보(元帥之寶) 1과, 원수부인(元帥府印) 1과를 비롯해 각국 인장 각 1과씩을 제작하였다고 기록하였다. 원수부에는 군무국(軍務局), 검사국(檢査局), 기록국(記錄局), 회계국(會計局)의 4국이 있었다.⁴⁴⁾ 따라서 당시 제작한 원수부 관련 국새와 관인

43) 『高宗實錄』, 卷 39, 36년 6월 22일.

44) 官報第 1528號, 「議政府總務局官報」, 光武 4年 3月 22日 木曜.

은 고종황제의 「대원수보」 1과, 황태자(순종)의 「원수지보」 1과, 「원수부인」 1과, 4국의 인장 각 1과로 총 7과인 셈이다. 현재 고종의 「대원수보」 외에 소재가 알려진 인장은 없다. 원수부는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에 의해, 1904년 9월 명목상의 관제로 남았는데, 그 해 말에는 원수부 자체가 폐지되면서 다시 모든 군령·군정권을 군부로 넘겨 황제권은 더욱 약화되었다.

대한제국 국새 일람

No	보명	뉴식	재질	서체	제작시기	사용처
1	大韓國璽	龍鈕	天銀鍍金	疊篆(9疊)	1897. 9. 19	國書
2	皇帝之璽	龍鈕	天銀鍍金	疊篆(9疊)	1897. 9. 19	勳記
3	皇帝之寶	龍鈕	天銀鍍金	小篆	1887. 9. 17	親任官勅旨
4	皇帝之寶	龍鈕	玉	小篆	1897. 9. 19	親任官勅旨
5	皇帝之寶	龜鈕	玉	小篆	1897. 9. 19	親任官勅旨
6	制誥之寶	龍鈕	純金鍍金	小篆	1897. 9. 19	勅任官勅旨
7	勅命之寶	龍鈕	純金鍍金	小篆	1897. 9. 19	奏任官勅旨
8	勅命之寶	龍鈕	天銀鍍金	小篆	1897. 9. 20	加資陞六勅旨, 詔勅
9	欽文之璽	龍鈕	天銀鍍金	小篆	미상	御製鈐識 頒賜書籍
10	大元帥寶	龍鈕	天銀鍍金	小篆	1899. 6. 22	軍令

대한제국 국새의 이동과 유실상황

No	寶名	1911년 순종실록의 기사	1946년 조선일보 기사	1948년 과도정부사무 인계서	1949년 특별전시 도록	현재 유실여부 (소장기관)
1	大韓國璽	○	○	○	○	유실
2	皇帝之璽					유실
3	皇帝之寶					유실
4	皇帝之寶	○	○	○	○	(국립고궁박물관)
5	皇帝之寶					유실
6	制誥之寶	○	○	○	○	(국립전주박물관)
7	勅命之寶	○	○	○	○	유실
8	勅命之寶	○	○	○	○	(국립중앙박물관)
9	欽文之璽					유실
10	大元帥寶	○	○	○	○	(국립전주박물관)

○ 이동경로와 현상

「대원수보」 또한 대한제국의 여러 국새처럼 한일강제병합 이후 1911년 총독부

에 인계되어 일본 궁내청으로 들어갔고, 이후 미군정에 의해 한국으로 인계, 한국 전쟁기를 거쳐 현재에 전하고 있다. 시간의 축적으로 일부 변색, 탈색이 있지만 제작 당시의 원형을 비교적 온전히 보존하고 있다. 용鈕(龍鈕)와 보면(寶面)의 문자 또한 결락(缺落) 없이 온전한 편이다.

「대원수보」가 찍혀 있는 문서는 다수 남아있으며, 특히 『장서각소장 고문서대관 I-왕명, 상주』(한국학중앙연구원, 2010)에 상세하다.

○ 참고문헌

『고종실록』

『보인부신총수』(장서각 K3-0566)

『대례의궤』(장서각 K2-2626)

성인근, 『고종황제비밀국새』, 소와당, 2010.

성인근, 『한국인장사』, 다운샘, 2013.

성인근, 『국새와어보-왕권과 왕실의 상징』, 현암사, 2018.

『장서각소장 고문서대관 I-왕명, 상주』(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보고 사항

15.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추진 분야별 소위원회 운영계획 보고

가. 보고사항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추진 분야별 소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나. 제안사유

- 분야별 동산문화재의 보물 지정 추진과 관련하여, 개별 사안의 적정성·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조사 대상 선정 등을 위해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소위원회(지정조사단 회의 포함)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소위원회 운영) ①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8조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정안건 또는 법 제8조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심의 권한을 위임받은 소위원회의 결정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 회의개요

회의명	회의예정일	회의내용	구성인원 (10명 내외)
동산분과위원회 제5차 소위원회	'21. 6. 16.(수)	색난(18세기 조각승) 제작 불교조각 지정조사결과 의견수렴 및 지정기준 논의	불교조각 분야 동산분과위원 및 전문위원
동산분과위원회 제7차 소위원회	'21. 6. 25.(금)	'경국대전' 및 '안동권씨세보' 등 조선법전 및 족보류 지정기준 설정 및 조사대상 선정	역사학·서지학 분야 동산분과위원 및 전문위원, 관계전문가
조선왕조 어보·어책 지정조사단 회의	'21. 6. 28.(월)	금년 하반기 어보어책 지정 추진 계획 및 방법 등 논의 (과학적 조사결과 검토 포함)	역사학·공예·서예·과학분석 등 분야별 동산분과위원 및 전문위원, 관계전문가

※ 제6차 소위원회는 지정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상변경 소위원회임

라. 향후계획

- 분야별 소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및 조사결과에 따른 본위원회 안건 상정('21. 하반기)

마. 의결사항

- 원안접수